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017-10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해설·요약 －

1976

외 교 부

| 일러두기 |

1. 외교사료해제집은 공개된 외교문서의 내용을 요약 수록한 것으로, 본 책자는 2007년에 공개된 1976년도 외교문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2. 각 문서철별 내용을 충실하게 요약·기술하고자 하였으며, 전반적인 흐름과 주요 내용을 집약함으로써 해당 문서철에 대한 최대한의 기본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3. 해제문은 각 외교문서철의 주제순(분류번호순)으로 수록하였으며, 각 해제문 첫머리에 문서철 제목, 생산연도, 생산과와 함께 마이크로필름(MF) 번호 및 면수 등의 정보를 표기하였다.
4. 문서철 제목은 생산 당시 사용했던 국가명, 용어 등을 그대로 표기하였고, 해제문은 현재 시점의 국가명으로 변경, 표기하였다.
5. 해제집은 목차, 본문, 부록(1976년 외교일지)으로 구성되었다.

1976년도

001	김순교 주방글라데시대사 장례식	28
002	임병직 전 외무장관 장례식	29
003	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의 개정	30
004	Kovacs Jones, Eduardo 주Valparaiso(칠레) 명예영사 임명, 1976.6.25.	32
005	Ronberg, Johannes 주Copenhagen(덴마크) 명예총영사 방한, 1976.5.23.-29.	33
006	Seeyave, Antoine A. 주Port Louis(모리셔스) 명예영사 임명, 1976.7.22.	34
007	주Guadalajara(멕시코) 명예영사의 권한 위임문제	35
008	주Arequipa(페루) 명예영사 임명 검토	36
009	주스페인 명예영사관 개관, 승격 및 폐쇄 문제	37
010	1976년도 북미지역 명예영사 활동 현황	38
011	주재관(국방무관) 파견 - 멕시코, 미얀마(구 버마) 및 싱가포르	39
012	김경수·이정일 주멕시코대사관 서기관 사망 및 장례식	41
013	외국 훈장 수령	42
014	김대중 납치사건	44
015	한국 국내 문제와 관련한 미국 의회 의원의 서한	45
016	한국 인권 문제와 관련한 제 사안	46
017	한국 인권관계 논문	47
018	3.1 민주 구국선언문 낭독사건, 1976.3.1. 전4권 (V.1 기본문서)	48
019	3.1 민주 구국선언문 낭독사건, 1976.3.1. 전4권 (V.2 언론반응 및 진정서)	49
020	3.1 민주 구국선언문 낭독사건, 1976.3.1. 전4권 (V.3 신문기사)	50
021	3.1 민주 구국선언문 낭독사건, 1976.3.1. 전4권 (V.4 각국 반응 및 조치 일람(자료))	51
022	김지하 시인에 대한 1976년도 노벨평화상 후보등록 문제	52
023	구주지역 국가 외무성 조직 및 인원 현황	54
024	의전실무편람 개정	55
025	대사파견 - 아르헨티나	57
026	대사파견 - 방글라데시	58
027	대사파견 - 벨기에	59
028	대사파견 - 바레인	60
029	대사파견 - 칠레	61
030	대사파견 - 카메룬	62
031	대사파견 - 중앙아프리카	63
032	대사파견 -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64
033	대사파견 - 덴마크	65
034	대사파견 - 인도	66
035	대사파견 - 인도네시아	67
036	대사파견 - 코트디부아르	68
037	대사파견 - 모로코	69
038	대사파견 - 멕시코	70
039	대사파견 - 노르웨이	71
040	대사파견 - 필리핀	72
041	대사파견 - 파나마	73
042	대사파견 - 사우디아라비아	74
043	대사파견 - 태국	75
044	대사파견 - 튀니지	76

045	대사파견 - 터키	77
046	대사파견 - 우간다	78
047	대사파견 - UN	79
048	대사부임 - 아프가니스탄	80
049	대사부임 - 아르헨티나, 1972-76	81
050	대사부임 - 아르헨티나, 1975-76	82
051	대사부임 - 호주	83
052	대사부임 - 오스트리아	84
053	대사부임 - 엘살바도르	85
054	대사부임 - 그리스	86
055	대사부임 - 이탈리아	87
056	대사부임 - 노르웨이	88
057	대사부임 - 뉴질랜드	89
058	대사부임 - 태국	90
059	대사부임 - 베네수엘라	91
060	영사위임장 발급	92
061	영사부임 - 브라질	93
062	영사부임 - 캐나다	94
063	영사부임 - 일본	95
064	명예영사 접수 - 중앙아프리카	96
065	명예영사 인가장(접수) - 요르단	97
066	명예영사 접수	98
067	무관접수 - 요르단	99
068	주한 한·미국 교육위원단 차량 면세구입 및 유류세 면세 문제	100
069	주한 대만(구 자유중국)대사관 도서관 건물의 목적 외 사용	101
070	영국 국방성의 거문도 소재 영국 해군묘지 토지 취득 허가 문제	102
071	가도미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정치국장(외상) 방한 초청 추진 검토	103
072	대미국 외교시책 및 업무계획	104
073	미국 Carter 신정부 수립 및 한·미국 관계	105
074	대미국 의회활동 계획 및 보고	106
075	일본의 대한 정책	107
076	중국(구 중공)·러시아(구 소련)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108
077	파나마의 대한 정책	109
078	러시아(구 소련)의 대외정책	110
079	미국의 대외정책	111
080	Ford, Gerald 미국 대통령 연두교서	112
081	MPLA(앙골라 해방인민운동) 승인 문제	113
082	한·대만(구 자유중국) 정부일반	114
083	한·칠레 정부일반	115
084	한·카메룬 정부일반	116
085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위한 주한 프랑스인의 부재자 투표	117
086	한·프랑스 정부일반	118
087	한·가봉 정부일반	119
088	한·그레나다 정부일반	120
089	한·인도 정부일반	121
090	한·이스라엘 정부일반	122
091	일본 내 좌익단체의 일본주재 한국공관 난입사건	123

092	일본 월간지의 한국 비방기사 게재	124
093	한국 관광 일본인 관광객 전염병 감염	125
094	한·일본 정부일반	126
095	한·일본 간 구 해저전선 문제	127
096	주자메이카 중국(구 중공)대사의 한국 및 이스라엘에 대한 차별적 발언	128
097	한·레바논 정부일반	129
098	한·레소토 정부일반	130
099	한·모로코 정부일반	131
100	한·네팔 정부일반	132
101	한·세네갈 정부일반	133
102	한·터키 정부일반	134
103	한·우간다 정부일반	135
104	한·영국 정부일반	136
105	한·미국 정부일반	137
106	미국 GEODSS(우주심층전자 자상관측소) 한국 내 설치 협조계획	138
107	미국 FBIS(해외방송정보과) 서울분국 설치	140
108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전5권 (V.3 하원 북한 인권 문제)	141
109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전5권 (V.4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1-4월)	142
110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전5권 (V.5 상원)	143
111	장상문 주멕시코대사 겸임국 온두라스 및 엘살바도르 출장, 1976.3.28.-4.8.	144
112	한유동 주우간다대사 겸임국 말라위 출장, 1976.7.3.-10. 및 9.14.-21.	145
113	Bigombe, Samson 일본 상주 주한 우간다대사대리 방한, 1976.1.27.-31.	146
114	강춘희 주뉴질랜드대사 겸임국 사모아(구 서사모아) 및 통가 출장	147
115	이규성 주싱가포르대사 관할국 브루나이 출장, 1976.11.28.-12.1.	148
116	최경록 교통장관 Lopez Portillo, Jose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76.11.27.-12.4.	149
117	문덕주 주유엔대사 수리남 독립기념식 참석, 1976.11.24.-25.	150
118	대동구권 [외교관] 직접접촉	151
119	Mulamba, Leonard 일본 상주 주한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 방한, 1976.1.17.-19.	152
120	Fraser M. 호주 수상 일본·중국(구 중공) 방문, 1976.6.15.-27.	153
121	미국·대만(구 자유중국) 관계	154
122	일본·중국(구 중공) 관계	156
123	중국(구 중공)·라오스 관계	158
124	뉴질랜드·중국(구 중공) 관계	159
125	중국(구 중공)·러시아(구 소련) 관계	160
126	싱가포르·중국(구 중공) 관계	162
127	미국·중국(구 중공) 관계	163
128	이집트·러시아(구 소련) 관계	165
129	에티오피아·러시아(구 소련) 관계	166
130	일본·러시아(구 소련) 관계	167
131	일본·미국 관계	168
132	일본·미국 정상회담. Washington, D.C., 1976.6.30.	169
133	일본·베트남 관계	170
134	미국·러시아(구 소련) 관계	171
135	세르비아-몬테네그로(구 유고슬라비아)·러시아(구 소련) 관계	172
136	사우디아라비아·미국 관계	173
137	사우디아라비아·중동 관계	174
138	우간다·미국 관계	175

139	미국·베트남 관계	176
140	국교수립 - 바레인, 1976.4.17.	177
141	한·중국(구 중공) 관계 개선	178
142	국교수립 교섭 - 이집트	179
143	국교수립 - 파푸아뉴기니, 1976.5.19.	180
144	한·러시아(구 소련) 관계	181
145	국교수립 - 세이셸, 1976.6.28.	182
146	재외공관 설치 - 바레인, 1976.6.28.	183
147	이규성 주싱가포르대사의 브루나이 총영사관 관할	184
148	재외공관 설치 - 볼리비아, 1976.7.6.	185
149	주Beirut(레바논) 통상대표부 대사 및 직원 철수	186
150	재외공관 설치 - 오만	187
151	재외공관 설치 - 파라과이, 1976.2.13.	188
152	재외공관 설치 - 카타르	189
153	재외공관 설치 - Las Palmas(스페인)총영사관, 1976.6.17.	190
154	재외공관 설치 - Atlanta(미국)총영사관, 1976.10.21.	191
155	주월남대사관 폐쇄에 따른 한국 정부 재산처리 문제	192
156	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대외관계 및 동남아 정세	193
157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 제1차. Bali(인도네시아), 1976.2.23.-24.	194
158	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상회의, 제9차. Manila, 1976.6.24.-26.	195
159	ASEAN(동남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 제2차. Kuala Lumpur, 1976.3.8.-9.	196
160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경제협력센터	197
161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실무회의, 제39차. 서울, 1976.11.5.	198
162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식량비료기금센터 실무회의. Taipei	199
163	OAS(미주기구) 총회, 제6차. Santiago(칠레), 1976.6.4.-18.	201
164	발칸제국 협력회의, 제1차. Athene, 1976.1.26.-2.5.	202
165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Brussels, 1976.7.12.-13.	203
166	NORDIC(북구협력기구) 이사회, 제24차. Copenhagen(덴마크), 1976.2.28.-3.4.	204
167	아랍정상회담, 제8차. Cairo, 1976.10.25.-26.	205
168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의, 전2권 (V.1 기본문서)	206
169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의, 전2권 (V.2 자료)	207
170	신정부 승인 - 아르헨티나, 1976.3.26.	208
171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209
172	미국 언론의 반한관계 기사 및 대책	210
173	베트남 역류 공관원 석방교섭(대태국)	211
174	주요인사 접촉기록	212
175	교황청(구 바티칸) 교황 메시지	213
176	Kissinger, Henry A. 미국 국무장관 연설문	214
177	함병춘 주미국대사 연설문	215
178	한·일본 외무장관회담. New York, 1976.9.28.	216
179	대일본 민간 청구권 보상 문제	217
180	대일본 민간 청구권 보상 문제(김형준)	218
181	아프리카·아랍(Afro-Arab) 외상급 회의. Dakar(세네갈), 1976.4.19.-22.	219
182	유럽 공산당대회, 제2차. Berlin, 1976.6.29.-30.	220
183	주일본지역 공관장회의, 1976년도 - 일본. 동경, 1976.2.28.	221
184	총영사회의, 1976년도 - 미국. New York, 1976.4.15.	222
185	공관장회의, 1976년도 - 미주지역. New York, 1976.4.12.-14. 전3권 (V.1 기본문서)	223

186	공관장회의, 1976년도 - 미주지역. New York, 1976.4.12.-14. 전3권 (V.2 공관 건의 및 조치)	224
187	공관장회의, 1976년도 - 미주지역. New York, 1976.4.12.-14. 전3권 (V.3 재외공관 자료)	225
188	공관장회의, 1976년도 - 중동·아프리카지역. Teheran(이란), 1976.2.13.-15. 전2권 (V.1 기본문서)	226
189	공관장회의, 1976년도 - 중동·아프리카지역. Teheran(이란), 1976.2.13.-15. 전2권 (V.2 회의자료)	227
190	공관장회의, 1976년도 - 아주지역. Manila(필리핀), 1976.3.12.-15. 전2권 (V.1 기본문서)	228
191	공관장회의, 1976년도 - 아주지역. Manila(필리핀), 1976.3.12.-15. 전2권 (V.2 회의자료)	229
192	공관장회의, 1976년도 - 구주지역. 서울, 1976.2.20.-3.6. 전4권 (V.1 기본문서)	230
193	공관장회의, 1976년도 - 구주지역. 서울, 1976.2.20.-3.6. 전4권 (V.2 회의록 및 신문기사)	231
194	공관장회의, 1976년도 - 구주지역. 서울, 1976.2.20.-3.6. 전4권 (V.3 부내 및 관계부처 자료)	232
195	공관장회의, 1976년도 - 구주지역. 서울, 1976.2.20.-3.6. 전4권 (V.4 재외공관 자료)	233
196	세르비아 - 몬테네그로(구 유고슬라비아) IUC(Inter University Center) 주최 세미나 및 학회 참가	234
197	미국 CAA(Council on American Affairs) 한국관계 세미나 및 자료	235
198	Geisel, Ernesto 브라질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236
199	Marcos, Imelda 필리핀 대통령 영부인 방한 초청계획	237
200	Mohamed Al-Faisal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초청계획	238
201	Idi Amin 우간다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239
202	Malietoa Tanumafili II 서사모아 국가원수 방한, 1976.8.22.-27.	240
203	Abd Mohamed Hegazy 전 이집트 수상 방한, 1976.4.13.	241
204	Gairy Eric, Matthew 그레나다 수상 방한, 1976.4.28.-5.2. 전2권 (V.1 기본문서)	242
205	Gairy Eric, Matthew 그레나다 수상 방한, 1976.4.28.-5.2. 전2권 (V.2 자료)	243
206	Amir Abbas Hoveyda 이란 수상 방한 초청계획	244
207	Jonathan, Leabua 레소토 수상 방한, 1976.5.27.-31. 전2권 (V.1 기본문서)	245
208	Jonathan, Leabua 레소토 수상 방한, 1976.5.27.-31. 전2권 (V.2 영접준비)	246
209	Ahmed Osman 모로코 수상 방한 초청계획	247
210	Muldoon, Robert David 뉴질랜드 수상 방한, 1976.4.18.-22. 전2권 (V.1 기본문서집)	248
211	Muldoon, Robert David 뉴질랜드 수상 방한, 1976.4.18.-22. 전2권 (V.2 공동성명서 및 연설문)	249
212	Rene, France Albert 세이셸 수상 방한 초청계획	250
213	박동진 외무장관 이란 방문, 1976.2.11.-12.	251
214	박동진 외무장관 일본 방문, 1976.6.9.-11.	252
215	박동진 외무장관 태국 방문, 1976.6.6.-8.	253
216	박동진 외무장관 미국 방문, 1976.4.7.-17.	254
217	윤하정 외무차관 아프리카지역 순방, 1976.5.1.-22.	255
218	박동진 외무장관 동남아 순방, 1976.3.9.-23. 전3권 (V.1 사전준비)	256
219	박동진 외무장관 동남아 순방, 1976.3.9.-23. 전3권 (V.2 결과보고)	257
220	박동진 외무장관 동남아 순방, 1976.3.9.-23. 전3권 (V.3 자료)	258
221	U Hla Phone 미얀마(구 버마) 외무장관 방한, 1976.10.25.-28.	259
222	Garcia Vespa, Hernando 볼리비아 외무차관 방한, 1976.8.8.-11.	260
223	Facio, Gonzalo J. 코스타리카 외무장관 방한, 1976.4.6.-10.	261
224	Franck, Antonio 중앙아프리카 외무장관 방한, 1976.8.1.-5.	262
225	Das, Bipinpal 인도 외무차관 방한, 1976.12.19.-22.	263
226	Ashari, Danudirdjo 인도네시아 외무차관 방한, 1976.5.7.-11.	264
227	Waiyaki, Munyua 케냐 외무장관 방한, 1976.8.21.-24.	265
228	Abdelhakim Housseyni Iraqui 모로코 외무차관 비공식 방한, 1976.2.9.-10.	266
229	Bodan Shields, Harry 니카라과 외무차관 방한 초청계획	267
230	Montiel Arguello, Alejandro 니카라과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268
231	Qays Abdul Monen Al-zawawi 오만 외상 방한, 1976.9.28.-30.	269
232	Kiki, Albert Maori 파푸아뉴기니 외무통상장관 방한, 1976.11.12.-17.	270

233	[Sheikh] Mohammed Ibrahim Masoud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담당국무상 서리 방한 초청계획	271
234	Minah, Francis Misheck 시에라리온 외무장관 방한, 1976.7.11.-15.	272
235	Caglayangil, Ihsan Sabri 터키 외무장관 방한, 1976.6.14.-18. 전2권 (V.1 기본문서집)	274
236	Caglayangil, Ihsan Sabri 터키 외무장관 방한, 1976.6.14.-18. 전2권 (V.2 자료집)	275
237	Kabore, Alfred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외무장관 방한 계획	276
238	Blanco, Juan Carlos 우루과이 외무장관 방한, 1976.10.30.-11.3.	277
239	Abdallah Al-Asnag 북예멘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278
240	김경원 대통령 특별보좌관 미국 및 캐나다 방문, 1976.4.26.-5.8.	279
241	대통령 특별보좌관 일본 방문	280
242	특별사절단 튀니지·모로코 방문, 1976.3.18.-27.	281
243	윤석헌 특사(주프랑스대사) 아프리카 순방, 1976.7.18.-8.14.	282
244	특별사절단 아프리카지역 순방, 1976.7.21.-31.	283
245	윤하정 특사 서남아 순방계획	284
246	이동원 특사(전 외무장관) 중동 순방, 1976.7.17.-8.1.	285
247	특별사절단 중남미 순방, 1976.7.16.-8.5.	286
248	특별사절단 중남미 순방, 1976.8.31.-9.23.	287
249	김경원 특사(대통령 국제정치담당특별보좌관) 북구 순방, 1976.9.5.-22.	288
250	Berrah, Ghoulem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특별보좌관 방한, 1976.11.3.-8.	289
251	Dey Ould Sidi Baba 모로코 특사(종교장관) 방한, 1976.5.19.-24.	290
252	B. Mohamed Idris 수단 특사(무임소장관) 방한, 1976.2.24.-27.	291
253	ENGULU Baangampongo Bokokele Lokanga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특사(정치담당장관) 방한, 1976.2.22.-26.	292
254	정일권 국회의장 이란 및 쿠웨이트 방문, 1976.1.28.-2.3.	293
255	국회의원 미국 방문	294
256	국회 한국전쟁 참전의원단 미국 방문, 1976.5.22.-6.3.	295
257	정일권 국회의장 동남아 순방, 1976.6.21.-7.1.	296
258	Sullivan, John 호주 하원의원 방한, 1976.4.9.-14.	297
259	De Vlies, Paul 벨기에·한 의원친선협회장 방한, 1976.7.14.-20.	298
260	브라질 국회의원 방한	299
261	콜롬비아 하원의장단 방한, 1976.6.8.-11.	300
262	프랑스 국회의원 방한	301
263	Gondjout, Paul 가봉 국회의장 방한, 1976.7.11.-16.	302
264	독일 국회의원 방한	303
265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방한	304
266	일본 사회당 대표단 방한 문제	305
267	Chaves, Juan R. 파라과이 상원의장 및 Saldivar, J. Augusto 하원의장 방한 초청계획	307
268	터키 국회의원 방한	308
269	영국 국회의원 방한	309
270	미국 의회 의원 보좌관 일행 및 전문위원 방한	310
271	미국 의회의원 방한	311
272	한·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	313
273	벨기에·한 의원친선협회 결성, 1976.3.16.	314
274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프랑스 방문, 1976.6.8.-15.	315
275	한·일본 및 일본·한 의원연맹 결성	316
276	한·일본 의원연맹 공동 간사회의. 동경, 1976.2.5.	317
277	최호중 국무총리 특사(외무부 경제차관보) 회지 방문, 1976.9.16.-21.	318
278	비동맹 실무교섭단 스리랑카 방문	319

279	정우영 외무부 방교국장 수단 및 동아프리카 순방, 1976.11.29.-12.15.	320
280	친선사절단 서남아 순방, 1976.4.2-27	321
281	최호중 외무부 경제차관보 중동 순방, 1976.11.27.-12.2.	323
282	실무조사단 중·서부 아프리카지역 순방, 1976.11.29.-12.15.	324
283	정무시(丁戀時) 대만(구 자유중국) 신문국장(공보부장관) 방한, 1976.10.14.-21.	325
284	캐나다 주요인사 방한	326
285	Anda, Perez 에콰도르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방한 계획	327
286	De Laboulaye, Francois Lefebvre 프랑스 외무성 정무차관보 방한, 1976.7.31.-8.2.	328
287	Fuchs, Jockel 독일 Mainz 시장 방한, 1976.8.8.-12.	330
288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 일본 상이군경 회장 방한, 1976.11.10.-13.	331
289	일본 외무성 주요인사 방한	332
290	Njonjo, Charles 케냐 법무장관 방한 계획	333
291	MUBARAK Jaber Ahmad Al-Sabah 쿠웨이트 수상 특별보좌관 방한, 1976.4.25.-5.2.	334
292	Subuhi, Mahmoud 리비아 대통령 고문 방한, 1976.5.19.-26.	335
293	Verkade, Iwan 네덜란드 외무부 아주국장 방한, 1976.11.22.-25.	336
294	Macki, Ahmed 주미국 오만대사(전 유엔대사 겸임) 방한, 1976.4.22.-29.	337
295	배의환 해외경제연구소 이사장의 폴란드 방문 추진	338
296	Montanaro-Sabino, Augusto 파라과이 내무장관 방한, 1976.4.10.-14.	339
297	Leifland, Leif 스웨덴 외무부 정무차관보 방한, 1976.9.5.-12.	340
298	Tan Boon Seng 싱가포르 외무부 정무차관보 방한, 1976.4.16.-19.	341
299	Pratt, Solomon Athanasius James 시에라리온 법무장관 방한, 1976.5.9.-15.	342
300	B. Mohamed IDRIS 수단 무임소장관 방한, 1976.12.1.-4.	343
301	우간다 회교사절단 방한, 1976.5.18.-28.	344
302	Cortazzi, Henry A. H. 영국 외무부 아주담당 차관보 방한, 1976.5.16.-20.	345
303	Boren, David L. 미국 Oklahoma 주지사 방한, 1976.9.28.-10.2.	346
304	Miller, Jack 미국 연방고등법원 판사 방한, 1976.6.8.-13.	347
305	미국지역 명예영사 방한	348
306	Lamaison, Alfredo 우루과이 국가비상회의 외교분과위원 방한, 1976.4.26.-5.4.	349
307	심명원 주라이베리아 대사 William R. Tolbert, Jr. 라이베리아 대통령 취임식(1976.1.4.) 참석	350
308	페루 주재 북한 통상대표부 직원의 밀수 문제	351
309	북한의 대외 폭력 혁명 수출	352
310	Podgorny, Nikolai 러시아(구 소련) 최고회의 의장 북한 방문, 1969.5.15.-19.	353
311	한국 문제 긴급 국제회의(반한국 세력 주동 집회). 동경, 1976.8.12.-14.	354
312	북한 동향	355
313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에 대한 홍보	356
314	대동구권 기본정책 및 관계개선 추진	357
315	비동맹 정상회의, 제5차. Colombo(스리랑카), 1976.8.16.-20. 전8권 (V.1 기본대책 I : 1-5월)	359
316	비동맹 정상회의, 제5차. Colombo(스리랑카), 1976.8.16.-20. 전8권 (V.2 기본대책 II : 6-7월)	361
317	비동맹 정상회의, 제5차. Colombo(스리랑카), 1976.8.16.-20. 전8권 (V.3 회의경과 I : 조정위 실무급회의, 외상회의)	362
318	비동맹 정상회의, 제5차. Colombo(스리랑카), 1976.8.16.-20. 전8권 (V.4 회의경과 II : 본회의)	363
319	비동맹 정상회의, 제5차. Colombo(스리랑카), 1976.8.16.-20. 전8권 (V.5 회의문서, 각국 연설문, 각국 대표단)	364
320	비동맹 정상회의, 제5차. Colombo(스리랑카), 1976.8.16.-20. 전8권 (V.6 각국 언론보도)	365
321	비동맹 정상회의, 제5차. Colombo(스리랑카), 1976.8.16.-20. 전8권 (V.7 국가별 지지교섭 I : 아주, 구주, 미주 지역)	366
322	비동맹 정상회의, 제5차. Colombo(스리랑카), 1976.8.16.-20. 전8권 (V.8 국가별 지지교섭 II : 중동, 아프리카 지역, 유엔대표부)	367

323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Algiers(알제리), 1976.5.30.-6.3.	368
324	비동맹 공보 심포지엄. Tunis(튀니지), 1976.3.26.-30.	369
325	비동맹 통신사 연합회의	370
326	미국 FMS(Foreign Military Sales) 차관에 의한 대여합정 구매	371
327	한·미국 간의 FMS(Foreign Military Sales) 차관협정	372
328	주한미군 철수(감축): 각국 반응	373
329	주한미군 철수(감축) 문제	374
330	바르샤바(Warsaw) 조약기구 정치자문위원회. Bucharest(루마니아), 1976.11.25.-26.	375
331	ANZUS(호주·뉴질랜드·미국에 의한 태평양 공동방위체) 이사회, 제25차. Canberra(호주), 1976.8.3.-4.	376
332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377
333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제113차 및 서명 10주년 기념행사	378
334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09-111차	379
335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Talking paper, 제113-115차	380
336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15차-116차	381
337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제105-109차	382
338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제110-112차	383
339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노무분과위원회 -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 관계	384
340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 주한미군용 및 비세출 자금기관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사용료 문제	385
341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공공구역 분과위원회	386
342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위원회	387
343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 분과위원회, 제33차 - 비무장지대(DMZ)내 대성동 관련 제문제	388
344	SOFA(주둔군지위협정) - 주한미군 적용 전력요율 문제	389
345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390
346	주한미군 APO(미국군사우체국) 문제	391
347	휴전협정 관계자료	392
348	주한 유엔군사령부(UNC) 연례 보고서	393
349	북한의 도발사건	394
350	북한의 판문점 집단 만행사건, 1976.8.18. 전6권 (V.3 미국의회 반응)	395
351	북한의 판문점 집단 만행사건, 1976.8.18. 전6권 (V.4 홍보활동 및 각국반응)	396
352	북한의 판문점 집단 만행사건, 1976.8.18. 전6권 (V.5 언론보도: 미국)	397
353	북한의 판문점 집단 만행사건, 1976.8.18. 전6권 (V.6 언론보도: 기타 각국)	398
354	한·모로코 군사협력	399
355	국제기구 분담금	400
356	각국의 유엔 가입	401
357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18 국내외 언론보도)	402
358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6 주유엔대표부 활동, 1976.2-8)	403
359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11 결의안 제출)	404
360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13 주유엔 북한대표부 동향)	405
361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15 대표단)	406
362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16 운영위원회 대책)	408
363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17 본회의)	409
364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18 위원회별 토의)	410
365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19 각국의 기조연설 중 한국 문제 발언 내용)	412
366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24 각국교섭 IV: 아주지역)	414
367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25 각국교섭 V: ASEAN)	416

368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26 각국교섭 VI: 미주지역)	417
369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27 각국교섭 VII: 구주지역)	419
370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28 각국교섭 VIII: 중동지역)	421
371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29 각국교섭 IX: 아프리카지역)	423
372	유엔경제사회기구 개편에 관한 회의, 제2-3차. New York	425
373	Waldheim, Kurt 유엔사무총장 선출	426
374	주유엔 코스타리카대사 방한	427
375	Moreno Martinez, Alfonso 주유엔 도미니카공화국대사 방한, 1976.5.20.-24.	429
376	Arita Quinonez, Roberto 주유엔 온두라스공사 방한, 1976.1.19.-24.	430
377	Ake, Simeon 주유엔 코트디부아르대사 방한, 1976.8.21.-27.	431
378	Simelane, J. L. F. 주유엔 스와질란드대사 방한, 1976.6.14.-21.	432
379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433
380	제31차 유엔의 날 기념 메시지	434
38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32차. Bangkok, 1976.3.24.-4.2. 전2권 (V.1 기본계획)	435
38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32차. Bangkok, 1976.3.24.-4.2. 전2권 (V.2 결과보고)	436
38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지역내 AIDB(개발은행협회) 설립을 위한 회의 참석 사전 준비자료	438
384	ESCAP/[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제1차. Bangkok, 1976.7.26.-28.	439
385	ESCAP/[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제2차. Bangkok, 1976.9.28.-30.	440
38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VMO(세계기상기구) 태풍위원회 회의, 제9차. Manila(필리핀), 1976.11.23.-29.	441
38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고용, 분배와 사회발전과 국제분업에 관한 국제회의, Bangkok, 1976.4.6.-9. ...	442
388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공업·주택 및 기술위원회, 제2차. Bangkok, 1976.8.31.-9.6.	443
38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무역위원회 회의, 제20차 및 무역협상단 회의, 제7차. Bangkok, 1976.11.2.-8. ...	444
39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운수·통신위원회, 제25차. Bangkok, 1976.10.12.-18.	446
39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운수·통신위원회 철도관 회의. Bangkok, 1976.7.6.-15.	447
39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천연자원위원회 회의, 제3차. Bangkok, 1976.9.21.-27.	448
39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통계위원회 회의, 제2차. Teheran(이란), 1976.12.12.-18.	449
394	Ordnung, Nikolaj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경제문제담담관 방한, 1976.4.11.-15.	450
395	Malhotra, Ram C.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DI(아시아개발연구원) 부원장 방한, 1976.6.13.-16.	451
396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제4차. Nairobi(케냐), 1976.5.3.-31. 전4권 (V.1 사전준비)	452
397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제4차. Nairobi(케냐), 1976.5.3.-31. 전4권 (V.2 결과보고)	453
398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제4차. Nairobi(케냐), 1976.5.3.-31. 전4권 (V.3 회의일정 및 Press Release) ...	455
399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제4차. Nairobi(케냐), 1976.5.3.-31. 전4권 (V.4 자료)	456
400	UNCTAD/TDB(무역개발이사회) 총회, 제16차. Geneva, 1976.10.5.-22.	458
40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특혜특별위원회, 제7차. Geneva, 1976.1.5.-16.	459
402	북한의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가입, 1973.7.24.	461
403	각국의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이사국 임후보 지지 요청	462
404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공업개발 상설위원회, 제7-8차 및 이사회 회의, 제10차. Vienna	463
405	UNDP(유엔개발계획)/ACDA(아시아개발행정센터) 사업 참여 및 황인정 교수 파견	464
406	UNICEF(유엔아동기금) 관련	465
407	UNFPA(유엔인구활동기금) 자금지원에 의한 인구의 해 행사	466
408	WFC(세계식량이사회)회의, 제2차, Rome, 1976.6.14.-17.	467
409	WFP(세계식량계획)/CFA(식량원조정책계획위원회) 회의, 제1-2차. Rome	468
410	WFP(세계식량계획) 분담금 서약회의, New York, 1976.2.4.	470
41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 특별회의, 제22차. Montreal(캐나다), 1976.10.19.-11.12.	471
412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이사회, 제36-37차. London	472
413	Srivastava, Chandrika Prasad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사무총장 방한, 1976.4.27.-29.	473

414	IAEA(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발전소 안전지침	474
415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20차. Rio de Janeiro(브라질), 1976.9.21.-29.	475
416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19차. Nairobi(케냐), 1976.10.26.-11.30.	477
417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역사적 유적지 보존 및 현대 환경과의 조화에 관한 정부 전문가회의. Warsaw(폴란드), 1976.2.9.-18.	478
418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청소년 체육 및 스포츠 관계 장관회의. 제1차. Paris(프랑스), 1976.4.5.-10.	479
419	북한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가입 및 상주대표부 설치	481
420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 및 극동지역 총회, 제13차. Manila, 1976.8.5.-13.	482
421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 제69차. Rome, 1976.7.12.-16.	484
422	FAO(유엔식량농업기구)/77그룹회의. Rome	485
423	FAO(유엔식량농업기구)/비료위원회 회의, 제3차. Rome, 1976.6.8.-11.	486
424	FAO(유엔식량농업기구)/CFS(세계식량안보위원회), 제1차. Rome, 1976.4.5.-9.	487
425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FO(산림위원회) 회의, 제3차 및 열대임업개발위원회 회의, 제4차. Rome	488
426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수산증식에 관한 기술회의. 교토, 1976.5.26.-6.2.	489
427	북한의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가입문제	490
428	FAO(유엔식량농업기구)/CGFPI(식량생산 및 투자협약단)	491
429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극동지역 농업통계위원회, 제6차. Manila(필리핀), 1976.3.25.-31.	492
430	FAO(유엔식량농업기구)/IPFC(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 회의, 제17차. Colombo(스리랑카), 1976.10.27.-11.5.	493
431	WHO(세계보건기구) 헌장 제7조 개정 및 총회 의사규칙 제70조 수정 문제	494
432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9차. Geneva(스위스), 1976.5.3.-23.	495
433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회의, 제27차. Manila(필리핀), 1976.9.6.-11.	496
434	WHO(세계보건기구) 월명 및 공산월남 특별원조를 위한 서태평양지역 특별회의. Manila(필리핀), 1976.3.30.-31.	497
435	각국의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가입	498
436	ITU(국제전기통신연합)/CCITT(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총회, 제6차. Geneva(스위스), 1976.9.27.-10.8.	499
437	한국의 UNFDAC(유엔약물남용통제기금) 납부	500
438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행사	501
439	IOE(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제44차. Paris, 1976.5.17.-22.	502
44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CCOP(아시아천해자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 회의, 제13차.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76.11.22.-12.6.	503
441	AOPU(아시아대양주우편연합) 집행이사회, 제2차. Pattaya(태국), 1976.11.1.-4.	504
442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운영협정 서명자 회의, 제4차. Singapore(싱가포르), 1976.4.6.-9.	506
443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가입국 총회, 제2차. Nairobi(케냐), 1976.9.27.-10.1.	507
444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이사회, 제23-25차. Washington D.C.(미국)	508
445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회의. 전2권 (V.1 제1차. London, 1975.4.23.-5.9.)	509
446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회의. 전2권 (V.2 제2-3차. London, 1976)	510
447	UNWTO(세계관광기구)/RTCPEA(태평양및동아시아지역위원회) 회의, 제2차. Manila(필리핀), 1976.4.22.-23.	511
448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극동지역사무소 대표 임명	512
449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이사회, 제18차. Manila(필리핀), 1976.5.17.-20.	513
450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28차. London, 1976.6.21.-25.	514
451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회의, 제11차. Rome(이탈리아), 1976.3.29.-4.9.	515
452	CIRDAP(아시아태평양지역 농촌종합개발센터) 설립 및 한국유치 문제	516
453	APU(아시아의원연맹) 이사회, 제20차. Taipei, 1976.9.3.-6.	517
454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63차. Madrid(스페인), 1976.9.22.-10.1.	518
455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8차. Mexico City(멕시코), 1976.4.19.-24.	519
456	A.I.(국제사면위원회의) 한국 인권 문제 보고서 제출, 1976.6월	520
457	WACL(세계반공연맹)	521
458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총회, 제8차. Teheran(이란), 1976.10.16.-23.	522

459	WEC(세계에너지협의회) 국제집행이사회. Abidjan(코트디부아르), 1976.10.11.-15.	523
460	ISO(국제표준화기구) 총회, 제10차. Geneva(스위스), 1976.9.20.-24.	524
461	LRCs(국제적십자사연맹) 집행위원회, 제91차. Geneva, 1976.10.29.	525
462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사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V.10 체결 요청 건의문 및 결의안, 1957-61) 1966.7.9. 서울에서 서명: 1967.2.9. 발효(조약 제232호)	527
463	한·미국 간의 기술자료 교환협정 부록 개정 528	528
464	미국·터키 간의 군원 및 기지 협정체결, 1976.3.26. 529	529
465	한·독일 간의 재정지원에 관한 협정, 1976.3.5.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68호) 530	530
466	한·일본 간의 통신시설 확장 및 총복선 복선화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협정, 1976.11.13. 서울에서 각서교환: 발효 (조약 제584호) 531	531
467	한·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V.1 체결교섭) 1974.12.20. Brussels에서 서명: 1976.9.3. 발효(조약 제583호) 532	532
468	한·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V.2 체결 및 공포) 1974.12.20. Brussels에서 서명: 1976.9.3. 발효(조약 제583호) 533	533
469	한·프랑스 간의 한국에 있어서의 프랑스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소급적용을 위한 협정, 1976.4.6. Paris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571호) 534	534
470	한·영국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76.3.4.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67호) 535	535
471	한·스위스 간의 정기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1975.12.15. Berne에서 서명: 1976.11.20. 발효(조약 제558호) 536	536
472	한·이란 간의 외교관 및 관공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협정, 1976.11.21. Teheran에서 각서 교환: 1976.12.21. 발효 (조약 제587호) 538	538
473	한·세이셸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교섭 539	539
474	한·베네룩스 간의 사증면제 협정을 수리남에 확대 적용하는 한·수리남 간의 약정, 1976.3.29. 및 8.3. 서울에서 각서 교환: 1976.8.3. 발효(외무부고시 제4호) 540	540
475	한·미국 간 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 개정 검토 541	541
476	한·파라과이 간의 이민협정 체결 교섭 542	542
477	한·아프가니스탄 간의 문화협정, 1976.11.22. Kabul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86호) 543	543
478	한·콜롬비아 간의 문화협정, 1967.7.27. Bogota에서 서명: 1976.7.14. 발효(조약 제577호) 544	544
479	한·캐나다 간의 평화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3권 (V.1. 1973-74) 1976.1.26.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63호) 545	545
480	한·캐나다 간의 평화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3권 (V.2. 1975.1-9월) 1976.1.26.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63호) 546	546
481	한·캐나다 간의 평화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3권 (V.3. 1975.10월-76) 1976.1.26.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63호) 547	547
48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과 응용을 위한 한국 원자력위원회·스페인 원자력위원회 간의 보충협정, 1976.12.10. 서명 ... 548	548
483	IAEA(국제원자력기구)·북한 간의 NPT(핵비확산조약) 협약 가입에 따른 안전조치협정 체결문제 549	549
484	한·이란 간의 상표권과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약정, 1976.2.12. Teheran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566호) 550	550
485	[평화식량법에 의한] 한·미국 간의 농산물 구매협정 551	551
486	한·감비아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교섭 552	552
487	한·이란 간의 무역협정, 1976.2.12. Teheran에서 서명: 1976.6.14. 발효(조약 제578호) 553	553
488	한·모로코 간의 무역협정, 1976.5.22.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75호) 554	554
489	한·뉴질랜드 간의 무역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76.4.20.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72호) 555	555
490	한·페루 간의 무역협정, 1974.3.19. Lima에서 서명: 1976.5.5. 발효(조약 제573호) 556	556
491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557	557
492	한·세네갈 간의 무역협정. 전2권 (V.1 교섭철) 1975.4.15. Dakar에서 서명: 1976.6.23. 발효(조약 제579호) 558	558
493	한·세네갈 간의 무역협정. 전2권 (V.2 체결철) 1975.4.15. Dakar에서 서명: 1976.6.23. 발효(조약 제579호) 559	559
494	한·태국 간의 무역협정의 부표 수정. 1976.12.14. Bangkok에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5호) 560	560

495	한·미국 간의 면직물,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개정. 1976.3.24. 및 4.1. Washington D.C.에서 각서 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2호)	561
496	한국과 벨기에 간의 창원직업훈련원을 위한 한·벨기에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V.1 1974-75) 1976.9.2.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81호)	562
497	한국과 벨기에 간의 창원직업훈련원을 위한 한·벨기에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V.2 1976.1-4월) 1976.9.2.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81호)	563
498	한국과 벨기에 간의 창원직업훈련원을 위한 한·벨기에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V.3 1976.5-9월) 1976.9.2.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81호)	564
499	한·캐나다 IDRC(국제개발연구센터) 간의 협정 체결에 관한 의견문의	565
500	한·독일 간의 한국 선급협회의 지원에 관한 약정, 1976.5.11. 서울에서 각서 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3호)	566
501	부산시 하수도 사업에 관한 한·독일 간의 기술협력을 위한 약정, 1975.10.14. 및 1976.1.7. 서울에서 각서교환 :1976.1.7. 발효(외무부고시 제1호)	567
502	한·인도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1976.3.5. 서울에서 서명: 8.30. 발효(조약 제582호) ·	568
503	한·이란 간의 노동 양해각서 체결교섭	569
504	한·일본 간의 대전직업훈련원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V.1 1973-75.10월) 1976.3.6.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69호)	570
505	한·일본 간의 대전직업훈련원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V.2 1975.11월-76) 1976.3.6.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69호)	571
506	한·일본 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약정, 1976.9.1. 서울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580호)	572
507	한·모로코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1976.5.22.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76호)	573
508	한·스페인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1975.7.14. Madrid에서 서명: 1976.3.17. 발효(조약 제570호)	574
509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76.11.22.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85호)	575
510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 문의 및 회신	576
511	무력분쟁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외교회의, 제3회기. Geneva, 1976.4.21.-6.11. 전2권 (V.1 사전준비)	577
512	무력분쟁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외교회의, 제3회기. Geneva, 1976.4.21.-6.11. 전2권 (V.2 결과보고)	578
513	CCC(관세협력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의 3개 부속협약 한국가입, 1976.1.21.	580
514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의 개발도상 회원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 [ESCAP 방콕협정] 한국가입, 1976.6.17. 전2권 (V.1 1975년도)	581
515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 회원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 [ESCAP 방콕협정] 한국가입, 1976.6.17. 전2권 (V.2 1976년도)	582
516	1966년도 적화출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의 수정	583
517	UPU(만국우편연합) 헌장 제2차 추가의정서[등] 한국 가입, 1976.1.1.	584
518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협약 및 동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적 추가의정서 한국 가입, 1976.1.22.	585
519	일본의 NPT(핵비확산조약) 가입	586
520	각국의 국제 식물보호협정 가입 및 정부간 협의회	587
521	1973년도 국제사탕협정의 연장에 관한 국제사탕이사회의 제1차 결의 한국가입, 1976.1.1.	588
522	1971년 소맥무역협약 3차 연장을 위한 의정서 한국 가입, 1976.7.1.	589
523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관한 일본의 입장	590
524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관한 미국의 입장	591
525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4회기. New York, 1976.3.15.-5.7. 전11권 (V.1 사전준비)	592
526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4회기. New York, 1976.3.15.-5.7. 전11권 (V.2 대책 및 기본 입장)	593
527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4회기. New York, 1976.3.15.-5.7. 전11권 (V.3 단일교섭안에 대한 의견)	595
528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4회기. New York, 1976.3.15.-5.7. 전11권 (V.4 대표단 보고)	596

529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4회기. New York, 1976.3.15.-5.7. 전11권 (V.5 유엔대표부 보고)	597
530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4회기. New York, 1976.3.15.-5.7. 전11권 (V.6 회의 경과 및 종합보고)	598
531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4회기. New York, 1976.3.15.-5.7. 전11권 (V.7 연설문)	599
532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4회기. New York, 1976.3.15.-5.7. 전11권 (V.8 회의록)	600
533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4회기. New York, 1976.3.15.-5.7. 전11권 (V.9 회의자료 I : 각국의 단일교섭안 개정안)	601
534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4회기. New York, 1976.3.15.-5.7. 전11권 (V.10 회의자료 II : 분쟁 해결)	602
535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4회기. New York, 1976.3.15.-5.7. 전11권 (V.11 회의자료 III : 제3위원회)	603
536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5회기. New York, 1976.8.2.-9.17. 전8권 (V.1 사전준비)	604
537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5회기. New York, 1976.8.2.-9.17. 전8권 (V.2 훈령 및 기본입장)	605
538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5회기. New York, 1976.8.2.-9.17. 전8권 (V.3 대책 및 단일교섭안에 대한 의견)	606
539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5회기. New York, 1976.8.2.-9.17. 전8권 (V.4 회의보고 I : 대표단 보고)	607
540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5회기. New York, 1976.8.2.-9.17. 전8권 (V.5 회의보고 II : 경과보고)	608
541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5회기. New York, 1976.8.2.-9.17. 전8권 (V.6 회의보고 III : 분쟁해결)	609
542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5회기. New York, 1976.8.2.-9.17. 전8권 (V.7 회의보고 IV : 제1-3 위원회)	610
543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5회기. New York, 1976.8.2.-9.17. 전8권 (V.8 회의자료)	611
544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4.5회기 관련 77그룹회의, New York	612
545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법률전문가 그룹회의(Informal Group of Juridical Experts). Geneva, 1976.1.26.-2.7.	613
546	상품의 국제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법전화 작업	614
547	아르헨티나·영국 간의 Falkland 군도 영유권 분쟁	615
548	엘살바도르·온두라스 국경분쟁	616
549	터키-그리스 간 Aegean Sea(에게해) 대륙붕 및 영공 분쟁	617
550	아이슬란드·영국 어업수역 분쟁	618
551	케냐·우간다 분쟁	619
552	중동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동 평화협상	620
553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해양법 소위원회 회의. New Delhi(인도), 1976.2.2.-6.	621
554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사무국 훈련생 파견	622
555	각국의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가입 신청	623
556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17차. Kuala Lumpur, 1976.6.28.-7.5. 전2권 (V.1 사전준비)	624
557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17차. Kuala Lumpur, 1976.6.28.-7.5. 전2권 (V.2 결과보고)	626
558	채규대 재미한국인 핀란드 주재 북한 대사관 망명	628
559	한·러시아(구 소련) 문화교류	629
560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행사	630
561	외국과의 자매도시 결연	631
562	Thayeb, Sjarif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장관 방한, 1976.2.2.-7.	632
563	언론인단 일본 방문	633
564	미국 Hawaii 대학 한국학연구소 건립	634
565	미국 대학의 한국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635
566	Blamo, J. Bernard 라이베리아 Liberia대학 총장 방한, 1976.7.15.-20.	636
567	이슬람교 한국 중앙성원 준공, 1976.5.21.	637
568	동구권 개최 비구기 종족 경기대회 참가	638
569	태권도 및 유도 사범 바레인 파견	639
570	태권도 사범 쿠웨이트 파견	640
571	일본·한 친선협회 대표단 방한, 1976.5.11.-15.	641
572	한·일본/일본·한 친선협회	642
573	시에라리온·한 친선협회	643
574	스위스·한 친선협회	644

575	구주지역 친한단체 활동 및 현황	645
576	에티오피아 경제동향	647
577	EC(구주공동체)지역 주재 공관협의체 운영	648
578	무역 및 경제협력의 다변화 방안: 북한 지지구 및 적경중립국 경제 진출 방안	649
579	한·이란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은행간 협력	651
580	한·대만(구 자유중국) 경제각료회담, 제11차. 서울, 1976.9.16.-18.	652
581	한·이란 각료 공동위원회, 제2차. Teheran, 1976.10.31.-11.3. 전2권 (V.1 기본문서)	653
582	한·이란 각료 공동위원회, 제2차. Teheran, 1976.10.31.-11.3. 전2권 (V.2 후속조치)	655
583	한·필리핀 노동장관 회담 개최 계획	656
584	한·독일 경제실무자 회담	657
585	한·일본 경제협력 실무자 회담	658
586	한·네덜란드 공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76.6.22.-23.	659
587	한·파라과이 혼성위원회, 제1-7차. Asuncion	660
588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76.8.16.-21. 전2권 (V.1 기본문서)	662
589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76.8.16.-21. 전2권 (V.2 후속조치 및 관계부처 자료)	663
590	한·벨기에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3차. 서울, 1976.5.9.-14.	664
591	아시아 노동장관 회의, 제6차. Teheran(이란), 1976.9.20.-24.	665
592	한·미국 간 경제관계 인사교류	666
593	경제실무사절단 레소토 방문, 1976.4.20.-5.19.	667
594	경제사절단 수단 방문, 1976.4.19.-22.	668
595	경제사절단 아프리카 및 중남미 순방, 1976.9.17.-10.7.	670
596	방글라데시 경제사절단 방한, 1976.7.21.-8.3.	671
597	레소토 경제사절단 방한, 1976.3.8.-12.	672
598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미국 및 서구순방, 1976. 5.12.-[23]	673
599	Morera Batres, Porfirio 코스타리카 재무장관 방한, 1976.9.27.-30.	674
600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675
601	Anane-Binfoh, K. 가나 재무차관 방한, 1976.10.10.-13.	676
602	말레이시아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677
603	Hisham Mohiddin NAZER 사우디아라비아 기획장관 방한, 1976.4.3.-7.	678
604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679
605	Hussain MANSOURI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성차관 방한, 1976.7.16.-20.	681
606	한국의 대피지 원조(무상원조)	682
607	한국의 대그레나다 원조(무상원조)	683
608	한국의 대과테말라 지진구호금 원조	684
609	대케냐 한국산 자전거 송달	685
610	한국의 대레바논 구호금 원조	686
611	한국의 대레소토 원조(무상원조)	687
612	한국의 대스와질란드 의료단 파견	688
613	한국의 대서사모아 및 통가 의료품 원조	689
614	한국의 대터키 지진 원조	690
615	한국의 대아프리카 무상원조 계획	691
616	한·미국 농산물 도입협정에 의한 미국 농산물 구입	692
617	영국의 고리1호기 원자로 건설을 위한 추가 차관도입	693
618	AID(미국국제개발처) 주택 개량사업 차관도입	694
619	EXIM BANK(수출입은행) 원자력발전소(고리2호기) 건설 차관 도입	695
620	EXIM BANK(수출입은행) 차관도입	696
621	벨기에의 상업차관도입	698

622	벨기에 핵연료 재처리 가공시설 사업 차관 도입	699
623	대사우디아라비아 건설업체 진출	700
624	한·호주 기술협력 사업	701
625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이집트 Cairo대학 간 기술협력 추진	702
626	한·프랑스 간의 아주공과대학 운영 및 장래 문제 협의	703
627	한·일본 과학기술장관회의 실무자 회의, 제6차. 동경, 1976.12.15.-19.	704
628	아프리카 파견 의료단 계약기간 연장	705
629	미얀마(구 버마) 산업시찰단 방한, 1976.5.31.-6.6.	706
630	대우간다 지하자원조사단 파견, 1975.10.8.-11.10.	707
631	Ueki, Shigeaki 브라질 광산동력성장관 방한, 1976.7.18.-20.	708
632	Kagule-MAGAMBO 우간다 자질 및 광산청장 방한, 1976.6.15.-20.	709
633	Abdul Mutaleb AL - KAZEMI 쿠웨이트 석유장관 방한, 1976.11.12.-15.	710
634	한·미국 원자력 협력	711
635	한·미국 원자력 협력 공동 상설위원회. Washington D.C., 1976.6.15.-16.	712
636	한·엘살바도르 어업협력	713
637	한·감비아 어업협력	714
638	원양물산(주)의 대그레나다 어업 합작투자	715
639	한·기네비소 어업협력, 1976.1.15.-22.	716
640	Abidjan(코트디부아르) 주재 한국 선원화관 설치, 1976.4.19.	717
641	일본 북해도 근해에서의 한국어선 조업문제	718
642	한·일본 어업 공동 규제수역 내 1976년도 어획량 및 출어선 척수 상호 통보	719
643	한·미주지역 국가 및 일본과의 어업협력	720
644	스페인령 사하라 어장 확보 문제	722
645	한·모리타니아 어업협력	723
646	한·파나마 어업협력	725
647	한·세네갈 어업협력	726
648	한·스페인 어업협력	727
649	한·수리남 어업협력	728
650	한·튀니지 어업협력	729
651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11차. 서울, 1976.7.26.-29.	730
652	한·일본 농림수산 기술협력위원회, 제8차. 서울, 1976.3.23.-26.	731
653	Soemita, William 수리남 농수산장관 방한, 1977.1.15.-20.	732
654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제31차. Manila, 1976.10.4.-8.	733
655	IMF(국제통화기금) 잠정위원회 및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개발위원회, 제5차. Kingston(자메이카), 1976.1.7.-10.	734
656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동남아그룹 국제통화 및 개발문제회의, 제8차.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76.7.1.-3.	735
657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 제9차. Jakarta(인도네시아), 1976.4.22.-24.	736
658	파라과이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	737
65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열대산품 그룹회의	738
66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8조에 의거한 계약국간 양허표 수정 및 철회교섭	739
66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협상대책	740
66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기타 그룹회의	742
66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관세그룹회의	743
66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NTM(비관세장벽) 소그룹회의	744
66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32차. Geneva, 1976.11.22.-24.	746
66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748

66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CG-18(18개국 자문단) 회의	749
66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 회의. Geneva, 1976.5.3.-7.	750
66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CPC(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의정서 참가국위원회) 회의	751
670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47-48차. Brussels(벨기에), 1976.6.14.-18.	752
671	CCC(관세협력이사회) 세관 집행업무에 관한 실무자회의, 제2-4차. Brussels(벨기에)	754
672	일본의 생사 수입제한 조치문제	755
673	미국 GSA(연방조달청) 보유 중석 방출계획	756
674	미국의 금속제 양식기 수입규제	757
675	각국의 수입규제 현황	758
676	각국의 수출지원 제도	759
677	핀란드의 한국산 특정 섬유류 수입 규제	760
678	한·가봉 종합백화점(유신백화점) 합작 설립 및 개관, 1977.12.8.	761
679	한·일본 통상	762
680	한·라이베리아 통상	763
681	한·폴란드 교역 추진	764
682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제7차. Canberra, 1976.3.18.-19.	765
683	한·벨기에 통상장관회담, 제2차. 서울, 1976.5.10.-14.	766
684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제7차, Wellington, 1976.3.15.-16.	767
685	한·태국 통상장관회담, 제2차. 서울, 1976.7.19.-22.	768
686	한·미국 상공장관회담, 제7차. 서울, 1976.5.22.-25.	770
687	한·호주 섬유류 쿼터 교섭. 전2권 (V.1 1974년도)	771
688	한·호주 섬유류 쿼터 교섭. 전2권 (V.2 1975-76년도)	773
689	한·오스트리아 [합섬양말·합섬셔츠] 쿼터 회담. Vienna, 1976.6.3.-4.	774
690	한·캐나다 섬유쿼터회담. Ottawa, 1976.6.7.-9.	775
691	EC(구주공동체)의 제3국산 양송이 통조림 수입규제 조치 및 철폐	776
692	EC(구주공동체)의 대한민국 Phase-out Programme 심의	777
693	한·독일 통상 실무자회의. 서울, 1976.5.31.-6.4.	778
694	한·인도 합동무역위원회, 제1차. 서울, 1976.12.17.-18.	779
695	한·일본 무역회담, 제13차. 서울, 1976.11.29.-30.	780
696	1976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781
697	한·노르웨이 섬유쿼터회담. Oslo(노르웨이), 1976.6.24.-25.	783
698	한·일본 무역확대 균형위원회, 제1차. 동경, 1976.10.4.	784
699	MFA(다자간섬유협정) 종합평가 및 장래문제 협의를 위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C(직물위원회) 회의, 제1차. Geneva, 1976.11.30.-12.10.	785
70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개발도상국간 MFA(다자간섬유협정)에 관한 협상회의. Bangkok, 1976.11.9.-10.	786
701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2권 (V.1 제1-4차)	787
702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2권 (V.2 제5-10차)	788
703	통상사절단 가봉 및 나이지리아 방문, 1976.1.19.-27.	789
704	에과도르 통상사절단 방한, 1976.7.18.-22.	790
705	프랑스 기업인단 방한, 1976.9.15.	791
706	가봉 경제(통상)사절단 방한, 1976.4.25.-30.	792
707	코트디부아르 통상사절단 방한계획	793
708	장예준 상공장관 필리핀 방문, 1976.3.10.-12.	794
709	Sallinger Rudolf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회장 방한, 1976.9.12.-16.	795
710	Barre, Raymond 프랑스 대외통상장관 방한, 1976.7.31.-8.2.	796
711	Slater, George H. 가나 국영무역공사장 방한 초청계획	797

712	Soliman A. SOLAIM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장관 방한, 1976.9.21.-28.	798
713	Haroun EL-AWAD 수단 통상장관 방한, 1976.12.8.-13.	799
714	Oztrak, Orhan 터키 관세 및 전매청장 방한, 1976.10.18.-22.	800
715	Yeutter, Clayton K. 미국 STR(특수무역대표부) 대사 방한, 1976.7.25.-27.	801
716	세르비아-몬테네그로(구 유고슬라비아)의 한국 선박 구매 추진	802
717	한국 인삼류 대만(구 자유중국) 수출	803
718	대이집트 선박건조 수출	804
719	독일 및 EC(구주공동체)의 한국산 강철 제품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 적용 제한 문제	805
720	대가봉 화차량 연불수출	806
721	미국의 무상군원에 의한 불용 군수물자 처분 문제	807
722	대모로코 군수품 수출	808
723	대싱가포르 군수품 수출	809
724	태국의 합작투자 탄피류 제조공장 설립 제의	810
725	일본의 무기 수출 문제	811
726	엘살바도르산 원면 및 커피 정책수입 검토	812
727	우루과이산 양모 정책수입	813
728	미국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	814
729	인천항 차별 선임 철폐 노력	815
730	KSC(대한해운공사) 컨테이너 선박의 대미국 취항	816
731	국제통신 취급지역 확장	817
732	한·태국 항공회담. Bangkok, 1976.7.19.-21.	818
733	Bakke, Karl E. 미국 연방해사위원회 의장 방한, 1976.10.5.-7.	819
734	광주(廣州, 중국) 교역회 참관	820
735	서 Berlin(독일) 수입박람회 참가, 제14차. 1976.8.26.-30.	821
736	Zagreb(세르비아-몬테네그로) 국제박람회 참가, 1976.9.10.-19.	822
737	몰타의 77그룹 가입	823
738	77그룹 전체 각료회의, 제3차. Manila(필리핀), 1976.1.26.-2.7. 전3권 (V.1 기본계획)	824
739	77그룹 전체 각료회의, 제3차. Manila(필리핀), 1976.1.26.-2.7. 전3권 (V.2 결과보고)	825
740	77그룹 전체 각료회의, 제3차. Manila(필리핀), 1976.1.26.-2.7. 전3권 (V.3 자료)	826
741	77그룹 회의(기타)	827
74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TCDC(개발도상국간기술협력) 지역회의. Bangkok, 1976.2.25.-3.2.	828
743	한국·COLOMBO PLAN(콜롬보계획) 회원국 간 자본 및 기술협력 추진	829
744	콜롬보플랜 기술협력이사회, 제132-134차. Colombo(스리랑카)	830
745	EC(구주공동체) 주요인사 방한	831
746	CEPGL(아프리카 호수연안 3개국 경제공동체) 정상회담, 제1차. 디오디(자이르), 1976.12.24.-25.	832
747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세	833
748	앙골라 정세	834
749	아르헨티나 정세	835
750	폴리사리오 분쟁	836
751	방글라데시 정세	837
752	벨기에 정세	838
753	바베이도스 정세	839
754	부룬디 정세	840
755	미얀마(구 버마) 정세	841
756	캄보디아(구 크메르) 정세	842
757	대만(구 자유중국) 정세	843
758	모택동 주석, 주은래 수상 사망 및 중국(구 중공)의 대내외 정세	844

759	중국(구 중공)의 대외관계	846
760	중앙아프리카 정세	847
761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정세	848
762	이집트 정세	849
763	적도기니 정세	850
764	에티오피아 정세	851
765	가봉 정세	852
766	감비아 정세	853
767	독일 정세	854
768	교황청 정세	855
769	인도 정세	856
770	포르투갈령 Timor의 인도네시아 병합 문제	857
771	이탈리아 정세	858
772	코트디부아르 정세	859
773	일본정세. 전2권 (V.1 1-8월)	860
774	일본정세. 전2권 (V.2 9-12월)	861
775	일본 아시아·태평양 금융증권 사절단 동남아 순방	862
776	자메이카 정세	863
777	요르단 정세	864
778	쿠웨이트 정세	865
779	레바논 사태 및 정세	866
780	레소토 정세	868
781	라이베리아 정세	869
782	모로코 정세	870
783	모리타니 정세	871
784	모리셔스 정세	872
785	몰타 정세	873
786	멕시코 정세	874
787	모잠비크 정세	875
788	나이지리아 정세	876
789	네팔 정세	877
790	니제르 정세	878
791	파키스탄 정세	879
792	필리핀 정세	880
793	각국의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승인 및 사무소의 법적 지위 문제	881
794	세이셸 정세	882
795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세	883
796	사우디아라비아 정세	884
797	싱가포르 정세	885
798	시에라리온 정세	886
799	스리랑카 정세	887
800	세네갈 정세	888
801	수단 정세	889
802	스와질란드 정세	890
803	튀니지 정세	891
804	트리니다드토바고 정세	892
805	탄자니아 정세	893

806	우간다 정세	894
807	영국 정세	895
808	제25차 소련 공산당대회	896
809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정세	897
810	베트남 정세	898
811	동구권 국가 정세	899
812	중미지역 국가 정세	900
813	남미지역 국가 정세	901
814	북구지역 국가 정세	903
815	예멘(구 북예멘) 정세	905
816	짐바브웨(구 로데시아) 문제	906
817	잠비아 정세	907
818	공관활동보고 - 아르헨티나	908
819	공관활동보고 - 캐나다	909
820	공관활동보고 - Toronto(캐나다) 총영사관	910
821	공관활동보고 - Vancouver(캐나다) 총영사관	911
822	공관활동보고 - 프랑스	912
823	공관활동보고 - 가봉	913
824	공관활동보고 - 인도	914
825	공관활동보고 - 코트디부아르	915
826	공관활동보고 - 고오베(일본) 총영사관	916
827	공관활동보고 - 센다이(仙臺, 일본) 영사관	917
828	공관활동보고 - 일본	918
829	공관활동보고 - 오오사카(大阪, 일본) 총영사관	919
830	공관활동보고 - 후쿠오카(福岡, 일본) 총영사관	920
831	공관활동보고 - 요코하마(横浜, 일본) 총영사관	921
832	공관활동보고 - 나고야(名古屋, 일본) 총영사관	922
833	공관활동보고 - 쿠웨이트	923
834	공관활동보고 - 라이베리아	924
835	공관활동보고 - 네덜란드	925
836	공관활동보고 - Islamabad(파키스탄) 총영사관	926
837	공관활동보고 - 파라과이	927
838	공관활동보고 - 시에라리온	928
839	공관활동보고 - 스리랑카	929
840	공관활동보고 - Honolulu(미국) 총영사관	930
841	공관활동보고 -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931
842	공관활동보고 - 베네수엘라	932
843	공관경제활동보고 - 이란	933
844	국회 재일교포 실태조사단 일본 방문, 1976.9.10.-18.	934
845	재일본 한국인 서훈	935
846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본 실무자회의, 제5차. 동경, 1976.11.24.-30. 전2권 (V.1 기본문서)	936
847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본 실무자회의, 제5차. 동경, 1976.11.24.-30. 전2권 (V.2 회의자료)	937
848	재일본 한국인 신용조합의 은행 승격 문제	938
849	재일본 한국인 북한 송환	939
850	재일본 한국과학기술자협회 설립	940
851	한·일본 회담 법적지위 요구 관철 민중대회 후의 민단 정상화를 위한 건의	941
852	가나가와현(일본) 한국종합교육센터 운영	942

853	재일본 한국인 유골 봉환	943
854	재미국 교민 단체 및 한·미국 간 주요 민간단체 현황	944
855	주Los Angeles 한국교민회관 운영	945
856	재사할린 동포 개별 귀환	946
857	최정식 소련 국적 재사할린 동포 귀환	947
858	재사할린 동포 귀환 관련 행정소송	948
859	재사할린 동포 귀환 관계 진정서	949
860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5권 (V.1 기본문서)	950
861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5권 (V.2 일본의 재사할린 동포(화태교포) 귀환예정자 통보 I)	951
862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5권 (V.3 일본의 재사할린 동포(화태교포) 귀환예정자 통보 II)	952
863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5권 (V.4 귀환예정자 신원조사 결과 I, 1976.6-10)	953
864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5권 (V.5 귀환예정자 신원조사 결과 II, 1976.11월-77)	954
865	베트남(구 월남) 잔류 동포 철수를 위한 대프랑스 협조	955
866	베트남 잔류 동포 태국 도착신고	956
867	베트남 잔류 이산가족 한국인 현지가족 출국문제	957
868	베트남 잔류 한국 공관원 및 동포 철수문제	958
869	베트남(구 월남) 철수 동포의 제3국 진출(취업)문제	959
870	캐나다 내 반한활동	960
871	재일본 조선인 민주화 촉진 연맹(조민련) 동향	961
872	재일본 반한단체 동향	962
873	미국 내의 반한 활동	963
874	문선명 및 통일교회 활동. 전2권 (V.1 1976.1-6월)	964
875	문선명 및 통일교회 활동. 전2권 (V.2 1976.7-77.1월)	965
876	반한단체 및 재외동포 활동	966
877	조총련계 인사·학생 북한 및 제3국 방문과 일본 재입국 허가 문제	967
878	조총련계 재일본 한국인 모국 방문. 전2권 (V.1 1-6월)	968
879	조총련계 재일본 한국인 모국 방문. 전2권 (V.2 7-12월)	969
880	조총련 동향	970
881	조총련의 재일본 한국인 납치사건	971
882	볼리비아 이민	972
883	우루과이 농업이민, 1973-74	973
884	우루과이 농업이민, 1975-76	974
885	브라질 거주 한국인 불법체류 문제	975
886	중국(구 중공) 유조선의 표류 한국 소년 구조	976
887	한국 어선의 중국(구 중공) 어선 및 선원 구조	977
888	중국(구 중공)의 한국 어선(취성호 및 정신희) 나포 사건	978
889	한·일본 선박 충돌 침몰사건	979
890	일본 밀입국자 및 불법체류자의 강제 퇴거(송환) 등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	980
891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78차. 1976.2.24.	981
892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79차. 1976.7.21.	982
893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80차. 1976.11.25.	983
894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에 대한 한·일본 간 협의	984
895	한국 어선의 뉴질랜드 해역 [콕아일랜드] 침범 및 조치 문제	985
896	일본지역 재외공관 기증재산 현황	986
897	재외공관 건물 국유화 계획	987
898	주일본대사관 관저 구입	988
899	북한·방글라데시 관계	989

900	북한·베네룩스 관계	990
901	북한·차드 관계	991
902	북한·코스타리카 관계	992
903	북한·중국(구 중공) 관계	993
904	북한·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관계	994
905	북한·덴마크 관계	995
906	북한·이집트 관계	996
907	북한·에티오피아 관계	997
908	북한·프랑스 관계	998
909	북한·그리스 관계	999
910	북한·인도 관계	1001
911	북한·이란 관계	1002
912	북한·이탈리아 관계	1003
913	일본·조선 우호촉진 의원연맹	1004
914	미끼(三木) 일본 수상 대북한 관계 증진 5개항 제의 보도 및 한국입장 전달	1005
915	북한·일본 관계	1006
916	제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참석 일본대표단 주최 리셉션 북한대표단 참석	1007
917	북한·쿠웨이트 관계	1008
918	북한·멕시코 관계	1009
919	북한·네팔 관계	1010
920	북한·파키스탄 관계	1011
921	북한·러시아(구 소련) 관계	1012
922	북한·스리랑카 관계	1013
923	북한·수리남 관계	1014
924	북한·시리아 관계	1015
925	북한·스위스 관계	1016
926	북한·영국 관계	1017
927	미국의 북한지역 여행 제한조치 해제 문제 및 북한·미국 관계	1018
928	북한·아프리카지역 국가 관계. 전2권 (V.1 북서아프리카)	1019
929	북한·아프리카지역 국가 관계. 전2권 (V.2 남동아프리카)	1020
930	북한의 대아프리카지역 국가 군사 및 경제 원조현황	1021
931	북한·동남아시아 지역 국가관계	1022
932	북한·중동지역 국가관계	1023
933	북한·구주지역 국가관계	1024
934	북한·중남미지역 국가관계	1025
935	중남미지역 친북한 단체 조직 및 현황	1026
936	북한·대양주지역 국가관계	1027
937	북구 4개국 주재 북한 공관원의 밀수사건	1028
938	북한의 대중동·아프리카지역 관계 동향 및 인사교류 현황	1029
939	Zulfikar Ali Bhutto 파키스탄 수상 북한 방문, 1976.5.21.-26.	1030
940	북한 문화관계 사절단 중남미 순방	1031
941	북한사절단 중남미 순방	1032
942	북한 통상사절단 중남미 순방, 1976.5.14.-7.5.	1033
943	북한의 대일본 채무불이행 문제	1034
944	일본의 대북한 전략물자 수출 문제	1035
945	북한 항공기의 아프리카 및 서남아시아 지역 항로 개설 가능성 시험비행	1036
946	Kissinger, Henry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 문제에 관한 4자회담 제의, 1976.9.30.	1037

947	Ismail Fahmy 이집트 부수상 겸 외무장관의 남북한 관계 조정 제의 및 남북한 간 대화 재개 주선 용의 표명	1038
948	동구권 여행허가 - 헝가리	1039
949	동구권 교류 - 폴란드	1040
950	동구권 교류 - 세르비아-몬테네그로(구 유고슬라비아)	1041
951	문화활동을 통한 동구권 교류 - 세르비아-몬테네그로(구 유고슬라비아)	1042
952	1977년 미국 국방백서	1043
953	미국의 대외무기 판매정책	1044
954	FY76-77 미국의 안보원조법. 전7권 (V.1 FY76 수권법 I: 1975.4-12월)	1045
955	FY76-77 미국의 안보원조법. 전7권 (V.2 FY76 수권법 II: 1976.1-5월)	1046
956	FY76-77 미국의 안보원조법. 전7권 (V.3 FY77 수권법 I: 1976.1-4월)	1047
957	FY76-77 미국의 안보원조법. 전7권 (V.4 FY77 수권법 II: 1976.5월)	1048
958	FY76-77 미국의 안보원조법. 전7권 (V.5 FY77 수권법 III: 1976.6월)	1049
959	FY76-77 미국의 안보원조법. 전7권 (V.6 FY77 수권법 IV: 1976.7-11월)	1050
960	FY76-77 미국의 안보원조법. 전7권 (V.7 지출법)	1051
961	주태국 미군 철수	1052
962	체코 및 폴란드 NNSC(중립국 휴전감시단) 위원 방한, 1976.1.15.	1053
963	Cabrera Sevilla, Raul 에콰도르 육군참모차장 방한, 1976.10.8.-14.	1054
964	Zekarias, Nadew 에티오피아 군사위원회 위원 방한	1055
965	인도네시아 국방대학원생 일행 방한, 1976.11.7.-10.	1056
966	Webb, Sir Richard 뉴질랜드 국방 참모총장 방한, 1976.9.27.-10.2.	1057
967	사우디아라비아 군사사절단 방한, 1976.5.29.-6.12.	1058
968	Eklund, Carl Gunnar 스웨덴 통합사령부 참모장 방한, 1976.1.18.-21.	1059
969	영국 군사관계 주요인사 방한	1060
970	Bendahan, Brigadier Raul J. 우루과이 공군 참모장 방한, 1976.9.27.-10.3.	1061
971	중국(구 중공)의 핵실험 실시 문제	1062
972	미국의 한국 내 핵무기 배치 문제	1063
	부록	1065



1976년도

김순교 주방글라데시대사 장례식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총무 / 의전1

MF번호 A-6-13 / 2 / 1-67

28

1. 김순교 주방글라데시대사가 1976.1.14. 지병으로 귀국 치료 중 서울에서 별세함.

- 동인은 1950년 외무부 입부 이래 다수 공관에 근무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
 - 주베트남대사관 공사로 재직 시 국군 파월(派越) 및 철수, 공산화 직전 교민철수 문제 등 전쟁 중 격무에 시달려 건강 악화
 - 1975.3.14. 기후와 생활여건이 열악한 주방글라데시대사로 부임하여 공관 창설 및 북한과의 대처상황 등으로 건강 악화
 -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 대비, 주재국의 대한민국 지지 확보 노력
- 주재국 의료시설의 후진성으로 간단한 치료 외에 근본적 치료 미진

2. 외무부는 1976.1.14. 주방글라데시대사대리에게 김순교 대사의 별세 사실을 주재국 정부 및 외교단에 통보함.

- 주재국 관례를 참작하여 대사관에 조문록 비치

3. 외무부는 1976.1.15. 김순교 대사의 장례를 외무부장으로 거행하기로 하고 각종 필요 조치를 취함.

- 장례위원회 구성: 박동진 외무부장관(위원장), 노신영 외무부차관(부위원장) 등
- 장례일정 확정: 영결식 및 안장식
- 신문 부고: 일간신문에 공고(1.16.)
- 관계부처 협조요청: 서울시에 장례행사 경호 및 교통정리 등
- 영결식 거행(1.18.)
 - 박동진 장례위원장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조사 낭독

4. 주방글라데시대사대리는 1976.1.19. 주재국 대통령 및 외무차관의 조전 및 언론보도 등 관련 자료를 보고함.

임병직 전 외무장관 장례식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총무 / 의전1

MF번호 A-6-13 / 1 / 1-228

1. 외무부는 1976.9.21. 임병직 전 외무부장관이 숙환으로 별세함에 따라 동인의 장례를 외무부장관으로 거행하기로 결정함.

- 장례위원회 구성: 박동진 외무부장관(위원장), 기타 고문 및 지도위원 등

2. 외무부는 1976.9.21. 국방부에 임병직 전 장관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지정을 요청함.

- 외교업무 활동에 탁월한 공헌을 해 온 고인에 대해 ‘국립묘지령’에 의거하여 안장 대상자로 지정
 - 1948.12~51.4월 중 외무부장관으로서 건국 초창기 외무부 기반구축에 공헌
 - 6.25 전쟁 발발 시 우방국 참전에 지대한 공헌
 - 1951.11월부터 주유엔대사, 한·일본 회담 수석대표 및 주인도총영사로서 외교일선에서 국가이익 및 국위선양에 크게 공헌
 - 1974년 이후 한국반공연맹 이사장으로 대공 투쟁에 앞장

3. 외무부는 1976.9.25. 임병직 전 장관의 영결식을 거행하고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함.

- 동 영결식에 유가족 및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외 국무위원, 정당대표, 국회의원과 정부 주요인사,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인사 500여명 참석

4. 외무부는 1976.9월 Romulo 필리핀 외상 및 주한 각국대사, 세계반공연맹 각 지부 등으로부터 임병직 전 장관 별세에 따른 조전을 접수함.

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의 개정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법무

MF번호 2007-1 / 6 / 1-225

1975~76년 중 외무부는 외교목적상 또는 공관 신설 등의 사유로 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수시로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함.

1. 대아프리카 외교의 조직적이고 능률적인 수행 방안에 일환으로 동부아프리카지역 검임국을 1975.5.28.자로 임시 변경함.

- 검임국 재조정 필요성
 - 주케냐대사관의 과중한 업무 분담
 - 외교업무 능률 향상
 - 상주공관 증설에 따르는 경비 절약
- 관할국 변경
 - 주케냐대사관(레소토, 모리셔스 검임), 주우간다대사관(르완다, 말라위 검임),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관(보츠와나, 스와질랜드 검임)

2. 1975.8.27. 재일본 거류민단 및 주일본대사 건의에 따라 일본 이타미시는 10.6.자로 주오사카 총영사관 관할에서 주교베총영사관 관할로 임시 변경되고, 관련 '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7996호)'은 1976.2.19.자로 공포됨.

3. 1975.11.27. 수리남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따라 주파라마리보총영사관이 주수리남대사관으로 승격되고, 관련 개정령이 1976.2.19.자로 공포됨.

4. 1976.4월 주바레인대사관과 주카르툼총영사관 신설이 건의되고, 5.22.자로 관련 개정령(대통령령 제8133호)이 개정, 공포됨.

- 중동지역 진출 확대 및 아프리카지역 중립국에 대한 외교강화 목적

5. 1976.6.17.자 '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8163호)'이 공포되어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이 신설되고, 주라스팔마스영사관이 총영사관으로 승격됨.

- 자원개발 참여에 의한 경제진출 확대 및 남태평양국가에 대한 외교거점 확보
- 한국 선원, 선박 및 교민보호, 어획물의 판로 확대 목적

6. 1976.7.16.자로 '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8188호)'이 공포되어 아래 대사관이 신설 및 변경됨.



- 주세이셴대사관 신설(주케냐대사 겸임)
 - 인도양 원양어선 보호 및 해외건설 진출 추진
- 주엘살바도르 및 주온두라스대사관 겸임공관 변경
 - 주멕시코대사관에서 주과테말라대사관으로 변경

7. 1976.9.2.자로 아래 상주공관 조정 등이 공포됨.

- 주오만 및 주카타르공관(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 겸임)을 상주공관으로 조정하고, 주아부다비총영사관 신설
 - 중동지역 외교활동 강화
- 주애틀랜타총영사관 신설
 - 미국에 대한 외교활동 강화

Kovacs Jones, Eduardo 주Valparaiso(칠레) 명예영사 임명, 1976.6.25.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 총무

MF번호 A-6-13 / 4 / 1-44

1. 주칠레대사는 1976.1.25. 주발파라이소 명예영사 임명을 건의함.

- 대칠레 수출증대를 기하고 한국과 칠레 간 어업협력 확대에 의해 예상되는 빈번한 선박왕래에 대비하기 위해 칠레 제1의 항구도시인 발파라이소 주재 명예영사 임명이 필요

2. 주칠레대사는 1976.5.4. 주발파라이소 명예영사로 관계(官界) 및 실업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Eduardo Kovacs Jones 차량 수출입회사 사장을 임명해 줄 것을 건의함.

32

3. 외무부는 주칠레대사의 건의에 따라 1976.6.25. Kovacs를 주발파라이소 명예영사로 발령함.

- 관할지역: 발파라이소시
- 직무범위(대통령령 제5254호)
 - 재외국민의 보호
 - 한국 국적의 선박 및 항공기 보호
 - 상거래 및 외자도입을 위한 알선
 - 통상, 경제, 예술, 과학 및 교원 등의 교류촉진
 - 통상, 경제, 문화, 과학 등 사정의 조사, 보고

4. 외무부는 1976.8.10. 주칠레대사에게 Kovacs에 대한 대통령의 명예영사 위임장을 송부함.

5. 주칠레대사는 1976.10.13. 칠레 정부가 Kovacs에 대한 주발파라이소 명예영사 인가장을 접수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Ronberg, Johannes 주Copenhagen(덴마크) 명예총영사 방한, 1976.5.23.-29.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A-6-13 / 3 / 1-58

1. 주덴마크대사는 1975.10.6. J. Ronberg 주코펜하겐 명예총영사에 대해 서훈을 건의함.

- 동인은 1974.1월 명예총영사로 임명된 후, 한국과 덴마크 간 관계증진, 한국의 수출증대, 대사관 업무협조 및 당시 한국교포사회의 지도 등 한국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
 - 당시 북한 어용단체인 정조(丁朝, 덴마크·북한) 친선협회의 활동에 맞서 덴마크 정계, 언론계 및 실업계 등과 광범위한 접촉으로 덴마크에 대한 한국의 홍보활동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
 - 한국 내 각종 범국민적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방위성금 기탁 등

2. 외무부는 1976.1.19. 주덴마크대사에게 Ronberg 명예총영사에 대해 수교훈장 승례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음을 통보함.

- 주덴마크대사는 Ronberg 명예총영사가 3~4월 중 방한을 희망하며, 동 방한 기회에 서울에서 서훈할 것을 건의

3. Ronberg 명예총영사는 1976.5.23.~29. 방한함.

-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훈장 전수), 국무총리 및 국회의장 예방
 - 외무부장관 예방
 - 새마을 시찰, 땅굴 시찰, 울산 산업시찰, 기자회견 등
- 새마을성금을 기탁하고, 1976년도 명예영사 보조금(1천 달러)을 방위성금으로 기탁

Seeyave, Antoine A. 주Port Louis(모리셔스) 명예영사 임명, 1976.7.22.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총무

MF번호 A-6-13 / 6 / 1-10

1. 모리셔스를 겸임하는 주케냐대사는 1976.7.9. Rene Seeyave 주모리셔스 명예영사의 후임으로 Antoine A. Seeyave를 추천함.

- 피추천인은 전 명예영사인 Rene Seeyave의 동생으로 모리셔스 정계 및 경제계에 많은 영향력이 있는 Seeyave 형제와 보다 밀접한 관계 유지 가능

2. 외무부는 1976.7.22. 동인을 주모리셔스 명예영사로 임명함.

주Guadalajara(멕시코) 명예영사의 권한 위임문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2007-1 / 18 / 1-10

1. 주멕시코대사는 1976.4.9. 명예영사의 업무수행상 사증발급 권한 및 일반 무역거래 관련 확인 업무의 위임 가능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함.

- 한국 정부가 사증발급권을 명예영사에게 위임한 사례 및 동 권한의 위임 가능여부
- 확인 업무 위임 여부 및 위임할 경우, 수출입 업무에 관한 수수료 내용 확인을 포함한 일반 무역거래에 따른 확인 업무까지 위임 가능한지 여부

2. 외무부는 1976.5.28. 주멕시코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함.

- 한국 정부는 호주 브리즈번 명예영사에게 사증발급을 위임한 사례가 있음.
 - 동 권한의 위임 범위와 조건 등에 관하여는 외무부 예규(제75-2호, 1975.5.22.)를 참조
 -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대통령령 제5254호(1970.8.3.) 참조
- 명예영사에 대한 사증발급권 및 확인업무 등의 위임문제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
 -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입국금지자 명단을 송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동 명예영사에게 사증발급 권한의 위임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을 것임.
 - 주멕시코대사관이 명예영사가 확인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는 한, 확인업무(대통령령 제5254호 제6조3항) 위임의 범위를 가급적 최소한으로 축소 시키는 것이 좋을 것임.

3. 주멕시코대사는 1976.9.14. 멕시코 외무성이 B.O. Reynoso 주과달라하라 명예영사에게 명예 영사 인가장을 발급했다고 보고함.

주Arequipa(페루) 명예영사 임명 검토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2007-2 / 3 / 1-16

36

1. 주페루대사는 1976.8.8.~12. 북한의 페루내 지방 침투저지를 목적으로 주재국 Cuzco 및 Arequipa 지방출장 결과를 보고하면서 주Arequipa 명예영사 임명을 건의함.

● 주요 활동

- Arequipa 주지사 및 시장, 3관구 사령관 접촉
- Correo지 및 El Pueblo지 기자회견
- 태권도장 방문

● 관찰 사항

- A. Talleri Arequipa 주지사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인 동시에 친미 인사로서 친한 인사 확보 가능
- 북한은 Arequipa시에 설치된 친북한 협회를 통해 학생들을 평양에 초청하고, 동 시를 거점으로 침투책동을 격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음.

● 건의 사항

- Arequipa시 소재 한국 태권도장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
- Arequipa시와 대구시 간 자매결연 추진 검토
- 동 시의 유력 친한국 인사를 명예영사로 임명

2. 주페루대사는 1976.10.22. 외무부 훈령에 따라 추가 보고함.

● 명예영사 임명 필요성

- 북한침투 확대 저지
- 한국 홍보활동 확대를 통한 북한의 정치적 선전책동 봉쇄
- 친한 세력의 지방 확대
- 페루 정부가 추진 중인 동 지역 전자공업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 전자기술 진출 도모와 한국상품 진출로 개척

● Arequipa시 명예영사 현황

3. 외무부는 1976.11.16. 주페루대사에게 적격자를 건의하면 검토예정이며, 제반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당사자에게 명예영사로 임명될 것이라는 언약은 하지 않도록 훈령함.

주스페인 명예영사관 개관, 승격 및 폐쇄 문제

생산연도 1970-1976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2007-2 / 4 / 1-50

1970~76년 중 스페인의 명예영사관 개관 및 명예영사 임명 관련 내용임.

1. 주라스팔마스 명예영사 임명 및 명예영사관 개관

- 외무부는 1969.9.2. S. Almeida 주라스팔마스 명예영사를 임명함.
- 스페인 정부는 1970.2.21. S. Almeida 주라스팔마스 명예영사에 대한 명예영사 인가장을 발급
- 주스페인대사는 5.26. 동 라스팔마스 명예영사관의 정무활동에 필요한 개관 비품 송부를 건의
- 한국 정부는 1971.4월 상기 주라스팔마스 명예영사에게 외교활동을 통한 한국의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공로로 수교훈장 창의를 수여

2. 주마드리드 및 주라스팔마스 명예영사관 폐쇄 문제

- 외무부는 1973.9.10. 주스페인대사에게 대사관 설치에 따른 주마드리드 명예영사관 폐쇄 방침을 통보
- 외무부는 주라스팔마스영사관 설치에 따라 재외공관설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라스팔마스 명예영사관도 폐쇄 예정임을 통보
- 주스페인대사는 11.9.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 개설되는 영사관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명예영사관을 존속시켜 줄 것을 건의
- 외무부는 1974.2.1. 주스페인대사의 건의를 감안하여 S. Almeida 명예영사의 해임을 당분간 보류하고, 동인과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관계 유지를 통해 최대한 활용하도록 훈령

3. 주스페인대사 주재로 1975.4.11. 주바르셀로나 명예영사관의 개관식 및 리셉션이 개최됨.

4. 주라스팔마스 명예영사 승격 문제

- 한국 원앙어업협회는 1975.9.30. S. Almeida 주라스팔마스 명예영사를 명예총영사로 승격시켜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
- 주스페인대사는 10.17. 동 명예영사의 명예총영사 승격을 건의
- 동 명예영사는 관계(官界), 경제계의 실력자로서 그의 인격, 연령 및 활약상으로 보아 명예 총영사로 승격할 경우 열성적으로 한국을 위해 활동할 것으로 기대
- 외무부는 1976.1.26. 주스페인대사에게 아래의 내용을 훈령
- 동 명예영사를 명예총영사로 임명하기로 결정
- 스페인 외무성의 동의를 얻고 결과 보고
- 주스페인대사는 3.16. 스페인 정부에 외교공한을 기 송부하고 교섭 중임을 보고함.

1976년도 북미지역 명예영사 활동 현황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북미

MF번호 A-6-13 / 7 / 1-16

주미국대사관이 보고한 1976년 북미지역 명예영사 활동 현황 및 1977년 활동 계획임.

1. 북미지역 명예영사관 현황(1976.5.21. 기준)

- 미국: 각 관할별 총 20개 공관
 - 뉴욕 2(보스턴, 필라델피아), 시카고 4(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미니애폴리스, 세인트루이스), 휴스턴 9(애틀랜타, 댈러스, 마이애미, 모빌, 뉴올리언스, 오클라호마, 샌안토니오, 산후안, 탬파), 로스앤젤레스 1(피닉스), 샌프란시스코 4(앵커리지, 덴버, 포틀랜드, 샌디에고)
- 캐나다: 1개 명예영사관
 - 몬트리올

2. 1976년 미국지역 명예영사 활동

- 한국 방문(4명)
- 현지 언론에 한국 관련 기사 게재(5건)
- 명예영사관 개관(2)

3. 1977년 명예영사 활동 계획

- 한국의 날 행사 개최
- 명예영사회의 개최
- 명예영사 방한 초청
- 명예영사를 통한 홍보활동
- 명예영사관에 한국 홍보자료 배포

주재관(국방무관) 파견 - 멕시코, 미얀마(구 버마) 및 싱가포르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중남미 / 서남아 / 동남아

MF번호 A-6-13 / 8 / 1-38

1. 주멕시코대사관 무관 겸임

- 주멕시코대사는 1974.4.15. 소속 무관이 동 대사가 겸임하는 4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자메이카)도 겸임하도록 해 줄 것을 건의
- 외무부는 4.26. 국방부에 군부 집권국 또는 군부의 영향력이 큰 3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을 겸임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요청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군부 집권국 혹은 군부의 영향력이 큰 국가로 한국 무관의 겸임이 필요하다고 판단
 - 코스타리카: 군대 없음.
 - 자메이카: 무관을 파견하고 있는 국가가 없음.
- 국방부는 5.2. 외무부에 주멕시코 무관의 겸임국 확대 문제는 1976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
- 주멕시코대사는 1975.10.23.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 무관 겸임 발령을 재건의
 - 양국은 군부의 영향력이 큰 국가로써 특히 온두라스에만 한국이 무관을 겸임 파견하는 불균형으로 인해 온두라스와 무력 국경분쟁 관계에 있는 엘살바도르 측의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 감안
- 국방부는 1976.1.26. 주멕시코 무관을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 겸임 무관으로 임명하고자 외교에 관한 비엔나협정에 의거하여 무관 주재 동의 요청조치를 취해 줄 것을 희망

2. 주미얀마(구 버마)대사관 무관 겸임

- 주미얀마대사는 1976.3.11. 미얀마 외무성이 정식 공한을 통해 주태국 무관의 미얀마 겸임무관 임명에 이의가 없음을 통보해 왔다고 보고

3. 주싱가포르대사관 무관 겸임

- 외무부는 1975.11.19. 주싱가포르대사에게 주말레이시아 무관의 싱가포르 겸임 동의를 요청 하라고 훈령
- 주싱가포르대사는 12.4. 싱가포르 외무성에 주말레이시아 무관에 대한 싱가포르의 동의를 요청
 - 싱가포르 외무성 의전장은 동의에 앞서 국방성 의견을 조회하고 싱가포르가 부여하고 있는 외교관 정원(한국 및 북한공관 등 총 4명) 증원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한국이 무관을 파견하는 경우 북한도 무관 주재를 요청할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



- 동 대사는 무관 주재는 당사국간에 결정할 문제이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는 북한 무관은 없고 한국 무관만 주재하고 있고 현재 아세안 회원국 중 싱가포르에만 무관이 임명되어 있지 않다고 대응
- 국방부는 1976.1.14. 외무부에 싱가포르 상주무관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통보
- 주싱가포르대사는 2.10. 싱가포르 외무차관 면담결과를 보고
 - 싱가포르는 주말레이시아 무관 겸임은 필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언급
 - 싱가포르 상주무관 설치에 고려해 보겠다는 반응

김경수·이정일 주멕시코대사관 서기관 사망 및 장례식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총무

MF번호 A-6-13 / 9 / 1-123

1. 주멕시코대사는 1976.7.4. 김경수, 이정일 주멕시코대사관 서기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보고함.

- 사고 내용
 - 멕시코시티 시외 40km 지점에서 이정일 서기관이 운전하던 중 자동차 엔진고장으로 건널목에서 기관차와 정면충돌
- 사망자는 상기 서기관 외에 가족 등 5명, 중상자는 3명(추후 중상자 1명 사망)

2. 외무부는 상기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각종 후속조치를 시행함.

- 주멕시코대사관에 조전 발송(1976.7.5.)
- 주멕시코대사관에 필요 조치 훈령(1976.7.6. 이후)
 - 유해 운구 및 화장 후 유골 송환
 - 본국 호송관 지정 및 호송조치
 -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조사
 - 영결식 거행 협조
 - 유류품 정리
 - 은행예금 등 유산 처리

외국 훈장 수령

생산연도 1975-1977

생 산 과 총무

MF번호 A-6-13 / 10 / 1-75

1975~77년 중 한국 외무부 직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수령한 훈장의 허가와 관련된 내용임.

1. 주멕시코대사는 1975.11.30. 외무부에 외국훈장 수령에 관한 허가 신청

- 이정남 주멕시코대사관 참사관이 2.27. 파나마 정부로부터 외교단에 부여하는 1등급 최고 훈장 수령
 - 훈장명: Order de Manuel Amador Guerrero en el Grado de Gran Oficial
- 외무부는 12.12. 총무처에 상기 외국훈장 수령 추진 및 패용 허가 신청
 - 총무처는 12.29. 동인에 대한 훈장 수령 추진 및 패용 허가

2. 외무부는 1976.2.3. 총무처에 외국훈장 수령 추진 및 패용 허가 신청

- 문창화 외무부 총무과장이 1975.10.13. 페루 정부로부터 2등급 훈장 수령
 - 훈장명: Al Merito Servicios Distinguidos
- 총무처는 1976.2.16. 동인에 대한 훈장 수령 추진 및 패용 허가

3. 주파나마대사는 1976.4.27. 외무부에 외국훈장 수령에 관한 허가 신청

- 황호을 주파나마대사가 5월 파나마 정부로부터 1등급 훈장 수령 예정임을 보고
 - 훈장명: Vasco Nunez De Balboa
- 외무부는 4.29. 총무처에 상기 외국훈장 수령 추진 및 패용 허가 신청
 - 총무처는 5.11. 동인에 대한 훈장 수령 추진 및 패용 허가

4. 외무부는 1976.4.29. 총무처에 외국훈장 수령 추진 및 패용 허가 신청

- 정희택 주과테말라대사관 공사가 5.5. 파나마 정부로부터 훈장 수령 예정
 - 훈장명: La Orden De Quetzal Grado De Gren Oficial
- 주과테말라대사대리는 5.5. 과테말라 정부가 동인에 대한 훈장을 수여했음을 보고
 - 총무처는 5.11. 동인에 대한 훈장 수령 추진 및 패용 허가

5. 주일본대사는 1976.7.27. 외무부에 외국훈장 수령에 관한 허가 신청

-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근무한 바 있는 강승구 외무부 구주2과장이 10.11.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근정 대훈장(1등급) 수령 예정임을 보고
 - 훈장명: Grand Decoration of Honor in Gold for Service to the Republic of Austria
- 외무부는 8.10. 총무처에 상기 외국훈장 수령 추진 및 패용 허가 신청
 - 총무처는 8.17. 동인에 대한 훈장 수령 추진 및 패용 허가



6. 외무부는 1976.8.24. 총무처에 외국훈장 수령 추인 및 패용 허가 신청

- 이경구 외무부 경제조사과 외무서기관이 9.1. 브라질 정부로부터 3등급 훈장 수령 예정
- 훈장명: The Southern Cross Order of Brazil
- 총무처는 9.29. 동인에 대한 훈장 수령 추인 및 패용 허가

7.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은 1976.11.23. 재일교포 Naoyoshi Kanazawa(한국명: 김상숙)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서훈을 제의함.

8. 주상파울루총영사는 1976.12.8. 외무부에 외국훈장 수령에 관한 허가 신청

- 문희철 주상파울루총영사가 12.14. 주재국의 저명한 사회문화단체 산하인 브라질 사회교육협회로부터 대브라질 사회유대강화의 최고 봉사자로서 선정되어 최고 상패인 메달 수령 예정
- 메달명: Ana Nery Medal
- 외무부는 12.14. 상기 메달 수령 허가

김대중 납치사건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B-6-26 / 7 / 1-99

김대중 납치사건 관련 미국 하원 청문회와 일본 국회의 김대중 출국 요구 등 관련 내용임.

1. 미국 하원 청문회

- D. Ranard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1976.3.17. 및 3.22.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국제소위원회 한국 관계 청문회에서 김대중 납치사건은 한국 중앙정보부 소행이라고 증언
- 주일본대사는 상기 증언사실에 관한 일본 언론보도를 수시 보고
 - 미국은 김대중 납치범이 한국 중앙정보부라는 사실 사전 인지
 - 일본 외무성은 동 증언기록 전문을 입수하도록 지시하고, 다만 구체적 증거가 없는 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동 사건을 재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
- 외무부는 3.24. 주미국대사에게 아래의 내용 훈령
 - 상기 청문회에서 Ranard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러한 주장은 대일본 관계에 문제를 야기할 우려
 - 김대중 사건은 한·일본 정부간 이미 수습된 문제이며, 미국 국무부 전직관리의 무책임한 증언으로 인해 한·일본 양국민 간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미국 국무부의 협조 촉구

2. 김대중 출국 관련

- 박동진 외무부장관은 1976.5.25. 니시야마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
 - 일본 측은 일본 국회가 김대중의 출국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측에 협조 요청
 - 한국 측은 김대중이 국내법 위반사건으로 재판 계류 중이며, 출국 문제는 일반국민과 차별 대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
- 오재희 외무부 아국장도 5.29. 마에다 주한 일본공사에게 동일 취지로 설명

3. 김대중 부인의 일본 수상 앞 탄원

- 주일본대사는 1976.7.7. 김대중 부인 이희호가 김대중의 인권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망하는 미키 수상 앞 탄원서를 주한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내용을 보고
 - 주한 일본대사관도 동 서한 접수 사실 확인
- 이데 이치타로 일본 관방장관은 7.14. 정례 기자회견에서 동 탄원서가 미키 수상에게 전달된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동 수상이 회답을 내거나 한국 측에 대해 특별히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

4. 김대중 건강 상태

- 1976.10.4.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김대중의 건강 상태에 관해 질의한 데 대하여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장은 10.8. 김대중의 건강 문제를 외무이사회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언급

한국 국내 문제와 관련한 미국 의회 의원의 서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B-6-26 / 9 / 1-202

미국 상하 양원 의원들은 한국 국내 문제에 관해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표명하고, 외무부는 이에 대한 관련 조치를 시행함.

1. Kennedy 및 Cranston 상원의원은 1976.3.12. 한국의 3·1 민주 구국선언 낭독사건에 관해 아래 요지의 합동성명서를 발표함.

- 한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상세한 조사 착수를 미 국무부에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미국 의회는 미국의 대한민국 경제 및 군사원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것
- 각 상원의원에 서한 발송
 - 대한민국 군사원조는 미국 국민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포드 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하는 의원연명서한을 동 대통령에게 발송하도록 요청
- 미국 상하 양원 의원 119명은 상기 Kennedy 의원의 요청에 따라 4.2. 연명서한을 동 대통령에게 발송

2. 함병춘 주미국대사는 1976.4.7. 상기 연명서한을 발송한 상하 양원 의원 전원에 대해 아래 요지로 화신 서한을 발송함.

- 한국의 인권상황 우려에 대해 사의표명
- 베트남의 공산화 이후 아시아 공산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위험하고 심각한 전시상황이 전개 중임을 고려
 - 북한 공산주의의 무력도발 위협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한국 내 평화 민주주의를 촉진하게 될 것
- 동 서한에 함병춘 주미국대사의 한국 시국상황에 대한 워싱턴포스트 및 뉴욕타임즈 기고문을 수록

3. C. Leppert 포드 대통령 입법보좌관은 1976.4.28. Fraser 의원 앞으로 아래 요지의 서한을 발송함.

- 한국의 인권 문제에 관해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공개적 및 사적으로 토의한 바 있음.
- 한국과는 중요한 안보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안전은 미국에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관계는 유지되어야 함.

4. 주한 미국대사관 서기관은 1976.10.29. Fraser 의원 등 153명의 상하 양원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최근 18명의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선고에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외무부에 접수하려고 시도함.

- 외무부는 국내 문제 불간섭을 이유로 동 서한을 미접수

한국 인권 문제와 관련한 제 사안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B-6-26 / 8 / 1-378

46

1. A.I.(국제사면위원회)의 한국 관계 보고서

- 1974.9월 ICJ(국제법률가위원회) 유엔대표인 W.J. Butler가 작성한 한국의 인권 관련 상황 보고서를 발표
 - 1972년 유신헌법 선포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전제통치 강화, 반정부인사 투옥 및 재판 등 탄압상황 기술
 - 비상계엄령 폐지, 구속자 석방 등 촉구

2. 문혜림의 반한 활동

- 명동사건 관련 피고 문동환의 처로서 주한미군 소속 군속으로 근무 중인 이중국적(한국 및 미국)자
- 반한 활동 내역
 - 1976.7월 미국 인디애나주 퍼듀대학교에서 개최한 세계여성기독교자회의에 참석, 명동사건 구속자 연명으로 작성된 호소문을 낭독
 - 한국의 인권 문제 등 사실을 왜곡전파, 구속자 구명을 위한 지원 호소
- 외무부 조치
 - 외무부 미주국장은 8.12. Cleveland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에게 문혜림의 정치활동은 한국법령 및 SOFA(주둔군지위협정) 위반임을 지적하고 동인의 정치활동 금지를 위한 적절한 지도조치를 요청

3. Issue Brief의 한국 문제 수록

- 미국 의회도서관의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서 주요 현안 이슈를 발행하여 국회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로서 기본적인 입법 자료로 활용
-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로서의 긴급조치 필요성 등 한국의 상황을 동 자료에 수록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
- 1976.9.16. 미국의 대한민국 공약과 인권 문제가 Issue Brief에 게재

4. 미국방송에서의 한국 인권관계 필름 방영 문제

- Fraser 의원은 1976.6.1. 미국하원에서 영국 BBC가 1975년에 만든 한국의 인권투쟁 기록 영화를 대한민국 군사원조 수정안 심의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영
- 한국 정부는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동 필름의 미국 ABC 방영계획을 중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6.13. ABC에서 방영됨.

한국 인권관계 논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

MF번호 C-6-99 / 5 / 1-33

1976년 주미국대사관 요청으로 작성한 Maurie Green의 ‘인권 및 자유 계약에 관한 한·미국 비교’ 논문의 내용임.

1. 논문의 목적

- 한국 사회의 간략한 고찰
- 과거 미국은 한국이 처한 위기와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고찰

2. 한국사회의 특징

- 한국은 민주주의 경험과 배경이 없으며 역사적으로 유교문화 사회임.
- 1945년 해방 이후 북한 공산주의 정권과 대결
- 북한 위협에 대처하고 평화통일을 조성하기 위하여 1972년 유신헌법 제정
- 언론의 자유
 - 미국과 한국 언론의 자유 차이: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국가 위기가 예외적인 반면, 한국은 북한 공산정권의 적대활동이 지속적, 평상적이라는데 기인함.
- 종교의 자유
 - 미국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절대적 자유는 아님.
 -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종교적 동기에 기인한 범법자는 처벌하지 않음.
- 연방정부에 의한 인신보호 영장의 중지 실태
- 현 한국 상황과 비슷하게 연방정부에 의한 반대자 탄압

3. 결론

- 한국이 국가안보에 관련하여 체험한 상황은 미국 역사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임.
- 미국은 남북전쟁을 제외하고는 오늘날 한국이 겪고 있는 안보상의 위협을 한국만큼 심각하게 겪지 않았음.
-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제약을 가하고 있지만 개인적 자유는 충분히 누리고 있음.

3.1 민주 구국선언문 낭독사건, 1976.3.1. 전4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동북아1 / 정보1 / 구주

MF번호 B-6-26 / 1 / 1-160

1976.3.1. 명동성당의 3·1절 기념미사 중 구국선언문 낭독사건 관련 내용임.

1. 사건 개요

- 1976.3.1. 명동성당에서 500여명의 신부, 수녀, 기독교계 인사 및 신도들이 참석한 3·1절 기념미사 도중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가 단체명의로 구국선언문을 낭독한 사건 발생
 - 정부전복 선동사건(명동사건)

48

2. 정부의 대응

- 외무부장관은 1976.3.6. 도세니 주한 교황청대사를 초치하여 성직자의 정치개입을 비난
- 서울지방 검찰청은 3.10. 김대중, 윤보선 등 정계·학계·기독교 및 재야인사 18명을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혐의로 구속, 입건하여 재판에 회부
- 정부는 극소수 반정부 인사들에 의한 정부전복 행위로 규정하고, 9.29. 전 재외공관에 정부 입장을 홍보하도록 지시
- 대법원은 1977.3.22. 상기 관련 인사들에게 유죄 판결 확정

3. 각국의 반응

- 일본에서는 조총련이 민주화투쟁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구속자 석방 촉구
- 주영국대사는 정부 지침에 따른 홍보활동 결과 및 의회 노동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과 결의안 제출, 그리고 민간인들의 진정서 제출 등 움직임 보고
- 1976.9.8. Goronwy Roberts 영국 외무담당국무상과 김용식 주영국대사의 접견 시, 영국 정부는 동 사건 관련하여 한국의 대외 이미지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대한 처리가 바람직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함.
- 9.10. William Bates 주한 영국대사는 외무부차관을 방문, 동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형량에 대해 우려 표명
- 9월 Fraser 미국 하원 의원의 주미국대사 앞 서한 발송 및 미국 의회에서의 비판 발언 보고

3.1 민주 구국선언문 낭독사건, 1976.3.1. 전4권 (V.2 언론반응 및 진정서)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동북아1 / 정보1 / 구주

MF번호 B-6-26 / 2 / 1-222

1976.3.1. 명동성당 3·1절 기념미사 중 구국선언문 낭독사건 관련 언론보도와 진정서 내용임.

1. 언론 반응

- 일본 등 재외공관이 보고한 해외 언론의 사건 보도 내용과 해외공보관이 작성한 일본 신문의 보도 태도에 관한 '해외논조보고' 수록
 - 1976.3.1. 사건 발생부터 1977.3.22. 대법원 판결까지
- 미국, 프랑스 및 독일 언론보도 내용 보고

2. 진정서

- A.I.(국제사면위원회) 회원의 사면 요청 서한, 네덜란드 국제문인연맹위원의 김지하에 대한 공정한 재판 요청 서한, 동경 주재 웨이커교 동아시아지역 관계자의 관대한 처분 요청 서한,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교회 교인들의 서한 등
- A.I.의 한국내 인권탄압 진상조사단 방한(1975.3.27.~4.9.) 보고서

3.1 민주 구국선언문 낭독사건, 1976.3.1. 전4권 (V.3 신문기사)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동북아1 / 정보1 / 구주

MF번호 B-6-26 / 3 / 1-110

1976.3.1. 명동성당 3·1절 기념미사 시 구국선언문 낭독사건과 관련하여 1976~77년 중 한국 및 일본 신문의 사건과 재판 절차에 관한 보도 및 논설 등이 수록됨.

● 주요 사건

- 1976.3.1. 민주 구국선언문 발표, 긴급조치 제9호 위반혐의
- 1977.3.22. 한국 대법원, 김대중 등 18인의 피고 유죄판결

3.1 민주 구국선언문 낭독사건, 1976.3.1. 전4권 (V.4 각국 반응 및 조치 일람(자료))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동북아1 / 정보1 / 구주

MF번호 B-6-26 / 4 / 1-299

1976.3.1. 명동성당 3·1절 기념미사 시 구국선언문 낭독사건에 대하여 각국의 언론 반응 및 한국 정부의 조치를 정리한 자료임.

- 전재외공관이 보고한 주재국 언론의 보도 내용, 주재국 정부 인사의 언급 사항, 북한의 선동 등을 국가별로 요약 정리한 자료
- 외무부와 각 재외공관 및 문화공보부가 취한 조치를 일자별로 정리한 목록

김지하 시인에 대한 1976년도 노벨평화상 후보등록 문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서구담당관
MF번호	B-6-26 / 6 / 1-35

1975~76년 중 주스웨덴대사와 주노르웨이대사는 김지하 시인의 1976년도 노벨평화상 후보등록 문제에 관하여 보고함.

1. 외무부는 1975.8.16. 주스웨덴, 주노르웨이대사에게 김지하 시인의 노벨평화상 후보등록 관련 아래와 같이 훈령함.

- 1976년도 노벨평화상 후보와 관련하여 스와레스 포르투갈 사민당 당수가 유력한 후보로 등장한 것으로 보이나, 포르투갈 내분으로 동인이 후보에서 탈락할 경우 WCC(세계교회협의회), A.I. (국제사면위원회) 등이 김지하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다는 정보 입수
- 김지하가 노벨평화상 후보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저지

2. 주노르웨이대사는 1975.8.20. 및 9.5. 아래 보고함.

- 노벨평화상을 심사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김지하가 1976년도 평화상 후보자 명단에 이미 등록됨.
- 동 위원회 사무국장에 의하면 매년 후보자 등록은 50명 내외로서 그중 절반은 토의대상에 들지 않는 것이 선례이며, 각국 국회의원 또는 대학교수 등의 추천이 있으면 후보등록은 언제든지 가능
- 동 국장은 김지하에 관하여 평화상 수상 심사위원회에 의해 고려될 자격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수상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3. 주스웨덴대사는 1975.9.13. 및 1976.1.30. 아래 보고함.

- 스웨덴 언론에서 일본인들이 김지하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보도
- 김지하 노벨평화상 후보 문제는 현 단계로서는 사태 진전을 주시하면서 관계 인사와의 접촉을 유지하되, 한국 측에서 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외부에 표시함은 김지하를 유명인사화하고 반발을 초래할 역효과가 우려됨.

4. 주노르웨이대사는 1976.2.4. 추가 보고함.

- 노벨위원회 사무국장은 후보등록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김지하는 수상 대상자로서 자격 요건이 될 실질적인 공헌 내용이 없어 유력한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이미 언급
- 현재로서는 본 건 심사를 위한 진전 사항이 전혀 없으며, 1976년 하반기 이후가 되어야 동 위원회 동정이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현 단계에서의 지나친 관심 표명은 오히려 김지하에 대한 주의를 더욱 환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예비 심사내용이 밝혀진 후 대책을 수립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



5. 주노르웨이대사는 1976.4.27. 추가 보고함.

- 노벨위원회 사무국장이 한국 명예총영사에게 극비라고 전제하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무국 및 선발위원들의 비공식 의견은 김지하의 수상 가능성이 전무(全無)하다고 함.

구주지역 국가 외무성 조직 및 인원 현황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

MF번호 B-6-26 / 10 / 1-29

1976.8~9월 중 구주지역 각 공관은 주재국 외무부의 한국관계 부서조직 및 담당인사 명단을 보고함.

1. 스웨덴(1976.8.2.)
2. 스위스(1976.8.2.)
3. 그리스(1976.8.3.)
4. 덴마크(1976.8.4.)
5. 터키(1976.8.6.)
6. 스웨덴(1976.8.6.)
7. 포르투갈(1976.8.10.)
8.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1976.8.17.)
9. 핀란드(1976.8.19.)
10. 오스트리아(1976.9.7.)
11. 터키(1976.11.26. 추가 보고)

의전실무편람 개정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의전1

MF번호 B-6-26 / 11 / 1-181

1975~76년 중 각국 재외공관이 의전실무편람 개정을 위하여 각국의 의전 관련자료를 송부한 내용임.

1. 스페인(1975.10.15.)

- 국가원수 이력서 및 사진, 국경일, 서열관행, 신임장 제정관행, 외빈 영접기준, 외교관 면세 수입제도, 대표적 민요악보

2. 우루과이(1975.10.20.)

- 대통령 이력서 및 사진, 대표적 민요악보, 외교관 면세수입제도에 관한 대통령령

3. 교황청(1975.10.22.)

- 국가원수(교황) 이력서 및 사진

4. 과테말라(1975.10.20.)

- 대통령 이력서 및 사진, 민요악보, 기타 의전관계 참고사항

5. 말레이시아(1975.10.24.)

- 국왕 이력서 및 사진

6. 덴마크(1975.10.30.)

- 의전관계 전반

7. 라이베리아(1975.11.7.)

- 외빈영접 및 의전자료, 대통령 이력사항

8. 요르단(1975.11.10.)

- 의전자료 일반

9. 멕시코(1975.12.3.)

- 대사부임 시 관행



10. 태국(1976.1.7.)

- 국가원수 관계 행사

11. 핀란드(1976.3.18.)

- 대통령 이력서, 대표적 민요악보, 의전편람 내용 중 변경사항

12. 니카라과(1976.5.20.)

- 의전관행 소책자

대사파견 - 아르헨티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총무 / 의전1

MF번호 2007-2 / 24 / 1-51

1. 외무부는 1976.3.4. 남철 주노르웨이대사를 신임 주아르헨티나대사로 내정하고, 아르헨티나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아르헨티나 정부는 1976.4.23. 남철 주아르헨티나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6.5.7. 남철 주아르헨티나대사를 발령함.
4. 남철 대사는 1976.6.25. Videla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5. 외무부는 1976.6.4. 남철 주아르헨티나대사를 주파라과이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파라과이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 파라과이 정부는 7.13. 아그레망을 부여함.
6. 남철 대사는 1976.9.7. Alfredo Stroessner 파라과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남 대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문안을 전달함.
 - Stroessner 파라과이 대통령은 한국의 눈부신 제반 발전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고 박 대통령에게 각별한 문안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대사파견 - 방글라데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 의전1

MF번호 2007-2 / 30 / 1-40

1. 외무부는 1976.4.7. 윤찬 외교연구원 연구관을 신임 주방글라데시대사로 내정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방글라데시 정부는 1976.5.22. 윤찬 주방글라데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6.6.3. 윤찬 주방글라데시대사를 발령함.
4. 윤찬 대사는 1976.7.13. Sayem 방글라데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윤 대사는 신임장 제정 시, Sayem 대통령과 방글라데시의 번영과 행복을 기원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하고, 양국간 기존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함.

대사파견 - 벨기에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1 / 의전1

MF번호 2007-3 / 4 / 1-66

1. 외무부는 안광호 코트라 사장을 신임 주벨기에대사로 내정하고 벨기에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벨기에 정부는 1976.4.15. 안광호 주벨기에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6.5.17. 안광호 주벨기에대사를 발령함.
4. 안광호 대사는 1976.7.2. Baudouin 벨기에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안 대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안부 전달, 한국의 경제발전 및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양국간의 전통적 우호관계 강화를 다짐
 - Baudouin 국왕은 한반도 정세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박 대통령에게 안부전달을 요망
5. 안광호 대사는 1976.7.19.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장 및 이사회 의장에게 겸임대사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안 대사는 한·EC 관계증진, 한국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 한·EC 통상증진 및 경제협력, 6·23 평화외교선언 및 남북대화, 유엔 한국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6. 안광호 대사는 1976.10.12. Jean 룩셈부르크 대공(大公)에게 겸임대사 신임장을 제정함.
 - Jean 대공은 한·룩셈부르크의 정치 및 친선관계에 만족한다고 언급하고 양국간 관계강화를 희망
 - 한국인의 중동진출과 근면성을 찬양
 - 안 대사는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
 - 한국은 자주경제를 목표로 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통일 달성을 위해 노력 중임을 언급

대사파견 - 바레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 총무 / 의전1

MF번호 2007-3 / 5 / 1-30

1. 외무부는 1976.6.29. 김인두 주휴스턴총영사를 신임 주바레인대사로 내정하고 바레인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바레인 정부는 1976.7.5. 김인두 주바레인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김인두 대사는 1976.10.23. Sulman Al-Khalifa 바레인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김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에서 양국 관계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
 - Sulman Al-Khalifa 국왕은 동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바레인 진출 한국 근로자를 통해 알게 된 한국민의 근면성을 치하하면서 향후 양국간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희망

대사파견 - 칠레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의전1 / 중남미

MF번호 2007-3 / 15 / 1-102

1. 외무부는 1975.5.30. 장재용 주에티오피아대사를 신임 주칠레대사로 발령함.
2. 장재용 주칠레대사는 1975.8.27. Pinochet 칠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장 대사는 Pinochet 대통령의 건강과 칠레 국민의 복지와 행운을 축복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하고, 양국간 현존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양국이 상호 국익을 위해 특히 통상교역 분야에서의 많은 협력 가능성을 지적함.
 - Pinochet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건강과 한국 국민의 성공기원을 언급하면서, 10월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에 사절단을 보내어 행사참여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발전 성공의 비결을 배워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
3. 외무부는 1975.11.19. 장재용 주칠레대사를 주에콰도르대사로 겸임 발령함.
4. 장재용 대사는 1976.2.23. Alfredo Poveda Burbano 에콰도르 최고위원회 의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장 대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하고, 유엔총회에서의 한국 문제 제기 시 지속적인 지지를 기대, 긍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한편, 한국의 정유소 건설참여 등 최근 한·에콰도르 간의 경제·문화 협력이 급속도로 증진되고 있음을 설명
 - Burbano 의장도 박정희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달하고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의 지속을 희망한다고 언급

대사파견 - 카메룬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의전1 / 서부아프리카

MF번호 2007-3 / 19 / 1-116

1. 외무부는 1974.6.1. 윤영교 주시카고총영사를 신임 주카메룬대사로 발령함.
2. 윤영교 주카메룬대사는 1974.7.4. Ahidjo 카메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윤 대사는 Ahidjo 대통령의 건강과 카메룬 국민의 복지와 번영을 기원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하고, 카메룬의 제3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업적을 경하하면서 양국간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
 - Ahidjo 대통령은 동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박 대통령에게 안부전달을 당부하면서 양국관계의 강화와 아시아·아프리카 간 평화, 자유와 진보를 공유하는 협력관계 발전 희망을 언급
3. 외무부는 1975.10.21. 윤영교 주카메룬대사를 주차드대사로 겸임 발령함.
4. 윤영교 대사는 1975.12.29. Malloum 차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윤 대사 언급요지
 - 박 대통령의 안부전달과 현존 양국간 우호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
 - Camougue 차드 외상이 방한하여 구체적인 경제협력 분야를 협의하는 방안을 제안
 - Malloum 대통령 언급요지
 - 박 대통령에 대한 안부전달과 대사의 임무수행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
 -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언급하면서 외부와의 경제협력을 희망하고 한국의 경제사절단 차드 파견을 요청

대사파견 - 중앙아프리카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총무 / 의전1

MF번호 2007-3 / 22 / 1-24

1. 외무부는 1976.4.7. 박영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신임 주중앙아프리카대사로 내정하고 중앙아프리카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중앙아프리카 정부는 1976.4.26. 박영 주중앙아프리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6.5.14. 박영 주중앙아프리카대사를 발령함.
4. 박영 대사는 1976.7.9. 보카사 중앙아프리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박 대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안부와 보카사 대통령의 조속한 방한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전달하면서 비동맹 회의 및 유엔에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한국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명
 - 보카사 대통령은 중앙아프리카는 한국의 옛 친구로서 계속 한국을 지지하겠다고 공언

대사파견 -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 인사

MF번호 2007-3 / 24 / 1-57

1. 외무부는 1976.3.4. 신기흠 외무관을 신임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로 내정하고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1976.3.11. 신기흠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6.4.14. 신기흠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를 발령함.
4. 신기흠 대사는 1976.5.13. Mobutu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신 대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인사를 전달하고 양국간의 지속적인 발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맹렬한 허위선전에도 불구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의 공정하고 협조적 태도에 대해 사의를 표명
 - Mobutu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 대한 안부 전달을 당부하고, 한국에 대한 콩고민주공화국의 우호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다짐
 - 한국이 농업, 보건 등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1년전 외무부차관을 특사로 파견하여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에 대한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었음을 지적
5. 한국 정부는 신기흠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를 주스와질랜드 및 보츠와나 겸임대사로 내정하고, 양국으로부터 모두 아그레망을 접수하였으나 내정을 철회함.
 - 스와질랜드에 대한 관할은 통신, 교통, 언어 및 케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주케냐대사관이 겸임하도록 환원 결정
 - 보츠와나에 대해서는 아그레망 요청을 철회한다는 공한 발송, 신임장 제출 취소를 요청함.

대사파견 - 덴마크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총무 / 의전1

MF번호 2007-3 / 27 / 1-31

1. 외무부는 1976.3.4. 장지량 주필리핀대사를 신임 주덴마크대사로 내정하고 덴마크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덴마크 정부는 1976.3.23. 장지량 주덴마크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6.5.7. 장지량 주덴마크대사를 발령함.
4. 장지량 대사는 1976.6.23. Margrethe 2세 덴마크 여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장 대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고, 여왕의 삼촌 Prince Knud 사망에 대한 박 대통령의 조의 전달
 - Margrethe 여왕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명

대사파견 - 인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총무 / 의전1

MF번호 2007-4 / 15 / 1-48

1. 외무부는 1976.3.29. 이범석 대사를 신임 주인도대사로 내정하고 인도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인도 정부는 1976.5.19. 이범석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6.6.3. 이범석 주인도대사를 발령함.
4. 이범석 대사는 1976.7.20. Fakhruddin Ali Ahmed 인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이범석 대사 언급요지
 - 박 대통령의 Ahmed 대통령에 대한 안부를 전달하고, 북한의 공산화 무력통일 정책과 한국의 평화 통일정책을 설명
 - Ahmed 대통령 언급요지
 - 박 대통령에 대한 문안 전달을 요청하고, 한반도 내의 긴장조성에 대한 현황 및 북한 평양의 실태에 대해 문의
 - Ahmed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경이적 발전에 관해 언급하고, 인도에서도 이를 본보기로 삼아 경제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

대사파견 - 인도네시아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동남아 / 의전1

MF번호 2007-4 / 17 / 1-98

1. 외무부는 1974.3.8. 이재설 주인도네시아대사를 발령함.
2. 이재설 대사는 1974.4.3. Suharto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이 대사는 박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하고, 인도네시아의 성공적인 제1차 경제개발계획 달성을 언급하면서 양국이 경제협력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전언
 - Suharto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한국이 이룩한 경제적 발전에 경의를 표명
 - 이 대사가 경제전문가로서 인도네시아 경제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 많이 조언해 주기를 희망하고,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이 인도네시아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힘써주도록 당부
3. 한국 정부는 1976.5.14. 이재설 주인도네시아대사를 주파푸아뉴기니 겸임대사로 내정함.
4.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1976.5.31. 이재설 주파푸아뉴기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5. 이재설 대사는 1976.8.11. J. Guise 파푸아뉴기니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이 대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달하고,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을 계기로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조를 통한 공동발전을 기하자는 요지의 신임장 제정사를 시행
 - Guise 총독은 박 대통령에게 안부 전달을 당부하고, 한국과 파푸아뉴기니는 아·태지역에 위치한 나라로서 각자의 주권을 존중하는 정신하에 공동의 개발과 국제협력을 기해야한다고 답사

대사파견 - 코트디부아르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 총무 / 의전1

MF번호 2007-4 / 22 / 1-112

1. 외무부는 1976.3.4. 한우석 외무관을 신임 주코트디부아르대사로 내정하고 코트디부아르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1976.4.24. 한우석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6.5.7. 한우석 주코트디부아르대사를 발령함.
4. 한우석 대사는 1976.7.12. 부와니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한 대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하고, 양국간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유엔 및 국제기구 등에서의 코트디부아르의 한국입장 지지에 사의를 표명. 또한 한국의 긴장완화 및 평화통일 정책을 설명하고, 북한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진전이 없음을 설명
 - 부와니 대통령은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찬양하고 최근 한국의 경제발전 및 새마을운동으로 이룩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치하하고 한반도의 최근 정세와 대화진전에 관심 표명
5. 외무부는 1976.6.4. 한우석 주코트디부아르대사를 주니제르 및 주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겸임대사로 내정하고, 양국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6. 한우석 대사는 Seyni Kountche 니제르 의장(1976.9.4.)과 부르키나파소 대통령(11.25.)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모로코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총무

MF번호 2007-5 / 5 / 1-38

1. 외무부는 1976.3.4. 이택근 주중앙아프리카대사를 신임 주모로코대사로 내정하고 모로코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모로코 정부는 1976.4.30. 이택근 주모로코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6.5.14. 이택근 주모로코대사를 발령함.
4. 이택근 대사는 1976.10.13. Hassan 2세 모로코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이 대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하면서 양국간의 우호와 협력 증진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짐하고, 국제 문제에 있어서 모로코의 적극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명
 - Hassan 국왕은 동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며 모로코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안부전달과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

대사파견 - 멕시코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의전1

MF번호 2007-5 / 7 / 1-122

70

1. 외무부는 1975.6.20. 장상문 주스웨덴대사를 신임 주멕시코대사로 내정하고 멕시코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멕시코 정부는 1975.8.21. 장상문 주멕시코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5.8.30. 장상문 주멕시코대사를 발령함.
4. 장상문 대사는 1975.10.2. 에체베리아 멕시코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장 대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고 양국간 현안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5. 외무부는 1975.6.28. 장상문 주멕시코대사에 대한 5개 겸임국 아그레망을 신청한바, 8월 아래와 같이 아그레망이 접수됨.
 - 코스타리카(8.4.)
 - 엘살바도르(8.12.)
 - 과테말라(8.13.)
 - 온두라스(8.13.)
 - 니카라과(8.28.)
6. 외무부는 1975.9.25. 및 10.7. 장상문 주멕시코대사를 주과테말라, 주코스타리카, 주니카라과, 주엘살바도르, 주온두라스 겸임대사로 발령함.
7. 장상문 주멕시코대사는 1975.10~76.1월 겸임대사 신임장을 아래와 같이 제정함.
 - 과테말라: Kjell Eugenio Laugerud Garcia 대통령에게 제정(1975.10.23.)
 - 온두라스: Oswaldo Lopez Arellano 대통령에게 제정(11.20.)
 - 니카라과: Anastasio Somoza Debayle 대통령에게 제정(11.24.)
 - 코스타리카: Daniel Oduber Quiros 대통령에게 제정(12.3.)
 - 엘살바도르: Arturo Armando Molina Barraza 대통령에게 제정(1976.1.16.)

대사파견 - 노르웨이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2 / 의전1

MF번호 2007-5 / 10 / 1-31

1. 외무부는 1976.3.4. 한상국 대사를 신임 주노르웨이대사로 내정하고 노르웨이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노르웨이 외무성은 1976.3.12. 한상국 주노르웨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6.5.6. 한상국 주노르웨이대사를 발령함.
4. 한상국 대사는 1976.6.8. Olav 5세 노르웨이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5. 외무부는 1976.6.4. 한상국 주노르웨이대사를 주아이슬란드 겸임대사로 발령함.
6. 한상국 대사는 1976.9.14. 크리스찬 엘자른 아이슬란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한 대사는 9.13.~18. 신임장 제정을 위한 아이슬란드 출장 계기에 아이슬란드 외상 및 외무차관을 면담하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 및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함.

대사파견 - 필리핀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 총무 / 의전1

MF번호 2007-5 / 15 / 1-16

1. 외무부는 1976.3.4. 강영규 대사를 신임 주필리핀대사로 내정하고 필리핀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76.5.25. 강영규 주필리핀대사를 발령함.
3. 강영규 대사는 1976.7.6. Marcos 필리핀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강 대사는 남북대화 중단 등 최근의 한반도 정세에 관해 설명함.

대사파견 - 파나마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 의전

MF번호 2007-5 / 17 / 1-22

1. 외무부는 1976.3.4. 최석신 대사를 신임 주파나마대사로 내정하고 파나마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파나마 외무부는 1976.3.25. 최석신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최석신 대사는 1976.5.21. Boyd 파나마 외무장관을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 Boyd 외무장관은 파나마운하 조약갱신 협상 타결을 위한 대미 압력을 가중시키기 위해 파나마가 비동맹그룹에 가입하였다고 설명
 - 파나마는 한·파나마 간 기존 우호관계에도 불구하고 작년 유엔총회에서 한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다고 설명
4. 최석신 대사는 1976.6.18. Lakas 파나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사우디아라비아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중동 / 의전1

MF번호 2007-5 / 23 / 1-104

1. 외무부는 1975.6.20. 유양수 대사를 신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로 내정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75.6.28.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에게 겸임국 오만, 카타르에 신임 유양수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을 지시함.
3.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1975.8.19. 유양수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4. 유양수 대사는 1975.10.25. Khalid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Khalid 국왕은 경제기술면에서 한국의 협력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간 관계증진에 기대 표명
5.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76.1월 카타르 정부가 아그레망 발급없이 신임장 접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함.
6. 유양수 대사는 1976.3.6. Khalifa bin Hamad Al Thani 카타르 국왕에게 겸임대사 신임장을 제정함.
7. 유양수 대사는 1976.4.11. Qaboos bin Said 오만 왕에게 겸임대사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태국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총무 / 의전1

MF번호 2007-6 / 6 / 1-20

1. 외무부는 1976.3.4. 박근 대사를 신임 주태국대사로 내정하고 태국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태국 정부는 1976.4.23. 박근 주태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박근 대사는 1976.8.2. Bhumibol Adulyadej 태국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튀니지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 총무 / 의전1

MF번호 2007-6 / 9 / 1-37

1. 외무부는 1976.3.4. 황호을 대사를 신임 주튀니지대사로 내정하고 튀니지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튀니지 정부는 1976.3.24. 황호을 주튀니지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황호을 대사는 1976.5.31. Habib Bourguiba 튀니지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황 대사는 한반도의 분단경위 및 북한의 침략위협 등을 설명하고 유엔 및 비동맹에서의 한국입장 지지를 요청
 - Bourguiba 대통령은 북한의 비현실적인 정책을 잘 알고 있으며, 한국과 우호관계 특히 경제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언급

대사파견 - 터키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2007-6 / 11 / 1-32

1. 외무부는 1976.3.4. 문철순 대사를 신임 주터키대사로 내정하고 터키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터키 정부는 1976.3.22. 문철순 주터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문철순 대사는 1976.6.1. Fahri Korturk 터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문 대사는 한국이 어려울 때 주재국이 도와준 데 대해 사의 표명
 - Korturk 대통령은 한국이 6·25 전쟁 당시 터키의 도움을 잊지 않고 있어 더욱 우호관계를 느끼며 언제나 한국을 이해하고 지원하겠다고 언급

대사파견 - 우간다

생산연도 1972-1976

생 산 과 의전1

MF번호 2007-6 / 12 / 1-118

1. 외무부는 1972.1.25. 한유동 대사를 신임 주우간다대사로 내정하고 우간다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우간다 정부는 1972.2.25. 한유동 주우간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한유동 대사는 1972.6.5. Idi Amin 우간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한 대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Amin 대통령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동 대통령은 이를 수락함.
 - 동 대통령은 한국의 의약품 지원과 교도소 경비대 훈련을 위한 유도 사범 파견에 사의를 표함.
4. 르완다 정부는 1972.7.13. 한유동 주르완다 겸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5. 한유동 대사는 1972.8.23. Gregoire Kayibanda 르완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남북한 적십자회담 등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르완다 정부의 지지를 요청한바, Kayibanda 대통령은 한국 측 입장에 이해를 표명함.
6. 외무부는 1975.5월 겸임국 조정에 따라 한유동 대사가 주말라위대사를 겸임하도록 말라위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 말라위 정부는 9.3. 아그레망을 부여함.
7. 한유동 대사는 1976.5.18. Hastings Kamuzu Banda 말라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Banda 대통령은 한국의 평화정책을 유엔총회에서 지지하겠다고 언급함.

대사파견 - UN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 의전1

MF번호 2007-6 / 17 / 1-12

1. 외무부는 1976.3.26. 외무부장관 명의의 문덕주 신임 주유엔대사 임명 서한을 주유엔대사에게 송부함.
2. 문덕주 대사는 1976.4.2. Kurt Waldheim 유엔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는 회원국의 결정에 따라 정해질 것이나, 최대한 관심을 갖고 보다 좋은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함.

대사부임 - 아프가니스탄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의전

MF번호 B-6-26 / 12 / 1-36

1. 주일본 아프가니스탄대사관은 1974.10.25. 공한으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Ali Ahmad Popal 주일본대사를 초대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였음을 통보하면서 동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74.11.18. 상기 아그레망을 부여하고 11.20.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아그레망 부여 사실을 통보함.
3. Popal 대사는 1976.2.21.~28. 방한하여 2.24.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사는 방한 기간 중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외무부차관을 예방함.

대사부임 - 아르헨티나, 1972-76

생산연도 1972-1976

생 산 과 의전 / 중남미

MF번호 Re-22 / 15 / 1-5

1. 한국 정부는 1971.8.13. Jorge Salvador Oria 주한 아르헨티나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Oria 대사는 1971.10.28.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3. 아르헨티나 정부는 1973.6.1.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함.
 - 외무부는 동 대사 내외가 신청한 대통령 및 영부인 예방을 취소하도록 건의함.

대사부임 - 아르헨티나, 1975-76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의전 / 남미

MF번호 B-6-26 / 13 / 1-73

1. 아르헨티나 정부는 1975.12.5. Edgar E.P. Colman 주싱가포르총영사를 주한 아르헨티나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75.12.20. Colman 주한 아르헨티나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Colman 대사는 1976.2.24.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사는 2.23.~3.3. 부임 인사차 방한하여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외무부차관, 외무부차관보, 미주국장, 의전실장을 예방함.

대사부임 - 호주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의전1 / 서남아

MF번호 B-6-26 / 14 / 1-41

1. 호주 정부는 1976.3.17. Donald James Horne를 신임 주한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76.3.30. Horne 주한 호주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Horne 대사는 1976.6.17.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신임장 제정사에서 동 대사는 한·호주 양국의 상호 관심분야에서의 관계 증진과 양국민 간 유대 관계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짐함.
 -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초창기 호주가 보여준 적극적 지지와 6·25 전쟁 시 지원과 희생에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간 협력의 폭이 정치·경제·사회 등 제 분야에서 확대되어 온 것을 높이 평가함.

대사부임 - 오스트리아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의전 / 구주

MF번호 B-6-26 / 15 / 1-72

1. 오스트리아 정부는 1975.11.26.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Franz Weidinger 신임 주일본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한다고 통보하고 동 대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75.12.8. Weidinger 주한 오스트리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Weidinger 대사는 1975.3.30.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사는 신임장 제정을 위하여 3.26.~4.3. 방한하여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차관을 예방함.

대사부임 - 엘살바도르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의전1 / 중미

MF번호 B-6-26 / 17 / 1-84

1. 엘살바도르 외무성은 1976.4.6. 신임 주한 엘살바도르대사에 Gregorio Conteras Morales 주 일본대사(일본 상주)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주멕시코대사관에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76.4.14. Morales 주한 엘살바도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Morales 대사는 1976.10.26.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사는 신임장 제정을 위하여 10.25.~29. 방한하여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을 예방하고 경인지구를 산업시찰함.

대사부임 - 그리스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의전 / 구주1

MF번호 B-6-26 / 18 / 1-54

1. T.L. Chrysanthopoulos 주한 그리스대사(동경 상주)는 이임 인사차 1975.9.17.~19. 방한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었으나 동 대사의 방한이 불가능하게 됨.
 - 외무부는 9.17. 동 대사에게 수여할 예정이던 수교훈장 광화장을 주그리스대사관을 통해 전수할 것임을 주일본대사에게 통보함.
2. 주한 그리스대사관(일본 상주)은 1975.9.9. T.L. Chrysanthopoulos 현 주한 겸임대사의 후임으로 Jean C. Cambiotis 대사가 임명되었음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3. 한국 정부는 1975.9.25. Cambiotis 주한 그리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4. Cambiotis 대사는 신임장 제정을 위해 1976.2.21.~3.1. 방한하여 2.24.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사는 방한기간 중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전매청장을 예방함.

대사부임 - 이탈리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의전 / 서구1

MF번호 B-6-26 / 19 / 1-51

1. 외무부는 1976.4.28. 이탈리아 정부가 Bertuccioli 전임 주한 이탈리아대사가 1975.12월 이임한 후 후임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음을 환기시키면서 주한대사의 조속 임명을 요청하도록 주이탈리아대사에게 지시함.
2. 이탈리아 정부는 1976.5.4. 신임 주한 이탈리아대사로 Mario Crema 전 주일본공사를 임명할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3. 한국 정부는 1976.5.18. Crema 주한 이탈리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4. Crema 대사는 1976.8.27.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사는 부임 인사를 위해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을 예방함.

대사부임 - 노르웨이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의전1 / 구주1
MF번호	B-6-26 / 20 / 1-44

1. 주일본 노르웨이대사관은 1976.2.12. Bjorn Blackstad 노르웨이 외무부 행정국장을 신임 주한 노르웨이대사(동경 상주)로 임명할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76.3.5. Blackstad 주한 노르웨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Blackstad 대사는 신임장 제정을 위해 1976.10.24.~11.2. 방한하여 10.26.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뉴질랜드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의전 / 동남아

MF번호 B-6-26 / 21 / 1-89

1. T.C. Larkin 주한 뉴질랜드대사(동경 상주)는 이임인사 차 1976.7.6.~8. 방한하여 7.8.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함.
 - 동 대사는 방한 중 외무부장관, 국무총리를 예방함.
2. 뉴질랜드 정부는 1976.8.12. 뉴질랜드 정부가 주한 상주대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초대 주한대사로 John Kenneth Cunningham 주칠레 뉴질랜드대사를 임명하고자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3. 한국 정부는 1976.8.29. Cunningham 주한 뉴질랜드대사에 대해 아그레망을 부여함.
 - 뉴질랜드 외무부장관은 9.8. 한국의 중요성이 증가하여 한국 주재 자국 공관을 승격한 것이라며 초대 상주 주한대사 임명을 발표함.
4. Cunningham 대사는 1976.10.29. 부임 차 서울에 도착하여 11.24.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사는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을 예방함.

대사부임 - 태국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의전

MF번호 B-6-27 / 1 / 1-51

1. 태국 외무성은 1975.12.30. 공한을 통해 Suban Sawetamal 신임 주한 태국대사의 임명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76.1.14. Sawetamal 주한 태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Sawetamal 대사는 1976.7.20.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신임장 제정 후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예방

대사부임 - 베네수엘라

생산연도 1975-1977

생 산 과 의전1 / 중남미

MF번호 B-6-27 / 2 / 1-71

1. 주한 베네수엘라대사관은 1976.6.29. Tito Aponte Lopez 주한 베네수엘라대사(일본 상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76.7.9. 신임 주한 베네수엘라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Tito Aponte Lopez 대사는 1976.9.27. 동경에 부임함.
4. Lopez 대사는 1976.11.24.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외무부장관, 대법원장, 국무총리, 상공부장관 예방

영사위임장 발급

생산연도 1975-1977

생 산 과 의전2

MF번호 B-6-27 / 3 / 1-200

1975~77.1월 중 재외 총영사관 근무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영사위임장 발급 관련내용임.

1. 재외 총영사관 총영사 및 직원과 대사관 영사담당 직원은 대통령과 외무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영사위임장을 발급받아 주재국에 영사인가장을 신청, 승인받는 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
2. 1975~77.1월 각 총영사관 및 대사관 영사담당 직원에 대한 영사위임장 발급 기록이 수록 되어 있음.

영사부임 - 브라질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의전1

MF번호 B-6-27 / 4 / 1-13

1. 주한 브라질대사관은 1975.7.29.자 공한을 통해 Luiz Palmary를 부영사로 지명하였음을 통보 하면서 영사인가를 요청함.
2. 외무부는 1975.11.26.자 외교 공한으로 Luiz Palmary의 잠정 영사직무 행사를 인가함.
3. 외무부는 1976.8.11. Luiz Palmary 주한 브라질대사관 부영사에 대한 외무부장관 명의의 영사인가장을 발급함.
 - 영사인가장은 영사로서 자격을 인정하고 국제법과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영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며 권한과 특권의 향유를 인가한다는 것이 주 내용임.

영사부임 - 캐나다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의전2

MF번호	B-6-27 / 5 / 1-8

1.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76.3.24.자 공한을 통해 Donald J. Collier 부영사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영사위임장 사본을 제출해옴.
2. 외무부는 1976.4.2. Collier 부영사에게 외무부장관 명의의 영사인가장을 발급함.

영사부임 - 일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의전

MF번호 B-6-27 / 6 / 1-7

1. 주한 일본대사관은 1976.8.31.자 공한을 통해 아사다 다이초시 신임 주부산 일본총영사에 대한 일본 국왕 명의를 영사위임장을 보내오면서 한국 정부의 영사인가장 발급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76.9.17.자 공한으로 아사다 총영사에 대한 대통령 명의를 영사인가장을 발급함.

명예영사 접수 - 중앙아프리카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아중동

MF번호 B-6-27 / 8 / 1-13

1. 주일본 중앙아프리카공화국대사(동경 상주, 한국 검입)는 1973년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서울 주재 동국 명예영사로 적격한 한국 인사의 추천을 요청함.
2. 외무부는 명예영사 임명이 양국간 우호 및 교류 증진에 유익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중앙아프리카 대사의 추천으로 서창선 (주)한미기공 대표이사를 추천하고 1973.8.13. 명예영사 인가장을 발급함.

명예영사 인가장(접수) - 요르단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B-6-27 / 9 / 1-17

1. 주한 요르단대사(동경 상주)는 1976.5.4.자 공한으로 유정열 주서울 요르단 명예영사가 4.15. 사임하였음을 통보함.
2. 주한 요르단대사는 1976.7.6.자 공한을 통해 최원석 동아그룹 사장을 주한 요르단 명예영사로 임명하고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해 왔으며, 외무부는 9.2. 동인에 대한 주한 요르단 명예영사 인가장을 발급함.
3. 주한 요르단대사는 1976.11.1.자 공한을 통해 최원석 주한 요르단 명예영사 부부를 요르단에 초청한다고 알려줌.

명예영사 접수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서남아 / 중남미 / 구주2

MF번호 B-6-27 / 7 / 1-78

1975~76년 중 네팔, 도미니카공화국, 핀란드 정부의 주서울 명예총영사, 명예영사 임명 및 주한 명예영사관 개설 관련 동향임.

1. 주한 네팔대사관(일본 상주)은 1975.11.12. 김우중 대우산업 사장을 주한 네팔 명예총영사로 임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 외무부는 12.9. 김우중 사장의 주한 네팔 명예총영사 임명에 동의하고 이를 주일본대사관에 통보
- 네팔 정부는 1976.1.19. 김우중 사장의 주서울 네팔 명예총영사 임명 사실 통보

2. 도미니카공화국은 1976.5.11. 주서울 명예영사관을 명예총영사관으로 승격시키고, 현 명예영사인 김생기 영진약품 사장을 명예총영사로 임명하고자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 총영사관 승격 배경: 양국 수도에 설치된 명예영사관의 격을 일치시키기 위함.
- 정부는 5.21. 총영사관 승격과 김생기 명예영사의 명예총영사 임명 동의 결정 통보

3. 주한 핀란드대사관(일본 상주)은 1975.10.28. 주한 핀란드 명예영사관 개설 승인을 요청함.

- 정부는 12.12. 주한 핀란드 명예영사관 개설 승인 요청에 동의하고 이를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주한 핀란드대사관에 통보
- 주한 핀란드대사는 12.3. 김각중 (주)경방 회장 및 박귀선을 각각 명예영사 및 명예부영사로 임명할 계획이라며 한국 정부의 동의 요청
 - 정부는 1976.5월 김각중 명예영사의 임명에 동의하고 명예영사인가장 발급

무관접수 - 요르단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의전1 / 중동

MF번호 B-6-27 / 10 / 1-3

- 주대만(구 자유중국) 요르단대사관은 1976.7.2.자 공한을 통해 주한 요르단 겸임 무관의 경질을 주대만대사관에 통보함.
 - Col. Mansour Al Kayed 무관이 이임하고, 후임으로 Col. Arif Mjerry Nuwar 대만 상주 무관이 3.6.부터 주한 무관을 겸임함.

주한 한·미국 교육위원단 차량 면세구입 및 유류세 면세 문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의전2

MF번호 B-6-27 / 11 / 1-98

1. 주한 한·미국 교육위원단은 1975.1.25. 및 6.24.자 서한을 통해 한·미국 행정협정에 의거하여 면세 차량을 구입하고자 한다며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한·미국 정부간 협정'에 따라 면세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서울세관장(1.28.)과 부산세관장(7.9.)에 면세통관 조치 협조 요청
2. 동 교육위원단은 1975.10.4. 공용차량 2대의 면세통관을 요청함.
3. 동 교육위원단은 1975.11.3. 공용차량 및 난방용 유류의 면세 구입 승인을 외무부에 요청함.
 - 외무부 의전실은 12.3. 동 위원단은 면세특권이 없어 유류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을 통보하였으나, 슈나이더 주한 미국대사는 1976.1.14. 동 건의 정책적 재고를 요청함.
4. 외무부는 주미국대사관 및 부내의견을 종합하여, 동 교육위원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유류에 한하여 면세특권을 인정하기로 하고, 1976.7.23. 국세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보함.

주한 대만(구 자유중국)대사관 도서관 건물의 목적 외 사용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의전2

MF번호 B-6-27 / 12 / 1-94

1.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1976.1.30. 주한 대만(구 자유중국)대사관이 총영사 명의로 대사관 소유 대지에 도서관 건립허가를 얻어 완공한 후, 일부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점포 및 음식점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정보를 외무부에 통보함.

- 주한 대만대사관 소유 건물에서의 영업행위 경위
 - 1975.9.16. 대사관의 도서관용으로 건축허가 취득 후 준공
 - 1975.12.17. 건물 일부의 용도변경 허가(요식업용)를 취득하고, 점포, 음식점 등 입주 영업허용
 - 중부세무서는 입주자에게 영업세 부과
- 외무부의 진상조사 결과 요지
 - 토지는 청조(淸朝) 때부터 대사관 재산임.
 -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여러 가지 연고로 장기간 상기 토지에서 거주해온 화교들임.
 - 건물은 화교단체 헌금으로 건축하고 건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음.

2. 외무부 의전실장은 1976.2.5. 주한 대만대사관 공사를 조치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시정조치를 요구함.

- 대만 측은 상황의 특수성과 한·대만 간의 역사적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한국 정부의 호의적인 고려를 요청함.

3. 외무부는 1976.9.2. 주한 대만총영사를 초치하고, 건물임대 행위에 대한 외무부의 조치사항을 통보함.

- 도서관 건물을 본래의 설립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함.
- 외국 정부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에 이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주한 대만대사관이 임대 행위를 시정할 때까지 영리소득 부분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것임.

영국 국방성의 거문도 소재 영국 해군묘지 토지 취득 허가 문제

생산연도 1971-1976

생 산 과 의전2

MF번호 B-6-27 / 13 / 1-60

1. 주한 영국대사관은 1971.11.30.자 공한을 통해 영국 국방부가 한국 남해안 거문도 소재 영국 해군묘지가 있는 약 0.5평 상당의 토지를 구입하여 법률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고 알려오면서 토지 취득 허가를 요청함.

- 외무부는 내무부의 의견을 들어 1972.5.3.자 공한을 통해 허가증의 교부를 위해서는 공식 신청서를 해당 도지사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을 주한 영국대사관에 통보함.

2. 주한 영국대사관은 1975.2.3.자 공한으로 1885~87년까지 영국함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거문도에 매장되어 있는 10명의 수병묘지를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 60평을 구입하고자 한다며 동 토지에 대한 권리 취득 허가를 요청함.

- 내무부는 아래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 현행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 법안에는 외국인의 분묘지 취득은 불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아직까지 외국인의 분묘지 취득을 허가한 바 없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적인 임차권 설정은 가능하며 이 경우 시·도를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함.

3. 내무부는 1976.3.17. 영국 정부가 거문도 임야 60평의 임차권을 신청하여 왔음을 외무부에 알려옴.

- 외무부는 5.20. 영국해군 전사자 묘지 임차권 신청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통보함.

가도미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정치국장(외상) 방한 초청 추진 검토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94 / 1 / 1-9

1. 주일본대사는 1976.3.5. 일본 자민당이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제2인자인 Farouk al-Kaddoumi 정치국장의 방일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동인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 동 정치국장은 4~5월경 방일 예정임.
 - 동인의 방일은 형식적으로는 일본의 자민당 국제기구에서 초청한 것이나 사실상 일본 외무성이 초청한 것임.
 - 미야자와 일본 외상은 1975.8월 PLO대표가 개인자격으로 입국하여 임의단체로서의 사무소 설치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함.
 - 주일본대사는 주일본 아랍연맹 대표에게 동 국장의 방한 초청을 타진한바, 동 대사는 한국 정부의 결정이 있으면 방한을 적극 추진해 보겠다고 함.
 - 동 국장이 방한을 희망할 경우, 한국 민주공화당 또는 유신정우회(유정회) 명의로 방한 초청을 추진함이 바람직함.
2.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1976.4.21. 동 정치국장의 방한 초청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대미국 외교시책 및 업무계획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6-94 / 3 / 1-113

1976년 중 대미국 외교시책 및 계획 수립 관련 내용임.

1. 외무부 미주국은 1976년도 대미국 외교시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미국대사관에 재외공관 보고의무 규정에 따라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지시

- 외무부 관련 실·국에도 미국 관련 업무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각 계획을 접수함.

2. 외무부 미주국은 1976.2.6. 취합된 계획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1976년도 대미국 외교 시책 및 업무계획(안)을 작성함.

- 보고서 구성 내용
 - 미국 정세 개관(대내외 정세, 대한민국 및 대북한 태도)
 - 1976년도 대미국 외교정책 목표와 방침
 - 10개 분야에서의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부록(접촉 대상자 명단)
- 정책 목표
 - 한·미국 안보체제의 공고화
 - 한국의 외교정책 수행에 있어 미국의 확고한 지지 획득 및 협조 강화
 -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확보

미국 Carter 신정부 수립 및 한·미국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6-94 / 4 / 1-146

197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카터 후보 당선 전망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책 및 주요 활동 내용임.

1. 카터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의 정강정책

- 주한미군의 4~5년 이내 점진적 철수,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무기 철수, 한국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 등 부정적 자세를 견지함.
- 한국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측근 접촉 등 대비 활동을 전개함.

2. 외무부 및 중앙정보부의 대응

- 외무부는 '한반도 정세 및 한·미국 관계' 자료를 작성하여 주미국대사관에 송부함.
- 중앙정보부는 1976.8.7. 외무부 작성 자료에 대한 의견을 담은 자료를 보내오면서 참고하여 보강할 것을 통보
 - 카터 후보에 대한 한국정세 설명 메모 내용 평가
- 외무부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카터가 당선되자 '1976년도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한 대미국 외교정책 방안' 보고서를 작성함.

3. 함병춘 주미국대사의 활동 내용

- 1976.7.10. 한국 정부의 제반 현안 문제(안보, 인권 등)에 관한 입장을 담은 메모를 작성하여 카터 후보의 측근인 Clark 명예영사를 통해 전달할 것을 건의함.
- 미국 내 총영사와 명예영사에게 배포하는 내부 참고용 자료형식의 영문자료를 8.5. Clark 명예영사에게 전달
- 동 카터 후보의 거주지역인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도 동 후보의 주변 인물을 통한 한국입장 전달을 도모함.

4. 김영선 주일본대사의 활동 내용

- 일본을 방문한 카터 후보의 측근 John Pope를 1976.8.16. 오찬에 초대하여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의 이해를 요청함.
 - Pope는 동 후보는 주한미군 문제 등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공정하게 문제해결을 원한다고 설명함.
 - 6월 방한하여 인권 문제 등을 비판하고 동 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행동한 Cohen 교수의 대표 자격을 부인함.

대미국 의회활동 계획 및 보고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6-94 / 2 / 1-116

1976년 중 대미국 의회활동 계획임.

1. 외무부 북미국은 1976.1.20. '1976년도 대미국 의회활동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하면서 이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시함.

● 2.27. 및 3.3. 관계부처 및 국회 실무자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의원 초청 외교 추진 등 협의

2. 정일권 국회의장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 대한 방한 초청장을 발송함.

일본의 대한 정책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6-94 / 6 / 1-77

1975~77년 중 일본 정부의 대한국 정책 내용임.

1. 1975년

- 미키 일본 수상은 1.13. 취임 후 첫 외신기자 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남·북한 간 등거리외교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를 부인하면서도 다만 북한에 대하여는 문화 및 경제교류를 늘려가고자 한다고 언급함.
- 동 수상은 1.24.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국가 간에는 경제협력,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기초를 구축하는데 계속 공헌하고자 한다.'고 언급함.

2. 1976년

- 미키 수상은 1.19. 일본 기자클럽 주최 오찬에서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와 평화공존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함.
- 동 수상은 일본 국회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함.
 - 한·일본 간 우호관계에 변화는 없으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됨.
 - 북한과는 상호 정보결여로 불필요한 의심과 경계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북한과 교류를 하겠음.
 -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극히 중요함은 재언할 필요가 없으며 1972년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남·북한 간 실질적 대화 재개를 희망하고 이를 위한 국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협력하겠음.

3. 1977년

- 외무부 아주국은 6월 '일본의 80년대 대한반도 정책' 자료를 작성함.
 -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의 행위자들의 움직임, 그에 따른 일본의 대내외 정책변화 가능성, 한반도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

중국(구 중공)·러시아(구 소련)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동북아2 / 구주2

MF번호 C-6-94 / 7 / 1-51

1974~76년 중 중국(구 중공)과 소련 간의 경쟁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 아주국은 1974.3월 '중국·소련 간 경쟁관계를 고려한 대공산권 관계개선 방안' 보고서를 작성함.

- 중국·소련 분쟁의 이중적 성격, 북한의 움직임과 한국에 미치는 군사적 및 외교적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경쟁관계를 한국의 대중국 관계개선 방안에 연계시키고자 함.

108

2. 소련 프라우다 신문은 1974.5월 '북경의 해양에 대한 야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해군력 증강의 위험을 지적함.

3. 외무부는 1975.10월 '중국·소련 분쟁' 자료를 작성함.

- 분쟁의 원인, 미국과 일본의 입장, 북한의 입장, 북한의 남침 가능성 등 분석

파나마의 대한 정책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94 / 8 / 1-38

1976년 중 파나마 정부의 북한과의 관계 수립 가능성 및 한국 정부의 대응 내용임.

1. 1976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개최된 비동맹 회의에서의 논쟁

- 파나마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파나마 정부 및 군부 내 일부 친북한 인사들이 한국과의 외교관계 단절 및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주장하여 치열한 논쟁을 야기함.
- Lakas 파나마 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자신의 진퇴 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동 논쟁을 잠정 중지시킴.

2. 한국 정부의 대응

- 파나마의 한국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1976.9월 김동조 특사를 파나마에 파견함.
- 주파나마대사관은 10.25. '현 파나마 정부의 대한민국 정책 검토, 대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함.

러시아(구 소련)의 대외정책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3

MF번호 C-6-94 / 9 / 1-195

1976년 중 소련의 팽창주의적 대외정책 동향에 대한 검토 내용임.

1. 소련 정부의 팽창주의적 정책 동향

- 소련 정부는 1975년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앙골라 공산 반군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 팽창주의적 정책을 추구함.
-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소련 정부가 유럽에서의 긴장완화(데탕트)와 상충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에 의문을 갖게 됨.

110

2. 외무부는 1976.3월 관련 공관에 소련의 기본 대외정책, 중국과의 관계가 소련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하여 주재국 외교관계 당국자, 저명한 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접촉·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3. 외무부는 1976.3월 재외공관 보고결과를 종합하여 ‘소련의 대외정책’ 보고서 작성

- 소련의 대외정책 기본 목표, 중·장기적 전략, 지역별 전략, 대한반도 전략을 상세 분석

미국의 대외정책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6-94 / 10 / 1-37

1976년 중 포드 미국 대통령,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들이 각종 계기에 외교 현안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 및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카터 신정부의 외교정책 전망에 관한 언론 보도 내용 등이 수록됨.

Ford, Gerald 미국 대통령 연두교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6-94 / 11 / 1-121

포드 미국 대통령이 1976.1.19. 의회에서 행한 연두교서(The State of Union) 중 외교, 국방에 관한 내용임.

1. 주미국대사관은 외무부에 아래의 내용을 보고함.

- 포드 대통령의 연두교서 연설 내용 중 외교, 국방 관련사항 정리
- 미국 언론 등 각계의 반응

112

2. 외무부는 1976.1월 연두교서 내용 요약, 1975년도 연두교서와의 비교 및 분석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와 총리실에 보고함.

3. 외무부는 연두교서에 이어 미국 대통령이 매년 3월에 발표하는 외교교서(State of World Message)에 한국 관계 부분이 포함되도록 주미국대사관에서 적극 노력할 것을 지시함.

MPLA(앙골라 해방인민운동) 승인 문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2012-4 / 9 / 1-35

1. 앙골라 과도 정부 수립

- 1975.11.11.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는 앙골라 정부 수립을 둘러싸고 3개의 독립운동단체(MPLA, FNLA, UNITA)가 경쟁함.
 - MPLA(앙골라 해방인민운동)
 - FNLA(앙골라 민족해방전선)
 - UNITA(앙골라 완전독립 민족동맹)
- 과도적 조치로 3개 단체와 포르투갈 정부대표로 구성된 과도정부를 수립하기로 함.
- 한국 정부는 2.27. 김종필 총리 명의의 축하전문을 전달함.

2. 단체간 반목으로 내전 발생

- MPLA는 소련, 쿠바를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의 지원, UNITA는 서구 국가의 지원, FNLA는 중국(구 중공) 등의 국가 지원하에 정권쟁취 투쟁을 벌여 앙골라 내전은 국제전의 양상을 띠게 됨.

3. 내전 결과 MPLA와 UNITA-FNLA연합이 대표하는 각 2개의 정부가 수립됨.

- 한국 정부는 1975.11월 앙골라 분쟁이 OAU(아프리카단결기구)의 중재 하에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앙골라에 통일 독립정부가 수립되기를 기원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 중재노력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 승인은 유보한다는 입장 견지

4.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의 움직임과 한국 정부의 입장

- 한국 정부의 우방인 콩고민주공화국이 1976.2월 MPLA를 승인
 - 한국 정부의 중립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MPLA에 대한 승인이 늘어가고 콩고민주공화국의 MPLA 승인에 따라 한국 정부는 MPLA 승인 여부를 검토하게 됨.
- 앙골라를 관할하는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은 5월 한국이 MPLA를 승인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적대적 자세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관망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한·대만(구 자유중국)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C-6-94 / 13 / 1-25

1976년 중 한·대만(구 자유중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박동진 외무부장관은 1976.1.19. 주무송 주한 대만대사 접견시,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정세 전망, 소련과 중국(구 중공)의 영향력 동향, 중국 내부사정,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 미국과 대만 간의 관계 전망, 한국과 대만 간의 교류강화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2. 최규하 국무총리는 1976.3.31. 대만 입법원(국회) 법사위원장 등 중진 의원 접견시, 아시아 사정에 어두운 미국인들에 대한 홍보 필요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눔.
3. 박정희 대통령은 1976.4.6. 우빈 대만 추기경 접견시, 공산세력과의 투쟁에 있어서 양국간의 굳건한 협력 필요성을 확인함.
4. 윤하정 외무부차관은 1976.4.10. 주무송 주한 대만대사 접견시, 중국 내의 권력암투 동향, 과거 중국 공산당과의 국공합작 경험에 비추어 본 북한의 남북대화 입장 전망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눔.

한·칠레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94 / 14 / 1-5

1976년 중 한·칠레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 Leopoldo Fontaine Nakin 주한 칠레대사는 1976.6.17. 윤하정 외무부차관을 예방하여 한국 일부 신문들이 외신을 인용하여 칠레에 정치범 700여명이 구속되어 있다고 부정확한 보도를 하여 시정요구를 함.
 - 대부분 신문들은 협조를 하였으나 동아일보만이 정정보도를 하지 않음.
 - Nakin 대사는 우호국으로서 매우 유감이며 협조요청을 언급함. 이에 윤 차관은 협조를 약속함.

한·카메룬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94 / 15 / 1-14

1975~76년 중 한·카메룬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유엔 및 비동맹 회의에서 남·북한 간 대결이 치열해짐에 따라 1975.5월 외무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 카메룬의 지지 확보를 위해 주카메룬대사에게 전력투구 노력 하도록 지시함.

● 카메룬은 남북한 동시수교국이며 비동맹 회의에서 한반도에서의 외국군 철수 결의안에 참가

116

2. 주카메룬대사는 카메룬 대통령실과 외무부 고위인사를 대상으로 남북대화 진전 상황, 한반도 최근 정세, 1975년 가을 유엔총회에서의 한국입장 설명과 북한 결의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지지 확보 노력을 전개함.
3. 1976년 북한 사절단이 카메룬을 방문하는 등 다시 대결이 고조되자 동 대사는 카메룬 정부 인사들에 대해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을 설명하는 등 유엔에서의 표 대결에 대비하여 지지 획득을 위한 노력을 전개함.
4.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전 당사자 회의 개최 제의와 관련하여 7.23. 박동진 외무부장관 명의의 서한을 카메룬 외무부에 전달함.
5. 미국 등 카메룬 주재 우방국대사 회의를 소집하여 키신저 장관 제의와 관련된 외무부장관의 서한 내용을 전달하고,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와 유엔총회에서의 한국입장 설명 등을 통해 카메룬 정부가 한국입장 지지 확보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함.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위한 주한 프랑스인의 부재자 투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C-6-94 / 16 / 1-26

1975~76년 중 프랑스 정부가 주한 프랑스 국민에 대하여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위한 부재자 투표 허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함.

1.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75.5.21. 프랑스 정부가 대통령 선거 시 외국에 거주 및 정착한 프랑스인에게 투표를 권장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한국 정부가 한국내 프랑스인의 선거권 행사를 용인할지 여부를 문의하여옴.
2. 외무부는 1975.6.2. 법무부 및 내무부와 협의 후 투표가 대사관 경내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함이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통보함.
3.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76.10.28. 아래와 같이 추가 문의함.
 - 투표소를 한국 내 여러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프랑스와 한국 이중국적자에게도 부재자 투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한·프랑스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C-6-94 / 17 / 1-21

1976.7월 일본을 방문한 프랑스 외무장관의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 비판 관련 보도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내용임.

1. AP통신은 1976.7.30. 아래 내용을 보도함.

- 자크 시라크 프랑스 총리의 7월 일본 방문 시, 동 총리를 수행한 소바냐르그 프랑스 외상이 미야자와 일본 외상과의 회담에서 박정희 정부의 인권탄압이 지속되는 한 프랑스 정부는 더 이상 한국을 지지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함.
 - 외무부는 동 보도 내용에 관해 주일본대사관에 사실여부 확인을 지시함.

2. 주일본대사관은 1976.8월 일본 외무성에 대하여 구체적 발언내용을 탐문하면서 일본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 시정을 요구함.

- 일본 측은 상기 회담에서 미야자와 외상이 극동정세의 일부로서 한반도에 관하여 언급하자, 프랑스 외무장관이 가벼운 동의를 표명하였다고 설명함.
-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사히신문 등이 외무성 브리핑 내용을 독자적으로 조작, 과장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함.

한·가봉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6-94 / 18 / 1-34

1976년 중 한·가봉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가봉대사는 1976.2월 외무부장관 앞 서한에서 Omar Bongo 가봉 대통령이 3.11.~12. 개최예정인 가봉 민주당 창당 기념식에 한국 대표단 파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송부하였음을 보고함.

- 정부는 대표단 파견 대신 박정희 대통령과 길전식 민주공화당 사무총장 명의의 축전을 송부하기로 함.
- 외무부장관은 3.12. 상기 축하전문을 주가봉대사관을 경유하여 각각 전달함.
 - 주가봉대사는 3.12. 기념식 당일 요쿰바 가봉 외무장관에게 구두로 축하 메시지내용을 전달하고, 문서로는 공휴일 관계로 3.15. 주재국 외무성에 전달함.
 - 동 기념식에 대표단을 보내온 나라는 모로코와 루마니아 양국 뿐임.

2. 가봉 정부는 1976.8월 일부 개각을 발표함.

- 박동진 외무부장관은 8.25. Martin Bongo 신임 외상에게 축전을 발송함.

한·그레나다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94 / 19 / 1-7

1976년 중 한·그레나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Eric M. Gairy 그레나다 수상은 1976.8월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수재에 대하여 위로의 뜻을 전달함.
2. 1976.12월 그레나다 총선에서 Gairy 수상이 이끄는 연합노동당이 승리를 거두어 재집권함.

한·인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6-95 / 6 / 1-27

1976년 중 한·인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Aga 주한 인도대사 접견(1976.1.27.)

- 남북대화, 북한 내 사정, 8월 콜롬보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한국 문제 정식 의제 채택 가능성 대책(김일성 참석 가능성), 인도의 협력 당부 등 의견을 교환함.

2. 인도·소련 공동성명서(1976.6.13.) 중 한반도 관련 사항

-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의 외무부 국제연합과장 방문(1976.6.17.)
 - 동 관계자는 6.13. 발표된 인도·소련 공동성명서 내용을 1973년도 내용과 비교할 경우 인도의 남·북한 중립입장이 후퇴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알려줌.
 - 외무부는 주인도대사관에 사실 파악을 지시함.
- 주인도대사는 외무부에 인도 측으로부터 탐문한 결과 보고(1976.6.17.)
 - 소련 측이 외국인 철수 문구를 포함시키려고 하였으나 인도가 거부하자 'Korean People의 국내 문제에 대한 외부간섭 종결'이라는 문구로 합의를 하였다고 함.
- 외무부는 주인도대사관에 추가 탐문 지시(1976.6.24.)
 - 주한 미국대사관의 제보내용, 즉 공동성명서 문안 협상에서 소련 측의 Foreign Imperialist Interference 문안 대신 Foreign Interference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대사관의 기존 보고내용과 상이함.

3. 윤하정 외무부차관과 Aga 주한 인도대사 접견(1976.7.23.)

- 부토 파키스탄 총리의 북한 방문 평가, 카슈미르 사태 해결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한·이스라엘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94 / 20 / 1-64

1973~76년 중 한·이스라엘 간의 주요 정무 및 체육 교류 관련내용임.

1. 주이스라엘대사 임명 문제

- 이스라엘 정부의 신임장 제출 요청
 - 한국 정부는 대북한 정책에 대한 아랍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1971년 이래 주이스라엘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검임하는 주이탈리아대사 신임장조차 이스라엘 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이스라엘 정부는 1974~76년 주한 검임대사(일본 상주)가 외무부장관 및 외무부차관 예방을 통해 신임장 제출을 계속 요청함.
- 주한 검임대사는 한국 정부에 문화, 경제분야에서의 상호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를 점진적으로 복원할 것을 제의함.
- 한국 정부의 대이스라엘 입장
 - 한국 측은 이스라엘에 대한 기본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를 부인하면서 북한 때문에 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줄 것을 당부함.

2. 몬트리올올림픽 아시아지역 축구 관련 논의

- 국제축구연맹은 몬트리올올림픽 아시아지역 축구 예선 3조 일본과 이스라엘 간 친선경기를 1976.3.31.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 이스라엘 선수 참가로 인한 보안조치 등을 이유로 아시아국가들 중에서 경기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가 없는 실정임.
- 아시아경기연맹은 아래의 방안을 제의하면서 투표를 통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통보해 옴.
 -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경기 불참석 결정을 유도하는 방안
 - 이스라엘이 거부할 경우 잠정적으로 경기 참가권을 철회하는 방안
- 1976.6월 외무부는 이스라엘 축출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투표에 반대할 경우 아랍권의 반발을 감안하여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함.

일본 내 좌익단체의 일본주재 한국공관 난입사건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6-94 / 23 / 1-11

1. 일본 좌익단체 회원 10여명이 1976.4.17. 및 4.26. 한국 국내 문제에 대한 항의 시위 과정에서 주오사카총영사관에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일본 경찰이 저지한 사건이 발생함.
2. 외무부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모와 책임 소재 규명을 요구하도록 주일본대사에게 지시함.

일본 월간지의 한국 비방기사 게재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6-94 / 24 / 1-41

1976년 중 일본 월간지가 박정희 대통령 비방 기사를 게재한 사건 관련 내용임.

1. 일본 월간지 츠쿠루 1976.4월호에 박정희 대통령 비방 기사 게재

- 주일본대사관 공보관은 동 잡지 편집장을 면담하고 항의하면서 사과와 반박기사 게재를 요구함.
- 동 잡지 편집장은 사회당을 방문하여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언론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

124

2. Japan Times 등 일본 언론이 상기 사항을 보도하였고 사회당 측은 국회에서 문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외무부는 출판사 츠쿠루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하였으나, 국회에서의 문제화를 우려하여 문제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조용히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3. 서울 주재 일본 기자단은 1976.5.20. 일본으로 보내는 뉴스 필름의 통관이 김포공항에서 지연 되는 것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항의함.

한국 관광 일본인 관광객 전염병 감염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6-94 / 25 / 1-25

1976년 중 한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들이 집단적으로 전염병에 감염된 사건 관련 내용임.

1. 한국 관광 후 전염병 발병 보도

-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976.5월 한국을 여행하고 귀국한 대학생 33명 중 21명이 집단으로 이질(痢疾)에 감염되어 홋카이도 격리병원에 입원중이라고 보도함.
 - 주삿포로총영사관은 해당 병원 관계자로부터 한국에서의 감염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외무부에 보고함.
- 일본 언론들은 9월 기사에서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일본 관광객 52명 중 13명의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도함.
 - 주일본대사관은 사실을 확인하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의 대응

- 1976.9.18. 외무부는 한국의 관광진흥 및 대외홍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보건사회부 및 교통부에 조사를 요청함.
- 교통부와 보건사회부는 경위를 조사한 결과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외무부에 통보함.

한·일본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6-94 / 26 / 1-47

1976년 중 한국과 일본의 고위 외교 인사 간에 이루어진 주요 면담 내용임.

1. 니시아마 주한 일본대사의 외무부 인사 면담

- 박동진 외무부장관 취임 축하를 위한 예방(1976.1.6.)
 - 박 장관은 양국간 우호 친선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민 간 교류의 확대 및 심화 필요성, 대륙붕협정의 조기 비준 요청 등 입장 전달
- 박동진 외무부장관 예방(2.3.)
 - 박 장관의 일본 방문 추진, 대륙붕협정 비준 추이,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거론 대책 등 협의
- 윤하정 외무부차관 예방(2.23.)
 - 대륙붕협정 비준, 전향하는 조총련 교포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 문제 등에 관한 의견 교환
- 박동진 외무부장관 예방(3.31.)
 - 박 장관의 동남아 순방 성과 청취 및 인도차이나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대책과 일본 정부의 입장, 장관의 일본 방문 문제, 대륙붕협정 비준 등에 관한 의견 교환

2. 주일본대사관 김옥민 서기관과 권병현 서기관은 엔도 외무성 동북아과장을 오찬에 초대함 (1976.3.12.).

- 대륙붕협정의 비준 전망, 한·일본 무역역조 및 견직물 규제 문제, 한국 미술 5천년 전시회, NHK 보도반의 북한 방문 취재 등에 관한 의견 교환

한·일본 간 구 해저전선 문제

생산연도 1975-1977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6-94 / 22 / 1-24

1975~77년 중 한·일본 간 구 해저전선 문제에 관해 협의한 내용임.

1. 경위

- 일본 식민시절 한국과 일본 간 부설된 해저전선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양분되어 반은 한국에 귀속
- 한·일본 양국은 해저전선 분할 방법과 6·25 전쟁기간 중 미군의 해저전선 일부 사용료의 분할 방법을 둘러싸고 1951년 제1차 한·일본 회담 이후 이견 표출
 - 한국은 균등 배분을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부산·대마도 간의 반분에 대해서만 인정
- 신 해저전선 부설 추진과정에서 구 해저전선 문제 해결 필요

2. 신 해저전선 건설과의 관계

- 신 해저전선으로 제2태평양 해저전선(오키나와-괌-하와이-미국 본토 간 815회선)과 일본·중국 간 해저전선(구마모토-상하이 간 180회선) 건설 추진
- 건설 투자액 중 한·일본 양국 부담액 결정과정에서 미군 사용 요금에 대한 양국간 부담액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체신부의 입장

3. 한·일본 양국 협의

- 구 해저전선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는 1973.2월 제1차 실무회의 이후 중단
- 1974.2.8. 동경에서 한·일본 해저전선 분할 문제에 관한 비공식 실무자회의가 개최됨.
 - 한국 측은 해저전선 전체를 한·일본 양국의 공동소유로 하고 기 수납된 미군 사용요금 전액을 신 해저전선 부설자금에서 충당할 것을 제의
 - 일본 정부는 1976.5월 기 수납된 미군 사용요금에 대한 정산 문제는 일단 보류하고 신 해저전선 부설시 동 요금정산 대신 한국 측이 아주 저렴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일본이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

4. 체신부는 1977.1.13. 신 해저전선 부설 문제를 한·일본 간 통신간선 확장계획의 하나로 검토 중에 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주자메이카 중국(구 중공)대사의 한국 및 이스라엘에 대한 차별적 발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94 / 21 / 1-9

1976년 중 주자메이카 중국(구 중공)대사의 한국 및 이스라엘에 대한 차별적 발언 내용임.

- 주자메이카 중국대사는 1976.9월 외교단장 취임 시 한국 및 이스라엘을 외교단 행사에 일체 참석시키지 않겠다고 현 외교단장인 Harrington 캐나다대사에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 주자메이카대사는 우방국을 중심으로 이를 문제시하고 협력을 요청함.
- 주자메이카 중국대사는 11월 귀국하고 주자메이카 쿠바대사 외교단장으로 취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 문제가 해결됨.

한·레바논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95 / 8 / 1-6

1976.9월 중 주레바논대사의 Sarkis 신임 레바논 대통령 취임식 참석 관련 내용임.

- 주레바논대사는 레바논 내전으로 인해 요르단 암만으로 임시 피신하고 있었던바, Sarkis 레바논 대통령의 취임식이 1976.9.23. 개최되는 것과 관련하여 취임식 참석여부에 대하여 외무부에 청훈함.
- 주요르단대사는 1976.9.16. Abdel Rahman Solh 암만 주재 레바논대사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Sarkis 신임 대통령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함.

한·레소토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6-95 / 9 / 1-10

1976년 중 주케냐대사는 겸임국 레소토를 방문함.

1. 제1차 출장(1976.9.9.~15.)

- 출장 목적
 - 유엔총회 시 레소토의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가담 교섭
 - 기타 현안 문제 타결(대레소토 경제협력 등)
- 출장 결과
 - 모라모 외상 및 외무차관을 각각 면담함. 모라모 외상은 유엔총회에서의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문제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현재 지방 순회중인 조나단 수상과 상기 관련 협의 후 동 대사에게 결과를 타전하기로 함.

2. 제2차 출장(1976.10.2.~6.)

- 출장 목적
 - 레소토 독립10주년 기념 행사 참석(10.4.)
 - 기타 현안 문제 타결(대레소토 경제협력 등)
- 출장 결과
 - 동 대사는 조나단 수상 및 모라모 외상을 면담하고 유엔에서의 한국 측 결의안에 대한 레소토의 공동제안국 참여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조나단 수상은 내년에도 한국 측 공동제안국이 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함.
 - 양국 협력사업(경비행기 조종사 훈련, 군화 제공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 독립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태권도 시범대회가 있었으며, 한국이 원조한 24대의 모터사이클이 동원되어 기념행사에 도움을 주고 한국 국위 선양에 효과를 거둬.

한·모로코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94 / 27 / 1-16

1976년 중 북한의 한국군 서부사하라 파병설 유포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 관련 내용임.

1. 북한 평양방송의 추측 보도(1976.5.31.)

- 북한 평양방송은 알제리 신문을 인용하여 한국군이 서부사하라에 파병되어 있다고 보도함.
 - 이는 모로코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군 군사교육단의 모로코 파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한 추측 기사임.

2. 외무부의 대응(1976.6.1.)

- 외무부는 주모로코대사관에 모로코 정부와 부인 성명서 발표 등 대응책을 협의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함.
- 주모로코대사는 모로코 외무부와 협의한 결과, 모로코 측은 성명서 발표에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가 성명서 발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사관보다 한국의 방송을 통하여 발표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성명서 발표는 보류됨.

한·네팔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6-95 / 7 / 1-12

1976년 중 주한 네팔대사의 외무부장관 및 차관 예방 관련 내용임.

- Pant 주한 네팔대사는 1976.7.21. 외무부장관과 차관을 예방하고 네팔이 추진하고 있는 양잠(누에치기) 산업 개발에 한국이 계속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장관과 차관은 비동맹 회의에서 네팔이 한국의 평화정책을 지지하여 줄 것을 요청함.

한·세네갈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C-6-94 / 28 / 1-9

1976년 중 한국 정부의 Senghor 세네갈 대통령 70세 생일 축하 관련 내용임.

1. 주세네갈대사의 건의에 따라 1976.10.9. Senghor 세네갈 대통령의 70세 생일을 맞이하여 선물과 박정희 대통령의 축전이 전달되었으며 이에 Senghor 세네갈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함.
2. 친북한 정책을 견지하던 Senghor 대통령은 1976년 콜롬보 비동맹 정상회의에서부터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에 보낸 서신에서는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과감한 타협을 모색하도록 세네갈 총리와 외무장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됨.

13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76

한·터키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C-6-94 / 29 / 1-19

1976년 중 주한 터키대사 관련 정보 사항임.

1. Melih Ercin 주한 터키대사는 대사관 운영 등과 관련된 민원 문제 해결에 한국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는 점에 대하여 공공연한 불만을 표명하는 것이 포착됨.
2. 터키 하원의장이 한국 국회의원들의 터키 방문을 초청하였으나 한국 국회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접하고는 1976.4월 한국이 터키를 등한시 한다는 판단 하에 한국과의 관계를 재고하도록 주재국에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토로했다는 첩보를 총리실이 입수하고 이를 외무부에 전달함.

한·우간다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6-94 / 30 / 1-6

1. 우간다 정부기관지 Voice of Uganda의 엔테베 공항 침공 사건 보도(1976.11.3.)

- 이스라엘 특공대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납치된 에어프랑스 항공기와 항공기 내 민간인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엔테베 공항을 침공한 사건이 발생함.
- 동 사건에 관해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대표 측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의 제국주의자와 한국을 연관시켜 이디 아민 우간다 대통령에게 브리핑한 것으로 보도함.

2. 한국 측 대응

- 주우간다대사는 우간다 외무차관을 면담, 상기 기사 게재에 주의를 환기하고 사실무근이며 양국간 우호관계를 손상시키는 기사가 게재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
- 주우간다대사관 직원은 공보장관서리를 면담, 보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정정 등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요청

3. 우간다 측 대응

- Aedel Nasar 우간다 공보장관서리는 1976.11.4. 주우간다대사관 직원에게 Voice of Uganda 기사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는 전제하에 조사하였으나 그 경위가 분명하지 않아 아민 대통령을 면담하여 PLO 대표의 브리핑 경위를 문의하였다면서 대통령과 자신은 관련 기사 게재 건을 가볍게 넘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함.
- 동 공보장관서리는 문제의 기사는 PLO의 일방적인 브리핑을 인용한 것으로 우간다 정부의 입장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부연하고 한국과의 우호관계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함.

한·영국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C-6-95 / 10 / 1-17

1976년 중 한·영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노신영 외무부차관 발령 축하 서한

- William S. Bates 주한 영국대사는 1976.3.8. 노신영 외무부차관의 발령 축하 서한을 송부
- 동 차관은 3.12. 회신에서 재임 중 협력에 대한 기대 표명 및 한·영국 관계 증진을 희망

2. 영국 군용기 한국 영공통과 허가 요청

- 주한 영국대사관은 1976.4.26. Anthony Crosland 영국 외무장관의 중국(구 중공) 및 일본 방문과 관련하여 5.9. 동 장관 탑승기의 한국 영공통과 허가를 요청
- 외무부는 5.1. 회한에서 한국 정부의 비행 허가를 통보

3. 주영국대사와 영국 외무부차관보 간 면담

- 주영국대사는 1976.8.26. Cortazi 영국 외무부차관보와 면담하고 양국관계, 비동맹회의, 중국·소련 분쟁 등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
- 면담 내용
 - 방한 결과: 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한국의 발전에 대한 인상
 - 경제 협력: 양국간 균형적인 무역 증진 희망
 - 유엔 문제: 한국 정부 제출 결의안 지지, 카신저 미국 국무장관 발표 4자회담 방식의 재강조 권고
 - 비동맹회의: 알제리 비동맹회의 관련 현지에서의 내용 파악 제공 약속
 -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힘의 균형 파괴 불원
 - 중국·소련 분쟁: 중국 측은 동 분쟁의 장기화 예상, 중국의 근대화를 위한 실용파의 입지 강화

한·미국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6-94 / 33 / 1-59

1976년 중 한·미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슈나이더 주한 미국대사 간 면담(1976.1.6.)

- 동 장관 취임 축하 인사
- 한·미국 관계 발전 및 안보협력강화를 위한 노력 표명
-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준수 강조로 북한의 오판 방지
- 한·미국 정부 고위층간 긴밀한 의견교환의 중요성
- 미국 의회 의원의 방한을 통한 한국에 대한 이해 증대

2. 미국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한·미국 간 협정

- 미국 의회 소속기관인 회계감사원은 The Case Act 제정을 전후하여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한·미국 간 협정에 대해 조사, 1975.4.11. J. Abourezk 상원의원에게 제출
- 조사 내용
 - 미 국무부는 The Case Act 제정 이후 양국간 체결된 59개 협정 중 25개 협정을 미국 의회에 보고, 여타 34개 협정은 미보고
 - 이중 7개 협정이 비밀이며 34개 협정이 발효
 - 일부 협정들은 여타 정부기관 간 체결되어 국무부에 미보고
 - 사례: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15억 달러 공여 협정 등
- 건의
 - 정부기관간 협정이 국무부에 제출되어 통제 강화 필요

3.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슈나이더 주한 미국대사 간 면담(1976.4.27.)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차기회의 개최: 해양법회의의 성과 진전을 위한 1976년 하반기 회의 개최 필요
- 한국의 대모로코 고문단 파견: 모로코 국왕의 사적 요청에 따른 훈련생 연수
- 대유엔 전략: 한국 문제의 유엔 토의 불가피성과 전략적 대처 문제
- 한·일본 대륙붕: 한·일본 대륙붕 문제의 순조로운 해결

4. 하비브 미 차관보는 동 차관의 인준을 위해 1976.5.25. 개최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관계에 관해 아래와 같이 발언함.

- 한국 문제에서 전쟁발발의 방지, 점진적 긴장 완화 및 감소, 남북한 대화 재개가 가장 중요
- 한국군 현대화계획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가 요청한 원조액을 승인한다면 1977년까지 완수 가능하고 대한민국 군사원조가 무상군사원조에서 군사차관으로 변경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1977회계연도까지 현대화계획 완료를 예정함.

137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76

미국 GEODSS(우주심층전자 지상관측소) 한국 내 설치 협조계획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

MF번호 C-6-94 / 31 / 1-83

1975~76년 중 미국 정부의 우주심층전자탐사를 위한 한국 내 지상관측소 설치 계획 관련
한·미국 정부간 협의 내용임.

1. 미국 우주심층전자탐사 지상관측소 설치 추진

- 주한 미국대사관은 미국 정부의 우주심층전자탐사를 위한 지상관측소 설치 계획을 1975.7.15.
외무부에 통보, 협조를 요청
- 지상관측소 개요
 - 목적: 우주물체의 탐사 및 추적, 특정위성 관찰 등
 - 설치 장소: 미국 내 2개소, 해외 3개소
 - 운영: 수동적이며 주위 환경에 악영향 없음.
- 외무부는 1975.7.16. 내무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화

2. 관계부처 의견

- 내무부, 국방부, 과학기술처 등 관계부처는 관측소 설치에 원칙적으로 긍정적 의견 표명
- 관측소의 전자장치와 주파수 정도의 불명확성 등 관련 조사단과의 협의 필요, 후보지 선정 시
사전 협조 필요성 지적

3. 조사 제안 동의

- 외무부는 1975.8.14. 조사 제안에 동의함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회신
- 후보지 결정 및 관측소 건설 승인 등 관련 양국간 긴밀한 협조 필요성 지적

4. 한·미국 간 협의

-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 및 미국 기상전문가는 1976.6.1. 북미과장과 협의 결과, 미국 측은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미 국무부에 건의하여 한국 정부의 동의를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
- 미국 측 관계자는 8.26. 북미과장과 면담, 카메라를 설치, 1977.1월부터 가동 예정임을 설명
하였으나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국무부에 한국의 동의를 청혼하기로 약속
-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미국 측 간사는 9.15. 외무부 미주국장을 면담,
SOFA에 따른 처리 방안 제기



5. 우주심층전자탐사 지상관측소 설치 계획 통보

- 미국 측 현장조사 및 한·미국 간 협의 후,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6.9.28. 비망록으로 미국 정부가 1979년도에 동 지상관측소의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외무부에 통보
- 미국은 우주탐사의 긴급 필요성을 감안하여 잠정조치로서 Baker-Nunn 카메라 설치, 운영 등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

미국 FBIS(해외방송정보과) 서울분국 설치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

MF번호 C-6-94 / 32 / 1-17

1975~76년 중 미국 FBIS(해외방송정보과)의 서울분국 설치 관련 내용임.

1. 미국 FBIS 서울분국 설치 추진

- 에릭슨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는 1975.11.11. 외무부 경제차관보를 면담, 미국 정부의 FBIS 서울분국 설치 협조 요청
- FBIS 서울분국 개요
 - 일본 오키나와 소재 FBIS 시설의 일부를 서울에 설치하고자 함.
 - 목적: 공산권 방송 청취를 통한 정보수집 기능 수행
 - 기능: 북한, 중국(구 중공), 몽골, 소련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뉴스 통신 등을 청취하여 기록
 - 청취 기록은 공개 문서로서 신청자들에게 배포되고 있음.
 - 초기 투입 인력: 3인의 미국인 기술자 및 9인의 한국인 기술자 근무
 - 시기: 1976년 2 / 4분기 중으로 예정
 - 위치: 시설은 미군기지 내에 두고 사무실은 주한 미국대사관에 설치

2. 국내 관계부처 협의 및 동의 의사 전달

-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1975.11~12월 협의 및 동의 의사를 외무부에 회신
- 외무부는 12.16. 주한 미국대사관에 미국 측 제안에 대한 동의 의사를 전달

3.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6.2.4. 외무부에 FBIS 서울분국 설치 통보

- FBIS 기술자를 6월 주한 미국대사관에 배치하고 청취업무시설은 평택 미군기지 내에 설치, 10월부터 개시 예정임.
- 우선 한국과 북한 방송을 청취하고 1977년 1 / 4분기부터 중국, 몽골, 소련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청취 자료를 한국 정부에 제공할 계획임.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전5권 (V.3 하원 북한 인권 문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6-95 / 3 / 1-88

1976년 중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에서 개최된 북한 인권 문제 관련 내용임.

1. 북한 인권 문제 청문회 개최 대비

-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전문위원은 1976.5.7. 청문회 일정에 관해 주미국대사관 측에 설명
 - 차후 2개월에 걸쳐 북한을 비롯하여 인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준비
 - 북한 청문회에 이정식 펜실베이니아대학 교수를 증인으로 초청 추진
- 하원 국제관계위 전문위원은 7.14. 증인 선정과 자료수집상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한국 측의 협조를 요청

2. 북한 인권 문제 청문회 개최(1976.9.9.)

- 참석
 - 의원: Donald Fraser, Edward Derwinski, Stephen Solarz 등 3명의 미국 하원의원
 - 증인: Oscar Armstrong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Jerome Cohen 하버드대학 교수
 - 방청: 기자 포함 30여명
- Fraser 의원 개회사
 -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부족
 - 북한은 극단적인 좌경 독재정권이며 폐쇄된 사회
 - 북한의 미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판문점 사건으로 재확인
- 회의 경과 및 관찰
 - Fraser 의원은 청문회에 대해 별다른 열의를 보이지 않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청문회 개최라는 형식적인 태도로 회의를 주재하는 인상
 - 의원과 증인들은 북한의 잔인하고 위험한 독재정권 성격과 국민의 자유말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그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함.
 - Cohen 교수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공격하면서도 한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종전과 같이 비판적 태도를 견지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전5권 (V.4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1-4월)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6-95 / 4 / 1-109

1976.1~4월 중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개최된 한국 관계 회의 관련내용임.

1. 특별 소위원회: 주베트남(구 월남) 철수 관련(1976.1.27.)

- G. Martin 전 주베트남 미국대사를 증인으로 초치, 청문회 개최
- 청문회에서 한국 관련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베트남 정부군의 1974.9월 이후 상황 악화 원인, 3억 달러 추가 원조문제 등 질의 응답

142

2. 대외정책 조사개발 소위원회: 미국·일본 관계(1976.1.28.)

- H. Passin 콜롬비아대학 교수, R. Clough 브루킹스연구소 교수를 증인으로 초치, 청문회 개최
-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Burke, Solarz, Wolff 의원이 질의
 - 중국(구 중공)·소련과의 협상을 통한 안정적 타결 후 시행 필요
 - 주한미군 철수의 부정적 결과 초래 가능

3. 대외정책 연구 소위원회: 한국 관계(1976.3.8.)

- Wolff 의원 등 4명의 의원 참석 하에 개최, 강석원 교수 등의 증언 청취
- 강석원 교수 증언 요지
 - 미국의 한국 배치 핵무기 철수 및 한국의 핵무기 자체 개발 필요
 - 미·북한 간 관계정상화 중용, 이를 통한 남북한 관계개선 도모
- 평가
 - Wolff 의원의 청문회 진행은 최근 미국 주요 언론의 대한국 비판적 기사와 관련된 것으로 관측
 - 강석원, B. Cumings 교수가 증언한 핵무기 철수, 주한미군 철수 등은 과거에 논란된 것이나 북한과의 수교는 새로운 사실로서 주목

4. 대외정책 조사개발 소위원회: 미국·중국·소련 관계(1976.4.6.)

- Abramowitz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증언
- 동 부차관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분쟁 발발 억제에 기여한다고 언급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전5권 (V.5 상원)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6-95 / 5 / 1-73

1. 상원 외교청문회 개최(1976.1.21.)

- 주제: 외교 정책의 가치와 목표 - 성직자의 견해
- 참석
 - 의원: John Sparkman 등 4명
 - 증인: Claire Randall 기독교협의회 사무총장 등 4명
- 한국 관계 증언내용
 - 남아공, 짐바브웨(구 로데시아), 한국, 필리핀, 칠레 등 탄압적인 정부에 대한 지원의 철회 필요
 -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유엔인권선언에 위배되는 극심한 인권억압 조치가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취하여지는 만큼 미국이 원조할 책무가 있는지 의문

2. 한국 관련 언급사항

-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1976.3.9. 상원 정부활동위원회에서 핵연료의 비확산 문제 관련 증언에서 한국이 재처리 시설을 획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언급
- 동 장관은 3.16.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한국이 프랑스와 핵협력을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설명

장상문 주멕시코대사 겸임국 온두라스 및 엘살바도르 출장, 1976.3.28.-4.8.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95 / 12 / 1-54

장상문 주멕시코대사가 1976.3.28.~4.8. 겸임국 온두라스 및 엘살바도르를 방문함.

1. 온두라스(1976.3.29.~31., 4.7.~8.)

● 주요 일정

- 3.29. Jimenez 외상 고문, Suazo Tome 국제기구국장, Soto 의전국장 면담
- 3.30. Pineda 외무차관 면담
- 3.31. 주온두라스 한국명예영사관 시찰, 주온두라스 대만(구 자유중국)대사 면담
- 4.8. Paredes 외상 예방

● 활동내용

- 주요 인사 면담 시 유엔총회에서 공동제안국으로 한국 지지 입장 표명에 사의
- 북한의 대중남미 침투 공세 저지

● 관찰 및 건의

- 외무부 간부들은 북한 사절단 방문 제의에 부정적이나, 신임 외상의 정치적 처리 가능성
- 온두라스와의 실질관계 구축 필요
- 상주공관 개설, 의료원조, 장관 방한 초청 등 건의

2. 엘살바도르(1976.4.1.~5.)

● 주요 일정

- 1976.4.2. 외무성 주관 외교단을 위한 발전소 시찰, Castaneda 외무차관 면담, 한국명예영사 접견
- 4.5. 전 주한 엘살바도르대사 면담, Rodriguez 국회의장 면담

● 활동내용

- 북한 사절단의 엘살바도르 방문 제의에 우려를 표시하였으나, 엘살바도르 외무부는 한국의 입장을 납득한다면서도 사절단 접수에 긍정적 입장 개진
- 국회의장은 북한 의회사절단 접수 거절을 외무부에 통보 예정 언급

● 관찰 및 건의

- 북한 사절단 방문 문제에 대해 외무부와 국회가 상이한 입장이나 국회의장의 거절로 좌절된 것으로 관찰
- 민간차원에서의 수산협력 추진 필요
- 상주공관 개설, 국회의장 등 방한 초청 건의

한유동 주우간다대사 겸임국 말라위 출장, 1976.7.3.-10. 및 9.14.-21.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6-95 / 13 / 1-22

한유동 주우간다대사는 1976.7.3.~10. 및 9.14.~21. 겸임국 말라위를 방문함.

1. 제1차 방문(1976.7월)

- 주요 일정
 - 7.3. 말라위 정부 주최 만찬무도회 참석
 - 7.4. 대통령을 위한 기도회 참석, 서독대사 주최 외교단 만찬
 - 7.5. 건설차관 면담, 대통령 주최 국정연회
 - 7.6. 대통령 주최 공화국 10주년 기념행사
 - 7.7. 외무차관 예방(대통령이 외상 겸임)
 - 7.8. 공영건설 시행 도로공사 시찰 및 격려
- 활동내용
 - 노신영 특사 방문 일정 논의
 - 콜롬보 비동맹 정상회의 지지 교섭

2. 제2차 방문(1976.9월)

- 주요 일정
 - 9.16. 외무차관 예방
 - 9.17. 공영건설 시행 도로공사 시찰 및 격려, 건설차관 면담, 주말라위 미국대사 면담
 - 9.18. 외무차관 예방
- 활동내용
 - 유엔 한국문제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요청
 - 의료단 파견을 위한 의료협력협정 체결 교섭

Bigombe, Samson 일본 상주 주한 우간다대사대리 방한, 1976.1.27.-31.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6-95 / 16 / 1-72

Samson Twine Bigombe 주한 우간다대사대리(일본 상주)가 1976.1.27.~31. 방한함.

1. 방한 경위 및 목적

- 방한 경위
 - 1976.1.6. Bigombe 주한 우간다대사대리는 주일본대사관 공사 면담 시 방한 일정을 협의함.
 - 1976.1.10. 외무부는 방한 시기로 1.27.~30.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 1976.1.19. 주일본대사관은 1.27.~31. 간 방한 계획을 보고
- 방한 목적
 - Oris 우간다 외상의 박동진 외무부장관 앞 친서를 직접 수교하기 위함.

2. 방한 일정

- 1.28. 정무차관보, 아중동국장, 보건사회부 의정국장 면담, 외무부 아중동국장 주최 만찬
- 1.29. 외무부 의전실장 면담, 외무부장관 예방, 코트라,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립공업 표준시험소 방문
- 1.30. 경제기획원, 방림방적 방문

3. 방한 결과

- Oris 우간다 외상의 박동진 외무부장관 앞 서한 전달
- 한국의 대외정책 설명 및 지지 요청
- 양국관계 협의

강춘희 주뉴질랜드대사 겸임국 사모아(구 서사모아) 및 통가 출장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6-95 / 14 / 1-76

강춘희 주뉴질랜드대사가 1976.6월 및 11월 겸임국 사모아(구 서사모아)와 통가를 방문함.

1. 제1차 출장(사모아: 1976.5.31.~6.6., 통가: 6.7.~11.)

● 주요 일정

- 6.1. 사모아 독립 14주년 기념식 참석
- 6.2. 마라톤 경기 등 경축행사 참석
- 6.3. 국가원수 주최 독립기념 무도회 참석
- 6.4. Malietoa Tanumafili II 사모아 국가원수 면담, Tupuola Efi 수상 면담, P.Cotton 뉴질랜드 고등판무관 면담
- 6.7. Taufa'ahau Tupou IV 통가 국왕 예방
- 6.8. Tuipelehake 통가 수상 예방

● 활동 내용

- 병상 시트 기증: 사모아 600장, 통가 400장
- 한국의 대외정책 설명 및 지지 요청
- 중국(구 중공) 및 소련의 남태평양 진출 동향 등 파악

2. 제2차 출장(사모아: 1976.11.3.~8., 통가: 11.8.~14.)

● 주요 일정

- 11.4. Tupuola Efi 사모아 수상 예방, 보건장관, 경제장관, 재무장관, 건설장관 면담, 주요 인사 초청 만찬 주최 및 영사회 개최
- 11.5. Malietoa Tanumafili II 사모아 국가원수 예방
- 11.8. Tuipelehake 통가 수상 면담, Vailoa 병원 방문
- 11.9. Taufa'ahau Tupou IV 통가 국왕 예방

● 활동 내용

- 병상 시트 기증 등 원조품 전달
- 경공업, 수산분야 전문가 훈련 등 기술협력 협의
- 어업협력 증진 협의
- 통가의 유류공급합작회사 설립 제의

이규성 주싱가포르대사 관할국 브루나이 출장, 1976.11.28.-12.1.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6-95 / 11 / 1-30

이규성 주싱가포르대사는 1976.11.28.~12.1. 관할국인 브루나이를 공식 방문함.

1. 주요 일정

- 영국 고등판무관 방문 및 오찬
- 경제기획상, 재무상, 브루나이 Chief Minister, 상공회의소장 방문, 스리랑카 야당당수 면담
- 교민회 총회 및 교민회 주최 만찬 참석
- 기자회견 및 인터뷰

148

2. 건의사항

- 한국인학교 특별경비, 교민회 및 교민회관 건물유지비 등 각종 경비지원
- 교포여권 발급 및 병역 상 특례조치
 - 브루나이는 66년 이주 이래 현재까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바, 교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7년 이상 거주자에게 교포여권 발급 및 영주권에 준하는 대우 필요

최경록 교통장관 Lopez Portillo, Jose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76.11.27.-12.4.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105 / 19 / 1-94

정부는 1976.11.15. J. Lopez Portillo 신임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경축사절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최경록 교통부장관을 대통령 특사로 11.27.~12.4. 멕시코에 파견함.

1. 방문 목적

- 제37대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각국 특사와의 접촉을 통한 상호 우호친선 증진
-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 멕시코 대통령에 대한 축의 표명 및 양국민간 우의 전달
- 주한 멕시코상공주공관 유치 등 주요 현안 협의

2. 주요 일정

- Portes Gil 전임 멕시코 대통령 방문, Santiago Roel 신임 외상 면담
- 대통령 취임식 참석, 대통령 개별면담, 대통령 주최 오찬 참석

3. 관찰

- 대통령 취임연설이 주로 경제 문제에 치중된 것은 폐소화 평가절하에 대한 국민 불만 및 경제적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함.
- 신정부의 대외정책은 주권독립 수호, 각국과의 친선유대 강화, 불간섭 및 자결원칙 수호, 분쟁의 평화적 해결, 패권주의 및 제국주의 배경 등에 중점
 - 신정부의 대외정책상 한국과의 관계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며,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는 더욱 증진될 전망
- 북한은 Portillo 대통령 집권 중 통상을 구실로 집요한 접근과 침투를 기도할 것으로 예상

문덕주 주유엔대사 수리남 독립기념식 참석, 1976.11.24.-25.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105 / 20 / 1-68

문덕주 주유엔대사는 수리남 독립 1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1976.11.22.~27. 수리남을 방문함.

1. 주요 일정

- 수리남 독립 기념행사 참석(1976.11.25.)
- 수리남 대통령, 수상 겸 외상, 국회의장, 내무장관 등 주요인사 면담
 - 한국의 평화통일 문제와 유엔 한국 문제 처리과정에서 수리남 정부가 보여준 이해와 협조에 사의 표명

2. 관찰

- 수리남은 수리남 근해에서 조업 중인 한국 새우잡이 어선에 매우 협조적이며, 수산면에서 실리 있는 개발 기대
- 수리남의 국토개발 사업에 한국의 대수리남 기술 및 경제협력 진출도 유망

3. 건의사항

- 북한의 침투공작 저지를 위한 수리남 유력인사의 방한초청과 대수리남 기술원조를 적절히 추진
 - 수리남의 외교 및 경제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주는 중견급 인사 방한·초청을 우선순위로 검토
- Arron 수상의 1977년 방한에 대비하여 수리남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마련
 - 실리 면에 중점을 두고 실현가능한 분야부터 적극 추진

대동구권 [외교관] 직접접촉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3

MF번호 C-6-95 / 17 / 1-32

1. 동구권 외교관 접촉 지침

- 1973.6.23.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6·23 선언)'에 의거, 대동구권 접촉을 통한 관계개선을 주요 재외공관에 지시
- 네덜란드 등 주재 한국대사의 1976.6~7월 신임장 제정 계기 동구권대사의 예방 접견 반응 타진

2. 1976년도 동구권 외교단 주요 접촉 현황

- 주네덜란드대사
 - 주네덜란드 미국대사의 주선으로 주네덜란드 소련대사와 3차례 접촉하여 한반도 정세 등 의견교환
 - 주네덜란드 참사관은 주네덜란드 소련대사관 참사관 및 헤이그 주재 타스통신 특파원과 주기적으로 접촉 및 홍보자료 교환
 - 주네덜란드 루마니아대사와 접촉하여 한반도 정세 협의
- 주핀란드대사
 - 주핀란드 유고슬라비아대사의 협조로 유고슬라비아 정부의 허가를 받아 관광 목적으로 11.8.~14. 유고슬라비아 방문
- 주튀니지대사
 - 주튀니지 유고슬라비아대사를 예방하여 양국간 관계개선 노력 의견 교환
- 주벨기에대사
 - 주벨기에 폴란드대사와 접촉하여 교역 및 박람회 참가 협의

Mulamba, Leonard 일본 상주 주한 콩고민주공화국 (구 자이르)대사 방한, 1976.1.17.-19.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6-95 / 15 / 1-51

Leonard Mulamba 주한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일본 상주)는 1976.1.17.~19. 방한함.

1. 방한 경위 및 목적

- 방한 경위
 - 1976.1.9. 주일본대사는 Leonard Mulamba 주한 콩고민주공화국대사(일본 상주)의 1.15. 방한 계획을 보고함.
 - 1976.1.13. 외무부는 1월 중순 대통령의 일정상 예방이 어려우나, 국무총리 및 장관 면담 가능 통보
 - 1976.1.14. 주일본대사관 공사는 동 대사에게 일정을 설명하고 1.17. 방한 예정 보고
- 방한 목적
 - 신임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취임 축하인사
 - 앙골라 사태에 대한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공식 입장 설명 및 한국 정부의 지지 요청

2. 방한 일정

-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각각 면담

3. 방한 결과

-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면담 시 주요 언급사항
 - 취임 축하인사
 - 앙골라 사태에 대한 콩고민주공화국 측 입장 설명 및 한국의 지지 요청
 - 기술협력증진을 통한 양국관계 증진 희망
- 모부투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건의

Fraser M. 호주 수상 일본·중국(구 중공) 방문, 1976.6.15.-27.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6-95 / 18 / 1-126

Malcolm Fraser 호주 수상이 1976.6월 중 일본 및 중국(구 중공)을 방문함.

1. 일본(1976.6.15.~20.)

● 주요 일정

- 6.16. 천황 알현, 미키 수상과 공식회담 및 우호협력기본조약 서명, NHK 인터뷰
- 6.17. 후쿠다 부수상, 고모토 대외통상성장관 면담
- 6.18. 아베 농상 면담, 일본 기자클럽 오찬 연설

● 방문 결과

- 호주와 일본 간 우호협력기본조약 체결
- 기본조약의 체결로 양국관계가 단순한 교역입장에서 호주의 자원과 일본의 산업능력에 기초한 보완관계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 조성

2. 중국(1976.6.20.~27.)

● 주요 일정

- 6.20. 화국붕 수상과 1차 회담, 화국붕 수상 주최 만찬
- 6.21. 화국붕 수상과 2차 회담, 주덕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장 예방
- 6.22. 화국붕 수상과 3차 회담
- 6.23. 북경 군구 제3사단 군사연습 참관, 기자회견, 중국출토문물전람협정 체결, Fraser 수상 주최 고별 만찬
- 6.24. 산서성 군사산업, 방공 등 지하시설 시찰
- 6.25. 신강성 우루무치 방문

● Fraser 수상과 화국붕 수상 간 회담 시 협의내용

- 중동 사태, 긴장완화(데탕트), 중국·일본 관계 등 논의
- 호주는 민족해방전쟁에 대한 외부지원, 핵 확산 문제 등에 대한 중국입장에 반대
- 호주 측이 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요청한데 대해 중국은 북한의 평화추구 입장 되풀이

미국·대만(구 자유중국)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C-6-95 / 19 / 1-85

1976년 중 미국·대만(구 자유중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미 국무부는 대만과의 관계 배경 자료를 발표함.

- 주중국(구 중공) 미국대사관은 1976.6.6. 동 자료 관련 보고
- 자료 요지
 - 미국의 대만과의 외교관계 유지 및 방위공약 준수
 - 포드 미국 대통령은 1975.12월 중국 방문 후 관계 정상화 천명

154

2. 대만 문제 관련 기고문

- Trager 뉴욕대학 교수는 1976.7.23. Wall Street Journal에 대만 문제 관련 기고
- 기고 요지
 - 미국·중국 국교정상화를 위해 미국이 중국 측 요구대로 대만과의 우호동맹관계를 파기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저해
 - 상해공동성명을 해치지 않고 대만문제 해결방안으로 Brandt식 해결방법 모색이 바람직

3. 대만의 핵 가공 능력 보유설

-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1976.8.29., 8.31., 9.1. 사설), 뉴욕타임즈 등은 대만의 핵 제조물질 생산 능력에 관해 보도
- 대만 정부는 근거 없는 낭설이며 악의적인 날조라고 비난
- 각국의 반응
 - 포드 대통령은 핵 제조 비밀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
 - 유럽, 캐나다 핵전문가는 1개의 핵폭탄에 18파운드의 플루토늄이 필요한데, 대만의 플루토늄 생산 능력은 1년에 0.511파운드에 불과하다고 평가
- 대만 각의는 9.16. 성명을 통해 핵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연구 및 안전검사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력과 NPT(핵비확산조약) 규정 준수를 강조

4. 대만과 미국 간 어업협정 서명

- 워싱턴에서 1976.9.17. 서명
- 본문 16개 조항 및 2개의 부속조항으로 구성
- 협정의 비준 발효 시에는 대만의 선박은 미국의 200해리 보호구역 내에서 조업이 허용



5. 카터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한 대만 반응

- 엄가감 총통 및 장경국 행정원장은 1976.11.4. 축하 메시지 발송
- 의회
 - 당분간 미국·중국 관계 큰 변화 불초래
 -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 연구기관
 - 카터 대통령의 대중국 관계 정상화 추진은 계속될 것이나, 대만 정책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기대

일본·중국(구 중공)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 동북아2

MF번호 C-6-95 / 20 / 1-95

1976년 중 일본·중국(구 중공)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77년 중국전(中國展) '삿포로' 개최 준비

- 일본 국제무역촉진협회 홋카이도총국은 1976.2.26. 홋카이도 척식은행 회의실에서 1976년도 총회를 개최, 사업 보고 및 승인
- 1976년 기획사업으로는 홋카이도와 중국 간 무역확대발전, 에너지 자원, 중국 광저우 교역회 참가 확대, 1977년도 중국전(中國展) '삿포로' 개최 추진을 포함

156

2. 일본 외상의 북방영토 반환 문제 증언

- 미야자와 일본 외상은 1976.7.9. 참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일본의 대소련 북방영토 반환 문제와 관련 중국 측 태도에 대한 질의에 답변
- 동 외상은 북방영토 문제는 일본·소련 양국 문제로서 제3국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 중국 측은 소련의 태도를 패권주의적인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중국·소련 간의 문제이므로 일본·소련 간의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중국 측에 통보함.

3. 미국·중국 관계정상화 움직임 관련 일본 측 견해

- 미야자와 외상은 1976.7.12. 맨스필드 미국 상원 원내총무와의 면담 시 일본은 미국·중국 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
- 미국·대만(구 자유중국) 조약으로 대만의 방위를 약속하고 있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약을 폐기할 경우 대만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미국의 방위약속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
- 발언 배경 분석
 - 대통령 선거 유력후보인 카터의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움직임에 대한 견제 성격

4. 미야자와 외상 발언에 대한 중국 측 반응

- 중국은 미국·중국 조기수교 반대 및 일본 북방영토 반환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지지를 타국의 내정 간섭으로 보는 미야자와 외상의 발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냄.
- 중국 측 반응
 - 인민일보는 1976.7.15. 동경발 신화사 통신을 인용하여 미야자와 외상의 발언에 대한 일본 내 비난을 보도하고 중국 인민의 북방영토 수복 투쟁에 대한 지지는 올바른 행동이라고 강조
 -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은 7.19. 주중국 일본대사를 초치, 일본 외상의 발언에 대한 유감 표시



5. 미국 상원 원내총무의 극동방문 관련 일본 및 중국 동향

- 스코트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1976.7.10.~24. 중국을 방문
 - 화국봉 수상, 교관화 외교부장 등 주요 인사 접촉
- 맨스필드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7.11.~17. 일본을 방문
 - 미키 수상, 미야자와 외상, 사카다 방위청장관 등과 접촉
- 분석
 - 미국 국무부 및 일본 외무성은 스코트 및 맨스필드 의원의 중국·일본 방문을 정계은퇴를 앞둔 사적인 성격으로 추정
 - 일본 외무성 측은 스코트 상원의원의 중국 방문이 미국 공화당의 선거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도 고려

중국(구 중공)·라오스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6-95 / 21 / 1-12

1976년 중 중국(구 중공)·라오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라오스 정부대표단 중국 방문

- 라오스 인민혁명당 총서기 겸 총리인 카이선 폰비한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 정부대표단은 1976.3.15.~24. 중국을 방문함.
 - 1975.12월 라오스 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최초의 고위급 중국 방문임.
- 라오스 대표단은 중국 방문 중 모택동 주석, 주덕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화국봉 총리대리, 요문원 정치국위원을 면담
- 평가
 - 라오스는 이번 방문에서 대외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원 확보를 모색
 -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등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협력 및 지원을 기대

2. 라오스와 중국 간 국경 긴장 고조

- 태국의 방콕포스트는 1976.7.25. 중국이 라오스 북부지역에 약 4,000명의 라오스 무장반란군 1개 사단을 창설하였으며, 이러한 중국의 군사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라오스 주둔 베트남군 일부가 200여명의 소련군 기술자 및 고문과 함께 라오스 북부 국경지대로 이동함으로써 라오스와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
- 라오스 북부지역에 중국이 무장반란군사단을 창설하였다는 보도는 중국·월남전쟁 이후 중국이 메오족 등 라오스 북부산악지역 주민 수천 명을 훈련한 징후와 관련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뉴질랜드·중국(구 중공)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C-6-95 / 22 / 1-20

R. Muldoon 뉴질랜드 수상의 중국(구 중공) 방문 및 방문 시 언급한 한반도 관련 내용임.

1. 중국 방문 기자회견

- Muldoon 뉴질랜드 수상은 1976.4.28.~5.5. 중국 방문 후 기착지인 홍콩에서 5.5. 기자회견을 가짐.
- 기자회견 요지
 - 모택동 주석은 건강이 노쇠하며 언어장애로 필묵으로 의사전달하나 정신은 맑음.
 - 모택동 주석과의 회담에서 뉴질랜드의 대학시험제도, 동남아 문제, 소련의 위협 문제 등을 논의
 - 화국붕 총리는 매력과 외교경험이 없는, 모택동의 충실한 신도에 불과
 - 화국붕 총리는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 3국이 평등한 기초 위에서 연합하여 소련의 확장위협을 저지하기를 희망하고 동남아 공약의 존중 및 세계의 안전과 평화 유지에 동의 표시
 - 중국은 식량 및 의류생산에서 큰 발전을 이룩했으나 기술 문제에서 서방을 따라가기는 어려움.

2. 중국 방문 시 한반도 관련 사항

- 경위
 - Muldoon 수상 방한 시 1976.4.20.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은 중국 방문 시 한국이 침략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협상을 통한 통일과 남북대화의 재개를 원하고 있음을 중국 지도자에게 전달해 주도록 의뢰
 - 주뉴질랜드대사는 5.17. 동 수상을 수행한 Corner 뉴질랜드 외무차관을 면담하고, 동 수상에게 전달된 중국의 대한민국 정책에 관해 탐문
- 중국·뉴질랜드 수상 회담 시 한반도 관련 언급내용
 - Muldoon 뉴질랜드 수상은 중국 측과 회의 시 한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
 - 화국붕 중국 총리는 미리 작성된 문서를 읽으며 답변하였으며, 유엔 등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해 중국이 말한 내용과 대동소이함.
 -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한반도의 분단 초래
 - 미군 주둔으로 인한 한반도 분단의 영구화
 -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의 건설적 제안 거부의 문제

중국(구 중공)·러시아(구 소련)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2 / 구주3

MF번호 C-6-95 / 23 / 1-115

1976년 중 중국(구 중공)·소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중국의 소련 비난 보도

● 인민일보

- 1.1. 사설에서 소련 사회제국주의는 전쟁의 근원
- 1.2. 소련 수정주의 반당집단은 혁명에 반대하는 근성을 버리지 못함.
- 1.6. 브레즈네프 반당집단이 지난 11년 동안 각국 인민의 혁명투쟁에 나쁜 행동 자행
- 1.20. 소련 수정주의는 앙골라 내전을 야기
- 1.27. 소련 수정주의 반당집단의 소위 평화강령 비난
- 2.24. 소련 수정주의자의 제9차 5개년 계획은 군비 지출 증가 및 전쟁준비로 완전한 파탄 초래

● 신화사 통신

- 2.12. 브레즈네프 반당집단에 자본주의 고용노동제도 부활
- 2.21. 브레즈네프 집단의 우크라이나 고위간부 숙청
- 2.24. 소련 제24차 당대회 시 브레즈네프 선언을 공격

2. 소련의 중국 비난 보도

● 모스크바 방송

- 1.6. 중국의 인민일보 논설은 전쟁준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1.30. 중국의 정치 캠페인은 모택동 개인숭배의 영구화
- 2.6. 모택동 일당의 대외정치노선은 팽창주의와 패권주의 정책임.

● 타스 통신

- 2.7. 중국·소련 국경 신강지구에서의 무장충돌에 대한 허위날조

3. 중국·소련 국경충돌 관련 보도

● 신화사 통신

- 3.12.자 보도에서 중국 민병대와 소련 무장병력이 중국의 핵심험지역인 신강자치주의 국경에서 수차례 충돌했음을 언급

● 미국 타임지

- 3.14.자 보도에서 중국·소련 국경 아무르강과 우수리강 부근에서 수개월 사이에 전투가 있었으며, 동 전투는 서방 측의 공중 정찰로 탐지되었다고 언급



4. 주중국 소련대사관 폭발 사고 발생

- 북경 주재 소련대사관 정문에서 1976.4.29. 폭발물이 터져 2명의 경비병이 사망하고 대사관 건물이 피해를 입었으나 소련 외교관은 무사
- 사건 경위
 - 수명의 중국 청년이 폭탄 1개를 소련대사관 구내로 반입하려다 저지되자 폭발 사고 발생
- 반응
 - 소련은 즉각 중국 당국에 항의 제기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반혁명분자의 소행으로 간주

싱가포르·중국(구 중공)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 동북아2

MF번호 C-6-95 / 24 / 1-46

리관유 싱가포르 수상은 1976.5.10.~23. 중국(구 중공)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방문 경위
 - 1974.5월초 싱가포르 사격 선수단의 중국 방문
 - 1974.5월말 중국 배드민턴 선수단의 싱가포르 방문
 - 1975.3월 Rajaratnam 싱가포르 외상의 중국 방문 시 공식 방문 초청 접수
 - 1976.4.10. 싱가포르 정부는 리관유 수상의 5.10. 중국 방문 발표
- 방문 목적
 - 모택동 사후 중국의 변화에 대한 관심, 화국붕의 등장으로 인한 중국 내 정세 직접 관찰 목적
 - 1977년 봄 싱가포르 총선을 앞두고 성공적인 중국 방문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는 중국인 세력의 증대, 야당 세력의 회복 등에 대비하기 위함.
 -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지지 획득으로 소련의 동남아 진출 견제, 미국의 동남아 주둔으로 강대국의 세력 균형 확보

2. 방문 주요 일정

- 5.11. 화국붕 중국 총리 주최 환영 만찬
- 5.13. 리관유 싱가포르 수상 답례 만찬
- 모택동 예방(15분), 베이징에서 3일 간의 공식회담
- 상하이에서 기자회견
- 시안, 예안, 선천, 구이린, 광저우 등 방문

3. 방문 평가

- 싱가포르의 중국 접근으로 인접국의 중국에 대한 회의(懷疑) 해소, 싱가포르의 위상 제고, 1977년 총선 대비 전략
- 중국의 아세안 지지 발표를 통해 동남아 정세에 대한 중국과의 협의 채널 구축

미국·중국(구 중공)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 동북아2

MF번호 C-6-95 / 25 / 1-275

1976년 중 미국·중국(구 중공)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닉슨 전 미국 대통령 중국 방문(1976.2.21.~29.)

- 주요 일정
 - 모택동 주석과의 회담
 - 화국봉 총리대행과 3차례 회담, 총리대행 주최 환영 만찬
- 방문 경위
 -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중국 재방문은 모택동 주석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지연
 - 1972.2월 상해공동성명 발표 이후 양국관계의 큰 진전에도 불구하고 대만(구 자유중국) 문제 등으로 국교정상화 지연
 - 1975.12월 포드 미국 대통령의 방중 시, 양국간의 원칙 합의를 재확인하였으나 현실적인 이해관계 해소의 어려움으로 한계를 보임.
- 방문 평가
 - 주은래 전 중국 총리 사후, 중국이 권력투쟁 중에 있고 중국·소련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동인의 방문은 상징적 의미
 - 중국 내 권력투쟁 상황에서도 중국의 대외정책, 특히 대미국 친선우호와 대소련 강경노선의 불변을 미국 측에 전달
 - 포드 행정부의 대소련 유화태도에 대한 불만의 표시

2. M. Abramowitz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국방담당부차관보는 1976.4.6. 하원 미래외교 정책연구소위원회에서 아래 요지로 증언함.

- 중국의 군사력
 - 정치 세력, 지상군 210개 사단 병력 400만
- 중국·소련분쟁의 국방상 의미
 - 대외정책상의 신축성 제약 초래, 수년간 지속 가능
- 미국의 반응
 - 중국은 현 단계에서 아시아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위협세력이 아님.



3. 미국 하원 의원단 중국 방문(1976.4.17.~25.)

- 의원단 구성
 - Melvin Price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위원장 등 군사위원회의원 6명, 국제관계위원회의원 2명, 전문위원 1명
- 방문 목적
 - 중국 지도층 개편 이후 정세 변화, 중국·소련 국경의 긴장 실태 파악 등
- 주요 일정
 - 중국 인민외교학회 주최 만찬, 교관화 외교부장, 장춘교 부총리 면담

4. H. Scott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중국 방문(1976.7.10.~24.)

- 주요 일정
 - 교관화 외교부장, 장춘교 부총리 면담 및 상하이, 정저우, 선양 등 방문
- 방문보고서 요지
 - 중국 측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대만 문제 논의. 대만과의 단교 및 중국과의 국교수립의 시급성 지적
 - 중국은 국교수립에 대한 미국 측의 필요조치 지연을 이해하고 묵인하는데 한계

이집트·러시아(구 소련)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95 / 26 / 1-51

1976년 중 이집트·소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소련 비난 연설

-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1976.3.14. 연설에서 소련의 비우호적 태도를 비판
- 연설 요지
 - 양국간 우호 및 협력협정의 존속 이유가 없으므로 폐기한다고 선언
 - 언론의 무절제 규탄, 외국자금의 음성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소유 의사 천명
 - 정치적 자유 문제에 대해 아랍사회주의연맹 체제의 지속 하에서 좌·우, 중도세력의 포용을 통한 존속
- 반응
 - 타스 통신은 1976.3.15. 소련·이집트 우호조약의 폐기가 이집트의 대소련 우호정책의 포기를 표시한 것으로 비난
 - 미국, 영국, 서독 등 서방 신문은 사다트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논평
 - 중국 인민일보는 우호조약 폐기가 충분히 이유 있는 조치라고 보도
- 분석
 - 소련과의 특별관계를 이탈하고 대서방 관계 긴밀화 추구 의미
 -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의 강력한 추진
 - 언론의 통제, 아랍사회주의연맹 중심체제 강화를 통한 국민총화 공고화

2. 이집트·소련 우호협력조약 폐기

- 이집트 국민의회는 1976.3.15. 사다트 대통령의 요청에 의거하여 1971년 체결된 이집트·소련 우호협력조약을 폐기
- 배경 및 관계 전망
 - 1973.10월 대이스라엘 전쟁에서 손실된 무기의 보전 및 부채상환 재조정을 소련 측이 거부한 데 따른 불만 누적
 - 이집트의 대서방 접근으로 무기 공급원의 다변화 및 경제원조 추구
 - 대중국 접근으로 군사 및 경제면에서의 지원 가능성

3. 소련·이집트 외상 회담 개최

- 그로미코 소련 외상과 하미 이집트 외상은 1976.11.3.~4.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회담을 개최
- 공동성명에서 1973.12월 제네바 중동평화회담의 조속한 속개를 요구하고 양국간 의견교환 지속에 합의

에티오피아·러시아(구 소련)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6-95 / 27 / 1-10

1976년 중 에티오피아·소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에티오피아 군사위원회 사절단 소련 방문(1976.7.6.~12.)

- Mogus 경제분과위원장 대위가 이끄는 사절단이 소련을 방문
- 그로미코 소련 외상과의 회담에서 양국관계 및 상호 국제관심사에 관해 논의
- 7.14. 공동성명에 소련의 경제기술분야 조사단 파견, 에티오피아 연수생의 소련내 훈련, 소련 교사의 파견 등을 포함

166

2. 소련 광산기술자 파견

- 소련 광산기술자 10명이 1976.10.17.부터 1개월간 에티오피아에 체류하면서 기술협력 문제 및 광물자원탐사를 논의

3. 에티오피아 사절단 소련 방문(1976.12.7.~18.)

- 에티오피아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사절단이 소련을 방문
- 방문 목적은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던 무기 공급원의 확대 기도로 관측

일본·러시아(구 소련)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 구주3

MF번호 C-6-95 / 28 / 1-146

1976년 중 일본·소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그로미코 소련 외상 일본 방문(1976.1.9.~13.)

- 주요 일정
 - 1.10. 미야자와 외상 회담
 - 1.11. 나카소네 자유민주당 간사장 회담
 - 1.12. 미키 수상 회담, 후쿠다 부수상 회담
- 공동성명(1.14.)
 - 일본·소련 간 평화조약의 조속한 체결
 - 무역 및 경제협력 확대 합의
- 한반도 문제 논의
 - 그로미코 외상은 소련의 한반도 평화 희망, 김일성 제안에 대한 한국의 불응, 미군 주둔으로 인한 문제해결 불능 초래 등 언급

2. 제25차 소련 공산당대회 개최(1976.2.24.~3.5.)

- 일본 외무성 분석
 - 브레즈네프 연설 전반에서 국내 경제정책, 외교적 긴장완화 노선 지속과 대서방 평화공세 전개
 - 소련의 대아시아 안보구상 지속 추진
- 일본 언론 반응
 - 브레즈네프 연설에서 제시된 8개 항목의 평화강령에 따른 대서방 협력유지는 환영하나, 소련의 앙골라 개입, 동구에서의 지상군 증가 등은 평화강령에 역행
 - 대일본 무역, 정치 등 관계증진은 공감하나, 일본인 일부가 소련에 대해 근거없는 불법적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

3. 미그-25기 일본 홋카이도 비상 착륙과 망명 요청

- 사건 경위
 - 미그-25 소련 전투기 1대가 1976.9.6. 홋카이도 비행장에 강제 착륙
 - 미그기 조종사 베렌코 중위는 미국 망명을 희망
- 일본 정부 입장
 - 조종사 망명: 조종사의 자유의사에 따라 인도적 견지에서 망명 허용
 - 기체 반환: 조사 후 교섭에 따라 반환한다는 입장
- 11.9. 양국간 회담에서 11.12. 반환하기로 합의

일본·미국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 북미1

MF번호 C-6-95 / 29 / 1-57

1976년 중 일본·미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포드 미국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일본 반응

- 포드 대통령은 1976.1.19. 연두교서를 발표
- 일본 외무성 반응
 - 포드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은 미국의 세계경제 지도국으로서의 책임을 표시한 것
 - 미국의 대일본 및 서구국가와의 관계 강화 의사표시로 환영
- 일본 언론 반응
 - 미국의 건국 200주년 및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책표명을 기대하였으나 미흡
 - 동 교서에는 대부분이 재정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작년의 경제우선 정책과 유사하여 새로운 것이 없음.
 - 미국의 대외정책은 인도차이나 사태 이후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소련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우위를 믿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2. 미국·일본 간 유엔협약

- 1967년 이래 연례적으로 양국간 유엔협약을 개최
- 동 협의회는 관행에 따라 의제를 사전에 정하지 않으나, 1976년 회의에서는 한국문제, 군축 문제를 포함하여 제31차 유엔총회의 주요 의제를 취급

3. 일본·미국 간 항공협정 개정 교섭 결렬

- 일본·미국 간 항공협정 개정 교섭이 1976.10.4.~8. 개최되었으나 양국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
- 동 개정 교섭은 오키나와 반환 이후 5년간에 한하여 일본이 인정해 온 미국 항공3사(팬아메리칸 항공 등)의 오키나와 이착륙이 1977.5월 기한으로 종료됨에 따라 미국이 이의 연장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일본은 현행 협정의 불평등 조항 시정을 기도

4. 카터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한 일본 정부 및 정당의 반응(1976.11월)

- 일본 정부 반응
 -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의 축하의사를 표명하고 미국의 대일본 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
- 일본 정당 반응
 - 자민당: 당선 환영, 양국간 우호관계 강화 및 세계평화를 위한 미국과의 협력증진
 - 사회당: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여론의 반영으로 평가. 일본의 방위력 증가에는 반대
 - 공산당: 미국의 독점자본주의 정책의 변화는 없음.
 - 공명당: 국제평화 실현을 위한 강한 리더십 기대

일본·미국 정상회담. Washington, D.C., 1976.6.30.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 북미1

MF번호 C-6-96 / 1 / 1-18

일본·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1976.6.30.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미키 일본 수상 G7(선진 7개국) 정상회의 참석 계기 일정

- 기간: 1976.6.25.~7.2.
- 주요 일정
 - 6.25. David Rockefeller 체이스맨해튼은행 회장 주최 오찬, 일본 클럽·일본 상공회의소 공동주최 리셉션
 - 6.27.~28. G7 정상회의(푸에르토리코)
 - 6.30. 포드 미국 대통령과 회담
 - 7.1. 샌프란시스코 방문, 청년의 배 닛폰마루 시찰
- G7 정상회의에서는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재연의 방지 등 국제 경제 질서 재조정 협의 및 선진국 간 연대 재확인

2. 일본·미국 정상회담 개최(1976.6.30., 워싱턴)

- 참석자
 - 일본: 미키 수상, 미야자와 외상, 가이후 내각 관방장관, 요시노 외무심의관, 주미국 일본대사
 - 미국: 포드 대통령, 키신저 국무장관, 스코크로프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하비브 국무부 아·태차관보, 주일본 미국대사
- 논의내용
 - 양국 현안: 록히드 사건 해명협력, 미국의 200해리 어업전관수역법의 발효에 따른 일본 어업 영향 문제, 일본·미국 항공협정 개정 문제
 - 국제 문제: 아시아 정세, 중동 문제 등
- 평가
 - 미국·일본 간 협력관계 증진에 관한 일반적 논의
 - 한국문제에 관해서는 포드 대통령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데 대해 일본도 동감 표시

일본·베트남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6-96 / 3 / 1-26

1976년 중 일본·베트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일본 베트남(구 월맹)대사관 개설

- Tran Duc Tue 1등서기관(대사대리) 등 7명의 베트남 외교사절단이 1976.1.9. 일본에 도착하여 대사관 개설
- 동 대사관은 월남 정부 패망 이후 쿠바 측이 관리하던 전 월남대사관에 입주

170

2. 주베트남 일본대사 임명

- 일본 정부각의는 1976.1.30. 소련 문제 전문가이며 주호놀룰루총영사인 다카야키 하세가와를 초대 주베트남 일본대사로 임명하기로 결정
- 일본과 베트남은 1973.9월 외교관계를 수립, 일본 측은 1975.10월 하노이에 대사관 개설

3. 일본 사절단 베트남 방문(1976.2.25.~3.2.)

- 사절단 구성
 - 아리다 외무성 외무심의관 및 대장·농림·통상·운수·우정성 등 정부부처 경제 관계 과장급 인사
- 주요 활동
 - 구옌스 인첸 베트남 외상 예방
 - 판반친 외무차관 면담(3회)
 - 데카크 국가경제계획부 위원장 면담 등
- 방문 결과
 - 일본 측은 재계인사로 구성된 사절단 및 초당파 의원단 파견 제의
 - 베트남 측은 5개년 계획(1976~80년) 중 농업, 수산업, 경공업분야 중시, 일본 측의 자본 및 기술협력 요청
 - 전년도에 합의한 일본의 무상원조공여에 관한 양국간의 교섭 추진 예정

4. 일본·베트남 간 50억 엔 무상경제원조협정 체결

- 일본 외무성은 일본이 베트남에 전후 복구 및 경제개발을 위한 50억 엔(약 1,600만 달러)의 무상경제원조를 제공하는 협정을 1976.9.14. 체결하였다고 발표
- 동 무상원조는 일본이 이미 통일 이전에 월맹 측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2,800만 달러의 무상원조에 추가되는 것임.
- 동 협정 체결로 일본의 2차 대전 배상의무를 청산하는 것으로 예상

미국·러시아(구 소련)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 구주3

MF번호 C-6-96 / 5 / 1-81

1976년 중 미국·소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ICAC(국제면화자문위원회) 소련 제안 논의(1976.1.26.부터 2주간)

- 참가국: 미국, 소련 등 16개국
- 소련 제안 요지
 - ICAC에서의 소련어 사용 문제
 - ICAC 상임위원회 기능 일부 개정
 - 국제원면통계자료 통합 작성 문제
 - ICAC 사무국 이전 문제

2.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1976.3.22. Dallas World Affairs Council에서 외교정책에 관해 아래 요지로 연설함.

- 미국의 국방력은 소련의 국방력보다 우세
- 국방과학기술의 개발을 통해 향후 5년간 미국의 기술 우위 선점
- SALT(전략무기제한협정) 회담: SALT II 회담 타결 및 지역안보를 위한 군사력 중요성 강조

3. 포드 미국 대통령과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76.5.28. 평화목적 지하핵실험제한 조약을 체결함.

- 동 조약은 150kt급 이상의 실험금지 및 현장감시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함.

4. 미국·소련 곡물관계회담 개최(1976.5.24.~25., 워싱턴)

- 회담 개최 배경
 - 1975.10.20. 양국간 체결된 5개년 곡물공급협정에 의거, 양국은 곡물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연 2회 회담 개최
- 회담 내용
 - 협정상기의 기본공급량 100만 톤 대신 소맥 300만 톤, 옥수수 300만 톤 공급 합의
 - 미국 측은 양호한 곡물생산사정으로 협정 초과 구매를 제시

5. 미국과 소련은 1976.11.26. 어업협정에 서명함.

- 동 협정으로 소련은 미국의 200마일 어로보호구역을 처음으로 인정

세르비아-몬테네그로(구 유고슬라비아)·러시아(구 소련)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3

MF번호 C-6-96 / 6 / 1-24

1976년 중 유고슬라비아·소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유고슬라비아와 소련 간 공동성명 발표

-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76.11.15.~17.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여 티토 유고슬라비아 대통령과 회담
- ‘상호주권, 독립, 평등 및 불가침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요지의 공동성명 발표
 - 사회주의 발전방법론에 관한 선택의 자유와 자치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의 양국간 친선 관계 공고화
 -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정책은 인민의 평화, 독립, 동등권을 위협
 - 무력경쟁의 종단을 위한 단호한 조치 및 유엔군축 특별회의 소집 요구
- 1971.9월 브레즈네프 서기장의 유고슬라비아 방문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지는 방문으로 종전의 공동성명과 내용이 유사

2. 유고슬라비아의 독자노선 지속 추구

- 티토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은 1976.12.30. 대국민 신년 메시지에서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배제 하였다고 밝힘.
- 11월 브레즈네프 서기장의 유고슬라비아 방문 시 소련 측의 군사분야 협력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소문이 있음.
- 소련 함대의 아드리아해 기항 시 서비스 제공 확대를 거부한 것으로 언론이 보도함.

사우디아라비아·미국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2 / 중동

MF번호 C-6-96 / 4 / 1-11

1976년 중 사우디아라비아·미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사우디아라비아·미국 경제협력공동위원회(1976.2.29.~3.2., 리야드)

- 사우디아라비아·미국 간 공동성명 발표

2. 칼리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1976.11.3. 카터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전 발송

사우디아라비아·중동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96 / 7 / 1-169

174

1975.12월~76년 중 사우디아라비아·중동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칼리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요르단(1975.12.23.~25.)과 시리아(12.25.~27.)를 방문함.
2. 이란은 걸프지역 통신사의 명칭 문제로 1976.1.7.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7개국 주재 자국 대사들을 소환함.
 - 공동 통신사 설립을 추진 중인 아랍 7개국(바레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이 동 통신사 명칭을 Arabian Gulf News Agency로 결정
 - 이란 측은 Persian Gulf를 Arabian Gulf로 칭한 데 대한 반발로 자국 대사들 소환 조치
3. 사우디아라비아 청년복지청장은 1976.2.24. 이라크 방문 중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간 스포츠 및 청년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4.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1976.2.21.~26.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함.
 - 양국 정상회담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비롯한 중동 정세,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관계 등에 관해 협의
5. 호베이다 이란 총리가 1976.4.6.~8.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함.
6. 사담 후세인 이라크 부통령은 1976.4.13.~15.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함.
7. 사우디아라비아 외상은 1976.5.1. 쿠웨이트를 방문함.
 - 이집트·시리아 간 관계 악화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짐.
8.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1976.6.21.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함.
 - 칼리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회담
 - 아라파트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의장 회담
9. 후세인 요르단 국왕은 1976.7.4.~7.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함.
10. 칼리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3일간의 수단 공식 방문을 마치고 1976.11.1. 귀국함.
11.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1976.11.11.~22. 모로코를 방문함.

우간다·미국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6-96 / 8 / 1-12

1976년 중 우간다·미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이디 아민 우간다 대통령은 1976.4.19.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과 Arab League(아랍연맹) 사무총장 앞 전문에서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아프리카 순방계획을 비난함.
 ● 동 대통령은 키신저 장관의 아프리카 순방은 OAU 단합을 깨뜨리고 아프리카와 아랍을 분열 시키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짐바브웨(구 로데시아)에서의 해방투쟁을 막으려는 술책이라고 함.
2. 우간다 언론은 1976.4월 키신저 장관의 아프리카 순방을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함.
3. 키신저 장관은 1976.5.25. Africa Day 계기에 아민 대통령에게 축전을 발송함.
4. 라디오 우간다는 1976.8월 이디 아민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으며, 키신저 장관을 양국 관계 정상화의 유일한 장애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함.

미국·베트남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 북미1

MF번호 C-6-96 / 9 / 1-37

1976년 중 미국·베트남(구 월맹)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76.3.26. 워싱턴발 AP통신은 미국이 미국·베트남 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내용의 공한을 제3국을 통해 베트남에 전달하였다고 보도함.

- 주프랑스 베트남대사관은 상기 미국 측 공한에 대하여 베트남 휴전협정에 의거한 미국의 대베트남 원조 의무를 이행하라는 요지의 성명을 3.29. 발표함.

176

2. 1976.10.24. 워싱턴발 AP통신 및 AFP는 베트남이 미국·베트남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미국 측의 회담제의를 수락하였음을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이 확인하였다고 보도함.

- 이에 대하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0.27. 아래와 같이 밝힘.
 - 회담 개최에 대하여 베트남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음.
 - 11월 중순 전에는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 개최가 불가능할 것임.
 - 회담의 첫 번째 의제는 MIA(미군 실종자)에 관한 것이며 MIA에 관한 한 미국의 입장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음.

3. 1976.12.8. 동아일보는 파리발 AP통신을 인용하여 미국 하원 특별대표단이 베트남 전쟁 종식 이후 최초로 12.6. 파리 주재 베트남 외교관과 비공식 접촉을 갖고 미국·베트남 관계정상화와 MIA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함.

국교수립 - 바레인, 1976.4.17.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96 / 10 / 1-94

한·바레인 양국은 1976.4.17.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함.

1. 외무부는 1976.2월 및 7월, 주이란 바레인대사관 앞 공한을 통하여 한·바레인 수교 제안
2. 외무부는 1976.2월 한국업체의 바레인 조선소 진출을 계기로 바레인에 상주공관 설치 결정
 - 바레인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지리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로 하여금 바레인 측과의 외교 또는 영사관계 수립 교섭을 시행하도록 함.
3.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76.4.10. 바레인 외무장관과 한·바레인 간 외교관계 수립 합의
 - 양국은 4.17. 외교관계 수립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4. 주이란대사는 1976.8.7.~12. 바레인에 출장하여 국교수립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바레인 측으로 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함.
 - 바레인 측은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인한 실익이 없다는 점과 남북한 엄정 중립 태도 견지라는 이유로 한국 측의 외교관계 수립 제의에 대해 소극적 태도 견지

한·중국(구 중공) 관계 개선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C-6-96 / 11 / 1-59

1976년 중 한·중국(구 중공) 간의 관계 개선 추진 경과임.

1. 1976.6.24. 개최된 주미국 스페인대사 주최 리셉션 시, 주미국 중국연락사무소 황진대사가 구충희 주미국대사관 공사에게 먼저 접근하여 대화함.

- 중국 고위 외교관이 한국 측에 스스로 접근해 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동 대사의 대화 태도는 능동적이고 대화내용도 이념적 색채를 별로 보이지 않음이 주목됨.
- 동 대사의 태도가 중국 당국의 새로운 지침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신의 개인적 태도에 연유한 것인지는 불확실함.

2. 일본 아사히신문은 1976.8.28. 일시귀국 중인 주중국 일본대사와의 단독회견 내용을 보도함. 동 회견 내용 중 한반도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음.

- 중국의 대한반도 태도는 공식적으로 북한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고 봄.
-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의 생각은 전쟁에 의한 해결보다는 평화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임.
- 중국은 북한통신사의 뉴스를 논평없이 그대로 믿고 있음.

3. 중국 언론의 1976년도 대한민국 비난은 종전보다는 약간 완화되었으며 직접 보도보다는 북한의 보도를 인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국교수립 교섭 - 이집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96 / 12 / 1-25

1976년 중 한·이집트 간의 국교수립을 위한 교섭 추진 동향임.

1. 주이란대사는 1976.6.16.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이란 방문 시, 동 대통령 일행의 소개의식에 참석한 이집트 외무장관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한·이집트 수교를 요청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을 설명함.
2. 주카이로총영사는 정무협약차 일시귀국 중 1976.11.26. 외무부 관계국장과의 회의 시, 아래 이유로 한·이집트 수교실현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 북한이 상당량의 무기 부속품(소련제 탱크 및 미그기 부속품)을 이집트에 제공하고 있음.
 - 중동문제가 해결되어 북한의 무기가 긴요하지 않게 될 때 수교가 가능하게 될 것임.
3. 주카이로총영사는 1976.12월 한국의 대이집트 관계개선을 위한 경제협력은 합작투자(방직, 의류 제조분야), 기술협력(Free Zone 조성)과 상품차관 제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국교수립 - 파푸아뉴기니, 1976.5.19.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서남아 / 동남아

MF번호 C-6-96 / 13 / 1-323

한·파푸아뉴기니 양국은 1976.5.19.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함.

1. 한국과 파푸아뉴기니 간 외교관계 수립 경위

- 1975.9.16. 외무부는 독립한 파푸아뉴기니를 동일자로 국가 승인함.
 - 대통령 명의의 파푸아뉴기니 독립 축하 전문을 통해 승인 조치
- 1975.10.2. 외무부장관 명의 공한으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및 상주공관 설치를 파푸아뉴기니 외무장관에게 제의
- 1975.11월 외무부는 파푸아뉴기니 관할을 주호주대사관에서 주인도네시아대사관으로 이관
- 이재설 주인도네시아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1976.4.8.~16. 파푸아뉴기니 방문
 - 외교관계 수립, 경제 및 기술협력 강화 방안 등 협의

2. 한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평화와 번영에 대한 공통의 염원에서, 또한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1976.5.19.자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재설 주인도네시아 대사와 파푸아뉴기니대사 간의 각서교환형식으로 체결됨.

한·러시아(구 소련) 관계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구주3

MF번호 C-6-96 / 14 / 1-134

1976년 중 한·소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참사관은 주소련 미국대사관 직원이 1976.4월 소련 외무부 관계관으로 부터 파악한 한반도 관계에 대한 소련 측 견해를 아래와 같이 전달함.

- 소련·북한 관계
 - 소련의 대북한 관계는 과거 수년 동안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됨.
 - 김일성은 1975년 소련 방문을 희망하였으나 소련 측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함.
- 북한 정세
 - 김정일을 북한 정치권력 서열상 김일성의 2인자로 보고 있음.
 -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 문제는 경험 부족, 고립화, 과도한 의욕에서 기인함.
- 북한·중국(구 중공) 관계
 - 북한은 소련보다는 중국과 더욱 밀접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함.
 - 북한은 소련·중국 관계에 대하여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있으나, 일면 중국과도 견해 차이가 있음.
- 한반도 사태
 - 한반도에서 전쟁재발 위험은 미미함.
 - 김일성은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고 한국을 무력 공격할 의도가 없음을 다짐함.

2. 김승호 주스웨덴대사관 서기관은 1976.4월 동인이 연수 중인 스톡홀름대학 주관의 소련여행에 참가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소련 측이 동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불허함.

3. 외무부는 1976.5월 주영국대사관에 소련 외무부 아시아국장의 영국 방문 시 한반도 관계 제반 사항에 대한 소련 측 입장을 타진해 주도록 영국 외무부 당국자에게 교섭 지시함.

4. 외무부는 1976.9월 주덴마크대사관에 소련 외무장관의 덴마크 방문 시(1976.10월) 덴마크 측이 가능한 한 한국의 대동유럽권 관계개선 희망의사를 소련 측에 전달하도록 덴마크 정부 당국자에게 요청할 것을 지시함.

5. 1976년 중 한국 외교관의 소련 외교관 직접 접촉은 아래와 같음.

- 주네덜란드대사는 7.15. 미국대사와 함께 소련대사와 오찬 회동
 - 외무부는 주네덜란드대사에게 대소련 대사급 접촉을 발전시켜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
- 주페루대사관 직원은 10~11월 주페루 소련대사관 초청으로 소련대사관 주최 행사에 참석
 - 사진 전시회, 페루·소련 친선협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소련혁명 59주년 기념식

국교수립 - 세이셸, 1976.6.28.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6-96 / 15 / 1-114

한·세이셸 양국은 1976.6.28.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함.

1. 정부는 1976.6.28.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세이셸을 동일자로 승인하고 세이셸과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함.

- 세이셸 정부는 6.16.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연하구 주케냐대사(세이셸 겸임)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함.

182

2. 연하구 대사는 1976.6.26.~7.2. 세이셸에 출장,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독립경축식에 참석함.

- 동 대사는 출장기간 중 만감 세이셸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재외공관 설치 - 바레인, 1976.6.28.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96 / 16 / 1-20

한·바레인 양국은 1976.4.14.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주바레인대사관을 설치하기로 함.

1. '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령'이 1976.5.22. 공포되어 주바레인대사관이 신설됨.
2. 한국 정부는 1976.6.28. 주바레인대사관(상주)을 설치함.
 - 공관 개설요원으로 안종구 1등서기관이 6.27. 부임함.

이규성 주싱가포르대사의 브루나이 총영사관 관할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6-96 / 17 / 1-16

1. 외무부는 1976.3.5. 주영국대사관 공한으로 영국 외무부에 이규성 주싱가포르대사가 주브루나이총영사 자격으로 영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브루나이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2. 영국 정부는 1976.4.26.자 공한으로 이규성 주싱가포르대사를 주브루나이총영사로 인정함을 통보함.

재외공관 설치 - 볼리비아, 1976.7.6.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96 / 18 / 1-16

1. 외무부는 1974.1월 주페루대사관(볼리비아 검임)에 볼리비아 외무부 의전국장이 1973.12.13. 한국이 볼리비아에 상주공관을 조속히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통보함.
2. 외무부는 1975.2월 총무처에 주볼리비아대사관 신설을 위해 '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주Beirut(레바논) 통상대표부 대사 및 직원 철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96 / 19 / 1-199

레바논 내전(1975~90년)에 따른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주베이루트 통상대표부 대사 및 직원의 신변안전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내용임.

1. 외무부는 1976.1월 레바논 사태의 악화에 대비하여 주베이루트 통상대표부 직원의 신변안전책으로 아래와 같이 조치함.

- 정상적인 공관활동이 불가능함을 고려하여 6명의 공관원 중 3명을 귀국 조치함(1.14.).
 - 공관장 및 직원 2명 잔류
- 잔류 공관원 전원을 요르단 암만으로 대피하도록 함(1.26.).

2. 베이루트 평온 유지에 따라 주베이루트 통상대표부 대사 및 잔류 공관원이 1976.2.5. 베이루트에 복귀함.

- 레바논 사태는 1.22. 휴전 성립 이후 평온을 유지하다가 3.4.~6. 좌우파간 총격전이 재연된바, 외무부는 동년 3월 직원가족의 복귀조치를 보류함.

3. 주베이루트 통상대표부 대사 및 잔류 공관원 2명이 1976.3.22. 이집트 카이로로 대피함.

- 3.21.부터 좌우 이슬람교도 및 민병대 간 중화기를 동원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베이루트 시가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계속됨.

4. 주베이루트 통상대표부 대사 및 공관원이 1976.4.3. 베이루트에 복귀하였으나, 5.3. 암만으로 다시 대피함.

- 암만에 대피 중이던 박해수 서기관이 5월 베이루트에 복귀함.

5. 박해수 서기관이 1976.6.22. 아테네로 대피함.

- 6월 시리아의 레바논 파병 및 주레바논 미국대사의 피살 등 레바논의 불안사태가 점차 고조됨에 따라, 외무부는 베이루트 잔류 중인 동 서기관에게 대피를 지시함.
 - 외무부는 동 서기관의 대피를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우방국의 철수진에 동 서기관을 포함시켜 주도록 해당국 정부와 교섭
- 동 서기관은 6.20. 미국의 철수진에 포함되어 6.22.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함.

6. 외무부는 1976.7월 내부 조치로서 당분간 주요요르단대사관이 레바논을 관할하도록 함.

재외공관 설치 - 오만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96 / 20 / 1-50

1. 주오만대사관 설치 경위

- 한·오만은 1974.3.28. 외교관계 수립
- 유양수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겸임대사로서 1976.4.11. Qabus 오만 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오만은 유엔총회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 측 입장을 적극 지지해왔음.
- 대외정책면에서 걸프연안 국가들과의 협력 기반 구축 및 강화를 위하여 오만 상주공관 설치가 시급함.

2. 장동환 주오만 대사대리(참사관)가 공관 개설을 위해 1976.10.29. 오만에 부임함.

- 장동환 대사대리는 11.12. 자와위 오만 외상에게 Lettre de Cabinet를 수교함.

재외공관 설치 - 파라과이, 1976.2.13.

생산연도 1966-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96 / 22 / 1-153

1. 외무부는 1975.7.3. 파라과이 외무부장관 방한 시 공동성명에 따라 파라과이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기로 하고, 12월 김진하 주고베총영사를 대외직명 공사로 지정, 주파라과이대사대리로 발령함.
2. 김진하 주파라과이대사대리(공사)가 주파라과이대사관 개설을 위해 1976.2.13. 파라과이에 부임함.
 - 김진하 대사대리는 2.17. 파라과이 외무부장관대리를 예방하고 외무부장관 명의 위임장을 접수함.

재외공관 설치 - 카타르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96 / 23 / 1-20

1. 임홍규 주카타르대사대리(참사관)가 공관 개설을 위해 1976.10.13. 카타르에 도착함.
2. 임홍규 대사대리는 1976.10.19. 카타르 외무장관실 실장을 방문하여 Letter of Instruction을 전달함.
 - 동 실장은 한국의 공관 개설을 환영하고 제반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함.

재외공관 설치 - Las Palmas(스페인)총영사관, 1976.6.17.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구주

MF번호 C-6-96 / 21 / 1-42

1. 1976.6.17. '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령'이 공포되어 주라스팔마스영사관이 총영사관으로 승격됨.

- 주한 스페인대사관은 5.28.자 공한으로 스페인 정부가 주라스팔마스영사관의 총영사관 승격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을 통보한 바 있음.

2. 박찬극 신임 주라스팔마스총영사가 1976.8.22. 라스팔마스에 부임함.

재외공관 설치 - Atlanta(미국)총영사관, 1976.10.21.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6-96 / 24 / 1-58

1.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개설 경위

- 미 국무부는 1976.7.21.자 공한으로 한국의 주애틀랜타총영사관 설치에 이의 없음을 통보함.
- 주애틀랜타총영사관 설치를 위한 '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령'이 1976.9.2. 공포됨.
- 오명호 주애틀랜타총영사 및 직원 2명이 1976.10.10. 애틀랜타에 부임함.
-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1976.10.21.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하고, Busbee 애틀랜타 주지사는 동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의 개설을 공표함.

2.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개관 리셉션이 1976.11.17. 오명호 주애틀랜타총영사 주최로 개최됨.

- 동 리셉션에는 Busbee 애틀랜타 주지사를 비롯한 애틀랜타지역 정계·경제계·학계 인사 등 약 350명이 참석함.

주월남대사관 폐쇄에 따른 한국 정부 재산처리 문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6-96 / 25 / 1-90

1975.4.30. 월남 패망 이후 주월남대사관 폐쇄에 따른 한국 정부 재산처리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방콕발 AP의 1975.5.1.자 보도에 의하면, 베트남(구 월맹) 신정부는 사이공에 소재한 외교사절의 재산과 구 월남 정부의 해외 외교사절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월남의 해외 외교사절에 대해서는 근무처에 남아 훈령을 기다리라고 지시함.
- 192 2. 외무부는 1975.5월 재월남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체가 월남 철수 시 월남에 남겨둔 재산현황을 파악하고자 관계부처에 산하기관, 관할기관 및 민간업체의 동 재산현황을 알려주도록 요청함.
 - 각 부처가 통보한 자료와 동 자료를 근거로 외무부가 작성한 소관부처별 재월남 재산 목록이 수록됨.
3. 김성환 한국은행 총재는 1975.10.8. IMF(국제통화기금) 총회 계기에 Tran Duong 통일베트남 수석대표를 면담함.
 - Tran Duong 수석대표는 이번에는 문제만 제기하고 필요에 따라 추후 계속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사이공 소재 전외환은행지점 재산을 청산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함.
 - 김 총재가 청산의 정확한 내용을 문의한데 대해, 동 수석대표는 추후에 ADB(아시아개발은행) 상주 라오스 이사를 통해 연락하겠다고 답변함.

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대외관계 및 동남아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6-96 / 26 / 1-32

1976년 중 아세안의 대외관계 및 동남아 정세에 관한 내용임.

1. 말레이시아 Straits Times지는 1976.4.30.자 동경발 마이니치신문 보도를 인용하여 아세안 5개국이 동남아 중립화계획의 일환으로 여타지역 국가와 불가침조약 체결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함.

- 동 보도와 관련하여 Ahmand Zainal 말레이시아 외무부 정부차관보는 아세안이 불가침조약을 구상한 바 없다고 하면서, 동남아 우호 및 협력에 관한 조약으로 지역내 국가간 상호협조의 길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며, 새로운 방위조약이나 불가침조약과 같은 성격의 조약을 체결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함.

2. 리관유 싱가포르 수상은 1976.6.28. 태국에서 개최된 Asian Business Briefing에서 현재와 같은 험난한 국제정세하에서 동남아에 다수의 강대국 세력이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함.

- 동 지역내에서 강대국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주변 국가에 대해서는 강대국에 의한 힘의 지배를 배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함.

3. 로무로 필리핀 외상은 1976.7.21. 기자회견에서 공산베트남이 아직도 외상과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아세안을 반대하는 공산베트남의 성명은 이해할 만한 것이라고 함.

4. 차반 인도 외상의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기간 중 1976.7.24. 발표된 양국 공동성명은 비동맹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공동 노력, 아세안과의 관계증진·상호경험의 확대 등을 다짐함.

5. 리관유 싱가포르 수상은 호주 방문 중 1976.10.18. ABC 전국 TV 방송망과의 인터뷰에서 아세안의 현황과 장래에 관해 아래와 같이 발언함.

- 아세안의 발전단계를 지역적인 협력면에서 경제·정치·군사의 3단계로 구분하여 본다면 아직도 느슨하고 초보적인 단계에 놓여 있음.
- 2월 발리 아세안 정상회의는 인도차이나 국가의 공산화로부터 자극을 받아 과거의 명목상 관계를 탈피하고 작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됨.
 - 사상 처음으로 회원국 간의 통상·경제협력을 강조하고 특별대우(Preferential Treatment)를 하도록 합의
- 앞으로 경제협력 기반이 마련되면 2차로 정치적인 유대가 강화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군사적인 공동방위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봄.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 제1차. Bali(인도네시아), 1976.2.23.-24.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6-96 / 27 / 1-288

제1차 아세안 정상회담이 1976.2.23.~24. 인도네시아 Bali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참석자
 - Soeharto 인도네시아 대통령, Hussein Onn 말레이시아 수상, Marcos 필리핀 대통령, Kukrit Pramoj 태국 수상, 리완유 싱가포르 수상
- 주요 의제
 - 아세안 상설사무국 설치 문제, 지역안보 문제, 경제 및 역내 발전 문제, 기타 회원국 간의 협조 및 유대강화 문제

194

2. 회담 결과

- 아세안 화해 선언 발표
 - 정치: 필요 시 국가 행정수반회의 소집, 우호협력조약 체결, 역내분쟁의 조기해결, 평화·자유·중립지역 설치를 위한 1차적 필요조치 즉각 고려, 정치적 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 기구 정비,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등 사법분야 협력방안 검토, 정치적 결속 강화·이견조정
 - 경제: 식량·에너지 등 필수물자 공급 및 가격통제에 대한 협력, 특혜무역을 위한 노력 계속, 국제경제 문제에 대한 공동보조 다짐, 경제각료회의 수시 또는 정기개최 합의
 - 안보: 아세안 테두리 밖에서 회원국간 상호적 안보협력 계속
 - 아세안 기구 정비: 아세안 상설사무국 설치 협정 서명, 효율성 향상을 위한 아세안 기구의 정기적 검토, 아세안 헌장 필요성 검토
- 아세안 우호협력조약 채택
 - 항구적 평화와 우호증진 목적
- 아세안 사무국 설립 협정 서명
- 아세안 경제각료 이사회 개최 합의
 - 1976.3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 아세안 산업을 개발하기로 합의

3. 외무부의 동 정상회담 평가

- 최초의 정상회의를 개최, 정치적 차원의 협력체제를 강화함.
- 군사·안보협력 문제는 회원국간의 의견 차이로 아세안 테두리 내에서의 안보협력은 지양하고, 개별국간 안보협력을 계속하는 형식을 취함.
- 사무국의 상설기구화로 보다 더 조직적인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봄.
- 경제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아세안의 협력사업을 확대, 강화함.

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상회의, 제9차. Manila, 1976.6.24.-26.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6-96 / 28 / 1-142

제9차 아세안 외무장관회의가 1976.6.24.~26.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참석자
 - 아세안 5개국 외무장관 및 고위실무자
- 주요 의제
 - 아세안의 정치적 협력강화를 위한 기구 개편 문제, 여러 사업의 실천계획 등
 - 각급위원회의 보고서 심의 및 비공식 정치 문제 토의 예정

2. 회의 결과

- 주요 토의의제인 평화, 자유 및 중립지대 문제는 발리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어 각 회원국이 비준한 우호협력조약에 따라 각국 내의 안보를 유지하고 회원국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함.
- 베트남 정부의 아세안 적대정책 및 아세안 지역내 미군 철수 주장과 관련, 대인도차이나 공산국가 접촉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였으며, 다만 외국기지 문제는 동 기지가 공격이 아닌 방어를 위한 것이며 각 국가가 쌍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데 의견이 일치함.
- 경제 문제는 아세안 경제각료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동티모르 문제에 관하여 인도네시아가 입장을 설명하고 회원국이 공동으로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이해, 지지함.
- 재난구조협력, 마약단속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됨.

3. 한국 문제 관련 토의

- 의제에 포함되지 않고 문서상 기록없이 토의된 일종의 비공식 의견교환
- 참석 외무장관들은 아래의 의견을 같이함.
 - 한국 문제는 남·북한 간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이므로 비생산적인 유엔토의는 보류해야 함.
 - 1976.8월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비동맹 회원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3개국은 북한을 지지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중화시키기로 함. 이를 위한 공동보조를 취하되, 대외적으로는 각자 개별적으로 행동하기로 함.

ASEAN(동남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 제2차. Kuala Lumpur, 1976.3.8.-9.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6-96 / 29 / 1-6

제2차 아세안 경제장관회의가 1976.3.8.~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아세안의 기본 목표인 지역 경제·사회 및 문화협력을 토대로 한 회원국 상호간의 균등, 호혜원칙 하의 분업화 공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함.

2. 회의 결과

- 지역블록경제의 조직·발전을 목표로 아래 4개 산업을 아세안 산업으로 개발하기로 합의
 - urea(요소, 尿素), diesel engine(디젤엔진), soda-ash(소다회), super-phosphates (과린산석회)
- 상기 산업개발에 소요되는 재정, 금융, 원자재, 용역 및 노동력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조
- 상기 산업분야의 기술 및 경제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위원회 구성
- 전문가위원회는 상기 4개 산업분야 이외에 금속기계공구, 어업, tin plating(주석도금), 고무타이어, 전자제품 등 5개 분야의 개발 현실성을 검토함.
- 조속한 시일 내에 고위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하여 원칙을 세부화하기로 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경제협력센터

생산연도 1969-1976

생 산 과 조약 / 경제협력

MF번호 C-6-97 / 1 / 1-307

1969~76년 중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경제협력센터 설치 및 기능 중단 관련 내용임.

1. 한국 정부는 1970.5월 ASPAC 경제협력센터 설치 협정에 가입하기로 함.

- 1970.6.17.~19.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된 제5차 ASPAC 각료회의의 시, 각국 대표가 동 협정에 서명함.

2. 1973.6.1. 태국에서 개최된 ASPAC 상설위원회는 제8차 ASPAC 각료회의를 추후 적절한 시기까지 연기하기로 결정

- 각료회의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
 - 말레이시아는 ASPAC 성격과 회원국 문제 이유로 3월 동 기구 탈퇴
 -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이미 중국을 승인한 일부 회원국도 각료회의 개최에 부정적
- 한국은 각료회의 연기 및 일부 회원국의 태도에 비추어 사업기구를 ASPAC 산하기구로 계속 운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임.

3. 태국 정부는 1975년 ASPAC 경제협력센터(방콕 소재)의 기능을 중단시키고, 동 기구의 현금 재산(약 10만 달러)을 태국 적십자사에 이관할 것을 제의함.

- 외무부는 1975.11월 태국 측 제의에 동의하기로 함.
- ASPAC 경제협력센터의 기능이 1976.3.31. 중단됨.
 - ASPAC 산하 4개 사업기구 중, 사회문화센터(서울 소재)와 식량비료센터(타이베이 소재)만 남게 됨.
 - 과학기술등록처(호주 캔버라 소재): 1975.6.30. 기능 중단

4. ASPAC 경제협력센터 사무국은 1976.7월 동 경제협력센터 기능 중단 결의에 따른 최종 정산 보고를 송부하여 옴.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실무회의, 제39차. 서울, 1976.11.5.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공보문화

MF번호 C-6-97 / 2 / 1-152

제39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실무자회의가 1976.11.5. 서울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한국(외무부 문화교류과장), 일본(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대만(구 자유중국)(주한 대만대사관 참사관), 필리핀(주한 필리핀대사관 서기관)

2. 회의 결과

- 1975~76년간 회계연도 연례보고, 재정보고, 감사보고
 - 연례보고, 재정보고: 원안대로 채택
 - 감사보고: 고정자산의 명확한 표시 필요성 및 고용원 급여내규 마련 지적
- 제7차 아·태 영화제, 제4차 아·태 박물관회의 및 제3차 아·태 사회개발세미나 개최 보고
 - 원안대로 채택
- 신규채용
 - 1976.11월 일본 문부성의 Okuno를 사회문화과장 대리로 임명하기로 함.
- 1977~78년간 회계연도 행정예산안, 사업계획안 및 사업예산안
 - 원안대로 채택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식량비료기금센터 실무회의. Taipei

생산연도 1970-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6-97 / 3 / 1-186

1970~76년 중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식량비료기금센터 실무회의가 타이베이에서 개최됨.

1. 제1차 실무회의(1970.1.22.)

- 참석자
 - 호주,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대사관 직원 및 대만(구 자유중국) 외무부 직원
 - 뉴질랜드 불참
- 토의 내용
 - 제2차 집행위원회 의제 채택
 - 사무국의 각종 규정안 제출
 - 센터에 대한 회원국의 기여금 현황

2. 제3차(제1기) 실무회의(1970.3.25.)

- 제2차 실무회의 회의록 채택
- 센터 측은 한국의 제1차연도 기여금 13,500달러 접수 발표
- 사무국은 제1차연도 센터의 전문직은 3명이라고 발표
 -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전문직 채용 시 가급적 공개 채용할 것을 요구
- 부국장 직급 승격안은 차기 회의에서 토의하기로 함.

3. 제3차(제2기) 실무회의(1970.4.2.)

- 직원의 자격 및 직무규정안 일부 수정
- 직원 임명 문제
 - 부국장 임명 문제, 부국장의 지위 등에 관해 협의
- 제1차연도 사업계획 일부 수정

4. 제6차 실무회의(1970.9.17.) 및 제7차 실무회의(1970.10.29.) 회의록

5. 제9차 실무회의(1971.1.20.)

- 1970년도 사업 연차보고서 및 예산결산서
- 1971년도 회원국 부담금
- 1971년도 및 1972년도 직원 채용문제



6. 제38차 실무회의(1976.9.30.)

- 참석자
 - 한국, 대만, 일본 대표
- 토의 내용
 - 1977년도 예산,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OAS(미주기구) 총회, 제6차. Santiago(칠레), 1976.6.4.-18.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97 / 4 / 1-52

제6차 OAS(미주기구) 총회가 1976.6.4.~18.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참석자
 - 미국과 중남미 22개국 대표
 - 멕시코 불참
- 주요 의제
 - OAS 개편, 파나마운하 문제, 미국 대외무역법 개정 제안

2. 회의 결과

- 미국의 대외무역법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
 - 미국은 토의과정에서 이를 검토하겠다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임.
- 파나마운하 문제는 미국과 파나마가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합의에 도달할 것을 촉구
- 칠레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인권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OAS 인권위원회 활동에 협조할 것을 촉구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를 강화하기로 결의
- 1976~85년의 10년을 Women's Decade로 정하고 동 기간 중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
- 제7차 총회는 그레나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3. 동 총회는 OAS 개편 문제와 미국의 대중남미 경제협력 문제에 관해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폐회함.

발칸제국 협력회의, 제1차. Athene, 1976.1.26.-2.5.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C-6-97 / 5 / 1-30

제1차 발칸지역 국가 협력회의가 1976.1.26.~2.5.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참가국
 - 그리스·터키(나토 회원국), 루마니아·불가리아(바르샤바 조약국), 유고슬라비아(비동맹)
- 상호 이념적·정치적·민족적으로 상이한 발칸지역 국가의 모임인 동시에 1975.8월 헬싱키선언 이후 화해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최초의 회의

202

2. 외무부의 평가 및 전망

- 회의 결과
 - 참석 대표들은 1975.8월 헬싱키 유럽안보회의 정신에 따라 이 지역에 있어서의 다변적인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고, 각 참가국 대표단의 전문가들이 제의한 여러가지 방안을 각국 정부에 제출하여 검토하기로 합의
 -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합의는 없었으나, 사회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우선 비정치적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토의하였다는 데에 의의
- 향후 전망
 - 동 회의 개최를 통해 발칸지역 국가간 경제적 협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참가국간 이념적·정치적·민족적 상이성을 감안하면 정치적 측면에서의 목적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Brussels, 1976.7.12.-13.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1 / 통상2

MF번호 C-6-97 / 7 / 1-7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이 1976.7.12.~13.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됨.

1. 직접선거에 의한 EC 의석 결정

- EC 의회 의석수를 총 410석으로 결정하고 각국별 의석 배정에 합의함.
- 각국별 의석 배정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각 81석
 - 네덜란드 25석, 벨기에 24석, 덴마크 16석, 아일랜드 15석, 룩셈부르크 6석

2. 어업수역 200마일 선언 문제

- Callaghan 영국 수상은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하고 EC 국가 어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당한 시기에 공동어업수역을 200마일로 확장 선언할 것을 제안
- 동 문제는 1976.7월 개최되는 EC 외무장관 회의에서 다루기로 함.

3. Roy Jenkins 영국 내상을 유럽 집행위원회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데 동의함.

4. 국제테러 및 납치를 규탄하고, 이를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세계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각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선언함.

NORDIC(북구협력기구) 이사회, 제24차. Copenhagen(덴마크), 1976.2.28.-3.4.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C-6-97 / 6 / 1-10

제24차 NORDIC(북구협력기구) 이사회가 1976.2.28.~3.4.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됨.

1. 이사회 추진 권고 17개 항목

- 관광협력
- 민간항공여행 확대
- 운전면허 인정
- 펜션 등 여행시설 확충
- 아동문화분야에서의 협력
- 노르딕 언어분야 협력에 필요한 조치
- 자동식별 물질 분배
- 어부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 미래학분야 협력을 위한 조치
- 대중매체에 대한 조치
- 노르딕 여성의 지위에 대한 역사적 작업
- 정부구매 정책
- 업무수행에서의 위험한 물질
- 직업 환경에서의 수행 프로그램
- Samic(스칸디나비아 북부에서 핀란드 북부, 러시아 연방령 콜라반도에 걸쳐서 거주하고 있는 민족) 문화에 대한 강화 조치
- 노르딕 시민권에 대한 규칙 수정
- 청문위원회에서의 협력을 위한 조치

2. 위원회별 5개 선언 채택

- 커뮤니케이션상임위원회, 문화상임위원회, 경제상임위원회, 사회정책상임위원회, 법률상임위원회

아랍정상회담, 제8차. Cairo, 1976.10.25.-26.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97 / 8 / 1-88

1975~76년 중 개최된 아랍 국가들의 주요 회의 관련 내용임.

1. 1975년 회의

- 아랍연맹 외상회의(4.24.)
 - 이라크·시리아 분쟁, 유럽·아랍 간 대화 문제 등 협의
- 제64차 아랍연맹회의(9.2.~4.)
 - 아랍연맹에 의한 재정보고 및 연맹의원 임명 등 비정치적 문제만 논의

2. 1976년 회의

- 제65차 아랍연맹회의(3.15.)
 - 차기 아랍정상회담 개최일자 및 장소, 아랍·아프리카 협조문제, 아랍·구주 대화문제, 소말리아 해안의 독립문제, 레바논문제, 사하라문제 등 논의
- 긴급 아랍연맹 외상회의(9.4.)
 - 레바논 사태 수습 논의
- 제66차 아랍연맹회의(9.4.)
 - 이집트 지원으로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가 정식회원이 됨.
- 아랍 6개국 정상회담(10.17.~19.)
 - 10.21. 오전6시를 기해 휴전
 - 평화유지군을 3만 명 선으로 증가, 유지함.
 - 레바논 정부의 기능을 부활하기 위해 레바논 정부에게 평화유지군 지휘통솔권 부여
 - 1968년 팔레스타인의 레바논 잔류에 관한 카이로협정 준수
 - 레바논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 제8차 아랍정상회담(10.25.~26.)
 - 레바논 내전 종식에 대한 보장과 평화유지군의 강화 및 Sarkis 레바논 대통령의 평화유지군 지원에 합의를 선언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의,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6-97 / 10 / 1-203

1976년 중 개최된 OAU(아프리카단결기구)의 각료회의, 정상회의 등 관련 기본문서임.

1. 제26차 각료회의(2.23.~3.1., 아디스아바바)

- 행정 문제(예산안, 정상회담, 각료회의 일정 등) 협의
- 지부티 문제, 앙골라 결의안 작성, 모로코 문제, 서부사하라 문제 등 협의
- 중동 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
 - 이집트, 팔레스타인 지지

206

2. 제27차 각료회의(6.24.~7.3., Port-Louis)

- 한국 실무사절단 파견
 - 북한 불참
- 한반도 문제 논의되지 않음.
- 서부사하라, 지부티 문제 등 논의

3. 제13차 정상회담(7.2.~6., Port-Louis)

- 각료회의가 채택, 정상회의에 제출한 결의안 중 사하라문제에 관한 결의안만 제외하고 기타 결의안은 모두 채택
- 사하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OAU 특별정상회의 개최 결정

4. 제61차 특별각료회의(12.6.~10., Port-Louis)

- 무역 및 교통 문제, 공업화 문제, 경제발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협조 문제 등 논의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의,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6-97 / 11 / 1-160

1976년 중 제26~27차 OAU(아프리카단결기구) 각료회의 관련 자료임.

- 각료회의 관련 영자 신문 내용
- 이디 아민 우간다 대통령의 OAU 의장 재선운동 관련 기사
- 유엔과 OAU 협력에 관한 결의안
- 에티오피아 외교부의 보도자료
- 각료회의 각국 대표단 명단

신정부 승인 - 아르헨티나, 1976.3.26.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97 / 12 / 1-31

1976.3월 중 아르헨티나 군사 쿠데타 발생과 이에 따른 아르헨티나 신정부 승인 관련 내용임.

1. 아르헨티나 군사 쿠데타 발생(3.24.)

- 경제 위기, 노조 파업, 좌익 게릴라 준동 등의 불안한 상황 지속
- 혁명위원회는 3군 참모총장으로 구성
- 아르헨티나 신정부는 주아르헨티나대사관에 정부 승인 요청 공한을 발송(3.24.)
- 주아르헨티나대사대리는 즉시 군사정부를 승인할 것을 건의(3.25.)

2. 아르헨티나 신정부의 승인 요청 공한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사실상 승인하는 답신 전달(3.26.)

- 기존 양국 국민 간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입각하여 한국 정부는 신정부와의 우호 및 협력관계를 증진, 발전하기를 희망함.

3.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아르헨티나 신정부를 사실상 승인

- 미국: 아르헨티나와의 외교관계에 변함이 없다고 발표
- 브라질: 신정부 공한을 접수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승인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6-97 / 13 / 1-12

1976년도 일본 후생상 방한 초청과 한국 원폭피해자에 대한 일본 민간차원의 지원 관련 언론 보도 내용임.

1. 보건사회부장관은 일본 후생상을 방한 초청(1976.1.6.)

- 일본 측은 국회 사정으로 방한 일정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답신을 주한 일본대사를 통해 보냄(1.29.).

2. 한국 원폭피해자에 대한 재일교포, 일본인 의사의 지원 관련 언론 기사

- 주요 언론 보도
 - 서울신문: 원폭 피해자 7년 도와
 - 경향신문: 일본 피해자구호협회에 절연장

미국 언론의 반한관계 기사 및 대책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6-97 / 14 / 1-401

1973~76년 중 미국 언론의 반한 기사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내용임.

1. 문제기사 집필자 명단 및 내용(1973.1~74.1월)

- 미국, 영국, 서독, 일본 언론인이 주 대상

2.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1973.10.1.~74.1.31.)

- 문화공보부 작성(1974.2.1.)
-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 유신헌법·유신체제에 대한 왜곡, 반정부 학생데모에 대한 선동, 한국 특정 정부에 대한 비방, 한미 우호관계 저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함.

3. 뉴스위크(1973.10.8.~74.1.7.)

- 문화공보부 작성(1974.2.4.)
- 일자별 내용 분석

4. 반한 기사 활동으로 뉴스위크 동경 주재 크릿서 기자의 한국 입국 불허(1974.2월)

- 주일본대사는 동인의 동경 외신기자협회에서의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입국 불허 조치를 취소해 줄 것을 건의함.

5. 뉴욕타임즈(1974.2.1.~5.13.)

- 해외공보관 작성
- 일자별 내용 분석

6. 최근 한·미국 관계 현황, 문제점 및 대책

- 외무부 미주국 작성(1974.7.17.)
- 문제점
 - 의회 내 비판적 여론, 언론 및 지식인의 비판적 논설, 미국 교회단체의 인권 문제 제기 등
- 대책
 - 한·미국간 유대 과시, 국내 반대세력에 대한 관용의 제스처, 대의회 접촉 강화, 언론 대책 등

7. 워싱턴포스트(1976.3.1.)

- 민주구국 선언문 낭독사건 관련 기사 게재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대태국)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남아2

MF번호 2015-100 / 1 / 1-489

베트남 전쟁(1955.11.1.~75.4.30.) 이후, 1975~76년 중 이루어진 월남 잔류 한국 교민의 출국 노력에 관련된 내용임.

1. 월남 잔류 교민들은 에어프랑스 난민 철수 특별기를 통해 방콕으로 출국하는 절차로 귀국함.
 - 태국 입국에 필요한 방콕 이후의 항공권은 대한항공 및 태국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2. 교민 출국을 위해 노력한 김상우 전 사이공한인연합회 목사에게 동백장 서훈(1976.8월)
3. 월남내 상황 전달과 교민의 출국 지원 등은 월남에 잔류 중인 재월남 한인회장(이순홍 목사)을 통해 이루어짐.
 - 동인이 주태국대사에게 서신 형식으로 전달함.
4. 이순홍 목사는 잔류 한국 외교관(공관원) 면회(1976.8.20.), 서신 교환(9.6.~16.)을 통해 외교관 3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주태국대사에게 전달함.
 - 이대용 공사, 서병호 총경, 안희완 영사 등 3명
 - 서병호 총경을 면담하고, 나머지 2인의 소재를 파악함.
 - 건강에는 이상 없으며, 이대용 공사는 묵비권 행사로 면회가 불허된 상황임을 보고함.

주요인사 접촉기록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6-97 / 15 / 1-42

1975.10.1.~12.31. 기간 중 외무장관, 외무차관 등 주요 외국 인사와의 접촉 기록을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임.

- 주요 외국 인사 접촉 기록에 면담자 및 주요 내용이 포함됨.
 - 미국 의회 상하 양원 의원, 대학교수, 외무장관, 주한 대사 등이 주요 대상
 - 특정 사안 및 한반도 정세 설명

교황청(구 바티칸) 교황 메시지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C-6-97 / 17 / 1-21

교황청(구 바티칸) 교황 바오로 6세의 1977년도 신년 메시지 전문임.

Kissinger, Henry A. 미국 국무장관 연설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6-97 / 18 / 1-57

1976.7.22.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의 연설에 포함된 한국 관련 내용, 이에 대한 주요 인사 및 언론의 반응에 관한 내용임.

1.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은 시애틀 로터리클럽 및 상공회의소 합동회합에서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정책에 관하여 연설함(1976.7.22.).

- 연설 제목: 미국과 아시아
- 연설 중 한국 관련 내용
 - 남북한 진지한 대화 촉구
 - 남북관계 개선 후 미국·북한 관계 개선 의향이 있음.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지지
 - 휴전협정체제는 당사국이 수락하는 경우 더욱 항구적인 체제로 대체할 용의가 있음.

2. 주요 인사 및 언론의 평가

- Woodard 호주 외무성 차관보
 - 키신저 장관 제의의 시기와 내용이 콜롬보 비동맹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에 관심 표명
 - 중국(구 중공) 및 북한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한·미국 양국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한국과 미국에 유리한 반응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 미국 언론 종합
 - 작년 유엔에서의 최초 제의시보다 크게 양호한 언론의 반응으로 분석
- 미야자와 일본 외상
 - 동 제의는 일본 정부 입장과 일치하므로 적극 지지함.
 - 비동맹 회의를 앞두고 시기적절한 제의였으며, 중도적 비동맹국가에 대한 한국 문제의 당사자 간 해결 방안의 설득력을 높여줄 것으로 평가
- 김형익 주유엔 북한대표부 공사
 - 동 제의는 한반도 평화 확립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에 반대하는 입장임.
 - 북한은 향후 평화협정 체결 시, 한국은 1953년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만 협의할 것임.

3. 연설문 전문 및 한국 관련 내용 수록

함병춘 주미국대사 연설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6-97 / 16 / 1-26

1976년 중 함병춘 주미국대사의 연설 및 질문 내용임.

1. 샌프란시스코 Commonwealth Club of California 주최 금요 오찬 연설회(1976.12.17.)

- 연설 제목: 아시아의 세력 균형 속에 있어서의 한국

2. 동 연설문 및 질의응답 수록

한·일본 외무장관회담. New York, 1976.9.28.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6-98 / 3 / 1-25

박동진 외무부장과 고사가 일본 외상은 1976년도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 방문 계기에 1976.9.28. 한·일본 외무장관회담을 가짐.

1. 주요 의제

- 대륙붕협정 비준
- 조총련 규제 문제
- 조총련계 전향교포협정 영주권 부여 문제
- 사할린 교포 귀환 문제
- 1976년도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개최 시기

2. 회의 결과

-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대화 촉구, 휴전 당사국 4자회담에 대한 관심 표명 필요성에 공감
- 한국 측: 대륙붕협정 조기 비준, 조총련 활동 규제, 한·일본 각료회담 조기 개최, 사할린교포 조기 송환을 요청
- 일본 측: 한국 측 희망을 충분히 참작하여 대처할 것이라는 의향 표명

대일본 민간 청구권 보상 문제

생산연도 1972-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6-98 / 1 / 1-288

1972~76년 중 대일본 민간 청구권 신고 관련 내용임.

1. 한·일본 양국간 체결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제2조1항)에 따라, 한국 정부는 법률에 의한 민간 청구권을 신고 받음.

2.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일본 정부에 확인을 요청하고 일본 정부가 회신함.

- 대상: 징용 사망자, 금융기관의 재산 및 생명보험 등

3. 징용자 사망과 관련하여 민간이 직접 일본 정부에 징용자 사망 확인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명단을 통보받음.

- 1972.3월: 543명
- 1972.10월: 1,221명

4. 주일본대사관은 금융 자산에 대한 신고 내용을 일본 유관기관(우정성, 대장성)을 통해 확인함.

- 33,096건(1973.8.1.)

5. 기업 재산권에 대한 문의 및 회보

- 조선기업금융주식회사의 일본 내 자산 매각

6. 대일본 민간청구권 신고관리위원회 안건(1975.9월)

- 신고수리 거부된 대일본 민간 청구권의 재심에 다른 수리 및 거부 결정

7. 대일본 민간청구권 신고관리위원회 사무국

- 피징용 사망사실 확인 의뢰 추가자료 및 확인의뢰 추가자
 - 도별로 명단 작성
 - 동 자료 일본 측에 확인 전달

대일본 민간 청구권 보상 문제(김형준)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6-98 / 2 / 1-16

1945.8.15. 이후 개인과 일본 은행 간 금융거래가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민원 내용임.

1. 민원인(김형준)은 1945.9.2. 및 9.6. 대만은행 한커우(漢口)지점에서 대만은행 후쿠오카지점으로 송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동 송금도 한·일본 청구권협정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1976.3월 한국 정부에 문의함.

218

2. 문의 결과

- 1945.8.15. 이후 재산은 청구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함.

아프리카·아랍(Afro-Arab) 외상급 회의. Dakar(세네갈), 1976.4.19.-22.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6-98 / 4 / 1-60

아프리카·아랍(Afro-Arab) 외무장관회의가 1976.4.19.~22. 세네갈 다카에서 개최됨.

1. 참가국

-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원국(47개국) 및 아랍연맹 회원국(21개국) 중 59개국이 참가

2. 의제

- 정상회의 채택 현장 초안 논의 등

3. 회의 결과

- 제1차 아프리카·아랍 정상회의를 1976년말 또는 1977년초에 개최
- 현장 초안에 비동맹노선 추구 확인 및 반시오니즘 포함
- 아프리카·아랍국가 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 재확인

4. 한국 정부의 평가

- 참가국간 분쟁 문제(서부사하라, 앙골라 등)는 의제에서 배제됨.
- 아랍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아프리카그룹은 반시오니즘 지지
 - 코트디부아르는 강력히 반대
- 아프리카·아랍국가 간의 협력 강화, 행동 통일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아프리카·아랍 정상회의 준비를 성공적으로 마침.

유럽 공산당대회, 제2차. Berlin, 1976.6.29.-30.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동구

MF번호 C-6-98 / 5 / 1-119

제2차 유럽 공산당대회가 1976.6.29.~30. 베를린에서 개최됨.

1. 개최 배경

- 유럽 공산당 결속을 위한 대회로 1967.4월 제1차 대회 이후 소련의 종주권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개최가 지연되다가 소련의 양보로 개최됨.
- 소련은 소련 공산당의 주도권을 문서화하려고 시도했으나, 티토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의 반발로 결국 티토 대통령과 자주파를 인정한다는 약속을 하고 대회를 개최함.

220

2. 참가당 및 인사

- 소련 등 동유럽 8개국 공산당, 서유럽 21개국 공산당
 - 친중국의 알바니아 불참
- 탈소련 노선 인사 참석
 - 티토 대통령, 차우세스쿠 루마니아 대통령

3. 주요 내용 및 특징

- 각 공산당의 평등 및 독립성 인정, 내정불간섭 인정, 자주노선 인정
- 모스크바가 세계 공산당 운동의 '지배적 중심'이라는 표현 삭제
- 중국(구 중공) 비난 내용 불포함
- 공산당과 민주세력 간 협력 필요성 인정
- 긴장완화 찬양
- 북한의 민주적 통일투쟁 전면적 지지

4. 평가

- 공산당 평등, 내정불간섭, 독자노선이 처음으로 공식 문서화됨.
- 소련 주도권을 부인하는 티토 대통령 및 서방 공산당의 승리
- 그동안 유럽 공산당이 누려왔던 기존의 독립성을 인정한 수준이라는 평가로 새로운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님.
 - 실질적인 독자성에는 한계를 드러냄.
-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소련은 티토 대통령과 차우세스쿠 대통령을 참가시킴으로써 영향력을 과시함.

주일본지역 공관장회의, 1976년도 - 일본. 동경, 1976.2.28.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

MF번호 C-6-98 / 12 / 1-121

1976년도 주일본지역 공관장회의가 1976.2.28. 동경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참석자
 - 주일본대사 등 9명의 공관장
- 회의 분야
 - 정무, 영사, 경제, 공보 등 4개 분야

2. 회의 내용

- 경제 관계
 - 1975년도 수출목표 미달성 원인 분석과 개선점 강구
 - 1976년도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방안
- 영사 관계
 - 새마을운동의 계속 추진
 - 조총련계 동포 모국 방문운동 계속 추진
 - 한·일본 친선단체 강화
- 정무 관계
 - 오사카를 본거지로 한 학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인권 문제
 - 북태평양 어로문제
- 공보 관계
 - 전 공관원 및 민단 조직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계획수립

총영사회의, 1976년도 - 미국. New York, 1976.4.15.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 통상2

MF번호 C-6-98 / 13 / 1-306

1976년도 미국 총영사회의가 1976.4.15. 뉴욕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참석자
 - 박동진 외무부장관, 함병춘 주미국대사, 한병기 주유엔대표부대사, 6개 총영사관 총영사 등
- 주요 의제
 - 정무 관계: 한·미국 간 외교 현황
 - 영사교민 관계: 교민 현황, 교민선도 육성방안, 북한의 대교민 침투 저지책
 - 홍보 문제
 - 경제·통상 관계: 한·미국 간 통상 및 경제협력 현황, 1976년도 정부수출계획 및 수출진흥 종합시책, 대미국 수출계획 및 활동방안, 양국간 주요통상 현안문제

2. 영사교민회의의 결과

- 교민선도 육성 및 북한의 대교민사회 침투기도 저지 방안 논의
 - 교민의 비정치화
 - 한인회를 교민사회의 모체로 육성
 - 대교민 홍보 강화, 반공의식 고취
 - 교민복지 지원
 - 교민자녀에 대한 민족교육 확대
 - 순회영사제도 실효적 운영
 - 반정부 교포 선도 강화와 교민사회로부터 고립화 추진
 - 교민단체의 활동 적극 지원

3. 홍보대책회의의 결과

- 현지 유력 언론인 접촉 강화(공관장의 적극적인 활동 필요)
- 충분한 영화필름 지원 필요
- 공보관 파견 필요
- 홍보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계획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필요

4. 경제·통상 관계 회의의 결과

- 전시회 적극 참여 지원, 뉴욕에 종합상품전시장 설치 운영, 이동 전시회 개최
- 종합상사 및 현지 법인 설치 확대
- 전자제품 AS센터 설치, 메일센터 설치

공관장회의, 1976년도 - 미주지역. New York, 1976.4.12.-14.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 통상2

MF번호 C-6-99 / 1 / 1-312

1976년도 미주지역 공관장회의가 1976.4.12.~14. 뉴욕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외무부장관 및 미주지역 전 공관장(17명)

2. 회의 목적 및 주요 의제

- 대미주지역 외교의 종합적 검토
 - 지역정세, 한반도 정책, 유엔총회 대책, 외교망 강화 등
- 대미주지역 외교 선전활동 강화
 - 문화교류 활동
- 대미주지역 경제외교 확대 추진
 - 경제기술협력 강화, 인력 진출, 한국기업 진출 방안
- 교민 지도 육성 및 이민 진출 방안
 - 북한 진출 저지책

공관장회의, 1976년도 - 미주지역. New York, 1976.4.12.-14. 전3권 (V.2 공관 건의 및 조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 통상2

MF번호 C-6-99 / 2 / 1-446

1976.4.12.~14.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미주지역 공관장회의 중 공관 건의 및 조치 관련 자료임.

- 미국총영사관을 포함한 공관별 1976년도 수출진흥활동 계획
- 1976년도 공관별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 종합 수록
 - 동 회의 후 외무부에서 취합 정리함.
 - 현안별 조치 및 진척사항 및 관련부처 명기
- 국무총리 치사
- 외무부 미주국에서 작성한 공관 건의에 대한 조치방침
 - 사안별 조치방안 명기
- 동 회의 참석 미주 공관장 일동의 결의문

공관장회의, 1976년도 - 미주지역. New York, 1976.4.12.-14. 전3권 (V.3 재외공관 자료)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 통상2

MF번호 C-6-99 / 3 / 1-187

1976.4.12.~14.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미주지역 공관장회의 중 재외공관 관련 자료임.

1. 주미국대사관 자료

- 정무 관계
 - 1975년도 대미국 외교활동 종합평가 및 문제점
 - 1976년도 미국 정치정세 및 대외관계 전망
 - 외교 선전활동 종합평가 및 문제점
 - 주요 현안 및 정책 건의
- 교민영사 관계
 - 재미교민 현황
 - 교민 선도 육성방안 및 문제점
 - 재미교포 자녀에 대한 교육
 - 이민문제 및 건의사항

2. 주캐나다대사관 자료

- 정무 관계
 - 1975년 외교활동 평가
 - 1976년 캐나다 정치정세 및 대외관계 전망
- 경제·통상 관계
 - 기술협력
- 교민영사 관계
 - 이민사업

3. 주파나마대사관 자료

- 정무 관계
 - 1976년도 파나마 정치정세 및 대외관계 전망
 - 외교 선전활동 종합평가 및 문제점
- 경제·통상 관계
 - 파나마 경제사정 전망
 - 한국의 대파나마 수출실적 및 활동 종합평가

4. 주유엔대표부 자료

- 미주지역 공관장회의 설명 및 안내서

공관장회의, 1976년도 - 중동·아프리카지역. Teheran(이란), 1976.2.13.-15.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6-98 / 10 / 1-208

1976년도 중동·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가 1976.2.13.~15.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참가자
 - 외무부장관, 중동지역 공관장(8명), 아프리카지역 공관장(11명), 유관 부처 관계관 등
- 회의 목적
 - 대아·중동지역 정세 및 외교강화 방안 검토
 - 대아·중동 수출, 자원 확보 대책, 아국 기업진출 및 경제기술 협력 문제 등 검토
 - 총력 홍보외교 전개방안 수립
- 주요 의제
 - 정무, 경제, 홍보 및 건의사항

2. 회의 결과

- 비생산적이고 비현실적인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키려는 정부구상을 주재국과 적극 교섭
- 효율적인 홍보활동으로 북한선전에 대처
- 미개척 국가 진출로 대중동 경제 진출 다변화
- 수주사업 성실한 수행
- 중동진출 기술인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급체계 일원화
- 선진국과의 관세동맹을 활용하여 아프리카지역 진출
- 자원 보유국과의 관계 강화 필요성
 - 중앙아프리카의 우라늄, 시에라리온의 보크사이트 등
- 아프리카 연안 활동 중인 한국선박 및 선원사고 방지책, 스페인령 사하라 영유권 분할과 관련 어장 확보 방안 검토 필요성

공관장회의, 1976년도 - 중동·아프리카지역. Teheran(이란), 1976.2.13.-15. 전2권 (V.2 회의자료)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6-98 / 11 / 1-356

1976.2.13.~15.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1976년도 중동·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의 관련 자료임.

- 이란 관련 자료
- 공관장회의 자료
- 중동·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 자료
 - 통상 관계
 - 1976년도 대중동·아프리카지역 사업계획
 - 공관별 현안 문제 및 건의사항 종합

공관장회의, 1976년도 - 아주지역. Manila(필리핀), 1976.3.12.-15.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6-97 / 19 / 1-272

1976년도 아주지역 공관장회의가 1976.3.12.~15.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참석자
 - 외무부장관, 아주지역 공관장 및 대리(17명)
- 회의 목적
 - 1976년도 외교목표 및 시책 시달
 - 대아주지역 외교의 종합적 검토
 - 대아주지역 수출목표 달성 및 경제기술협력 방안의 종합적 검토
 -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홍보대책 검토

2. 주요 의제

- 정무 관계
 - 정세, 유엔 및 비동맹 정상회의, 초청방문 외교
- 공보·문화 관계
 - 북한 제압 홍보, 문화교류
- 경제·통상 관계
 - 수출목표 달성, 경제기술협력, 건설업 등 한국기업 진출

3. 회의 결과

- 아시아 각국이 평가하는 인도차이나 사태 후의 아시아 정세
 - 비공산권 동남아국가의 안보인식 고양
 - 공산인도차이나와 세력균형을 위한 아세안 결속 필요
 -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구 버마) 등에 대한 공산화 위협 우려
 - 동남아시아지역 안정을 위한 미국의 필요성
 - 미군철수에 따른 소련, 중국(구 중공) 세력의 강화 우려
- 한반도 문제
 - 인도차이나반도 공산화 후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제력과 지도력으로 대처 가능
 - 주한미군 인정, 한국 경제발전 인식
- 비동맹 회의, 유엔총회 평가
 - 아시아 국가들의 발언권 미약 인식, 일부 과격국가 주도권에 불만
 - 유엔에서 한국문제 해결 한계, 비생산적 무의미한 토론 지속

공관장회의, 1976년도 - 아주지역. Manila(필리핀), 1976.3.12.-15. 전2권 (V.2 회의자료)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6-97 / 20 / 1-199

1976.3.12.~15.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주지역 공관장회의 관련 자료임.

- 각 공관장 개별 면담 자료
- 아주지역 공관장회의 자료
 - 통상 관계
- 1976년도 아주지역 기본사업 요강
- 생사수출관계 현황과 대책(농수산부)
- 재외공관장회의 자료(국제관광공사)
- 아주지역 공관장회의 자료(해외공보관)

공관장회의, 1976년도 - 구주지역. 서울, 1976.2.20.-3.6. 전4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

MF번호 C-6-98 / 6 / 1-224

1976년도 구주지역 공관장회의가 1976.2.20.~3.6.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참석자
 - 구주지역 공관장 16명
- 회의 목적
 - 1976년도 시정 방침과 외교 목표 및 시책 시달
 - 북한의 대구주 침투 저지
 - 대구주 외교의 전반적 검토

2. 주요 의제

- 정무 관계
 - 주재국의 국제정세 전망, 주재국 한반도 정책, 동구권 국가와의 관계개선, 홍보 문화활동 강화
- 경제 관계
 - 경제협력 강화 및 수출진흥방안

3. 회의 결과

- 정무 관계
 -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정세에 대한 전망과 의견
 - 대부분 구주지역 국가들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관심
 - 주재국의 대한반도 정책 및 6·23 선언에 대한 반응
 - 6·23 선언은 합리적이고 평화지향적인 정책으로 공감
 - 앙골라 사태를 통해 본 소련의 대외정책
 -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비하여 서구와의 화해 추구
- 경제 관계
 - 경제협력 강화
 - 유관기관 자료 공유, 국내 기술 수요를 공관에 전달, 경제기구를 통한 협력 등
 - 수출진흥방안
 - 대만(구 중화민국) 홍콩 등 경쟁상대 분석, 대동구권 세일즈단 파견, 박람회 참가 효율화
- 유엔 한국 문제(본부 브리핑)

공관장회의, 1976년도 - 구주지역. 서울, 1976.2.20.-3.6. 전4권 (V.2 회의록 및 신문기사)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

MF번호 C-6-98 / 7 / 1-152

1976.2.20.~3.6. 서울에서 개최된 구주지역 공관장회의 관련 회의록 및 신문기사 내용임.

- 공관장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공관장 발언 내용 전문
- 공관장회의 관련 국내 언론 기사

공관장회의, 1976년도 - 구주지역. 서울, 1976.2.20.-3.6. 전4권 (V.3 부내 및 관계부처 자료)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

MF번호 C-6-98 / 8 / 1-226

1976.2.20.~3.6 서울에서 개최된 구주지역 공관장회의 관련 외무부 및 관계부처 자료임.

- 외무부
 - 1975년도 구주지역 재외공관 활동 상황(1976.2.6.)
 - 1976년도 구주지역 공관장회의 자료: 홍보문화 활동
 - 공관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본부 방침
- 해외공보관
 - 공관장회의 자료(1976.1.29.)
- 상공부
 - 1976년도 수출진흥을 위한 재외공관 건의사항
 - 구주지역 공관장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1976.3.22.)

공관장회의, 1976년도 - 구주지역. 서울, 1976.2.20.-3.6. 전4권 (V.4 재외공관 자료)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

MF번호 C-6-98 / 9 / 1-394

1976.2.20.~3.6. 서울에서 개최된 구주지역 공관장회의 중 재외공관별 자료임.

1. 교황청
2. 그리스
3. 네덜란드
4. 노르웨이
5. 덴마크
6. 독일
7. 벨기에
8. 스웨덴
9. 스위스
10. 스페인
11. 영국
12. 오스트리아
13. 이탈리아
14. 제네바
15. 포르투갈
16. 프랑스
17. 핀란드
18. 터키

세르비아 - 몬테네그로(구 유고슬라비아) IUC(Inter University Center) 주최 세미나 및 학회 참가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3

MF번호 C-6-99/6/1-94

1976.10.18.~11.12. 유고슬라비아 Dubrovnik 소재 IUC(Inter University Center) 주최 세미나 및 학회에 권영민 외무부 서기관이 참가함.

1. 참가 경위

- IUC는 1976.3월 서울 소재 국제관계연구소 앞 서한을 통해 10.18.~11.12. 개최되는 '발전, 분쟁 및 평화이론에 관한 세미나'에 한국 연수생의 참가를 요청함.
- 외무부는 1976.8.18. 권영민 서기관을 외교연구원 연구원 자격으로 파견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동 서기관은 10.15. 주일본 유고슬라비아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음.

2. 세미나 주요 일정

- Galtung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교수 강연: Peace
- Niezing 벨기에 브뤼셀대학 교수 강연: Diplomacy
- Pavert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 교수 강연: Detente 등
- 19명의 각국 초청교수들이 발전, 분쟁 및 평화이론에 관한 논제로 강의와 세미나 개최

3. 권영민 서기관의 활동

- 한반도에서의 남북대화에 대해 설명
- 새마을운동 설명
-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6·23 선언 발표

4. 동 세미나에는 당초 김준엽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소장이 정부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유고슬라비아 측 통보로 참석을 취소함.

미국 CAA(Council on American Affairs) 한국관계 세미나 및 자료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6-99 / 4 / 1-53

CAA(Council on American Affairs)는 1976.2.25. 한국 문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함.

1. 회의 개요

- 일시: 1976.2.25. 17:30~21:30
- 주관: CAA
 - 워싱턴에 본부가 있는 비영리 연구 및 교육단체로 미국 상하원 보수파 의원의 후원을 받고 있는 단체

2. 회의 주제 및 진행사항

- 회의 주제
 - The Future of US-Korea Relations
- 회의 진행사항
 - R. Person 소장 개회사
 - J. Murphy 하원의원 연설
 - J. Garn 상원의원 연설
 - 세미나
 - 함병춘 주미국대사 연설

Geisel, Ernesto 브라질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99 / 7 / 1-39

1974~76년 중 Ernesto Geisel 브라질 대통령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1974.11월 주브라질대사는 다나카 일본 수상이 브라질 방문(1974.9월) 시 Ernesto Geisel 브라질 대통령을 내년 중 일본에 방문 초청하였다고 보고하면서, 그 기회에 한국도 방문하도록 초청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정부는 상기 건의에 따라 동 대통령을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하고 초청의사를 브라질 측에 전달함.

236

2. 1975.2월 브라질 외무성은 Geisel 대통령의 일본 방문 계획에 관하여 일본 측과 아직 구체적 협의를 가진 바 없다면서 방일하더라도 제3국을 방문할 계획은 없고 오직 일본 왕복여행만 고려하고 있다는 반응임.
3. 1975.9월 브라질 외무차관은 Geisel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당초 일본 정부의 초청을 수락함으로써 결정된 것인 만큼, 한국 측 초청에 관하여는 앞으로 별도로 검토할 문제라고 언급함.
4. 1976.5.31. 주상파울루총영사는 Geisel 대통령이 9.13. 방일 예정이라고 보고함.
5. 1976.6.15. 주브라질대사는 Geisel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실정이라고 보고함.

Marcos, Imelda 필리핀 대통령 영부인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6-99 / 8 / 1-14

1975~76년 중 이멜다 필리핀 대통령 영부인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주필리핀대사는 1976.7월 필리핀 외무차관을 면담하면서 7.16.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범태평양 동남아시아여성협회 주간 국제대회에 이멜다 여사가 초청연사로 참석하는 것을 제의함.

- 동 차관은 동 여사는 주재국 내 수해피해 복구 관계로 당분간 국외 출장계획이 없다고 언급

2. 최근 이멜다 여사의 외국 방문 일정

- 일본 방문(1976.6.13.~17.)
 - 일본 가시마 평화연구소로부터 평화상 수상
- 국제여성대회(6.19.~7.2., 멕시코) 참석
 - 한국대표로 이매리 여사가 참석
 - 동 협회 제13차 국제대회를 7.16.~22. 서울에서 개최 예정

Mohamed Al-Faisal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 경제협력

MF번호 C-6-99 / 9 / 1-12

1976년 Mohamed Al-Faisal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과학기술처 산하 한국과학기술연구소장은 1975.4.30. 미국 바젤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 초청을 권유하는 서신을 접수함.

2. 동 왕세자 초청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

- 과학기술처: 체재비 등 일체 경비를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부담한다는 조건이라면 초청해도 무방함.
-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 동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실업계의 유력한 인물로 수단의 농업 및 축산업에 관여하고 있어 초청이 성사되면 한·사우디아라비아 및 한·수단 관계에 도움이 될 것임.
- 외무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초청은 한국의 대사우디아라비아 관계증진을 위하여 유익할 것임.

3. 과학기술처는 항공료는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부담하고 체재비는 외무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함.

- 1976.7월 외무부는 동 왕세자의 체재비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동 경제협력 실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과학기술처에 통보함.

Idi Amin 우간다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6-99 / 10 / 1-41

1973~76년 중 Idi Amin 우간다 대통령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Idi Amin 우간다 대통령 방한 초청 경위

- 1972.8월 주우간다대사는 북한대사관 설치 저지책의 일환으로 동 대통령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 1975.1월 주우간다대사는 유엔총회 지지 확보를 위해 동 대통령 방한 초청을 건의함.
- 1976.1월 주우간다대사는 대우간다 적극 외교방안의 일환으로 동 대통령이 8월 스리랑카 비동맹 회의 참석 후 중국(구 중공), 북한 방문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기회에 방한 초청하도록 재건의함.

2. 외무부는 1976.6월 동 대통령의 방한 초청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동 대통령의 방한 초청문제는 1972.8월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동 대통령의 과격한 언행과 이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신망 추락에 비추어 적절히 지연시켜 옴.
- 주우간다대사가 보고한 동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확실해지는 경우, 현지에서 구두로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현지 교섭 결과 동 대통령의 방한 시기가 확정되면 초청장을 발송하도록 함.

Malietoa Tanumafili II 서사모아 국가원수 방한, 1976.8.22.-27.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 의전

MF번호 C-6-99 / 11 / 1-197

Malietoa Tanumafili II 서사모아 국가원수가 1976.8.22.~27. 비공식 방한함.

1. 초청 경위

- 1976.6월 주뉴질랜드대사의 서사모아 출장 시, 서사모아 총리는 Malietoa Tanumafili II 서사모아 국가원수의 방한 초청 가능성을 타진해 옴.
-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한 동 총리는 국가원수의 방한 초청을 재차 요청함.
 - 중국(구 중공)은 모택동 주석을 대리하여 화국붕 총리 명의로 공식 초청하였으며, 일본, 영국의 경우 비공식 방문은 환영한다는 입장임.

240

2. 주요 일정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
- 대통령 주최 오찬, 국무총리 주최 만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주최 만찬
- 현대조선 및 경주, 전방, 국립박물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찰

3.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바오 바사마나이아 필리포 서사모아 국무장관 간 공동설명문 발표(1976.8.27.)

- 민간합작 투자와 기술원조 등 양국간 통상 및 경제협력 분야 개척 합의
-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 지속 추구에 의견 일치

Abd Mohamed Hegazy 전 이집트 수상 방한, 1976.4.13.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99 / 12 / 1-10

Mohamed Hegazy 전 이집트 수상이 1976.4.13. 방한함.

1. 주카이로총영사는 1975.11월 Mohamed Hegazy 전 이집트 수상 부부와 아랍권 유력 언론인의 초청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 초청 대상자(4명)
 - Dr. Mohamed Hegazy 전 수상 부부
 - Dr. Abdel Azim 알 아람 경제지 주필 부부
- 초청 시기
 - 1976.4월경 6박7일 정도
- 초청 목적
 - 한·이집트 관계개선의 전기 마련
- 초청장 발급
 - 한국무역협회장 명의 초청장 발급

2. Hegazy 전 수상과 Azim 주필은 1976.4.13. 윤하정 외무부차관을 면담함.

Gairy Eric, Matthew 그레나다 수상 방한, 1976.4.28.-5.2.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99 / 13 / 1-245

Eric Matthew Gairy 그레나다 수상이 1976.4.28.~5.2. 방한함.

1. 초청 경위

- 1974.8월 김용식 통일원장관이 대통령 특사로 그레나다를 방문, 양국 국교수립에 합의하고 정부 명의로 Gairy 수상을 초청함.
- 1975.11월 수리남 경축식전에 참석한 주베네수엘라대사가 동 수상과 면담, 방한 문제 협의
- 1976.2월 그레나다를 방문한 동 대사는 동 수상의 방한 문제 협의

242

2.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및 오찬, 국무총리 예방 및 만찬,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국회의장 예방
 - 경제기획원 방문 및 한국경제 브리핑
- 경희대학교 명예박사학위 전수, 특전사 태권도 시범 참관

3. 방한 결과

- 양해각서 수교(1976.5.1.)
 - 정부는 20만 달러의 재정원조를 그레나다에 제공
 - 정부는 그레나다로부터 약간명의 기술훈련생을 초청 훈련
 - 수산협력 및 합작투자에 대해 행정적 지원
- 공동성명 발표(1976.5.2.)
 - 유엔 및 기타 국제회의에서 그레나다는 계속 한국입장을 지지하기로 약속함.
 -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 경제조사단을 그레나다에 파견하기로 함.

Gairy Eric, Matthew 그레나다 수상 방한, 1976.4.28.-5.2.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99 / 14 / 1-101

Eric Matthew Gairy 그레나다 수상의 1976.4.28.~5.2. 방한 관련 자료임.

1. 연설문

- Eric Matthew Gairy 그레나다 수상을 위한 만찬에서 최규하 국무총리의 인사(1976.4.29., 서울)
- 동 수상 환송식 환송사(5.2., 서울)
- 동 수상의 이한 인사

2. 참고자료

- Gairy 수상 방한 관련 자료
 - 초청 경위
 - 방한 의의 및 성과
 - 향후 양국간 협력관계
 -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증진 전망
- 과거 초청 인사
- 향후 초청 계획
- 협정 체결 현황
- 방한 일정
 - 국무총리 예방 및 만찬, 경제부총리의 한국경제 브리핑 청취, 외무부장관 방문 및 오찬
 - 대통령 예방 및 오찬, 국회의장 예방, 명예박사학위 전수(경희대학교), 군사훈련 및 태권도 시범 참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만찬
 - 현대조선 및 포항제철 시찰

3. 면담자료

- 동 수상 약력 및 이력사항, 수행원 명단, 주요 일정, 한국과의 관계, 주요 현안, 대화자료, 그레나다 개황

Amir Abbas Hoveyda 이란 수상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99 / 15 / 1-21

1976년 중 Amir Abbas Hoveyda 이란 수상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1976.1월 주이란대사는 Hoveyda 이란 수상 면담 시 방한 의사를 확인하고, 국무총리 명의 초청장 발송을 건의함.

- 동 수상은 동년 가을경 방한 의사를 표명함.

2. 1976.2.5. 외무부장관은 국무총리 명의 초청장을 이란 외무부장관에게 전달함.

- 동 수상은 2.14. 서한을 통해 방한 초청을 수락

3. 1976.3월 주이란대사는 Hoveyda 수상이 몽골 방문(동년 7월초순 예정) 직후인 7월 초·중순에 방한을 희망하는 경우 시기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함.

4. 1976.4월 주이란대사는 Hoveyda 수상이 국내 행사 관계로 7월중 방한은 어렵고 다른 시기를 고려중이라고 보고해 옴.

Jonathan, Leabua 레소토 수상 방한, 1976.5.27.-31.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 의전1

MF번호 C-6-99 / 16 / 1-363

Leabua Jonathan 레소토 수상이 1976.5.27.~31. 방한함.

1. 초청 경위

- 1966년과 1969년 2차에 걸쳐 방한했던 Leabua Jonathan 레소토 수상은 1971년부터 주케냐대사를 통해 자신을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희망해 옴.
- 1974.7월 주케냐대사의 레소토 방문 시 동 수상은 내년 레소토 총선거 전에 한국을 방문하고자 정부 초청을 요청해 옴.
- 1975.8월 동 수상은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기회에 방한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한바, 국무총리 명의로 구두 방한 초청을 전달함.
- 외무부는 1976.4월 이후에 방한할 것을 종용하고 4.17. 국무총리 명의의 초청장을 레소토 정부에 전달함.

2.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및 오찬, 국무총리 예방 및 만찬, 국회의장 예방,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만찬
- 국립묘지 및 고 육영수여사 묘소 헌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및 전방 시찰

3. 최규하 국무총리와 Jonathan 수상 간의 공동성명서가 발표됨(1976.5.31.).

- 레소토 정부는 유엔과 기타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계속 지지하기로 약속함.

Jonathan, Leabua 레소토 수상 방한, 1976.5.27.-31. 전2권 (V.2 영접준비)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 의전1

MF번호 C-6-99 / 17 / 1-186

Leabua Jonathan 레소토 수상의 1976.5.27.~31. 방한 관련 준비자료임.

1. 방한 계획

- 기간: 1976.5.27.~31.
- 수행원: C.D. Molapo 외상 등 12명
- 숙소: 조선히텔 18층
- 주요 일정
 - 예방: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 오찬: 대통령 주최, 국회의장 주최
 - 만찬: 국무총리 주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 시찰: 포항제철, 현대조선, 한국과학기술연구소
 - 서훈: 수교훈장 광화대장
 - 기타: 국립묘지 및 고 육영수여사 묘소 헌화

246

2. 기타 자료

- 공항 행사 계획 등 각 계기별 의전 행사 계획
- 최규하 국무총리의 만찬사 및 환송사

Ahmed Osman 모로코 수상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100 / 3 / 1-41

1976년 중 Ahmed Osman 모로코 수상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1976.2.3. 주모로코대사는 Osman 모로코 수상이 2.15. 일본을 방문할 예정임을 보고하면서 이 기회를 이용하여 동 수상을 방한 초청할 것을 건의함.
 - 동 대사가 모로코 외무부 의전장과 접촉한 결과, 한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한할 가능성도 있다는 반응임.
2. 1976.2.4. 외무부는 Osman 수상에 대한 국무총리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발송함.
 - 주모로코대사는 2.5. 동 초청장을 외무부 의전장에게 전달함.
3. 1976.3월 주모로코대사는 Osman 수상의 방한 시기를 긴박한 국내 문제로 확정할 수 없으나, 5월쯤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보고함.

Muldoon, Robert David 뉴질랜드 수상 방한, 1976.4.18.-22. 전2권 (V.1 기본문서집)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6-100 / 1 / 1-369

Robert David Muldoon 뉴질랜드 수상이 1976.4.18.~22.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5.12월 주뉴질랜드대사는 새로 취임한 Muldoon 뉴질랜드 수상이 1976.4월경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며 이 기회에 방한 초청을 건의함.
 - 1976.1.29. 정부는 공한으로 동 수상을 방한 초청한바, 뉴질랜드 정부는 2.4.자 공한을 통해 방한 초청을 수락함.

248

2.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예방
- 대통령 주최 만찬, 국무총리 주최 만찬, 국회의장 주최 오찬
- 국립묘지 및 고 육영수여사 묘소 헌화, 전방 시찰, 서울대학교 방문(명예박사학위 전수), 한·뉴질랜드 평택시범목장 시찰

3. 기타 자료

- 동 수상 약력
- 한·뉴질랜드 현안 문제
- 면담자료: 한반도 정세, 유엔 관계, 비동맹회의 관계, 뉴질랜드 상주대사 임명, 뉴질랜드·북한 관계, 통상 관계, 경제 및 기술협력 관계

Muldoon, Robert David 뉴질랜드 수상 방한, 1976.4.18.-22. 전2권 (V.2 공동성명서 및 연설문)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6-100 / 2 / 1-125

Robert David Muldoon 뉴질랜드 수상의 1976.4.18.~22. 방한 결과임.

1. 박정희 대통령과 Muldoon 수상 간 공동성명서 발표(1976.4.22.)

-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통상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함.
- 양국 정상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양국 정부의 확고한 정책을 확인함.
- 동 수상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계속 지지함을 재확인함.
- 양국 정상은 유엔총회에서 한국 문제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계속 협력할 것을 약속함.
- 양국 정상은 최근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 및 기술협력 증가에 만족을 표명함.

2. 기타 자료

- 대통령 만찬사
- 언론 보도

Rene, France Albert 세이셸 수상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6-100 / 4 / 1-6

1976.6.28. 독립한 신생 세이셸공화국 France Albert Rene 수상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초청 경위

- 1976.6.28. 연하구 주케냐대사가 세이셸공화국의 독립 경축식에 경축 특사로서 참석함.
- 1976.7.1. Rene 세이셸 수상은 주케냐대사 면담 시 방한 희망의사를 표명함.
- 1976.7.3. Mancham 세이셸 대통령은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지지와 대북한 관계수립 회피를 위해 야당 당수인 동 수상의 방한 초청을 주케냐대사에게 권유함.
 -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동 수상의 대한민국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음.
 - Mancham 대통령은 1975.8월 당시 수상 자격으로 비공식 방한한바 있음.
- 1976.7.9. 외무부는 Rene 수상을 국무총리 명의로 방한 초청할 것을 건의함.

2. 참고사항

- 정부는 세이셸의 독립과 동시에 국가승인을 하였으며 외교관계를 수립한 바 있음.
 - 주케냐대사가 1976.7.1. 겸임대사로 Mancham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3. 국무총리 명의의 초청장 수록

박동진 외무장관 이란 방문, 1976.2.11.-12.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통상3 / 중동

MF번호 C-6-100 / 5 / 1-193

박동진 외무부장관이 1976.2.11.~12. 이란을 공식 방문함.

1. 방문 일정

- 팔레비 이란 국왕 예방
- 호베이다 수상 면담
- 칼라드바리 외상 면담(3차례)
- 애크발 석유공사총재 면담
- 타스티미 상무장관 면담
- 마지디 기획예산장관 면담
- 쇼타카 경제재무차관 면담 및 오찬

2. 방문 결과

- 이란 정부에 한국의 평화통일 외교정책과 자립, 자주정신 이념을 재인식시킴.
- 호베이다 수상에 대한 국무총리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
 - 외무부장관 공식 방문과 아중동지역 공관장회의를 이란의 수도에서 개최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이 높아짐.
- 북한의 대외채무와 북한 정세 설명
- 대이란 상품수출 신장을 기하기 위한 무역협정 체결
 - 합동무역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
- 양국간 협력증진 및 기술인력 진출을 위하여 투자보장협정 및 사증면제협정 체결 제의

박동진 외무장관 일본 방문, 1976.6.9.-11.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6-100 / 6 / 1-290

박동진 외무부장관이 1976.6.9.~11. 일본을 방문함.

1. 방문 일정

- 미야자와 외상 접견
- 미키 수상 예방
- 시이나 한·일본 친선협회 전국연합회장 방문
- 미야자와 외상 주최 만찬
- 민단 간부 접견

2. 방문 결과

- 미야자와 외상 면담(6.9.) 주요 내용
 - 반한 세력인 공명당, 사회당, 공산당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당시부터 일본의 대외정책을 비판해 옴.
 - 조총련 규제 문제는 일본 헌법과 형법의 범위 내에서 대처하고 있음.
 - 대륙붕협정 비준에 최선을 다할 것임.
 - 유엔 한국 문제에 관하여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임.
- 미키 수상 예방(6.9.) 주요 내용
 - 한·일본 양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워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나, 양국이 기본조약 정신에 비추어 서로 과잉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
 -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 움직임에 대하여 북한과는 관계증진 의향이 없음을 강조
 - 한국 안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작년 미국 방문 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함.

박동진 외무장관 태국 방문, 1976.6.6.-8.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6-100 / 7 / 1-201

박동진 외무부장관이 1976.6.6.~8. 태국을 방문함.

1. 방문 일정

- 전승탑 헌화 및 왕실 방명록 서명
- 피차이 태국 외상 면담 및 만찬
- 세니 뿌라못 태국 수상 예방
- 교민을 위한 만찬 및 기자회견

2. 피차이 외상 면담(1976.6.7.) 주요 내용

- 월남 사태 이후 동남아 정세와 동남아국가 간의 향후 협력 문제
- 태국 정부의 향후 대한반도 정책 방향
- 한·태국 양국간의 제반 우호협력 문제
- 한반도 정세 및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 태국 외상은 북한과의 수교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밝힘.

3. 세니 뿌라못 수상 예방(1976.6.7.) 주요 내용

- 동 수상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전통적인 한·태국 우호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가능한 모든 협조를 다짐함.

박동진 외무장관 미국 방문, 1976.4.7.-17.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6-100 / 12 / 1-173

박동진 외무부장관이 1976.4.7.~17. 미국을 방문함.

1. 방문 일정

- 워싱턴(1976.4.8.~10.)
 - 하비브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면담
 - 키신저 국무장관 면담 및 오찬
 - 주미국대사 주최 만찬
 - 특파원 조찬
- 뉴욕(4.12.~15.)
 - 미주지역 공관장회의 주재
 -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 면담
 - 미주지역 총영사 간담회

2. 면담 주요 내용

- 키신저 국무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고 유엔총회에서 미국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다짐함.
 - 인권 문제는 거론되지 않음.
- 하비브 차관보는 1976.4.8. 험프리 소위 청문회가 예상보다 순조롭게 끝나 다행이라며, 행정부로서는 일부 국회의원의 비판적인 입장에 동조할 의사는 없다고 언급함.

윤하정 외무차관 아프리카지역 순방, 1976.5.1.-22.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아프리카

MF번호 C-6-100 / 8 / 1-302

윤하정 외무부차관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976.5.1.~22. 아프리카 4개국(우간다, 케냐,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을 순방함.

1. 순방 목적

-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1976.8월, 스리랑카) 및 제31차 유엔총회에 대비한 한국입장 설명 및 지지확보
- 최근 한반도 정세 설명과 이해 확보
- 대통령 친서 전달

2. 훈령

- 유엔총회 대비 정부입장 설명 및 지지교섭
- 비동맹 정상회의의 일방적 대북 편향태도 억제 노력

3. 주요 일정

- 케냐(1차)(1976.5.3.~5.)
 - 법무장관 면담, 외무차관 면담
- 우간다(5.5.~8.)
 - 대통령 예방, 외상 면담, 대통령실 국무상 면담, 산업동력상 면담
- 케냐(2차)(5.9.~13.)
 - 제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수석대표로 참석
- 코트디부아르(5.15.~17.)
 - 코트디부아르 국영TV 인터뷰, 국무장관(대통령 권한대행) 면담
- 라이베리아(5.18.~19.)
 - 대통령 예방, 외상 면담

4. 기타 자료

- 주요 인사 면담자료

박동진 외무장관 동남아 순방, 1976.3.9.-23.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6-100 / 9 / 1-263

박동진 외무부장관의 1976.3.9.~23. 동남아 4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순방에 대비한 사전준비 내용임.

1. 순방 목적

- 필리핀 마닐라에서 1976.3.12.~15. 아주지역 공관장회의 개최
- 동남아국가들과의 우호협력 관계증진 및 당면 공동관심사 협의

256

2. 방문 일정

- 인도네시아(3.9.~11.)
 - 아담 말리크 외상 면담, 수하르토 대통령, 국회의장, 팡가비안 국방상(외상 직무대리) 예방
- 필리핀(3.12.~17.)
 - 리잘 기념비, 무명용사비 및 한국참전용사비 헌화, 로물로 외상 면담, 마르코스 대통령 예방 및 훈장 수여 받음.
 - De La Salle 대학교 명예박사학위 전수
 - 아주지역 공관장회의 주재
- 말레이시아(3.17.~19.)
 - 고(故) 압둘 라자크 수상 묘지 참배, 리타우딘 외상 예방 및 오찬, 후세인 온 수상 예방
- 싱가포르(3.19.~22.)
 - 라자라트남 외상 면담, 리관유 수상 예방, 싱가포르 항만 시찰, 교민 리셉션 개최

박동진 외무장관 동남아 순방, 1976.3.9.-23. 전3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6-100 / 10 / 1-248

박동진 외무부장관의 1976.3.9.~23. 동남아 4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순방 관련 결과보고임.

1. 공동성명서 발표

- 박동진 외무부장관은 평가비안 인도네시아 국방상(외상 대리), 로무로 필리핀 외상, 리타우딘 말레이시아 외상과 각각 한반도 정세와 유엔문제, 아세안 협력 문제, 한국과의 관계 증진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 한·인도네시아(1976.3.12.), 한·필리핀(1976.3.17.), 한·말레이시아(1976.3.19.)
- 공동성명서 주요 내용
 -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필리핀 측의 한국입장 지지 표명
 - 유엔 한국 문제에 대한 공동 의견 표명
 - 지역 협력 및 아세안과의 협력 문제에 관한 상호협약 합의
 - 한국과의 통상 및 경제, 기술 협력 강화방안 합의

2. 방문 결과 및 평가

- 한반도 정세에 대해 순방국 지도자들은 북한 위협을 우려하고 있으나, 월남 사태와 같은 불행이 한반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1976.8월 스리랑카 비동맹 정상회의 전망
 - 김일성이 참석하여 대한국 책동이 치열할 것으로 봄.
 - 쿠바와 알제리 간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며, 앙골라, 모잠비크, 남아공 문제 등으로 분열이 심화될 전망
- 유엔 한국 문제
 - 작년 유엔에서 한국 문제에 대한 2개의 상충되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유엔 능력의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입장에 원칙적 지지를 약속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아세안 회원국 내부에서 협의한 후 한국과 계속 협의하기로 함.

박동진 외무장관 동남아 순방, 1976.3.9.-23.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6-100 / 11 / 1-195

박동진 외무부장관의 1976.3.9.~23. 동남아 4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순방 관련 자료임.

1. 연설문

- 인도네시아 도착 성명
- 필리핀 도착 성명
-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주최 오찬 시 오찬사
- 필리핀 훈장 수여식 답사
-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연설
- 로물로 필리핀 외상 주최 만찬 시 만찬사
- 말레이시아 도착·출발 성명

2. 아세안 4개국 공식 방문, 유엔 및 비동맹 관계 자료

- 아세안 국가의 대유엔 한국 문제 태도 개괄
- 각국별 대유엔 한국 문제 태도, 전망 및 대책
 - 투표 태도, 제30차 총회 교섭경위, 태도 분석 및 평가, 대한민국 문제 견해 및 전망, 대책
- 비동맹 회의 관계
 - 비동맹에 대한 국가별 태도 및 전망
 - 대아세안 비동맹 3개국에 대한 교섭 및 요청사항
 - 비동맹 정상회의 관계 참고자료
- 참고자료
 - 아주지역 공관장회의 시 대유엔 및 대비동맹 대책 브리핑 자료 등

U Hla Phone 미얀마(구 버마) 외무장관 방한, 1976.10.25.-28.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6-101 / 1 / 1-283

우라폰 미얀마(구 버마) 외무장관은 박동진 외무부장관의 초청으로 1976.10.25.~28. 공식 방한함.

1. 주요 일정

- 박동진 외무부장관 예방 및 만찬
- 서울시장 예방: 행운의 열쇠 증정
- 국립묘지 및 고 육영수여사 묘소 헌화
- 국무총리 예방 및 오찬
- 대통령 예방
- 현대조선, 울산 정유공장 시찰

2. 주요 인사 예방 시 우라폰 미얀마 외무장관 언급 내용

-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이며, 앞으로 상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나라임.
- 미군의 한국 주둔에 관해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유엔 한국 문제 결의안 투표에 미얀마 대표는 결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함.

3. 한국·미얀마 외무장관회담 자료(1976.10.25., 외무부)

- 미얀마 외무장관 약력
- 수행원 명단
- 회담 자료
 - 한·미얀마 관계
 - 한반도 정세
 -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얀마 태도
 - 주요 현안 문제
 - 북한·미얀마 관계

Garcia Vespa, Hernando 볼리비아 외무차관 방한, 1976.8.8.-11.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101 / 2 / 1-41

Hernando Garcia Vespa 볼리비아 외무차관이 1976.8.8.~11. 방한함.

1. 방한 경위

- 주볼리비아 대사대리는 콜롬보 비동맹 회의 참석 후 1976.8.4. 일본을 경유하는 볼리비아 외무차관 부부의 방한 초청을 건의해옴.

2.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 외무부 정무차관보(차관 대리) 예방 및 만찬
- 코트라,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태평양화학 시찰

3. 방한 결과

- 볼리비아의 계속적인 대한민국 정책 지지 표명
- 한·볼리비아 교역, 경제 및 기술협력 증진 필요성과 한국 기술이민의 볼리비아 진출 가능성 논의
- 동 외무차관은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증진을 위한 주한 볼리비아상공주공관 설치 필요성 언급
 - 외무부는 1976.8월 주한 볼리비아상공주공관 유치를 위하여 주일본 볼리비아대사관과 적극 교섭하도록 주일본대사에게 지시함.

Facio, Gonzalo J. 코스타리카 외무장관 방한, 1976.4.6.-10.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101 / 3 / 1-200

Gonzalo Justo Facio 코스타리카 외무장관이 1976.4.6.~10. 방한함.

1. 방한 경위

- 주멕시코대사는 1974.3.30.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기간 중 Gonzalo J. Facio 코스타리카 외무장관에게 김동조 전 외무부장관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함.
 - 동 장관은 이를 수락하였으나 양국 정부 사정으로 방한 시기가 지연되어 옴.
 - 동 장관은 1971.6.1.~5. 방한한 바 있음.

2. 주요 일정

- 국립묘지 및 고 육영수여사 묘소 헌화
- 박동진 외무부장관 예방 및 외무부장관 내외 주최 만찬
- 국무총리 예방 및 국무총리 내외 주최 오찬
- 대통령 예방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방문
- 울산 정유공장, 현대 조선소, 포항제철소 시찰

3. 방문 결과

- Facio 코스타리카 외무장관은 제31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입장을 계속 지지할 것임을 언급
- 한·코스타리카 외무장관 공동발표문 채택(1976.4.10.)
 - 박동진 장관은 유엔에서 한국입장을 계속 지지해준 코스타리카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Facio 외무장관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하여 경의를 표함.
 - 양국 외무장관은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뿐 아니라 남북 간의 화해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의견을 같이함.
 - 양국 외무장관은 한국과 코스타리카 간 우호 협력이 증진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고, 양국 간의 어업협력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에 합의함.

Franck, Antonio 중앙아프리카 외무장관 방한, 1976.8.1.-5.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C-6-101 / 4 / 1-185

Antonio Franck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외무장관이 1976.8.1.~5.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5.7월 박동진 외무부장관 명의 초청장 전달
 - Franck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외무장관은 스리랑카에서 개최되는 비동맹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함.

262

2. 방한 의의

-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1971년 이래 유엔에서 한국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우방국가로서 금후에도 지속적인 지지 확보

3. 주요 일정

- 국립묘지 및 고 육영수여사 묘소 헌화
- 외무부장관 예방 및 외무부장관 내외 주최 만찬
- 국무총리 예방 및 국무총리 내외 주최 오찬
- 방림방적,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제1사단 관측소 전방시찰
- 수원 농촌진흥청 방문

4. 한·중앙아프리카공화국 외무장관 공동성명서 발표(1976.8.5.)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외무장관은 한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지지
 - 유엔 및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계속 지지하는 것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정책임을 재확인

5. 방문 성과 평가

- 비동맹 정상회의 및 유엔총회를 앞둔 시기에 방한함으로써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한국입장 전폭 지지 태도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됨.

Das, Bipinpal 인도 외무차관 방한, 1976.12.19.-22.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6-101 / 6 / 1-167

Bipinpal Das 인도 외무차관이 1976.12.19.~22. 방한함.

1. 방한 경위

- 신임 주인도대사가 1976.9.13. Das 인도 외무차관의 방한 초청을 건의
- 주인도대사는 11.15. Das 차관에게 외무부차관 명의의 초청장 전달
 - 동 차관은 방한에 앞서 북한을 방문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북한 측의 거부로 무산됨에 따라 한국만 방문함.

2.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서울시장 등 예방
- 울산 및 포항 산업시설 시찰 등

3. 2차례에 걸친 외무차관회담 개최 및 주요 협의 내용

- 윤하정 외무부차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경제개발정책을 설명하고 인도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양측은 양국간 경제 및 어업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4. 방한 성과

- 한반도 정세와 한국의 대북한 전략 및 주한미군에 대한 이해 제고
- 한·인도 양국 관계 증진
- 인도 일간지들은 Das 외무차관 방한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보도함.

Ashari, Danudirdjo 인도네시아 외무차관 방한, 1976.5.7.-11.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6-101 / 7 / 1-91

Danudirdjo Ashari 인도네시아 외무차관이 1976.5.7.~11. 방한함.

1. 방한 경위 및 목적

- 외무부는 1975.9.3. 인도네시아 외무차관 등 외무부 인사 3명 초청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초청장을 송부함.
 - 동 방한 초청은 1975년도 가을 유엔총회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및 북한의 인도네시아를 통한 거점 활동 저지를 위한 외교활동의 일환임.
 - 인도네시아 국내 일정 등 이유로 1975년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1976.5월에 이르러서야 성사됨.
 - 인도네시아는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중립 비동맹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 입장 지지

2.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및 외무부 정무차관보와 면담
- 판문점 및 울산 산업시설 시찰 등

3. 면담 주요 내용

- 한반도 문제의 남·북간 대화를 통한 해결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비동맹 회의에서 한국입장 지지를 당부하면서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 불필요성을 설명함.
- 아세안 내에서 인도네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한국을 지원하여 줄 것을 당부함.

Waiyaki, Munyua 케냐 외무장관 방한, 1976.8.21.-24.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 의전1

MF번호 C-6-101 / 8 / 1-141

Munyua Waiyaki 케냐 외무장관이 1976.8.21.~24. 방한함.

1. 방한 경위 및 목적

- 1976.3.26. 주케냐대사관은 Waiyaki 외무장관이 8월 스리랑카 비동맹 정상회의 참석 이후에 한국 방문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7.14. 초청장 발송을 정식 건의함.
 - 동 장관은 한국과의 개인적인 사업관계(자동차 수입, 보석가공 합작투자, 완구 및 자전거 등 합작가능 품목 발굴)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1976.7.20. 외무부는 동 장관을 박동진 외무부장관 명의로 방한 초청함.
 - 유엔총회에 대비한 한국 측 입장 지지 확보 필요

2.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예방
- 산업시설 및 전방 시찰 등

3. 공동성명서 발표(1976.8.24.)

- Waiyaki 장관은 한국 정부의 6·23 선언에 기초한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간 직접 대화를 통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노력을 환영하며 지지를 표명함.

Abdelhakim Housseyni Iraqui 모로코 외무차관 비공식 방한, 1976.2.9.-10.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 통상3

MF번호 C-6-101 / 9 / 1-59

Abdelhakim Housseyni Iraqui 모로코 외무차관이 1976.2.9.~10. 비공식 방한함.

1. 방한 경위

- 한국과 모로코는 경제기술협력협정 및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협정문안 교환을 통한 협의를 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77그룹회의 참석 기회에 Iraqui 모로코 외무차관과 무역청장 등 일행이 한국을 방문하여 추가협의를 할 수 있도록 초청함.

266

2. 방한 주요 내용

- 노신영 외무부차관 예방(1976.2.10.)
 - 새로운 모로코 건설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언급
- 수산청 방문(1976.2.10.)
 - 한국 어선의 출어를 통한 어업협력 합의, 경제 및 무역협정 문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갖고 최종안에 합의함.

Bodan Shields, Harry 니카라과 외무차관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101 / 11 / 1-13

1976년 중 Harry Bodan Shields 니카라과 외무차관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주유엔대표부는 1976.1월 Shields 니카라과 외무차관이 필리핀 개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77그룹회의 참석 기회에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음을 주유엔 니카라과대표부를 통해 전해 왔다고 보고함.
 - 외무부는 관할 공관인 주멕시코대사관과 회의 개최지인 주필리핀대사관에 초청 추진을 통보하고 방한 의사 확인을 지시함.
2. 니카라과 외무부는 주멕시코대사관을 통해 국내 사정으로 Shields 차관의 방한이 불가능함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방한 초청계획이 중단됨.

Montiel Arguello, Alejandro 니카라과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101 / 10 / 1-29

1974~76년 중 Alejandro Montiel Arguello 니카라과 외무장관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관은 1974.2.19. Montiel 니카라과 외무장관 내외가 대만 외교부장 초청으로 4~5월경 타이베이를 방문할 예정이며 동 기회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주대만 니카라과대사대리가 언급하였다고 보고함.
2. 주멕시코대사는 중남미 외무부장관 회의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한 Montiel 외무장관을 면담하여 방한 의사를 타진한 후 초청 추진을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1974.4.22. 김동조 외무부장관 명의의 초청장을 발송함.
3. Montiel 장관은 방한 초청을 원칙적으로 수락은 하나 일정은 추후 결정할 것을 희망해 오에 따라 외무부는 1975~76년에도 동 장관의 방한 초청계획을 계속 추진함.

Qays Abdul Monen Al-zawawi 오만 외상 방한, 1976.9.28.-30.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 의전

MF번호 C-6-101 / 12 / 1-87

Qays Abdul Monen Al-Zawawi 오만 외상이 1976.9.28.~30. 비공식 방한함.

1. 방한 경위

- 외무부는 1976.9.13. Al-Zawawi 오만 외상이 필리핀 개최 IMF(국제통화기금) 총회 참석 기회에 1976.9.28~29.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로부터 접하고, 관할 공관인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에 사실 확인 후 보고하도록 지시함.
- 주사우디대사관은 1976.9.16. 주사우디 오만대사대리가 오만 외상이 IMF 총회 및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가는 도중인 9.28.~30. 비공식 방한을 희망한다고 보고해 옴에 따라 방한 초청이 추진됨.

2. 방한 주요 내용

- 국무총리(1976.9.29.) 및 외무부차관(외무부장관대리)(9.30.) 예방
 -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지지 당부, 어업 등 양국 협력 사업 추진 및 주오만 대사관 개관에 대한 오만 정부의 협력 제공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Kiki, Albert Maori 파푸아뉴기니 외무통상장관 방한, 1976.11.12.-17.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 의전

MF번호 C-6-101 / 13 / 1-306

Albert Maori Kiki 파푸아뉴기니 부수상 겸 외상이 1976.11.12.~17.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6.5.12.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6월 하순 마닐라 개최 아세안 외무장관회담 참석 기회에 Kiki 외상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 한국과 파푸아뉴기니는 5.19. 외교관계 수립 발표
- 1976.5.20. 외무부는 박동진 외무부장관 명의의 공식 초청장을 주인도네시아대사를 통해 파푸아뉴기니 측에 전달
 - 동 외상의 방한은 사전 일정을 이유로 연기됨.
- 1976.8.10. 주인도네시아대사는 파푸아뉴기니에 출장하여 동 외상을 면담하고 방한 문제를 협의함.
 - 동 외상은 북한으로부터도 방문 초청을 받은 관계로 남북한 동시 방문이 불가피함을 설명 하면서 유엔총회 이후인 10월경 북한을 먼저 방문하고 자동차 편으로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남북한 대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북한 측에 제의하겠다고 언급함.
- 1976.8.11. 외무부는 남북한 동시 방문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으나 결국 북한이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는 입장에 따라 먼저 북한 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파푸아뉴기니 측에 제시하도록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지시함.
- 1976.8.27.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는 주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대사를 면담하고 육로를 이용한 판문점 통과를 거부함.
- 1976.11.12.~17. 동 외상은 북한의 거부로 한국만 방문함.

2. 주요 일정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회담, 산업 및 새마을운동 시설 시찰 등

3. 방한 결과

- 외무장관 회담(1976.11.13.)에서는 한반도 정책에 대한 설명과 지지 표명, 상주 대사관과 코트라 설치, 경제협력 등 실질적 협력사업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 공동성명서 발표(1976.11.17.)
 - 아세아태평양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한 양국 정부의 결의 확인
 - 파푸아뉴기니의 보편주의 외교정책 설명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 평화 정착 및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한국 정부 정책 설명
 - 파푸아뉴기니는 지체 없는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한 유엔가입을 희망함.
 - 양국간 통상, 경제협력 체결 가능성 검토 합의
 - 한국 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파푸아뉴기니에서 한국상품전시회 개최를 합의

[Sheikh] Mohammed Ibrahim Masoud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담당국무상 서리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101 / 14 / 1-7

1975~76년 중 Sheikh Mohammed Ibrahim Masoud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담당국무상 서리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1975.1.27. 외무부는 김동조 외무부장관 명의로 Masoud 외무담당국무상 서리의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
2. 1975.3.13.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Masoud 외무담당국무상 서리를 면담하고 방한 초청장을 전달함.
 - 동 외무담당국무상 서리는 방한 초청에 깊은 사의를 전달하고 상부에 허락을 구하겠다고 언급함.
3. 1976.4.26. 외무부는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한국을 방문한 나제르 사우디아라비아 기획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외상은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없어서 한국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언급함.
 - 외무부는 다시 동 외상의 방한 초청을 추진하며 적극 교섭할 것을 동 대사에게 훈령함.

Minah, Francis Misheck 시에라리온 외무장관 방한, 1976.7.11.-15.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 의전1

MF번호 C-6-101 / 15 / 1-354

Francis Misheck Minah 시에라리온 외상이 1976.7.11.~15.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4.4.23.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비동맹 회의 및 유엔총회에서 한국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 외교노력의 일환으로 시에라리온 외상의 방한 초청을 건의해 옴.
- 1974.5.1. 외무부는 동 외상을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하고 주코트디부아르대사에게 추진하도록 지시함.
- 1975.6.18. 주시에라리온대사는 Minah 시에라리온 외상과 면담을 통해 동 외상의 공식 방한 초청을 약속함.
- 1975.6.23. 외무부는 동 외상에 대한 외무부장관 명의로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
- 1975.7.14. 주시에라리온대사는 동 외상을 방문하여 초청장을 전달함.
- 시에라리온 국내외 사정으로 방한 시기 결정이 지연됨.
- 1976년 외무부는 Minah 외상의 방한이 지연되는 동안 외상 방한 초청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으며, 시에라리온의 적극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시에라리온대사관이 건의한 각종 원조사업도 시행함.
- 1976.7월 동 외상은 박동진 외무부장관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하기로 함.

2.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예방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용인 방축소재 새마을 방문 등

3. 공동성명서 발표(1976.7.15.)

- 양국 외무장관은 남북회담의 조속한 재개가 남북한 간 긴장을 제거하고 한국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함.
- Minah 외상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달성하려는 한국의 노력과 주도적 역할 환영
- 시에라리온 정부는 한국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모든 현실적인 조치를 지지할 것임을 약속
- 의료 및 수산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증진에 만족을 표명하고, 농업, 어업, 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 검토



4. 방문 성과 평가

- Minah 외상은 남북한 동시 방문 예정이었으나 한국만 방문
- 한반도 정세 및 한국의 발전상을 효과적으로 소개함에 따라 시에라리온의 한반도에 대한 태도 정립에 기여
- 동년 비동맹 회의 및 유엔총회 등을 통한 시에라리온의 한국입장 지지를 능동적으로 교섭함.

Caglayangil, Ihsan Sabri 터키 외무장관 방한, 1976.6.14.-18. 전2권 (V.1 기본문서집)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서구2

MF번호 C-6-102 / 1 / 1-412

Ihsan Sabri Çağlayangil 터키 외무장관이 1976.6.14.~18.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63.6.28. 주터키대사는 외무부에 보낸 공문에서 터키와의 전통적 우호관계 강화를 위하여 터키 외무장관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 1966.11월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터키를 방문하여 터키 외무장관의 방한을 초청하였으나 터키 측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하고 1975년에 이르러서 다시 초청이 추진됨.
- 1976.6월 Çağlayangil 터키 외무장관은 박동진 외무부장관의 초청으로 방한함.

2.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예방
- 항공운수협정 서명
- 유엔군 묘지 및 산업시설 등 방문

3. 공동성명서 발표(1976.6.18.)

- 양국 외무장관은 양국간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한국의 평화적 통일방안에 대한 터키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함.

Caglayangil, Ihsan Sabri 터키 외무장관 방한, 1976.6.14.-18. 전2권 (V.2 자료집)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서구2

MF번호 C-6-102 / 2 / 1-304

Ihsan Sabri Çağlayangil 터키 외무장관의 1976.6.14.~18. 방한 관련 자료임.

- 연설문
- 공동성명서
- 참고자료
- 신문 기사

Kabore, Alfred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외무장관 방한 계획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C-6-102 / 3 / 1-15

1976년 중 Alfred Kabore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외무장관의 방한을 추진함.

1. 주부르키나파소대사는 1976.2.19. Kabore 외무장관을 신임 인사차 예방하고 박동진 외무부장관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함.
2. Kabore 장관은 공식 초청장을 접수하고 원칙적으로 수락하면서도 구체적 방문 희망일자는 밝히지 않음.

Blanco, Juan Carlos 우루과이 외무장관 방한, 1976.10.30.-11.3.

생산연도 1972-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102 / 4 / 1-268

Juan Carlos Blanco 우루과이 외무장관이 1976.10.30.~11.3.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2.7월 주우루과이대사의 건의에 따라 Blanco 우루과이 외무차관에 대한 방한 초청이 추진되었으며 동 차관이 1972.11월 외무장관으로 취임함에 따라 1973년에는 외무장관 초청 사업으로 변경됨.
- 동 장관은 박동진 외무부장관의 초청으로 1976.10월 방한함.

2.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예방
- 지방 산업시설 및 관광단지 방문 일정

3. 방문 결과

- 양국 외무부장관은 1976.11.3. 양국간 관계증진 약속과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지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에 서명함.
- Blanco 외무장관과 동행한 우루과이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 일행은 한국 재무부장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지고 통상·경제협력 사업에 합의함.

Abdallah Al-Asnag 북예멘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102 / 5 / 1-22

1975~76년 Abdallah Al-Asnag 북예멘 외무장관에 대한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1975.6.5.~8. 특별사절단으로 북예멘을 방문한 김동휘 외무부 경제차관보는 Asnag 북예멘 외무장관 등 북예멘 정부인사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2. 1975.6월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은 Asnag 북예멘 외무장관에 대한 박동진 외무부장관 명의의 공식 초청장을 전달함.
3. 1975.7.16. Asnag 장관은 원칙적으로 방한을 수락하나 구체적 일자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북예멘 관할 공관인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을 통해 알렸음.

김경원 대통령 특별보좌관 미국 및 캐나다 방문, 1976.4.26.-5.8.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6-102 / 7 / 1-20

김경원 대통령 국제정치담당특별보좌관은 1976.4.26.~5.8. 미국 및 캐나다를 방문함.

1. 방문 추진 경위

- 외무부는 1976.3.12. 미국과 가을 유엔총회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통한 입장 차이 해소를 위해 김경원 대통령 특별보좌관의 미국 방문을 추진함.

2. 미국 측 대응

- 미국 국무부 측은 슈나이더 주한 미국대사와 한국 외무부장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함.
- 1976.3.18. 슈나이더 대사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방문하여 대통령 특별보좌관의 미국 방문 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동 특별보좌관의 미국 측 관련 인사 면담이 보류됨.

3. 김경원 특별보좌관은 1976.4.26.~29. 세미나 참석 및 시찰 목적으로 하와이, 워싱턴, 뉴욕 등 미국 도시와 5.4.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함.

대통령 특별보좌관 일본 방문

생산연도 1968-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6-102 / 8 / 1-30

1968~76년 중 대통령 특별보좌관들이 일본을 방문함.

1. 1968년

- 7.19.~24. 김성은 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은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의 방위산업 관련 기업을 시찰함.

2. 1975년

- 6.12.~14. 최규하 외교담당 특별보좌관은 일본 신정경연구회가 주관하는 정계, 재계 및 언론계 인사와의 간담회 참석 및 강연을 위하여 일본을 방문함.
 - 최규하 특별보좌관은 동 연구회 연설에서 극동아시아 정세, 인도차이나 사태 이후의 동북아 안보, 북한 도발을 포함한 한국 정세와 남북한 관계 및 한·일본 간 협력 필요성 등을 언급함.
 - 시이나 자민당 부총재를 면담하고 한·일본 각료회담 개최 등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3. 1976년

- 2.10.~24. 김경원 국제정치담당 특별보좌관이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외무성 간부 및 일본 주재 미국 언론인과의 오찬을 통해 유신체제, 닉슨의 중국 방문, 한미 관계 및 한반도의 현상유지 등에 관하여 질의·응답을 가짐.
- 4.15.~19. 김경원 특별보좌관은 일본 교토 등 지방도시를 방문함.

특별사절단 튀니지·모로코 방문, 1976.3.18.-27.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 국제연합

MF번호 C-6-102 / 6 / 1-195

심흥선 총무처장관은 1976.3.18.~27. 대통령 특사로 튀니지 및 모로코를 방문함.

1. 방문 목적

- 제31차 유엔총회 및 제5차 비동맹 회의 대비책의 일환으로 대통령의 신임장 및 친서를 전달하고 한국 측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요청함.

2. 훈령

- 튀니지 독립 20주년 행사 참석
- 한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확인
- 제31차 유엔총회 한국 문제, 제5차 비동맹 회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 전달
- 북한 침투 저지
- 비동맹 회의에서의 북한 활동 봉쇄 및 한국입장 적극 대변 교섭

3. 주요 활동

- 튀니지(1976.3.18.~23.)
 - 독립 20주년 행사 참석, 부르기바 튀니지 대통령 및 샤티 외무장관 면담
 - 튀니지가 비동맹 회의와 유엔에서 한국입장을 지지해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는 대통령의 친서 전달 및 계속적인 지지 당부
- 모로코(1976.3.24.~27.)
 - 핫산 2세 모로코 국왕, 오스만 총리, 라라키 외무장관 등 면담
 - 서부사하라에서의 알제리 및 폴리사리오의 도전에 대한 모로코 국왕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 및 대통령 친서 전달
 - 1975년 비동맹 회의 및 유엔에서의 한국 지지에 대하여 사의 표명, 1976년 회의에서도 적극적인 지지 당부
 - 한·모로코 어업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 및 무역협정에 대한 모로코 측의 조기 서명 요청

4. 건의사항

- 한·튀니지 간 실질협력 증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므로 튀니지가 수산 및 방직류 분야 등에서 한국 측과 경제협력을 희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선 튀니지산 올리브유와 인광석을 소량이나마 수입할 필요성을 건의함.

윤석헌 특사(주프랑스대사) 아프리카 순방, 1976.7.18.-8.14.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 국제연합

MF번호 C-6-102 / 9 / 1-280

윤석헌 주프랑스대사는 1976.7.18.~8.14. 대통령 특사로 서부아프리카 6개 국가(니제르,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코트디부아르, 차드,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카메룬)를 순방함.

1. 순방 경위 및 목적

-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관련 서방 측과 공산 측이 제출한 서로 상반되는 2개의 결의안이 모두 채택되면서 유엔에서의 남북한 외교대결이 매우 치열해짐. 이에 따라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간 해결과 평화적 해결 원칙을 내세워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외교전을 전개하기로 함.
- 스리랑카 비동맹 정상회의 및 제31차 유엔총회에서 한국 측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함.

2. 훈령

- 방문 대상 국가들의 과거 한반도 관련 유엔 및 비동맹 회의에서의 투표 및 발언 등 태도를 바탕으로 적극적 지지, 중립적 입장 등 각 국가에 맞는 교섭 방침을 정하고 교섭하도록 함.
- 이들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무장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방한 초청 및 필요할 경우 동 국가들에 긴요한 원조 가능성을 제시

3. 주요 활동

- 박정희 대통령 친서 전달, 주요 인사 면담, 한국 측 입장 설명을 통하여 지지 당부, 양국간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에 관한 의견 교환

4. 순방 결과

- 방문 국가 대부분은 구체적인 언질이나 약속을 하지 않은 채 관망하는 자세를 견지함.
- 순방 국가들의 한국 문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정치노선, 원조제공의 다과,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차별 문제를 포함한 미국·소련 세력 경쟁의 귀추, OAU(아프리카단결기구) 및 비동맹 회의 등에서 알제리와 같은 과격국가들의 주도권 장악 여부
- 건의
 - 중립적 국가 중에서 부동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선별, 집중 노력해야 함.
 - 소액이더라도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한국 측 입장 지지 확보에 가장 유효한 방법이므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특별사절단 아프리카지역 순방, 1976.7.21.-31.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6-102 / 10 / 1-223

노신영 주제네바대사는 1976.7.21.~31. 대통령 특사로 남부아프리카 3개국(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말라위)을 순방함.

1. 순방 경위 및 목적

-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관련 서방 측과 공산 측이 제출한 서로 상반되는 2개의 결의안이 모두 채택되면서 유엔에서의 남북한 외교대결이 매우 치열해짐. 이에 따라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간 해결과 평화적 해결 원칙을 내세워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외교전을 전개하기로 함.
- 스리랑카 비동맹 정상회의 및 제31차 유엔총회에서 한국 측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함.

2. 훈령

- 방문 대상 국가들의 과거 한반도 관련 유엔 및 비동맹 회의에서의 투표 및 발언 등 태도를 바탕으로 적극적 지지, 중립적 입장 등 각 국가에 맞는 교섭 방침을 정하고 교섭하도록 함.
- 이들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무장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방한 초청 및 필요할 경우 동 국가들에 긴요한 원조 가능성을 제시

3. 방문 일정

- 보트와나(7.21.~24.), 스와질랜드(7.26.~27), 말라위(7.28.~31.)

4. 주요 활동

- 박정희 대통령 친서 전달, 주요 인사 면담, 한국 측 입장 설명을 통하여 지지 당부, 양국간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에 관한 의견 교환

5. 순방 결과

- 스와질랜드와 말라위에서는 한국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확보함.
- 보츠와나 대통령은 평양 방문 예정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환영하며 제3자의 개입이 없는 한국인 스스로의 대화를 환영한다고 언급함.

윤하정 특사 서남아 순방계획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6-102 / 12 / 1-102

정부는 1976년 중 윤하정 외무부차관을 대통령 특사로 서남아시아 지역에 파견하고자 했으나, 8.18. 북한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취소됨.

1. 1976.6월 한국 정부는 스리랑카 비동맹 정상회의 및 제31차 유엔총회에서 한국 측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윤하정 외무부차관을 미얀마(구 버마), 인도, 스리랑카 및 파키스탄에 파견하기로 함.
2. 1976.7월 미얀마와 파키스탄은 특사 접수에 동의하였으나, 인도가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특사 자격이 아닌 외무부차관 자격으로 방문을 추진하기로 함.
3. 1976.8.18. 판문점에서 북한군의 미군에 대한 도끼만행 사건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윤하정 외무부차관의 서남아 순방은 무기 연기됨.

이동원 특사(전 외무장관) 중동 순방, 1976.7.17.-8.1.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102 / 11 / 1-320

이동원 전 외무부장관은 1976.7.17.~8.1. 대통령 특사로 중동 5개국(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카타르)을 순방함.

1. 순방 경위 및 목적

-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관련 서방 측과 공산 측이 제출한 서로 상반되는 2개의 결의안이 모두 채택되면서 유엔에서의 남북한 외교대결이 매우 치열해짐. 이에 따라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간 해결과 평화적 해결 원칙을 내세워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외교전을 전개하기로 함.
- 스리랑카 비동맹 정상회의 및 제31차 유엔총회에서 한국 측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함.

2. 훈령

- 방문 대상 국가들의 과거 한반도 관련 유엔 및 비동맹 회의에서의 투표 및 발언 등 태도를 바탕으로 적극적 지지, 중립적 입장 등 각 국가에 맞는 교섭 방침을 정하고 교섭하도록 함.
- 이들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무장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방한 초청 및 필요할 경우 동 국가들에 긴요한 원조 가능성을 제시

3. 방문 일정

- 쿠웨이트(7.17.~20.), 바레인(7.20.~23.), 오만(7.23.~26.), 아랍에미리트연합국(7.26.~29.), 카타르(7.29.~8.1.)

4. 주요 활동

- 박정희 대통령 친서 전달, 주요 인사 면담, 한국 측 입장 설명을 통하여 지지 당부, 양국간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에 관한 의견 교환

5. 순방 결과

- 한국과 단독수교 관계를 맺고 있는 오만과 바레인은 한국에 대한 이해와 지지 표명
- 여타 방문국가들은 가급적 분쟁관계에 있는 국제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임.
- 건의
 - 순방 국가들이 경제개발 과정에서 건설협력이 절실하므로 한국 건설사들의 적극 진출을 바탕으로 점차 정치적인 이해 증진을 도모할 것을 건의함.

6. 참고 사항

- 카타르는 국왕 등이 해외여행 중이어서 1976.8월 이후 재방문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재방문을 추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음.

특별사절단 중남미 순방, 1976.7.16.-8.5.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 국제연합

MF번호 C-6-102 / 13 / 1-186

김동조 대통령 외교담당특별보좌관은 1976.7.16.~8.5. 대통령 특사로 중남미지역 4개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순방함.

1. 순방 경위 및 목적

-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관련 서방 측과 공산 측이 제출한 서로 상반되는 2개의 결의안이 모두 채택되면서 유엔에서의 남북한 외교대결이 매우 치열해짐. 이에 따라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간 해결과 평화적 해결 원칙을 내세워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외교전을 전개하기로 함.
- 스리랑카 비동맹 정상회의 및 제31차 유엔총회에서 한국 측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함.

2. 훈령

- 방문 대상 국가들의 과거 한반도 관련 유엔 및 비동맹 회의에서의 투표 및 발언 등 태도를 바탕으로 적극적 지지, 중립적 입장 등 각 국가에 맞는 교섭 방침을 정하고 교섭하도록 함.
- 이들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무장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방한 초청 및 필요할 경우 동 국가들에 긴요한 원조 가능성을 제시

3. 방문 일정

- 엘살바도르(7.19.~21.), 온두라스(7.22.~24.), 아르헨티나(7.25.~27.), 브라질(7.27.~29.)

4. 주요 활동

- 박정희 대통령 친서 전달, 주요 인사 면담, 한국 측 입장 설명을 통하여 지지 당부, 양국간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에 관한 의견 교환

5. 순방 결과

- 방문 국가 4개국의 한국에 대한 지지를 확인함.
- 북한의 침투 노력을 경계해야 함.
- 남미에서 유일하게 북한과 수교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에 우익 군부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아르헨티나가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안과 북한안에 대하여 기권하였던 정책을 수정, 한국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함.

특별사절단 중남미 순방, 1976.8.31.-9.23.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103 / 1 / 1-420

김동조 대통령 외교담당특별보좌관은 1976.8.31.~9.23. 대통령 특사로 중남미 지역 4개국(멕시코, 페루, 에콰도르, 파나마)을 순방함.

1. 순방 경위 및 목적

-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는 한반도 관련 서방 측과 공산 측이 제출한 서로 상반되는 2개의 결의안이 모두 채택되면서 유엔에서의 남북한 외교대결이 매우 치열해짐. 이에 따라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간 해결과 평화적 해결 원칙을 내세워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외교전을 전개하기로 함.
- 스리랑카 비동맹 정상회의 및 제31차 유엔총회에서 한국 측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함.

2. 훈령

- 방문 대상 국가들의 과거 한반도 관련 유엔 및 비동맹 회의에서의 투표 및 발언 등 태도를 바탕으로 적극적 지지, 중립적 입장 등 각 국가에 맞는 교섭 방침을 정하고 교섭하도록 함.
- 이들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무장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방한 초청 및 긴요한 경제협력 강화방안 고려

3. 주요 활동

- 박정희 대통령 친서 전달, 주요 인사 면담, 한국 측 입장 설명을 통하여 지지 당부, 양국간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에 관한 의견 교환

4. 순방 결과

- 멕시코 개최 경제사회연구센터 개관식(9.14.) 참석을 통해 한국이 제3세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
- 에콰도르의 적극적인 지지 재확인, 페루의 우호적 입장 감지
-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운하를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바,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임.
- 중남미지역에 대해서는 북한의 집요한 침투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한 대응책이 필요

5. 참고 사항

- 멕시코 정부는 1976.9.14. 개최되는 제3세계 경제사회연구센터 개관식에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하였는바(77그룹 소속 100여개 국가 원수를 초청), 김동조 특사가 대통령을 대신하여 참석함.

김경원 특사(대통령 국제정치담당특별보좌관) 북구 순방, 1976.9.5.-22.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C-6-103 / 2 / 1-298

김경원 대통령 국제정치담당특별보좌관은 1976.9.5.~22. 대통령 특사로 북구지역 5개국(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을 순방함.

1. 순방 경위 및 목적

-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관련 서방 측과 공산 측이 제출한 서로 상반되는 2개의 결의안이 모두 채택되면서 유엔에서의 남북한 외교대결이 매우 치열해짐. 이에 따라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간 해결과 평화적 해결 원칙을 내세워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외교전을 전개하기로 함.
- 스리랑카 비동맹 정상회의 및 제31차 유엔총회에서 한국 측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Nordic Council 회원국인 북구 지역 4개국에 동 특사를 파견함.

2. 훈령

- 방문 대상 국가들의 과거 한반도 관련 유엔 및 비동맹 회의에서의 투표 및 발언 등 태도를 바탕으로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내지 지지, 공산 측 결의안 반대 또는 기권 등 각 국가에 맞는 교섭 방침을 정하고 교섭하도록 함.
- 이들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무장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방한 초청 및 실질적인 관계 강화방안 검토

3. 방문 일정

- 노르웨이(9.5.~8.), 스웨덴(9.8.~11), 덴마크(9.11.~15.), 아이슬란드(9.15.~18.), 핀란드(9.19.~22.)

4. 주요 활동

- 박정희 대통령 친서 전달, 주요 인사 면담,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 지양,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간 평화적 해결 등 한국 측 입장 설명을 통하여 지지 당부, 통상 등 양국간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에 관한 의견 교환

5. 순방 결과

- 핀란드를 제외한 4개국은 한국의 기본입장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면서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에 대하여 부정적 반응을 보임.
- 북구지역 5개국은 중립주의적 정책을 추구하므로 유엔에서 절충안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북한의 태도로 보아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
- 동 국가들이 제30차 유엔총회에서와 같이 차기 유엔총회에서도 한국 문제에 대하여 동일하게 투표할 것으로 예측
- 친서방적인 덴마크와 아이슬란드는 공동제안국 참여 요청에 대하여 소극적인 반응
- 동 국가들이 한국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은 통상, 고아입양 및 유엔 문제인 것으로 분석

Berrah, Ghoulem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특별보좌관 방한, 1976.11.3.-8.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C-6-103 / 3 / 1-58

Ghoulem Berrah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1976.11.3.~8. 방한함.

1. 1976.7.21.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4년부터 방한 초청 상태에 있는 Berrah 보좌관의 방한 초청을 재추진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동인의 방한이 성사됨.
2. Berrah 특별보좌관은 1976.11.3.~8. 방한하여 외무부장관 및 차관 면담, 울산 산업시설,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을 방문함.

Dey Ould Sidi Baba 모로코 특사(종교장관) 방한, 1976.5.19.-24.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103 / 4 / 1-80

Dey Ould Sidi Baba 모로코 국왕 특사(종교장관)는 1976.5.19.~24. 방한함.

1. Hassan 2세 모로코 국왕은 1976.5.21.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국이슬람교 중앙성원 준공식에 D.O.S. Baba 종교장관을 국왕 특사로 파견하고, 동인의 방한 기간 중에 양국 현안인 무역협정과 경제기술협력협정의 서명을 추진함.
2. Baba 특사는 Hassan 2세 국왕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와 이슬람교회를 위한 기부금 10만 달러를 지참하고 방한함.

290

3. 주요 활동

- 한국이슬람교 중앙성원 준공식 참석
- 박정희 대통령 예방 및 국왕 친서 전달
- 외무부장관과 무역협정 및 경제·기술협력협정에 서명

B. Mohamed Idris 수단 특사(무임소장관) 방한, 1976.2.24.-27.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103 / 5 / 1-114

B. Mohamed Idris 수단 무임소장관은 1976.2.24.~27. 특사로 방한함.

1. 방한 경위

- 정부는 1976.2.7. 국무총리 주재하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수단에 한국통상대표부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Idris 수단 무임소장관을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함.
- 외교관계가 없는 수단 정부인사에 대한 초청을 외무부에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중앙정보부가 Khashoggi 사우디아라비아 Triad사(社) 사장과의 공작활동을 통하여 추진하기로 함.
 - Khashoggi 사장은 1975.11월 한국을 방문하여 중앙정보부장에게 수단과의 수교에 적극 지원을 약속한바 있음.
-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소속 중앙정보부 이상열 공사가 Khashoggi 사장과 동행하여 수단을 두 차례 방문함.
- Idris 무임소장관은 중앙정보부장의 초청으로 동 사장을 동행하여 방한함.

2.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예방
- 산업시설 방문 등

3. 방한 결과

- Idris 장관은 양국간 관계개선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수단에 총영사관 또는 통상대표부 설치에 합의하는 한편, 수단산 원사를 연간 40만 장 수입, 도로개발사업용 장기저리차관 제공 등 요구 사항 제시
- 외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합의의사록에 서명(1976.2.27.)
 - 양국간 영사관계 수립 및 협력 문제의 구체적 토의를 위하여 한국 경제사절단의 조속한 수단 방문을 추진하기로 함.

ENGULU Baangampongo Bokokele Lokanga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특사(정치담당장관) 방한, 1976.2.22.-26.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C-6-103 / 6 / 1-166

Engulu Baangampongo Bokokele Lokanga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정치담당장관은
1976.2.22.~26. 대통령 특사로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6.2.19.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은 외무부 서부아프리카과장에게 주콩고민주공화국 미국 대사관로부터 접수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콩고민주공화국 정치담당장관이 중국(구 중공)과 일본을 방문한 후에 Mobutu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특사로 방한할 예정임을 알려줌.
-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이 주재국 외무부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동인의 방한은 외무부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2.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면담

3. 주요 면담 내용

- 앙골라 내전에 소련 및 쿠바군이 개입하여 앙골라가 공산화됨에 따라 앙골라와 2,6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은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었음을 설명하면서 원조(전투차량 등 군사원조, 의약품 등 의료지원, 상업차관)를 요청함.
- 정부는 우선 인도적 차원에서 의약품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7월 스리랑카 개최 비동맹 회의에서 한국입장 지원을 요청함.

정일권 국회의장 이란 및 쿠웨이트 방문, 1976.1.28.-2.3.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103 / 7 / 1-215

정일권 국회의장은 1976.1.28.~2.3. 이란 및 쿠웨이트를 공식 방문함.

1. 이란(1976.1.28.~31.)

- 정일권 국회의장은 이란 국왕, 총리, 이란석유공사 총재, 외무장관대리, 이란 국회 상·하원의장 등 주요 인사를 예방함.
- 유엔에서의 한국 지지, 경제 협력, 국제안보 문제, 중국 등 공산권과의 관계개선 문제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2. 쿠웨이트(1976.1.31.~2.3.)

- 정일권 국회의장은 쿠웨이트 국왕 및 총리, 국회의장 등을 예방하고, 대학 방문, 국제전신전화센터 방문, 국회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함.
- 쿠웨이트 국왕 예방 시 주요 내용
 - 동 국회의장이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을 강력하게 요청한 데 대해, 동 국왕은 남·북한 간 관계 악화 우려를 이유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이해를 구함으로써 등거리외교 입장을 분명히 함.
 - 쿠웨이트 측은 한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증진을 강력하게 희망하면서 한국 건설업체의 진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임.

국회의원 미국 방문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6-103 / 8 / 1-25

1976년 중 한국 국회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함.

1. 의원별 방문 기간

- 이범준 의원(1.13.~21.)
- 문태준 의원(1.19.~23.)
- 김상년, 송원영, 김택하, 노진환 의원(1.23.~31.)
- 고흥문 의원(1.30.)

294

2. 방문 결과

- 1976.1.29. 포드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하여 상·하원 의원 면담 등을 통해 미국 의회에서 추진되는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삭감, 미군철수 등과 같은 한국 관련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 제고에 노력함.
- 노진환 의원은 조찬기도회에서 키신저 미 국무장관과 한국 문제에 관한 의견교환을 함.
- 1.30. Mark O. Hatfield 상원의원과의 면담에서 동 의원은 5월 중 Oregon 주경제사절단을 인솔하고 방한할 수 있을 것을 희망함.

국회 한국전쟁 참전의원단 미국 방문, 1976.5.22.-6.3.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

MF번호 C-6-103 / 9 / 1-146

최영희 국회 외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전쟁 참전 국회의원단이 Albert 미국 하원의장 초청으로 1976.5.22.~6.3. 미국을 방문함.

1. 주요 일정

- 5.24. J. Murphy 의원 방문, 하원의장대리 주최 오찬, 하원 본회의 참석
- 5.25. 조지워싱턴대학교 중소문제연구소 세미나, Murphy 의원 주최 리셉션
- 5.26. 조지워싱턴대학교 전략국제연구소 세미나
- 5.27. R. Morgan 상원의원 주최 오찬, 미국 재향군인회 방문
- 5.31. 현충일 기념식 행사참석, 무명용사 헌화식
- 6.1. Habib 국무부 차관 회담
- 6.2. Albert 하원의장 방문, 최영희 단장 주최 리셉션

2. 방문 결과

- Murphy 의원 발언 주요 내용(5.24.)
 - 한국 중앙정보부에 대한 일부 의원과 언론의 비판은 미국 CIA(중앙정보국)에 대한 비판론과 정치적 동기에서 동일
 - 국군 현대화지원은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장차 미군철수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한 것
 - 철군을 주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반대하는 프레이저 의원의 입장은 모순됨.
- 미국 하원 본회의 참석(5.24.)
 - 한국 지지 의원 발언 경청 및 격려
- 조지워싱턴대학교 세미나(5.25.~26.)
 - 미국 교수단은 자진하여 한국 안보 문제에 대한 적극적 이해를 표시하고, 한국 국내 문제에 대한 언급은 회피
 - 의원단은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진영의 안전을 위해 한·미국 방위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미국 측의 공감 도출
- 군수산업 시찰
 - 방문단 일부는 공식일정 종료 후, 미국 서부 군수산업 시찰 및 한국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료수집
- 미국 언론보도(6.3.)
 - Habib 국무부 차관과의 회담 및 Albert 하원의장 방문을 통해 한·미국 양국간 우호관계 재확인
 - 한국전쟁 참전 국회의원단은 다수의 미국 하원의원 및 학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한국 정세에 대한 이해 제고에 노력

정일권 국회의장 동남아 순방, 1976.6.21.-7.1.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6-103 / 10 / 1-222

정일권 국회의장이 1976.6.21.~7.1. 동남아 3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을 공식 방문함.

1. 태국(1976.6.21.~25.)

- 주요 일정
 - 국회의장 방문, 수상 예방 및 외상 면담, 국회 방청 등
- 방문 결과
 - 태국 국회의장 및 수상 등 주요인사 면담 시, 한반도 정세, 한국의 남북대화 촉구 및 평화적 통일방안 설명과 이해 획득
 - 태국 국회의장 면담 시, 한·태국 의원친선협회 구성 합의
 - 세니 태국 수상은 미군의 한국 주둔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

2. 말레이시아(1976.6.25.~26.)

- 주요 일정
 - 상·하원의장 예방, 수상 예방
- 방문 결과
 - 후세인 온 수상 예방 시, 한국 측은 북한의 침략야욕, 남북회담 중단현황 및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을 설명
 - 동 수상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안보 면에서의 성과를 이해, 1977년 방한을 고려하는 것으로 관찰
 - 방문 기간 중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해 한·말레이시아 양국간 우호친선관계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3. 인도네시아(1976.6.27.~7.1.)

-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방상, 외상 등 주요인사 예방
 - 무역박람회 한국관 시찰, 영웅묘지 헌화 등
- 방문 결과
 - 한국의 평화적 통일정책 및 남북대화와 비정치적 교류증진 방침에 대한 이해 제고
 - 한국의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역개발에 감명과 관심 표명
 - 한·인도네시아 의원협회 구성을 위한 인도네시아 의원단 1976.9월 방한 합의
 - 할리드 인도네시아 국회의장 방한 합의

Sullivan, John 호주 하원의원 방한, 1976.4.9.-14.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6-103 / 11 / 1-11

John Sullivan 호주 하원의원은 1976.4.9.~14. 국제관광공사 초청으로 방한함.

1. 방한 목적

- 한국전 참전용사의 한국 재방문 프로그램(Revisit Program)에 의한 초청

2. 주요 일정

- 한국관광공사 사장, 재향군인회장, 국회 외무위원장 예방
- 국립묘지 참배, 판문점 시찰 및 가평 전적지 방문

3. 방한 결과

- Sullivan 의원은 방한 이후 1976.5.18. 호주 하원에서 현재 한국 현대건설이 국제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호주 조선계획에 관한 대정부 질의 관련, 한국에 발주할 것을 권유하는 발언 시행

De Vlies, Paul 벨기에·한 의원친선협회장 방한, 1976.7.14.-20.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2007-19 / 17 / 1-65

Paul De Vlies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벨기에·한국 의원친선협회의원단이 1976.7.14.~20. 방한함.

1. 방한 경위

- 주벨기에대사는 1976.4.14. 한·벨기에 의원친선협회 결성을 계기로 한·벨기에 및 양국 의원 간 친선증진을 위해 벨기에·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원 및 사무장의 방한 초청을 건의

2. 주요 일정

- 국회의장 예방, 국무총리·경제기획원장관·국방부장관·외무부장관 예방, 국회부의장 주최 만찬, 6·25 참전 친목회장 주최 만찬
- 코트라 전시장 관람, 유엔기념묘지 및 벨기에 참전 기념비 헌화
- 판문점 및 산업시찰 등

3. 국방부장관 면담 시 주요 언급 내용(1976.7.19.)

- 한반도 정세
 -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북한이 중국·소련과 쌍무 군사동맹을 맺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국방과 경제건설 2개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 벨기에 의원들은 한반도 특수정세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고 양국은 유사시 국방 면에서 도움 수 있기를 희망
- 미군의 해외주둔 필요성
 - De Vlies 의원은 35만 명의 미군이 유럽의 평화조성 시까지 주둔하기를 희망하며, 벨기에는 대서양에서의 소련 해군력 증강에 대해 우려를 표명
 - 국방부장관은 미군의 아시아 주둔은 아시아와 미국 자체의 평화, 힘의 균형 유지에 중요하므로 철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 그러나 북한 단독 남침 시 이를 저지할 실력배양에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방위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언급

4. 국방부 평가

- 동 의원이 관심을 보인 문제는 한국의 자주국방 노력, 미군의 아시아주둔 필요성, 데탕트에 대한 경계 필요성 등
- 판문점을 비롯한 주요시설 방문을 통해 북한의 재침(再侵) 가능성과 이에 대처한 총력안보 태세 및 발전하는 한국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은 것으로 평가

브라질 국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103 / 12 / 1-22

1976년 중 브라질 국회의원의 방한 추진 및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V. Borja 브라질 하원의장 방한 추진 계획

- 주브라질대사는 1976.5.28. V. Borja 브라질 하원의장의 방한 초청을 건의
 - Borja 의장은 한국 국회가 방한 초청하는 경우, 동년 중 방한 의사를 표명
 - 동 의장을 국회에서 방한 초청하여 친한 인사 확보 및 한·브라질 의원연맹 결성촉진 등 효과 기대
- 외무부는 5.31. 국회에 동 하원의장의 방한 초청이 실현되도록 요청
- 국회는 6.5. 외무부에 하원의장을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신
 - 1976.9월 IPU(국제의원연맹) 회의 참석을 전후한 편리한 시기 방한
- Borja 의장은 7.1. 주브라질대사를 통해 아래의 사유로 방한 연기 시사
 - 최근 당의 결정에 의해 11월 지방선거 유세에 임하게 되어 9월 IPU 총회에만 참석하게 되었으며, 동년 말 이후 방한 희망

2. A. Ueno 브라질 하원 외교분과위원 방한

- 주한 브라질대사관은 1976.5.25. A. Ueno 브라질 하원 외교분과위원이 1976.5.28.~30. 방한한다고 외무부에 공한 발송
- 주브라질대사관은 5.31. 외무부에 추가서한을 발송, 동 의원이 가까운 장래에 여타 의원과 동행하여 극동 방문 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언급
 - 한국 의원들의 브라질 방문 초청

콜롬비아 하원의장단 방한, 1976.6.8.-11.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103 / 13 / 1-181

Luis Emilio Monsalve 콜롬비아 하원부의장 일행이 정일권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1976.6.8.~11. 방한함.

1. 주요 일정

- 대통령,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외무부차관 예방
- 콜롬비아 참전기념비 헌화
- 국회의장 주최 만찬
- 국립묘지 참배, 판문점 및 산업시찰, 경주관광
- 대통령으로부터 수교훈장 흥인장 전수(콜롬비아 하원 제1, 2 부의장)

2. 주요 인사 면담 요지

- 국회의장 면담(6.8.)
 - 한국 측: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 사실 상기, 동 방한 기회에 한국의 발전상 시찰 희망
 - 콜롬비아 측: 양국의 혈맹관계 재확인과 양국간 교류증진을 위한 노력 다짐
- 외무부차관 면담(6.8.)
 - 한국 측: 콜롬비아와의 혈맹관계 상기, 국제사회에서의 지지에 대해 사의 표명, 방문기간 중 한국 사정 관찰, 양국간 유대강화 및 통상·문화관계 증진 희망, 한국의 남북한 평화정착 노력 등 설명
 - 콜롬비아 측: 한국과의 혈맹관계 강조, 한국이 역경을 물리치고 자유를 수호하며, 국가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 서울 상주 콜롬비아대사관 설치 희망
- 국방부장관 면담(6.10.)
 - 한국 측: 금번 방한으로 양국간 유대관계가 한층 긴밀해 질 것을 기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노력 설명
 - 콜롬비아 측: 민주주의와 자유이념 수호를 위해 한국과 함께 할 용의 표명

프랑스 국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C-6-103 / 16 / 1-85

1976년 중 프랑스 국회의원의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C. Roux 프랑스 하원의원 등 4명(1976.3.21.~22.)

- 주프랑스대사는 동인들이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 회원들로서 방한기간 중 현대 희망

2. P. Baudis 프랑스 하원의원 겸 Toulouse 시장(1976.4.25.~5.3.)

- 주요 일정
 - 국회의장, 국무총리, 서울시장 예방
 - 국립묘지 참배, 프랑스 참전기념비 헌화, 경주관광 및 산업시찰
- 국무총리 면담(4.26.)
 - 한국 측: 항공기 직항로 개설을 통한 양국관계 증진 희망,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프랑스 등 자유우방 국가의 지원과 협조에 의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사의 표명, 한국의 경제부흥과 새마을운동 등 농촌부흥운동 소개
 - 프랑스 측: 유럽의 정치 및 경제정세 설명,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관계증진 희망, 총리의 프랑스 방문 초청

3. A. Gissinger 프랑스 하원 문화사회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등(1976.8.31.~9.7.)

- 방한 목적
 - 한·프랑스 간 교육, 문화, 공보, 보건사회 등 전반 분야 협력현황 파악 및 향후 한국과의 협력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수집
- 주요 일정
 - 국회의장, 국회 문화공보 및 보건사회위원장, 국무총리, 문교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외무부차관 예방
 - 국립묘지 참배,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및 산업시찰,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 판문점 시찰 등
- 국무총리 예방(9.6.)
 - 한국 측: 양국간 전통적 우호관계 증진에 만족 표명, 협력관계 증진 희망, 프랑스의 6.25. 참전 및 자유 수호를 위한 프랑스 국민의 혁명정신 칭송, R. Barre 총리 취임 축하 및 다수 프랑스 의회 지도자의 한국 방문 희망
 - 프랑스 측: 동 방한이 한국이 역경을 딛고 국가건설과 국민 복지향상에 매진하는 실상을 파악하는 소중한 기회였음을 언급, 한국의 조속한 통일 희망, 프랑스에 온 한국유학생에 대한 제반 편의제공 약속
- 외무부차관 면담(9.6.)
 - 한국 측: 한반도 최근정세 및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설명
 - 프랑스 측: 한국 측 입장 이해와 함께 가능한 지원과 협조 용의 표명

Gondjout, Paul 가봉 국회의장 방한, 1976.7.11.-16.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C-6-103 / 14 / 1-40

1976.7.11.~16. 방한한 P. Gondjout 가봉 국회의장 등에 관한 서훈 추천 및 감사서한 관련 내용임.

1. 국회사무처는 1976.6.29. 외무부에 7월 방한 예정인 P. Gondjout 가봉 국회의장과 M. Jean-Felix 한·가봉 의원친선협회장에 대한 서훈 추천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함.

● 추천 훈격

- P. Gondjout 국회의장: 수교훈장 광화장
- M. Jean-Felix 한·가봉 의원친선협회장: 수교훈장 흥인장

● Gondjout 국회의장 추천 사유

- 동 국회의장은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직을 2회 역임하고 있는 가봉의 정치적 비중이 매우 큰 인사로서, 대법원장 재직 시 친한국 태도로 주가봉대사관 활동에 적극적 지원을 제공하여 한국의 입장 강화에 크게 기여
- 국회의장으로서 1975.9월 IPU(국제의회연맹) 총회 및 이사회 시 가봉 대표단장으로 참석, 한국대표단의 제반 활동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한국의 소기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

● Jean-Felix 의원 추천 사유

- Jean-Felix 의원은 현재 한·가봉 의원친선협회장으로서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과 양국 국회간의 협력 및 친선도모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제공
- 동 의원은 가봉 국회 내에서 정치적 비중이 큰 인사로서 평소 주가봉대사관 활동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가봉 내에서 한국의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

2. 외무부는 1976.7.2. 국회사무처에 상기 서훈 추천에 이의가 없다고 회신함.

3. 주가봉대사는 1976.8.28. 가봉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통해 Gondjout 국회의장이 박정희 대통령, 정일권 국회의장, 서울시장 앞 감사서한을 직접 발송했음을 알려왔다고 보고함.

독일 국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C-6-103 / 15 / 1-30

1976년 중 독일 국회의원의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H. Schmitt-Vockenhausen 독일 하원 부의장(1976.7.19.~20.)

- 주독일대사는 1976.7.5. Schmitt-Vockenhausen 독일 하원 부의장이 10월 독일 총선거로 인해 방한을 연기한 바 있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7.19.~20. 방한 예정임을 보고함.
 - 동인은 독일 여당인 사민당의 중진 친한인사로서 비공식 방한이기는 하나 정치적 비중에 비추어 각별한 예우 희망
-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서울특별시장 예방
 - 국회의장 주최 만찬

2. K. Schweitzer 독일하원 외교분과위원(1976.7.29.~30.)

- 주독일대사는 1976.6.16. Schweitzer 독일하원 외교분과위원이 1975년 신도성 전 국토통일원 장관의 방독 시 방한 초청을 받은 바 있으며 동년 국동국가 방문의 일환으로 7.29.~30. 방한 의향을 표명하였음을 보고함.
 - 동인의 정치적 비중을 고려 방한이 실현되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
- 국토통일원은 1976.6.29. 외무부에 동 위원 방한 협조를 요청함.
 - 초청 목적: 분단국 업무협조 및 구주지역에 대한 한국 통일정책의 정당성 인식제고
- 주요 일정
 - 국토통일원장관, 국회 외무분과위원장 예방
 - 판문점 시찰 등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6-103 / 17 / 1-86

1976년 중 인도네시아 국회의원의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K. Idham Chalid 인도네시아 국회의장(1976.8.28.~31.)

●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수교훈장 광화장 전수)
- 국회의장, 국무총리 예방, 국회의장 주최 만찬
- 국립묘지 참배, 한국 이슬람교 중앙성원 방문, 산업시찰 등

● 방한 결과 언급 내용

- 북한의 도발과 전쟁위험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상태 하에서도 국민의 단결을 통해 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에 깊은 인상
- 한국의 안보는 동남아 공산주의 팽창 저지에 노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안보와 직결되므로 향후 양국간 모든 면에서의 유대 공고화 필요
- 급격한 수출신장을 배경으로 한 경제발전과 새마을운동 등을 통한 농어촌 소득증대의 성공적 성과에 크게 감명
- 박정희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환대에 사의 표명

● 귀국 후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는 외국군 주둔에 반대하나 한 나라가 스스로의 방위를 위해 타국과 쌍무협정을 체결할 권리는 인정되어야 할 것임.
- 유엔군이 한국으로부터 철수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
- 한국 국회의장과 양국 의회 간의 협력기구 설립에 관해 합의 도달

2. M. Isnaeni 인도네시아 국회부의장(1976.10.24.~29.)

● 주요 일정

- 국회의장,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예방, 국회의장 주최 만찬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예방, 판문점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시찰, 산업시찰, 경주관광 등

일본 사회당 대표단 방한 문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6-103 / 18 / 1-233

외무부는 1975~76년 중 일본 사회당 대표단의 방한 문제에 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동향 및 대책을 수립함.

1. 방한 관련 사회당 주요 동정

- 가와사키 사회당 국제국장이 1975.12.18. 기자회견에서 사회당 대표단의 방한 의사 표명
- 1976.1.15. 산케이신문 보도에 의하면, 에다 사회당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사회당 대표단의 방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1976.1.20. 스기야마 사회당 국제부국장이 주일본대사관에 관광목적의 비자발급을 신청

2. 일본 외무성 및 자민당 견해

- 일본 외무성 외상 등은 사회당의 방한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한·일본 양국 정부에 유리하고 바람직하므로 방한 실현을 희망
- 자민당 중진들은 사회당 방한을 원칙적으로 환영하며, 방한 실현 시 한·일본 관계 부작용보다는 유익한 점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

3. 주일본대사관 견해

- 사회당 대표단 방한과 스기야마 국제부국장 방한은 분리하여 검토하되, 스기야마 일행의 입국 허용을 우선 검토

4. 외무부 대책(1976.1.29.)

- 기본 대책
 - 사회당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자세와 인식의 전환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도록 유도하며, 특히 통일사회당 문제, 인권 문제 등 한국내정에 간섭하는 태도 지양
 - 사회당의 방한 목적이 한국입장에 맞도록 공식적으로 조정되기 어려운 경우, 방한 형식을 사회당 대표단 자격보다는 개인자격으로, 그리고 적절한 민간기관의 초청에 의하도록 유도
 - 방한 시 김철 통일사회당수가 1975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문제는 거론하지 않음.
- 당면 대책
 - 사회당 방한 문제는 계속 현안으로 주시하면서, 가급적 사회당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협의
 - 스기야마 국제부국장 입국허가 신청은 주일본대사관에서 본국 정부로부터 회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변



5. 스기야마 사회당 국제부국장의 방한 문제 관련 외무부 훈령(1976.2.4. 주일본대사 앞 훈령)

- 일본 사회당 국회의원들이 한·일본 양국의 친선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환영
- 스기야마 사회당 국제부국장의 방한 신청에 대해 입국허가
- 에다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의 입국허가 여부는 동 부국장의 방한 결과를 참작하여 최종 결정
- 사회당 인사의 방한에 있어서 국제관례 및 국내법에 따라 일반 외국인과 같이 처우할 것이며, 어떠한 치외법권적 혜택을 기대하여서는 안됨.
- 동 부국장에 대한 입국허가 부여에 앞서 상기 방침을 사회당 측에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

Chaves, Juan R. 파라과이 상원의장 및 Saldivar, J. Augusto 하원의장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104 / 1 / 1-29

1974~76년 중 Juan R. Chaves 파라과이 상원의장 및 J. Augusto Saldivar 하원의장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국회사무처는 1974.7.5. 외무부에 정일권 국회의장 명의로 Juan R. Chaves 파라과이 상원의장 및 J. Augusto Saldivar 하원의장을 방한 초청하는 계획을 통보함.
2.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75.3.13. 및 4.10.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보고함.
 - A Salvador 하원의장은 방한 초청을 원칙적으로 수락하고, 7월 방한을 희망
 - J. Chaves 상원의장은 동년 실시되는 각종 선거, 전당대회 등 분주한 일정으로 인해 방한 초청을 수락하기 곤란하여 1976년으로 연기하기를 희망
3. 국회사무처는 1976.2.16. 외무부에 동 상·하원의장의 방한에 관해 현재 어떠한 내용의 회신도 받지 못했으며, 1976년도 국회의 외빈 초청계획 확정을 위해 구체적 방한 가능 시기 등 필요 내용을 조속히 회보하도록 요청함.
4. 주파라과이대사는 1976.3.16. Chaves 상원의장과 면담 시(3.11.) 정일권 국회의장의 방한 초청 문제에 관해 문의한바, 동 의장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파라과이 대통령의 허가를 받은 후 통보해 주기로 약속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Saldivar 하원의장은 출장 중으로 미접촉
5. 국회사무처는 1976.4.2. 외무부에 초청 경비 관련하여 국내 체재비는 국회에서 부담하되, 여비(항공임)는 국회의 예산사정 및 호혜원칙상 불가능함을 통보함.

터키 국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남구담당관

MF번호 C-6-104 / 2 / 1-126

1976년 중 터키 국회의원의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O. Birgit 및 N. Evliyagil 터키 하원의원(1976.4.20.~25.)

● 방한 의의

- 양 의원은 터키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 소속으로서 동 방한은 1975년 사이프러스 문제를 둘러싸고 다소 후퇴한 터키의 태도를 시정하고 기존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임.

● 주요 일정

-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외무부차관 예방
- 국회의장 주최 만찬
- 유엔기념묘지 및 터키군 참전기념비 시찰, 판문점 및 산업시찰

2. T. Ariburum 터키 상원의장(1976.7.4.~10.)

● 주요 일정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예방
- 국립묘지 및 유엔기념묘지 참배, 터키참전비 헌화, 판문점 및 산업시찰, 새마을 시찰

● 대통령 면담 주요 내용(7.9.)

- 박정희 대통령: 한·터키 간 혈맹관계를 상기하고,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 증진을 희망하며, 한반도의 전쟁 재발 방지 및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설명함.
- Ariburum 의장: 방한 초청에 사의 표명하고,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에 감명을 받았으며, 국방과 경제발전을 통한 조국 재건에 성공적인 수행을 축하함.

● 동 의장은 7.16. 주터키대사와의 면담에서 아래와 같이 방한 결과를 언급함.

-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대해 감명과 교훈
- 7.15. 터키 대통령과 수상에게 방한 소감 상세 보고
- 경제 및 기술분야에서 전문가를 파견, 한국의 경험 전수를 강조
- 동 수상에게 직접 방한 건의

영국 국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70-1977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C-6-104 / 3 / 1-118

1970~77년 기간 중 영국 국회의원의 방한 추진 관련 내용임.

1. 방한 초청 추진 경위

- 국회는 1970년 이래 의회 인사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한·영국 양국간의 우의 강화를 위해 IPU(국제의회연맹) 영국지부 소속의 영국 국회의원 초청사업을 추진

2. 방한 초청 추진 사례

- Margaret Thatcher 하원의원 방한 초청 추진
 - 국회는 1976.1.19. 외무부에 국회의장 명의로 Thatcher 하원의원 초청 서한 전달 요청
 - 외무부는 2.24. 주영국대사에게 초청 서한을 Thatcher 의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
- Paul Bryan 영국·홍콩 의원협회 회장 내외 방한 초청 추진
 - 주영국대사는 5.29. 외무부에 Patrick Wall 한·영국 의원협회 부회장이 Bryan 영국·홍콩 의원협회 부회장 부부가 9월에 홍콩을 방문하며 동 기회에 방한을 원하므로 동 부부의 방한 초청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고 보고함.
 - 외무부는 6.1. 국회사무처에 상기 인사의 방한에 관해 문의하였으나, 기 확정된 외빈 방한 일정 및 예산상의 제약으로 영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통보받음.
- Robert Parry 하원의원 방한 초청 추진
 - 외무부는 7.1. 영국 의회 내 친북한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당 내 좌파 의원을 포함한 영국 의회 중진 4명을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하고 7.6. 주영국대사에게 동 건 추진을 지시함.
 - 주영국대사가 노동당 내 중진 의원인 Parry 의원의 9.23.~27. 방한을 추진하였으나, 노동당 회의 등 Parry 의원의 일정 관계로 방한 초청 추진이 무산됨.

3. Neville Trotter 영국 하원의원 방한(1976.8.19.~25.)

- 방한 목적
 - 매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국회의원에 대한 연례적인 미국 군사력 현황 설명 및 세계 각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방문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방문 후 태평양지역 내 미군과 한국군 군사기지 방문
- 주요 일정
 -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예방
 - 군 기지 방문
 - 울산 산업시설 시찰 등

미국 의회 의원 보좌관 일행 및 전문위원 방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6-104 / 5 / 1-212

1975~76년 중 미국 의회 의원 보좌관 일행 및 전문위원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미국 의회 의원단 방한 초청 사업

- 추진 경위
 - 1975.9월 미국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 및 상원 운영위원회 등이 한·미국 관계 강화를 위한 계획수립
 - 주미국대사가 외무부에 보고 및 추진
 - 한·미국 경제협의회회장 명의의 초청장을 주미국대사를 통해 방한 가능 의원들에게 전달
 - 1976.1.5.~9. E. Garn 상원의원 방한 시, 미국 의회 전문위원 및 보좌관 방한 건의
- 1976.2.19. 주미국대사는 미국 의회 보좌관 및 전문위원단의 방한 초청 사업이 의회 내 친한 세력 저변확대와 의원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초청 사업을 계속 추진해 줄 것을 건의

2. 1976년 의회 보좌관 및 전문위원 방한 사업 결과

- C. Waters 보좌관 등 7명 방한(2.9.~14.)
 - 국회의장 및 외무부차관 예방, 대통령 외교담당보좌관 면담, 외무부 정무차관보 주최 만찬, 경제기획원, 국방부, 한미경제협의회 방문, 판문점 및 산업시찰 등
 - 동 일행은 귀국 후 2.25. 한국 관계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Korea in the World Today'라는 제목으로 자료발간
- J. Tierney 보좌관 등 5명 방한(7.12.~17.)
 - 주요 체한 일정은 상기 1차 방한단과 유사
 - 동 일행은 한국의 발전상과 한국민의 결의에 감명을 받았으며, 앞으로 의회 내에서 한국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에 적극 협조를 다짐
- J. Williams 하원의원 보좌관은 10.17.~23. 방한 추진
 - 동인은 방한 시 한미 합작투자사업, 교육시설, 한국 경제발전, 불교사찰 관광 등에 관심

3. 외무부는 1976.10.26. 주미국대사에게 상기사업 관련 아래와 같이 훈령함.

- 미국 의회 보좌관단 방한초청사업은 한국의 대미국 의회 로비활동과 관련하여 최근 계속하여 미국 의회 일부와 언론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1976년도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1977년 신 국회 개회 후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 계속 추진할 예정

미국 의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담당관

MF번호 C-6-104 / 4 / 1-269

1975~76년 중 미국 의회의원 방한 추진 관련 내용임.

1. 1975년 외무부는 미국 의회 내 한국 지지세력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의회 의원의 방한을 추진함.

- 방한 추진 경위
 - 1975.9월 미국 하원 Republican Study Committee에서 한·미국 관계강화를 위한 계획서를 주미국대사에게 전달
 - 1975.10월 주미국대사는 미국 의회 의원 및 보좌관 초청계획을 외무부에 보고
- 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방한 초청을하고, 전문위원 및 보좌관은 연 10명 정도 범위 내에서 추진

2. 1976년 미국 의회의원 방한 초청 추진 실적

- E. Garn 상원의원(1.5.~9.)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국방부장관 예방, 판문점 및 산업시찰
- O. Passman 하원의원(1.6.~8.)
 -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국회의장 주최 만찬
- B. Johnston 상원의원(1.9.~11.)
 - 1.21. 상원 본회의에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미국의 계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아시아지역 여행보고서를 제출
- J. Murphy 하원의원(1.30.~31.)
- C. Collins 하원의원
 - 개인사정으로 1976.3월 방한 계획을 무기 연기
- C. Wilson 하원의원(4.16.~22.)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예방, 판문점 및 산업시찰, 주한미군 시찰
- R. Morgan 상원의원(4.17.~21.)
 - 주한미군 방위상태 시찰
- J. Murphy 하원의원(5.1.~3.)
 - WACL(세계반공연맹) 총회 참석, 기조연설
 - 6.25 참전의원 방미문제 협의
- E. Derwinski 하원의원(7.16.~19.)
- F. Valeo 상원 사무총장(7.16.~19.)
 - 미국의 대극동 외교 및 안보정책 시행실태 조사



- C. Wilson 하원의원(9.30.~10.7.)
 - 국군의 날 리셉션 참석
- F. Spence 하원의원(11월)
 -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극동지역 방문계획의 일환
- J. Murphy 하원의원(12.11.~15.)
 - APU(아시아국회의원연맹) 총회(12.13.~18., 동경) 옵서버 참석 기회에 방한

한·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

생산연도 1972-1977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C-6-104 / 6 / 1-146

1972~77년 기간 중 한·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 창립 경위 관련 내용임.

1. 한·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 창립 논의 및 정식 제의

-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2.2.24. 오스트리아 국민당 원내 부총무 등과 면담 시 양국 의원친선협회 창립 필요성과 의원 간 교류에 대해 협의함.
- 국회사무처는 1973.9월 오스트리아와의 의원 친선협회 결성을 제의하는 국회의장 명의 서한을 오스트리아 국회의장에게 송부함.

2. 한·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 결성 노력

- Anton Benya 오스트리아 하원의장은 1973.11월 한·오스트리아 의원협회 결성에 대해 각 정당 대표들이 합의하였으며, 12월중 기술적 문제를 심의하고 동 구성 회원명단을 한국 측에 회보하기로 함.
- 동 하원의장은 1974.2.26. 동년 내에 한·오스트리아 의원협회를 발족시키기로 하고 추계 국회에서 한국 등 수개국과의 의원협회 발족을 일괄 타결하겠다고 알려옴.
 - 한국 정부는 1974년중 동 하원의장의 방한을 계획하였으나, 제반사정으로 무산됨.
- 동 하원의장은 1975.1월 한·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 설립을 결정하였으며, 각 정당에서 5명이 참가할 것임을 통보
 - 1975.3월 오스트리아 국회 측은 오스트리아 총선거(11.5.)가 예정되어 있어 총선 후에 협회를 구성할 것을 통보
 - 한국 측은 11월 오스트리아 총선 후에 동 의장의 재선을 축하하고 1976년 방한을 희망함.
- 한국 측은 1976.1월 오스트리아 측에 한·오스트리아 의원협회 구성을 재차 촉구

3. 한·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 결성

- 오스트리아 국회의장은 1976.11월 서한을 통해 의원친선협회가 정식 결성되었으며 회장단이 구성되었다고 통보
 - 동 협회는 사회당 3명, 국민당 3명, 자유당 1명의 총 7명으로 구성
 - 회장: Dr. Josef Gruber(국민당), 부회장: Walter Brauneis(사회당)
-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7.4.19. 한·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를 5월경 발족하기로 하였음을 오스트리아 의회에 통보
 - 회장에 민병기 의원(외무위원회 간사), 부회장에는 갈봉근 의원과 김윤덕 의원이 내정됨.

벨기에·한 의원친선협회 결성, 1976.3.16.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2007-21 / 2 / 1-8

1. 1976.1.14. 주벨기에대사는 벨기에·한국 의원친선협회 추진 관련 Gillet 벨기에 국회의원의 통보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벨기에·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원으로 참여할 의원 25명 확보, 이후 40명까지 확보되면 1976.1월 정식 발족 예정
 - 동인은 1975.12월 방한하여 한국 국회 주요 인사와 벨기에·한국 의원친선협회 구성 문제를 협의
 - 한국 측 추진상황 회신 요청
2. 1976.1.21. 외무부는 주벨기에대사에게 한국 측 한·벨기에 의원친선협회는 1975.12.17. 창립 총회를 개최, 정식 발족하였음을 통보함.
3. 1976.3.17. 주벨기에대사는 벨기에 측 벨기에·한국 의원친선협회가 3.16. 정식 발족하였고, 회장은 현 벨기에·미국 의원친선협회 De Vlies 회장, 부회장은 Gillet 의원이며 회원은 현직의원 26명이 선정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프랑스 방문, 1976.6.8.-15.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C-6-104 / 7 / 1-91

이철승 신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 의원단이 1976.6.8.~15. 프랑스를 방문함.

1. 주요 일정 및 방문 결과

-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 간담회 개최(1976.6.9.)
 - 한국 측 이철승 회장은 최근 급격히 친밀해져 가고 있는 양국관계를 강조, 특히 프랑스가 한국전에 참전한 전우임을 상기시키고, 최근 의욕적인 프랑스의 대한국 경제협력 및 유엔에서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적극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명
 - 최근 프랑스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북한 문제 거론 시 이를 효과적으로 저지해 준 동료 프랑스 국회의원을 치하
 - 프랑스 측은 양국간 긴밀한 관계를 언급, 최근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민의 강인한 투지를 칭찬
 - Vivien 프랑스 측 회장은 한국 측 친선협회장이 야당출신임에 대해 안보·경제면에서의 한국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언급
- C. de Murville 하원 외교분과위원장 면담(6.10.)
 - 동 위원장은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양국관계 긴밀화에 기여하겠다고 약속
- Pomer 상원의장 면담(6.10.)
 - 상원에도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언급
- A. Colin 상원 외교분과위원장 주최 리셉션 참석(6.10.)
 - 양국간 주요 관심사에 관해 의견교환
 - 프랑스 측은 한국의 새마을운동 등 발전상을 칭찬

2. 주프랑스대사관 평가

- 동 국회의원단의 프랑스 방문 외교를 통해 북한의 프랑스 국회 내 친북한 세력형성을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

한·일본 및 일본·한 의원연맹 결성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6-104 / 8 / 1-62

1975~76년 중 한·일본 양국 국회의원단 교류 및 의원연맹 결성 관련 동향임.

1. 한국 국회의원단 일본 홋카이도 방문(1975.9.15.~18.)

- 신형식 국회 재무위원장(단장) 등 14명 참가
 - 홋카이도 지사, 도 의회 의장, 홋카이도 일본·한 우호촉진의의원연맹, 삿포로 시장 등 예방
 - 양국간 무역·경제 관계 강화 및 친선 증진방안 협의, 경제간담회 정기개최 검토

316

2. 구마모토현 한·일본 의원연맹 결성(1976.3.29.)

- 규약채택 및 임원선출
 - 구마모토 공항에 한국 항공기 취항 추진 및 양국간 무역증진 강조

3. 일본 자민당 나가사키현 의원단 방한(1976.3.31.~4.2.)

- 민주공화당 본부 방문 및 간부와의 간담회 개최
 - 국회의사당, 주요 산업시찰 및 제2 남침터널 시찰 등

4. 한일 우호 미에현 의회 의원연맹 결성(1976.8.18.)

- 회장단 등 임원선출
 - 한국정세 강연(이병희 의원 등)과 한국 소개 홍보영화 상영 등 행사 개최

5. 아이치현 한·일본 의원연맹 간담회 개최(1976.8.19.)

- 한국의 경제와 안보, 한·일 양국 우호친선 강화방안, 일본의 언론문제 등에 관해 토의
 - 판문점 홍보영화 상영
- 한국의 정세 파악에 기여

6. 나가사키현 한·일본 의원연맹 결성(1976.9.11.)

-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 대한민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정책 및 대유엔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

7. 오사카 일본·한 의원연맹 결성(1976.10.5.)

- 동 연맹 규약 및 사업계획 채택

8. 와카야마현 일본·한 의원연맹 결성(1976.12.21.)

- 동 연맹규약 채택

한·일본 의원연맹 공동 간사회의. 동경, 1976.2.5.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6-104 / 9 / 1-29

이병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일본 의원연맹 대표단은 1976.2.4.~7. 한·일본 의원연맹 간사회의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함.

1. 이병희 의원 사전 일본 방문(1976.1.20.~24.)

- 방문 목적
 - 중국(구 중공)을 방문한 구노 일본 자민당 의원의 주중국 북한대사 접촉 및 5개항 제의 사실과 관련한 미키 수상의 밀사(密使)설 등 진상파악
- 미키 일본 수상 면담(1.24.)
 - 미키 수상은 구노 의원 밀사설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하고, 관방장관대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했다고 언급
 -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한·일본 간 문제는 양국 기본협정 정신에 입각하여 우의를 돈독히 해야 한다고 강조

2. 한·일본 양국 의원연맹 합동 간사회의 개최(1976.2.5., 동경)

- 참석자
 - 한국 측: 이병희, 백남익 의원 등 18명 의원 참가
 - 일본 측: 모리 마사헤이 단장 등 39명 의원 참가
- 주요 의제
 - 정치외교: 한·일본 양국의 공동안전, 일본의 북한접촉에 관한 문제, 대륙붕협정 비준, 사할린 한국교포 송환, 조총련계 교포 모국방문 협력 문제
 - 경제: 무역불균형 시정, 생사(生絲) 및 해태(海苔, 김) 수출, 한·일본 합작사업의 투자촉진 문제
 - 문화: 청소년 교류촉진 문제
 - 기타: 차기 총회 개최 문제 등
- 공동발표문 채택
 -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아직도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무력공격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국은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일본에서 일부 성급한 대북한 접근 기도가 보이는데 이는 양국의 우호와 동북아 평화유지를 위해 지양
 - 조총련계 한국인의 모국방문 성묘는 고무적인 것이며 앞으로도 평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협력
 - 한·일본 대륙붕협정 비준 촉진, 사할린 억류 한국인의 조기귀환 실현, 무역불균형 시정 등 현안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협력

최호중 국무총리 특사(외무부 경제차관보) 피지 방문, 1976.9.16.-21.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 국제연합

MF번호 C-6-104 / 10 / 1-150

최호중 외무부 경제차관보는 1976.9.16.~21. 국무총리 특사로 피지를 방문함.

1. 방문 목적 및 일정

- 방문 목적
 - 제31차 유엔총회 한국지지 교섭, 양국간 경제·기술협력과 통상관계 증진 목적
 - Mara 피지 수상 방한 초청 문제 조율
- 주요 일정
 - 외무차관, 상공장관, 관방장관, 수상실 차관 등 주요 인사 면담

318

2. 주요 면담 결과

- 한국 측은 유엔총회에서의 한국입장 지지를 요청
- J. Kotobalavu 외무차관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함.
 - 피지 정부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한국입장을 지지
 - 유엔군사령부는 긴장완화 및 유엔의 관여를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해체가 좋을 것으로 생각, 다만 휴전체제의 존속을 위한 당사자회담에는 한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이번 유엔총회에서 한국 문제에 대해 기권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입장을 반대하지 않을 것임.

3. 관찰 및 분석

- 유엔 관계
 - 피지 정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지지하는 방침을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신임 주유엔대사의 보고 및 건의가 한국입장 지지 결정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 Mara 수상 방한 초청
 - 방한 의사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1977.3월의 총선거와 ACP(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 총회 개최 등으로 10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관측

4. 건의

- 피지는 남태평양국가들 가운데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남태평양 국가와의 정치·경제적 유대강화에 있어 피지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 양국간 관계증진을 위해 겸임대사의 방문 외에 피지의 재외공관과의 접촉강화, 특히 주유엔 피지대표부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할 것을 건의
- 피지 상공부장관 방한 초청 및 피지의 경제사정을 조사하여 한국의 진출 가능성 계속 검토 필요
- 양국 민간 경제단체 간의 교류증진을 위한 방한 초청 강화 요망

비동맹 실무교섭단 스리랑카 방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C-6-104 / 11 / 1-156

외무부는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1976.8.9.~19., 스리랑카 콜롬보)에 대비하여 사전 실무교섭단을 스리랑카에 파견함.

1. 파견 목적

- 비동맹 회의에서 북한 주장을 극소화시키기 위한 비동맹국 대표와의 접촉
- 비동맹 회의에 참석한 북한 측 동태 및 회의 내용 파악

2. 파견 형식 및 규모

- 스리랑카 정부의 의견에 따라 정부 실무교섭단을 주콜롬보통상대표부 직원의 임시보강 형식으로 파견함.
- 기간: 1976.8.3.~23.
- 규모: 총 7명

3. 활동 내용

- 주콜롬보대표부에 실무교섭단의 입국사증 획득조치 훈령(1976.6.3.)
 - 실무교섭단을 위한 숙소 활용 및 설비 구입 포함
- 주태국, 주일본, 주유엔대표부대사 등에 공관소속 직원의 스리랑카 임시파견 예정 통보(6월)
- 주콜롬보대사 보고(6.28.)
 - Basnayake 스리랑카 외무부 차관보는 한국 측의 입국허가 요청공한 접수 시, 외무부 간부 회의에 상정하여 총리의 재가를 얻도록 하겠다고 언급
 - 대표부는 6.28. 비동맹 정상회의 기간 중 한국 문제 토의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약 5주간 공관직원을 임시 보강한다는 내용의 공한을 작성, 스리랑카 외무부 아주국장에게 수교
- 스리랑카 측은 한국의 요청에 대해 1명 증원만을 인정한다고 통보(7.9.)
 - 정상회의 기간 중 자국의 각종 시설규모 및 각국 공관과의 균형을 고려
- 주콜롬보대표부에 최소 3명 입국사증 발급교섭 추가 훈령(7.13.)
- 주콜롬보대사 추가보고(7.28.)
 - 스리랑카 측은 총리의 지침에 따라 비회원국 공관은 1명만 허용하기로 결정한 사실 재차 확인
 - 외교관 1명 외에 비외교관 통신사 1명 접수
 - 이와는 별도로 기자 3명의 사증발급 결정
- 주콜롬보대사에게 직원 2명 파견통보 훈령(7.29.)

정우영 외무부 방교국장 수단 및 동부아프리카 순방, 1976.11.29.-12.15.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6-104 / 12 / 1-34

정우영 외무부 방교국장은 1976.11.29.~12.15. 수단 및 동부아프리카 3개국(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을 순방함.

1. 순방 개요

- 방문 국가 및 일정
 - 수단(12.2.~4.)
 - 에티오피아(12.4.~6.)
 - 케냐(12.6.~9.)
 - 우간다(12.9.~11.)
- 순방 목적
 - 1977년도 유엔전략에 대비한 동부아프리카국가의 대북한 태도 타진 및 한국에 대한 태도 변화 방안 모색
 -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방안 모색
 - 동부아프리카지역 최근 정세 파악
 - 한국 협력사업 요원의 근무실태 파악 및 사업 개선방안 모색
 - 각 공관 운영실태 및 활동상 문제점 파악

2. 순방 결과

-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수단, 케냐, 우간다와의 관계는 점차 개선 추세
 - 4개 방문국 정부는 1976년도 유엔에서 한국 문제가 토의되지 않았음에 안도감을 표시하였다는 것이 현지 공관장 및 우방대사들의 지배적인 의견
- 현지 공관 활동은 비교적 잘 되어있으며, 본부의 예산지원에 만족표명
- 연례적 친선사절단 파견효과는 회의적이며, 향후 초청외교에 역점을 둘 필요
- 아프리카 국가는 소련의 팽창주의를 경계하고 있으며, OAU(아프리카단결기구)의 성격이 변화하여 경제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

3. 건의

- 각국별 사정을 고려한 대아프리카 의료 원조정책의 재정비 요망
- 민간업체의 대아프리카 진출방안 연구

친선사절단 서남아 순방, 1976.4.2-27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 국제연합

MF번호 C-6-104 / 13 / 1-379

김정태 외무부 정무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이 1976.4.2.~27. 서남아시아지역 6개국(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스리랑카)을 순방함.

1. 방문 개요

- 방문국 및 일정
 - 네팔(4.4.~6.)
 - 방글라데시(4.7.~10.)
 - 파키스탄(4.11.~14.)
 - 아프가니스탄(4.15.~18.)
 - 인도(4.19.~21.)
 - 스리랑카(4.22.~25.)
- 순방 목적
 - 비동맹 회의 및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지지 교섭

2. 훈령

- 공산 측은 1976년 제31차 유엔총회에서도 1975년에 이어 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
- 한국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의 합의 없이는 어떠한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한국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임에 비추어 한국 문제가 유엔에서의 대결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아시아 각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기를 요청

3. 순방 결과

- 네팔
 - 남북한 간 합의 없는 한국 문제 토의는 무익하다는 데 동감
 - 남북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 희망
- 방글라데시
 - 한국 문제는 남북 당사자 간에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 남북한 중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권 예정
- 파키스탄
 - 북한이 직접 당사자인 한국을 제외하려는 획책, 대안 없는 유엔사 해체 등은 지지하지 않으며, 이러한 입장은 1976년에도 불변



- 아프가니스탄
 -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희망, 1973년의 Consensus Statement 지지
- 인도
 - 비동맹 회의에서 한국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재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힐 예정
 - 이번 콜롬보회의에서 한국 측 입장에 합치하는 선에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인도의 발언 내용이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함.
- 스리랑카
 - 비동맹 회의에서 한국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가 균형 있게 다루어지기를 희망
 -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 불변

최호중 외무부 경제차관보 중동 순방, 1976.11.27.-12.2.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104 / 14 / 1-124

최호중 외무부 경제차관보는 1976.11.27.~12.2. 중동 4개국(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을 순방함.

1. 순방 개요

- 방문국 및 일정
 - 쿠웨이트(11.27~28.),
 - 바레인(11.28.~29.)
 - 카타르(11.29.~30.)
 - 오만(11.30.~12.2.)
- 순방 목적
 - 걸프연안국 정세 조사

2. 순방 결과

- 쿠웨이트
 - 남북한 동시수교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과의 단독수교가 바람직
 - 단독수교 여건조성을 위해 한·쿠웨이트 간 경제관계 심화,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 행사, 팔레스타인과의 관계개선 모색 등을 추구할 필요
- 바레인
 -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기존 우호관계 심화 필요
 - 경제기술협력협정, 무역협정 등은 양국간 유대를 상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추진
- 카타르
 - 외교정책 기조는 비동맹 노선 고수와 이슬람 및 아프리카 우방국가와의 공동보조를 위해 계속 노력 중
 -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하여는 선진개도국 간의 협력, 걸프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한 집단체제 및 경제협력을 위한 단계적인 공동시장 결성을 위해 노력
 - 주재국 외무부 접촉은 카타르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독립성 기질과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 등으로 힘든 실정
 - 공간 및 관저 건축을 위한 지원 요망
- 오만
 - 유엔 및 아랍연맹의 회원국으로서 친아랍 및 친서방정책 견지
 - 국가세입 증대를 위해 유전개발에 노력, 국민의 2 / 3가 종사하는 농업개발에도 주력
 - 유엔에서 한국입장을 전폭 지지, 제29차 총회 시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 양국간 경제협력 촉진 강화 필요

실무조사단 중·서부 아프리카지역 순방, 1976.11.29.-12.15.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C-6-104 / 15 / 1-51

노영찬 외무부 아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조사단이 1976.11.29.~12.15. 중·서부 아프리카 4개국(세네갈, 코트디부아르, 가봉, 카메룬)을 순방함.

1. 순방 개요

- 방문국 및 일정
 - 세네갈(12.2.~4.)
 - 코트디부아르(12.4.~6.)
 - 가봉(12.6.~8.)
 - 카메룬(12.8.~11.)
- 순방 목적
 - 1977년 유엔전략에 대비한 비우호국의 대북한 태도 타진 및 한국에 대한 태도 변화방안 모색
 -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방안 모색
 - 동 지역의 최근 정세 파악
 - 한국 협력요원(의료단 및 태권도사범)의 근무실태 파악 및 처우개선 방안 수립

2. 순방 결과

- 각국의 대한반도 정책
 - 한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은 북한의 비합리적인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아프리카국가의 이해 확보
 - 특히 금번 방문 국가 중 남북한 동시수교국이지만 북한에 편향되었던 세네갈, 카메룬 등이 이전과는 다르게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하는 인상
 - 한국입장 지지 확보를 위해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경제적 실리면에서 협력 사업을 구체화할 필요
- 한국의 대아프리카 진출강화 방안 건의
 - 민간기업 진출: 북한의 원조사업 불이행 사태로 한국 민간기업의 착실한 진출에 의한 실리적 사업추진은 큰 효과일 것으로 예상하며, 무상원조는 현 수준 유지 필요
 - 친선사절: 협력사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경제 각료 파견 등으로 제한하고 유력인사 초청도 자국에 영향력 있는 인사를 선별하여 시행
 - 언론 홍보: 아프리카 홍보매체가 현지에서는 불완전하므로 영국, 프랑스 등의 유력매체를 이용, 홍보범위와 신빙성 제고
 - 인맥외교: 공관장 이하 전 직원이 비공식 활동 등 불편이 없도록 반드시 현지 공용어에 능한 인사를 배치하여 인맥외교 등 실질적인 접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정무시(丁戀時) 대만(구 자유중국) 신문국장(공보부장관) 방한, 1976.10.14.-21.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C-6-104 / 16 / 1-25

정무시(丁戀時) 대만(구 자유중국) 신문국장(공보부장관)이 1976.10.14.~21. 문화공보부장관 초청으로 방한함.

1. 방한 경위

- 주대만대사는 1976.1.27. 정무시(丁戀時) 신문국장(공보부장관)을 문화공보부장관 명의로 방한 초청해 줄 것을 건의함.
- 방한 초청 사유
 - 동인은 정부 대변인인 동시에 주재국 언론기관을 관장
 - 1975년도 한국 동양통신사장 등 17개 단체 60여 명의 한국 언론인 초청
 -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친한국 성향이며 엘리트 관료로서 장차 요직에 기용될 것

2. 주요 일정

-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부차관 예방
- 한국신문협회장, 한국방송공사 사장 예방
- 국립묘지 참배, 땅굴 견학
- 국립박물관, 국립극장, 울산 산업시찰, 경주관광

3. 정무시 국장은 1976.10.16. 윤하정 외무부차관을 면담하고, 동북아 정세 및 한·대만 간의 정치, 경제, 문화교류 증진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캐나다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6-104 / 17 / 1-33

1976년 중 캐나다 주요인사가 방한함.

1. D. Burney 캐나다 외무부 태평양지역국장(1976.5.19.~21.)

- 주요 일정
 - 외무부 정무차관보, 미주국장, 방교국장 면담
- 박쌍용 미주국장 면담(5.20.)
 - 캐나다 측
 - 유엔 한국 문제 관련하여 한국이 탈유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패배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서방 측 결의안 상정 시 1976년 총회에서는 비동맹을 구성하고 있는 저개발국이 서방 선진국의 유엔에 관한 입장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경제원조 등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북한의 대캐나다 접근 시도와 관련하여 전 재외공관에 대해 북한의 접근 시도를 거절하라는 내용의 훈령을 내린 바 있다고 언급
 - 한국 측
 - 캐나다 측의 지지와 우려에 사의를 표명. 현재 50개국을 상대로 한국 문제에 관한 입장을 타진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아 태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 긴급조치, 명동사건 등 국내사정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도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

2. A. Blakeney 캐나다 Saskatchewan 주지사 비공식 방한(1976.5.24.~26.)

- 캐나다산 가성칼리와 축우(畜牛) 수출 문제 협의 희망

3. T. Constable 캐나다 Burnaby 시장(1976.10.26.~29.)

- 주벤쿠버총영사는 9.21. 아래와 같이 보고
 - 동 방한은 극동 순방의 일환으로 비공식적인 성격이나, Burnaby 시에 한국교민 약 1천 명 거주, 동 시장이 친한적인 인사임을 감안하여 공향영점 등 예우 제공이 바람직
- 외무부는 10.8. 서울시에 동 시장에 대해 적절한 예우조치를 요청

Anda, Perez 에콰도르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방한 계획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104 / 18 / 1-46

1976.3.29. 방한 예정이던 Anda Perez 에콰도르 외무부 국제기구국장의 방한 연기와 관련된 내용임.

1. 방한 추진 경위

- 1976.2월 주에콰도르대사는 유엔총회에서 한국지지를 위해 특별히 노력한 Anda Perez 에콰도르 외무부 국제기구국장의 방한 초청을 건의
- 외무부는 동 국장을 1976.3.29.~4.4. 초청하기로 결정

2. 방한 초청 목적

- 제30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에콰도르가 한국 측의 결의안을 지지하고 향후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에콰도르의 계속 지지를 당부하기 위함.
- 양국 경제협력 및 통상관계의 계속적 증대 요망

3. 외무부는 아래의 주요 일정 주선

- 외무부, 국방부, 건설부 방문
- 판문점, 부산 금성사, 울산 현대조선 등 시찰

4. 에콰도르 외무부는 1976.3.18. 부내 사정으로 동 국장의 방한 연기 요청

5. 1977.3월 주에콰도르대사는 동 국장이 주이집트대사로 4월초 부임 예정이라며 부임 도중 방한 초청을 건의

- 외무부는 추후 검토 예정이라고 통보

De Laboulaye, Francois Lefebvre 프랑스 외무성 정무차관보 방한, 1976.7.31.-8.2.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C-6-104 / 19 / 1-197

F. de Laboulaye 프랑스 외무성 정무차관보가 1976.7.31.~8.2. 방한함.

1. 방문 경위 및 주요 일정

- 방문 경위
 - 주프랑스대사는 6.24. J. Noiville 프랑스 외무성 아주국장과 Chirac 프랑스 수상의 방일 수행중인 R. Barre 대외통상장관의 방한(7.31.~8.2.) 관련 논의 중 주재국 외무성 고위간부의 방한을 요청
 - 프랑스 외무성은 정무차관보의 방한을 상부에 건의
-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상공부장관 예방
 - 산업시찰

2. 한·프랑스 정무 협의(1976.8.2.)

- de Laboulaye 차관보는 방한 중 외무부차관과 정무관계를 협의함.
- 한반도 정세와 안보
 - 한국 측: 한반도 정세,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정착 노력,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비, 국가의 안보와 생존을 위한 준비태세 설명과 이해촉구 등 평화통일 정책 설명
 - 프랑스 측: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한 대화를 통한 긴장완화가 필수라는 점에 동의하고 남북대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이해
- 사이공 잔류 교민 송환 문제
 - 한국 측: 사이공 잔류 교민의 송환에 협력해 준 프랑스 정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잔류 교민의 계속적 송환 협조를 요청
 - 프랑스 측: 적극 협조 약속
- 동구권과의 관계개선
 - 한국 측: 동구권과의 관계개선에 프랑스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
 - 프랑스 측: 동구권 국가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관계개선을 촉구하겠다고 언급
- 프랑스·북한 관계
 - 한국 측: 최근 파리 주재 북한통상대표부의 권한 확대에 관한 양측간 합의서 서명이 북한을 고무하는 조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
 - 프랑스 측: 프랑스·북한 관계에 어떤 진전조치로 이해되지는 않을 것이며, 절대로 북한을 고무하는 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3. 외무부장관 면담(1976.8.2.)

-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 de Laboulaye 차관보는 1976년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관련하여 한국 측에 협조할 용의를 표명하면서도 양측 결의안이 제출된 후 구체적인 협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
- 외무부장관이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의 제의에 대하여 프랑스 측의 지지 표명을 요청한데 대해 de Laboulaye 차관보는 동 제의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여 추후 한국 문제에 협조방안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될 것이므로 지지를 표시하지 않고 당분간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

Fuchs, Jockel 독일 Mainz 시장 방한, 1976.8.8.-12.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C-6-104 / 20 / 1-15

Jockel Fuchs 독일 Mainz 시장이 1976.8.8.~12. 방한함.

1. 방문 경위

- 주독일대사는 1976.6.16. J. Fuchs 독일 Mainz 시장이 중앙대학교 초청으로 7월 방한 예정임을 보고함.
 - 방한 시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문공부장관, 서울시장 예방을 희망
 - 국무총리 예방 시 Mainz시 구텐베르크 박물관의 한국관 설치에 대한 한국 정부 지원에 사의 표명 예정
- 주독일대사는 동 시장이 현 독일 여당에서 친한 인사임을 감안하여 면담주선 등 제반 편의 제공을 건의
- 동 시장은 부득이한 공무사정으로 방한 시기를 연기하여 1976.8.8.~12. 방한함.

2. 주요 일정

- 국무총리, 문교부장관, 보사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서울시장 예방
- 민속촌, 현충사, 국립영화제작소 방문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 일본 상이군경 회장 방한, 1976.11.10.-13.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6-104 / 22 / 1-80

사사카와 료이치 일본보건협력재단 회장이 1976.9월 및 11월 방한함.

1. 제1차 방한(1976.9.24.~25.)

- 방문 경위
 - 가네야마 전 주한 일본대사는 한국나병(癲癇)연구원 건립을 위해 노력
 - 동 회장은 1975.6.27. 한국나병연구원 건립 설립기금으로 1억 2천만 엔을 기증하고, 나병 관리사업을 위한 의료기재, 차량,약품 등을 추가 지원
- 방문 목적
 - 사사카와 료이치 일본보건협력재단 회장은 한국나병연구원 준공식 참석을 위해 방한함.
- 주요 일정
 - 한국나병연구원 개원식 참석(9.24.)
 - 대통령 예방 및 수교훈장 광화장 전수(9.25.)

2. 제2차 방한(1976.11.10.~13.)

- 사사카와 료이치 일본보건협력재단 회장이 일본상이군경회장 자격으로 2차 방한함.
- 방문 목적
 - 상이군경 원호사업을 위한 기부금 600만 엔 전달
 - 군경 원호를 위한 모터보트 경기장 후보지 선정
- 주요 일정
 - 보건사회부장관, 원호처장 예방
 - 국립묘지 참배
 - 대한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방문
 - 원호병원, 국립원호원, 국립재활원 방문

일본 외무성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6-104 / 21 / 1-30

1976년 중 일본 외무성 주요인사가 방한함.

1. 에도오 데츠야 일본 외무성 동북아과장(1976.1.5.~12.)

- 우문기 외무부 동북아1과장을 2차례 면담하고 아래 의제에 관해 협의함.
 - 일본 정국 전망, 대륙붕협정 비준,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 창원공업단지 진출 일본기업, 일본 공산당의 대한국 동향, 한·일본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협정 체결, 재일본 한국인 강제 퇴거, 주니가타총영사관 설립, 사할린 억류 한국인 귀환, 일본·북한 민간어업협정 체결 문제

332

2. 노무라 유다카 일본 외무성 조사부장은 1976.7월 한국 정세 파악을 위해 방한하여 7.2. 김정태 외무부 정무차관보를 면담함.

- 동 면담은 노무라 조사부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유 의견교환 방식으로 미국의 대한국 안보 약속, 한국의 일본에 대한 기대, 북한의 위협, 한국의 대소련 및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 북한의 군사적 모험 가능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Njonjo, Charles 케냐 법무장관 방한 계획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6-105 / 1 / 1-14

1975~76년 중 Charles Njonjo 케냐 법무장관의 방한 추진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주케냐대사의 건의에 따라 Charles Njonjo 케냐 법무장관을 방한 초청하기로 하고, 1976.6월 외무부장관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
2. Njonjo 장관은 1976.8월 상기 외무부장관 명의 초청서한에 대한 감사서한을 보내옴.

MUBARAK Jaber Ahmad Al-Sabah 쿠웨이트 수상 특별보좌관 방한, 1976.4.25.-5.2.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105 / 2 / 1-28

Jaber Ahmad Al-Sabah Mubarak 쿠웨이트 수상 특별보좌관이 1976.4.26.~5.2. GM 코리아 사장의 초청으로 방한함.

1. 주요 일정

- 건설부장관, 대한주택공사 사장 예방
- 외무부 차관보 예방 및 동 차관보 주최 만찬
- GM 코리아 본사 및 공장 방문, 전방 시찰

334

2. 김정태 외무부 정무차관보 면담(1976.4.29.)

- 쿠웨이트는 남북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1975년도와 마찬가지로 1976년도 비동맹 회의와 유엔총회에서 계속 지지하기로 함.

Subuhi, Mahmoud 리비아 대통령 고문 방한, 1976.5.19.-26.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105 / 3 / 1-20

Mahmoud Subuhi 리비아 대통령 고문이 1976.5.19.~26. 한국 이슬람교 중앙성원 개원식 참석을 위해 방한함.

- 최규하 국무총리 예방(1976.5.26.)
 - 최규하 국무총리는 Subuhi 고문에게 한·리비아 간 외교관계가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Verkade, Iwan 네덜란드 외무부 아주국장 방한, 1976.11.22.-25.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C-6-105 / 4 / 1-24

Iwan Verkade 네덜란드 외무부 아주국장이 1976.11.22.~25. 관할국 시찰차 방한함.

1.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외무부차관, 정무차관보, 의전실장 예방
-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 의전실장 주최 비공식 만찬
- 판문점 시찰

2. Verkade 국장은 방한 전 중국(구 중공)을 방문하고, 방한 후 일본을 방문함.

Macki, Ahmed 주미국 오만대사(전 유엔대사 겸임) 방한, 1976.4.22.-29.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C-6-105 / 5 / 1-107

Ahmed Macki 주미국 오만대사(전 유엔대사 겸임)가 1976.4.22.~29. 외무부 초청으로 방한함.

1.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예방
- 코트라, 울산정유공장, 현대조선소, 수원 선경직물 공장, 구로 수출공단, 북한 땅굴 방문 및 시찰
-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 주최 만찬, 외무부 방교국장 주최 만찬

2. Macki 대사는 1976.6월 외무부장관 앞 감사서한에서 상기 방한을 통해 한국의 정치·경제 정세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경제 발전상에 크게 감명 받았다고 방한 소감을 피력함.

배의환 해외경제연구소 이사장의 폴란드 방문 추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3

MF번호 C-6-105 / 6 / 1-76

1976년 중 배의환 해외경제연구소 이사장의 폴란드 방문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방문 추진 경위

- 배의환 이사장은 1975.12월 이후 폴란드 출신인 Roman Skorski 미국 Alabama대학 교수에게 한국과 폴란드 간 경제·문화교류를 위한 제반 협조를 요청하고 수차례에 걸쳐 접촉과 협의를 함.
- 동 이사장은 상기 한·폴란드 경제·문화교류 추진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Skorski 교수에게 자신의 폴란드 입국을 주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동 교수는 1976.6월 미국을 방문한 배 이사장과 함께 주미국 폴란드대사관을 방문, 동 대사관 참사관 겸 총영사에게 배 이사장의 폴란드 방문 추진 경위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함.
- 외무부는 배 이사장의 폴란드 방문이 외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동구권 관계개선 정책에 부합됨을 감안하여 1976.7월 동 이사장과 함께 변정현 외무부 구주국 심의관을 파견하기로 함.

2. 변정현 외무부 구주국 심의관 파견 개요

- 파견 자격
 -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일반 여권 소지
- 파견 목적
 - 폴란드 정부, 특히 외무부와 접촉하여 한·폴란드 간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한국 측 입장 전달과 폴란드 측의 대한반도 입장 타진
 - 한반도 평화통일 및 문호개방 정책에 관한 6·23 선언의 취지 설명 및 한국 측 사정 소개

3. 추진 결과

- 배의환 해외경제연구소 이사장과 변정현 외무부 구주국 심의관은 1976.8월 주미국 폴란드대사관에 폴란드 입국사증을 신청하였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절당함.

Montanaro-Sabino, Augusto 파라과이 내무장관 방한, 1976.4.10.-14.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105 / 7 / 1-69

Augusto Montanaro-Sabino 파라과이 내무장관이 1976.4.10.~14. 방한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방문 경위
 - Sabino 장관이 1976.3월 Enciso 주한 파라과이대사(동경 상주)를 통해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기회에 방한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동 방한 초청이 이루어짐.
- 방문 목적
 - 한국 정부 고위지도자와의 면담
 - 한국의 국내안보 제반제도 및 공산세력 침투방지 문제에 관하여 면담 희망
 - 파라과이 이민 송출 문제 논의

2.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예방, 내무부장관 면담 및 오찬, 보건사회부장관 면담 및 만찬, 외무부장관대리 면담 및 만찬, 중앙정보부 방문
- 판문점 시찰, 태평양화학 및 선경합섬 시찰, 국립묘지 헌화

Leifland, Leif 스웨덴 외무부 정무차관보 방한, 1976.9.5.-12.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C-6-105/8/1-167

Leif Leifland 스웨덴 외무부 정무차관보가 1976.9.5.~12.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6.1월 주스웨덴대사는 5월 북한 방문예정인 동 차관보의 방한 초청 건의
 - 동 차관보는 월남 패망 후 사이공 잔류 공관원 조기 석방을 위해 노력
 - 북한 방문 후 판문점 경유 방한도 고려되었으나 방북과는 별도로 방한하기로 결정

340

2. 주요 일정

-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외무부차관 예방
- 국무총리 주최 오찬,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
- 판문점, 남침 땅굴, 현대조선소 시찰

3. 주요 협의사항

- 한반도 일반 정세 및 북한의 대한반도 정책
- 북한의 대스위스 채무
-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 동 차관보는 스웨덴이 중립국 감시위원단이므로 어느 일방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없어 한국 측 안의 공동제안국이 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
- 유엔사 해체는 중립국 감시 위원단 존재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것이므로 반대
- 주한 미군 문제
- 사이공 잔류 한국 공관원의 석방을 위한 차관보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바, 동 차관보는 국제협정에 따라 외교관은 정당하게 대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노이 측에 계속 설득할 것을 다짐

Tan Boon Seng 싱가포르 외무부 정무차관보 방한, 1976.4.16.-19.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6-105 / 9 / 1-23

Tan Boon Seng 싱가포르 외무부 정무차관보가 1976.4.16.~19. 비공식 방한함.

1. 주요 일정

- 외무부차관, 아주국장, 의전실장 및 방교국장 면담
- 판문점 및 땅굴 시찰

2. 면담 주요 내용

- 한국 측은 Tan Boon Seng 정무차관보에게 유엔 및 비동맹 문제에 관한 지원을 요청함.
- 동 정무차관보는 한국 측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함.
 - 특히 1976년 유엔총회에서 한국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유엔 주재 아세안회원국 대표들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함.

34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Pratt, Solomon Athanasius James 시에라리온 법무장관 방한, 1976.5.9.-15.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C-6-105 / 10 / 1-167

Solomon Athanasius James Pratt 시에라리온 법무장관이 1976.5.9.~15. 외무부 초청으로 방한함.

1. 방문 경위 및 의의

- 1974.11월 Pratt 장관은 과거 개발기획상이었던 당시에 경제기획원장관 명의로 방한 초청장을 전달받은 바 있으나, 현재까지 방한하지 못하다가 1976년 유엔 해양법회의 참석 직후인 5월 방한이 가능해짐.
 - 동 장관은 시에라리온 외상 및 경제개발기획상을 역임한 바 있는 유력자로서 친한인사임.
- 동 방한을 통해 한반도 사정을 이해하고 한국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상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시에라리온 귀국 시 한국의 정책 지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 기대됨.

2.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경제기획원차관 예방 및 면담
- 법무부장관, 외무부장관, 부산시장 주최 만찬
- 선경직물, 현대조선 산업 시찰
- 국립박물관, 부산 및 경주지역, 판문점 관광 및 시찰

3. 국무총리(1976.5.12.) 및 외무부장관(5.10.) 면담 주요 내용

- 시에라리온 Marampo 철광산에 대만(구 자유중국)이 투자하기를 희망하나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상 바람직하지 않은바, 한국 측이 개발하여 주기를 희망함.
- 시에라리온은 한국 측으로부터의 무상원조보다는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한·시에라리온 양국간 어업분야 합작투자가 있기를 희망함.

B. Mohamed IDRIS 수단 무임소장관 방한, 1976.12.1.-4.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6-105 / 11 / 1-86

B. Mohamed Idris 수단 무임소장관이 1976.12.1.~4. 외무부장관 초청으로 방한함.

1.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중앙정보부장 예방
- 대우중공업, 방림방적 시찰

2. 방한 결과

- 수단 측 협조 요청사항
 - 대우실업에서 추진 중인 영빈관 건설이 늦어도 1978년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협조 희망
 - 수단 상공부장관의 1976.12월 방한 시 무역협정 체결과 한국산 설탕 및 비료구입을 위한 Credit Line(저리 차관 지원)을 기대
- 한국 측 입장
 - 수단 측과의 경제관계 증진은 원칙적으로 환영
 - 수단 상공장관 방한 시 구체적으로 제의하면 호의적으로 검토
 - 효과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양국 정부간 외교관계 승격 등에 관한 양해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

우간다 회교사절단 방한, 1976.5.18.-28.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6-105 / 12 / 1-11

Sheikh Mufti를 단장으로 하는 우간다 회교사절단이 1976.5월 방한한바, Voice of Uganda는 5.19. 및 5.28. 우간다 회교사절단의 방한 관련 기사를 게재함.

Cortazzi, Henry A. H. 영국 외무부 아주담당 차관보 방한, 1976.5.16.-20.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C-6-105 / 13 / 1-36

Henry A. H. Cortazzi 영국 외무부 아주담당차관보가 1976.5.16.~20. 방한함.

1. 방문 목적

- 외교, 경제 및 정치 인사들과 아래 주제에 관한 논의 희망
 - 양국간 정치 및 경제문제
 - 유엔 문제
 - Crosland 외상 중국(구 중공) 방문 결과
 - 북한 정세

2.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정무차관보 면담
- 중앙정보부, 상공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방문
- 주한 캐나다대사 면담, 주한 미국대사 관저 Opening House 참석
- 외무부 정무차관보 주최 만찬, 주한 영국대사 주최 오·만찬

3. 외무부장관 면담(1976.5.17.) 주요 내용

- 한·영국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 교환
- Crosland 영국 외상의 1976.5.3.~9. 중국 방문 결과 설명

Boren, David L. 미국 Oklahoma 주지사 방한, 1976.9.28.-10.2.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6-105 / 16 / 1-19

David L. Boren 미국 Oklahoma 주지사가 1976.9.28.~10.2. 방한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방문 경위
 - Boren 주지사 방한 초청은 한국관광공사와 재향군인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참전용사 유치사업의 일환
- 방한 초청 목적
 - Oklahoma주 한국전 참전용사 유치, 한국의 관광시장 저변 확대, 한국 안보실상 소개

346

2. 주요 일정

- 대통령, 교통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외무부차관, 서울대총장 예방 및 면담
- 판문점 시찰, 서울시내 관광
- 총리비서실장 주최 만찬, 통일원장관 주최 만찬,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한국관광공사 사장 주최 만찬, 구미동창회장 주최 오찬

Miller, Jack 미국 연방고등법원 판사 방한, 1976.6.8.-13.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6-105 / 14 / 1-164

1. Jack Miller 미국 연방고등법원(관세 및 특허) 판사가 1976.6.8.~15. 외무부 초청으로 방한함.

● 주요 일정

-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수교훈장 광화장 서훈), 외무부장관 대리, 상공부장관, 김동조 대통령 특별보좌관, 대한상공회의소 소장 예방 및 면담
- 연세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 수여
- 사법연수원 및 대한상공회의소 강연
- 울산 현대조선소 시찰, 경주 관광

2. Miller 판사는 방한 중 사법연수원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강연하였으며, 강의안이 수록됨.

- 사법연수원: 미국 헌법에 관한 강의안
- 대한상공회의소: 미국의 특허제도 및 조세제도에 관한 강의안

미국지역 명예영사 방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6-105 / 15 / 1-89

1976년 중 미국 지역 명예영사 방한 관련 내용임.

1. Raymond Kell 주포틀랜드 명예총영사와 Kenneth Lewis 주포틀랜드 명예영사(1976.2.13.~21.)

- 교통부장관, 문공부장관, 외무부 정무차관보, 상공부 국제협력차관보, 조달청차장 면담
- 외무부 미주국장 주최 만찬

2. Chester Mally 주디트로이트 명예영사(1976.3.29.~4.5.)

- 한·미국 경제협의회 공식일정 참여

3. James Coleman 주뉴올리언스 명예총영사와 Thomas Coleman 주뉴올리언스 명예영사 (1976.5.3.~7.)

- 외무부 초청
-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김동조 대통령 특별보좌관 예방,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 현대조선 및 국제탱크터미널, 판문점 시찰

4. Donald Clark 주애틀랜타 명예영사(1976.8.13.~18.)

- 외무부 초청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김동조 대통령 특별보좌관 예방, 외무부 정무차관보 면담 및 동 차관보 주최 만찬
- 현대조선, 포항제철 등 산업시찰, 경주관광, 땅굴시찰

5. Ellen Kell 여사(Raymond Kell 주포틀랜드 명예총영사의 부인)(1976.9.30.~10.14.)

- 청주 소재 성심학원(맹아원)에 보청기를 기증

6. Loren Lounsbury 주앵커리지 명예영사(1976.11.13.~17.)

- 앵커리지 상공회의소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의 투자환경 조사

Lamaison, Alfredo 우루과이 국가비상회의 외교분과위원 방한, 1976.4.26.-5.4.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105 / 17 / 1-65

1. Alfredo Lamaison 우루과이 국가비상회의 외교분과위원이 1976.4.26.~5.4. 국회 초청으로 방한함.

● 주요 일정

- 국회의장,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외무부차관, 국방부차관, 서울대학교 총장 예방 및 면담
- 판문점, KIST, KAIST, 내무부(새마을 브리핑) 방문 및 시찰
- 대구 제일모직, 울산 현대조선 및 중화학공업단지 산업 시찰

2. 우루과이 국가비상회의는 1973년 초 우루과이 군부의 정치 개입에 따라 해산된 의회 기능을 대행하기 위하여 1973.12월 설치된 기구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25명의 의원으로 구성됨.

- 동 국가비상회의는 의회 기능을 대행하고 있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데 불과함.

심명원 주라이베리아 대사 William R. Tolbert, Jr. 라이베리아 대통령 취임식(1976.1.4.) 참석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서아프리카

MF번호 C-6-105 / 18 / 1-10

1. 심명원 주라이베리아대사와 민병학 2등서기관은 1976.1.4.~7. William Richard Tolbert Jr. 라이베리아 대통령 취임식에 한국의 경축사절로 참석함.
2. 라이베리아 외무장관은 1975.11.7. 외무부장관 앞 공한으로 1976년 라이베리아 대통령 취임식을 간소하게 거행할 계획이며 경축사절로 주라이베리아대사관 직원 중 2명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이에 따라 외무부는 1975.12월 상기 2인을 경축사절로 임명함.

페루 주재 북한 통상대표부 직원의 밀수 문제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D-6-22 / 26 / 1-64

1976~77년 중 주페루 북한 통상대표부 직원의 밀수와 관련된 내용임.

1. 페루 수사당국은 1976.11.26. 북한 통상대표부 직원의 소형계산기 밀수거래 현장을 포착하여 연행함.

- 외교 면세특권으로 반입된 외제물품을 외교관 차량을 이용하여 밀수행위를 함.
- 수사 결과에 따라 북한 통상대표부 폐쇄, 북한요원의 전원 추방 여부 결정 예정

2. 구속 수사를 받아오던 북한 통상대표부 직원은 1976.12.28. 페루 수사경찰 당국자에 의해 공항으로 연행되어 쿠바로 추방됨.

3. 밀수품 내용

- 쿠바산 럼주, 일본산 세이코 시계, 위스키, 전축, 전자계산기 등 약 56,000달러 상당

35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1976

북한의 대외 폭력 혁명 수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정보2

MF번호 D-6-22 / 1 / 1-19

외무부 정보문화국이 1976.3월 작성한 '북한 대외 폭력 혁명 수출' 보고서의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음.

- 개관
- 북한의 외국인 게릴라 훈련 현황
- 북한 대외 게릴라전 수행의 단계적 형태
- 폭력혁명 수출 사례
- 분석

Podgorny, Nikolai 러시아(구 소련) 최고회의 의장 북한 방문, 1969.5.15.-19.

생산연도 1966-1969

생 산 과 정보

MF번호 D-6-24 / 2 / 1-8

Nikolai Podgorny 소련 최고회의 의장의 1969.5.15.~19. 북한 방문 시 발표된 북한·소련 공동성명의 주요내용임.

1. 양국 관계

- 양국은 최근 정치·경제·과학기술 분야와 문화면에서 양국관계가 현저히 발전된 것을 평가

2. 사회주의 진영의 군사력 강화

-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통일과 단결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

3. 미국의 정찰행위

- 북한 영토안전과 자주권을 저해하는 미국의 도전행위를 규탄하며 북한의 입장을 지지

4. 정전협정

- 양국은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미국의 남한에 대한 신형무기 증강에 반대

5. 미군 철수는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주된 조건임을 강조

6. 군비 통제 문제

- 양국은 전반적 군비 철폐와 신무기의 완전한 금지를 위한 투쟁의 중요성을 인정

7. 기타

- 라오스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원
- 미국·일본 안보조약 폐기와 미군기지 철수를 위해 투쟁하는 일본 인민의 투쟁을 지지
- ASPAC(아시아태평양양이사회)의 새로운 군사적 집단화를 규탄
- 최용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의장의 소련 방문 공식초청을 수락

한국 문제 긴급 국제회의(반한국 세력 주동 집회). 동경, 1976.8.12.-14.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D-6-24 / 5 / 1-153

한국에서의 인권억압에 대한 협의를 목적으로한 한국 문제 긴급 국제회의(반한국 세력 주동 집회)가 1976.8.12.~14. 일본 동경에서 비공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주최자
 - 일본·한국 연대 연합회의 및 한국 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회의
- 주동자
 - 일본 내 친북한 인사(중의원, 참의원, 작가 등)와 반한 한국인
- 참가 인원
 - 한국인 8명, 일본인 24명, 외국인 25명, 기타 8명
- 의제
 - 한국에 있어서 억압과 저항운동, 제3세계의 투쟁과 한국의 민주화 운동, 제3세계와 선진국에 있어서의 대중투쟁, 국제연대와 우리들의 세계
- 대중집회 개최
 - 1976.8.15. 동경 히비야공원에서 1,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는 집회 개최

2. 회의 결과 채택한 결의문 주요 내용

- 남·북한 간 합의된 평화통일 3대 원칙에 따른 대민족회의 방식의 남북대화 촉진을 지지함.
- 한국 내 민주회복이 실현되어야 함.
 - 김대중 등 모든 정치범 석방
- 조선민족의 투쟁을 지원하는 북한입장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고 여사한 북한입장 지원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기로 함.

3. 외무부 조치사항

- 대일본 교섭 및 일본 측 반응
 - 외무부 및 주일본대사관은 일본 외무성 등에 동 회의 개최 금지 및 참가 외국인의 정치활동 규제를 요청
 - 일본 측은 동 회의가 일본인들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회의이므로 회의 자체를 규제하기 곤란하고 외국인에 대한 규제는 행정소송 제소의 우려가 있다는 반응
- 참가 외국인 소속 국가 주재 한국 공관에 동 회의에 관한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외국인의 성향 및 참가 경위를 조사, 보고하도록 훈령
- 주일본대사관은 동 회의에 대한 성명을 발표

북한 동향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D-6-24 / 6 / 1-126

1975~76년 중 북한의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1975년도 북한의 대외동향 개관

- 노동당 창당 30주년으로 '대남적화를 위한 결정적 시기의 해'로 설정
- 김일성의 동년 신년사는 대외적으로 국제혁명 역량과의 유대성 강화 및 제3국과의 경제협력, 친선관계 강화 역설
- 제30차 유엔총회 및 리마 비동맹 회의를 위한 총력외교 전개
- 김일성의 중국(구 중공), 동구권 및 아프리카 순방과 초청외교 강화
- 평화통일 선전 등 대외선전활동 강화
- 비동맹권 특히 아프리카지역과의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통한 접근 강화
- 한국 우방국에 대한 침투

2. 1976년도 김일성 신년사 주요 내용

-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대외관계에서의 1975년도 업적 과시
- 1976년도 과업제시
 - 기본목표: 3대 혁명역량 강화
 -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촉진
 - 남조선 인민의 투쟁 강력 지원
- 세계혁명 역량과의 단결강화

3. 외무부는 1976.6월 주호주대사에게 북한 정세를 아래와 같이 통보함.

- 북한은 1975년 후반부터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징조를 보이던 중, 1976.4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을 제1부주석, 박성철을 총리로 각각 선출하고 동년 5월 인민무력부장 최현을 경질, 오진우를 그 후임으로 하는 등 그 변동의 폭이 확대되고 있음.
- 북한의 권력구조 변동 추이는 김정일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 김정일 체제는 상층권력 핵심에서는 군부 원로급이 중핵이 되고 중·하층 기반에서는 신진 대열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짐.

4. 참고자료

- 북한 사절단 파견·접수 동향(1976.1~3월)
- 북한의 해외공관 기자회견 및 Press Release 동향(1976.1~3월)
- 김일성 외국 방문설에 관한 재외공관 보고 요약(1976.3월 및 4월)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에 대한 홍보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북미담당관

MF번호 D-6-24 / 8 / 1-92

1974~76년 중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및 성명에 대한 재외공관의 홍보활동 관련 내용임.

1.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은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1주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함.
2.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3주년을 맞아 1976.6월 외무부장관이 성명을 발표하되, 각국 재외공관은 이에 대한 각국 정부의 반응을 보고함.
 - 유엔대표부는 동 성명을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유엔사무국 출입기자 및 주요언론계·학계에 배포
 - 주캐나다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은 성명문을 주재국 외무성 및 언론기관에 전달

대동구권 기본정책 및 관계개선 추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3

MF번호 E-6-14 / 1 / 1-113

외무부의 대동구권 활동강화 및 관계개선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대동구권 활동강화 관련 재외공관에 대한 훈령

- 외무부는 1976.1.13. 대동구권 관계개선 세부지침을 미국 등 주요 대사관에 하달하고, 관계개선 활동 적극 추진을 지시
 - 소련과의 관계개선에 집중하고, 유고, 루마니아, 폴란드 등에 주력할 것
- 외무부는 1.28.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및 경제발전 등 관련 공산권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를 영국 등 주요 대사관에 지시
- 외무부는 5.12. 주재국 내 동구공산권 우호친선협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주요 대사관에 지시
- 외무부는 5.27. 주재국 외무장관 등 주요 인사의 동구권 방문 계기 등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요 대사관에 지시

2. 우방국을 통한 관계개선 노력

- 1974.10월 노르웨이 총리의 폴란드 방문 시, 폴란드 외무장관은 폴란드가 중립국 감시위원단임을 감안하여 소극적 반응
- 1975.1월 호주 총리의 소련 방문 시, 소련 총리는 북한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 반응
- 1975.4월 루마니아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 시, 루마니아 측은 소련이 응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반응
- 1975.12월 유고슬라비아 외무장관의 네덜란드 방문 시, 유고슬라비아 측은 무반응
- 1976.4월 독일 외무장관의 헝가리 방문 시, 헝가리 외무장관은 언질은 하지 않고 한국의 대소련 관계개선에 관심 표명

3. 동구권과의 인사교류 현황

- 기간: 1970~76.6월
- 현황
 - 소련: 방문(17회, 106명), 방한(4회, 4명)
 - 유고슬라비아: 방문(27회, 132명), 방한(43회, 59명)
 - 폴란드: 방문(13회, 58명), 방한(11회, 11명)
 - 루마니아: 방문(4회, 22명), 방한(5회, 5명)

35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76



- 헝가리: 방문(6회, 11명), 방한(5회, 5명)
- 체코: 방문(4회, 5명), 방한(11회, 20명)
- 불가리아: 방문(9회, 26명), 방한(2회, 2명)
- 동독: 방문(4회, 4명), 방한(없음)
- 알바니아: 인사교류 없음

비동맹 정상회의, 제5차. Colombo(스리랑카), 1976.8.16.-20. 전8권 (V.1 기본대책 I : 1-5월)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F-6-8 / 1 / 1-373

1976.8.16.~20.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되는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의 기본대책 및 지지교섭에 관한 내용임.

1. 회의 개요

- 회의 장소: 콜롬보(스리랑카)
- 회의 일정
 - 1976.8.9.~10. 조정위원회 실무급회의
 - 1976.8.11.~14. 외상회의
 - 1976.8.16.~20. 본회의

2. 비동맹 정상회의 대책(1976.1월)

- 정상회의 대책(기본방침)
 - 한반도 문제 관련, 북한 지지국들에 의한 북한입장 일방적 지지 결의 채택을 위한 책동이 있을 경우 다수 우방국으로 하여금 한국입장을 적극 대변하도록 함.
- 조정위원회 대책
 - 조정위원국 중 우방 및 남북한에 대해 균형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8개국을 접촉, 조정위원회의 북한입장 일방적 지지 태도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교섭함.
- 쌍무관계 강화를 통한 대책
 - 정상회의의 주최국인 스리랑카에 대해서는 수교문제 적극 추진, 협력사업 시행, 회담 사무국 및 외무부 간부 접촉 강화
 - 비동맹 내 우방국 중 비동맹에서 영향력이 크며 교섭이 가능한 국가를 선정, 한국입장 대변을 위한 특별교섭 활동 전개
 -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남북한에 균형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기타 국가(21개국)에 대해 중점적으로 한국입장 설득 교섭 전개

3. 지지교섭 대상 및 내용(1976.2월)

- 지지교섭 대상
 - 한국입장 적극 대변 목표국(11개국)
 - 한국입장 지지 또는 대변 목표국(20개국)
 - 엄정중립 목표국(9개국)



- 지지교섭 내용

- 한국 문제는 남북한이 직접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 비동맹 회의가 북한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한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함.
- 비동맹 회의가 한반도의 현실에 입각, 균형적이고 건설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협조 당부함.

4. 지지교섭 활동(1976.3월)

- 외무부는 미 국무부가 비동맹 회의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대비하여 비동맹 주재 미국공관에 하달한 접촉지침을 주유엔대표부에 통보함.
- 외무부는 비동맹국가 중 한국이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비동맹 내 한국입장 적극 대변 대상국으로 24개국, 남북한 입장에 대한 엄정중립대상국으로 19개국을 선정함.
 - 한국입장 적극 대변국: 아시아 5개국, 아프리카 12개국, 중남미 1개국, 중동 5개국
 - 엄정중립국: 아시아 4개국, 중남미 5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동 3개국

비동맹 정상회의, 제5차. Colombo(스리랑카), 1976.8.16.-20. 전8권 (V.2 기본대책 II: 6-7월)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F-6-8 / 2 / 1-294

1976.8.16.~20.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되는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의 기본대책 및 지지교섭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는 1976.6월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의 한국 문제에 관한 비망록을 작성하여 해당 공관에 배포하고 대주재국 교섭 등에 활용하도록 함.
2. 외무부는 1976.6월 비동맹 정상회의에 대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시행하고자 31개 공관에 아래 사항을 교섭하도록 지시함.
 - 동 정상회의의 정치선언 초안 중 한국관계 독소 조항의 중화를 위한 교섭
 - 한국입장이 초안 논평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요청
 - 비동맹 외무장관회담 및 정상회의 시 발언 교섭
 - 기조연설에서 한국입장 대변
 - 정치위원회 토의 시 한국입장 대변 및 한국관계 조항이 균형 잡힌 내용이 되도록 협조 요청
3. 미국은 1976.7월 키신저 국무장관 명의 서한을 통해 주요 비동맹국을 대상으로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한국 문제에 관하여 편파적인 결정을 내리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여타국가에 대해서도 한국입장을 재천명하는 미국 정부의 비망록을 제시하기로 함.
 - 서한 발송 대상국(14개국)
 - 비망록 제시, 미국입장 설명 대상국(34개국, 우방 및 비동맹)
 - 비망록에 따른 구두 설명 대상국(6개국)
4. 외무부는 1976.7월 비동맹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실무직원 2명을 콜롬보에 파견, 한국 통상 대표부의 활동을 강화하고 현지에서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벨기에) 대사관과 긴밀히 접촉하도록 함.
 - 외무부는 상기 5개국 주재 공관에 주재국 측의 협조를 당부하도록 지시함
5. 외무부는 1976.8월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의 의장 앞 국무총리 명의 전문 메시지를 타전하기로 함.

비동맹 정상회의, 제5차. Colombo(스리랑카), 1976.8.16.-20. 전8권 (V.3 회의경과 I : 조정위 실무급회의, 외상회의)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F-6-8 / 3 / 1-153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의 조정위원회(1976.8.9.~10.) 및 외상회의(1976.8.11.~14.)에 관한 내용임.

1. 조정위원회 주요 내용(17개국)

- 정치선언 초안 및 각 회원국 코멘트 또는 수정안을 외상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

2. 외상회의 주요 내용

- 한국 문제는 1976.8.14. 비동맹 외상회의 정치위원회에서 거론되기 시작함.
 - 북한은 스리랑카 측이 기초한 정치선언 중 한국 관계 부분을 인도차이나 및 베트남 문제와 분리하여 토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 관계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수정안 및 한국 관계 별도 결의안을 소개하고 이를 초안위원회에 회부하자는 긴급 동의안을 제의함.
 - 이에 대해 페루 대표가 한국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며 한국 문제는 정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라이베리아 대표가 이를 지지함으로써 북한의 긴급동의안이 저지됨.
- 아프리카 5개국(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중앙아프리카, 가봉, 모로코, 감비아)이 8.15. 스리랑카가 기초한 정치선언 중 한국관계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함.
 - 정치선언의 한국관계 부분을 완화시키고 강경한 내용의 한국관계 별도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임.
- 한국 문제를 초안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8.16. 정치위원회에서 토의하기로 함.
 - 한국 문제에 관해서는 스리랑카 측 초안, 북한 측 수정안, 아프리카 5개국 수정안 및 북한의 별도 결의안 등 4개안이 제출됨.

3. 외무부는 1976.8.12.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 의장(스리랑카 총리) 앞 국무총리 명의 메시지를 주콜롬보통상대표부를 통해 스리랑카 외무부에 전달함.

- 동 회의에서 한국의 참석 없이 논의될 한국 문제와 관련, 한반도의 객관적 현실에 입각한 공정한 토의를 촉구하고,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입장을 설명함.

비동맹 정상회의, 제5차. Colombo(스리랑카), 1976.8.16.-20. 전8권 (V.4 회의경과 II: 본회의)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F-6-8 / 4 / 1-464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 본회의(1976.8.16.~20.)에 관한 내용임.

1. 비동맹 외무장관회의 정치위원회에서의 한국 문제 관련 주요 내용(1976.8.16.)

- 입장별 지지 또는 옹호 발언국
 - 북한입장 지지 발언국(17개국), 아프리카 5개국 수정안 지지 발언국(8개국), 한국입장 옹호 발언국(8개국)
- 한국 문제를 장시간 토의하였으나, 이 문제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치선언 중 한국 문제에 관한 3개안이 초안위원회에 회부됨.

2. 초안위원회에서의 한국 문제 관련 주요 내용(1976.8.19.)

- 북한이 제출한 별도 결의안에 관하여 아래 14개국이 한국입장 지지 발언을 하였으나, 초안위원회는 동 결의안을 수정 없이 채택함.
 -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인도,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모로코, 오만, 라이베리아, 케냐, 시에라리온, 감비아
- 정치선언 중 한국관계 조항은 초안위원회가 북한 측 안의 1항 말미를 수정하여 채택함.

3. 회의 결과

- 비동맹 외무장관회의 본회의는 1976.8.19. 기초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정치선언 중 한국관계 조항 및 북한 제출 별도 결의안을 아래와 같이 채택함.
 - 정치선언 중 한국관계 조항은 원안대로 채택함.
 - 북한제출 별도 결의안은 찬·반 격론 끝에 원안대로 채택함.
 - 북한제출 결의안에 대해 19개국이 유보 발언을 하고 특히 시에라리온, 페루, 라이베리아,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및 모로코는 북한제출 결의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함.
 - 정치위원회 의장은 동 결의안 채택을 선언하면서 결의안에 대해 유보 또는 반대 발언을 한 대표단이 동 취지를 문서로 제출하면 결의안에 대한 유보로 기록할 것이라고 함.
- 동 회의 정치선언 및 결의안의 한국관계 부분에 대한 25개국의 유보내용은 1977.3월 배포된 제5차 비동맹 회의 공식회의록에 수록됨.

4. 외무부는 1976.8월 비동맹 회의의 한국 문제 토의과정에서 한국입장에 대해 적극 지지 발언한 아래 18개 국가에 대해 각국 공관을 통해 사의를 표함.

-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라이베리아, 아르헨티나,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중앙아프리카, 가봉, 모로코, 감비아, 요르단, 인도, 코트디부아르, 케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비동맹 정상회의, 제5차. Colombo(스리랑카), 1976.8.16.-20. 전8권 (V.5 회의문서, 각국 연설문, 각국 대표단)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F-6-8 / 5 / 1-343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 관련 자료임.

1. 회의 문서

-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 정치선언
-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1976.9.5., 유고슬라비아 발간)에 게재된 비동맹 회의 관련 인터뷰 기사 및 자료
- 각국 제안자료

364

2. 연설문

- 루마니아 대통령, 방글라데시 대통령, 미얀마(구 버마) 수상, 북한 대표단(허담, 박성철), 시리아 대통령, 베트남 수상, 유고 대통령, 이라크 부통령, 중앙아프리카 외무장관, 캄보디아 대통령, 케냐 외무부장관, 쿠바 부수상

3. 각국 대표단 관련 문서

- 명단, 도착일자, 호텔 방배치

비동맹 정상회의, 제5차. Colombo(스리랑카), 1976.8.16.-20. 전8권 (V.6 각국 언론보도)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F-6-8 / 6 / 1-144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 관련 언론보도 내용임.

- 아래 공관은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에 대한 주재국의 언론 보도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 주오스트리아, 주인도네시아, 주호주, 주싱가포르, 주말레이시아, 주케냐, 주미국, 주모로코, 주네덜란드, 주일본, 주요르단, 주쿠웨이트, 주인도네시아, 주과테말라, 주필리핀, 주인도대사관
 - 주홍콩, 주호놀룰루총영사관
 - 주콜롬보통상대표부, 주제네바대표부

비동맹 정상회의, 제5차. Colombo(스리랑카), 1976.8.16.-20. 전8권 (V.7 국가별 지지교섭 I : 아주, 구주, 미주 지역)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F-6-8 / 7 / 1-458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와 관련 아주, 구주, 미주 지역 내 각국별 지지교섭에 관한 내용임.

1. 아주지역

- 네팔,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구 버마),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2. 구주지역

-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포르투갈, 프랑스, 벨기에, 독일

3. 미주지역

- 가이아나,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수리남, 에콰도르,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 아르헨티나, 자메이카, 파나마, 페루

비동맹 정상회의, 제5차. Colombo(스리랑카), 1976.8.16.-20. 전8권 (V.8 국가별 지지교섭 II: 중동, 아프리카 지역, 유엔대표부)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F-6-9 / 1 / 1-388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와 관련 중동, 아프리카 국가 및 주유엔대표부를 통한 지지 교섭에 관한 내용임.

1. 중동지역

-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쿠웨이트, 튀니지

2. 아프리카지역

- 가봉,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보츠와나, 세네갈, 스와질랜드, 시에라리온, 부르키나파소 (구 오토볼타), 우간다,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잠비아, 중앙아프리카, 차드,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3. 주유엔대표부를 통한 교섭

- 외무부는 대비동맹국가 교섭에 관한 공관 보고를 주유엔대표부에 요약 통보하여 비동맹 관련 교섭에 참고하도록 함.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Algiers(알제리), 1976.5.30.-6.3.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F-6-9 / 2 / 1-235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가 1976.5.30.~6.3. 알제리 알제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조정위원회 17개국 및 북한 등 14개국이 옵서버로 참가
- 한국 문제 논의 및 공동성명 발표

2. 한국은 동 회의에 대비하여 주요 우호국(말레이시아 등)을 접촉하여 아래 입장을 전달하고 지지를 요청함.

- 동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가 공정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견지되도록 할 것과 비동맹 조정위원회 주석(註釋) 작성 과정에서 북한입장만이 일방적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 요청

3. 공동성명 중 한국 문제 관련 내용 및 관련 외교전

- 주요 내용
 - 한반도 통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북한의 정책에 대한 지지 재확인, 한국 주둔 모든 외국 군대 철수 필요 확인
- 한국입장을 대변한 국가
 - 말레이시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네팔, 라이베리아 등
 - 말레이시아는 동 내용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좌절됨.
- 공동성명 중 한국 문제에 대한 평가
 - 외국 군사기지 해체 요구가 처음으로 추가되고 남북한 유엔가입과 관련된 조항은 포함되지 않음.
 - 강경한 표현보다는 부드러운 표현 사용

비동맹 공보 심포지엄. Tunis(튀니지), 1976.3.26.-30.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F-6-9 / 3 / 1-67

비동맹 공보 심포지엄이 1976.3.26.~30. 튀니지에서 개최됨.

1. 한국 측 활동 내용

- 문화공보부는 1976.3.22. 외무부에 동 회의에서의 북한 책동을 저지하도록 관련 공관장을 통한 대비책 마련을 요청
 - 북한의 호전성 및 위장 평화와 통일정책을 폭로하고 한국의 평화지향적인 통일정책과 경제 발전상을 회의 참석 비동맹국 대표에게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
- 주튀니지대사는 동 심포지엄 만찬에 참석하여 한국 측에 우호적인 스리랑카 대표 등과 접촉

2. 북한 측 활동 내용

- 차병옥 외교부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파견
- 심포지엄 경비 5천 달러 지원
- 동 회의에서 쿠바 등 친북한 국가들을 동원하여 스리랑카 대표에게 북한 공관 재개설 요구

3. 회의 결과

- 최종 보고 채택
- 강대국의 공보 독점에서 탈피하기 위한 비동맹 국가의 행동강령을 채택하여 비동맹국가 간 상호교환 및 협조
- 비동맹국 공보기관 대표회의 소집 및 비동맹 공보과학센터 설립 등 권고

비동맹 통신사 연합회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F-6-9 / 4 / 1-113

1976년 중 비동맹국가 간의 뉴스 교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사 연합회의 개최에 관한 내용임.

1. 비동맹 통신사 연합회의(1976.4.3.~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주요 논의 대상
 - 비동맹국가의 사회적 빈곤에 따른 문맹퇴치 등 후진성 극복
 - 언론인 교육을 위한 유네스코와의 협력 등
- 북한 측도 옵서버로서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관 직원이 참석하였으나 발언하지는 않음.

2. 비동맹 통신사 연합 각료급 회의(1976.7.8.~13., 인도 뉴델리)

- 인도 외무부에서 주인도 북한대사관으로 보내는 동 회의 초청장이 주인도대사관으로 잘못 배달됨.
- 주인도대사관은 7.16. 동 회의 관련 아래 자료를 보고함.
 - 간디 수상 개회사, 회의 의장 기조연설
 - 김일성 광고
 - 뉴스, 풀 현장
 - 회의 결의문 및 선언문
 - 제2위원회 보고서
 - 관련 기사

미국 FMS(Foreign Military Sales) 차관에 의한 대여합정 구매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6-45 / 4 / 1-81

1975~76년 중 미국 FMS(대외군사판매) 차관에 의한 합정·예인선 구매 및 대여 반환에 관한 내용임.

1. 고속포함 대여 연장 추진

- 한국 정부는 1975.3.28. 주미국대사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대여 중인 고속포함 1척의 대여 연장을 추진함.
 - 1976.10.15.까지 대여 만료일의 연장 추진
 - 미 해군 측의 판매 가격이 300만 달러로 고가임.
- 외무부는 1976.6.17. 국방부장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달함.
 - 미국 국무부 측은 한국 정부가 1978.10.15. 이전에 동 고속포함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1976.10.15.까지 표명한다면 대여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것이며, 한국 정부가 이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국 정부는 동 고속포함을 처분할 계획임.

2. 해양조사선 탐양호 반납

- 1971.7.1.~76.7.1. 한국은 미국 동해군 소속 해양예인선 티라묵호를 무상 양여 받아 '탐양호'로 개칭하고 해저 광물자원탐사 업무를 수행해옴.
- 1975.10월 한국 국립지질광물연구소는 탐양호를 조사선으로 사용하던 중, 새로운 조사선 건조로 탐양호의 조기 반환을 결정함.
- 과학기술처는 국방부(1975.10.16.)와 외무부(11.17.)에 각각 동 조사선의 반납을 통보하였고, 1976.2.12. 미 해군성에서 사용 종결을 위한 수속 진행에 관한 통보를 받음.
- 과학기술처는 1976.7.2.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무상대여협정 만료일(1976.7.1.)까지 동 조사선 반납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 관리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속한 반납 및 협조를 요청함.

한·미국 간의 FMS(Foreign Military Sales) 차관협정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6-45 / 3 / 1-115

1976년 미국 FMS(대외군사판매) 차관 도입을 위한 협정에 관한 내용임.

1. 1976.3월 1976 회계연도(FY76) 제1차 FMS 차관 3천7백만 달러 도입을 위한 국내 조치가 이루어짐.

- '공공차관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경제기획원장관이 주미국대사를 정부 대표로 보임함.
- 주미국대사가 협정서에 서명하고, 주미국 국방무관이 약속어음에 서명함.

2. 1976.5월 1976 회계연도(FY76) 제2차 FMS 차관 4천만 달러 도입을 위한 국내 조치가 이루어짐.

- 주미국대사관 국방무관을 정부대표로 함.
- 경제기획원장관 서명 대신에 경제기획원 법률자문이 서명하도록 조정됨.

3. 1976.7.1. 국방부는 미국 Citibank N.A.와 295만 달러에 대한 차관 협정을 체결함.

- 외무부는 9.3. 동 차관 협정의 송달대리인으로 주뉴욕총영사를 지정함.

4. 1976.9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협정 체결 및 부수 업무(차관자금 인출권 등)를 주미국 무관에서 신임 군수근무단장으로 이관함.

주한미군 철수(감축): 각국 반응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2 / 동북아1

MF번호 G-6-45 / 5 / 1-82

1976년 중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 주장에 대한 각국 반응에 관한 내용임.

1. 일본 언론 반응(1976.6.4.)

- 일본·한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포함한 120명의 일본 중의원, 참의원들은 미국 의원들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비판하고, 경각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함.

2. 주일본대사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한 한국 정부의 입장(1976.11.15.)

- 주한미군은 한·미국 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으로 북한 견제 및 아태지역 균형 유지에 중대한 역할 수행
-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그 철수는 극동지역의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위험 초래
- 주한미군 철수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님을 직·간접적으로 미국 정부 측에 전달 요망

3. Samuel 영국 외무성 극동국장 면담(1976.11.19.)

- 향후 카터 정부(철군 언급)의 확실한 태도는 알 수 없음.
- 주한미군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같은 입장임.

4. 야나기야 일본 외무성 국장 기자회견(1976.12.28.)

- 한반도의 안정을 원함.
- 주한미군 존재는 한반도의 균형을 보장하고 있음.
- 한반도 정세가 아직 불안정하므로 가까운 장래까지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불가결함.
- 갑작스런 대규모 철군이 한반도에서의 불안정을 조성해서는 안됨.

주한미군 철수(감축) 문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2 / 동북아1

MF번호 G-6-45 / 6 / 1-282

1976년 중 카터 미국 대통령 후보의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공약에 대한 양국 정부 및 언론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1977 회계연도(FY77) 국방예산 심의 시, 주한미군을 포함한 4만 7천 명의 해외 주둔 미국 지상군을 감축하자는 Dellums 의원의 수정안이 부결됨(1976.4월).

2. 한국 정부의 아주지역 대응 방안(1976.11.11.)

- 대일본: 일본 정부고위층이 미국에 대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설득하도록 조치, 일본 의원들이 카터 대통령 앞 서한을 발송하도록 유도, 대일본 언론 대책 강화
- 대아세안 5개국: 주요 인사들의 미국 인사 접촉 시 주한미군 주둔 지지 요청, 아세안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 지지 요청
- 대호주·뉴질랜드: 호주·뉴질랜드 외무장관 초청, 외무부장관 방문 추진.

3. 외무부는 아주지역 및 구주, 미주지역 주요 공관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리고 주한미군 주둔 지지 요청에 관한 활동 지침을 시달함(1976.11.13.).

4. 한국 정부는 외무부와 국방부 공동으로 '미군철수 문제 합동 연구반'을 구성함(1976.12월).

5. 참고자료

-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배포한 보도자료(1976.11.22., 11.24.)
- Rumsfeld 미국 국방위원 CBS 인터뷰 주요 내용(11.28.)
- 미국 하원 국제소위원회 Mauzy 전문위원 및 Bill Carvelink 보좌관 면담 요지(11.29.)
- L.A. Times 한국 국방비 증가 관련 기사 주요 내용(12.5.)
- 유엔의 재래식무기제한정책 토론회 후 발행된 보고 책자(Controlling the Conventional Arms Race) 중 한국 관련 부문 요약(12.8.)

바르샤바(Warsaw) 조약기구 정치자문위원회. Bucharest(루마니아), 1976.11.25.-26.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3

MF번호 G-6-45 / 7 / 1-24

바르샤바조약기구 정치자문위원회가 1976.11.25.~26.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정치자문회의는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최고 결정기관으로 소련을 비롯한 7개국 정상이 참석함.
- 동 회의는 1966.7월 첫 번째 회의 이후 6번째 회의임.

2. 회의 결과

- 긴장 완화 확대: '핵무기 선제사용금지 협정' 제의
- 바르샤바조약기구 기능 확대: 외무장관회의 정기 개최를 위한 기구 설치 합의
- 동구국가의 구주 현상 고정화 정책을 재확인하여 역내 결속기능 강화

3. '핵무기 선제사용금지 협정' 제안 배경

- 대서방 군축협상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목적
- 긴장완화에 대한 서방의 비판 봉쇄
- 동구권의 평화공세 부각

4. 외무장관회의 상설기구와 사무국 신설 배경

- 정치적 기능 긴밀화
- 동구권의 소련 이탈 방지
- 나토에 대항하는 일관된 외교정책 수행

ANZUS(호주·뉴질랜드·미국에 의한 태평양 공동방위체) 이사회, 제25차. Canberra(호주), 1976.8.3.-4.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6-45 / 8 / 1-15

ANZUS(태평양안전보장조약) 이사회가 1976.8.3.~4.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주요 의제
 - 남태평양 도서 제국에 대한 최근 소련의 외교적 접근 시도 관련 공동 대책 마련
- 참석자
 - Talbys 뉴질랜드 부수상, Robinson 미국 국무부 차관, Peacock 호주 외상

376

2. 주요 논의 사항

- 남태평양 도서지역에 대한 원조 증대 필요
- 인도양에서의 소련 군사력 증강에 관심 표명
- 미국 해군기지 확장 설치 환영
- 핵무기 비확산조약의 안전대책 강화

3. 공동 성명 발표(1976.8.4.)

- 소련의 인도양 진출에 대처하고 동해지역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위해 군사협력체제 강화(미 해군 기지 건설 등)
-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있어서 안정과 평화 유지가 3국의 이해관계에 중요
- 핵확산 금지체제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 지지
- 미국·소련 간 군축 교섭은 세계 안전과 균형을 위해 필요
- 아시아·태평양에 있어서 중국의 잠재적 기여에 유의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G-6-45 / 9 / 1-89

1976년도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한·미국 양측 위원장과 위원 임명 및 교체에 관한 자료임.

1. 한국 정부는 1976.1.12.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의 한국 측 대표로 박쌍용 외무부 미주국장을 임명함.
2. SOFA 한국 측 시설분과위·구역분과위·형사재판권분과위·교통분과위·군민관계임시분과위·출입국임시분과위 위원 교체 임명 통보 및 각 위원의 이력사항과 합동위원회 미국 측 위원 교체 임명 사실 통보, 각 위원의 이력사항이 수록되어 있음.
3.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관계관 명부가 수록되어 있음.

37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제113차 및 서명 10주년 기념행사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2011-89 / 5 / 1-248

1966.7.9. 서명된 SOFA(주둔군지위협정) 관련 1976.7월 중 개최된 제113차 SOFA 합동위원회의 및 10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내용임.

1. SOFA 10주년 기념행사

- 외무부차관 주최 기념 칵테일파티(1976.7.8.)
 - 참석자: SOFA 합동위원회 한·미국 대표 및 위원, 분과위원장, 외무부장관, 주한 미국대사관, 주한미군 관계자 등 다수
- 기념 사열식(1976.7.9., 용산 미8군 Knight Field)
 - 참석자: 외무부장관, 주한 미국대사, 주한 미군사령관

2. 제113차 SOFA 합동위원회(1976.7.9., 미8군 SOFA 회의실)

- 미국 측 대표는 시설구역 분과위원회에 대한 과제 위촉 및 분과위원회 건의서에 대한 양측 대표의 서명 방법 간소화를 제의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09-111차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G-6-46 / 1 / 1-294

제109~111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의 의제별 회의록임.

1. 제109차 회의 주요 의제(1976.1.15.)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과제 부여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권고사항
- 재무분과위원회 권고사항
- 상업분과위원회 보고서
- 미국 측 계약자 지정에 대한 메모
- 한국 정부에 제시된 메모

2. 제110차 회의 주요 의제(1976.2.26.)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과제 조정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권고사항
- 미국 측 계약자 지정에 대한 메모
- 한국 정부에 제시된 메모

3. 제111차 회의 주요 의제(1976.3.25.)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과제 조정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권고사항
- 향토예비군 면제에 관한 절차 수정
- 미국 측 계약자 지정에 대한 메모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Talking paper, 제113-115차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G-6-46 / 3 / 1-131

제113~115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의 의제별 회의록임.

1. 제113차 회의 주요 의제(1976.7.9.)

- 합동위원회 절차 수정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과제 조정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권고사항
- 재무분과위원회에 대한 과제 부여
- 미국 측 계약자 지정에 대한 메모
- 미국 측 계약자 지정 취소에 대한 메모

2. 제114차 회의 주요 의제(1976.8.26.)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과제 부여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권고사항
- 미국 측 계약자 지정에 대한 메모
- 군민 관계 특별 임시위원회의 제21차 보고서에 대한 고려사항

3. 제115차 회의 주요 의제(1976.9.30.)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과제 부여
- 재무분과위원회 과제 부여
- 시설지역분과위원회 권고사항
- 미국 측 계약자 지정에 대한 메모
- 한국 정부에 제시된 최근 리스트에 대한 메모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15차-116차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G-6-46 / 4 / 1-122

제115~116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의 의제별 회의록임.

1. 제115차 회의 주요 의제(1976.9.30)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과제 부여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권고사항
- 미국 측 계약자 지정에 대한 메모
- SOFA 이행상 한국 정부에 제시된 메모

2. 제116차 회의 주요 의제(1976.11.19)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과제 부여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권고사항
- 전력서비스 장벽에 대한 협의 종료
- 미국 측 계약자 지정에 대한 메모
- 한국 정부에 제시된 리스트에 관한 메모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제105-109차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2016-111 / 1 / 1-360

제105~109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관련 내용임.

1. 제105차 회의(1976.1.28.)

- 참석범위: 양측 시설구역분과위원 전원 24명(각 12명)
- 의제: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토지사용 및 해제, 이와 관련된 제반 안건 71건

2. 제106차 회의(1976.3.11.)

- 참석범위: 양측 시설구역분과위원 전원 24명(각 12명)
- 의제: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토지사용 및 해제, 이와 관련된 제반 안건 67건

3. 제107차 회의(1976.5.7.)

- 참석범위: 양측 시설구역분과위원 전원 24명(각 12명)
- 의제: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토지사용 및 해제, 이와 관련된 제반 안건 68건

4. 제108차 회의(1976.6.8)

- 참석범위: 양측 시설구역분과위원 전원 24명(각 12명)
- 의제: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토지사용 및 해제, 이와 관련된 제반 안건 68건

5. 제109차 회의(1976.7.27.)

- 참석범위: 양측 시설구역분과위원 전원 24명(각 12명)
- 의제: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토지사용 및 해제, 이와 관련된 제반 안건 69건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제110-112차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G-6-46 / 6 / 1-90

제110~112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관련 내용임.

1. 제110차 회의(1976.9.14.)

- 참석범위: 양측 시설구역분과위원 전원 24명(각 12명)
- 의제: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토지사용 및 해제, 이와 관련된 제반 안건 58건

2. 제111차 회의(1976.10.19.)

- 참석범위: 양측 시설구역분과위원 전원 24명(각 12명)
- 의제: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토지사용 및 해제, 이와 관련된 제반 안건 57건

3. 제112차 회의(1976.12.9.)

- 참석범위: 한미 시설과 구역분과위원회 위원 전원 24명(각 12명)
- 의제: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토지사용 및 해제, 이와 관련된 제반 안건 64건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노무분과위원회 -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6-46 / 7 / 1-26

1976년 중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노무분과위원회에서 다룬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 관련 내용임.

1. 주한미군 내 미국 은행의 한국인 근로자 부당해고에 대한 SOFA 적용 여부 검토 사례

- 동 건은 SOFA 협정의 적용 대상 제외

2. 주한미군 PX 근무 한국인 종업원 구속 사례

- 밀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외국기관노조가 불만을 표시함.

3. 미군 부두 하역 업무 이관에 따른 문의

- 업무가 한국군으로 이관되는 경우, 한국인 노동자 실직 우려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 주한미군용 및 비세출 자금기관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사용료 문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6-46 / 9 / 1-17

1976년 중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가 다룬 주한미군용 및 비세출 자금기관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사용료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Donald S. Macdonald 한·미국 합동위원회 미국 측 간사는 1976.6.23. 서한을 통해 비세출 차량(PX 차량 등)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요청함.
2. 외무부는 1976.6.30. 서울시에 SOFA 협정 규정 및 해석에 따른 유료도로 사용료 징수 면제를 요청함.
3. 서울시는 1976.7.3. 회신을 통해 미 군용 차량은 면제에 해당하나, 비세출 차량은 징수 대상이라고 통보함.
 - 비세출 차량은 SOFA 규정상 미국 군대 용도로 보아야할 특별한 규정 미비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G-6-46 / 10 / 1-432

1974.12월~76년 중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공공용역 분과위원회의 의제별 협의 관련 내용임.

1. 1974년

- 통신 요금 개정에 대한 협의

2. 1975년

- 인천시 상수도 요금 협의 요청
- 춘천시 상수도 요금 협의 요청
- 철도 화물 운임의 개정에 대한 각서 협의
- 공공 용역에 관한 협의 절차 개정 각서 서명
-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서울의 수도 요금의 개정에 관한 각서 교환
- 공공요금 조정에 관한 회의
- 공공용역 협의에 관련된 절차 검토 협의 및 각서 교환
- 철도 여객 및 화물운임 개정에 대한 협의
- 전력 요금 협의

3. 1976년

- 서울시 수도사용료 및 손료(損料) 한미 합동위원회 협의 요청
- 군산시 미군차량 도선료 한미 합동위원회 협의 요청
- 부산시 수도사용료 및 손료(損料) 한미 합동위원회 협의 요청
- 대구시 수도사용료 및 손료(損料) 한미 합동위원회 협의 요청
- 체신 요금, 철도 화물 요금 및 군산시의 미군에 대한 도선 요금에 관한 협의
- 철도 화물 및 체신 요금, 여객 요금 개정 협의 요청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위원회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6-46 / 11 / 1-22

1976.3.27. 관세청이 외무부에 통보해 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위원회에서 논의된 수출입 이사회물 합동검사에 관한 각서 관련 내용임.

1.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위원회에서 수출입 이사회물 합동검사에 관한 각서가 서명됨.
 - 수입물품 중 개인취득 시점에서 기록 및 관리가 용이한 품목을 취득자별로 한·미국 양국이 기록하여 두었다가 출국 시 양국이 공동으로 대조 확인하는 방법 합의
2. 미국 측이 동 안건은 성질상 재무분과위원회 소관 사항인 점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무분과 위원회에서 처리하기를 희망해 온 것에 대해 관세청이 동의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됨.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 분과위원회, 제33차 - 비무장지대(DMZ)내 대성동 관련 제문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6-46 / 12 / 1-18

1976.4월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 회의에서 미국 측이 요청한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 마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행정 강화대책 관련 내용임.

1. 1976.4.9. 제33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측은 휴전협정 전반에 관한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행정 강화 대책 보고를 요청함.

- 내무부는 경기도 파주군을 통해 4.19. 주한 미군사령부에서 관련 브리핑을 시행하기로 약속하고 외무부 등 관계부처에 브리핑 자료에 대한 의견을 조회함.

2. 내무부 작성 '대성동 현황' 자료가 수록됨.

SOFA(주둔군지위협정) - 주한미군 적용 전력요율 문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6-46 / 15 / 1-268

1976년 중 SOFA(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 적용 전력 요율 문제를 협의한 내용임.

1. 한전은 산업용과 비산업용으로 전기 요율 구분 체계를 도입함(1973.12.1.).

- 미군에 대해 비산업용 요율 중 한국군에 적용되는 요율로 인상 적용
- SOFA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한 미국 측의 반대로 징수 불가능

2. 양측 SOFA 제6조 제2항의 'any other user'에 대한 해석상 이견 문제

- 한국 측(한전)은 성격과 목적이 비슷한 사용자로 해석하여 한국군과 동등한 요율 적용
- 미국 측은 어떤 사용자(한국군 등)로 해석하여 한국군보다 더 유리한 요율 적용을 주장

3. 한국 측은 타협안으로 한전 요율을 적용하되 상업용에 대해 10~15% 할인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함.

4. 미국 측과 타협안 도출

- 미군 시설별로 구분하여 적용
- 102개 시설은 일반 요율 적용, 52개 시설은 산업 요율 적용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2016-111 / 10 / 1-126

1. 법무부는 1976.12.15. 외무부장관 앞 서신을 통해 한·미국 합동단속반을 설치·구성하여 계엄 선포나 전쟁 발발 시 미군범죄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함.
 - 계엄선포나 전쟁 발발 시 SOFA(주둔군지위협정) 효력 정지
 - 한·미국 합동 단속반 설치 제의
2. 외무부는 1976.12.29. 법무부장관 앞 답신에서 적절한 시기에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에 동 건을 위촉할 예정임을 통보함.

주한미군 APO(미국군사우체국) 문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3

MF번호 G-6-47 / 2 / 1-48

1976년 중 한국 정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조사한 APO(미국군사우체국) 관련 내용 및 대책임.

1. 한국 정부는 APO를 통해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 검사 절차 등 APO 운영과 관련된 일본, 독일 등 국가의 사례를 재외공관을 통해 조사함.

- 검사 장소, 검사 면제 대상, 검사 비율, 조정 절차 등 파악
- 공관별 보고서

2. 참고자료

- APO 문제(1976.7.30.)
- APO 현황과 대책(1976.10.11.)

휴전협정 관계자료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6-47 / 4 / 1-175

1976년 중 휴전협정과 관련된 분석, 규정 등이 포함된 내용임.

1. 휴전협정 검토(1975.10.7.)

- 남북한의 입장차와 관련하여 휴전협정 검토
- 기구는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시위원회로 구성
 - 군사정전위원회에 한국 임명권 배제, 중립국감시위에 친북한 성향인 폴란드, 체코 임명으로 한국에 불리한 구조
- 군비제한 조항
 - 군사증원, 무기반입 등은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시위원회 시찰 사항으로 동 위원회의 구조상 한국에 불리함.
- 영역에 관한 조항
 -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에 대한 한국 영역권 확보
- 협정 운용을 위한 회담 개최지
 - 정전위원회 본부를 판문점 부근에 설치
- 협정 불이행에 관한 대응 조치
 - 구체적 대응조치가 없어 강행규정이라 보기 어려움.
- 휴전협정과 정치협정 간 관계
 - 북한의 외국군 철수 및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한 선전용 재료

2. 휴전 협정 관련 UNC(유엔사령부) 규정(1976)이 수록됨.

주한 유엔군사령부(UNC) 연례 보고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 북미2

MF번호 G-6-47 / 8 / 1-22

1. 스크랜튼 주유엔 미국대사는 1976.12.23. 유엔 안보이사회 의장 앞 서한을 통해 1957.9.1.~ 1976.12.20. 휴전협정 유지에 관한 UNC(유엔군사령부) 보고서를 제출함.

2. 보고서 주요 내용

- 지난 1년간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은 10,801건
- 후속조치 마련 시까지 휴전협정 존속이 필수적
- 협정이행 노력 지속

북한의 도발사건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2 / 동북아2

MF번호 G-6-47 / 9 / 1-132

1976년 중 북한의 도발사건에 관한 내용임.

1. 비무장지대 내 총격사건

- 사건 개요
 - 북한은 1976.7.5.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에서 총격사건을 자행, 한국 측은 기관총 등으로 대응
- 유엔군사정전위원회 개최
 - 제378차 본회담에서 북한 측은 무반동총 응사를 비난
 - 유엔군 측은 북한의 조작 발언을 일축하고 북한의 사격을 항의
- 외무부 대변인 성명
 - 외무부는 8.7. 대변인 성명을 발표, 북한의 도발행위를 비난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
- 평가
 - 북한의 남측 사격 날조 주장이 되풀이됨을 감안 시, 한국 측을 유인하려는 도발행위로 평가

2. 어선 납북사건

- 사건 개요
 - 1976.8.30. 동해상에서 23명이 승선한 오징어잡이 어선 선진호는 기상불량으로 인한 항로 착오로 북방한계선 북방으로 들어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
- 국제적십자사 협조 요청
 - 주제네바대표부는 9.1. 국제적십자사를 접촉하여 대한적십자사(한적)의 메시지 전달과 어선과 어부의 조기 반환 및 석방을 위한 협력을 요청
- 한적과 북한적십자회(북적) 간 교신
 - 한적은 8.30. 북적 대표 앞 통지문을 발송, 인도주의에 입각한 송환, 석방을 요청
 - 북적은 9.2. 평양방송을 통해 송환협력 용의를 표명
 - 한적은 9.3. 2차 통지문을 북적에 발송
 - 북적은 9.6. 평양방송으로 판문점을 통한 관계자료 수교를 통보
 - 한적은 9.6. KBS 방송으로 제3통지문을 발송, 자료 수교방안에 동의
 - 북적은 9.24.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4차 통지문 발송
 - 한적은 9.25. 5차 통지문을 KBS를 통해 발송
- 선원 석방
 - 북한은 중앙통신을 통해 선원 및 선박의 귀환을 발표
 - 선원과 선박은 10.14. 속초항에 도착

북한의 판문점 집단 만행사건, 1976.8.18. 전6권 (V.3 미국의회 반응)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6-48 / 3 / 1-266

1976.8.18. 북한의 판문점 집단 만행사건 발생 후 미국 의회의 반응과 3.1 명동성당 민주구국선언사건 관련 한국 정부의 인권탄압을 비난하는 Fraser 의원 결의안 처리 관련 내용임.

1. 1976.8월 Wilson 및 Murphy 등 친한파 미국 의원들은 하원 본회의에 북한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함.

-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미군 유족에게 조의를 표명

2. 1976.9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판문점 사건 및 명동 사건 관련 토의

- 9.1. 청문회에서 판문점사건 및 명동사건(3.1., 민주구국선언사건)에 대한 Fraser 결의안 채택
 - 북한군의 판문점 미군살해사건을 개탄하며 유족에게 조의 표명
 - 북한에 한반도 주변에서의 긴장조성 행위 중지 요청
 - 명동사건 관련자에 대한 유죄선고에 유감을 표하며 동 선고 철회 요청
- 9.14. Wilson 및 Derwinsky 의원은 Albert 하원의장 앞 서한을 통해 Fraser 결의안의 본회의 불상정 요청
- 9월 Fraser 결의안 토의는 하원 본회의 일정에서 삭제됨.
 - 국제관계위원회 전문위원은 Fraser 결의안이 Murphy 결의안과 같이 폐기될 것이라고 전망

3.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Fraser 결의안 채택 부결을 위한 주미국대사관의 대의회 교섭 활동 전개 내용이 수록됨.

북한의 판문점 집단 만행사건, 1976.8.18. 전6권 (V.4 홍보활동 및 각국반응)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6-48 / 4 / 1-236

1976.8.18. 북한의 판문점 집단 만행사건 발생 후 한국 정부의 홍보활동 및 각국의 반응 관련 내용임.

1. 홍보활동

- 외무부는 각 재외공관에 공관원들이 주재국 인사, 언론, 외교관을 접촉하도록 지시하고 재외공관이 보고한 홍보활동 결과 및 주재국 언론 등의 반응을 종합 정리
 - 공관별 교민사회의 홍보활동 및 주재국 동향에 대한 보고서
 - 뉴욕 교민사회의 '북한 만행 규탄시위 준비위원회' 구성 등 미국 내 교민사회 활동
- 유엔 Korean War Allies Association은 1976.8.21. 판문점 만행 규탄 홍보물 'Axe wielding Murder at Panmunjom' 제작

2. 각국 반응

- 중국(구 중공)은 1976.9.1.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북한 측 보도를 논평 없이 인용 보도함.
 - 현준국 주중국 북한대사는 8.28. 기자회견에서 동 사건에 대해 '중국의 지지에 감사'라고 밝혔으나 중국 언론에서는 해당 내용 미보도
- Oscar Armstrong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 중국이나 소련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에는 반대해 온 태도를 취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 사건에서 중국이 북한을 도왔다고 생각하지 않음.
- 야나기야 일본 외무성 정보문화국장
 - 중국이 북한을 처음부터 크게 지지할 경우 김일성이 긴장을 고조시킬 때 중국이 이를 계속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소련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함.
- 기타 영국·호주 외무부 간부, 캐나다·홍콩 언론의 반응 등 소개

북한의 판문점 집단 만행사건, 1976.8.18. 전6권 (V.5 언론보도: 미국)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6-48 / 5 / 1-472

1976.8.18. 북한의 판문점 집단 만행사건 발생 후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Wall Street Journal 등 주요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이 수록됨.

- 미국 주요 언론의 판문점 만행사건 보도
- 미국 공군기 한국에 증파(1976.8.19., 워싱턴발 외신 종합)
-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은 황진 주미국 중국(구 중공)연락사무소장과 협의(8.19., 워싱턴발 로이터) 등

북한의 판문점 집단 만행사건, 1976.8.18. 전6권 (V.6 언론보도: 기타 각국)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6-48 / 6 / 1-323

1976.8.18. 북한의 판문점 집단 만행사건 발생 후 기타 국가들의 언론 보도 내용임.

1. 외무부는 1976.8.18. 판문점 집단 만행사건과 관련하여 각국 대사관을 통해 언론 반응을 보고 받고 이를 종합 분석함.

- 보도 상태 및 논조
 - 사실 및 평론을 포함하여 대대적 보도
 - 북한의 만행에 중점
 - 북한의 계획된 도발에 의견 일치
- 평가
 - 북한의 호전성을 전 세계에 인식시키는 계기
 - 홍보 강화(정부 성명, 미 국무부 성명, 언론 보도 등)

2. 각국의 반응

- 국가별로 일시, 출처, 반응 등을 종합 정리
- 각국 언론은 거의 모두 북한의 만행과 도발에 중점을 두어 보도하였으나, 1976.8.21. 페루 El Comercio지는 8.18. 판문점 사건이 미국의 새로운 전쟁 도발 책동이라는 내용의 친북한 기사 게재
 - 동 기사는 Manuel Jesus El Comercio지 기자가 8.13. 이전 수차례 주페루 북한통상 대표부를 방문하여 북한 요원들과 협의한 후 작성한 것으로 8.13. 최종원고가 작성 완료되어 북한 요원들에게 검토를 받은 것으로 확인
 - 주페루대사는 동 사실을 8.18. 판문점 사건이 사전 계획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평가

한·모로코 군사협력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G-6-49 / 13 / 1-105

1976년 중 한·모로코 간의 군사협력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주모로코대사는 1976.3.14. M. Alaoui 모로코 왕실장관과의 면담결과를 보고함.

- Alaoui 장관은 국왕 하산 2세의 특명이라고 전제하면서, 동 국왕이 모로코특공대(commando) 창설을 결정하고 동 특공대 훈련 지도를 위해 한국에서 군사고문단 요원을 지금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함.
 - 동 국왕은 한국군의 우수성과 용맹성을 잘 알고 있으며, 한·모로코 간의 우호관계에 비추어 한국에서 특공대 훈련 교관단을 파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요청한다고 말함.

2. 정부는 모로코특공대 훈련에 관한 전반 계획 및 교관단 파견 여부 등 결정을 위한 사전답사를 목적으로 문영일 육군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조사단을 1976.4.28.~5.11. 모로코에 파견함.

- 모로코 측과의 협의 결과
 - 모로코 측은 교관 요원의 장기간 차출로 인한 지휘공백, 장시간 소요 등 이유로 시급한 현황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모로코 측 교관의 한국파견 훈련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 대표단 건의
 - 모로코 국왕의 간청사항 검토와 군사적으로 최종적인 국가이익을 감안 시, 한국 교관을 모로코에 파견하여 교육훈련, 모로코 측 관계관 약간 명을 초청하여 한국 특수부대 교육훈련 현황 견학

3. 박정희 대통령은 1976.5.22. Sidi Baba 모로코 특사(종교장관)를 접견함.

- 모로코 측은 양국간 경제 및 군사부문 협력관계 증진과 국왕의 한국의 대모로코 군사지원에 대한 관심을 전달
 - 한국 측은 최대한 협조입장을 표명하면서, 한국 교관의 모로코 파견훈련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로코 교관의 한국파견 훈련을 제의

4. 주모로코대사는 1976.6.7. La-raki 외무장관 이임 예방 결과를 보고함.

- 한국 대통령의 군사면의 협력용의 표명과 모로코군 교관의 한국파견 훈련의 이점을 설명
 - 동 외무장관은 Sidi Baba 종교장관이 한국입장을 국왕에게 보고한바, 국왕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

국제기구 분담금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경제기구 / 조약
MF 번호	H-6-35 / 1 / 1-58

1976~77년 중 외부부의 국제기구 분담금 내역 및 지불 영수증임.

1. 1976.1.8. 유엔사무총장은 한국의 UNDP(유엔개발계획) 분담금 27,677달러를 영수하였음을 통보
2. 1976년도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한국의 분담금 1,240파운드 지불 요청 (1976.3.23.)
3. 1975년도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분담금 10,012달러,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분담금 24,333달러,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분담금 28,534달러 송금 조치(1976.9.2.) 및 지불(11.2.)
4. 1976년도 ACDA(아시아개발행정센터) 분담금 10,000달러, 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탐사) 분담금 5,000달러, ASI(아시아통계연구원) 분담금 9,165달러 송금 조치(1976.10.8.)
5. 1975년도 UNCTAD 분담금 잔액 374달러 송금 조치(1976.12.21.)
6. 1975년도 ESCAP 분담금 잔액 957달러, UNCTAD 분담금 잔액 106달러는 명년도에 지불 예정임을 통보(1976.12.22.)
7. 1975년도 마약통제위원회 분담금 3,312달러 및 UNCTAD 분담금 잔액 중 일부 374달러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지불(1976.12.31.)

각국의 유엔 가입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6-35 / 2 / 1-29

1976년 중 세이셸, 앙골라, 사모아(구 서사모아) 등의 유엔 가입 관련 내용임.

1. 세이셸

- 1976.8.9. 유엔 가입 신청서 제출
- 유엔 안보리는 8.16. 세이셸의 유엔 가입 신청 문제를 토의하고 가입을 권고하는 가입위원회의 보고를 만장일치로 채택
- 총회는 9.21. 145번째 유엔 회원국으로 세이셸의 가입을 승인

2. 앙골라

- 1976.4.30. 앙골라의 유엔 가입신청서가 안보리 공식 문서로 배포
- 앙골라 가입 건 처리를 위해 6.23. 안보리 소집
- 베냉 등 3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11.15. 사무총장 앞 공한으로 앙골라의 유엔 가입 신청 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
- 안보리가 11.19. 소집되어 앙골라의 유엔 가입 문제를 가입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
- 미국은 11.19. 안보리에서 앙골라의 유엔 가입에 기권하기로 결정
- 11.22. 안보리에서 9개국 공동제안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13, 반대 0, 기권 1 (미국), 표결불참(중국(구 중공))으로 앙골라 가입권고 결의안 채택
- 총회는 12.1. 146번째 유엔 회원국으로 앙골라의 가입을 승인

3. 사모아

- 1976.11.29. 유엔 가입 신청서 제출
- 안보리는 12.1. 가입심사위원회에 이첩하기로 결정하고 가입 신청을 총회에 회부하기로 합의
- 총회는 12월중 147번째 유엔 회원국으로 사모아의 가입을 승인

4. 베트남의 가입 신청 부결

- 1976.11.15. 개최된 안보리에서 가이아나 등 12개국이 공동제안한 베트남 가입 신청 건이 미국의 반대로 부결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18 국내외 언론보도)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32 / 5 / 1-172

1975.9.16.~12.17. 개최된 제30차 유엔총회 관련 국내외 언론 보도 내용임.

1. 제30차 유엔총회 이전 한국 관련 언론 보도

- 유엔군사령부 해체
 - 동아: 1975.3.26. 휴전유지 대안 협의, 3.27. 유엔군사 대안에 재언함.
 - Korea Herald: 3.28. ROK, US to ask UNSC debate Korean question
 - 서울: 6.5. 유엔군사 남의 일이 아니다.
 - Le Monde: 6.28. 가을 개최되는 유엔총회 시 주한유엔사 해체 요청
 - 마이니치: 6.28. 한국의 유엔군사 해체에 5개국 결의안
 - NYT: 6.28. US offers a plan to end UN Command in Korea
 - WP: 6.28. US urges ending UN Korean role
- 탈유엔 정책
 - 중앙: 5.20. 정부 탈유엔 정책 추구, 5.22. 정부는 1971년 이래 탈유엔화 추구
 - Korea Times: 5.21. Departure from UN said inevitable
 - 동아: 5.26. 한국 문제의 탈유엔화
 - 경향: 5.22. 탈유엔이 인도차이나 사태 결과 적극화
 - 한국: 5.24. 남북결의안 공히 통과 가능성
 - 서울: 5.26. 탈유엔

2. 제30차 유엔총회 관련 사실 및 해설 게재 현황

- 사실
 - 경향: 1975.9.16. 유엔총회의 현실적 과제, 9.22. 현실적인 유엔외교정책
 - 동아: 9.17. 유엔총회와 한국 문제, 9.24. 키신저의 한반도 상륙
 - 서울: 9.17. 개막된 제30차 유엔총회, 9.20. 유엔외교에 전력을
 - 신아: 9.18. 제30차 유엔총회와 한국 문제의 전망
 - 중앙: 9.19. 제30차 유엔총회, 9.23. 키신저 장관 한국회의 제의의 의미
 - 조선: 9.13. 제30차 유엔총회와 한국, 9.19. 대유엔 인식을 바꿀 때
 - 한국: 9.14. 유엔 냉전을 끌어내라
- 해설
 - 경향: 9.17. 제3세력 회오리 속, 9.23. 유엔 밖에서의 해결모색
 - 동아: 9.17. 제30차 유엔총회의 전망, 9.23. 두 가지 새로운 발돋움
 - 서울: 9.17. 유엔의 한반도 문제 토의, 9.24. 한반도에 눈 돌린 키신저 외교
 - 중앙: 9.15. 유엔 30년, 9.23. 한국 관계 4자회담 키신저 제의 풀이
 - 조선: 9.19. 선수 뺀 제1라운드, 9.24. 막후에서 표면으로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6 주유엔대표부 활동, 1976.2-8)

생산연도 1975-1977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6-35 / 8 / 1-236

제31차 유엔총회에 대비하여 1976.2~8월간 주유엔대표부에서 접촉한 각국 외교단 등의 반응 요지 보고임.

1. 1976.2월

- 북한 측 미수교국인 레소토와 말라위를 대상으로 북한의 외교관계 수립 시도를 파악함.

2. 1976.4월

- Core Group 내에서 한국 문제에 대한 각 유엔 회원국의 지지 확보 활동
 - 프랑스, 일본, 필리핀,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대사 등을 대상으로 접촉

3. 1976.5월

- 비동맹 55개국 수도에서의 접촉 후, 각국 대표부 및 유엔사무국 등에 성명서를 배포
- 스웨덴차석대사, 필리핀대사, OAU(아프리카단결기구)대사에 대해 지지 요청 및 입장 파악
- 나이지리아, 브라질, 튀니지, 모리셔스, 예멘, 피지대사 등은 유엔에서 한국 문제의 비생산적 대결 지양 필요성 언급

4. 1976.7월

- 아프리카 11개국을 순방한 Scraton 미국대사를 통해 이들 국가의 한국 문제 입장 파악

5. 1976.8월

- 아르헨티나, 싱가포르대사와 의견교환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11 결의안 제출)

생산연도 1975-1977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6-36 / 3 / 1-167

제31차 유엔총회 한국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등 우방 19개국은 우방 측 결의안 및 안전
설명 각서를 1976.8.20.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함.

1. 유엔 한국 문제 우방 측 결의안 요지

- 한국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
-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한 휴전체제의 불가피성
- 휴전협정 대안 모색을 위한 관계당사자 회의
- 모든 관계당사자의 자제 요청

2. 외무부장관 성명서 발표(1976.8.21.)

- 공산 측 결의안의 부당성 지적
-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합리적이고 현실적 입장 재천명

3. 공산 측 주장의 부당성 및 허구성 등 반박 자료 활용

-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 및 북침 위험 사례 소개
- 한국의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 및 통일을 저해할 2개의 한국조작행위 지적
- 대민족회의 개최 주장 및 동 주장의 허구 지적
- 유엔사 해체 및 유엔기지 하 외국군 철수 허구 지적
- 북한 측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의 허구성 지적

4. 동 우방 측 결의안 지지확보 노력

- 미국은 1976.8.20. 우방 측 결의안에 대한 성명 발표
- 우방 측 결의안은 8.23. 유엔총회 문서로 배포됨.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13 주유엔 북한대표부 동향)

생산연도 1975-1977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6-36 / 5 / 1-190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정치선전 활동 관련 내용임.

1. 주유엔 북한대표부 정치선전 활동과 미국 측 항의

- 1976.3.4. 주유엔 북한대표부 공사는 북한 외교부에서 2.27. 발표한 미국의 캄보디아 공격을 비난하는 성명문 낭독 및 질의응답 요지의 기자회견을 실시함.
- Bennet 주유엔 미국대표부 대사는 3.12.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북한의 기자회견에 항의함.
 - 유엔사무총장은 북한대표부 관계관을 초치하여 여사한 정치활동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 환기 조치 언급
- 1976.7.7. 권민준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성명문 낭독 및 질의응답을 하고, 성명문에서 미국의 한반도 군비증강, 남북대화 중단 책임 등 언급

2. 제31차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관련 북한 결의안 제출

- 알제리 등 23개 북한 동조국은 8.16. 유엔사무국에 한국 문제 관련 안건 및 결의안을 제출
- 콜롬보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북한책동이 다수국의 저항으로 난항에 봉착하자 결의안 제출 시기를 앞당김.
 - 지난해 35개국 대비 23개국으로 줄어든 것은 북한의 강경노선에 대한 지지 감소
 - 한반도 사태를 왜곡하고 대민족회의에 의한 한반도 통일 모색
- 이후 이집트, 베냉 등이 공동제안국으로 가담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15 대표단)

생산연도 1975-1977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6-36 / 7 / 1-169

제31차 유엔총회 참석 관련 기본문서와 박동진 외무부장관의 1976.9.11.~10.2. 미국 방문 관련 자료임.

1. 제31차 유엔총회 참석 관련 기본문서

- 외무부장관의 유엔총회 기간 중 주요 행사 계획
 - 방문기간: 1976.9.13.~30.
 - 면담대상: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 하비브 국무차관,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 주요국 외무장관
 - 주요활동: 각국 유엔대사 초청 만찬 2회, 핵심 우방국대사 오찬, 유엔 프레스클럽 기자 초청 오찬, AP 부사장과의 오찬, 일본 외상과의 조찬
- 협의사항
 - 유엔총회에서의 한국입장 협조 및 지지 요청
 - 한국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협의
 - 한·미국 간 협력강화 문제 협의
 - 유엔기자단을 통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홍보

2. 외무부장관 미국 방문 관련 자료

- 제30차, 제31차 유엔총회 양측 결의안 및 설명각서
- 제5차 비동맹 정상회담 관련 자료
 - 알제리 외상회담 정치선언, 콜롬보 정상회담 정치선언 중 한국 관련 부분
- 북유럽 및 아시아국가에 제시한 Statement of Appeal 문안
- 교섭현황분석
 - 제31차 한국 측 결의안 지지교섭에 대한 각국 반응
 - 제31차 총회에서의 태도 변화 가능 예상국가
- 유엔사무총장 면담자료
 - 유엔을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남북 대결의 무익성 강조
 - 한국 문제의 현실적인 해결방안 설명
 - 북한 지지 국가들의 안전 및 결의안 선제 상정에 따라 제31차 총회에서 대결 불가피성, 한반도 최근 정세 설명 등



-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 면담자료
 - 제31차 유엔총회를 앞둔 제반 상황 및 표 전망 설명
 - 한국 문제 처리를 위한 기본방향 협의
 - 향후 유엔 내 한국 문제 처리 방안 협의
- 국가별 자료
 - 에티오피아, 보츠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라이베리아 등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16 운영위원회 대책)

생산연도 1975-1977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6-36 / 8 / 1-127

제31차 유엔총회 한국 문제 토의가 한국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도모하기 위한 유엔총회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교섭 및 반응과 대책임.

1. 교섭 배경

- 제31차 유엔총회 개최에 앞서 운영위원회의 유리한 구성을 위한 다양한 외교활동 전개
 - 한국 문제 처리 및 여타 유엔총회 내 다양한 문제 해결에 유리

408

2. 운영위원회 입후보 교섭 및 반응

- 부의장국
 - 그레나다, 도미니카, 일본, 우루과이, 모로코 대상 운영위원회 부의장국에 입후보하도록 교섭
- 위원장
 - 라이베리아, 필리핀, 볼리비아, 코트디부아르 대상 운영위원회 위원장 입후보 입장 파악

3.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파악 및 대책

- 총구성국: 25개국(총회의장, 17개 총회 부의장, 7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 19개국의 피선 확실시, 잔여 6개국 경합 상태
- 토의 연기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한국 측에 유리하더라도 제3국의 발의 여부, 총회에서 채택 가능성 여부 등 고려하여 결정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17 본회의)

생산연도 1975-1977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6-36 / 9 / 1-257

제31차 유엔총회(1976.9.21.~12.22., 뉴욕) 중 본회의에 관한 내용임.

1. 주요 일정

- 1976.9.21. 제31차 유엔총회 개막, 의장 개회사 및 신임장 위원국 선출
- 9.22. 위원회 의장 선거, 총회 부의장 선거, 운영위원회 개최
- 10~12월 의제 안건 토의 및 결의 채택, 신규 회원국 가입 결의 채택 등

2. 주요 문제 및 입장

- 주요 문제 및 결의안 요지
 - 동티모르 문제, 국제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칠레 인권 문제, 민족자결권 인정 등에 관한 아프리카, 아랍비동맹 34개국 공동결의안 수정안,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정치 등 원조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 무력불사용조약 체결 등
- 각 문제별 입장 정리

3. 논의 평가

- 중동 문제, 남아공 문제 등을 제외한 쌍무적·지역적 분쟁과 관련하여 대결보다는 막후조정을 통한 해결 지향
- 한국 문제와 같은 전형적 동서냉전 문제 논의의 지양 및 사하라, 지부티 문제의 토의 회피 및 무투표 처리
- 동·서 양진영간 또는 블록간 이해가 선명하게 대립되는 문제의 불거론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18 위원회별 토의)

생산연도 1975-1977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6-37 / 1 / 1-320

제31차 유엔총회 기간(1976.9.21.~12.22.) 중 위원회별 토의 및 결의 채택에 관한 내용임.

1. 제1위원회

- 10.5. 외기권문제, 무력불사용조약 등 22개 안건 토의일정 채택
- 11.1. 군축문제 11개 안건 토의 개시
- 결의 채택
 - 외기권문제, 무력불사용조약 체결, 군축문제 관련 결의

410

2. 제2위원회

- 9.27. 의제 토의 일정 합의
- 10.1.~12.3. 기초연설, UNITAR(유엔훈련연구원), UNEP(유엔환경계획),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UNEP(유엔환경계획) 식량문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UNDRO(유엔재해구제조정사무소) 등 토의
- 결의 채택
 - UNDRO 보고서, 유엔대학교, UNEP 보고서, UNCTAD 보고서 등

3. 제3위원회

- 인종차별철폐, 인종차별철폐 국제협약안, 민족자결권 인정 등 토의
- 결의 채택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인종차별철폐 범세계회의, 특정 범주 복역수의 인권보호 등

4. 제4위원회

- 11.2. 동티모르 등 특정지역 문제 토의 개시
- 11.17. 동티모르 문제 토의 종결 및 결의 채택
 - Spanish Sahara 문제 토의 연기

5. 제5위원회

- 제31차 총회에서는 1974~76년간의 분담률(scale of assessment) 재조정 문제 토의
- 10.28.부터 토의 개시
- 12.3. 안건 관련 결의안 및 수정안 표결
- 12.6. 쿠웨이트 등 15개국 공동결의안 잠정 채택 및 추가 논의



6. 제6위원회

- 9.29.부터 국가의 조약승계 관련 전권대표자회의 등 10개의 의제 안건 토의
- 결의 채택
 - 외교관계 비엔나협약의 이행,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제9차 회기 작업성과 3개 결의, 국제기관과의 관계에서 국가대표에 관한 유엔회의 등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19 각국의 기조연설 중 한국 문제 발언 내용)

생산연도 1975-1977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6-37 / 2 / 1-218

제31차 유엔총회 기간(1976.9.21.~12.22.) 중 일반토의 시 한국 문제 발언 분석 및 평가에 관한 내용임.

1. 개관

- 일반 토의 참가 총 126개국 중 63개국이 한국 문제 언급
 - 제30차 총회 시 총 130개 발언국 중 66개국이 언급
- 남북한 지지 비교
 - 한국입장 지지국(14개국), 북한 지지국(36개국), 중도적 국가(13개국)
- 한국 지지국 발언 요지
 - 당사자간 대화와 화해를 통한 한국 문제의 해결 촉구
 - 보편성 원칙에 입각한 유엔 가입 지지
- 북한 지지국 발언 요지
 - 북한의 긴장완화 및 평화통일정책 지지
 - 외국군철수, 외국기지 철폐, 유엔사 해체,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 한국 단일 유엔가입 희망

2. 지역별 발언 내용

- 아시아
 - 12개국 발언, 서방측 안 지지국은 소극적이나 공산측 안 지지국은 전원 발언
- 중남미
 - 7개국 발언, 쿠바를 제외한 6개국은 대화 촉구 등 중립적 태도
- 서부 아프리카
 - 18개국 발언, 북한 지지 다수
- 동부 아프리카
 - 6개국 발언, 전부 공산 측 안 지지
- 중동
 - 3개국 발언, 대북한 지지 약화 조짐
- 서구 및 기타지역
 - 4개국 발언, 1개국 제외한 3개국의 한국입장 지지
- 동구
 - 12개국 발언, 간략한 발언으로 북한 지지 경향



3. 평가

- 제31차 총회에서는 한국 문제가 의제에서 제외되어 전년도 총회와 산술적 비교 평가에는 한계
- 한국 문제의 의제 제외에도 불구하고, 발언국 수는 지난해와 유사
- 지지 동향에 있어 한국 지지 국가수는 감소한 반면, 중립적 국가수는 다소 증대
- 한국 문제에 관한 표결이 없으므로 자유로운 입장에서 원칙적 의견 표명 가능성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24 각국교섭 IV: 아주지역)

생산연도 1975-1977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6-37 / 7 / 1-438

제31차 유엔총회(1976.9.21.~12.22.)에 대비한 아주지역 국가들에 대한 교섭 내용임.

1. 교섭 대상 국가 및 내용

- 아주지역 교섭국가
 - 말레이시아, 몰디브,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구 버마),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피지
- 주요 활동
 - 주재국(겸임국) 고위인사 접촉 활동
 - 대통령, 부통령, 외무부장관, 외무부차관, 산업시찰단 등 방한 초청 추진
 - 프로젝트, 어업협력 등 경제협력 추진 등

414

2. 국가별 교섭 결과

- 말레이시아
 - 중립적 입장 견지, 한반도 문제가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노력
- 몰디브
 - 남북한 간 불필요한 대결을 피하고 당사자 직접 절충에 의한 한국 문제 해결 지지
- 방글라데시
 -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의 제안 및 아세안 타협안 등의 합리성은 인정하나, 남북한 간 외교관계상 한국 문제에 기권할 가능성이 큼.
- 네팔
 -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회담을 지지하며, 북한의 긴장조성 등에 대해 이해하는 반응을 보임.
- 미얀마
 - 한국의 평화적 통일 지지, 한반도에서의 외국군 주둔 반대, 남북한과 우호관계 유지 희망
- 싱가포르
 - 한국 측 결의안에 찬성하며, 공산 측 결의안에 대해서는 기권 내지는 반대하는 입장
- 아프가니스탄
 - 이전과 같이 기권할 가능성이 높음.
- 인도
 - 한국 문제에 적극 개입할 의사가 없음.
- 인도네시아
 - 한국 측 결의안에 호의적인 입장, 공산 측 결의안에 대해서는 계속 기권 유지



- 태국
 - 한국 문제를 동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
- 파키스탄
 - 미국, 소련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유보적 입장 견지
- 필리핀
 - 한국입장 계속 지지
- 피지
 - 이전 입장을 재고할 용의가 있으며 유엔총회 개최 전 최종입장을 알려주기로 함.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25 각국교섭 V: ASEAN)

생산연도 1975-1977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6-37 / 8 / 1-82

제31차 유엔총회(1976.9.21.~12.22.)에 대비한 아세안지역 국가들에 대한 교섭 내용임.

1. 외무부는 1976.2월 아세안 정상회의 시 한국 문제 논의 가능성 타진을 관련 공관에 지시

- 한국 측 입장
 - 남북한 직접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호소
 - 현 휴전협정에 대한 대안 모색이 선행되지 않는 한 UNC(유엔군사령부) 해체 불가
- 아세안 국가의 영향력 문제는 북한과의 대화통로 유지 문제나 동티모르 문제 등의 이유로 작년에 비해서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

416

2. 아세안 외무장관회의(1976.6.24.~26., 마닐라)

- 외무부는 상기 회의 관련 한국입장 지지 확보를 각 공관에 지시
 -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필리핀 외무장관, 싱가포르 외무사무차관, 말레이시아 외무차관대리 등 관련국 고위인사의 반응 파악
- 외무부차관은 8.21.~22. 주한 필리핀대사, 주한 인도네시아대사, 주한 말레이시아대사를 초청하여 유엔 및 비동맹 회의에서 아세안의 통일된 지지를 요청
- 논의 내용
 - 한국 문제는 공식 의제로 토의되지 않았으나 비공식 의견교환
 - 한국 문제는 남북한 간 대화에 의한 해결이 중요하므로 유엔토의의 무의미성 지적

3. 아세안 유엔실무자회의(1976.9.1., 마닐라)

- 주요 의제
 - 월남 문제
 - 동남아 중립선언 문제
 - 한국 문제 등
- 한국 문제 관련 유엔에서의 공동보조에 합의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26 각국교섭 VI: 미주지역)

생산연도 1975-1977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6-37 / 9 / 1-411

제31차 유엔총회(1976.9.21.~12.22.)에 대비한 미주지역 국가들에 대한 교섭 내용임.

1. 교섭 대상 국가 및 내용

- 미주지역 교섭국가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콜롬비아, 페루, 파라과이
- 주요 활동
 - 교섭국가 대사의 주재국 또는 겸임국 외무부장관, 차관, 차관보, 정무국장, 국제기구국장 등 고위인사 접촉 활동
 - 대통령 특사의 방문국 대통령, 외무부장관 등 고위인사 접촉 활동
 - 우방국 대사 전략회의 개최
 - 주유엔대표부의 공관 접촉 활동

2. 국가별 교섭 결과

- 가이아나
 - 비동맹그룹이 편파적으로 북한 입장을 지지하는 기존 태도를 지양하고,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장을 설정하겠다는 반응
- 과테말라,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 한국 측 입장 적극 지지
- 멕시코
 -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하며, 새로운 정세에 입각하여 태도를 결정할 것
- 베네수엘라
 - 서방 측 지지안에 변함이 없을 것임. 서방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가담할 가능성은 없음.
- 브라질, 우루과이
 - 한국 측 입장을 지지하는 기본입장에 변함없음.
- 수리남
 -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한다는 반응이나, 입장 지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 없음.
- 엘살바도르
 - 제30차 총회 입장 견지
- 온두라스
 - 한국의 경제발전을 크게 평가하나, 별도 입장 표명은 없음.



- 자메이카
 - 한국 및 공산 측 안에 기권
- 칠레
 - 한국 측 입장을 지지하겠다고 구술서로 약속함.
- 파나마
 - 파나마 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지원을 다하겠다는 입장
- 파라과이
 - 한국 측 입장을 잘 이해하며 적극 지지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27 각국교섭 VII: 구주지역)

생산연도 1975-1977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6-38 / 1 / 1-319

제31차 유엔총회(1976.9.21.~12.22.)에 대비한 구주지역 국가들에 대한 교섭 내용임.

1. 교섭 대상 국가 및 내용

- 구주지역 교섭국가
 -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터키, 포르투갈, 핀란드
- 주요 활동
 - 교섭국가 대사의 주재국 대통령, 총리, 외무부장관, 차관, 차관보, 정무국장, 국제기구국장 등 고위인사 접촉 활동
 - 외무부장관 성명서 수교 및 한국입장 설명
 - 대통령 특사의 방문국 대통령, 외무부장관 등 고위인사 접촉 활동
 - 외무부장관 등 방한 주재국 고위인사 대상 교섭 활동
 - 주재국 외무부 유엔과장 접촉, 공동제안국 참여 권유

2. 국가별 교섭 결과

- 그리스
 - 한국 측 안이 타당, 지지 예정
- 노르웨이
 - 한국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가능한 중립을 지키겠다는 입장
- 덴마크
 - 한국 측 안 찬성, 공산 측 안을 반대
 -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이 결정할 사안이며 유엔이나 제3국이 간섭할 사안이 아님.
- 룩셈부르크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가담 문제를 호의적으로 검토
- 스웨덴
 - 한국 문제가 토의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토의 시 전년도 입장 유지
- 스페인
 - 한국입장을 충분히 이해, 지지
- 오스트리아
 - 전년도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



- 이탈리아
 - 한국 측 지지에 변함없음.
- 터키
 - 한국 측 입장 지지
- 포르투갈
 - 한국 측 입장 지지
- 핀란드
 - 한국 문제에 대해 기권할 것으로 예상
 - 한국 문제는 강대국간 경쟁사항이고 강대국간 경쟁에는 불개입 정책 고수

3. EC(구주공동체) 차원의 외교 활동

- 북구권은 현실적인 합리성을 존중하는 만큼 북구국가의 태도에 맞추어 외교 활동 지시
 - 핀란드 중립 성향
 -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지지 확고 추세
- EC Core Group 회의(1976.2.4.)
 - 예정대로 유엔 한국 문제 및 북한 승인 문제가 토의되었으나 당분간 승인하지 않기로 의견 일치를 봄.
 - 북한 측의 결의안이 예상되나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으로 정치적 영향 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28 각국교섭 Ⅷ: 중동지역)

생산연도 1975-1977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6-38 / 2 / 1-283

제31차 유엔총회(1976.9.21.~12.22.)에 대비한 중동지역 국가들에 대한 교섭 내용임.

1. 교섭 대상 국가 및 내용

- 중동지역 교섭국가
 -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북예멘, 오만, 요르단,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 주요 활동
 - 교섭국가 대사의 주재국 또는 겸임국 국왕, 대통령, 총리, 외무부장관, 차관, 차관보, 정무국장, 국제기구국장 등 고위인사 접촉 활동
 - 대통령 특사의 방문국 대통령, 외무부장관 등 고위인사 접촉 활동
 - 대상국 파견 사절단(OAU(아프리카단결기구) 사절단, 경제조사사절단 등)을 통한 지지 확보 활동
 - 우방국 대사 등 외교단 접촉 협의 채널 구축 활동
 - 주유엔대표부를 통한 대상국 공관 접촉 활동

2. 국가별 교섭 결과

- 리비아
 - 한국 문제의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해결 지지, 미군주둔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평가
- 모로코
 - 한국입장을 이해, 한국 측 안 지지
- 모리타니아
 -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방안 지지하며 북한 측의 과격한 입장을 지지하지 않음.
- 바레인
 -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나, 아랍권에 구축된 북한의 지지 기반이 어려움이라고 지적
 - 국왕은 유엔에서의 기권 태도를 포기하고 한국을 지지하겠다고 약속
- 사우디아라비아
 - 한국의 어떤 입장도 지지
- 수단
 - 공산 측 결의안에 비해 한국 측 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 피력
- 북예멘
 - 중립



- 오만
 - 비동맹 및 유엔 모두 한국 측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
- 요르단
 -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나, 명시적으로 한국을 지지
- 이란
 -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국 측 입장에 대해 매우 우호적으로 검토 예정
- 카타르
 - 남북한 간 협의하에 문제해결을 촉구, 전년도 입장과 동일
- 쿠웨이트
 - 한국 문제를 잘 이해하며 한국 측 입장을 지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 튀니지
 - 한국 문제에 있어 대결을 회피하고 타협을 모색하는 기본입장 견지

유엔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V.29 각국교섭 IX: 아프리카지역)

생산연도 1975-1977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6-38 / 3 / 1-457

제31차 유엔총회(1976.9.21.~12.22.)에 대비한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에 대한 교섭 내용임.

1. 교섭 대상 국가 및 내용

- 아프리카지역 교섭국가
 - 가나, 가봉, 감비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보츠와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랜드, 시에라리온,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우간다,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 주요 활동
 - 교섭국가 대사의 주재국 또는 겸임국 대통령, 부통령, 총리, 외무부장관, 정무차관, 차관보 등 고위인사 접촉을 통해 결의안 수교 및 설명과 공동제안국 참여 교섭 활동
 - 르완다의 경우 식민종주국(벨기에) 대사를 통한 지지 교섭

2. 국가별 교섭 결과

- 가나
 - 중도적 입장, 공산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
- 가봉
 - 한국입장 적극 지지 약속
- 세네갈
 - 유엔총회 및 비동맹 정상회의에 한국입장을 적극 대변하겠다는 입장
- 나이지리아
 - 한국과의 국교수립 가능성 없음.
- 니제르
 - 한국 문제에 대해 이해를 표명하면서도 남북문제에 대해 균형 있게 접근하겠다는 입장
- 라이베리아
 - 한국 문제는 당사자 간의 협의와 남북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반사정이 매우 유동적이라 비동맹 회담 이전에 입장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반응
- 레소토
 - 한국 측 입장 지지하고 북한 측 입장에 반대이나, 상세 입장은 수상과 협의하여 결정
- 르완다
 - 한국과 외교관계가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한국 측으로부터 어떤 제스처가 있기를 시사

- 말라위
 - 공산주의 체제가 가장 악랄하며 유엔에 자국 대표단 파견여부는 미정이나 파견 시 한국 측 입장을 지지
- 보츠와나
 - 남북한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 후 결정
- 세네갈
 - 한국 문제에 관해 종전입장을 변경하여 미국과 타협하겠다는 입장
- 세이셸
 - 한국 측 결의안 지지
- 스와질랜드
 - 한국 측 결의안 지지
- 시에라리온
 - 한국 측 입장 지지
- 오트볼타
 - 한국 측 결의안 내용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금번 총회에서 양쪽 결의안 모두 기권 예정
- 우간다
 - 중립
- 에티오피아
 - 북한 지지 태도에 변동 없음.
-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 총회에서 한국 측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겠다함.
- 중앙아프리카
 - 한국 측 입장 지지 확약
- 카메룬
 - 한국 문제는 북한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 모두를 고려할 것이며, 카메룬의 표결에 양국관계가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
- 케냐
 - 한국 문제는 남북 대화로 해결되어야 하며 비동맹 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코트디부아르
 - 한국 측 입장이 정당하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
- 니제르
 - 중립

유엔경제사회기구 개편에 관한 회의, 제2-3차. New York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6-38 / 4 / 1-215

1976년 중 제2~3차 유엔경제사회기구 개편에 관한 회의가 뉴욕에서 개최됨.

1. 제2차 유엔경제사회기구 개편 특별위원회(1976.2.11.~3.4.)

- 경위
 - 1975.9.16. 총회 결의 3362 채택에 의거
 - 1976.1.9. 초청장 및 의제 송부
- 한국 측 대표단(대표): 안영철 주유엔대표부 공사
- 회의 목적 및 내용
 - 경제사회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
 - 경제 및 사회 분야 각종 국제기구의 개혁을 위한 제안 작성
 - 각국 대표의 기초연설과 국제기구의 의견을 종합, 위원회가 연구 검토할 분야에 대한 우선 순위 결정
- 회의 결과
 - 유엔총회의 효율성 향상, 경제사회이사회 기능,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와 같은 유엔포럼의 운영 등 8개항의 문제 영역을 채택, 회기간 작업반회의에서 논의

2. 제3차 유엔경제사회기구 개편 특별위원회(1976.6.2.~11.)

- 회의 준비
 - 4.12.~23. 회기 간 회의에서 8개항 논의 후 결과를 제3차 위원회 회의에 보고
- 한국 측 대표단(대표): 이종업 주유엔 참사관
- 회의 결과
 - 의장은 제3차 회의기간을 6.11.에서 6.16.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의하고 논의하였으나 결정하지 못함.
 - 제4차 회의 소집 필요성 여부 및 위원회 보고서 문제 논의

Waldheim, Kurt 유엔사무총장 선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6-38 / 5 / 1-65

1. Kurt Waldheim 유엔사무총장 재선 출마 동향

- Waldheim 사무총장은 1976.10.12. 재출마 발표
- 재선 출마 관련 언론 보도
 - 10.13. NYT: Waldheim reports that he is ready for a second term
 - 10.19. NYT: Once regarded as cut-and-dried, UN election may take new turn
-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의장은 10.15. 동 사무총장을 위한 만찬에서 OAU의 지지 언급

426

2. Kurt Waldheim 유엔사무총장 재선 경과 및 선출

- 1976.11.24. 안보리 이사국간 비공식 일정 합의
 - 12.3. 오전 사무총장 임명 건 비공식 협의
 - 12.3. 오후 사무총장 임명 건 안보리회의
- 안보리 비공개회의 개최
 - 에체베리아 전 멕시코 대통령에 대한 투표결과 찬성 4, 반대 4, 기권 7로 탈락
 - Waldheim 사무총장에 대한 1차 투표에서 중국(구 중공)의 반대로 지명되지 못하였으나, 2차 투표에서 중국의 기권으로 차기 사무총장으로 지명
- 사무총장 선출
 - 총회는 12.8. 동 사무총장 재임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 동 사무총장은 임기 5년(1977.1.1.~81.12.31.)의 사무총장으로 재임명
- 12.8. 외무부는 박동진 외무부장관 명의 축전 발송

주유엔 코스타리카대사 방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6-38 / 6 / 1-92

1976년 중 주유엔 코스타리카 대사 및 공사가 한국을 공식 방한함.

1. Bernal Vargas Saborio 주유엔 코스타리카 공사(1976.5.27.~6.1.)

- 방한 초청 목적
 - 제31차 유엔총회에서 협조 요청
 - 북한의 호전성 등 한반도 현 정세 인식
 - 한국의 경제 발전상 시찰
- 주요 일정
 - 5.27. 방교국장 면담
 - 5.28. 미주국장 면담, 판문점 시찰
 - 5.29. 한국수출공단 이사장 면담
 - 5.30. 용인민속촌 방문
 - 5.31. 울산공업단지 시찰

2. Fernando Salazar Navarrete 주유엔 코스타리카 대사(1976.6.25.~30.)

- 방한 초청 목적
 - 한반도 정세 인식 제고
 - 제31차 유엔총회에서 협조 요청
- 주요 일정
 - 6.26. 방교국장, 미주국장 면담
 - 6.27. 울산공업단지 시찰, 포항종합제철 시찰
 - 6.28. 외무부 정무차관보 면담, 외무부장관 예방
 - 6.29. 북한 땅굴 시찰,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6.30.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어린이회관 방문

3. 주요 면담 내용

- 한·코스타리카 간 돈독한 우호관계 다짐
- 유엔에서의 한국 측 입장 지지에 대한 사의 표명 및 지속적인 지지 요청
- 1975.10월 코스타리카 농림목축성 기획실장 방한 시 추진하기로 합의된 어업협력협정에 대하여 1976.2월 한국 측 안을 코스타리카 정부에 제의한바, 동 정부 회답 대기 중



- 1976.10월초 마닐라에서 개최 예정인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참석 계기에 9월말 코스타리카 재상 방한 초청
- 코스타리카의 기술공여 요청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예산 사정상 불가하나 차후 단계적으로 실현 방안 검토 예정

Moreno Martinez, Alfonso 주유엔 도미니카공화국대사 방한, 1976.5.20.-24.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 국제연합

MF번호 H-6-38 / 7 / 1-100

Alfonso Moreno Martinez 주유엔 도미니카공화국대사가 1976.5.20.~24. 공식 방한함.

1. 방한 경위 및 목적

- 방한 경위
 - 1976.4.21. 주유엔대표부는 외무부에 주유엔 도미니카공화국대사 방한 초청을 건의
 - 1976.5.4. 외무부는 동인의 방한을 추진하도록 회신
 - 1976.5.6. 방한 초청장 전달
- 방한 초청 목적
 - 제31차 유엔총회에서 협조 요청
 - 한반도 정세 인식 제고
 - 한국의 경제발전상 시찰

2. 주요 일정

- 5.21. 외무부 정무차관보 면담,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 정무차관보 주최 만찬
- 5.22. 땅굴 시찰, 방교국장 주최 만찬,
- 5.23. 울산 현대조선, 정유공장 및 부산 유엔군묘지 시찰
- 5.24. 외무부장관 예방

3. 면담 시 특기사항

- 도미니카 측은 기존의 우호관계 강화를 위한 통상 및 문화교류 적극 추진 제의

Arita Quinonez, Roberto 주유엔 온두라스공사 방한, 1976.1.19.-24.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 국제연합

MF번호 H-6-38 / 8 / 1-58

Roberto Arita Quinonez 주유엔 온두라스공사가 1976.1.19.~24. 공식 방한함.

1. 방한 경위 및 목적

- 방한 경위
 - 1975.11.3. 주유엔대표부 직원이 동 공사에게 방한 초청장을 전달함.
- 방한 초청 목적
 - 제30차 유엔총회 한국 문제 지지 사의
 - 제31차 유엔총회에서 적극 지지 요청
 - 한국의 경제발전상 인식 제고

430

2. 주요 일정

- 1.20. 외무부 방교국장, 미주국장, 정무차관보 면담, 주한 온두라스 명예영사 주최 오찬, 육군 사관학교, KIST 시찰, 방교국장 주최 만찬
- 1.21. 서울대학교, 판문점 시찰
- 1.22. 울산 현대자동차, 현대조선소 시찰
- 1.23. 외무부장관 예방

Ake, Simeon 주유엔 코트디부아르대사 방한, 1976.8.21.-27.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 서부아프리카

MF번호 H-6-38 / 9 / 1-99

Simeon Ake 주유엔 코트디부아르대사가 1976.8.21.~27. 공식 방한함.

1. 방한 경위 및 목적

- 방한 경위
 - 1976.7.2. Ake 대사는 방한 초청에 사의 및 방한 희망 시기 표명
 - 1976.7.6. 외무부는 제네바에서 개최된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참석한 Ake 대사의 방한 일정 협의를 주제네바대표부에 지시
 - 1976.7.8.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동 대사의 8.25.경 방한 계획을 외무부에 보고
- 방한 초청 목적
 - 제31차 유엔총회에서의 협조 요청
 - 한반도정세 인식 제고
 - 한국의 경제발전상 시찰

2. 주요 일정

- 8.23. 외무부 방교국장, 아중동국장, 정무차관보 면담, 국립박물관 및 KIST 시찰
- 8.24. 판문점 시찰, 외무부장관 예방
- 8.25. 국무총리 예방, 울산 현대조선소, 현대자동차, 포항종합제철 시찰
- 8.27. 방림방적 시찰,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Simelane, J. L. F. 주유엔 스와질란드대사 방한, 1976.6.14.-21.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 동부아프리카

MF번호 H-6-38 / 10 / 1-86

J.L.F. Simelane 주유엔 스와질란드대사(주미국대사 겸임)가 1976.6.14.~21. 공식 방한함.

1. 방한 경위 및 목적

- 방한 경위
 - 1975.11.7. 주미국대사는 동인에게 방한 초청장을 전달
 - 1976.5.19. 방한 초청 수락 서한
 - 1976.5.20. Simelane 대사는 주미국대사 면담 시 본국 정부의 방한 승인 사실 통보
 - 1976.5.31. 외무부는 6.14.부터 1주간 방한 일정 제의
- 방한 초청 목적
 - 제31차 유엔총회 및 비동맹 회의에서의 협조 요청
 - 한반도 정세 인식 제고
 - 한국의 경제발전상 시찰

2. 주요 일정

- 6.14. 외무부 방교국장, 정무차관보 면담
- 6.15. 국무총리 예방, 명예영사 주최 오찬,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방문
- 6.16. 울산 현대조선소, 현대자동차, 포항종합제철 시찰
- 6.17. 유엔기념묘지 방문
- 6.18. 삼성전자 시찰,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6.19. 땅굴 시찰, 어린이회관 방문, 방교국장 주최 만찬
- 6.20. 용인민속촌 방문

3. 방한 결과

- 방한 후 동 대사 부부는 주미국대사를 관저로 예방, 유엔에서의 한국 지지 입장 확인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6-38 / 11 / 1-214

1975~76년 중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관련 내용임.

1. UNMCK 소위원회

- 제9차 소위원회(1976.2.12.)
 - 조경 및 원예전문가 의견 수렴 문제
- 제10차 소위원회(1976.3.25.)
 - 한국 대통령 방문, 부산 박물관 건립, 장미 등 식수(植樹), 연못 방축 시설
- 제11차 소위원회(1976.6.29.)
 - 조경 및 원예 자문그룹, 연못 방축 시설, 현충일 기념식 거행
- 제12차 소위원회(1976.9.7.)
 - 위원회 규정, 묘지 팸플릿, 기계류 구입, 연못 양식어
- 제13차 소위원회(1976.9.23.)
 - 1977년도 예산안 검토

2. 제3차 UNMCK 연례회의(1976.10.22., 부산)

- 1977년도 예산 채택: 8만 5천 달러 상당
- 예산 부담비율: 한국(45%), 기타 10개국(55%)
- C지역 개발계획 승인: 개발계획 소요자금 특별기금으로 보유
- 기념묘지 관리인 임명

제31차 유엔의 날 기념 메시지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6-38 / 12 / 1-40

1976년 중 제31회 유엔의 날 기념식이 1976.10.24. 거행됨.

1. 행사 내용

- 국기 및 유엔기에 대한 경례, 묵념, 식사, 치사, 축하, 유엔사무총장 메시지 등

2. 유엔의 날 기념 메시지 주요 내용

- 박동진 외무부장관 치사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유엔의 역할
 - 한국의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 남북한 대화를 통한 평화 정착 노력
- 베시 유엔군사령관 메시지
 - 유엔의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 노력과 역할
-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 메시지
 - 성장 및 평화를 위한 유엔의 역할과 기여
 - 식량, 통상, 인구, 환경 등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엔의 과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32차. Bangkok, 1976.3.24.-4.2. 전2권 (V.1 기본계획)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6-62 / 1 / 1-257

정부는 1976.3.24.~4.2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32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에 천병규 주태국대사를 수석대표(교체 수석대표: 김형근 주태국공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경위

- 1975.10.20. 주태국대사는 제32차 ESCAP 총회가 1976.3.24.~4.2. 개최됨을 외무부에 보고
- 1975.10.22. ESCAP 사무국은 제32차 총회 의제 송부
- 1975.11.4. 외무부는 총회 개최와 가의제 관련 관계부처에 통보 및 의견 요청
- 1976.1.6. 외무부는 총회 참석 대표 추천 및 자료 요청
- 1976.1.28. 주태국대사관은 총회 관계자료 송부
- 1976.3.5. 정부대표단 임명

2. 파견 목적

- 아시아태평양국가로서 경제사회 개발의 촉진, 역내 국가 간, 그리고 역외 국가와의 경제사회 관계 강화
- 주요 의제인 농촌개발 및 협력, ESCAP 지역 국가 간 기술협력 강화 방안 마련 등
- 한국의 경제발전, 수출확대, 역내·외 회원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에 관한 정책 평가, 분석 및 정보 수집 활용

3. 대표단 활동 지침

- 최근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서서히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선진공업국의 보호무역정책 강화, 식량부족, 인플레이션의 진행 등으로 불리한 세계경제여건이 계속되어 ESCAP 역내 국가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역내 국가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 및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임.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32차. Bangkok, 1976.3.24.-4.2.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6-62 / 2 / 1-335

1976.3.24.~4.2.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32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참석 결과보고임.

1. 주요 의제

- ESCAP 지역 개발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및 견해
- 작업 및 우선순위 프로그램
- ESCAP 활동분야의 특수문제 등

2. 참가국

- 32개 회원국, 10개 옵서버국,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대표

3. 정부대표단 활동

-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
 - 한국의 새마을운동 소개
 - 개도국의 당면 문제인 기술이전의 중요성 강조
- 의제별 발언
 - TNG 사업의 계속 수행 촉구
 - 선진국 보호무역정책의 완화 촉구 등

4. 회의 내용 및 결과

- 태국 총리의 개회사로 개막, ESCAP 사무총장의 활동 보고
- 주요 토의 내용
 - 제31차 ESCAP 총회 결정사항 및 제7차 유엔 특별총회 결정에 따른 지역발전 계획 및 전망
 - ESCAP 1976~77년 우선 사업 및 1978~81년 계획
 - ESCAP 주요 사업 및 훈련기관의 성과 보고
- 결의 채택
 - 종합 농촌개발 계획
 - 개도국 간 기술협력, 기술이전센터 설립
 - 아시아태평양 텔레커뮤니티 설립
 - 아시아태평양 여성개발센터 설립 등



5. 관찰 및 건의

- 동남아국가에 대한 중국(구 중공)의 영향력 증가
- ASPAC(아시아태평양과학관협회)의 기능 정지로 한국이 가입한 유일한 국제기구인 ESCAP의 활동 강화 필요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지역내 AIDB(개발은행협회) 설립을 위한 회의 참석 사전 준비자료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07-32 / 14 / 1-78

정부는 1977.1.11.~14.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지역 내 AIDB(개발은행협회) 설립을 위한 회의에 문헌상 주태국대사관 2등서기관(재무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역내 개발은행협회 설립을 통한 주요 개발금융기관 간 산업정보의 교환의사 조정 및 건의를 통해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가능한 중화학공업의 단계적 발전 도모
- 개발금융기관의 경험과 역할관찰 및 정보교환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2. 한국 측 입장

- 지역산업 추진과정에서 개발금융기관의 역할
 - 국가간 교섭의 매개체로서 국가개발계획의 조화 및 민간투자의 지역산업계로의 유도 추진
- 기구의 성격 및 형태
 - AIDB의 공식 발족, 정부의 위임사항을 수행하는 기구로 발전

ESCAP / [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제1차. Bangkok, 1976.7.26.-28.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6-62 / 6 / 1-251

정부는 1976.7.26.~28.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1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상임위원회 회의에 김교식 주태국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대표
- 태국(옵서버),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2. 회의 결과

- BTN 5509 삭제 요구
 - 한국 측 제안 설명을 통한 요청 결과 삭제 승인
- 비준서 기탁기간 연장
 - 3개월 후인 1976.9.3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 차기회의 논의 의제
 - 아프가니스탄의 신규회원국 가입, 방콕협정 해설서 작성, 방콕협정의 GATT(관세및무역에 관한일반협정) 통보, 원산지 규정에 대한 검토 등

3. 관찰 및 건의

- BTN 5509 삭제 승인은 비공식회의가 주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공식회의 활용 필요
- 정부의 전문가 대표 파견 건의

ESCAP / [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제2차. Bangkok, 1976.9.28.-30.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6-62 / 7 / 1-173

정부는 1976.9.28.~30.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2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방콕협정 상임위원회 회의에 김기수 주태국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한국 등 4개국, 태국(옵서버),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등 대표

440

2. 회의 결과

- 해석상 이견이 예상되는 방콕협정 제5조(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양허), 제7조(양허가치의 유지), 제8조(관세율 변경 통지기간), 제9조(무역확대조치), 제10조(무역확대를 위한 특혜조치 적용), 제11조(제10조의 예외 아세안국의 입장)의 규정에 대한 각국의 해설서를 사무국에 제출, 단일 해설서를 작성 사용
- 아세안이 서명 후 비준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 제11조 (d)항의 경제통합체로 인정, 아세안의 가입을 촉구
- 방콕협정 상임위 의사규칙 제정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WMO(세계기상기구) 태풍위원회 회의, 제9차. Manila(필리핀), 1976.11.23.-29.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6-62 / 12 / 1-56

정부는 1976.11.23.~29.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9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WMO(세계기상기구) 태풍위원회 회의에 양인기 중앙관상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태풍으로 인한 재난 방지 대책과 역내 국가 간 정보교환 체제 확립
- UNDP(유엔개발계획)의 재정지원 요청
- WMO와 지역기상기구 사업 간 조정

2. 주요 의제 및 결과

- 1976년도 위원회 활동 보고
 - 신 레이더 관측소, 통신시설의 설치와 필리핀 등의 홍수 자동시스템, 재난방지와 공동연구 활동상의 발전 평가
- 기상시설개선
 - 제8차 총회 시 의결된 세계기상감시계획의 주안점을 관측 및 기상통신망의 충실을 목표로 평가. 구체적으로 전 지구적 관측조직, 기상통신조직, 태풍예보기술, Radar Fixes 교환, 기상위성, 기상정찰비행 등 각국 상황 발표 및 논의
- 수문시설개선
 - 회원국 소재 강의 홍수예보와 정보제도를 위한 계획과 시행에 만족 표명. 회원국별 주요 개발사업 발표 및 논의
- 재난방지 및 예방훈련
 - 제8차 총회에 의거 공동사업단이 홍콩, 한국 등 방문 및 협의
- 지역태풍계획에 대한 UNDP 기술지원
 - 1974~76년간의 UNDP 기술지원은 시행완료 혹은 시행 중이며, 이외에 각 정부의 기여사항은 건물, 인원, 지원 등 44만 달러 상당. 지역태풍 계획 시행 사항 발표 및 논의
- 지역태풍계획에 대한 기타자원의 기여
- WMO 열대성저기압계획과 지역계획 간 조정

3. 회의 평가

- 지역태풍계획에 대한 회원국 지원 요청의 검토 필요
- 정지기상위성 수신장비 설치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
- 세계적십자연맹, WMO, ESCAP이 공동 수행한 방재 및 예방훈련보고서의 한국에의 적용 필요
- 회원국과 교류 강화 및 기상기재 도입을 위한 협력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고용, 분배와 사회발전과 국제분업에 관한 국제회의, Bangkok, 1976.4.6.-9.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6-62 / 4 / 1-6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고용, 분배, 사회발전과 국제분업에 관한 국제회의가 1976.4.6.~9. 태국 방콕에서 개최됨.

1. 회의 참가국

- 호주 등 17개국(한국 불참), UNDP(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
- ILO와 공동 주최

442

2. 주요 의제

- 개도국의 고용전략 및 정책
- 국제인력의 이동 및 고용문제
- 개도국에서의 생산적 고용창출 기술
- 개도국에서의 다국적기업과 고용문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공업·주택 및 기술위원회, 제2차. Bangkok, 1976.8.31.-9.6.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6-62 / 3 / 1-2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제2차 공업·주택 및 기술위원회가 1976.8.31.~9.6. 태국 방콕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한국은 대표단을 별도 파견하지 않고 주태국대사에게 현지 공관 직원 중에서 참석하도록 함.
- 회의 주제
 - 지방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의 발전과 적용 문제

2. 주요 의제

- ESCAP지역 개도국 간 상호기술협력 증진 방안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산업 발전 지침
- 기술이전센터 설립
- 유엔과학기술회의

3. 한국입장(과학기술처 작성)

- 개도국 상호간의 기술협력 기여
-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수립 및 인프라 설정 부분을 타 개도국에 적용하는 것이 의미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기술의 이전과 적응을 위한 지역센터 설립 지지
- 기존 체제 및 계획의 현실화 및 보강을 통한 범세계적인 과학기술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이의 없음.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무역위원회 회의, 제20차 및 무역협상단 회의, 제7차. Bangkok, 1976.11.2.-8.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6-62 / 5 / 1-172

정부는 1976.11월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20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무역위원회 회의 및 제7차 무역협상단 회의에 김기수 주태국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ESCAP 회원국의 무역현황 및 정책 검토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다자간 무역협상의 경과와 이에 대한 개도국 참여 문제
- 제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권고사항 검토
- 지역통화문제 토의

2. 제20차 무역위원회 회의(1976.11.2.~8.)

- 참가국
 - 한국, 호주 등 25개 회원국, 옵서버, UNCTAD 등 국제기구
- 주요 의제 및 결과
 - 각국의 무역정책 동향: 개도국은 선진국에 의한 교역조건의 악화, 수입규제조치의 증가 등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지적하고, GSP(일반특혜관세제도)의 개선, MTN(다자간무역협상) 조기 타결 및 국제통화제도의 개혁을 촉구
 - GATT / MTN: 동경선언 원칙을 재확인하고 열대상품 협상 조기타결 촉구, 개도국에 대한 특별차별대우 제공 요구
 - 제4차 UNCTAD 총회 결의 및 권고사항 검토: 대부분 국가는 상품통합프로그램 참가 의견을 표명하고 GSP 개선, 기술이전, 부채문제 타결 등 촉구
 - 해운과 운임: 인력개발, 화주 간 협력기구 설치문제
 - 공산월남의 참가자격: 미국은 공산월남의 참가자격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의장은 유엔사무국 법률고문의 유권해석에 따라 참가자격이 있음을 선포

3. 제7차 무역협상단 회의(1976.11.8.)

- 참가국
 - 한국 등 15개국
- 주요 의제
 - 제6차 무역협상단회의 이후 진전 사항, 방콕협정 하의 활동상황, 향후 계획 등



- 회의 경과
 - 무역협상단과 방콕협정 간의 관계에 대해 각국 간의 이견이 노출되어 확대협상에 관한 의안은 차기회의로 이월
- 관찰 및 건의
 - 한국은 아세안과의 민간차원에서의 원자재 협력체제 구축 바람직
 - 소련, 중국(구 중공) 등 공산권의 참여 적극화 추세 감안, 대회원국 협력강화 시급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운수·통신위원회, 제25차. Bangkok, 1976.10.12.-18.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6-62 / 8 / 1-49

정부는 1976.10.12.~18.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25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운수통신위원회 회의에 김기수 주태국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ESCAP 사무국은 1976.7.8. 제25차 운수통신위원회 개최를 알려오면서 한국의 참가를 요청해옴.

2. 참가국

- 17개 회원국, UNDP(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 대표

3. 정부대표단 활동

- 해운, 항만 및 내륙운송 분야 활동(의제 제10항)
 - ESCAP지역 선원훈련소 설립 추진 현황 보고 및 지원 요청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운수·통신위원회 철도관 회의. Bangkok, 1976.7.6.-15.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6-62 / 9 / 1-75

정부는 1976.7.6.~15.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운수통신위원회 철도관 회의에 권기안 철도청 설계사무소 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인도네시아 등 9개국,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

2. 회의 의제

- 철도분야의 에너지 문제
- 단선용량 개량 조치, 경제적 정당성 문제
- 철도노선의 표준화 및 규칙

3. 파견 목적

- 철도분야의 기술정보 및 자료 입수, 기술협력 모색
- 한국 철도용 제품의 대외홍보 및 운수산업 발전

4. 한국대표 발언 요지

- 한국 경제발전에 따른 수송수요 증대
- 철도분야의 수송력 증강대책 마련의 시급성
- 철도 단선용량 개량을 위한 지속적 노력 경주
- 1966년부터 CTC 방식에 의한 중앙선과 선호용량 개량사업 진행
- 도시교통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전철화 및 CTC 장치 시행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천연자원위원회 회의, 제3차. Bangkok, 1976.9.21.-27.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6-62 / 10 / 1-269

정부는 1976.9.21.~27.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3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천연자원위원회 회의에 금진호 상공부 광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한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네팔, 태국, 스리랑카 등 대표

2. 회의 의제

- 광물자원의 개발정책과 ESCAP 주관지역 광물탐사

3. 회의 목적

- ESCAP 회원국 간 천연자원의 개발을 촉진하는 기술, 정책 및 전략을 상호교환하고 토의하여 산업발전 및 국제협력을 증진

4. 토의 내용

- 광물의 탐사 및 개발
- 지역 및 국가의 개발계획, 연구소
- ESCAP 프로젝트
- 원격 탐지, 조사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통계위원회 회의, 제2차. Teheran(이란), 1976.12.12.-18.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6-62 / 11 / 1-130

정부는 1976.12.12.~18.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되는 제2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통계위원회 회의에 이웅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한국, 일본, 호주, 소련, 미국 등 21개국 및 유니세프 등 10개 국제기구 대표

2. 토의 내용

- ESCAP 통계위원회 논의사항
 - 통계분야 훈련을 위한 UNDP(유엔개발계획) 지역 자금 승인
- 각국의 통계활동 및 계획보고
- 아시아 통계연수원 보고
- 기술협력
- 종합지식개발 통계

Ordnung, Nikolaj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경제문제담당관 방한, 1976.4.11.-15.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3

MF번호 I-6-62 / 14 / 1-19

Nikolaj Ordnung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경제문제담당관이 1976.4.11.~15. 방한함.

1. 방한 경위 및 목적

- 방한 경위
 - 1976.3.15. ESCAP 사무국은 동 담당관 방한계획 관련 서한을 송부
 - 1976.3.18. 주태국대사는 동 담당관의 방한을 보고
- 방한 목적
 - 경제계획 관련 협의

2. 주요 일정

- 4.12. 외무부 경제기구과장, 구주3과장, 경제조사과장 면담, 구주국 심의관 주최 만찬
- 4.13. 경제기획원 종합기획과장, 재무부 국제기구과장 면담,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및 국제경제과장 면담,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및 국제협력과장 면담
- 4.14.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방문

Malhotra, Ram C.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ADI(아시아개발연구원) 부원장 방한, 1976.6.13.-16.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6-62 / 13 / 1-45

Ram C. Malhotra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ADI(아시아개발연구원) 부원장이 1976.6.13.~16. 방한함.

1. 방한 경위 및 목적

- 방한 경위
 - 1976.5.24. ADI 측이 Malhotra 부원장 방한 계획 서한을 송부
 - 1976.5.28. 주태국대사는 동 부원장 방한 보고
- 방한 목적
 - 한국의 개발훈련기관, 특히 농촌개발(새마을운동) 담당자 및 KDI(한국개발연구원) 관련 주요 인사 접촉

2. 주요 일정

-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면담
- 새마을지도연수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방문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제4차. Nairobi(케냐), 1976.5.3.-31. 전4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6-63 / 1 / 1-278

1976.5.3.~31.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참가 준비 동향임.

1. 총회 개최 준비 동향

- 외무부는 1976.2.23. 주케냐대사에게 총회 개최지 동향 파악 지시
 - 2.27. 주케냐대사는 153개국 대표단 참가 등 동향 보고
 - 3.27. 외무부는 케냐 정부의 초청장 발송 시기, 회의 구조 및 운영방식 등 파악 지시

452

2. 외국 대표단 참석 동향

- 외무부는 1976.2.23. 전 재외공관에 주재국 참가 대표단 동향 파악 지시
 - 2.25. 주일본대사 등은 주재국 대표단 미정 보고
 - 2.27. 주네덜란드대사는 경제부장관 참석 보고
- 참석 동향 개황
 - 외무부장관 또는 차관 참석: 일본, 캐나다, 터키, 그리스 등
 - 상공부장관 또는 경제부장관: 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
 - 기타 대사급

3. 준비회의 개최 동향

- 1976.3.31. 제네바 77그룹 회의 개최
 - 신임 의장 선출, 나이로비 총회 조직 등 협의
- 4.27. 한국 관계부처 간 준비회의 개최
 - 업무분장, 회의자료 작성

4. 제4차 UNCTAD 총회 참석 준비

- 1976.4.8. 정부 수석대표 임명
- 4.20. 실무자 포함 정부대표단 16명 임명
- 4.22. 외무부는 대표단에 대한 신임장을 발급함.
- 4.22. 외무부는 신임장위원회에서 공산권 국가의 이익제기 가능성 대처방안 지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제4차. Nairobi(케냐), 1976.5.3.-31. 전4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6-63 / 2 / 1-375

정부는 1976.5.3.~31.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에 윤하정 외무부차관을 수석대표(교체 수석대표: 노신영 주제네바대사)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1. 제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개요(1976.5.3.~31., 나이로비)

- 참가국: 139개국 3,000여 대표
- 주요 특징
 - 신국제 경제질서 실천을 위한 개도국의 총결산 회의
 - 남·북한 간 소득격차 심화에 따른 선진국의 조치 요구 절실
- 회의 경과
 - 개도국: 신국제 경제질서를 토대로 마닐라선언에 입각한 타결 요구
 - 선진국: 기존 국제경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개별국가별, 건별 문제해결방식 주장
 - 동구 사회주의권: 국제경제 문제를 서방선진국의 책임이라고 주장
- 회의 종결
 - 1차 산품, 부채 문제 등 모든 의제에서 선진국·개도국 협상이 난관에 봉착
 - 회의 기간을 3일간 연장하여 일괄 결의

2. 정부대표단 활동

- 수석대표 기조연설(1976.5.12.)
 - 세계경제 및 개도국의 당면 문제 개관
 - 마닐라선언과 행동계획에 따른 해결 촉구
 - 1차 산품, 무역수지적자 등 교역문제 관련 한국의 입장 설명
 - 한국의 경제발전상 및 새마을운동 소개
- 북한 기조연설에 대한 반박
 - 반론권(Right of Reply)을 행사, 북한의 한국 문제 거론에 유감 표명, 북한 연설의 허구성 지적
- 행사 주최 및 참석
 - 5.4. 키신저 미국 국무부장관 주최 오찬 참석
 - 5.10. 수석대표 주최 가봉,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등 대표 초청 만찬 개최
 - 5.13. 수석대표, 케냐 외무차관 면담 등



3. 평가

- 개도국은 유엔특별총회와 석유파동을 계기로 단결력 및 교섭력 강화를 이용, 수적 우세의 힘으로 일괄타결을 시도하였으나 성과는 미진
- 경제문제 중 관심사항인 상품종합계획에 관한 협의 일정 및 부채경감 문제 관련 차후 전문가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협상의 근거 마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제4차. Nairobi(케냐), 1976.5.3.-31. 전4권 (V.3 회의일정 및 Press Release)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6-63 / 3 / 1-281

1976.5.3.~31.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회의 일정 및 언론 보도 자료임.

1. 총회 구성

- Plenary Meeting, Negotiating Group, General Committee 등으로 구성되고, 1976.5.4.~19. 회의가 개최됨.

2. 언론 보도 자료

- 각국 대표단의 발언요지를 공표
 - 5.6. 프랑스 경제장관
 - 5.7. UNEP(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핀란드 외무장관, 캐나다 외무장관 등
 - 5.8. 볼리비아 조정기획장관, 쿠웨이트 통상산업장관, 그리스 통상장관 등
 - 5.10. 스리랑카 무역부장관, UAE 주택도시기획장관, 오스트리아 통상산업장관 등
 - 5.11. 중국(구 중공) 대외무역차관, 네덜란드 경제장관, 루마니아 대외무역국제경제협력장관 등
 - 5.12. 이집트 내각행정개발국무장관, 체코슬로바키아 대외무역장관, 우크라이나 무역차관 등
 - 5.13. 수단 국가경제국무장관, 마다가스카르 외무장관, 말라위 무역산업관광장관 등
 - 5.14. 모리셔스 통상산업장관, UNIDO(유엔산업개발기구) 사무총장, 국제코코아기구 사무총장 등
 - 5.17. 소말리아 상업장관, 튀니지 국가경제장관, 탄자니아 무역장관 등
 - 5.18. 포르투갈 대외무역관광장관, 리비아 경제장관, RCD(Reg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사무총장 등
 - 5.19. ECLA(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사무총장, 몰타 무역산업관광장관 등
- 기타 자료
 - 5.19. 베네수엘라의 생산물 재정공동기금 기여 결정
 - 5.19. 유고슬라비아의 생산물 재정공동기금 3,000만 달러 기여 예정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제4차. Nairobi(케냐), 1976.5.3.-31. 전4권 (V.4 자료)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6-63 / 4 / 1-220

1976.5.3.~31.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관련 자료임.

1. 주요 문제별 입장 및 대책안

- 정치 문제
 - 비동맹 국가와의 관계증진: 77그룹과의 일체감 조성, 유력인사 방한 초청 등
 - 한국대표권 문제
 - 북한 및 친북국가 정치선전 대비
- 경제 문제
 - 상품통합계획
 - 선진국 무역자유화: 77그룹 의견에 동조
 - 개발금융문제: 개도국 입장 동조, 선진국 및 국제기구 협력 촉구
 - 기술이전 행동규범: 중립적 입장에서 원칙적 지지 표명
 - 최빈 개도국 특별대우: 선발 개도국으로서 관심 표명
 - 상이한 체제 간 교역: 정치적 이념을 떠나 전 개도국에 교역을 위한 문호개방 촉구
 - UNCTAD 기구 개편: 중립 입장 지지

2. 정부대표단 훈령

- 선발 개도국으로서 개도국의 실질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
- UNCTAD 내 한국의 지위 향상 도모
- 비동맹 국가를 중심으로 한 77그룹과의 관계 증진
- 주요 선진국과의 기존 우의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개도국의 입장에 동조
- 동구권에 대한 문호개방 촉구
- 북한의 77그룹 가입 대비 등

3. 수석대표 기초연설문안 요지

- 심각한 국제경제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개혁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 지적
- 주요 개도국 수출 품목에 대한 Comprehensive Program은 세계교역에서 가격의 안정과 개도국 수출소득 제고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



- 1차 상품, 무역수지적자 등 교역문제 관련 한국의 입장 설명, 한국의 경제발전상 및 새마을 운동 소개
- 선진국의 대개도국 기술제공 필요성, 개도국의 자체적인 기술개발 노력 강조

4. 참고자료

- UNCTAD 개황
- 해외언론보도 요지 등

UNCTAD / TDB(무역개발이사회) 총회, 제16차. Geneva, 1976.10.5.-22.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6-63 / 5 / 1-16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16차 총회가 1976.10.5.~22.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76.8.24. UNCTAD 사무총장은 제16차 UNCTAD / TDB 총회 개최 관련 공한 송부
- 1976.9.28. 외무부는 제16차 총회에 한국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 관찰 보고하도록 주제네바대표부에 지시
- 1976.9.30. UNCTAD 사무국은 UNCTAD 이사회 가입을 권고하는 사무총장 명의 전문 발송
- 1976.10.2. 외무부는 UNCTAD 이사회 가입은 바람직하며 가입에 따른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주제네바대표부에 지시

2. 참가국

- 이사회 정식 가입 회원국은 기존 회원국 68개국을 포함하여 총 88개국
- 한국이 이사회 가입 의사를 통보함에 따라 의장은 가입 사실을 공표

3. 주요 의제

- 국제운송, 국제다양식 수송, 제품 및 반제품
- 기술이전, 무역진흥, 무역·개발금융
- 국제통화제도 간 상호관계

4. 회의 결과

- 개발도상국 간 경제협력 위원회 설치 합의
- 상품통합계획 정부간 위원회 설치 및 1976.11.24. 제1차 회의 개최 결정
- 제5차 UNCTAD 총회를 1979년중 개최할 것을 유엔총회에 건의
- 1977년 이사회 및 각료회의 개최와 관련, UNCTAD 사무총장이 지역그룹과 협의 결정
- 최빈개도국, 개발도상국 및 내륙국의 부채문제와 관련, 1977년도 개최 이사회 각료회의에서 검토 합의

5. 관찰

- 주요 실질문제에 대해 77그룹과 B그룹 간 대립
- B그룹은 개도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UNCTAD가 지원한 사업 및 비용과 관련, UNCTAD 사무총장이 유엔사무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요청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특혜특별위원회, 제7차. Geneva, 1976.1.5.-16.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 번호	I-6-63 / 8 / 1-82

정부는 1976.1.5.~16.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7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특혜특별위원회에 최호중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회의는 1974.5월 제6차 회의 이후의 선진국가의 특혜실시 상황, 제6차 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및 제5차 원산지 작업단회의 결과에 대한 검토 등에 관해서 논의될 예정이므로 동 회의에 한국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그 동안의 수혜 경험을 바탕으로 의제별 한국입장을 강력히 반영하여 한국의 대선진국 수출확대를 기하고자 함.

2. 훈령

- 개발도상국과 공동보조를 취하여 기존 제도의 개선 노력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다자간 무역협상 결과로 인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의 특혜마진 감소에 대한 보전 촉구 및 현 19개 선진특혜공여국의 제한적 요소 제기
- 특혜공여국의 예외 품목리스트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류, 신발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섬유류의 경우에는 이미 MFA(다자간섬유협정)에 의해 수량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특혜대우를 확대하도록 추진
- 선진특혜공여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선발개도국에 대한 수혜 제한을 거론할 경우, 한국의 수출신장은 GSP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수출산업의 정책적 발전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비자원 보유국인 한국 교역 조건의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특혜제도의 일반적, 무차별 적용이 필요함을 주장

3. 주요 의제

- GSP의 실시상황 검토
- 일반특혜가 기존 특혜에 미친 영향
- 일반특혜제도와 최빈 개도국, 선진국의 일반특혜제도

4. 한국 대표 연설 요지

- 섬유류, 신발류, 전자제품 등 한국 수출 주종 품목이 특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특별관리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특혜효과를 저하시킴.
- Ceiling 산출년도(1968년도)를 최근년(最近年)으로 변경이 필요함.
- 세이프가드의 발동은 극히 불가피한 경우에 사전협의나 경고기간을 가진 후 취할 필요가 있음.
- GSP 효과를 보전하기 위해 MTN(다자간무역협상)에 의한 대개도국 세율의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음.



5. 회의 결과

- GSP 운영개선 문제에 있어 선진·개도국 간 현격한 의견차이로 77그룹 작성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함.
- UNCTAD와 UNDP(유엔개발계획)에 GSP 프로젝트를 1977.4.30. 이후에도 수행할 것을 권고함.
- 최빈개도국, 내륙국 및 도서국의 발언권 강화로 볼리비아가 제안한 GSP 관련 기술지원 결의안이 채택됨.

북한의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가입, 1973.7.24.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1 / 경제기구

MF번호 I-6-63 / 9 / 1-7

북한은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에 1973.7.24. 가입함.

1. UNCTAD는 1973.7.24. 북한의 가입을 발표함.

- 일본 언론은 허담 북한 외무상이 7.20. UNCTAD 당국에 가입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보도
- 중국(구 중공), 루마니아 등 공산국가는 북한의 가입 환영
- 북한은 의장 제의에 따라 A그룹에 배정

2. 북한가입 후 개최된 제13차 UNCTAD 이사회(1973.8.21.~9.11.)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아래의 내용으로 훈령함.

- 북한이 동 이사회에 옵서버를 파견하는 경우, 6·23 특별선언의 취지에 유의 대처
-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우위를 표시하기 위해 각 의제에 적극 참여
- 77그룹 활동에서도 주도적 역할 수행

46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각국의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이사국 입후보 지지 요청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6-63 / 10 / 1-38

1.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아시아·아프리카그룹 이사국 현황

- 1976년말 이사국 임기(5년) 만료 국가
 - 가봉, 필리핀, 튀니지, 탄자니아, 잠비아, 마다가스카르
- 선임 절차
 - 각 지역그룹에서 사전 의견조정을 거쳐 출마
 - 유엔총회에서 결정

462

2. UNIDO 이사국 입후보 지지 요청

- 태국은 1976.3.16.자 공한으로 제31차 유엔총회 기간 중 한국의 지지 요청
 - 한국은 6.2. 지지를 결정하고 공관에 통보
- 파나마는 8.9. UNIDO 자국 상주대표가 UNIDO 사무국장으로 입후보함을 통보하고 한국의 지지 요청
 - 한국은 9.16. 지지 결정을 공관에 통보
- 핀란드는 8.23. 이사국 출마를 통보하면서 한국의 지지 요청
 - 한국은 9.20. 지지 결정을 공관에 통보
- 스위스는 9.17. 이사국 출마를 통보하고 한국의 지지 요청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 공업개발 상설위원회, 제7-8차 및 이사회 회의, 제10차. Vienna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6-63 / 11 / 1-23

1976년 중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 제7~8차 공업개발 상설위원회 및 제10차 이사회가 비엔나에서 개최됨.

1. 제7차 상설위원회(1976.4.5.~15.)

- 대표단(수석대표): 한표욱 주오스트리아대사(옵서버 자격)
- 의제
 - 리마선언(Lima Declaration) 및 행동계획(Plan of Action) 시행과정 검토 및 평가

2. 제10차 이사회(1976.4.20.~30.)

- 대표단(수석대표): 한표욱 주오스트리아대사 등(옵서버 자격)
- 의제
 - 제6~7차 상설위원회 결과 보고사항
 - 제2차 UNIDO 총회 결정 및 권고사항 검토 및 평가
 - 제7차 유엔특별총회 결정 및 권고사항 검토

3. 제8차 상설위원회(1976.9.6.~11.)

- 대표단(대표): 박동규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옵서버 자격)
- 의제
 - 공업개발분야에서의 유엔활동 조정 문제
- 논의 사항
 - 공업개발분야에서 타 국제기구와 업무조정 문제에 대한 토의

4. 제10차 이사회(속개)(1976.9.7.)

- 대표단(대표): 박동규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옵서버 자격)
- 의제
 - 1976~77년 예산안 토의
 - 공업개발기금 설립문제
 - 협의체제(consultation system) 및 기술이전
- 논의 사항
 - 대다수 국가는 예산내용에 만족을 표명하였으나, 일부 국가는 증액 필요성 주장
 - 공업연구 국제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사무국장은 협의를 위한 자료제공 유용성을 설명

UNDP(유엔개발계획) / ACDA(아시아개발행정센터) 사업 참여 및 황인정 교수 파견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6-63 / 12 / 1-25

1. UNDP(유엔개발계획) / ACDA(아시아개발행정센터) 사업 참여

- 한국은 1973.10.9. ACDA 사업계획서 서명(2년간 유효)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은 1975.6.19. 새로운 헌장 발효 시까지 사업 계획서의 연장을 제의

2. 개발행정 전문가 파견

- 황인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973.6월부터 근무(1년 단위로 연장)
 - 주한 UNDP대표는 동 교수의 근무기간 연장을 요청
 - 문교부는 1974.8.13. 근무기간 연장에 동의
- 전문가 파견 추가 연장
 - 외무부는 ACDA 사무국이 황인정 교수의 근무기간을 1976.7.1.부터 2년간 연장 요청한데 대한 문교부의 의견을 조회
 - 문교부는 황인정 교수의 사표수리 형식으로 근무 의무 면제 승인

UNICEF(유엔아동기금) 관련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I-6-63 / 13 / 1-22

1. 유니세프 보건사업 촬영 협조

- 주한 유니세프대표는 유니세프 주관 거제도 보건사업 현지 촬영 협조를 요청
- 국립영화제작소 협조 내용
 - 거제도 소재 시범 보건부락 및 병원건설상황 촬영

2. 유니세프의 대한국 원조현황

- 1949~62년: 230만 달러
 - 비상식량, MCH(평균적혈구혈색소량, 혈액검사로 확인) 서비스, 긴급구호, 출산 등
- 1963~76년: 810만 달러
 - 보건, 과학교육, 영양, 사회서비스 등

UNFPA(유엔인구활동기금) 자금지원에 의한 인구의 해 행사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3 / 14 / 1-20

경제기획원은 1974~75년 중 개최했던 UNFPA(유엔인구활동기금) 자금지원에 의한 '인구의 해' 행사를 종결하고 1976.4.15. 사업시행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1. '인구의 해' 행사 추진협의회

- 1974년 '세계인구의 해'를 맞아 1974.3.21. '인구의 해' 행사 추진협의회를 구성
- 조직
 - 본회의: 의장(경제기획원장관), 부의장(보건사회부장관), 위원 등
 - 실무회의: 본회의 각 기관의 담당과장급

2. 행사 내용

- 세미나 개최
 - 인구문제연구소 주관 세미나(A)(1974.8.1~3.)
 - 동아대 인구문제연구소 주관 세미나(B)(11.10~11.)
-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
 - 동아일보 지상 좌담회(7.22.)
 - 조선일보 지상 좌담회(10.3.)
 - 신문기사 및 사설: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 TV 및 라디오: KBS, MBC 등
- 세계인구회의 참석
 - 방콕 개최 ESCAP지역 사전인구회의(5.6~18.)
 - 하와이 개최 세계인구회의(7.19~28.)
 - 루마니아 개최 회의(8.16~30.) 등
- 기타
 - 기념우표 발행, '인구의 해' 마크 삽입 담배 생산, '세계인구의 해' 및 출산력 조사 포스터 제작, 인구 관련 퀴즈 행사
 - 기념 배지(badge) 제작, 한국 인구대회 개최, 팸플릿 발간

3. 사업 효과

- 인구문제의 중대성과 문제해소를 위한 구체적 행동의 강조
- 세미나 개최 등 전문가의 활동 및 의견수렴으로 인구문제 해결 행동계획을 실천하는 기회 마련
- 일반인의 인구증가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억제방안 모색 효과

WFC(세계식량이사회)회의, 제2차, Rome, 1976.6.14.-17.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3 / 15 / 1-36

정부는 1976.6.14.~17. 로마에서 개최되는 제2차 WFC(세계식량이사회)에 이병석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옵서버대표로 파견함.

1. 제2차 세계식량이사회 준비회의(1976.5.10.~15.)

- 주요 의제
 - 개발도상국의 식량증산
 - 식량원조 및 목표
 - 세계식량안보
 -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2. 제2차 세계식량이사회(1976.6.14.~17.)

- 참석자
 - 이사국 36개국 중 35개국(모리타니아 불참), 옵서버(개별국가 52개국), 유엔기구 (5개 기구), 유엔전문기구(6개 기구), 정부간 기구(6개 기구), 비정부간 기구(20개 기구)
- 훈령
 - 본 회의는 유엔총회 및 세계식량회의의 결의사항 추진경과와 세계식량사정 완화 및 이와 관련된 현안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여 유엔총회에 건의하는 역할을 하는 회의임.
 - 동 회의에 시중 참관하여 동 회의 경과(논의사항, 결과) 및 한국 식량사정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보고할 것
 - 현지에서 입수되는 식량관계 각종자료를 빠짐없이 본국에 송부할 것
- 회의 결과
 - 개도국 식량증산으로 식량사정 개선
 - 식량회의 및 유엔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사후 추진사항을 계속 관찰할 것
 - 사무국이 결의사항에 관한 각국 정부의 추진사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방법 검토
 - 제3차 이사회는 1977.6월 개최하기로 합의

WFP(세계식량계획) / CFA(식량원조정정책계획위원회) 회의, 제1-2차. Rome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3 / 16 / 1-254

1976년 중 WFP(세계식량계획) / 제1~2차 CFA(식량원조정정책계획위원회) 회의가 로마에서 개최됨.

1. 제1차 회의(1976.4.26.~5.7.)

- 대표: 김영자 보건사회부 부녀아동국장(옵서버 자격)
- 파견 목적
 - 옵서버를 파견하여 동 위원회의 향후 운영형태 및 사업방향을 파악하고 그 동안 WFP 지원으로 한국에서 실시한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설명하고 동 기구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자 함.
 - 현재 WFP에 신청 중인 보건사회부 소관 탁아소 급식사업(1973~76.6월)의 3년간 연장을 위한 추가 사업계획서가 동 회의에서 승인되도록 WFP 당국 및 참가회원국에 대하여 필요한 교섭을 전개하고자 함.
- 참석 현황
 - 회원국(29개), 옵서버(36개국), 유엔기구(20개)
- 회의 내용
 - 논의 사항: 1백만 달러 이상의 재원을 요하는 31개 사업 심의, 31개 사업 중 10개는 최빈 개도국 식량지원사업, 대체로 농업개발사업에 비중을 두고, 기타 영양사업 등을 논의
 - 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무총장의 연차 성명
 - 여타 기구와의 협력
 - 민간 기구에 의한 비식량 투여 조항상의 WFP 조정 역할
- 한국의 CFA 승인요청 사업
 - 탁아소 영양급식 및 직업훈련사업 지원(470만 달러) 승인

2. 제2차 회의(1976.11.15.~24.)

- 대표: 이병석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옵서버 자격)
- 파견 목적
 - WFP의 자원과 비상 식량원조 상황, 제1차 회의 이후의 조치사항 검토
 - 식량원조 정책과 계획의 토의 결정
 - 식량원조사업의 검토 승인
- 참석 현황
 - 회원국(28개), 옵서버(39개국), 국제기구(21개)



● 토의 내용

- 세계식량계획의 자원: 선진기여국의 협력 촉구
- 비상식량: 21개 사업 3,800만 달러 승인
- 식량원조 정책과 계획: 이사회 건의사항, 원조의 상호 조정 등

WFP(세계식량계획) 분담금 서약회의, New York, 1976.2.4.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3 / 17 / 1-88

정부는 1976.2.4. 뉴욕에서 개최되는 WFP(세계식량계획) 분담금 서약회의에 안영철 주유엔대표부 공사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파견 경위

- 1976.1.2. 유엔사무총장 및 FAO(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은 공동명의로 FAO 1977/78년도 예산에 관한 회원국 서약회의를 1976.2.4. 유엔본부에서 개최 예정임을 통보
 - 제30차 유엔총회 및 제18차 FAO 총회 결의에 따라 WFP의 1977/78년도 사업계획 달성을 위하여 자발적 분담금 모금 목표액을 7억 5천만 달러로 책정한바, 유엔사무총장 및 FAO 사무총장은 공동명의로 상기 분담금 서약회의에 한국 대표를 파견하도록 초청하여 옴.
- 1976.1.6. 외무부는 경제기획원에 한국 납부 분담금 및 수원현황을 통보하고 의견을 문의
- 1976.1.19. 정부대표 임명
- 1976.1.21. 외무부는 분담금 서약 액수(1977~78년도: 2만 달러)를 주유엔대표부에 통보

2. 파견 목적

- 유엔사무총장 및 FAO 사무총장 공동명의로 동 회의에 한국 대표 파견을 초청받음.
- 현재 한국은 평택금강지역 농촌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3,900만 달러의 원조를 WFP로부터 받고 있으며, 이외 1976년초에 2,400만 달러 상당의 농촌수리사업자금을 공여받을 예정이며, 현재 초등학교 아동급식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3,250만 달러 상당의 원조를 신청 중에 있음.
- WFP 자발적 분담금으로 2만 달러(연 1만 달러)를 서약할 예정으로 현재 경제기획원과 협의 중임.

3. 회의 내용

- WFP 분담금 목표액: 7억 5천만 달러
- 한국 서약 분담금(1977~78년도): 2만 달러
 - 1975~76년도: 1만 2천 달러(연 6천 달러) 납부
- 분담금 서약 총액: 5억 2천 5백만 달러
 - 미국(1억 8천만 달러), 캐나다(1억 5천만 달러), 사우디(5천만 달러), 덴마크(2억 9천만 달러) 등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 특별회의, 제22차. Montreal(캐나다), 1976.10.19.-11.12.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3 / 18 / 1-163

제22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 특별회의가 1976.10.19.~11.12.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최 경위

- 1976.4.23. ICAO 사무총장은 회의 개최 및 의제 통보 공한을 송부
- 1976.5.14. 외무부는 교통부에 참석 대표단 추천 요청
- 1976.5.17.~6.1. 법률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 1976.9.3. 교통부는 불참 통보
- 1976.9.17. ICAO 사무국은 회의자료 송부

2. 주요 의제 및 논의사항

- 바르샤바협약 의정서를 단일협약으로 통합하는 문제
- 통합안의 무과실책임주의 문제
- 여객 1인당 배상책임 한도액 증액 문제

3. 교통부 훈령

- 협약상의 여객 1인당 배상책임 한도액 현황
 - 바르샤바협약: 1만 달러(소송비 제외)
 - 헤이그의정서: 2만 달러(소송비 제외, 한국이 가입한 협정)
 - 몬트리올협정: 7만 5천 달러(소송비 포함)
 - 과테말라의정서: 10만 달러(소송비 제외)
 - 통합안: 11만 4천 달러(소송비 제외)
- 통합안에 대한 한국입장
 - 바르샤바협약 의정서의 단일협약 통합 및 무과실책임주의에 동의
 - 다수 국가 동의 시 배상책임 한도액 증액에 동의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이사회, 제36-37차. London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3 / 19 / 1-61

1976년 중 제36~37차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이사회가 런던에서 개최됨.

1. 제36차 이사회(1976.6월)

- 제안 사항
 - 소련, 나이지리아 등 일부 국가는 IMCO 회원국의 IMCO 상주대표부 설치를 제안
- 논의 경과
 - 1976.8.25. 주한 영국대사관 1등서기관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영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나 동 제안이 IMCO에서 정식으로 채택 시 영국 정부와 IMCO 간의 협정 개정을 위한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이 건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
 - 한국 측은 상주대표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대한다는 비공식 입장을 표명
 - 1976.9.4. 주영국대사는 동구 몇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부정적 반응 보고
 - 1976.9.6. 외무부는 대다수 회원국의 외교공관 설치 현황 등 감안, 반대 입장을 IMCO 측에 통보하도록 주영국대사관에 지시

2. 제37차 이사회(1976.10월)

- IMOC circular letter No.307(1976.7.14.)에 대한 이탈리아, 소련 등 각국 답신 수록

Srivastava, Chandrika Prasad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사무총장 방한, 1976.4.27.-29.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3 / 20 / 1-81

Chandrika Prasad Srivastava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사무총장은 1976.4.27.~29. 공식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6.2.28. 주영국대사는 동 사무총장의 중국(구 중공) 방문 계기 방한 초청을 건의
- 1976.3.2. 외무부는 교통부에 의견 문의
- 1976.3.8. 교통부는 초청에 긍정적 의견 회신
- 1976.3.9. 외무부는 방한 초청 결정
- 1976.3.11. 주영국대사는 초청 의사 전달

2. 주요 일정

- 예방: 외무부장관, 교통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항만청장, 한국선주협회장
- 오찬: 교통부차관 주최, 선급협회장 주최
- 만찬: 항만청장 주최, 한국선주협회장 주최
- 방문: 한국과학기술연구소

3. 방한 성과

- 한국의 IMCO 활동 참여에 대한 협조
- 한국의 해운성장을 위한 기술지원 협력

IAEA(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발전소 안전지침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3 / 21 / 1-12

1. IAEA(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발전소 안전지침 검토 경위

- 1976.4.22. IAEA 사무총장은 의견조회 공한을 송부
- 1976.8.4. 과학기술처는 외무부에 의견 회신
- 1976.8.11. 외무부는 한국 검토의견을 IAEA사무국에 제출하도록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지시
- 1976.11.3. IAEA 사무총장은 원자력발전소 안전지침 자료를 송부

2. 핵발전소 규제를 위한 정부규칙 안전규약 검토 경위

- 1976.6.2. IAEA 사무총장은 의견조회 공한 송부
- 1976.6.30. 외무부는 과학기술처에 의견 문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20차. Rio de Janeiro(브라질), 1976.9.21.-29.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3 / 22 / 1-181

정부는 1976.9.21.~29.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제20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한국은 동 총회에서 1977~82년도 사업계획 심의 시 적극 참여하여 한국 요청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고, 회원국 대표들과 접촉하여 기술협력 증진 및 친선 유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북한(1974.9.16. 가입)은 동 총회를 계기로 한국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위한 노력을 왜곡 비난하는 등 정치적 행동을 유도하고, 남미지역에 대한 침투 및 정치적 선전 기초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북한의 정치적 행동에 강력히 대응하여 이를 봉쇄하고자 함.

2. 훈령

- 평화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 표명
- 원자력분야의 선진 회원국 및 IAEA 대표들과 적극 접촉하여 친선 유대를 강화하고,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운영 및 сей프가드에 따른 제반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협력 증진에 노력
- 원자력발전소의 평화적인 운영 및 안전조치를 위한 지역훈련센터 및 핵연료 주기센터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적극 참여 협조 요청
- 핵연료 공급체계 확립을 위한 핵연료 수출국들과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관계 증진
- IAEA의 제반사업이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긴밀한 의견교환 및 정보자료 교류
- 북한의 대IAEA와 회원국 활동상황 및 원자력 관계 정보자료를 수집 참고하여 한국의 원자력 기술협력을 원활히 추진
- 한국의 1977년도 IAEA 정규 기술원조 및 1976년도 연구계약 신청분야가 전부 승인 될 수 있도록 IAEA 당국과 적극 교섭

3. 주요 의제

- 1977~82년도 사업계획 및 1977년도 예산 검토
- 1975년도 사업 및 회계보고서 검토
- 이사국 개선
- 회원국의 부담금 사정
- 1977년도 자발적 부담금 토의
- 신규 회원국 가입



4.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 요지(1976.9.24.)

- 안전조치에 따른 원자력 발전 기술의 원활한 제공 강조
-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가입 촉구
- 원자력 기능인 훈련 필요성 강조

5. 논의 및 의결사항

- 아시아 국가간의 원자력기술연구 개발 및 훈련을 위한 협력 협정
- 아시아지역 원자력 기능인 훈련센터 설치
-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옵서버 자격 총회 초청 결정
- 남아공의 상임이사국 자격 재고에 관한 권고안 통과

6. 성과

- 1977년도 IAEA 예산에서 한국은 13만5천 달러 상당의 전문가 및 기자재 수원
- 21명의 장학생 파견 훈련 및 4명의 과학자 방문 요청 수락 확실히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19차. Nairobi(케냐), 1976.10.26.-11.30.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4 / 1 / 1-193

정부는 1976.10.26.~11.30.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19차 유네스코 총회에 연하국 주케냐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1950년 유네스코 가입 이래 대표단을 파견, 교육, 과학, 문화 등에서의 국제협력 증진
- 차기 제20차 총회 시 한국의 집행이사국 입후보를 위한 사전조치 강구
- 북한의 첫 유네스코 총회 참석, 미국 등 일부 국가의 분담금 지불 거부 문제, 이스라엘 문제 등 정치적 제반 문제가 논의될 것이 예상되므로 적절한 대처 필요
- 유네스코 창설 30주년이므로 유네스코 주요 사업의 총정리 및 기본방향 파악

2. 주요 의제

- 신규 회원국 가입 신청
- 집행이사국 선출
- 1977~78년도 사업 및 예산안 심의
- 교육, 과학 및 문화분야에서의 국제협력 문제 심의 및 결정

3. 회의 결과

- 각국 대표의 기초연설
 - 중국(구 중공), 소련 및 북한은 한국에 관해 언급하지 않음.
- 행정위원회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본부 직원의 지역적 배분 결의안 통과
- 사우디아라비아 등 29개국이 대이스라엘 결의안 제출
 - 한국 불참
- 1977~78년 중 한국에서 각종 국제회의를 유치하도록 유네스코 사무국과 협의하고 승인을 얻음.
 - 지구과학동남아시아 지역 세미나(1977.10월)
 - 응용미생물학 단기훈련과정(1978년중) 등

4. 특기사항

- 북한의 홍보영화 상영(11.5.)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역사적 유적지 보존 및 현대 환경과의 조화에 관한 정부 전문가회의. Warsaw(폴란드), 1976.2.9.-18.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4 / 3 / 1-134

정부는 1976.2.9.~18.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역사적 유적지 보존 및 현대 환경과의 조화에 관한 정부 전문가회의에 민병규 주프랑스 수석공사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 6·23 선언에 따른 대동구권 관계개선 노력 전개
- 회의 참석 계기 폴란드 관계기관과의 직접 접촉 방안 모색

2. 참가국

- 유네스코 40개 회원국 대표(80명), 전문기구(12개) 및 옵서버

3. 회의 결과

- 역사적 유적보존에 관한 유네스코 회원국에 대한 권고결의안 제48조 전문을 축조심의, 제출된 27개 수정안을 이의 없이 통과, 1976.2.16. 최종안 채택
- 이라크 등 3개국이 공동 제출한 점령지역 내 문화재 보호에 관한 조항 삽입 통과

4. 특기사항

- 정부대표단 3명을 구성하였으나, 수석대표인 민병규 공보관에게만 폴란드 입국 사증이 발급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청소년 체육 및 스포츠 관계 장관회의. 제1차. Paris(프랑스), 1976.4.5.-10.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4 / 2 / 1-210

정부는 1976.4.5.~10.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1차 유네스코 국제 청소년 체육 및 스포츠 관계 장관회의에 윤석현 주프랑스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규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회의는 세계 최초의 체육 및 스포츠 관계 각료 및 고위담당관 회의로서 유네스코 회원국 및 각종 국제기구 대표들에게 관계분야에 있어서의 한국의 발전상 소개, 정보 교환, 체육 및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 및 협력추진을 통해 한국에서의 동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훈령

- 동 회의에 참석하는 중립국 대표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통하여 정보교환 및 공동사업추진 가능성 타진
- 북한을 비롯한 공산국가 대표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비하여 동 회의는 체육 및 스포츠에 관한 국제협력을 목표로 하는 비정치적 회의임을 근거로 강력한 반박
- 국가 이익에 합치된다고 판단될 경우 체육 및 스포츠 관련 국제회의 및 사업의 국내 유치 노력
- 한국의 청소년 체육 및 스포츠 발전상을 적극 소개,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회원국과의 협력 관계 증진

3. 정부대표단 주요 활동

- 4.6. 수석대표 연설
- 4.8. 교체 수석대표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연설

4. 참가국

- 회원국(101개), 옵서버(19개 비회원국 및 비정부대표)

5. 주요 의제

- 청소년 교육에서의 체육 및 스포츠 현황
-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교육에서의 체육 및 스포츠의 역할
- 체육 및 스포츠 증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조치
- 체육 및 스포츠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6. 성과

- 청소년 교육에서의 체육 및 스포츠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 동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증진 방안 논의 및 개발 참여
- 사진 전시회를 통한 홍보활동

북한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가입 및 상주대표부 설치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4 / 4 / 1-19

1. 북한의 유네스코 가입

- 1974.6.25. 유네스코 집행위원회는 북한의 가입을 결의
- 1974.10.17. 제1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북한가입 결정
- 1975.1.25. 북한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유네스코 민족위원회를 1974.12.24. 조직한 사실을 통보
- 1975.11.10. 제6차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아주지역회의에 북한 대표단 4명이 참석

2. 북한의 유네스코 상주대표부 설치

- 1976.8.13. 주프랑스 북한통상대표단장은 유네스코 상주대표부 개설 관련 북한 3등서기관 파견 사실을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사증 발급 등 협조 요청
- 1976.9.8.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과장 등 2인은 유네스코를 방문, 대표부 개설 협의
- 1976.10.17. 북한 유네스코 상주대표부 설치
 - 대표 부임: 리동혁 공사

48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 및 극동지역 총회, 제13차. Manila, 1976.8.5.-13.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4 / 6 / 1-232

정부는 1976.8.5.~13.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13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 및 극동지역 총회에 함만준 농수산부 농정차관보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이기주 주필리핀 대사관 공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회의는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로서 FAO와의 기존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기구 내에서의 한국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동 회의에 강력한 대표단을 파견하여 적극적인 활동 전개가 요청됨.
 - 중국(구 중공)의 첫 참석 지역총회로서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정치적 책동이 우려되고, 북한은 현재 비회원국이나 내년 가입을 목적으로 사전 공작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함.
 - 한국은 차기 FAO 아주지역 이사국으로 입후보하는 경우를 위하여 사전에 우방과 협조 방안을 모색해야 함.

2. 훈령

- 동 회의 참가국의 농업 현황 및 동향을 파악, 관련 정보를 정확히 수집보고하여 한국의 농업발전에 기여, 국제협력 증진 노력
- 식량증산 및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 강조, 소농 및 농업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역설
- 일부 정치적 발언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방침 및 문호개방 정책을 근거로 적절히 반박
- 한국의 농업 및 식량증산 시책 소개, 의제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수석대표의 기조연설과 대표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널리 홍보

3. 정부대표단 활동

- 수석대표 연설(8.11.)

4. 주요 의제

-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의 소농개발 계획
- 농촌지역 사회개발을 위한 산림자원의 개발문제
- 농업자재의 공급, 배분 및 이용 개선을 위한 수단
- 소농개발을 위한 신용 및 유통구조 개선



5. 회의 결과

- 소농의 생활 향상 등 FAO지역 사업 검토
- 결의안 채택
 - 소농 수준에서의 작물, 축산, 어업생산에 관한 결의안
 - 지역개발을 위한 산림에 관한 결의안
 - 마닐라선언

6. 건의사항

- 전문가 파견, 훈련생 접수 등 기술공여
- FAO 본부 및 지역사무소에 정부 부담 전문가 파견 필요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 제69차. Rome, 1976.7.12.-16.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4 / 5 / 1-28

정부는 1976.7.12.~16. 로마에서 개최되는 제69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에 이병석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옵서버 대표 자격으로 파견함.

1. 참가국

- FAO 이사국(42개국), 옵서버(17개국), 국제기구(28개)

2. 회의 목적

- FAO 사무총장이 제안한 FAO의 사업계획, 구조 및 정책에 관한 새로운 시책
- 앙골라, 모잠비크의 FAO 가입 신청
- 제70차 FAO 이사회의 시기와 장소 등

3. 회의 결과

- FAO 측은 FAO의 당면 과제, 개도국 투자기술협력, FAO 지역기능 강화 정책, 경비절감 방안 제시
- 이사회는 식량농업개발 투자 강화, 기술협력 등 사무총장의 제안을 환영
- 앙골라 등의 가입은 차기 총회에서 결정 예정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77그룹회의. Rome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4 / 7 / 1-27

1976년 중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77그룹회의가 로마에서 개최됨.

1. FAO / 77그룹회의(1976.3.17.)

- 참석 현황: 30개국 대표 참가
- 회의 내용
 - FAO 사무총장은 FAO 운영상의 쇄신방안 피력

2. FAO / 77그룹 아시아·극동지역회의(1976.3.19.)

- 참석 현황: 한국, 인도 등 10개국
- 회의 내용
 - FAO 미국과장은 '세계식량안보위원회' 관련 해설에서 세계 양곡 적정 비축량은 1.6억 톤이나 실제 비축량은 1억 톤에 불과하여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협력 중요성을 지적
 -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설치를 위한 공식 통보 일정 논의

3. FAO / 77그룹회의(1976.10.12.)

- 회의 내용
 - 11.17. 파리 개최 남북회의 관련 19그룹이 제안한 식량농업 문제에 대한 77그룹의 대처방안 토의
 - 대처 초안 작성을 위한 작업단을 스리랑카 등 6개국으로 구성 합의

4. FAO / 77그룹회의(1976.10.29.)

- 회의 내용
 - 19그룹이 제안한 식량농업에 관한 문제 토의
 - 대다수 대표는 77그룹에서 19그룹에 특별히 추가 제안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 개도국 안을 권장하기로 합의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비료위원회 회의, 제3차. Rome, 1976.6.8.-11.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4 / 8 / 1-114

정부는 1976.6.8.~11. 로마에서 개최되는 제3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비료위원회 회의에 이창기 주이탈리아대사관 수산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석 현황

- 55개국 대표 92명, 9개 국제기구대표 10명, 비료생산자문위원회 대표 9명 등 총 111명

2. 한국 대표 발언 내용

- 비료 생산현황에 대한 소개

3. 회의 결과

- 비료 소비가 지난 30년간 처음으로 감소
- 1980~81년까지 비료의 수요, 공급의 적정선 유지
- 국제비료공급사업에 대해 선진국은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개도국은 지속의 필요성을 역설, 1977년말까지 지속에 합의
- 가격안정책으로 비료에 대한 국제공급협정 실행 가능성은 없음.
- 사무국은 기존 및 신설공장의 생산가격 및 투자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CFS(세계식량안보위원회), 제1차. Rome, 1976.4.5.-9.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4 / 9 / 1-116

정부는 1976.4.5.~9. 로마에서 개최되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제1차 CFS(세계식량안보위원회) 회의에 이창기 주이탈리아대사관 수산관을 대표로 파견함.

1. 참가 현황

- 72개국 대표 125명, 24개 국제기구 대표 29명 등 총 244명

2. 회의 목적

- 세계식량안보를 중심으로 세계식량의 수요·공급·비축 현황 정보수집 및 분석평가
- 세계적정식량 재고량의 주기적 분석평가
- 세계식량안보에 대한 각국의 정책검토 등

3. 파견 목적

- 본 위원회는 세계적인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한 식량증산지원과 상시 적정량의 세계곡물재고 확보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 제18차 FAO 총회에서 신설된 산하기구이므로 한국은 본 위원회 회원국으로서 제1차 회의부터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식량안보문제에 관한 국제협력 및 기구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훈령

- 참가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친선 도모, 토의 적극 참여, 회원국 상호간 이해증진 및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
- 세계 기본식량 확보문제에 있어서 세계 각국이 자본 기술을 총동원하여 식량증산 및 적정 재고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역설
- 한국은 식량 부족국이므로 동 회의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5. 한국 대표 발언 내용

- 세계식량안보 사정 및 적정 양곡비축량에 관한 견해
- 한국의 양곡보유 정책 및 목표에 대한 소개

6. 회의 결과

- 세계식량안보를 위한 적정 보유양곡 확보 관련 선진국의 기술개발 및 개도국 증산의 중요성 강조
- 밀 세계정보 및 조기경보체제 확립을 위한 다수 국가의 참여 독려
- 회의 진행에 있어서 기니 등 77그룹과 선진국 간의 의견 대립 지속 및 정치색으로 인해 본래 목적 퇴색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COFO(산림위원회) 회의, 제3차 및 열대임업개발위원회 회의, 제4차. Rome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4 / 10 / 1-21

1976.11월 중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제3차 COFO(산림위원회) 회의 및 제4차 열대임업개발위원회 회의가 로마에서 개최됨.

1. 제4차 열대임업개발위원회 회의(1976.11.15.~20.)

- 한국 대표 불참

2. 제3차 COFO 회의(1976.11.22.~27.)

- 의제
 - 지역산림개발사업
 - 펄프 및 제지산업의 개발
 - 개도국 산림경제에서의 벌목과 수송 문제
 - 지역산림위원회, COFO 기구간의 관계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수산증식에 관한 기술회의. 교토, 1976.5.26.-6.2.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4 / 12 / 1-104

정부는 1976.5.26.~6.2.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수산증식에 관한 기술회의에 김균현 수산청 생산국 증식담당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본 회의는 FAO 정규사업의 일환으로 수산증식 및 연안양식에 관한 기술토의를 위해 FAO가 UNDP(유엔개발계획)의 지원을 받아 개최
-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경우, 연안어장 개발 및 각종 수산 증·양식의 필요성이 증가, 각종 과학적인 연구개발 및 장기증산계획은 연안 어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수산품의 수출증진에 중요
- 동 분야의 세계적인 현황과 기술 추이를 관찰하고 선진 자료를 수집, 한국의 수산증식 및 양식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훈령

-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친선 도모,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회원국 상호간에 이해증진 및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
- 세부 훈령에 따라 한국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 한국의 수산증식분야 현황에 관한 설명 및 동 분야에서의 국제적 인식 향상 노력
- 수산 증식 분야의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보고하여 한국의 기술향상 및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

3. 주요 의제

- 세계 수산증식의 현황과 과제
- 수산증식 체계
- 양식종의 영양과 사료기술
- 인위적 재생산 및 이식
- 수산증식의 법률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 향후 수산증식 개발 전략

북한의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가입문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4 / 13 / 1-111

1976년 중 북한은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가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이에 제70차 FAO 이사회에서 북한의 FAO 옵서버 자격 승인이 이루어짐.

1. 북한의 FAO 가입 노력

- 1976.10.8. 진중국 주제네바 북한대사는 FAO 사무총장 면담 시 북한의 FAO 가입 희망 및 상설대표부 설치 문의
- 1976.10.13. 주제네바 북한대사 명의 가입의향서를 FAO 사무차장에게 제출
- 1976.11.3. FAO 사무국은 북한의 가입 신청을 공고
- 1976.11.29. 북한의 FAO 옵서버 자격을 승인함.

2. 제70차 FAO 이사회(1976.11.29.~12.9., 로마)

- 정부대표단(옵서버)
 - 대표: 허리훈 주이탈리아대사관 참사관
- 참가 현황
 - 42개 이사국(151명), 옵서버 46개국(91명), 국제기구 대표(36개)
- 회의 내용
 - 1976년도 세계식량농업 백서: 지난 1년간의 세계농업사정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불안 징후
 - 제1차 세계식량안보회의 보고
 - 세계식량계획: 1975~76년 총 서약 금액은 668백만 달러, 1977~78년 서약 목표는 750백만 달러
 - 지역기능의 강화: 19개국이 FAO 상주대표부 설치 제의
 - 통일베트남의 자격문제: 구 월남의 FAO 회원국 자격 승계 승인
 - FAO 회원국 가입 신청: 북한 등에 대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 허용
- 북한의 옵서버 자격 승인
 - 북한은 동 회의에 불참하였으나, 북한의 FAO 옵서버 자격 문제를 토의 없이 승인
 - 북한은 향후 FAO 이사회, 기술회의 등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 가능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CGFPI(식량생산 및 투자협약단)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4 / 15 / 1-46

1976년 중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제2~3차 CGFPI(식량생산 및 투자협약단) 회의가 개최됨.

1. 제2차 FAO / CGFPI 회의(1976.2.10.~12., 워싱턴)

- 참가 현황
 - 회원국(26개국), 다수 국제기구
- 주요 의제
 - 식량생산의 급격한 증가
 - 자원흐름 분석 경과 보고
 - 비료 산업에 대한 지역 계획, 비료 수요 증가의 재정 및 가격 측면

2. 제3차 FAO / CGFPI 회의(1976.9.22.~24., 마닐라)

- 참가 현황
 - 회원국(22개), 국제기구(6개), 후원기구(3개)
- 주요 의제
 - 식량생산의 급격한 증가 잠재국가 확인
 - 투자 요구와 국가 식량전략의 연계 문제
 - 농업에 대한 대외자원 흐름 보고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극동지역 농업통계위원회, 제6차. Manila(필리핀), 1976.3.25.-31.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4 / 16 / 1-231

정부는 1976.3.25.~31.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6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극동 지역 농업통계위원회 회의에 손종호 농수산부 농업통계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대표단을 파견하여 관련자료 수집, 지역내 농업통계에 관한 정보교환 및 통계전문가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한국의 농업통계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참가 현황

- 회원국(12개국), 유엔전문기구(4개), 정부간 기구(4개), 비정부간 기구(1개), 기타 기구(11개)

3. 정부대표단 활동

- 한국의 1980년 세계농업 센서스에 대한 입장 설명
- 농업경제 통계 분석에 대한 제언

4. 주요 의제

- 아시아·극동지역 식량농업통계 관련 FAO 활동상황 보고
- 각국의 식량농업 통계현황 설명
- 1980년 세계농업 센서스 시행계획 및 추진 방안 검토
- 식량안보를 위한 통계자료의 상호 교환 및 조기경보 체제 수립방안
- 농업경제 통계 및 농산물 가격통계 발전 상황 토의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IPFC(인도태평양양수산위원회) 회의, 제17차. Colombo(스리랑카), 1976.10.27.-11.5.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4 / 17 / 1-129

정부는 1976.10.27.~11.5.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되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제17차 IPFC(인도태평양양수산위원회) 회의에 이상진 주스리랑카통상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현황

- 회원국(16개국), 옵서버(3개), 국제기구 대표(10개)

2. 정부대표단 활동

- 심포지엄 발표회
 - '한국의 내수면 어업현황'에 대해 발표

3. 회의 결과

- IPFC 협정 및 의사규칙 수정
 - 기능강화를 위해 명칭 변경에 합의, 집행위원회 구성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
- 조사통계 상임위원회 및 관리 부속기구 설치 문제
 - 특별위원회를 통한 논의 결과, 자원조사 및 개발상임위원회 설치를 권고
- IPFC의 재원염출 방안
 - 경비조달 방안으로 국별 할당량, 자발적 기여금 등이 제시되었으나 추후 국별 의견 표명 예정
- IPFC지역 참치자원 관리방안
 - 중서태평양지역의 참치어업 자원평가의 긴요성 고려, 방류사업 실시를 위한 재정지원을 권고
- 차기 회의
 - 1978.5월 마닐라에서 개최 예정

4. 평가

- 자원을 이용하는 국가가 자원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 자체 자원평가 관리를 위한 통계 자료 수집체제 확립 필요
- 자원규제 움직임에 대처, IPFC 전문가회의에 참여, 동향 파악 요망
- IPFC 기능강화 문제 지속 논의 전망

WHO(세계보건기구) 헌장 제7조 개정 및 총회 의사규칙 제70조 수정 문제

생산연도 1965-196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4 / 18 / 1-22

1965~66년 중 WHO(세계보건기구) 헌장 및 총회 의사 규칙 개정과 관련된 내용임.

1. 1965.5월 개최된 제18차 WHO 총회에서 헌장 제7조의 개정안이 의결됨.

- 인종차별 정책을 실시하는 회원국을 WHO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WHO 헌장 제7조의 개정
- 영국과 네덜란드는 유엔에서 제외되는 회원국은 WHO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으로 WHO에서도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부결
- 한국은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아프리카 정책 등을 고려하여 기권

2. 1966.2월 벨기에 정부로부터 WHO 총회 규칙 제70조의 개정문제가 대두됨.

- 벨기에가 상기 헌장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총회 의사규칙 제70조에 규정하고 있는 3분의 2 다수결 대상에 '제7조의 적용을 표명하는 결정(decisions expressing application of Article 7)'을 추가하는 내용
- 벨기에는 한국 측의 지지를 요청하였으나, 한국은 신중한 입장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9차. Geneva(스위스), 1976.5.3.-23.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4 / 19 / 1-202

정부는 1976.5.3.~25.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HO(세계보건기구)에 신현확 보건사회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노신영 주제네바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146개 회원국의 보건분야 국제기구
- 한국의 보건분야 발전상 소개

2. 주요 의제

- 1975년도 사업보고서 검토
- 집행이사국 보선 및 신규 회원국 가입
- 1976~7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
- 남·북 베트남 원조 문제
- 중동 난민 원조 문제
- 국가별 보건정책 및 활동 보고

3. 각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 요청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 앙골라 가입 표결 시에는 기권
- 영국, 터키, 튀니지, 그리스, 카타르, 페루의 이사국 입후보지지

4. 정부대표단 활동

- 국제적십자총재 면담
 - 동 총재는 남북적십자회담 진전사항에 관심을 표명
- 페스탈로치 아동촌 방문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회의, 제27차. Manila(필리핀), 1976.9.6.-11.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4 / 20 / 1-108

정부는 1976.9.6.~11.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27차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회의에 장경식 보건사회부 의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목적

- WHO 활동에 적극 참가
- 인도차이나 국가에 대한 특별원조 등 정치적 의미

496

2. 주요 의제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특별원조
- 지역 환경보건사업 등 보건기술

3. 회의 결과

- 의장단 선출
 - 의장: 피지, 부의장: 파푸아뉴기니
- 지역사무처장 보고 및 각국 발언
 - 지역사무처장은 보건사업 진전 평가
 - 중국은 맨발의 의사 자찬
 - 라오스는 회원국 지원을 요청
 - 한국은 보건 및 사회복지정책 소개
-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특별지원(호주, 말레이시아, 프랑스) 결정
- 생의학 연구의 개발과 조정에 관한 역할
 - 말레이시아 Institute of Medical Research 강화
- 지역회의 운영: 매년 지역회의 개최 결정
- 차기회의 개최
 - 제28차 회의: 1977.9.6.~12. 일본 동경
 - 제29차 회의: 1978.9월 필리핀 마닐라

WHO(세계보건기구) 월맹 및 공산월남 특별원조를 위한 서태평양지역 특별회의. Manila(필리핀), 1976.3.30.-31.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5 / 1 / 1-193

WHO(세계보건기구) 월맹 및 공산월남(남·북베트남) 특별원조를 위한 서태평양지역 특별 회의가 1976.3.30.~31. 마닐라에서 개최됨.

1.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국장은 1975년도 제28차 WHO 총회 결의에 의거 1976.3월 동 특별회의를 제안하고 한국 정부의 참석을 요청함.

● 주필리핀대사관 직원이 참석

- 남·북베트남 대표 반응 조사, 재베트남 한국인 거취 관련 정보수집 목적

2. 한국 정부 검토 사항

- 우방국 입장 파악: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 참석여부(남·북베트남 측의 참석 반대 가능성)
- 원조 제공 여부

3. 한국 정부 입장

- 원조에 대한 입장은 동 회의 분석 후 사무국에 통보
- 남·북베트남 대표가 한국 대표 참석에 이의 제기 시 온건하게 반박 후 회의 참석 중단

4.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국장 면담 시, 남·북 베트남 대표의 한국 대표 참석에 대한 반응

- 한국 대표 참석에 대해 '과거지사는 과거지사'라는 반응
- 한국 원조 제의에 대해서는 양국간 주고받기는 곤란하고 WHO를 통한 경우에는 긍정적

5. 회의 결과

- 본국 정부대표단 참석은 일본, 프랑스, 필리핀에 불과(현지공관 참석 또는 불참).
- 북베트남 대표는 정치색을 배제하면서, 개별원조보다는 WHO를 통한 원조 희망 발언
- 한국 대표는 금번 회의 결과를 검토 후 결과를 지역사무소에 통보 예정임을 발언함.

6. 남베트남 대표의 1976.3.31. 한국 대표와 대담 시 주요 언급 내용

- WHO를 통한 원조 수용, 동 회의 참석에 사의 표명

각국의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가입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5 / 2 / 1-91

1973~76년 중 기니비사우 및 앙골라의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가입 관련 내용임.

1. 기니비사우의 ITU 가입 신청

- ITU 사무총장은 1973.11.9.자 공한을 통해 기니비사우의 ITU 가입 신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문의해옴.

2. 한국 정부는 1974.1~2월 기니비사우의 ITU 가입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감안, 투표 현황을 파악하여 찬성 혹은 기권하는 입장을 검토함.

- 아시아·아프리카지역 비동맹국 중심으로 70여 개국이 승인
 - 제28차 유엔총회 시 기니비사우의 독립을 환영하며 포르투갈의 무력행사 방지 촉구 채택
 - 기니비사우의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가입
- 국가승인과 가입 문제는 구분
- 아시아·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외교 강화, 북한 준동 저지
- 포르투갈에 대하여는 기니비사우의 ITU 가입을 지지했더라도 이것이 국가승인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뜻을 설명하고 이해 설득

3. 기니비사우의 ITU 가입 신청 결과(1974.3.1.)

- 한국은 입장을 회보하지 않음으로써 기권
- 가입승인에 필요한 95개국 찬성을 얻지 못함(찬성: 63개국).

4. 앙골라의 ITU 가입 신청

- ITU 사무국은 1976.6월 앙골라의 ITU 가입 신청을 회람하고 9.24.까지 한국의 입장 회답을 요청함.

5. 한국 정부는 1976.6~8월 앙골라의 ITU 가입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감안, 기권하는 입장을 검토함.

-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방국가들은 현재까지 앙골라 정부를 승인하지 않고 있고, 한국도 동 정부의 승인을 보류하고 있음.
- 한국과 앙골라와의 통신 관계는 극히 희박하여 앙골라의 ITU 가입이 한국의 통신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ITU(국제전기통신연합) / CCITT(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총회, 제6차. Geneva(스위스), 1976.9.27.-10.8.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5 / 3 / 1-123

정부는 1976.9.27.~10.8.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6차 ITU(국제전기통신연합) / CCITT(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총회에 배호원 체신부 전무사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기구 산하 연구단의 새로운 기술 및 운용 방법에 대한 결과 및 권고안 승인
- CCITT 위원장 선거
- 새로운 세계적 규범의 기술, 운용정보의 입수와 동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과의 국제협력 추진

2. 훈령

- 각 분과위원회 보고서 심의에 참석하고 한국과 관련된 문제는 귀국 후 계획 지원, 추진
- 총회 의장단 및 CCITT 위원장 선거에서 능력 있는 우방국 후보 선출
- 현 연구단은 연구 실적에 따라 존속, 폐지
- 필요한 과제를 추가하여 한국 전기통신 사업의 발전 도모

3. 회의 결과 및 평가

- CCITT 연구에 적극 참여, 국내의 전담기구 확대 필요
- 현행 CCITT의 권고에 적응 필요

한국의 UNFDAC(유엔약물남용통제기금) 납부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I-6-65 / 4 / 1-28

1975~76년 중 한국의 UNFDAC(유엔약물남용통제기금) 납부에 대한 내용임.

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5.2.20.자 공한을 통해 UNFDAC에 대한 납부를 요청함.

- 한국 정부는 3.5.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동 기금의 납부가 불가능하나 앞으로는 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회신

2. 보건사회부는 1976.6.12. 외무부장관 앞 서한에서 보건사회부의 1976년도 예산에서 1,000 달러를 동 기금에 납부하기로 결정함.

- 각국별 기금 지원 리스트 수록

3. 기여금 납부 필요성

- 세계 각국이 자발적으로 동 기구에 기금 납부에 참여하고 있고, 한국의 대유엔 관계를 감안,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동 사업에 대한 관심 표명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판단

4. UNFDAC 측은 1976.10.8. 한국 정부에 감사서한을 송부함.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행사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I-6-65 / 5 / 1-32

1976년 중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된 내용임.

1. 주유엔대표부는 1976.2.26.자 외무부장관 앞 서한에서 유엔사무총장이 3.21.을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정하고 3.19. 기념행사를 개최할 것을 호소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는 내용을 보고함.
 - 국가 원수 또는 외무부장관 명의 메시지 송부 요청
2. 한국 정부는 박동진 외무부장관 명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유엔사무국 및 각국은 이를 보도 자료로 배포함.

IOE(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제44차. Paris, 1976.5.17.-22.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5 / 6 / 1-109

정부는 1976.5.17.~22.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4차 IOE(국제수역사무국) 회의에 이창구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기구를 통해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검역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가축방역 및 축산물 수출에 기여하기 위함.

502

2. 주요 의제

- 돼지 수포성 질병 방제
- 광견병 방제
- 진드기 매개 질병 방제
- 각국의 가축위생 현황 및 방역 대책
- 가금 질병 및 어병(魚病)

3. 아시아지역위원회 개최(1976.5.18.)

- 한국, 일본 등 10개국 지역 대표 참석
- 남태평양 군소 국가와 가축위생 정보 교환
- 지역위원회와 FAO 아시아 가축번식위생 사무국 간 유대 결성

4. 회의 결과

- 한국 대표는 한국의 광견병 방제 대책 발표
- 진드기 매개 질병 방제
 - 제주도 및 남부지방에서의 진드기 피해가 해마다 증가,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결의안을 채택하여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및 국제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진드기 방제사업 참여 권고
- 돼지 수포성 질병
 - 한국에서는 발생이 없는 질병으로 생돈이나 돈육의 수입 규제를 통한 예방 필요
- 구제역 방제기술훈련 추진
 - 가축위생연구소의 연구관 훈련에 관하여 Brown 영국 농림성 수의국장 및 Brookaby 농림성 구제역 연구소장과 협의함.
 - 농수산부 동물검역소 기술자 훈련에 관하여 Subharngkasen 태국 축산국장과 협의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 회의, 제13차.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76.11.22.-12.6.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지구

MF번호 I-6-65 / 7 / 1-116

정부는 1976.11.22.~12.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제13차 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 회의에 김종수 한국자원개발연구소 부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CCOP 회원국 연안 해저의 석유 및 광물자원 탐사 진전사항 검토
- 회원국 간 및 협력국 간의 자원탐사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
- 1976~77년도 CCOP 사업계획 결정

2. 회의 결과

- 파푸아뉴기니의 신규 가입신청(회원국 입장 추후 통보)
- CCOP의 고려사항(terms of reference) 수정에 합의
- 석유 심포지엄 개최 합의
- 차기 회의 1977.9~10월 중 마닐라에서 개최 합의

3. 한국 대표단 활동

- 외국 전문가 파견의 효율성 강조, 제4기 지질조사를 위한 해양지질, 지구물리 및 시추 전문가의 파견 및 해상탐사 자료해석 전문가의 파견 요청
- 위원국 간 협력 확대와 관련하여 한국이 1976.5~7월간 말라카 해협 광물자원 탐사를 위하여 장비 및 인원을 제공한 데 대하여 Project office 및 관계국 대표로부터 사의 표명이 있었음.

4. 평가

- 동남아 산유국이 동질성을 띄게 됨에 따라 CCOP의 분위기가 아세안 중심으로 이동하는 경향

AOPU(아시아대양주우편연합) 집행이사회, 제2차. Pattaya(태국), 1976.11.1.-4.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5 / 8 / 1-96

정부는 1976.10.29.~11.4. 태국 파타야에서 개최되는 AOPTS(아시아대양주우정학교) 관리이사회 및 제2차 AOPU(아시아대양주우편연합) 집행이사회에 김동권 체신부 우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중국(구 중공) 등 공산권의 정치적 책동을 봉쇄하고 북한의 옵서버 참석 경우에 대비하고자 함.

504

2. 주요 의제

- 가입절차 등 협약의 일부 개정
- 1973~74년도 AOPU 중앙사무국의 회계 결산 승인
- 제4차 총회 개최지 결정
- 아시아대양주우정학교 제3단계 사업운영 계획의 검토

3. AOPTS 관리이사회(1976.10.29.~30.)

- 참석 현황
 - 정회원 자격: 한국, 필리핀, 태국 등
 - 옵서버 자격: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 일본, 라오스,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등
 - 북한은 초청되었으나 불참
- 회의 주요 결과
 - 차기 우정학교의 Project manager 임명 건은 필리핀 2명, 한국 1명이 후보로 추천되어 경합되었으며, 대표단 교섭 결과 관리이사회 의장이 우정학교장과 협의하여 추후 임명하기로 결정, 한국 후보가 내정됨.
- 정부대표단 활동
 - 10.30. AOPTS 회의 대표 전원을 오찬에 초대하여 중국을 제외한 전 회원국(라오스 참석)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룸.

4. AOPU 집행이사회(1976.11.1.~4.)

- 참석 현황
 - 전 회원국(11개국) 및 관련 국제기구 참석



● 회의 주요 결과

- 제4차 AOPU 총회 한국 개최 문제는 거론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비공식 여론에 따라 의장이 한국 측에 통보하고 동 회의에서 공식 거론되지 않음.
- 지역범위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추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루기로 결정함.

5. 1976.11월 한국은 파키스탄의 AOPU 가입 신청에 동의함.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운영협정 서명자 회의, 제4차. Singapore(싱가포르), 1976.4.6.-9.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5 / 11 / 1-149

정부는 1976.4.6.~9.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운영협정 서명자회의에 가재남 체신부 전무사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이사회 연례보고, 회계처리상황 검토 및 집행기구의 운영사항 검토
- 자본한도액 증가에 관한 이사회 건의에 대한 심의
- 장기계획과 제2위성지구국 계획과의 조정

2. 주요 의제

- INTELSAT 활동 및 재정상황에 관한 이사회 연례 보고서
- 향후 계획 및 부수 재정계획에 관한 이사회 보고

3. 회의 결과

- 현 자본 한도액 5억 달러에서 9억 달러로 증액 결정
- 나이지리아 및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국내 통신을 위한 INTELSAT 우주부문 사용 신청 승인
- 이사회 단독 및 공동 대표권을 위한 최저 투자율 결정
- 차기 회의: 1977.4.17.~22., 시드니

4. 대표단은 대만(구 자유중국)의 ITDC(국제전기통신개발공사) 및 국제전기통신 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CGRA(대만전신총국)를 각각 방문, 그 시설 및 상황 참관, 향후 한·대만 간 서비스 개선에 관한 상호 의견교환 및 협의함.

- ITDC 방문(1976.4.10.)
 - 지구국 시설 및 운용 현황, 향후계획 설명 및 협력 요청
 - 1977년 중반기에 개통 예정인 제2금산지구국의 건설현황 및 운용계획을 설명, 상호간 위성 기술 정보교환 요청
- CGRA 방문(4.12.)
 - 운용상황 및 각국간 소통현황, 한·대만 간 회선 증설계획 설명 및 한국의 협조에 사의 표명
 - 한국 측은 양국간 소통량 증가에 대비,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회선 증설 및 시설확충 현대화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 협조 당부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가입국 총회, 제2차. Nairobi(케냐), 1976.9.27.-10.1.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5 / 10 / 1-190

정부는 1976.9.27.~10.1.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2차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가입국 총회에 박남균 주케냐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한 심의에 참석
- 장기계획과 각국의 위성운용계획 및 최신 위성기술 정보수집
- 공동이사국(이란, 파키스탄, 터키) 대표와 별도 회동으로 국제협력 협의

2. 한국 정부는 훈령 등을 통해 INTELSAT의 중재위원 및 법률고문 후보 지지자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중재위원
 - 일본: Fujio Uchida
 - 스위스: Pierre A. Lalive
 - 프랑스: Claude-Albert Colliard
- 법률고문
 - 프랑스: Claude-Albert Colliard 등

3. 대만(구 자유중국)의 대표권 문제는 대만이 자진 탈퇴함으로써 해결됨.

- 파키스탄이 총회에 앞서 대만의 회원권 박탈 및 중국가입 문제를 의제로 상정
- 대만은 비회원국으로서 위성이용권은 유지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이사회, 제23-25차. Washington D.C.(미국)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5 / 9 / 1-66

1976년 중 제23~25차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이사회가 워싱턴에서 개최됨.

1. 제23차 이사회(1976.9.7.~8.)

- 한국 대표가 이란, 파키스탄, 터키 등 대표와 함께 동 이사회의 공동이사에 보임됨.
- 이사회 보고서 수록

2. 제24차 이사회(1976.10.27.~11.3.)

- 정부 대표 및 공동이사 파견: 이성희 체신부 전무사업국 행정사무관
- 파견 목적
 - 이사회 안건 심의, 검토(INTELSAT 운용 등)
 - 공동이사국과의 협력
 - INTELSAT 장기 계획과 각국의 위성운영계획 및 최신 위성기술 정보수집

3. 제25차 이사회(1976.12.8.~15.)

- 정부 대표 및 공동이사 파견: 이성희 체신부 전무사업국 행정사무관
- 파견 목적
 - 공동이사국과의 협력
 - INTELSAT 장기계획과 각국의 위성운영계획 및 최신 위성기술 정보수집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회의. 전2권 (V.1 제1차. London, 1975.4.23.-5.9.)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 조약

MF번호 I-6-65 / 12 / 1-201

제1차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회의가 1975.4.23.~5.9. 런던에서 개최됨.

1. IMCO(정부간 해사협리기구)는 1974.7.31. 제1차 INMARSAT 설립에 관한 국제회의에 한국 측의 참석을 요청함.

- 교통부는 10.15. 동 회의 불참을 외무부에 통보함.

2. 동 회의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IMCO가 송부해오면서 1975.1.31.까지 한국 정부의 논평을 요청함.

- 최종보고서 수록(1974.11.4.)

3. IMCO는 1975.12.5. 전문가회의에서 논의 추정된 각국의 최초 투자분담금(Initial Investment Share) 액수 및 이에 관한 설명서를 송부해옴.

- 한국의 예상투자 액수 검토 요청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회의. 전2권 (V.2 제2-3차. London, 1976)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 조약

MF번호 I-6-65 / 13 / 1-279

1976년 중 제2~3차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회의가 런던에서 개최됨.

1. 제2차 회의(1976.2.3.~27.)

- 한국 정부의 주무부처가 1975.12월 교통부에서 체신부로 변경됨.
- IMCO(정부간 해사협약기구)의 관련 문건이 체신부에 전달됨.

510

2. 제3차 회의(1976.9.1.~3.)

- 체신부는 아래 사유로 불참하기로 결정
 - 제2차 회의까지 미합의된 사항(제3차 회의 의제 예상)은 한국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음.
 - 한국에 부과된 최초 투자분담금 과중(약 2백만 달러)
 - 선박의 이용도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
 - 필요에 따라 추후 가입 가능
- 제3차 회의 결과보고서(IMCO) 수록

UNWTO(세계관광기구) / RTCPEA(태평양 및 동아시아지역위원회) 회의, 제2차. Manila(필리핀), 1976.4.22.-23.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5 / 14 / 1-102

UNWTO(세계관광기구) / 제2차 RTCPEA(태평양및동아시아지역위원회) 회의가 1976.4.22.~23. 마닐라에서 개최됨.

1. 한국은 주무부처인 교통부 대표단의 참석이 곤란하여 주필리핀대사관 관계관이 참석함.

2. 회의 결과

-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임명
- 지역위원회 고려사항 및 절차규칙은 UNWTO가 정한 내용 채택
-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보고: 지역위원회 구성 등
- 1976~77년도 사업계획 승인
- 집행위원회에 대표 파견(인도네시아, 태국 대표 파견)
- 지역위원회 마닐라 설치에 관한 협정체결
- 재정 문제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극동지역사무소 대표 임명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5 / 15 / 1-12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극동지역사무소 대표 변경과 관련된 내용임.

1. 현 사무소 대표인 박동묘 전 농수산부장관이 1976.2.10.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함.

- 임명권자인 AARRO 사무총장에게 사표를 제출

2. 한국 정부는 1976.2.26. 새로운 사무소 대표로 김보현 전 농수산부장관을 추천함.

- AARRO 사무총장은 3.19. 취임 요청서를 송부해옴.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이사회, 제18차. Manila(필리핀), 1976.5.17.-20.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5 / 16 / 1-103

정부는 1976.5.17.~20.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8차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이사회에 김선길 상공부 국제협력차관보(APO이사)(교체수석대표: 원용대 상공부 공업기획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한국은 창설 멤버로 적극적인 활동
 - APO 협약 개정 등 주요 안건 협의
- APO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 도모, 회원국 간 상호 협조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및 경제유대 강화에 기여

2. 회의 결과

- 중국(구 중공)의 영향력으로 주최국이 일반적인 국제관례를 무시하는 상황 발생
- 각국 대표단은 지속적인 참가를 통해 친분 유지로 민간외교 수행
- 중국의 영향력으로 대만(구 자유중국)의 위치가 위태로움.
 - 제19차 이사회에서 대만 참석 여부가 쟁점
- 한국에 대한 관심 제고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28차. London, 1976.6.21.-25.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6-65 / 17 / 1-54

제28차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가 1976.6.21.~25. 런던에서 개최됨.

1. IWC는 1976.5.7. 주영국대사관을 통해 동 회의에 한국이 옵서버로 참석해 줄 것으로 요청함.
2. 주무부처인 수산청은 1976.5.28. 주영국대사관에서 동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이 IWC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함.

514

3. 회의 결과

- 영국은 일부 종의 멸종 위기에 대한 경고 및 고래잡이 중단요청에도 불구하고 고래에 의존한 산업 필요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 Friends of the Earth 협회는 The Times지에 일본과 소련에 의해 고래가 멸종되고 있음을 지적, 불매호소 광고를 게재

4. 언론 보도

- 일본 수산통신(1976.6.29.)
 - 1976~77년 어기(漁期)의 남반구 및 1977년 어기(漁期) 북태평양 포경의 포획두수 결정
 - 약 20% 포획량 삭감 결과
 - 포경업계의 강한 반발, 모든 대응책의 검토를 정부에 요구할 의향

5. IWC의 회의 결과보고서가 수록됨.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회의, 제11차. Rome(이탈리아), 1976.3.29.-4.9.

생산연도 1975-1977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5 / 18 / 1-41

제11차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회의가 1976.3.29.~4.9.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회의명: 제11차 Codex위원회 회의
- CODEX는 식품소비자의 건강보호와 국제식품 무역장려를 목적으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WHO(세계보건기구)의 공동 권고에 따라 1963년에 설립됨.
 - 한국은 1970.5월 가입

2. 주요 의제 및 대표 파견 목적

- 주요 의제
 - 세계 각국의 식품위생 규격, 상표표지 방법, 식품첨가물에 한하여 표준화 방법을 토의
- 파견 목적
 - 상기 의제 토의 및 동 위원회 결정사항의 국내 적용
 - 한국 소비자의 건강보호, 건전한 식품생산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 한국산 식품의 국제무역에 공헌

3. 정부는 1976.1월 제11차 CODEX 회의에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대표로 임명, 파견하고자 하였으나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외무부의 승인 하에 회의에 참가하지 않음. 주이탈리아 대사관은 4.20. 회의보고서를 입수하여 외무부에 송부함.

CIRDAP(아시아태평양지역 농촌종합개발센터) 설립 및 한국유치 문제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5 / 19 / 1-335

1974~76년 중 CIRDAP(아시아태평양지역 농촌종합개발센터) 건립 장소 결정에 관한 내용임.

1. 한국 정부는 CIRDAP 센터의 한국 유치를 검토하였으나, 농수산부는 아래 근거로 부정적 의견을 표명함(1976.1.8.).

- 동 센터 유치를 통해 한국농촌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료의 입수는 가능하나, 경비 부담이 크고 (5만 달러 이상 부담), 농업인사 확보가 어려움.
- 일본과 유치 경쟁할 경우 유치 가능성 희박

2. 정부는 1976.3.11. CIRDAP 센터 건립을 위한 정부간 협의회(1976.3.22.~26., 방콕)에 대표단을 파견함.

- 수석대표: 이동배 농수산부 종합기획담당관

3. FAO(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 발간한 동 협의회 결과

- CIRDAP 센터는 개도국에 건립하기로 결정

4. 1976년 CIRDAP 센터 유치에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 경쟁에 나섬.

- 8.30. FAO 상주대표회의에서 상기사항이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동 회의는 무기 연기됨.

APU(아시아의원연맹) 이사회, 제20차. Taipei, 1976.9.3.-6.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2 / 동북아1

MF번호 I-6-65 / 20 / 1-120

정부는 1976.6.16.~17.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4차 ADC(아시아개발센터) 이사회에
서상린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서상린 단장은 1976.6.18. 주일본대사를 통해 아래 요지의 제14차 ADC 이사회 결과를 국회
의장에게 보고함.

- 1976년도 사업계획, 조직 및 장래 문제 협의
- APU지역 내 자원국과 소비국 간의 무역관계를 과제로 선정
- APU 조직은 현 상태로 유지

2. 1976.9.3.~6.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제20차 APU 이사회 관련 개회사, 폐회사, 연설문, 회의록
등 전문이 수록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63차. Madrid(스페인), 1976.9.22.-10.1.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5 / 21 / 1-143

정부는 1976.9.22.~10.1.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63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 박준규 의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세계 정세와 IPU 활동
- NIEO(신국제경제질서) 확립
- 세계 긴장완화와 재래식 무기거래에 대한 국제적 규제방안 수립 긴요성
- 짐바브웨(구 로데시아) 관련 남아프리카 정세
- 교육, 과학 및 문화 부문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2. 정부대표단 활동 내용

- 박준규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관련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함.

3. 북한대표단 불참석

- IPU 총회 주최 측이 회의 2개월 전 통보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고, 북한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락해 왔다는 루마니아 대표단장의 전언이 있었음.

4. 아래의 관련 자료가 수록됨.

- 제65차 IPU 총회 대책회의 자료(1976.8.24.)
- 총회 관련 문서
- IPU Bulletin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8차. Mexico City(멕시코), 1976.4.19.-24.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6 / 1 / 1-538

정부는 1976.4.19.~24.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제118차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에 박준규 의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국회사무처는 1975.4.18. IPU 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동 회의에서 북한의 준동에 대비한 멕시코 의회 지도자의 폭넓은 사전활동이 요구되므로 동 회의에 대비한 충분한 사전활동을 현지공관에 지시해주시기를 요청함.

● 제116차 이사회에서 멕시코가 북한입장을 지지함.

2. 외무부는 1976.3.26. 대표단을 구성하면서, 북한의 준동을 막기 위해 주멕시코대사와 주네덜란드 대사를 대표단 고문 자격으로 합류시킴.

3. 외무부는 북한 준동행위 대비책을 1976.3월 마련함.

● 8개 집행위원국을 포함한 35개국에 대해 북한 저지에 적극 협조 요청

4. 재외공관을 통해 주재국 참석인사 파악

5. 박준규 단장은 1976.4.24. IPU 기자단을 초청하여 기자회견을 함.

● 동 기자회견 내용이 멕시코 6대 일간지에 게재됨.

● 박 단장은 '공산주의자와의 평화공존 불가능'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함.

6. 토의 의제 및 결의안, 제118차 IPU 이사회의 대책회의 자료(1976.3.29.)가 수록됨.

A.I.(국제사면위원회)의 한국 인권 문제 보고서 제출, 1976.6월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6 / 2 / 1-119

1977.1.31.~2.4. 제네바에서 개최된 A.I.(국제사면위원회)의 5개국 작업단회의에서 예비심사 대상인 한국 인권 문제에 관한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임.

1. A.I.는 1976.6월 한국 인권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함.

- 보고서가 수록됨.

2. 동 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함.

- 법무부에서 작성한 의견서가 수록됨.

WACL(세계반공연맹)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6 / 3 / 1-31

1974~76년 중 WACL(세계반공연맹)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임.

1. 1974년 한국 정부는 제9차 WACL 총회(1976년) 유치 건을 검토하였으나, 한국의 대공산권 관계 개선 정책 및 비동맹 외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포기함.
2. 1975.3.12.~15.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개최된 WACL 중동지역 기구 창립총회에 우재승 WACL 사무총장이 참석함.
 - 회의 결과
 - 파이잘 사우디아라비아 왕을 반공전선에 있어 세계적인 지도자로 평가
 - 레바논은 중동무역의 중심지이며, 북한 상주대사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동 회의가 개최되었고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다는 점 등이 성과로 평가
3. 1976.5월 제9차 WACL 총회 시, 아래 사항이 사무총장에게 건의됨.
 - 크메르 자유연맹에 대한 지원(유격대, 의약품, 재정 등)
 - 세계여성반공연맹 창설
 - 반(反)볼셰비키 민족해방기구의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방송
 - 쿠바 망명단체 대회 개최
 - 남미제국 반공지도자 순방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총회, 제8차. Teheran(이란), 1976.10.16.-23.

생산연도 1976-1978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6 / 4 / 1-254

정부는 1976.10.16.~23.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8차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총회 및 제22차 이사회에 김용래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한국은 제3차 EROPA 총회를 주최하는 등 동 회의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 아시아 개발 및 공기업 역할에 대한 토의
- 참가국과의 우호관계 증진
- 한국에 설치된 'EROPA 조직관리센터'에 대한 재정지원 확보

2. 회의 주요 결과

- 차기 제23차 집행이사회를 1977년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차기 제9차 총회를 1978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국가회원 부담금을 1977년부터 현 1,913달러에서 3천달러로 인상
- 아시아의 개발 전략과 공기업의 역할에 대한 회의보고서 채택 등

3. 정부대표단 활동 및 건의사항

- 정부대표단은 그간 활동이 없던 EROPA 조직관리센터에 대한 활동보고서에서 새마을 교육 내용을 설명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기구 원조자금 배정 결정을 유도함.
 - 향후 계획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5인의 위원 가운데 한국 정부대표단장이 피선됨.
- 건의 사항
 - EROPA 조직관리센터 기능 활성화에 정부 지원 필요
 - 1978년 이전에 동 센터에서 연구회의 개최 희망

WEC(세계에너지협의회) 국제집행이사회. Abidjan(코트디부아르), 1976.10.11.-15.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6 / 6 / 1-67

정부는 1976.10.11.~15.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개최된 WEC(세계에너지협의회) 국제집행이사회에 성백전 건설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과 남정일 한국전력 기술개발부 대표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준비

- WEC 한국위원회는 1976.9.9. 동 회의 시 논의될 세네갈 가입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함.
- 'WEC 1976년도 국제집행이사회 개황(1976.9월, WEC 한국위원회)' 자료가 수록됨.

2. 회의 결과

- 신입회원국 가입
 - 회원가입국: 세네갈, 에티오피아, 수단
 - 옵서버: 토고, 사우디아라비아
- 제10차 총회 일정
 - 1977.9.19.~24. 터키 이스탄불 개최
- 제11차 총회 일정
 - 1980.9월 서독 함부르크 개최
- 회비 인상 등

3. 관찰 및 건의사항

-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전문가들과 전반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하였음.
- 아프리카 에너지 자원(수력, 핵연료, 임산자원 및 태양열)에 대한 선진국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관심이 매우 큼.
-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특히 핵연료 자원의 조기 확보에 적극적 조치 요망
- 에너지 및 건설분야의 외교적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1980년대 초반에는 동 회의의 국내 유치 필요

ISO(국제표준화기구) 총회, 제10차. Geneva(스위스), 1976.9.20.-24.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6 / 7 / 1-41

정부는 1976.9.20.~24.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0차 ISO(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 공업진흥청 기획관리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한국 정부는 1976.8월 동 총회에서 진행될 9개국 이사국 선거에서 아래 국가를 지지하기로 결정함.

- 이란, 서독, 스페인, 터키, 브라질,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2. 동 총회 초청서한 및 관련 문서가 수록됨.

LRCS(국제적십자사연맹) 집행위원회, 제91차. Geneva, 1976.10.29.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6 / 8 / 1-23

대한적십자사는 1977.1.4. 외무부로 보낸 서한을 통해 1976.10.29.~11.6. 제네바에서 개최된 연맹 특별이사회 및 관련 회의 중 제17차 청소년자문위원회, 제16차 보건 및 사회사업 자문위원회, 제91차 LRCS(국제적십자사연맹) 집행위원회의 참석 보고서를 송부해옴.

1. 대표단

- 대표(옵서버): 전유운 대한적십자사 부장 외 1명
- 대표단 활동 내용
 - 10.26.~29. 옵서버로서 제17차 청소년 자문위원회, 제16차 보건 및 사회사업 자문위원회, 제91차 집행위원회에 각각 참석함.

2. 제17차 청소년자문위원회(1976.10.26.~28.)

- 14개 회원국 참석
- 주요 의제
 - 재해구호 시 청소년 단원의 광범위한 참여 문제
 - 사고방지 프로그램의 RCY(Red Cross Youth) 활동 강화

3. 제16차 보건 및 사회사업 자문위원회(1976.10.26.~28.)

- 13개 회원국 참석
- 주요 의제
 - 국제응급처치 증명서 발급 문제
 -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 활동에 있어서의 적십자 역할
 - 재해 시 이산가족 찾기 문제 등

4. 제91차 LRCS 집행위원회(1976.10.29.)

- 주요 의제
 - 2년간의 업무보고 및 1976~77년 재정문제 검토
 - 1975.10월에 개최된 제33차 이사회 결의 사항에 관한 경과 보고
 - 1977.10월 제34차 이사회에 상정할 건의사항 채택
 - 1977.10월 제23차 국제회의 준비 및 상정할 제반 문제 토의



- 동 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건의사항은 아래 위원회 보고에서 발의됨.
 - 제17차 청소년 자문위원회 보고
 - 제16차 보건 및 사회산업 자문위원회 보고
 - 의장 및 부의장 위원회 보고
 - 평화위원회 보고
 - 국제적십자 상치위원회 활동 보고
 - 제3차 외교회의의 보고
 - 지역회의 경과보고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V.10 체결 요청 건의문 및 결의안, 1957-61) 1966.7.9. 서울에서 서명: 1967.2.9. 발효(조약 제232호)

생산연도 1953-1967

생 산 과

MF번호 Re-6-38 / 13 / 1-106

1957~61년 중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국회(민의원, 참의원) 등의 한·미국 행정협정 체결 촉구 관련 내용임.

1.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는 1957.7월, 12월 및 1960.1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외무부장관 및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한·미국 행정협정 체결을 건의함.

2. 국회(민의원, 참의원)

- 민의원은 1960.1.18. 한·미국 행정협정 조속 체결촉구 건의안 의결
- 민의원은 1960.2월 한·미국 행정협정 체결에 관한 정일형 의원 외 21명의 질문요지서를 국무원 사무국을 통해 외무부에 송부하고, 외무부는 답변서를 민의원에 전달
- 참의원은 1961.3.28. 민의원 송부안대로 의결

3. 전국 미군종업원 노동조합연맹은 1960.9월 한·미국 행정협정 체결 촉구 운동에 대한 호소문을 채택함.

한·미국 간의 기술자료 교환협정 부록 개정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I-6-73 / 5 / 1-27

1963.5.15. 한·미국 간에 체결된 기술자료 교환 기본 협정문에 의거하여 1975~76년 중앙국간 서명된 기술자료 교환협정 부록개정에 관련된 내용임.

1. 함대함 및 함대공 유도탄 체계에 관한 한·미 기술자료 교환협정 신규부록이 1975.1.9. 백석주 국방부 군수차관보 소장과 Armstrong 미 해군성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국 부국장 간에 서명함으로써 체결됨.
2. 대기뢰전 체계에 관한 기술자료 교환 부록이 1975.7.14. 국방부 군수차관보 및 미 해군성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국장 간에 서명함으로써 체결됨.
3. 공대공 유도탄 체계에 관한 한·미 기술자료 교환협정 신규 부록이 1975.9.22. 국방부 군수차관보와 미 해군 시험평가소장 간에 서명함으로써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
 - 동 자료 수록
 - 공대공 유도탄 체계 개발에 관한 기술교환
 - 한국의 공대공 유도탄 현대화 노력에 대한 미국의 지원
4. 한미 기술자료 교환협정에 따라 신규 기술자료 교환부록이 체결되어 1976.2.23.자로 발효됨.
 - 동 자료 수록
 - 지대공 유도탄에 관한 기술자료 교환 부록
 - 단거리 지대지 유도탄에 관한 기술자료 교환 부록
 - 대전차 체계에 관한 기술자료 교환 부록
 - 항공기 구조 및 재료에 관한 기술자료 교환 부록

미국·터키 간의 군원 및 기지 협정체결, 1976.3.26.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I-6-73 / 7 / 1-71

미국·터키 간 신방위협정이 1976.3.26. Washington, D.C.에서 체결됨.

1. 협정체결 경위

- 터키의 사이프러스 침공
- 미국 측은 대터키 군사원조를 중단하고, 터키 측은 터키 내 미군기지를 봉쇄
- 터키의 대소련 접근 실패
- 미국과 터키 양측 간 타협점 추구

2. 협정 주요 내용

- 터키에 대해 향후 4년간 10억 달러의 유·무상 원조
- 터키 내 26개 미군기지 활동 및 기술제공은 합의한 계획에 따라 운영

3. 관련국 반응

- 미국: 대그리스 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
- 터키: 미국 의회가 비준하도록 압박
- 그리스: 힘의 균형을 깨는 행위로 비난, 총리의 방미 계획 취소

4. 동 협정은 1976.3.26. 키신저 미 국무장관과 차라양길 터키 외상 간의 서명으로 체결됨.

한·독일 간의 재정지원에 관한 협정, 1976.3.5.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68호)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1 / 1 / 1-87

한·독일 간의 재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1976.3.5. 체결함.

1. 교섭 경위

- 1975.5.13. 한·독일 경제회담에서 독일 측이 3,500만 마르크의 재정차관을 연리 2%, 10년 거치, 20년 상환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제공할 것에 합의
- 1975.11.7. 독일 측에서 협정안 제시
- 1975.12.8. 협정안 확정

530

2. 주요 내용

- 독일 정부는 한국의 민간기업 육성, 부산하수처리 사업 및 종합공판장 설치사업을 위하여 총액 3,500만 마르크의 재정차관을 제공함.
 - 대상 사업은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다른 사업으로 대체될 수 있음(제1조).
- 차관의 사용과 조건은 차주와 독일재건은행 간에 체결되는 별도의 계약에 의함(제2조).
- 한국 정부는 독일재건은행에 대하여 모든 조세와 공과금을 면제함(제3조).

3. 동 재정지원협정의 의의

- 한국의 민간기업 육성, 부산시의 하수처리 사업추진, 농산물 종합 공판장 건립에 필요한 외화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함.

4. 동 협정체결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진행됨.

- 1976.2.9. 외무부가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76.2.16. 외무부가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76.2.24. 제15회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5. 동 협정은 1976.3.5.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칼 로이테리츠 주한 독일대사 간에 서명 되고, 국내 절차를 거쳐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68호).

한·일본 간의 통신시설 확장 및 충북선 복선화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협정, 1976.11.13. 서울에서 각서교환: 발효 (조약 제584호)

생산연도 1975-1977

생 산 과 경제협력 / 조약

MF번호 J-6-101 / 2 / 1-234

한·일본 간의 통신시설 확장 및 충북선 복선화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협정을 1976.11.13. 체결함.

1. 교섭 경위

- 1976.1월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본 실무자회의에서 동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합의
- 1976.4.26. 일본 측에서 동 사업을 위한 교환각서 초안 제시
- 1976.7월 양국은 실무협의를 거쳐 협정안 확정

2. 주요 골자

- 통신시설 확장 사업
 - 일본 해외협력 기금에서 66억 엔 차관 제공(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4.2%)
- 충북선 복선화 사업
 - 일본 해외협력 기금에서 43억 엔 차관 제공(7년 거치 13년 상환, 연리 3.5%)

3. 동 차관 협정의 의의

- 통신 및 철도시설 확장으로 한국의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기여함.
- 투자자원의 조달에 있어서 해외저축자금의 도입을 확대함.
- 대일본 경제협력 증진의 일환으로 유리한 조건의 차관을 도입함.

4.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 1976.8.24. 외무부가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76.9.4. 외무부가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76.9.14.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5. 동 협정은 1976.11.13.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니시야마 아키라 주한 일본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84호).

한·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V.1 체결교섭) 1974.12.20. Brussels에서 서명: 1976.9.3. 발효(조약 제583호)

생산연도 1972-1976

생 산 과 조약 / 경제협력

MF번호 J-6-101 / 3 / 1-260

1972~74년 중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교섭 경위

- 벨기에 측이 제시한 협정안에 한국 국내정책상 금지하고 있는 천연자원의 탐사·채굴권이 포함 되어 있어, 한국 측은 1973.7.3. 이를 삭제한 대안을 작성하여 벨기에 측에 제시함.
- 1973.9.5. 벨기에 측은 한국 측 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함.
- 1973.11.28. 한국 측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실무자회의 개최 여부와 국민 및 법인의 용어를 정의할 것을 제의함.
- 벨기에 측은 1974.3월 상기 한국 측 제의에 대하여 협정안 교섭을 주벨기에대사관을 통하여 계속할 것을 회보하여 온 동시에 대체로 합의함을 연락하여 왔으나, 동 협정 중 중재절차와 표현상의 이견으로 다시 한국 측 수정안을 1974.4.17. 제의함.
- 1974.8.13. 벨기에 측은 지난 한국 측 수정안에 완전 동의함을 통보함.
- 1974.8.26. 한국 측은 주벨기에대사관을 통해 동 협정에 대한 최종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주벨기에대사는 1974.9.4. 문서로 주재국 측에 통보함.

2. 주요 내용

- 투자에 대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
- 자국법에 따라서 투자 허가 및 보장
- 투자 과실의 송금 자유 보장
- 송금 시 공평하고 공정한 환율 적용 보장
- 최혜국 대우 부여 등

한·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V.2 체결 및 공포) 1974.12.20. Brussels에서 서명: 1976.9.3. 발효(조약 제583호)

생산연도 1972-1976

생 산 과 조약 / 경제협력

MF번호 J-6-101 / 4 / 1-183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을 1974.12.20. 체결함.

1. 협정 의의 및 구성

- 의의
 - 한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간의 투자촉진과 상호보호를 규정함.
- 구성
 - 전문 및 12조

2. 한국 측은 1974.11.29. 제8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5.2.6. 동 협정을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주재국 측에 전달함.

- 동 협정에 대한 벨기에 측의 국내 발효 절차가 지연되어 지속적으로 교섭 협의함.

3. 벨기에 측은 1976.8.13. 동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 완료를 통보함.

4. 동 협정은 1974.12.20. 브뤼셀에서 송인상 주벨기에대사와 미셸 투쌍 벨기에 대외통상성장관 간에 서명되고, 1976.9.3. 협정의 발효를 위한 헌법상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통보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83호).

한·프랑스 간의 한국에 있어서의 프랑스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소급적용을 위한 협정, 1976.4.6. Paris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571호)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1 / 5 / 1-186

한·프랑스 간의 한국에 있어서의 프랑스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소급적용을 위한 협정을 1976.4.6.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함.

1. 교섭 경위

- 1975.6월 프랑스 기업인 Pechiney 회사는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하여 동 협정 발효일 이전에 행하여진 동 회사의 대한민국 투자가 동 협정의 적용대상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 1975.9월 프랑스 정부는 한·프랑스 투자보장협정(1975.1.22. 서명 및 발효) 발효 이전에 행하여진 프랑스인의 대한민국 투자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것을 제의

534

2. 주요 내용

- 1975.1.22. 서명·발효된 한·프랑스 협정의 규정이 그 발효 이전에 행하여진 프랑스인의 대한민국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3. 협정 의의

- 한·프랑스 투자보장 협정 체결의 직접적 동기가 Pechiney 회사의 알루미늄 합작투자의 유치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회사에 대한 상기 협정상의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 수행을 보장하는 동시에 프랑스인의 대한민국 투자를 촉진함.

4.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 1976.1.20. 외무부가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76.1.27.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5. 동 협정은 1976.4.6. 프랑스 파리에서 윤석헌 주프랑스대사와 끌로드 프랑스 외무부 영사조약국장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71호).

한·영국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76.3.4.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67호)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조약 / 경제협력

MF번호 J-6-101 / 6 / 1-307

한·영국 간의 투자보장협정을 1976.3.4. 체결함.

1. 교섭 경위

- 1975.6.25. 주한 영국대사, 영국 측 협정안 제의
- 1975.10.6.~8. 서울에서 개최된 한·영국 실무자회의에서 협정 문안에 합의

2. 주요 내용

- 투자의 증진 및 보호
-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 손실에 대한 보상
-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 계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에 대하여 수용·국유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에의 제소 등

3. 협정 의의

- 영국인의 대한민국 투자에 대하여 정부의 법적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한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의 확보 및 한·영국 양국간 기존의 우호관계 강화

4.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 1976.1.28. 외무부가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76.1.30. 외무부가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76.2.24.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 5. 동 협정은 1976.3.4.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William S. Bates 주한 영국대사 간에 서명 되고, 서명 직후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통보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 (조약 제567호).

한·스위스 간의 정기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1975.12.15. Berne에서 서명: 1976.11.20. 발효(조약 제558호)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1 / 7 / 1-432

한·스위스 간의 항공협정을 1975.12.15. 체결함.

1. 1975.5.27.~30. 한·스위스 항공협정체결회담이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되고, 5.30. 양국은 이에 가서명함.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영섭 주스위스대사관 참사관
- 스위스 측: Dr. Werner Guldemann, Director of the Swiss Federal Air Office

● 회담 주요 내용

- 협정은 양측의 운항노선을 규정한 부표 구성, 본문은 일반 항공협정의 내용과 동일, 양측의 운항노선 수록
- 양국 지정항공사는 사전 합의를 통해 항공기 제한 없이 주2회 취항 가능

● 훈령 요지(교섭 목표)

- 1974.7.25. 스위스 측이 한국에 제시한 협정(안)을 교섭의 기초로 함.
- 양국내의 1지점 간의 운수권 행사만을 확보하는 협정 체결을 교섭함.
-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에 관해서는 추후 협의 대상으로 하며, 스위스 측이 주장하는 경우에는 세부훈령에 따름.
- 스위스 민간항공과 한국 민간항공 간의 대등한 조건 하에서의 경쟁은 당분간 한국 민간항공 측에 불리하므로 제5자유권의 행사(중간지점 및 이원지점) 및 공급력 등에 있어서 한국의 제한적 입장이 반영되도록 함.

2. 교섭 경위

- 1974.6월 주한 스위스대사가 외무부를 방문, 한·스위스 항공협정 체결 가능성 타진
- 한·스위스 항공협정 체결 교섭회의, 1976.5.27.~30. 스위스에서 개최
 - 실무회의를 거쳐 1975.5.30. 양국 수석대표 간 협정안에 가서명

3. 협정 의의

- 한·스위스 간 항공 협정의 체결로서 한국 민간 항공의 대유럽 노선 개척에 기여함.

4. 동 협정 주요 내용

● 구성

- 전문, 본문 19개조 및 부속서

● 주요 골자

- 양국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무착륙비행, 비운수 목적의 착륙 또는 부속서에 명시된 제지점에의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적재 또는 적하권을 부여 받음(제2조).
- 항공기와 그 장비, 연료 및 식품 음료 등의 항공기 비품은 재반출 시까지 항공기상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반입시의 관세 검사 수수료 기타 조세를 상호 면제하고,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적재할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 이를 면제하며 통과 중인 수하물과 화물은 관세를 면제함(제6조 및 제7조).
- 자국 항공기와 동등한 조건으로 출입국법, 항공관계법, 이민 및 세관 관계법 등의 적용을 받고, 공항 및 시설에 관하여 동등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음(제8조).

5.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 1975.7.30. 외무부가 교통부 및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75.7.31. 외무부가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75.8.5.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6. 한국 측은 1976.8월 동 협정에 관한 국내 절차가 완결되었고, 스위스 측은 11.11. 동 협정 발효를 위한 스위스 헌법상 절차 완료를 통보하고, 한국 측은 11.20. 주한 스위스대사관에 한국 측의 회한 각서를 발송함.

7. 동 협정은 1975.12.15. 베른에서 박근 주스위스대사와 그라베트 스위스 외무부장관 간에 서명 되고,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상호통보함으로써 1976.11.20.자로 발효됨(조약 제558호).

한·이란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협정, 1976.11.21. Teheran에서 각서 교환: 1976.12.21. 발효 (조약 제587호)

생산연도 1971-1976

생 산 과 조약 / 중동

MF번호 J-6-101 / 8 / 1-144

한·이란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협정을 1976.11.21. 체결함.

1. 교섭 경위

- 1976.2.12. 한국 측은 한·이란 외무장관 회담 시 동 협정 체결을 제의
- 1976.3.5. 이란 측 협정 초안 제시 요청
- 1976.4.6. 한국 측 협정 초안 제시
- 1976.7.27. 이란 측은 한국 측 초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 1976.9.6. 양측은 협정 문안에 합의

538

2. 주요 내용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사증 없이 입국, 3개월간 체류 가능
- 외교 또는 영사관원 및 그 가족은 재임기간 동안 사증면제

3. 동 사증면제협정의 의의

- 이란과의 관계 강화의 일환으로 우선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간의 교류를 원활히 함.

4.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 1976.9.27. 외무부가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76.10.15. 외무부가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76.10.22.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5. 동 협정은 1976.11.21. 테헤란에서 현시학 주이란대사와 카타트 바리 이란 외무부장관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1976.12.21.자로 발효됨(조약 제587호).

한·세이셸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교섭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J-6-101 / 9 / 1-8

1976년 중 한·세이셸과의 사증면제협정 체결교섭을 추진함.

1. 세이셸 정부는 1976.6.8.자 주한 영국대사관 공한을 통해 자국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증요구 여부를 문의함.

- 세이셸은 한국인 입국에 대해 기존의 특전(Existing Concession, 사증 없이 입국 허가하며 관광객에 대하여는 1개월간 체류 허가)을 계속 부여할 예정임을 확인함.
- 법무부는 10.26. 사증면제협정 추진에 동의함.

2. 외무부 방교국은 1976.11월 세이셸의 조치가 실질적 사증면제 조치인 만큼, 차제에 사증면제 협정의 체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세이셸 의도 파악 후 재추진하기로 함.

한·베네룩스 간의 사증면제 협정을 수리남에 확대 적용하는 한·수리남 간의 약정, 1976.3.29. 및 8.3. 서울에서 각서 교환: 1976.8.3. 발효(외무부고시 제4호)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1 / 10 / 1-39

한·베네룩스 간 사증면제 협정을 수리남에 확대 적용하는 한·수리남 간의 약정을 1976.3.29. 및 1976.8.3. 체결함.

1. 교섭 경위

- 1970.4.28. 한·베네룩스 간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 1975.11.25. 수리남이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함.
- 1976.3.29.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은 제안각서로 한·베네룩스 간 사증면제협정을 수리남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수락할 것인지를 문의함.
- 1976.8.3. 외무부는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의 회답각서를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에 송부함.

2. 주요 내용

- 한국이 베네룩스와 체결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 수리남에 확대 적용함.

3. 협정 의의

- 수리남과의 우호관계를 감안, 수리남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사증면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 동 협정을 수리남에도 확대 적용함.

4.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 1976.6.9. 외무부가 법무부에 검토의견을 요청

5. 1976.3.29. 주한 네덜란드대사 명의 제안각서에 대하여 1976.8.3.자 외무부장관의 회답각서로 체결됨(외무부고시 제4호).

한·미국 간 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 개정 검토

생산연도 1970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1 / 11 / 1-5

1970년 한·미국 간 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협의한 내용임.

1. 1970.4.20. 미국 측은 사증기호 변경을 통보
2. 1970.12.11. 외무부 조약과 담당자와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의 면담 시, 한국 측은 아래의 입장을 전달함.
 - 미국 측 발급 사증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은 1968.4.27. 체결된 한·미국 사증발급협정의 개정 사항임.
 - 미국 측이 개정을 제의하는 공문 발송 필요

한·파라과이 간의 이민협정 체결 교섭

생산연도 1958-1964

생 산 과 남미

MF번호 J-6-101 / 12 / 1-244

1958~64년 중 한·파라과이 간의 이민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한국인의 대파라과이 이민 추진 경과

- 파라과이에 대한 한국이민 진출 교섭은 1958년부터 추진되어오다가 1962년 한국의 이민교섭단 사정상 파견이 무산됨.
- 1963.2월 주미국대사(주파라과이대사 겸임) 건의로 교섭 재추진
- 1963.8.15.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 계기 개최된 한·파라과이 관계장관과 협의를 통해 파라과이 측은 한국 이민수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542

2. 이민협정 체결 교섭 경위

- 1963.10월 주파라과이대사(브라질 상주) 신임장 제정 시, 파라과이 측이 이민합동위원회를 제시
- 1964.4월 이민합동위원회를 통해 양측이 협정을 교섭
 - 파라과이 측은 1964.2월 한국 측이 제시한 초안을 대체적으로 수용하고, 이견 부분 협의 진행
 - 위원들은 현지 시찰 수행
- 양측 간 협정 문안에 대한 협의 진행

한·아프가니스탄 간의 문화협정, 1976.11.22. Kabul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86호)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문화교류 / 조약

MF번호 J-6-101 / 13 / 1-224

한·아프가니스탄 간의 문화협정을 1976.11.22. 체결함.

1. 교섭 경위

- 1976.1월 한국 측의 협정 체결 제의
- 1976.3월 아프가니스탄 측은 초안을 제시
- 1976.4월 한국 측은 대안 제시 및 교섭 진행
- 1976.8월 양측은 문안에 합의

2. 주요 골자

- 주권과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에 입각한 문화 및 과학적 유대 발전(제1조)
- 문화사절, 교육자, 학생 및 과학자의 교류와 간행물의 교환 촉진(제2조)
- 체육인의 교류 증진, 체육대회 개최에 협력(제3조)
- 타방 국가에의 관광진흥 및 장려(제4조)
- 서적 교환 및 언론인, 문인, 예술가, 음악가 및 예술단의 교류 증진(제5조)
-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영화 필름, 음반 및 테이프의 상호 교환(제6조)

3. 동 문화협정의 의의

- 양국간 문화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양국 국민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양국간 친선·유대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함.

4.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 1976.10.2. 외무부가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76.10.22. 외무부는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76.10.29.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5. 동 협정은 1976.11.22.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최명준 주아프가니스탄대사와 압둘 라힘 네빈 아프가니스탄 문화공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86호).

한·콜롬비아 간의 문화협정, 1967.7.27. Bogota 에서 서명: 1976.7.14. 발효(조약 제577호)

생산연도 1965-1976

생 산 과 조약 / 공보문화

MF번호 J-6-102 / 1 / 1-313

한·콜롬비아 간의 문화협정을 1967.7.27. 서명하고, 1976.6.14. 비준서 교환형식으로 체결함.

1. 체결 경위

- 1965.3월 콜롬비아 측에 문화협정 체결 제의, 콜롬비아 측과 협정 문안 교섭
- 1966.4월 협정안 확정
- 1966.8.26. 제72회 국무회의 심의
- 1966.11.30. 대통령 재가
- 1967.7.27. 주브라질대사(겸임), 콜롬비아에서 서명
 - 협정 서명 이후 국내 정정 불안 등 콜롬비아 측 사정 등으로 비준 지연
- 1974.11.22. 콜롬비아 상원 통과, 하원에 이송
- 1975.8.26. 콜롬비아 하원 통과
- 1976.6.14. 동 협정 비준서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교환
 - 비준서 교환 30일후 발효

2. 주요 내용

- 구성
 - 전문, 8개조
- 양국간 문화기관과의 상호 교환 설치, 자국의 고등교육기관에 타방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과정 설치
- 학자 및 예술가의 상호 교류, 출판물 및 방송의 교환 보급
- 학위, 자격면허장 및 학위증명서의 상호 인정
- 여행 장려 등

3. 동 문화협정의 의의

- 한·콜롬비아 양국 국민을 결속시키는 우호 관계 강화, 문화·예술·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관계 발전

4. 동 협정은 1966.8.26.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1967.7.27. 서명되고, 1976.6.14.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1976.7.14.자로 발효됨(조약 제577호).

한·캐나다 간의 평화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3권 (V.1. 1973-74) 1976.1.26.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63호)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경제조사 / 조약

MF번호 J-6-102 / 4 / 1-281

1973~74년 중 한·캐나다 간의 원자력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교섭 경위

- 1973.8.2. 주한 캐나다대사는 과학기술처장관을 방문, 양국간 원자력협정 체결 협의
- 1973.12.12.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한국 측에 협정초안 송부
- 1974.5.7. 관계부처와 협의 후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한국 측 대안 송부
- 1974.6.10. 캐나다 측은 한국 측 대안 중 일부 수정 제의
- 1974.7.10. 관계부처와 협의, 캐나다 측 제안 수락, 최종 문안에 합의
 - 캐나다의 수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협정체결 자체가 어려울 전망
 - 원자로 차관 도입 이전 체결 필요
 -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으로서 안전조치 의무 이행

2. 주요 골자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정보 제공, 핵물질·장비·시설·기술 원조, 용역의 제공 및 핵과학자의 교류(제1조)
- 정부 기업체 또는 계약정부 관할 하에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 간 협력 장려 및 용역 수행(제2조)
- 상업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공, 특허권의 양도는 당사자간 합의된 조건에 따르며(제3조), 군사적 가치가 있는 정보, 핵물질, 장비, 시설의 제공은 제외(제5조)
- 협정에 따라 취득된 핵물질 및 장비 등은 계약당사국 관할 외로 양도 가능, 특수 핵물질은 타방 당사국 서면 승낙 없이 양도 불가능, 화학시설에서 재처리 불가능(제4조)

3. 협정 체결 의의

- 본 협정에 따른 협력의 일환으로 도입될 원자로의 가동으로 한국의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장기 종합에너지 개발계획의 성공적 수행은 물론 필요한 전력의 공급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함.
- 보건위생·농업 등 제분야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기술협력 도모, 기존의 양국간 유대강화에 기여

4. 동 협정 체결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진행됨.

- 1974.7.13. 외무부는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74.7.18. 외무부는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74.7.19.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한·캐나다 간의 평화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3권 (V.2. 1975.1-9월) 1976.1.26.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63호)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경제조사 / 조약

MF번호 J-6-102 / 5 / 1-323

1975.1~9월 중 한·캐나다 간의 원자력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75.1.20. 체결 교섭중인 한·캐나다 원자력협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면 수정한 협정안을 외무부에 제시함.

-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및 개발을 더욱 강조하고 안전조치 강화
- 공여국이 공여받는 국가에 대해 제공물질, 핵물질 생성, 재처리, 저장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비준서 교환 조항 신설

2. 외무부는 1975.5월 상기 캐나다 측 수정안에 대한 한국 측 수정안을 주한 캐나다대사관을 통해 제시함.

- 한국 측 수정안은 한국의 NPT(핵비확산조약) 비준 이전에 캐나다 측 안에 대하여 불필요한 규제내용을 대폭 완화 내지 삭제한 것으로서 내용과 체제면에서는 1974.7월 캐나다 측과 1차 합의한 바 있는 구협정안의 내용을 크게 반영

3. 캐나다 측은 1975.7월 한국 측 수정대안에 대한 재수정안을 한국 측에 제시한 후, 1975.8월 캐나다 측 재수정안에 대한 새로운 수정을 제의하면서 캐나다 측의 최종 수정이라고 밝힘.

4. 외무부는 1975.9월 주캐나다대사관에 캐나다 측 수정안(1975.8월)에 대한 아래 요지의 한국 측 수정대안을 송부하고 주재국 당국과 교섭하도록 지시함.

- 핵물질 이전·취득에 관한 권리를 완화된 표현으로 수정하고 선택권 행사에 따른 손실은 보상되어야 한다는 표현 추가

한·캐나다 간의 평화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3권 (V.3. 1975.10월-76) 1976.1.26.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63호)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경제조사 / 조약

MF번호 J-6-102 / 6 / 1-330

한·캐나다 간의 원자력협정을 1976.1.26. 체결함.

1. 교섭 경위

- 1975.11월 외무부는 캐나다 측의 협정 최종안(1975.10월)을 수락하고 이를 협정안으로 확정함.
- 1976.1.23. 스타일즈 주한 캐나다대사는 박동진 외무부장관을 방문하고, 캐나다 각의가 한국 정부로부터 아래 내용을 보장받았음을 공개하는 데 합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정 서명을 승인, 한국 측은 1976.1.24. 캐나다 측의 요구 수락 통보
 - 한국 측은 재처리 시설의 도입을 추진하지 않고 있음.
 - 동 재처리 시설의 도입계획은 무기한 보류된바, 이는 장기간, 적어도 한·미국 간 추가적인 원자력 협력에 관한 교섭이 끝날 때까지를 의미함.

2. 주요 골자

- 양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 상호 협력
 - 협력분야는 설계·도안·명세서를 포함한 보건·안전·장비 및 시설에 관한 기술교류, 핵물질 장비 및 시설의 제공, 허가약정 및 특허권의 양도, 원자력 기술자의 상호방문, 기술훈련 등
- 협정상 품목이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되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NPT(핵비확산조약)상의 안전조치 적용
-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상호협의하며 또한 타방당사국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보고서 및 자료에의 접근 허용

3. 체결 의의

- 동 협정은 한국이 캐나다로부터 도입하는 캔두(CANDU)형 원자로의 건설을 위한 양국 정부간의 기본협정임.

4. 동 협정은 1976.1.26.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스타일즈 주한 캐나다대사 간의 서명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63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과 응용을 위한 한국 원자력위원회·스페인 원자력위원회 간의 보충협정, 1976.12.10. 서명

생산연도 1974-77

생 산 과 구주2 / 경제조사

MF번호 J-6-102 / 7 / 1-49

한·스페인 원자력위원회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과 응용을 위한 보충협정을
1976.12.10. 체결함.

1. 교섭 경위

- 과학기술처장관 일행은 제18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1974.9.16.~22., 비엔나) 참가에 앞서 1974.9.12.~15. 간 스페인을 방문하여 양국간 원자력분야 협정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
- 스페인 측은 양국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협정안을 한국 측에 제의
- 1976.11월 한국 측은 동 협정안 초안을 송부하고, 스페인 측은 형식상의 추가 및 수정을 요청
- 1976.12월 스페인 원자력위원장 일행 방한

2. 동 협정 체결의 필요성 및 이점

- 스페인은 원자력 발전이 타국과 같이 고도 선진국이 아니며, 한국보다 다소 앞섰기 때문에 기술 흡수에 보다 용이하며 한국 원자력 개발의 목표 설정에 가장 적합한 정보수집이 가능
- 스페인은 원자력개발이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어 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한국 원자력발전의 촉진 가능
- 스페인은 특히 우라늄 원광이 다량 생산되고 있는 남미 국가(아르헨티나, 칠레 등)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한국이 앞으로 남미 국가와 협력 도모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

3. 한국 측 희망협력사업

- 원자력 발전
 - 기술자료 및 정보교환, 훈련생 파견
- 핵연료
 - 훈련생 파견, 전문가 초청, 기술정보자료의 교환

4. 동 협정은 1976.12.10. 서울에서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 겸 원자력위원장과 J. Olivares Baque 스페인 원자력위원장 간의 서명으로 체결됨.

IAEA(국제원자력기구)·북한 간의 NPT(핵비확산조약) 협약 가입에 따른 안전조치협정 체결문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J-6-102 / 3 / 1-14

1.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1976.10월 IAEA·북한 간의 NPT(핵비확산조약) 협약 가입에 따른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위한 북한 측의 협정문안을 접수함.
2. 주오스트리아 북한대사관 참사관 등은 1976.11.16. IAEA 법률고문을 방문하여 상기 북한 측 안전조치협정 안에 대한 견해를 청취한바, IAEA 측은 협정안이 STANDARD에 따라야 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북한 측 안이 수락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고 함.
3. 북한 측의 안전조치협정 안이 수록됨.

한·이란 간의 상표권과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약정, 1976.2.12. Teheran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566호)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조약 / 통상3

MF번호 J-6-102 / 8 / 1-115

한·이란 간의 상표권과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을 1976.2.12. 체결함.

1. 교섭 경위

- 1974.4.29. 한국 측은 상표권 보호에 관한 약정안을 이란 측에 제시
- 1975.6.21. 이란 측은 약정의 대상에 특허권도 포함시킬 것을 제의
- 1975.8.30. 한·이란 양측은 약정안에 상호 합의

550

2. 체결 의의

- 한국의 국민 또는 법인의 상표권 및 특허권을 이란에서 등록·보호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양국간 경제 및 기술협력 관계증진에 기여함.

3. 주요 골자

- 일방당사국의 국민이 상표권과 특허권의 등록과 보호에 관해 타방당사국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짐.

4.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 1976.1.20. 외무부는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76.1.31. 외무부는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76.2.3.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5. 동 협정은 1976.2.12. 이란 테헤란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Abbas Ali Khalatbari 이란 외무부장관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66호).

[평화식량법에 의한] 한·미국 간의 농산물 구매협정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J-6-102/9/1-62

1976년 중 서울에서 체결된 한·미국 간의 농산물 구매협정에 관한 내용임.

1. 1976년도 협정(1976.2.18.)

- 현미: 5만 8천 톤(1,450만 달러)
- 소맥: 20만 톤(3,020만 달러)

2. 1976년도 협정의 개정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1976.4.9.)

- 현미: 11만 5,200톤(2,790만 달러)
- 소맥: 40만 톤(5,870만 달러)
- 원면: 5만 8천 표(1,810만 달러)

3. 1976년도 협정의 개정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1976.8.9.)

- 소맥 40만 톤을 50만 톤으로 증량하여 도입

4. 1976년도 협정의 개정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1976.12.22.)

- 주미국대사는 1976.11.3. 보낸 외무부장관 앞 서한에서 Glenn Tussey 미국 농무부국장은 강흥구 주미국대사관 참사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원면 수급 문제와 관련한 수정협정 체결에 관한 입장을 12.2.까지 통보해 주지 않을 경우 한국에 배정될 원면 3만 1천 표가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함.

5. 1977년도 협정 체결교섭(경제기획원, 1976.7월 미국 측에 통보)

- 소맥: 75만 톤(1,350만 달러)
- 옥수수: 27만 톤(2,650만 달러)
- 원면: 6만 1천 표(2,000만 달러)

한·감비아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교섭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2-61 / 1 / 1-107

1976년 한·감비아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을 추진함.

1. 교섭 경위

- 1976.4월 주세네갈대사(감비아 겸임), 어업협정 체결 건의
 - 동 대사는 유엔 및 비동맹 회의에서 감비아 측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 감비아 정부에 어업협력 제의
- 1976.5.31. 감비아 외상은 주세네갈대사에게 어업협정 체결을 정식 제의
 - 1976.7.12.~16. 동인의 방한기간 중 서명 의향 표명
- 1976.7.12. 감비아 외상 방한 중 협정문안에 합의

2. 동 협정의 의의

- 감비아 전관수역 내 조업진출로 어장 확대
- 세네갈 어업전관수역 출어 가능
 - 한·감비아 어업합작이 실현된 경우, 감비아·세네갈 어업협정에 의거하여 동 합작회사 어선 출어 가능

3. 주요 골자

- 수산자원 이용 및 보존을 위한 양국간 협력 조치 강구
- 협력분야
 - 조업, 수산과학기술정보교환, 합동 해양수산조사를 위한 과학, 전문가 교환, 수산훈련시설 제공, 오염방지
- 민간 어업합작 증진, 동 합작회사에 대한 최혜국 대우 부여
- 타방체약국 어선의 자국 어업전관수역 내 조업 상호 허용(제3조)
- 어선 항구 이용 편의 제공, 동 이용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최혜국 대우 부여
- 어업협력공동위원회 설립 등

4. 동 협정은 1976.7.14.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알하지 알류 바다라 은지 감비아 외상 간에 서명됨.

5. 주세네갈대사는 1976.11.27. 외무부장관 앞 보고에서 동 협정 관련하여 감비아 정부가 일본회사 측과 교섭 중에 있어 감비아 국회에서 필요한 절차를 유보하고 있으므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함.

한·이란 간의 무역협정, 1976.2.12. Teheran에서 서명: 1976.6.14. 발효(조약 제578호)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조약 / 통상3

MF번호 J-6-102 / 10 / 1-266

한·이란 간의 무역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75.11.19. 제1차 한·이란 각료회의에서 무역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
- 1975.12월 한국 측 협정안을 이란 측에 제시
- 1976.1월 이란 측이 대안 제시
- 1976.2월 협정안에 합의

2. 동 무역협정의 의의

- 한·이란 간의 경제협력 및 무역관계를 한층 강화·촉진하고, 나아가 한국의 중동 국가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진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

3. 주요 골자

- 양국이 수출입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양국간의 무역, 특히 협정 부속서상의 상품 교역을 증진
- 무역박람회 개최를 상호 허용하며, 필요한 모든 편의 제공
- 특별 관심품목의 교역증진을 위해 각국의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간에 장기 상품협정을 체결
- 협정 시행상의 문제 해결 및 무역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혼성무역위원회를 설치

4.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 1976.5.3. 외무부는 재무부·상공부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76.5.10. 외무부는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76.5.17. 외무부는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5. 동 협정은 1976.2.12. 이란 테헤란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마누처 라슬리미 이란 통상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협정 체결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 후 1976.6.14.자로 발효됨(조약 제578호).

한·모로코 간의 무역협정, 1976.5.22.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75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3 / 조약

MF번호 J-6-102 / 11 / 1-148

한·모로코 간 무역협정을 1976.5.22. 체결함.

1. 교섭 경위

- 1976.1.15. 한국 측 주모로코대사가 협정 체결을 건의
- 1976.1.21. 한국 측은 모로코 정부에 대하여 한국 측 안 제시
- 1976.2.9. 이라키 모로코 외무차관 방한 시 문안에 잠정 합의
- 1976.5월 협정문안에 합의

554

2. 동 무역협정의 의의

- 한국과 모로코 간의 교역 증진을 통한 대북부아프리카지역의 수출증대에 기여
- 경제적 유대강화를 통하여 모로코를 기반으로 북부아프리카에 있어서 정치적·경제적 진출 거점 확보

3. 주요 골자

- 양국간의 교역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수출입 및 관세에 관하여 국내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의 호의적 대우를 부여
- 견본, 상업 및 관광 광고용 필름, 박람회 출품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
- 협정이행 검토 등을 위해 혼성위원회를 설치

4.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 1976.5.18. 외무부는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76.5.18. 외무부는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76.5.18.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5. 동 협정은 1976.5.22.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Dey Ould Sidi Baba 모로코 종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75호).

한·뉴질랜드 간의 무역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76.4.20.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72호)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조약 / 통상1

MF번호 J-6-102 / 12 / 1-211

한·뉴질랜드 무역 및 경제기술협력협정을 1976.4.20. 체결함.

1. 교섭 경위

- 1974.3월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에서 기존의 무역협정(1967.1.31.체결)을 확대 개정하기로 합의
- 1974.4월 한국 측 신탁정안을 뉴질랜드 측에 제시
- 1976.2월 뉴질랜드 측 대안 제시
- 1976.3월 제7차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에서 신탁정문안에 원칙적으로 합의

2. 체결 의의

- 기존의 무역협정을 무역 및 경제 기술협력협정으로 확대하는데 따라, 원자재를 포함한 장기 상품 약정의 체결, 기술교환, 합작투자 촉진 및 선박의 기항과 항만시설의 이용 등에 있어서 사실상의 최혜국 대우 부여 등이 새로이 추가됨으로써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분야에 있어서의 유대 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될 것임.

3. 주요 골자

- 양국간의 수출입에 있어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무조건적으로 부여함.
- 양국의 무역기관 또는 상사 간에 원자재를 포함한 장기 상품약정 체결
- 기술자 및 기술훈련생의 교류, 산업정보 교환, 합작사업 추진 등 경제기술분야에서의 협력 촉진
- 항만 및 그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제3국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대우 부여

4.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 1976.3.30. 외무부는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76.4.8. 외무부는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76.4.9.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5. 동 협정은 1976.4.20.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멀든 뉴질랜드 수상 간에 서명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72호).

한·페루 간의 무역협정, 1974.3.19. Lima에서 서명: 1976.5.5. 발효(조약 제573호)

생산연도 1966-1976

생 산 과 조약 / 통상2

MF번호 J-6-103 / 1 / 1-304

한·페루 간의 무역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69.2월 한국 경제사절단 페루 방문 시 동 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한국 측 협정초안을 페루 측에 전달
- 1969.7월 및 1971.10월 각각 페루 측 대안 제시 요청하였으나 페루 측은 동 협정 체결 용의를 표명하면서도 자국 내 관계부처와의 협의 지연을 이유로 대안 제시 지연
- 1973.5월 한국 측은 동 협정에 조속한 체결을 재촉구
- 1973.9월 페루 측 대안을 공식적으로 제시
- 1974.2월 양측은 협정안에 합의

2. 체결 의의

- 한·페루 양국간의 교역 증진을 위한 무역 환경의 개선
- 중남미지역에서의 경제적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며, 양국간 관계 증진에 기여

3. 주요 골자

- 양국 정부는 교역을 발전시키는 제반조치를 취함.
- 양국 정부는 국경무역, 관세동맹, 지역기구, 통합협정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역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 대우 부여 등
 - 양국 선박 취항 및 선원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포함

4.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 1974.2.25. 외무부는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74.2.26. 외무부는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74.3.5.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5. 동 협정은 1974.3.19. 페루 리마에서 전상진 주페루대사와 루이스 바란디아라 페루 상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1976.5.5.자로 발효됨(조약 제573호).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J-6-103 / 2 / 1-7

- 외무부는 1976.5.12.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에 한·사우디아라비아 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을 타진하도록 지시함.
- 한·사우디아라비아 무역협정 초안이 수록됨.

한·세네갈 간의 무역협정. 전2권 (V.1 교섭철) 1975.4.15. Dakar에서 서명: 1976.6.23. 발효(조약 제579호)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조약 / 통상3

MF번호 J-6-103 / 3 / 1-217

1973~74년 중 한·세네갈 간의 무역협정 체결을 교섭함.

1. 주세네갈대사대리는 1973.6.2. 한·세네갈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의 체결을 건의함.

- 대세네갈 수출이 부진한데는 프랑스의 영향, 구주공동시장과의 밀착, 외화 부족 등을 들 수 있으나, 한국과 무역 협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저해요소임.
- 현재 일본은 최저관세의 3배를 내고 있어 가장 큰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
- 한국은 무역협정이 없는 한 일본과 같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무역협정 체결이 필요함.

558

2. 교섭 경위

- 1973.6.22. 외무부는 주세네갈대사관에 한·세네갈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안을 송부하고, 동 협정 체결을 위해 세네갈 정부와 교섭 지시
- 1973.7.10. 한국 측 협정안 제시
- 1973.10.3. 세네갈 외무부는 협정 수정안 제시
- 한국 측 협정안 중 경제협력 조항이 삭제되고 통상관계 조항은 한국 측 안과 유사
- 1973.11.13. 주세네갈대사관은 한국 측 수정안 제시
- 1974.4.22. 세네갈 측 2차 수정안 제시
- 1974.5.25. 주세네갈대사관은 세네갈 외무부에 세네갈 측 2차 수정안에 이의 없음 통보

3. 1973년 협정안 주요 골자

- 양국간 무역에 최혜국 대우 부여
- 자본 투자(차관 등) 및 합작 투자에 제3국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은 대우
- 기술훈련생 및 기술자 교환
- 입국, 체제 및 상업활동에 필요한 입국 허가 발급 호의적인 고려
- 양국간 상품 수송을 위한 적절한 방안 강구
- 선박 출입항에 최혜국 대우 부여

4. 1974.5.13. 외무부는 경제기획원, 상공부 및 재무부의 검토의견을 요청

한·세네갈 간의 무역협정. 전2권 (V.2 체결철) 1975.4.15. Dakar에서 서명: 1976.6.23. 발효(조약 제579호)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조약 / 통상3

MF번호 J-6-103 / 4 / 1-274

한·세네갈 간의 무역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한국의 경제 진출을 통하여 국력 신장에 이바지
- 한·세네갈 양국간 무역 증진을 위한 무역 환경의 개선
- 양국간 정치적·경제적 유대관계 강화, 아프리카 국가에의 외교적·경제적 진출의 발판 구축

2. 주요 골자

- 양국 정부는 무역의 극대화를 위한 제반 조치 시행
- 수출입 허가 및 관세부과와 관련하여 상호 최혜국 대우 부여
- 박람회, 전시회 등에 출품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부과 잠정 중지
- 양국간 교역증진을 도모하고 교역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 대표자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 설치

3.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 1974.6.25. 외무부는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74.9.23. 외무부는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74.10.10.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4. 동 협정은 1975.4.15. 세네갈 다카르에서 지성구 주세네갈대사와 아싸네 썩 세네갈 외무부장관 간에 서명, 1976.6.23.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하는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79호).

5. 외무부는 1976.7월 관계부처 및 기관에 상기 협정 발효에 따라 양국간 교역에 최혜국 대우가 적용되어 한국의 대세네갈 수출상품은 종전의 일반세율에서 최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통보함.

- 주세네갈대사는 최저세율의 적용을 받을 경우 종전보다 관세가 1/3이 경감되고 기타 수입 부가세를 합하면 부담액이 약 70% 경감될 것이라고 보고함.

한·태국 간의 무역협정의 부표 수정. 1976.12.14. Bangkok에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5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조약 / 통상1

MF번호 J-6-103 / 5 / 1-88

한·태국 간의 무역협정(1961.9.15.체결)의 부표 수정을 1976.12.14.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함.

1. 개정 필요성

- 무역협정 체결 당시인 1961년도와 양국의 무역 정책, 교역량, 경제협력 및 기술협력분야에서의 환경 상이
- 현행 협정 제4조는 수출입 통제와 외환관리, 지불결제 등의 통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자유무역원칙에 위배
- 경제, 기술협력을 통한 양국간 유대강화의 중요성에 비추어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이 필요
- 양국간 해운협력분야의 개척과 협력이 요청됨으로 선박의 출입과 항구이용에 관한 규정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양국간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물량, 외환 등의 금지나 통제를 위한 입법, 적용 금지
 - 단, 국가안보 및 공공보건을 위한 것 예외
- 경제, 기술협력을 위한 각종 조치, 특히 합작투자 증진
- 무역협정 부속서 A, B 수정
 - 부속서 A는 한국으로 수출될 물품 목록, 부속서 B는 태국으로 수출될 물품 목록
 - 1975.7.9.~12. 서울에서 개최된 한·태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는 부표 수정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음.

3. 한·태국 무역협정의 부속서 수정이 1976.12.14. 방콕에서 박근 주태국대사와 유파디트 파라치양근 태국 외무부장관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5호).

한·미국 간의 면직물,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개정. 1976.3.24. 및 4.1. Washington D.C.에서 각서 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2호)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통상2 / 조약

MF번호 J-6-103 / 6 / 1-300

한·미국 간의 면직물·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을 1976.4.1. 체결함.

1. 한·미국 섬유협정 제2차 년도 협의 수준 품목 교섭(1975.10.6.~8.,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노진식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 미국 측: Charles Angevine 국무성 섬유직물과장
- 주요 내용
 - 인조 섬유사 수입제한 해제
 - 협정 제2차 년도(1975.10~76.9) 중 Cotton and Man-made Fiber Products에 대한 수량 제한 해제
 - 상기 조치로 인하여 수입이 급증할 경우, 미국의 요청에 의해 협의하고 동 협의가 30일 내 타결되지 않은 경우 일본이 수출을 규제

2. 대미국 섬유류 및 신발류 교섭(1976.2.18.~23., Washington, D. C.)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노진식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 미국 측: Michael Smith 대외통상교섭 특별대표부 섬유협상 대표
- 현 협정상 협의수준 품목인 4개 품목(TQ 229, 116 / 117, 121, 124)을 특정 제한품목으로 전환 합의

3. 동 협정 개정은 1976.3.24. 및 1976.4.1. 함병춘 주미국대사와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체결되고, 1976.4.1.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2호).

한국과 벨기에 간의 창원직업훈련원을 위한 한·벨기에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V.1 1974-75) 1976.9.2.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81호)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조약 / 경제조사

MF번호 J-6-103 / 7 / 1-311

1974~75년 중 한·벨기에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74.9월 주벨기에대사에게 한국이 벨기에와 기술협력을 통해 창원직업훈련원을 설립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이를 위한 벨기에 당국과의 교섭을 지시함.

- 주벨기에대사는 10월 창원기계 공업단지 부설 직업훈련소 예비사업계획을 벨기에 측에 제출

2. 외무부는 1974.12월 주벨기에대사관을 통해 창원기술훈련원 설립을 위한 한·벨기에 간 기술 협력을 벨기에 측에 정식 제의함(원조신청서 제출).

- 벨기에 측은 1975.2월 BECSA(Belgian Engineers and Constructors S. A.) 벨기에 기술 용역회사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할 것을 제의, 한국 측이 이를 수락
- 벨기에 측은 4월 BECSA의 타당성 보고서를 한국 측에 전달

3. 벨기에 측은 1975.7월 동 기술훈련원의 설립을 위한 기술원조(100만 달러) 요청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한을 주벨기에대사관에 송부

- 벨기에 측은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동건 관련 기술협력 협정 체결 희망

4. 벨기에 정부의 창원직업훈련원 설립 타당성 조사단이 1975.11.14.~30. 방한함.

- 노동청과 조사단은 벨기에 정부에 2백만 달러의 지원을 제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토의 기록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

한국과 벨기에 간의 창원직업훈련원을 위한 한·벨기에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V.2 1976.1-4월) 1976.9.2.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81호)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조약 / 경제조사

MF번호 J-6-103 / 8 / 1-289

1976.1~4월 중 한·벨기에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76.2월 주벨기에대사관을 통해 창원직업훈련소 설립을 위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벨기에 측에 송부함.
2. 한국과 벨기에 양국은 1976.4월 창원직업훈련원 기술협력 협정안에 합의함.
 - 1976.4.8. 벨기에 측 협정 초안 제시
 - 1976.4.19. 한국 측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정안 제시
 - 1976.4.21. 벨기에 측은 한국 측 수정안 수락

한국과 벨기에 간의 창원직업훈련원을 위한 한·벨기에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V.3 1976.5-9월) 1976.9.2.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81호)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조약 / 경제조사

MF번호 J-6-103 / 9 / 1-267

한·벨기에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1976.9.2. 체결함.

1. 주요 골자

- 동 협정에 따라 벨기에 측이 약 300만 달러에 상당하는 장비 및 기술원조를 제공하여 창원 직업훈련원 설립
 - 동 훈련원은 1977.3월 개원 예정
- 동 훈련원은 매년 최소한 320명의 숙련공 양성 계획

564

2. 한국과 벨기에 대표는 1976.5.5. 브뤼셀에서 상기 협정안에 가서명한 바 있음.

3. 동 협정이 1976.9.2.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Gaston Jenebelly 주한 벨기에대사 간에 서명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81호).

한·캐나다 IDRC(국제개발연구센터) 간의 협정 체결에 관한 의견문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3 / 10 / 1-21

1. 과학기술처는 1976.3월 외무부에 캐나다 IDRC(국제개발연구센터)가 한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정 체결을 제의하여 왔다고 하면서 동 협정 체결의 타당성 및 협정 체결 주체에 관한 의견을 문의함.

- 캐나다 IDRC는 캐나다의 의회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구 활동 지원

2. 외무부는 1976.4월 상기 의견 문의에 대해 아래 요지로 회보함.

- 동 협정안은 내용상 기존 국내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의무 부담(특히 센터 및 직원에 대한 특권 및 면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규정된 조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캐나다 IDRC는 조약체결 당사자 능력 미보유
- 다만, 협정안을 기존 국내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경우 과학기술처 국장이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서명 가능

한·독일 간의 한국 선금협회의 지원에 관한 약정, 1976.5.11. 서울에서 각서 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3호)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3 / 11 / 1-77

한·독일 간의 한국 선금협회 지원 약정을 1976.5.11. 체결함.

1. 교섭 경위

- 1973.10.25.~30. 한·독일 경제회담 시 독일 측, 선박기술 연구·개발사업에 40만 독일 마르크 상당의 지원 약속
- 1974.8.5. 외무부는 주한 독일대사관 앞 공한으로 공식적으로 독일의 지원 요청
- 1974.12.17. 주한 독일대사관은 동 사업에 대한 자금 배정 통보
- 1975.12.19. 독일 측으로부터 협정안 접수
- 1976.1.29. 협정안 자구 수정 제시
- 1976.3.3. 한국 측 자구 수정안 수락

2. 체결 의의

- 조선기술의 발전과 해운업의 급진적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초대형 선박의 구조문제를 포함한 선박기술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 가능
- 본 협정 체결로 100만 마르크 상당의 연구·실험기재의 지원과 6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의 훈련 지원을 받음으로써 한국 조선기술 발전에 기여

3. 주요 내용

- 독일 정부는 한국선금협회를 한국 조선업 및 기타 선금협회 용역제공분야의 품질관리 기관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한국 정부에 1회 한정의 원조 제공
- 독일 측 지원 내용
 - 100만 독일 마르크 상당의 기자재 제공
 - 6명의 한국인 기술자에 대해 1년간의 훈련경비 부담
- 한국 측 책임 내용
 - 관련 개발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도록 조정
 - 훈련받은 기술자의 상응한 지위 고용

4. 동 약정은 1976.5.11.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칼 로이터리츠 주한 독일대사 간의 각서 교환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3호).

부산시 하수도 사업에 관한 한·독일 간의 기술협력을 위한 약정, 1975.10.14. 및 1976.1.7.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76.1.7. 발효(외무부고시 제1호)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조약 / 경제조사

MF번호 J-6-103 / 12 / 1-151

부산시 하수도 사업에 관한 한·독일 간의 기술협력을 위한 약정을 1975.10.14. 및 1976.1.7. 체결함.

1. 교섭 경위

- 독일 측은 1973.10월 서울 개최 한·독일 경제회담에서 부산시 종합하수도 계획 수립에 대한 독일의 지원을 약속하고, 1974.7월 동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약정안을 제시
- 한국 측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독일 측 약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1974.12월 국내절차를 진행함.

2. 주요 내용

- 사업기간 및 내용
 - 1974.1월~77.12.31. 부산시 하수도 사업에 관한 기술협력(시행중)
- 독일 측 부담 사항
 - 독일 전문가의 한국 파견, 한국인 전문가의 독일 파견 훈련비 부담, 하수 펌프 등 필요한 장비 제공
- 한국 측 부담 사항
 - 사업소요 재정 확보, 한국 측 요원 확보, 독일정부 제공 장비의 유지비 부담
 - 독일 전문가에 대한 숙소·사무실 제공, 작업상의 편의 제공, 신분증 발급

3. 동 약정이 1975.10.14. 및 1976.1.7.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칼 로이터리츠 주한 독일 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1976.1.7.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호).

한·인도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1976.3.5. 서울에서 서명: 8.30. 발효(조약 제582호)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조약 / 경제조사

MF번호 J-6-104 / 1 / 1-326

한·인도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74.4.4. 과학기술처는 중진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침에 따라 인도와의 협정 체결 추진 의사를 외무부에 통보
- 1974.5월 주인도대사관을 통해 한국 측 초안 제시
 - 인도 측이 여타국가와 체결한 협력협정 모델을 바탕으로 한국 측 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섭 개시
- 1974.10월 인도 과학기술부장관의 방한 계기 서명을 추진하였으나 인도 정부의 개각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이 경질됨에 따라 무산
- 1974.11.6. 외무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확정된 정부안을 주인도대사관에 송부
- 1975.1월 인도 측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신임 과학기술부장관의 1975.4월경 방한 시 서명 희망
- 1975.8월 최종 협정안에 합의

2. 체결 의의

-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중진국 간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양국의 상호 이익과 복지 도모
- 인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한국의 대중립국 외교관계 강화에 기여

3. 주요 내용

- 평등과 상호 이익의 기초 위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간 협력 증진
- 양국의 과학기술 관계 기구·기업 및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 필요할 경우 의정서 또는 계약 체결
- 협정 시행상 필요한 장비의 인도는 양국이 합의하는 방법에 따름.
- 양국 과학자의 체제 비용 부담
- 협정에 따라 획득한 정보의 제3국에의 누설 금지

4.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 1976.1.16. 외무부는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76.1.27. 외무부는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76.2.3.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5. 동 협정은 1976.3.5.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S.M. Aga 주한 인도대사 간에 서명되고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각서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1976.8.30.자로 발효됨 (조약 제582호).

한·이란 간의 노동 양해각서 체결교섭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교민2 / 조약 / 경제협력

MF번호 J-6-104 / 2 / 1-217

1974~76년 중 한·이란 간 노동 양해각서 체결 교섭을 추진함.

1. 교섭 경위

- 노재원 주이란대사관 공사는 1974.12.28. 이란 노동부차관이 외국 기술자 도입문제 협의차 1975.1월 한국 포함, 아시아 국가를 순방할 계획임을 보고하면서 이란 정부가 양국간 양해각서 또는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술 인력의 송출 가능 분야별 자료 준비를 건의함.
 - 이란의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해외 인력 수급 필요성과 한국 정부의 인력 송출 정책이 맞물려 추진됨.
 - 노동부는 기술인력 2만 명의 해외 송출 계획을 외무부에 알려오면서 이란 등 정부와 노동 협정 체결 추진 요청

2. 경과

- 1975.1월 노동부는 방한한 이란 노동부차관에게 노동 양해각서 초안 제시
- 1975.3월 최두열 노동청장은 이란을 방문, 이란 정부에 한국 기술인력 송출 방안 제시
- 1975.4월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한·이란 노동장관 회담에서 추진방안에 대하여 합의
- 1975.12월 공동위 합의에 따라 한국 노동부는 노동관계 양해각서안을 이란 측에 제시
 - 수송 등 8개 분야 2만5천 명
- 1976.4월 노동부 기술협력 실무단이 이란을 방문하고 양해각서안에 합의
- 1976.8월 이란 정부는 사회보장법 강화 명목으로 시행중이던 피고용인 보호법 폐지
 - 한국 고용원의 부담 증가, 혜택 감소
 - 한국 정부는 대책 마련 차원에서 이란 내 한국인 취업자에 대한 재해보험은 이란 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양해각서안에 반영
- 1976.9월 외무부는 상기 안을 일부 수정하여 테헤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노동장관회의 시 서명 추진
- 주이란대사관은 1976.9.20.~24. 최석원 노동청장의 제6차 아시아노동장관회의 참석 기회에 양해각서 서명을 위해 각서안을 교섭 시도하였으나, 사회보장 보험 면제 조항에 대해 이란 측이 수락을 거부함에 따라 노동청장의 이란 방문 중 양해각서 서명이 무산됨.

한·일본 간의 대전직업훈련원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V.1 1973-75.10월) 1976.3.6. 서울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569호)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조약 / 경제조사

MF번호 J-6-104 / 3 / 1-264

1973~75.10월 중 한·일본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교섭 경위

- 과학기술처는 1974.1.9. 외무부에 보낸 공문에서 중화학공업 육성에 필요한 기능 및 기술인력 양성과 일선 감독자의 재교육을 위한 한·일본 기술협력에 의해 일본 정부가 원조하는 대전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신청
 - 3개년 계획에 국내 자체 조달 약 20억 원과 외국 원조 약 12억 원(약 3백만 달러) 투자
 - 동 사업은 1968.8월 제2차 한·일본 각료회의에서 협의되고, 1973.8월 방한한 일본 노동성 조사단은 230만 달러의 원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
- 외무부는 1974.1월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원조 요청

2. 협정안 협의 과정

- 일본 조사단이 1974.7월 방한하여 현지답사 및 실무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노동부는 이에 바탕을 둔 직업훈련원 설립 계획을 수립, 일본과의 협정 체결을 추진함.
- 일본 정부가 1975.7월 협정안 초안(전문, 11개 조항과 5개 부속서)을 한국 정부에 제시하여 문안 교섭을 진행함.
- 한국 정부는 일본안이 지나치게 한국의 부담 사항만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에 일본과 체결한 경제·기술협력협정에 입각하여 협정문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11.5. 일본 측에 제시함.

한·일본 간의 대전직업훈련원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V.2 1975.11월-76) 1976.3.6. 서울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569호)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조약 / 경제조사

MF번호 J-6-104 / 4 / 1-341

한·일본 간의 대전직업훈련원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1976.3.6. 체결함.

1. 교섭 경위

- 1974.1월 한국 측은 대전직업훈련원 설립을 위한 일본 정부의 지원을 요청
- 1975.7월 일본 측 협정안 제시
- 1975.9월 한국 측은 수정안을 일본 측에 제시
- 1976.2월 협정안 확정

2. 체결 의의

- 동 훈련원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하여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수출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공급함으로써 한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

3. 주요 내용

- 대전직업훈련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양국간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협정의 체결로 일본 정부는 약 7억 원 상당의 무상 원조를 동 훈련원에 제공함.
- 대전직업훈련원 개요
 - 투자규모: 27억 원
 - 내자: 20억 원
 - 외자: 7억 원(일본 측 지원, 전액 훈련 장비 구입에 충당)
 - 연간 훈련 인원: 총 960명
- 훈련 내용
 - 선반, 다듬질, 용접, 전기, 전자, 기계공작, 기계조립 등 분야에서 기능공 양성
 - 수석 자문가를 비롯하여 각 분야별 1인의 일본인 기술자를 동 훈련원에 파견
 - 36명의 한국인 직원(행정요원 및 교사)을 일본에 파견하여 훈련

4.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 1976.2.18. 외무부는 재무부, 노동청,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요청
- 1976.2.23. 외무부는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76.2.27.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5. 동 협정은 1976.2.27.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1976.3.6.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야키라 니시아마 주한 일본대사 간에 서명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69호).

한·일본 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약정, 1976.9.1. 서울에서 각서교환: 발효 (조약 제580호)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조약 / 경제조사

MF번호 J-6-104 / 5 / 1-113

한·일본 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약정을 1976.9.1. 체결함.

1. 교섭 경위

- 1972.4.12. 한국 측은 일본 측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실험용 기재 지원을 요청
- 1974.12.27. 제1차 연도 지원약정 체결(5억 엔 무상원조)
- 1975.8.29. 제2차 연도 지원약정 체결(5억 엔 무상원조)
- 1976.6월 일본 측은 제3차 연도 지원약정안을 제의

2. 동 약정의 의의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실험기재 확충으로 교육효과를 증진하고 연구 활동에 기여함.

3. 주요 골자

- 일본 측은 10억 엔 한도의 무상원조를 제공함.
 - 약정 발효일로부터 1977.3.31.까지 일본의 관계법규에 따라 제공
- 동 무상원조의 용도
 - 일본산 기재의 구입 및 수송비
- 자금집행
 - 기재의 구입을 위해서는 별도로 구매계약이 체결되며, 한국 정부의 지불승인에 따라 자금이 집행됨.
- 한국 측 부담 내용
 - 기재의 수송,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
 - 동 기재의 구입에 따른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재정적 부담에 대하여 면세 조치

4. 약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 1976.7.27. 외무부는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76.8.6. 외무부는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76.8.13.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5. 동 약정은 1976.9.1.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니시아마 아키라 주한 일본대사 간에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80호).

한·모로코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1976.5.22.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76호)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 조약

MF번호 J-6-104 / 6 / 1-163

한·모로코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함.

1. 교섭 경위

- 한국 통상사절단은 1973.5월 모로코 방문 시, 모로코 정부에 한·모로코 경제기술협력협정안 초안(전문 및 9개 조항) 제시
- 주모로코대사가 1976.1.15. 한국 측 협정안 중에서 어업협력 내용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로 어업협력협정의 체결을 건의한데 대해 수산청은 스페인령 서부사하라 연근해 어장 조업 필요성을 이유로 협정문에 수산분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 1976.2월 모로코 상공장관 방한 시 서명 추진
- 1976.2.9.~11. 방한한 모로코 외무차관은 협정안 내용에 동의를 표명하면서도 경제공동위원회 설립을 규정하는 안을 제시함.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한 안을 주모로코대사관에 송부하여 교섭 하도록 지시
- 양국은 1976.5.14. 협정안에 합의하고, 모로코 종교장관의 한국 이슬람사원 건립식 참석 계기에 무역협정과 함께 서명 추진

2. 체결 의의

- 양국간의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사하라 북쪽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외교적 진출에 기여

3. 주요 내용

- 양국간의 투자증진 및 기술교환에 의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반조치를 취함.
- 계약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타방계약국의 국민이나 법인의 투자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공평한 대우 보장
- 특정 협력분야 및 사업을 위한 개별약정 체결
- 협정 이행을 검토·지도하기 위해 혼성위원회 설치

4.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 1976.5.19. 외무부는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76.5.21. 외무부는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76.5.21.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 5. 동 협정은 1976.5.22.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Dey Ould Sidi Baba 모로코 종교장관 간에 서명,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76호).

한·스페인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1975.7.14. Madrid에서 서명: 1976.3.17. 발효 (조약 제570호)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조약 / 경제조사

MF번호 J-6-104 / 7 / 1-295

한·스페인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함.

1. 교섭 경위

- 스페인 정부는 1974.5.28. 주스페인대사관에 한·스페인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안을 보내오면서 협정 체결을 제안, 교섭 진행
- 외무부는 1974.12.4. 주스페인대사관을 통해 스페인 정부에 수정안 제시
 - 스페인 정부는 합동위원회 개최 등 경미한 문구 수정 조건 하에 한국 측 안 수락
- 스페인 측은 1975.1월 한국 측 대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함을 통보, 양국 최종 합의

2. 체결 의의

- 본 협정은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으로써 한·스페인 양국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발전 및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

3. 주요 내용

- 계약국 간 상호 과학 및 기술협력 제공
- 과학·기술 정보교환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설치
- 전문가 파견 등

4.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 1975.1.22. 외무부는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75.2.17. 외무부는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75.2.21.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 5. 동 협정은 1975.7.14. 마드리드에서 신상철 주스페인대사와 Mauri 스페인 외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국내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함으로써 1976.3.17.자로 발효됨(조약 제570호).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76.11.22.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85호)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조약 / 경제조사

MF번호 J-6-104 / 8 / 1-227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1976.11.22. 체결함.

1. 교섭 경위

- 1972.5월 미국 대통령 과학고문 방한 시 협정 체결에 관하여 협의
- 1973.3월 과학기술처장관은 미국 방문 중 국무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양국간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필요성에 비공식적으로 합의
 - 과학기술처는 협정문안을 작성하고 외무부에 체결 추진을 위한 교섭을 요청함에 따라 교섭이 시작됨.
- 1973.7.25. 외무부는 부내 의견조회 및 과기처와 협의를 거쳐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협정문안을 미국 정부에 공식 제의
- 1974.2.23. 미국 국무부 국장은 과학기술협력협정은 특별한 협력 프로그램이 제시될 경우에만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방침임을 내세워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한국 정부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제시 요청
- 1975년 과학기술처는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관련 협의 진행, 협정 체결 필요성 설득
- 1976.6.15.~16.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국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회의에서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협정안을 검토, 수정안에 원칙적으로 합의
- 1976.10월 양국 협정안 확정

2. 체결 의의

-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과학 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양국간의 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과 유대강화에 기여

3. 주요 내용

- 인적교류, 정보교환, 공동연구사업 시행
- 기관 간의 직접 접촉 장려
- 제3국 및 국제기구 참가 비용부담 등

4.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 1976.9.16. 외무부는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76.10.26. 외무부는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76.11.2.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5. 동 협정은 1976.11.22.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 장관과 Richard L. Sneider 주한 미국대사 간에 서명,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85호).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 문의 및 회신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4 / 10 / 1-52

1976년 외교, 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 문의에 대한 외무부의 조치 및 회신 내용임.

1. 주한 이란대사관 경비원의 무기 휴대 사용 문의

- 주한 이란대사대리는 1976.1.14. 이란 정부가 국제 테러단의 이란 정부 요인(재외공관원 포함)에 대한 테러 자행 가능성에 대비하는 중임을 알려오면서 주한 이란대사관 내의 특별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대비책의 일환으로 무기를 휴대한 자국 경비원을 파견, 보호 조치를 담당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동 경비원이 무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조치의 한국 정부 수락 가능 여부

2. 외무부 조치

- 외무부 조약국은 1976.2.12. 주미국대사관에 미국이 해외공관에 파견하고 있는 해병요원에 대해 주재국과 특별 합의 여부, 이들에 대한 공관원으로서의 신분상 지위 부여 여부 등의 파악을 지시한데 대해 주미국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해병대원은 공관 행정·기술직원으로 공관 내에서만 무기 휴대 및 경비 업무 수행
- 외무부 조약국은 이란 정부의 문의에 대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함.
 - 이란인 경비원이 업무직원일 경우(협약 제1조 G항 해당)에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라고 간주 되는 범위 내에서 공관규모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수락 가능
 - 그러나 이들이 무관일 경우, 사전에 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특별한 경우 동 경비원을 '특별한 카테고리의 직원'으로 간주하여 수락 거부 가능
 - 무기 휴대 및 사용에 관하여는 한국의 국내법 '총포 화약류 단속법'을 적용하여 처리

3. 외교공관의 행정·기술직원과 업무직원의 구별

- 외무부 조약국은 1976.10.7. 주한 스페인대사관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직원 혹은 행정·기술 직원의 신분 부여 여부 문의에 대해 비엔나협약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한 구별의 기준을 제공함.
 - 업무직원은 공관의 역무에 종사하는 육체노동 종사자(청소부, 운전기사, 요리사 등)

무력분쟁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외교회의, 제3회기. Geneva, 1976.4.21.-6.11.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5 / 1 / 1-220

정부는 1976.4.21.~6.11.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회기 무력분쟁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외교회의에 박근 주스위스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최 경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변화된 전쟁 양상을 반영하여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의 보완 및 강화 필요성과 특정 부류의 재래식 무기의 사용제한 및 금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 1968년 제23차 유엔총회에서 '무력충돌 시의 인권준중'이라는 결의안을 채택된 이래 스위스 정부는 2차에 걸쳐 전시인도법에 관한 외교회의를 개최하여 추가의정서를 검토하였으나 이를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제3회기 회의가 개최됨.
 - 국제적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1의정서 보완(실종자 및 사망자, 민간인 구호 규정 등 8개 항과 부속서)
 -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2의정서 보완(형법의 원칙 및 형사소추 등 6개 항)

2. 훈령

- 제네바 4개 협약 당사국으로서 한국의 전시인도법 규정의 성실한 준수 및 이행 강조
 - 월남전에서 미국과 한국 등 우방국의 행동을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 대비
- 주요 의제별 입장
 - 무력충돌로 인한 희생자에 관한 정보 및 사망자의 매장 등 지지
 - 유엔에 의한 침략의 정의 및 인도법 규칙의 무차별적 적용은 현지에서 판단, 입장 표명
 - 배신행위의 금지에 대하여 민간복장에 의한 위장은 배신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안 찬성
 - 독자적 임무수행에 대하여는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의 식별요건 강화에 찬성
 - 무력단체의 조직 및 기율에 대하여는 해방운동 단체에 대한 본 조항 요건의 적용 수정안 찬성
 - 항거집단 구성원에 대한 포로자격 인정 문제 조항에 대하여는 중도적 입장
 - 무력충돌로 인한 이산가족의 재결합 추진에 관한 조항은 한국의 남북적십자를 통한 이산가족 재회를 역설해온 점을 감안하여 적극 찬성하고 홍보
 - 비국제적 무력분쟁에 관련된 범죄인의 사형집행 연기 조항은 벨기에의 수정안 지지

무력분쟁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외교회의, 제3회기. Geneva, 1976.4.21.-6.11.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5 / 2 / 1-241

정부는 1976.4.21.~6.11.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회기 무력분쟁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외교회의에 박근 주스위스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구성

- 98개국 정부 대표와 40여개 비정부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의정서 I부와 II부를 3개 위원회에서 토의함.
 - 추가의정서 I부 90개 조항, 추가의정서 II부 47개 조항

2. 회의 결과

- 제1위원회
 - 협약 및 추가의정서에 대한 위반의 방지 및 억제(중대한 위반 사항 열거, 중대한 위반을 전범으로 규정, 포로송환의 부당한 지연을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
 - 보복(일방 당사국의 중대, 명백, 고의적 위반에 대한 피해당사국의 제한된 보복권 인정)
 - 상급자와 하급자의 책임
 - 국제조사위원회(International Enquiry Commission)의 설립으로 위반의 발생 여부 심사
 - 비국제적 무력분쟁에 대한 협약 및 제1의정서의 적용 문제
 -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관련자에 대한 형사소추 및 처벌(잔인한 보복적 처벌을 막기 위한 사법적 보장조치 모색, 관련자의 사형집행 연기 문제)
- 제2위원회
 - 민방위 관계 규정(민방위 역할을 수행하는 군사요원의 보호 문제 등)
 - 사망자 및 실종자에 관한 정보(근친자의 운명을 알 가족의 권리 등)
- 제3위원회
 - 배신행위의 금지(배신행위의 정의 등)
 - 전멸 금지 및 전의를 상실한 적의 보호
 - 항공기 조난자(공수부대원의 보호 여부 등)
 - 독립 업무(제복 착용자 등)
 - 군대의 조직 및 구성
 - 새로운 부류의 전쟁포로, 용병, 배신행위의 금지
 - 이산가족의 재결합



3. 차기 회의

- 추가의정서 I의 42조와 추가의정서 II 전체에 대하여 서방 진영과 공산 진영 안이 타협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4차 회의를 1977.4.14. 제네바에서 마지막으로 개최하여 추가의정서안을 심의, 채택하기로 결정함.

CCC(관세협력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의 3개 부속협약 한국가입, 1976.1.21.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5 / 3 / 1-319

1976.1.21. CCC(관세협력이사회) 설립에 관한 3개 부속협약 한국 가입과 관련된 내용임.

1. CCC 3개 부속협약

-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 1960.10.6. 브뤼셀에서 채택
- 전시회, 박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을 위한 물품의 수입상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
 - 1961.6.8. 브뤼셀에서 채택
-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
 - 1964.12.1. 브뤼셀에서 채택

2. 한국의 가입 경위

- 1968년 CCC에 가입한 한국은 부속협정에 대하여 1973년부터 가입 득실을 검토 시작
- 1975.9.19. 국무회의에서 3개 부속협약 가입 결정
- 1975.10.21. CCC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 동 부속협정은 가입서 기탁 후 3개월이 경과한 1976.1.21.자로 발효됨.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개발도상 회원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 [ESCAP 방콕협정] 한국가입, 1976.6.17. 전2권 (V.1 1975년도)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조약 / 경제기구

MF번호 J-6-105 / 4 / 1-469

1975년 중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개발도상 회원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ESCAP 방콕협정)에 한국 가입을 위한 교섭 내용임.

1. 협정 내용

- 전문 및 39개 조항과 국별 관세양허표(총 158개 주요 관심품목에 대하여 1 / 3 관세율 인하)
- 양허가치의 실효 유지
- 무역자유화 및 확대방안 모색
- 상설위원회 설치

2. 협상 경과

- 세계 경제의 블록화 경향에 부응하여 한국 등 ESCAP 8개국이 1972년 시작된 교섭을 통해 1975.7.31. 방콕에서 ESCAP 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아시아지역에서 최초로 지역협력협정이 타결됨.
 - 동년 9월 파키스탄은 서명 포기 결정

3. 한국 정부의 조치 및 문제 발생

-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파키스탄이 서명 철회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한국이 파키스탄에 양허를 부여한 1개 품목의 처리 관련 조항을 ESCAP을 통해 양허표에서 삭제하기로 함.
- 그러나 1975.11월 개최된 ESCAP 회의에서 사무국은 파키스탄 양허표 삭제 문제에 대하여 입장을 갑자기 바꾸어 원안대로 비준하고 추후 수정절차를 취하거나 비준 시 선언문 수록을 주장함.
- 정부는 1975.11월 수정된 양허표를 바탕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 중 상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ESCAP 사무국뿐 아니라 여타 서명국 주재 공관에도 삭제 동의서 발송 독려를 위한 교섭을 지시함.
 - 국회 심의는 보류됨.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 회원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 [ESCAP 방콕협정] 한국가입, 1976.6.17. 전2권 (V.2 1976년도)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조약 / 경제기구

MF번호 J-6-105 / 5 / 1-163

1976년 중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개발도상 회원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ESCAP 방콕협정)에 파키스탄 양허표 삭제 문제 해결 및 한국 가입을 위한 교섭 내용임.

1. 파키스탄 양허표 삭제 문제 해결

- 서명국들이 양허표 수정에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ESCAP 사무국은 수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비준 시 해석선언문 수록을 권유함.
- 방글라데시가 1976.1.31.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2개국이 추가로 비준하는 경우에는 협정이 발효하며, 발효 후 서명국이 30일 이내에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됨. 이에 한국 정부는 비준서 기탁을 늦추도록 인도와 교섭하는 한편, 사무국에 대해 계속 양허표를 삭제한 새로운 협정문 작성을 요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임.
- 국회가 1976.3.23.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부는 주태국대사관을 통해 비준서를 3번째로 기탁하였으며 동 대사관은 기탁 통보 공한에 파키스탄 양허표 삭제를 언급하는 방안에 관하여 사무국과 협의를 통해 합의함.

2. 동 협정은 1975.7.31. 방콕에서 서명되고, 1975.11.14.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6.3.23. 국회 본 회의에서 비준 동의를 얻어 1976.5.18. 한국에 의한 세 번째 비준서가 기탁됨으로써 1976.6.17.부터 발효하고 동일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574호).

1966년도 적화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의 수정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5 / 6 / 1-35

1966년도 적화흘수선(積貨吃水線,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 배와 수면이 접하여, 경계가 되는 선)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안을 한국 정부가 수락한 내용임.

1. IMCO(정부간해사협약기구) 사무국은 1975.11월 제9차 IMCO 총회에서 채택된 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안(제29조 협약 개정안 채택 절차)에 대하여 1976.2월 한국 정부의 수락여부를 문의함.
2. 정부는 제9차 IMCO 총회에서 동 개정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안 심의의 중복을 피하며 발효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안에 찬성하고 1976.9월 주영국대사관을 통해 사무국에 수락 동의서를 송부함.

58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76

UPU(만국우편연합) 헌장 제2차 추가의정서[등] 한국 가입, 1976.1.1.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5 / 7 / 1-118

정부는 1976.1.1. UPU(만국우편연합) 헌장 제2차 추가의정서 관련 개정안에 가입함.

1. 주요 내용

- UPU 헌장 제2차 추가의정서(조약 제553호)
- UPU 총칙 및 최종의정서(조약 제554호)
- UPU 협약 및 최종의정서(조약 제555호)
- 소포우편물 약정 및 최종의정서(조약 제556호)
- 우편환 및 우편 여행자수표 약정(조약 제557호)

584

2. 경위

- 1974.7.5. 제17차 UPU 총회에서 채택(1974.5.22.~7.5., 스위스 로잔)
- 1974.7.5. 서명
- 1975.8.22. 체신부는 상기 총회에서 한국 정부대표단이 채택에 찬성한 헌장 제2차 추가의정서 및 관련 5개 협정의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취해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3. 국내 절차

- 1975.10월 국무회의 심의 절차 완료
- 1975.12.23. 주스위스대사관을 통해 스위스 정부에 11번째로 비준서 기탁
- 1976.1.1.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

4. 쿠바는 1976.3.29.자 주쿠바 스위스대사관 앞 공한을 통하여 한국 정부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반박함.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협약 및 동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적 추가의정서 한국 가입, 1976.1.22.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5 / 8 / 1-192

정부는 1976.1.22.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협약 및 동 협약에 대한 최종의정서, 추가의정서 및 임의 추가의정서에 가입함.

1. 주요 내용

- 1965년 몽트뢰에서 채택된 전기통신협약의 임의적 추가의정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전기통신협약 또는 동 협약에 따른 업무규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은 외교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강제적 중재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함.

2. 비준 의의

- 1973년 ITU 임의적 추가의정서는 1965년 동 협약 임의적 추가의정서와 동일한 내용이나, 동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ITU 또는 동 협약에 따른 업무규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제3자적 해결수단에 의뢰함으로써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범세계적 기구인 ITU를 통하여 각국과 전기통신에 관한 유기적인 협약 관계 유지
 - 협약에 따른 원조와 지도를 통하여 한국 전기통신시설의 기술적 발달과 능률적 운영 기대

3. 채택 경위

- 1973.9.14.~10.26. 스페인 Malaga주 Torremolinos에서 개최된 ITU 전권위원회회의는 1965년의 몽트뢰 협약을 개정 채택하면서 동 협약에 대한 임의적 추가의정서 분쟁의 강제적 해결을 동시에 채택한바, 이에 한국을 비롯한 57개국 전권위원이 동 의정서에 서명함.

4. 국내 절차

- 1975.3.29. 외무부는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75.10.28. 외무부는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75.11.18.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 1976.1.22.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ITU 사무총장에게 기탁
- 1976.1.22.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

5. 동 의정서는 1973.10.25. 스페인에서 채택되었고, 1975.11.18.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1976.1.22.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동일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564호, 제565호).

- 국제전기통신협약(조약 제564호)
- 국제전기통신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적 추가의정서(조약 제565호)

일본의 NPT(핵비확산조약) 가입

생산연도 1968-1976

생 산 과 동북아1 / 조약

MF번호 J-6-105 / 9 / 1-258

1968~76년 중 일본의 NPT(핵비확산조약) 가입 관련 내용임.

1. 1968.7.1. 일본은 유엔의 NPT 결의안에는 찬성하였으나 조인식에는 참석하지 않음.
2. 1970.3.5. 동 조약은 43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여 발효되었으며, 일본 정부는 아래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비준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견지함.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선진 핵 미보유국인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 회원국과의 동등한 대우 보장,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조치협정 체결 교섭
 - 조약 제6조(핵군축)의 효과적 이행 상황 및 조약당사국이 될 경우 일본의 안전 보장 방안
3. 1975.2.24. 일본과 IAEA는 안전조치협정에 합의함.
4. 1976.5.24 일본 중의원이 NPT 비준안을 의결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음.
 - 미국의 일본에 대한 별도 안전보장 조치,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 시 미국·일본 안보조약상 핵 반입을 포함한 사전협의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신속히 대응하는 문제 등 일본 국내 정치적 논란이 있었음.
5. 1976.6.8. 일본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 공포 및 발효됨에 따라 NPT 회원국이 됨.

각국의 국제 식물보호협정 가입 및 정부간 협의회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J-6-105 / 10 / 1-83

1975~76년 중 각국의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가입 및 정부간 협의회 관련 내용임.

1.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주관으로 1976.11.15.~19. 로마에서 IPPC 당사국회의가 개최됨.

● 의제

- 협정안 검토 및 개정 심의
- 식물 검역 위생 증명서 서식, 재수출용 식물 검역 위생증명, 식물병균 위생 토론, 기타

● 한국 대표단

- 주이탈리아대사관 소속 관계관이 참석

2. 1975~76년 중 IPPC 협약에 신규 가입한 국가에 대한 사무국의 통보사항이 수록됨.

1973년도 국제사탕협정의 연장에 관한 국제사탕이사회의 제1차 결의 한국가입, 1976.1.1.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조약 / 경제기구

MF번호 J-6-105 / 11 / 1-159

정부는 1976.1.1. 국제사탕협정 연장에 관한 국제사탕이사회의 제1차 결의에 가입함.

1. 채택 경위

- 1972.12.20. 1968년도 국제사탕협정에 정회원국으로 가입
- 1973.12.31. 동 협정 종료
- 1974.3.27. 1973년도 국제사탕협정에 정식 가입
 - 동 협정은 새로운 국제사탕협정이 체결될 것을 예상하여 1975.12.31.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됨.
 - 국제사탕이사회에 대하여 동 협정을 1976.12.31.까지 또는 그 후 1년씩 연장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1975.9.30. 국제사탕이사회는 동 협정을 1976.12.31.까지 연장하는 결의를 각국의 서면 투표에 의해 채택, 한국도 동 결의안 지지

2. 결의 채택 의의

- 사탕에 관한 정보 교환과 유리한 원당 공급원의 확보 및 신탁정 교섭 시 한국입장 반영에 기여

3. 주요 내용

- 1973년도 국제사탕협정의 주요 내용
 - 국제사탕기구(국제사탕이사회, 집행위원회), 재정, 회원국의 의무, 신탁정을 위한 준비, 가입 등
- 결의의 주요 내용
 - 1973년도 국제사탕협정을 1976.12.31.까지 연장
 - 투표, 수락 통보 방법 등

4. 국내 절차

- 1975.11.21. 외무부는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75.12.5. 외무부는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75.12.12. 국무회의가 동 결의안을 심의, 의결

- 5. 동 협정은 1975.9.30. 국제사탕이사회에 의하여 채택, 1975.12.12.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5.12.29. 유엔사무총장에게 한국의 확정적 수락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1976.1.1.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562호).

1971년 소맥무역협약 3차 연장을 위한 의정서 한국 가입, 1976.7.1.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조약 / 경제기구

MF번호 J-6-105 / 12 / 1-105

정부는 1976.7.1. 소맥무역협약 3차 연장을 위한 의정서에 가입함.

1. 주요 내용

- 1971년도 협약을 1978.6.30.까지 의정서 당사국 간에 연장함(제1조).
-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기탁 기간(제6조)
- 의정서의 발효(제9조)

2. 비준 의의

- 한국은 소맥 수입국으로 대부분의 소맥을 PL(미공법)480호에 의해 미국에서 도입하였으나 1974년 이후 PL480호에 의한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국제시장을 통한 소맥 수입이 매우 중요해짐.
- 본 소맥무역협약의 아래 목적에 비추어 이 협약에 대하여 계속 당사국이 됨으로써 한국의 소맥 수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 동 협약의 목적: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국제 소맥거래의 영향을 고려하여 소맥무역의 확대 촉진, 소맥시장의 안정화, 소맥가격에 관한 국제교섭의 기틀 제공

3. 채택 경위

- 1974.2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68차 국제소맥이사회는 1974.6.30. 만료되는 '1971년도 소맥 무역협약'을 계승하는 새로운 협약 채택시까지의 잠정적인 조치로서, 동 협약을 1975.6.30.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한 의정서 채택
- 1975.2월 제72차 국제소맥이사회는 동 협약을 1976.6.30.까지 다시 추가 연장하기 위한 의정서 채택
- 1976.2.20. 런던에서 개최된 제76차 국제소맥이사회는 상기 협정을 1978.6.30.까지 2년간 연장하기 위한 의정서를 3번째로 채택
- 1976.4.6. 한국은 동 협약의 3차 연장을 위한 의정서에 함병춘 주미국대사가 서명

4. 동 의정서는 1976.2.20. 국제소맥이사회에 의하여 채택, 1976.4.6. 함병춘 주미국대사가 서명, 1976.6.16. 미국 국무부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76.7.1.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관한 일본의 입장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7 / 11 / 1-48

1976.3.15.~5.7. 뉴욕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관련 자료임.

1. 한국 정부가 일본에 문의한 사항

- 영해 및 접속수역제도
 - 군함에 대한 무해통항의 인정 또는 사전허가(통보)제의 적용 여부 등
- 국제해협제도
 - 대한해협의 지위에 대한 일본의 입장 등
- 경제수역제도
 - 허용 어획량의 연안국 자의적 결정 또는 지역 어업기구를 통한 결정의 문제 등
- 공해제도
 - 공해의 정의에서 경제수역 제외 여부, 공해로부터의 무인가 방송에 대한 규제강화 여부
- 군도수역제도
 - 육지와 수역의 최대비율, 기선의 최대거리 측정 시 직선기선 사용 문제 등
- 도서제도
 - 도서의 수역에 자체의 영해, 접속수역 등 설정하는 것 인정 여부, 도서의 지위 등

2. 유엔해양법협약 주요 조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 영해 12해리는 국제해협의 항행 자유를 가능한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
- 경제수역 200해리는 연안국이 원양어업국의 실적을 존중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
- 심해저개발에 관하여는 인류전체의 공유물이라는 관점에서 원활한 개발 선호
- 대륙붕 200해리를 넘는 배타적 자원관할권 불인정을 조건으로 자연연장설 인정
- 해양오염 방지에는 항행의 자유가 심하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연안국의 권리 적극 찬성
- 비핵3원칙 문제는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제기할 성질의 문제가 아님.

3. 참고자료

- 유엔해양법회의 종료 후 외무성 해양법 본부가 민간협회 명의(해양시보)로 발간한 회의결과 보고서
- 일본 해양법 학자의 저서 '해양법 연구'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관한 미국의 입장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7 / 12 / 1-273

1976.3.15.~5.7. 뉴욕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 관련 내용임.

1. 미국의 관심 사항

- 미국 정부는 새로운 해양법 질서 구축을 위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와 관련하여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측 입장에 대한 한국 측의 지지를 요청하고 관심 조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익함.
- 관심 사항
 - 영해 범위, 국제해협 및 경제수역의 공해 성격을 강조하면서 범세계적인 전략상 커다란 이해관계가 있는 자유통항권 확보 문제, 심해저 해저자원 개발을 위한 독립적 심해저 자원 기구의 설립 등
- 한국 정부의 입장 문의
 - 외무부 조약국장은 영해 12해리 지지와 일반선박의 경우에는 무해통항권을 인정하나 군함에 대하여는 사전 허가 또는 통보 조건을 지지한다고 언급
 - 외무부 조약국장은 선박의 통항 빈도와 제주 남부에 공해상의 수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주해협은 연안 해협으로 취급한다는 잠정적 의견을 언급

2. 미국 의회에서의 입법 동향

- 어업수역 200해리 법안 통과
- 심해저 자원 개발법 입법 추진
 - 상·하 양원에서 추진
 - 유엔해양법회의에서 국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잠정기간 동안 미국의 심해저 개발 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
 - 행정부는 유엔해양법회의에서 결과가 도출되기 전 독자적 제정에 반대

3. 참고자료

-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유엔해양법회의 연설문
- 미국 의회의 심해저 자원개발 법안 등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4회기. New York, 1976.3.15.-5.7. 전11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6 / 1 / 1-166

정부는 1976.3.15.~5.7.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4회기에 한병기 주유엔대표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의 해양정책상 기본 고려사항

- 서해 5도의 지위를 포함한 한국의 해상안보 유지
- 주변 해역자원 일반에 대한 한국의 기존권리 확보
- 원양어업상의 기존권익 보호 및 신장
- 원자재 공급 및 수출상품 수송의 원활과 한국해운의 보호발전

2. 훈령

- 영해제도
 - 최장범위(12해리 지지), 무해통항(안보상의 이유에 따른 일시적 정지권 인정), 군함의 통항 (원칙적으로 사전통보 또는 허가에 의한 무해통항 인정)
- 국제해협 통과권
 - 일반선박(자유통과권 인정), 군함 및 핵추진 선박(해상통로 및 통항분리대 적용, 안보상 이유에 따른 일시적 정지권 인정)
- 경제수역 내에서의 제3국의 입어(入漁)
 - 입어권의 확보(잉여자원에 대한 접근의 권리규정), 허용 어획량(연안국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반대하고 국제어업기구에 의한 결정절차 확립 필요성 강조), 입어제한(입어로 등 어로규제에 관한 객관적 제도 확립 필요성 역설)
- 대륙붕
 - 정의(경제수역제도에 우선하는 지질·지형학적 형태로서의 존재인정), 범위(자연연장론의 우선 적용 지지)
- 심해저 개발제도
 - 개발주체(국제해저기구에 의한 개발이 기본원칙, 자본과 기술을 확보할 때까지 용역계약·합작 등에 의한 개발찬성), 활동원칙(개발도상국의 이익에 대한 특별고려, 원료수입·소비국의 이익보호), 기구의 권능(포괄적 권능인정)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4회기. New York, 1976.3.15.-5.7. 전11권 (V.2 대책 및 기본 입장)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6 / 2 / 1-139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제4회기에 대비한 대책 및 기본 입장 관련 내용임.

1. 회의 배경 및 경과

- 6년간(1968~73년)에 걸친 회의준비
- 사상최대의 국제회의: 약 140개국 참가
 - 제1회기(1973.12.3.~15., 뉴욕): 회의의 조직 및 임원선출
 - 제2회기(1974.6.20.~8.29., 카라카스): 각국의 기초연설
 - 제3회기(1975.3.17.~5.9.): 단일교섭안(304개 조) 배포

2. 회의 의제 및 전망

- 의제
 - 해양법에 관한 단일의 국제협약 채택: 영해(12마일), 대륙붕, 경제수역(200마일) 등 국가관할권 범위 이내의 해양에 관한 국제제도의 보완·발전, 국가관할권 범위 이원(以遠)의 심해저 개발제도의 확립(국제해저기구의 설치), 해양환경의 보존, 과학적 조사, 기술의 이전
- 전망
 - 단일교섭안에 대한 심의, 협약채택 난망, 추가회의 개최

3. 주요 의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

- 한국 해양정책상 기본 고려사항
 - 주변 해상안보의 유지, 주변해역 자원일반에 대한 권리확보, 원양어업상 기존권익 보호 및 신장, 원자재공급 및 수출상품 수송의 원활과 해운의 보호발전
- 영해의 범위
 - 12해리 지지(1975년 말 105개국 동조)
- 대륙붕
 - 지질, 지형학적 형태에 입각한 자연연장론의 우선적용 지지
- 경제수역
 - 허용 어획량의 연안국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반대하고 국제어업기구에 의한 결정절차 확립지지
- 심해저 제도
 - 원칙적으로 국제해저기구에 의한 개발을 지지하나, 국제기구에 의한 자본과 기술이 확보될 때까지(약 30년간의 중간기간) 용역계약·합작 등에 의한 개발찬성



4. 해양법 특수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 한국의 영해선포 문제
 - 해양법회의의 귀추를 주목, 신중대처
- 대한해협외의 지위 문제
 - 한국의 해운일반과 안보상 이익에 입각하여 적절한 통항제도 강구
- 경제수역제도의 채택에 따른 대책
 - 200해리 경제수역을 원칙적으로 지지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4회기. New York, 1976.3.15.-5.7. 전11권 (V.3 단일교섭안에 대한 의견)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6 / 3 / 1-141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제4회기에 대비하여 단일교섭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 검토 내용임.

1. 외무부는 1976.1.10. 내무부 등 관계부처에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제3회기 시 배포된 해양법에 관한 비공식 단일교섭안(Single Negotiating Text)과 관련, 한국의 해양정책상 이해 문제에 관한 각부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을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76.2.9.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제4회기에 대비한 관계부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종합 정리함.

- 영해의 범위: 국방부, 내무부(12해리 지지)
- 영해의 경계확정: 국방부(동해안: 통상기선, 남서해안: 직선기선), 내무부(한·일본 어업협정에 의거한 직선기선 채택)
- 영해의 유해통항 범위: 국방부(무기운반 행위추가)
- 영해내 군함의 통항: 국방부(사전허가 또는 사전통보)
- 국제해협의 자유통과 통항: 국방부(군함의 경우 무해통항)
- 대한해협의 취급: 국방부(국제해협)
- 제주해협의 취급: 국방부(내해로 포용, 군함의 통항봉쇄), 내무부(외국선박의 항행규제)
- 특정해역문제(서해5도 주변): 내무부(외국선박의 항행규제)
- 경제수역의 범위: 내무부(200마일 지지)
- 대륙붕의 범위: 상공부(자연연장과 200마일 거리기준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자연연장 우선)
- 경제수역, 대륙붕의 경계확정: 상공부(규정내용 불명확)
- 도서의 취급: 상공부(경계확정 시 규정 불명확)
- 해양의 과학적 조사: 과기처(연안국과 공동조사)
- 오염규제: 과기처(연안국의 주권적 관할권 행사, 배상책임은 선박소속국의 연대책임)

3. 외무부는 1976.2.25. 해양법에 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함.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제3회기에서 배포된 단일교섭안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이익에 관련된 주요 문제점 검토
- 한국 영해의 선포에 관한 문제, 경제수역과 어업상의 이익, 대륙붕, 국제해저제도, 해양환경의 보존·과학적 조사·기술이전, 한국연안의 자원현황 등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4회기. New York, 1976.3.15.-5.7. 전11권 (V.4 대표단 보고)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6 / 4 / 1-193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4회기에 참석한 정부대표단의 보고 내용임.

1. 회의 개요

- 1976.3.15., 유엔 본회의장에서 속개
- 참가 현황
 - 초청 156개국 중 베트남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149개 유엔회원국, 전문기구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 참석
 - 북한은 권민준 주유엔대표부대사 등 대표단 참석
- 유엔사무총장은 평화의 유지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설 시행

2. 회의 운영방안 합의

- 1976.3.15. 이후 1개월 동안 단일교섭안에 대한 비공식 협의 진행
 - 단일교섭안에 대한 비공식 수정 제의만을 인정
 - 상기 기간 중 협의 성과에 따라 단일교섭안을 수정한 후, 회의 공식문서화
- 상기에 따라 동 회기는 단일교섭안에 대한 축조심의, 개별적으로 취급 가능한 일부 조항 심의 또는 주요 문제에 대한 집중 토의 등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

3. 각 위원회별로 단일교섭안에 대한 협의 진행

- 각국별로 각 조문에 대한 찬반 입장표명
 - 일부 조항은 자구 수정 또는 신설 등을 통해 채택

4. 차기회의 개최

- 의장의 제의에 따라 제5회기는 1976.8.2.~9.17. 뉴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1976년 내 개최를 반대했던 77그룹은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입장 선회로 원래의 입장을 번복, 의장의 절충안을 수락
- 차기회의 협상 방안
 - 전문 및 최종조항은 기초위원회 의장에게 위임, 작성하고 차기회의 개최 전 각국에 배포
 - 회의 진행 방식은 의장의 제의(전반기 협상, 후반기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4회기. New York, 1976.3.15.-5.7. 전11권 (V.5 유엔대표부 보고)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6 / 5 / 1-161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4회기에 관련한 유엔대표부의 보고 내용임.

1. 1976.3.15.

- 유엔해양법회의 제4회기가 속개되어, 이번 회기 아태위 잠정 의제를 채택한 후 회의 운영 방침에 관한 의장의 설명을 청취
- 호주 외무장관 등 일부 대표단 발언
- 77그룹은 이번 회기 의장에 Upadhyay 주유엔 네팔대사를 만장일치로 선출

2. 1976.3.16.

- 제2위 및 제3위 첫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 합의
 - 토의는 단일교섭안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함
 - 단일교섭안에 대한 수정안 제기 및 토의는 4.14.까지 완료하고 이후에는 의장이 조정안을 마련

3. 이후 3.17.~5.7. 간 일자별 각 위원회 토의 결과 보고내용이 포함됨.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4회기. New York, 1976.3.15.-5.7. 전11권 (V.6 회의 경과 및 종합보고)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6 / 6 / 1-147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4회기 회의 경과 및 종합보고 관련 내용임.

1. 회의 운영

- 해양법에 관한 비공식 단일교섭안에 대한 축조심의(informal committee meeting)
- 해양법에 관한 분쟁해결제도 및 해양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일반토론(formal plenary meeting)

2. 회의 성과

- 수정된 비공식 단일교섭안 작성, 배포
- 차기회의(1976.8.2.~9.17., 뉴욕)에서 수정된 단일교섭안에 대한 실질적 협상과 위원회 단계의 결정(필요한 경우 표결 실시) 합의

3. 정부대표단의 활동

- 한국의 해양에 관련된 국가이익 적극 반영 노력
 - 공식 본회의에서 분쟁해결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천명, 경제수역·대륙붕문제 등에 관해 약 20회에 걸쳐 발언
- 77그룹, 지역그룹 및 주요 문제에 관한 개별적 협의 그룹에 적극 참가
- 미국, 일본, 아세안 등 우방국가와의 긴밀한 정보교환 및 공동관심사 협의

4. 북한의 동향

- 권민준 주유엔 북한대사를 포함한 6명의 대표단 파견
- 중국(구 중공)의 입장에 대체로 동조, 건설적인 제안 없이 7회에 걸쳐 해양개도국 주장에 대한 단순한 지지 발언

5. 차기회의 전망

- 수정된 단일교섭안의 공식 문서화
- 본격적 협상 및 협상의 한계가 드러나는 문제들에 대한 표결 강행
- 협상이 종결되는 대로 해양법에 관한 새 조약이 1977년 카라카스에서 채택될 전망

6. 건의사항

- 해양법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차기회의 수정안 작성, 해양선포안 준비, 대한해협의 지위에 관한 한·일본 간의 교섭안 작성, 한·일본 어업협정의 폐기 또는 개정 검토, 해양법에 관한 국내법령 정비작업, 양자간 어업협정 체결교섭 종합계획 수립, 대륙붕 추가 광구(鑛區) 설정검토 추진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4회기. New York, 1976.3.15.-5.7. 전11권 (V.7 연설문)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6 / 7 / 1-149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4회기 관련 연설문임.

1. 외무부는 1976.7.21.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2회기(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및 제4회기(뉴욕) 시 한국 정부대표단의 각종 발언문을 종합 정리함.

- 전체회의
 - 송광정(1974.7.2.), 이장춘(1976.4.6.)
- 제1위원회
 - 박수길(1974.7.17., 8.1., 8.20.), 장선섭(1976.4.6., 4.8.)
- 제2위원회
 - 노창희(1974.7.16., 7.26., 7.30., 8.5.), 박수길(1976.3.20., 3.24., 3.26.), 이장춘(1976.3.29., 3.31.), 박수길(1976.4.2., 4.6., 4.7., 4.8., 4.9., 4.15.), 노창희(1976.4.19.), 박수길(1976.4.22.)
- 제3위원회
 - 권인혁(1976.3.19., 1976.3.30., 1976.3.31.)

2. 주유엔대표부는 1976.8.6. 해양법회의 제2위원회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전체회의에서의 한국 대표 발언문을 보고함.

- 박수길(1976.8.4., 8.6., 8.13.), 한영석(1976.8.6., 8.18.), 권인혁(1976.8.11., 8.20., 9.14., 9.15.), 노창희(1976.8.17., 9.9., 9.14.), 이장춘(1976.8.20., 8.25.)

76-532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4회기. New York,
1976.3.15.-5.7. 전11권 (V.8 회의록)**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6 / 8 / 1-296

유엔 사무국이 1976.3~5월간 발행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4회기(1976.3.15.~5.7., 뉴욕)의 각종 회의록임.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4회기. New York, 1976.3.15.-5.7. 전11권 (V.9 회의자료 I : 각국의 단일교섭안 개정안)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6 / 9 / 1-275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4회기 회의 자료 중 각국의 단일교섭안 개정안임.

1. 제2위원회에 제출된 각국의 비공식 단일교섭안 개정안(1976.4.15.)

- 총 26건

2. 제2위원회에 제출된 단일교섭안 개정안(1976.4.22.)

- 총 13건

3. 제2위원회에 제출된 단일교섭안 개정안(1976.4.30.)

- 총 40건

4. 제2위원회에 제출된 캐나다의 대륙붕 경계위원회 설치 신설안(1976.5.6.)

5. 77그룹 기초위원회(Drafting Committee)가 전체회의에 제출한 보고서(1976.5.6.)

- 의견대립으로 미채택

6. 제2위원회 자료(1976.9.10.)

- 수정안 7건
- 한국 대표 연설문 각1부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4회기. New York, 1976.3.15.-5.7. 전11권 (V.10 회의자료 II: 분쟁 해결)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6 / 10 / 1-307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4회기 회의 자료 중 분쟁 해결 관련 자료임.

1. 유엔 사무국은 1975년 유엔해양법회의 분쟁해결 관련 문서를 각 회원국에 배포함.
 - 분쟁해결 조항에 관한 비공식 그룹에서 작성한 단일교섭안
 - 화해, 중재, 해양재판 절차 등 포함
2. 이장춘 외무부 조약과장은 1976.4.6. 제60차 본회의에서 분쟁해결에 관한 한국의 기본입장을 밝힘.
 - 해양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재판기구 창설을 제의
 - 해양 분쟁과 관련하여 너무 많은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는 악화를 초래할 우려 지적
3. 1976.4월 제60차 본회의에서 각국은 분쟁해결에 관한 기본입장을 밝힘.
4. 주유엔대표부는 1976.4.29. 77그룹 본 회의에서 분쟁해결에 관한 77그룹 실무위원회 의장이 동 위원회 작업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송부함.
5. 유엔사무국은 1976.5.6. 유엔해양법회의 분쟁해결 조항에 관한 비공식 단일교섭안을 각 회원국에 배포함.
 -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당사자들이 선택한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 등 조항
 - 화해, 중재, 해양재판절차
 - 분쟁 사례별 해결절차
 - 어업, 공해, 과학적 조사, 항행 등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4회기. New York, 1976.3.15.-5.7. 전11권 (V.11 회의자료 III: 제3위원회)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6 / 11 / 1-285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4회기 회의 자료 중 제3위원회 관련 자료임.

1. 각국 대표는 동 회의에서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관한 조항과 관련된 협상문안 제의
2. 유엔사무국은 1976.5.6. 제3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비공식 단일교섭안 수정안 배포
 -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조항
 - 국가 관할범위 이외의 해상(海床), 해저(海底) 및 기타 조항
 - 영해, 국제항행 해협,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도서 등 조항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5회기. New York, 1976.8.2.-9.17. 전8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7 / 1 / 1-163

정부는 1976.8.2.~9.17. 뉴욕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5회기에 문덕주 주유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심해저 개발제도, 국제해협 통항제도, 대륙붕의 범위 및 수익납부 분배제도
- 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기타 국가의 권리의 균형
- 해양의 과학적 조사, 분쟁해결제도

604

2. 훈령

- 한국의 안보·경제적 국가이익의 추구를 위한 해양 정책상 기본과제를 유념하되, 수정초안의 주요 문제에 관한 한국 입장에 따라 한국의 국가이익을 반영
- 우방과의 협조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입장을 적극 표시
- 한국의 해양관할권 등에 관한 북한의 근거 없는 주장이나 정치적인 비난을 단호히 일축
- 미국, 소련, 중국(구 중공), 일본 등의 해양법 태도를 예의 관찰하고, 한국의 기본적인 해양 정책에 부합하는 제안 및 수정안 등에 대해 자체 판단 하에 공동보조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5회기. New York, 1976.8.2.-9.17. 전8권 (V.2 훈령 및 기본입장)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7 / 2 / 1-202

외무부는 1976.7.21.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5회기(8.2.~9.17., 뉴욕)에 대한 한국의 기본입장에 관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함.

1. 회의 목적

- 영해, 국제해협, 대륙붕, 경제수역, 공해 등에 적용될 국제법의 보완·발전 및 심해저 관련 새로운 법제도 확립

2.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한국의 기본입장

- 해양법에 관한 한국의 정책적 과제
 - 해상안보의 유지, 자원의 보존 및 활용, 해운(海運)의 보호 및 발전, 원양어업의 권익보호
- 영해의 범위: 12해리
- 영해내 군함의 무해 통항 반대, 사전 통고 또는 허가제 지지
- 국제해협에서 일반선박의 통과·통항권은 인정하나 군함·군용항공기에 대해서는 무해통항권만 인정
- 경제수역제도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원양어업을 고려하여 연안국의 포괄적·주권적 권리행사에는 소극적 입장
- 대륙붕의 범위에 관한 자연연장 기준 지지
- 인접·대항국간의 경계 확정은 형평의 원칙 적용 지지
- 공해에 경제수역이 포함되나 제3의 중간지역으로 규정하는 타협안 지지
- 심해저 기구의 권한 강화에는 찬성하나 심해저 광물자원의 생산 및 가격 통제에 대하여는 소극적 입장
- 선박에 의한 오염 규제를 위한 기국주의 지지
- 해양의 과학적 조사에는 연안국 허가 필요
- 제3자 강제적 분쟁해결제도 지지

3. 회의 전망

- 주요 문제에 대한 절충이 이루어져 협상문서를 공식화하고 그 성과에 따라 단일 해양법협약 탄생 전망

4. 건의

- 해양법 대책위원회 설치
 - 정부의 해양법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향후 채택될 해양법협약에 대비할 목적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외무·국방·농수산·상공·교통부장관으로 구성하여 2년간 설치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5회기. New York, 1976.8.2.-9.17. 전8권 (V.3 대책 및 단일교섭안에 대한 의견)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7 / 3 / 1-287

외무부는 관련 부처 의견조회, 각종 사전 대책회의 개최 등을 통해 1976.8.2.~9.17.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5회기 대책을 수립함.

1. 관계부처 의견조회

- 외무부는 1976.5~7월 기간 중 국방부, 보건사회부, 상공부, 과학기술처 등에 해양법 수정초안 중 각부 소관사항에 대해 의견을 조회함.

606

2. 각종 사전 대책회의 개최

-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1976.5.28., 대통령비서실 주재)
- 해양법 자문회의 개최(6.11., 대통령비서실 주재)
- 관계부처 과장급 실무자회의(6.25.)

3.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5회기 대책 수립(1976.6.3.)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회의에 적극 참여
- 사안별로 기존 입장 재검토
 - 영해내의 군함의 무해통항, 국제해협의 자유통과·통항권
- 기존 입장의 적극적 반영
 - 대륙붕의 자연연장기준 적극옹호, 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완화, 심해저 개발에의 적극 참여, 오염 규제 국제기준과 기국(旗國)주의 지지, 제3자적 분쟁해결제도의 확립 강조
- 제31차 유엔총회를 앞둔 북한의 선전음모 봉쇄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5회기. New York, 1976.8.2.-9.17. 전8권 (V.4 회의보고 I: 대표단 보고)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7 / 4 / 1-171

한국 정부대표단은 1976.8.2.~9.17. 뉴욕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5회기에 참가하여 회의경과 등을 수시 보고함.

1. 회의 개최

- 1976.8.2. 유엔총회장에서 의장인 아메리싱 주유엔 스리랑카대사의 사회로 150여개국 대표 참석 하에 개최
 - 의장은 금번 회기에서 거의 모든 주요 문제가 타결될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
- 북한은 김형일 공사 등 참석

2. 회의별 주요 내용

- 제1위원회
 - 심해저 개발 문제 집중 협의
- 제2위원회
 - 핵심의제로 경제수역의 정의, 내륙국의 일반적 문제점, 200마일 초과 대륙붕의 개발 수익 분배, 대륙붕의 외연 정의 등 4가지 사항 협의
- 제3위원회
 - 해양과학연구·조사, 해양오염 문제를 핵심의제로 결정
- 분쟁처리에 관한 전체회의
 - 분쟁의 강제적 해결 수정 초안 축조심의

3. 회의 폐막(1976.9.17.)

- 이번 교섭결과에 대한 각 위원회 위원장 보고 청취
- 제6회기를 1977.5.23.부터 7주간 뉴욕에서 개최하기로 유엔총회에 건의하고, 1976.9.16. 운영위원회 건의사항을 그대로 채택
-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은 동 회기에서 별 진전이 없었음에 유감을 표시하고 각국 정부의 결단을 촉구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5회기. New York, 1976.8.2.-9.17. 전8권 (V.5 회의보고 II: 경과보고)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7 / 5 / 1-165

외무부는 1976.9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제5회기(8.2.~9.17., 뉴욕) 경과에 관해 보고함.

1. 제5회기 목표 및 결과

- 목표
 - 주요 조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타협 달성
 - 조약안의 성안(成案)(수정초안의 통합 및 공식화)
- 결과
 - 상기 목표달성에 실패. 각 위원장의 보고제출에 그침.
 - 주요쟁점의 압축 및 협상의 한계 명시

608

2. 협상기구 및 회의 운영방식

- 협상기구는 각 분과위원회별 협상단, 협의그룹, 소위원회, 작업반 구성 활용과 이해관계 그룹의 단체행동 형태로 비공식 진행
- 회의 운영은 투표를 지향하고 합의(consensus) 달성을 추구, 일괄타결 시도

3. 주요 쟁점별 교섭경과 요약

- 심해저 개발 문제
- 경제수역의 법적지위
- 내륙국·지리적으로 불리한 국가의 해양에서의 접근 및 통과와 자유 문제
- 대륙붕의 범위 및 200마일 초과 대륙붕의 수익납부 및 배분
- 국제해협 통과제도, 경계획정 문제, 해양의 과학적 조사, 분쟁해결

4. 정부대표단 활동

- 해양경계에 관한 33개국 협의그룹의 회원국으로 선임, 활동
- 한국의 국가이익에 관련된 주요 문제에 관해 14회 발언
- 주요 국가의 대표단과 특수 접촉

5. 차기회의 전망

-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 지속
 - 심해저 개발조건의 타결에 따라 협상 급진전 예상
 - 수정초안의 기본골격 유지
 - 수정초안의 통합 및 공식화로 조약안 성안(成案)
- 협상 성립시기
 - 협상 성립여부는 제6회기의 성과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며, 빠르면 1978년으로 예측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5회기. New York, 1976.8.2.-9.17. 전8권 (V.6 회의보고 III: 분쟁해결)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7 / 6 / 1-92

주유엔대표부는 1976.8~9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5회기(8.2.~9.17., 뉴욕)에서의 분쟁해결에 관한 조문안에 대해 수시로 심의내용을 보고함.

1. 회의 경과

- 1976.8.3.부터 분쟁해결 관련 전체회의에서 선진 서방국가, 해양국가, 내륙국 및 지리적 불리국들은 제3자적 분쟁해결제도의 확립을 주장하고, 다수의 후발개발도상 연안 국가들은 분쟁해결제도에 관하여 소극적 입장 견지
-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총회 의장의 초안 규정을 중심으로 1차 축조심익한 후 수정 초안을 참가국들에 배포하기로 결정

2. 주요 쟁점

- 제4조(의견교환)
 - 의견교환이 분쟁해결 이후에도 필요한지 여부
- 제5조(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의 절차)
 - 단서 기술 필요성 여부
- 제6조(조정에 의한 해결)
 - 조정의 강제성 여부, 서방국의 지지에 대해 개도국은 소극적 자세
- 제8조(여타 규정절차 및 특별절차)
 - 재판소 문제 확정시까지 토의연기 여부
- 제9조(절차의 선택)
 - 강제관할권 인정여부, 특별절차 존치여부, 해양재판소 신설여부
- 제10조(관할권의 범위)
 - 특별절차에 의한 항소제도 불필요 주장
- 제12조(중간조치)
 - 재판소의 직접 중간조치 결정권 인정여부
- 부속서 1A(화해)
 - 강제성이 없으므로 부속서에 존치 필요성 의문제기
- 부속서 1B(조정)
 - 조정대상 사전 리스트화에 대부분 호응, 분쟁 당사국의 분쟁지점 출입 시 당사국의 동의여부 등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5회기. New York, 1976.8.2.-9.17. 전8권 (V.7 회의보고 IV: 제1-3 위원회)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7 / 7 / 1-176

외무부는 1976.9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제5회기(8.2.~9.17., 뉴욕) 제1~3위원회 경과를 정리 보고함.

1. 제1위원회

- 심해저 개발 주체와 탐사·개발의 기본조건에 관해 77그룹, 러시아(구 소련) 및 미국의 제안을 중심으로 집중 심의했으나, 의견 불일치
- 금번 회기에서 협상의 기초적인 분위기는 조성되었고, 차기 회의 시 이해관계국간의 집중적인 토의가 계속되어 타결의 실마리가 제공될 전망

610

2. 제2위원회

- 배타적 경제수역, 내륙국 및 지리적 불리국, 대륙붕 문제 우선 토의
- 대륙붕의 외연(外延)까지 연안국의 주권적 권한 인정
- 경제수역의 성격에 관해 선진국의 공해(公海) 일부 주장에 대해 후발개도국의 강력한 반대 존속, 경제수역 내 어업 문제는 연안 개도국의 주장이 대세

3. 제3위원회

-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 보존 문제 중점 토의
- 연안국의 경제수역 및 대륙붕 과학조사 시, 연안국의 동의권(consent regime)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대립
 - 한국은 동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지하며 원칙적으로 동 타협안을 협상의 기초로 하는데 동의
- 해양환경보존은 선박오염, 오염선박 규제, 오염선박의 재판관할권 문제이며, 주로 해운국가의 이익보호를 주장하는 측과 연안국의 이익보호를 주장하는 측 간의 의견대립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5회기. New York, 1976.8.2.-9.17. 전8권 (V.8 회의자료)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7 / 8 / 1-179

1976.8~9월 중 주유엔대표부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5회기(8.2.~9.17., 뉴욕) 각종 회의자료 및 회의 관련 문서를 수시로 보고함.

1. 1976.8월 보고 회의자료

- 의장 서한, 서문 및 최종조항, 전체회의 요약문, 일반이사회 요약문, 유엔 보도자료 등
- 회의자료
 - 국제해저지구 이사회의 구성 등에 관한 미국 제안
 - 제2위원회 협상그룹5 구성국 명단
 - 제2위원회 협상그룹5에서의 한국대표 연설문 등
- 기타 문서
 - 운영위원회, 총회, 제3위원회 관계
 - 1976.9.22.자 뉴욕타임즈 사설

2. 1976.9월 보고 회의자료

- 회의 공식문서
- 기타 회의문서
 - 제1위원회 77그룹 공동제안, 연안국그룹 의장연설문, 대륙붕경계심사위원회에 관한 캐나다 제안, 대륙붕 외연에 관한 일본대표 연설문, 한국대표 연설문 등
 - 제1위원회 소관사항 관련 의장이 작성한 부속서의 제7, 8항에 관한 리스트
 - 제2위원회 협상그룹1,2,3 구성국 명단
 - 9.1.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 뉴욕방문시 보도된 미국의 보도자료
 - 9.2. 뉴욕타임즈 및 Christian Science Monitor 기사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4,5회기 관련 77그룹회의, New York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J-6-107 / 9 / 1-246

1975~76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4회기 및 제5회기를 대비하여 77그룹이 공동입장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짐.

1. 제4회기

- 77그룹 제1분과위원회 실무급회의(1976.1.19.~30.)
 - 한국을 포함한 26개국 대표가 참석
 - 국제해저지구와 관련된 제반 문제(이사회 구성, 권한, 분쟁해결 등)에 대하여 협약 조항별 심의, 협약 문안에 합의
- 해양법회의 위원회별 77그룹 사전 회의(1976.3.2.)
 - 협약 문안 검토
 - 제1위원회 소관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원국 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함.
- 제1위원회 77그룹 실무급 전체회의
 - 1976.4.30.~5.4. 분쟁해결 관련 수정문안에 대하여 협의
 - 1976.5.5. 전체회의에서는 77그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대책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으로 공동의 입장에는 도달하지 못함.
 - 향후 그룹 입장 반영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여 회의 문서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함.

2. 제5회기

- 1976.7.20.부터 유엔해양법회의 제5회기에 대비한 77그룹 회의 개최
- 제1위원회 소관사항인 국제해저지구 관련 협약조항 문안 심의
- 이사회 구성, 권한 등 조항에 대하여 강온파의 대립 지속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법률전문가 그룹회의(Informal Group of Juridical Experts). Geneva, 1976.1.26.-2.7.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7 / 10 / 1-63

1976.1.26.~2.7. 제네바에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법률전문가 그룹회의(Informal Group of Juridical Experts)가 개최되어 정부 대표로 이보형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이 참석함.

1. 회의 개요

- 회의를 주재한 노르웨이 대표 Jens Evensen의 이름을 붙여 통칭 'Evensen 그룹'이라고 불림.
- 서방 해양국가를 중심으로 해양법의 중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56개국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며, 일부 참가자는 동구, 중남미 및 동남아 국가 출신도 포함됨.
- 동 그룹은 1975년도 제네바 회기 중에 특히 경제수역에 관한 단일교섭안의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유엔해양법회의의 최대 압력단체인 77그룹의 활동을 견제하는 기능도 행사함.
 - 기본적으로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기는 하나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
- 해양환경 보존 및 해양 기술조사에 관련된 조항을 포함한 해양법 협약 단일교섭안을 기초로 진행

2. 회의 결과

- 해양 환경 보호 및 보존 문제 관련 조항별 심의, 문안 조정
 - 선박에 의한 오염의 규제 기준, 규제조치의 시행 주체 등 3개 조항
- 해양의 과학적 조사 문제 관련 조항별 심의, 문안 조정
 - 정의, 연안해에서의 과학적 조사,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과학적 조사 등 14개 조항

상품의 국제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법전화 작업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7 / 13 / 1-98

1974~76년 중 국제 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법전화 작업에 관련된 내용임.

1. 국제 물품 매매계약 법전화

- 필요성
 - 국제 거래관계 관행이나 법규의 차이는 국제거래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인식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섭외사법적인 견지에서 통일화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
- 상품의 국제 매매에 관한 법전이 1955년 및 1964년 헤이그에서 각각 채택됨.
 - 그러나 이들 법규가 대다수 신생 독립국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함.
- UNCITRAL(국제상거래법위원회), 1966.12월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창설
 - 1968년부터 매년 1회씩 작업을 위한 회의 개최
 - UNCITRAL,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및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등 기타 관련된 국제기구와 협조,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 진행

2. 경위 및 결과

- AALCC는 1974.11월 한국 정부에 대하여 1975년 말 혹은 1976년 초에 '국제 물품 매매에 적용될 표준계약 양식'에 관한 전문가 회의 개최를 요청
 - 한국 정부는 1976.3월경 회의 개최 용의 표명
- 1975년에 개최된 AALCC 테헤란 회의에서 표준계약서 양식안 3종류를 채택, 1976년에 개최 되는 특별전문가 회의에서 단일화 작업 진행 예정이었으나 연기됨.
- 1976.6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7차 AALCC 총회 직후인 1976.7.6.~9.에 전문가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단일안을 채택

아르헨티나·영국 간의 Falkland 군도 영유권 분쟁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K-6-14 / 2 / 1-26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포클랜드(영국 명칭 Falkland, 아르헨티나 명칭 Malvinas) 군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관련 내용임.

1. 역사적 배경

- 아르헨티나 동남쪽 해안에서 약 500km 떨어진 대서양 소재 포클랜드 제도는 1833.1.3. 이래 영국이 점령하여 영국의 보호령으로 된 후 1970년 비행장 설치 및 통신 시설을 완비하여 영토 공고화를 하여 왔으나, 아르헨티나는 영국의 점유가 불법적이라면서 영유권을 주장하여 분쟁 대상이 됨.
 - 아르헨티나: 동 군도가 아르헨티나 영해에 위치한 부속도서로서 영국 해군이 불법 점령하여 원주민을 축출하고 영국인을 대체 이주시켰으므로 전면적 반환을 주장
 - 영국: 합법적 선취특권에 의해 사실상 취득한 것이며, 거주민 자결권에 따라 계속 주권 보유를 주장하면서 반환에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 동 군도는 대서양의 주요 어장임은 물론 동 군도의 대륙붕에서 해저유전 가능성이 제기되어 분쟁은 정치·군사적인 측면을 넘어 경제적인 측면까지 확장되어 더욱 고조됨.
- 분쟁이 고조되자 1965년 유엔총회는 동 군도는 유엔 정책에 따른 식민지로서 해방되어야 함을 결의하고 양국간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 국제여론의 압력으로 양국은 1965년 이후 반환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협상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함.

2. 새로운 긴장 야기

- 1976.1.3. 영국 정부가 동 도서의 석유 및 어업개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 파견을 발표
 - 아르헨티나 정부는 즉각 영국 정부에 대하여 주아르헨티나 영국대사 소환 요청
 - 업무 협의차 귀국 중인 주영국 아르헨티나대사에게 런던 복귀 보류 명령
- 1976.2.4. 동 제도 인근 수역을 운항 중이던 영국 조사단 선박에 대해 아르헨티나 해군 함정이 위협사격을 가함.

엘살바도르·온두라스 국경분쟁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K-6-14 / 3 / 1-39

1973~76년 중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간의 국경분쟁 관련 내용임.

1. 분쟁 배경

- 양국은 국경선 확정 문제와 엘살바도르 국민들의 온두라스 이민 등으로 상충하던 중 1969.7월 양국간의 축구 경기에서의 불상사가 도화선이 되어 5일간의 전쟁을 벌이고 국교를 단절함.
- 그러나 중미국가들의 주선으로 갈등 요인 중의 하나인 국경선 확정 문제에 대하여 양국은 1970년 San Jose협정을 근거로 국경 지대의 비무장화 및 경계지역 설정에 합의함으로써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게 됨.

2. 중미지역국가들의 중재 노력

- 1973.9월 이래 멕시코의 주선으로 양국은 외무장관회담을 개최
 - 국교 정상화, 중미 공동시장 문제 등 협의
 - 국경선 문제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함.
 - 12월 국교 정상화회담은 결렬되고, 온두라스 외무장관은 국경선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의사를 표명
- 1974.4월 국경지대에서 양국 군대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양국은 군대를 다시 국경선에 대량 배치함에 따라 긴장이 고조됨.
-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 정부가 문제 해결 주선에 나서고, 양국 국경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중미 5개국 외무장관회담과 참모총장회담이 1976.7월 과테말라에서 개최됨.
 - 동 회의 결과 7.29. 밤 양국은 휴전에 합의
 - 미주기구 감시단이 도착할 때까지 양국에 주재하는 과테말라, 니카라과대사관의 무관 및 코스타리카 대표로 구성된 각 위원회가 휴전을 감시

터키-그리스 간 Aegean Sea(에게해) 대륙붕 및 영공 분쟁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조약 / 구주2

MF번호 K-6-14 / 4 / 1-159

그리스와 터키 간의 에게해(Aegean Sea)를 둘러싼 대륙붕 및 영공 분쟁 관련 내용임.

1. 그리스와 터키의 영유권 주장

- 그리스는 모든 도서는 육지와 같은 지위를 갖고, 양국간의 경계 확정에는 엄격한 중간선 원칙이 적용되어야하며, 에게해는 그리스의 내해이고, 도서 자체의 대륙붕을 가진다는 입장
- 터키는 자연연장론에 의거하여 에게해 해저가 아나톨리아 반도에 연속되는 터키의 대륙붕이라는 입장
 - 12해리 영해의 자동 적용을 반대하면서 폐쇄 또는 반폐쇄 상태인 에게해의 경우에는 관계국의 합의에 의하여 영해를 결정하여야 함.

2. 경과

- 에게해 해저에 막대한 석유 매장 가능성이 제기되어 터키 정부는 1976.7.26. 해저 석유탐사 개시 입장 발표
- 그리스는 탐사선 격침 가능성을 제기하며 터키의 석유탐사를 극렬하게 반대하여 1974년 사이프러스 분쟁 이후 양국간 긴장 고조
- 그리스는 1976.8.10. 터키 탐사선의 탐색활동을 중지시키기 위해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터키 탐사활동의 잠정 중지를 요청하는 소를 제기
 - 유엔 안보리는 8.26. '당사국간의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국제사법재판소는 9.11. 그리스 측의 탐사활동 잠정 중지 요청 거부
- 양국은 1976.11.2.~19. 스위스 베른에서 실무회의를 개최, 절차 사항에 합의하고 에게해 해상에서 도발적인 행위를 상호 자제할 것을 약속
- 한편, 1974.7월 사이프러스 분쟁으로 민간 항공기의 에게해 상공 비행이 중단된 이래, 양국 공군 기지간의 전술 직통전화 개설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전반적인 항공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아이슬란드·영국 어업수역 분쟁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K-6-14 / 5 / 1-110

1974~76년 중 아이슬란드와 영국 간의 어업수역 분쟁 관련 내용임.

1. 경위

- 영국, 독일과 네덜란드의 고성능 어선들이 아이슬란드 어장에서 대구를 대량 어획하자, 아이슬란드 정부는 어족 보존 및 어업 보호를 위해 독일·네덜란드와 어획량을 조정함.
- 1973.2월 아이슬란드 정부가 어업수역을 12마일에서 50마일로 확장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1973.11월 어업협정이 잠정 체결됨에 따라 일단 수습되어 영국은 아이슬란드 수역에서 연간 13만 톤의 대구를 어획함.
- 1975.10.15. 아이슬란드 정부는 어업수역을 200마일로 확장한 데 이어 동 수역에서 외국 어선의 어로 금지를 선포하고 영국 어선에 대하여 실력행사를 함에 따라 영국은 군함을 파견함.
- 1975.12.11. 및 1976.1월 영국 군함과 아이슬란드 순찰함 간에 충돌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됨.

2. 분쟁 해결 노력 및 결과

- 아이슬란드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서 대소련 방어상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여 NATO가 영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노력한바, NATO 사무총장은 양국간 어업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섬.
- NATO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아이슬란드 정부는 1976.2.19. 영국과의 국교 단절을 공식 발표함.

케냐·우간다 분쟁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K-6-14 / 6 / 1-68

1976년 중 케냐와 우간다 간의 분쟁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76.1.25. 이디 아민 우간다 대통령이 혁명 5주년 기념식에서 우간다 접경, 케냐의 북서지역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여 양국간 긴장이 고조됨.
- 우간다 정부는 1976.7.4. 발생한 이스라엘 특공대의 우간다 엔테베 공항 인질 구출을 위한 기습 사건에 케냐가 관여하였다고 맹비난하면서 관계는 더욱 악화됨.
 - 우간다 정부는 접경지역 군 비상령을 내리고 우간다 거주 케냐인들에 대한 대량 살해 보복을 가함.
- 1976.7.9. 케냐 정부는 자국 영토 통과 우간다행 화물 수송에 대한 수송비 외상 지불을 거부 함으로써 사실상 무역제제를 가하였으며, 우간다는 연료난으로 휘발유 배급제를 실시하는 등 극심한 경제난에 봉착함.
- 우간다는 국경 지대에 대규모 군대를 집결하고,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로부터 전투기 30대를 무상 제공 받았음을 시사하는 등 케냐에 대한 군사행동을 암시하였으나, 양국간 군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음.
- 우간다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한 케냐에 대하여 미국과 영국은 군수품 공급 등 지원을 제공함.

2. 긴장 해소 노력

- 1976.8.4. 양국간 긴장 해소 및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고위 우간다 사절단이 케냐 나이로비에 도착, 케냐 대표단과 회담함.
- 1976.8.6. 양국 대표는 분쟁 종식, 우호관계 회복 및 양국 국경으로부터의 전군 철수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중동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동 평화협상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K-6-14 / 7 / 1-15

중동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동 평화협상과 관련하여 중동지역 각 공관의 1976년 중 보고 내용임.

1. 아랍정상회의의 개최 계획(1976.2.14.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 보고)

- 아랍정상회의가 1976.4.19. 소말리아에서 개최될 예정
 - 아랍권 내부 분쟁 및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위한 조치 등 논의
- 리야드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아랍국들이 소말리아가 친공(親共)국가라는 이유로 동 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있어 소말리아 개최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문의 중

2. 요르단강 서안(西岸) 철수 대가설 부인(1976.2.29. 주요요르단대사 보고)

- Rifai 요르단 총리는 1976.2.26. 요르단과 시리아가 이스라엘 측이 요르단강 서안과 골란고원으로 부터 철수하는 대가로 현 전투상태를 종식할 의사가 있다고 한 외신보도를 부인
 - 이스라엘이 아랍 점령지 전체로부터 철수해야 한다는 시리아와 요르단의 공동노선을 방해 하려는 조작된 보도

3. 요르단 국왕 미국 방문(1976.3.29. 및 4.3. 주요요르단대사 보고)

- 후세인 국왕은 미국 방문에 앞서 1976.3.26. 시리아를 방문, 시리아 대통령과 긴급 회담하고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시리아에 전달
- 후세인 국왕이 3.27. TV방송 담화를 통하여 중동 평화를 위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국 방문시 이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
- 동 국왕은 3.28.~4.7. 방미 중, 중동 평화 달성은 미국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며, 특히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

4. 주요 정세보고(1976.12.18. 주요요르단대사 보고)

- 후세인 요르단 국왕은 최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977년에는 중동 문제의 해결을 지향한 긍정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 피력
 - 최근의 중동 정세의 전반적인 추이와 아랍세계의 동향이 적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 이러한 발전은 미국의 신행정부 발족, 대통령 선거로부터의 압력해소, 아랍 문제에 관한 미국 내의 이해 증가 등에 힘입고 있음.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해양법 소위원회 회의. New Delhi(인도), 1976.2.2.-6.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K-6-14 / 8 / 1-194

정부는 1976.2.2.~6.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해양법 소위원회 회의에 이원호 주인도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회의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4회기(1976.3.15.~5.7., 뉴욕)에 대비하여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의 해양법 전문가들이 사전 회동하여 해양법에 관한 각국의 입장 및 의견을 조정하는 회의이며, 동 회의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해양에 관한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함.

2. 훈령

- 기본적 고려사항
 - 서해5도의 지위를 포함한 해상안보, 주변해역 자원 일반에 대한 한국의 기존권익, 원양어업상의 기존권익, 원자재 공급로 확보 및 해운의 보호발전
- 기타 안보문제, 대륙붕, 원양어업, 국제해협제도, 해운 등 개별 문제는 구체적 지침에 따라 활동
- 주변국의 입장 관찰과 북한 활동 견제

3. 참가국

- 19개 회원국 43명 참석
- 북한 불참

4. 주요 의제

- 해양법에 관한 단일교섭안을 기초로 해양법 각 위원회별 소관사항을 중심으로 토의
 - 국제해저, 영해 및 접속수역, 국제해협, 경제수역 제도, 대륙붕, 내륙국, 군도수역, 도서제도, 폐쇄해 및 반폐쇄해 등

5. 회의 결과

- 일본: 대륙붕의 범위를 경제수역과 동일한 200마일로 단순화 할 것을 주장
- 한국: 경제수역 개념과 대륙붕 제도는 역사적 배경 등이 다름을 지적하고, 대륙붕 제도는 경제수역 제도와 독립적 개념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육지영토의 자연연장 개념과 경제수역 개념(200마일)을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 차기 회원국 간 해양법 토의는 제17차 AALCC 총회 해양법 소위원회(1976.6.28. 쿠알라룸푸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사무국 훈련생 파견

생산연도 1970

생 산 과 조약

MF번호 K-6-14 / 9 / 1-17

1970.8월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의 국제법 관계 훈련생 파견 요청과 관련된 내용임.

1. AALCC는 1970.8월 국제법 관계 훈련생 파견을 요청함.

- Sen AALCC 사무국장은 동 위원회 사무국에서 3~6개월 간 국제법 연구 및 문제해결 방법을 훈련받는 장학생 파견을 요청
- 주뉴델리총영사는 변화하는 국제법 발전과정을 직접 습득할 수 있고, 한국의 입장에서 동 위원회 사무국 내 거점 마련의 기회가 되므로 유능한 외교관의 파견을 건의

2. 외무부는 1970.11.14. AALCC 훈련생 파견을 결정함.

- 한국은 훈련생 파견으로 1971.1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되는 제12차 AALCC 총회에서 정부대표단의 활동 보조에 큰 도움을 얻을 것으로 판단

3. 외무부는 1970.11.17. 주뉴델리총영사에게 아래 사항을 AALCC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지시

- 김석우 조약과 사무관을 1970.12.1.~71.2.28. 3개월간 AALCC 훈련생으로 파견하기로 결정 하고, 동인의 파견에 필요한 조치 중

각국의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가입 신청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K-6-14 / 10 / 1-40

1976년 중 각국의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가입 신청에 관한 내용임.

1. 아랍에미리트연합국

- AALCC 사무국은 1976.10.12.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AALCC 회원국 가입 신청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의견 문의
- 외무부는 11.6. 주인도대사에게 아랍에미리트의 AALCC 가입에 찬성함을 사무국에 적의 통보 하도록 훈령

2. 카타르

- AALCC 사무국은 1976.1.3. 카타르의 동 위원회 정회원국 가입 신청 통보
- 외무부는 1.20. 주인도대사에게 카타르의 가입 신청을 지지하니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훈령
- 동 사무국은 2.2. 카타르의 AALCC 정회원 가입을 통보

3. 오만

- AALCC 사무국은 1976.1.11. 오만의 동 위원회 정회원국 가입 신청 통보
- 외무부 방교국은 1.30. 아중동국에 오만의 AALCC 정회원국 가입에 이의 없음을 통보

4. 리비아 및 예멘(구 북예멘)

- AALCC 사무국은 1976.6.8. 리비아의 AALCC 정회원국 가입 신청 통보
 - 리비아는 1969년부터 옵서버로 참가하고, 정회원국 가입자격 획득
- AALCC 사무국은 6.15. 예멘의 AALCC 정회원국 가입 신청 통보
- 외무부 방교국은 6.21. 아중동국에 상기 리비아 및 예멘의 AALCC 가입에 대한 의견 회보 요청
 - 동 가입 문제는 제17차 AALCC 총회(1976.6.28.~7.5., 쿠알라룸푸르)에서 결정될 예정

5. 소말리아

- AALCC 사무국은 1976.6.28. 소말리아의 AALCC 정회원국 가입 신청 통보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17차. Kuala Lumpur, 1976.6.28.-7.5.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K-6-14 / 11 / 1-124

정부는 1976.6.28.~7.5.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17차 AALCC(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 총회에 전상진 주말레이시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잠정 의제

- 회의 조직
 - 의제채택, 임원선출, 옵서버 승인, 사무총장의 보고서 심의, 제18차 총회 개최일자, 기타
- 조약에 관한 국가계승문제
- 해양법, 환경법, 영토적 비호, 국제상사중재법, 국제해운법

2. 기본 훈령

- 북한은 1976.8월 콜롬비 동맹 정상회의와 제31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제17차 AALCC 총회를 그들의 정치선전장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북한의 책동을 견제하고 한국을 중상, 비방하는 경우 단호히 반박
- 비동맹 중립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시책에 부응하여 한국의 평화외교정책을 그들에게 역설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수 있도록 활동
- 개발도상국가의 단결된 힘이 국제법 발전의 최근 추세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특정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국익에 배치되거나 특정 국가를 자극하지 않는 한 개발도상국의 일반적 입장에 동조하는 태도 견지

3. 세부 훈령

- 제19차 또는 제20차 총회를 한국에서 주최할 수 있도록 관련 문제점에 관해 교섭
- 규정 개정 문제
 - 1972년 제13차 총회 시 채택한 개정안에 찬성
- 신규 회원 가입 문제
 -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지역국 가입지지, 단 다수 회원국 반대 시 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한 문호개방 입장 표시
 - 리비아, 예멘 등 가입신청 묵시적 동의표시
- 해양법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4회기 정부대표단 훈령에 따라 입장 표시
- 영토적 비호에 관한 협약안
 - 아프리카 국가의 입장지지, 범세계적인 협약채택 필요성 역설



- 조약에 관한 국제계승에 관한 협약안
 - 여타 회원국의 태도 면밀히 주시, 향후 참고
- 환경법, 국제상사중재, 국제해운에 관한 입법 문제
 - 회원국의 입장을 조사, 정부정책 수립에 기여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17차. Kuala Lumpur, 1976.6.28.-7.5.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K-6-14 / 12 / 1-321

정부는 1976.6.28.~7.5.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7차 AALCC(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 총회에 전상진 주말레이시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현황

- 30개 회원국, 22개 옵서버국, 5개 국제기구 대표 약 120명 참석
- 북한은 정성문 주말레이시아 대사 등 대표단 참가

2. 주요 의제 및 내용

- 해양법(유엔해양법회의 제5회기에 대비, 심해저 자원개발 문제를 중점토의)
 - 일본, 미국(옵서버) 등 선진국과 가나, 파키스탄 등 후발개도국 간 대립 노정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는 말라카해협 통항 문제 및 오염방지 문제를 중점 언급
- 영토적 비호(1977.1월 협약채택을 위한 전권대표회의 대비)
 - 아프리카 국가는 예민한 반응, 아시아 국가는 소극적 태도
 - 태국 및 인도네시아 대표는 인도차이나 사태 후 자국에 피신하는 피난민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을 표명
- 상사중재법
 - 1976.4.28. 채택된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검토
 - 중재규칙이 국내법 또는 공공정책과 저촉될 경우 동 규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정부기관이 당사자인 경우, 주권면제의 원칙 적용 배제를 위한 방안 검토

3. 북한 동향

- 해양법회의에만 참석하여 한국의 해양자원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비난

4. 정부대표단 활동

- 북한의 정치적 발언을 비판하고, 한·일본 간의 어업협정 및 대륙붕협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설명하여 많은 회원국의 지지 획득
- 호주, 뉴질랜드 등의 가입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가입을 적극 반대하는 가나 입장이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가입 지지 입장표명 유보



-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역내 비동맹국 대표와의 친선도모를 위한 외교적 활동 전개, 호의적 반응 획득
- 제20차 총회(1979.2월, 서울) 초청

5. 건의

- 제20차 AALCC 총회를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준비
- 제18차 총회(바그다드)에서 일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정치적 책동에 대비

채규대 재미한국인 핀란드 주재 북한 대사관 망명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K-6-14 / 13 / 1-16

1. 국내 관계기관의 통보에 따르면, 한국 국적 채규대(1935.10.3. 출생, 1968.6.27. 현대건설 사원으로 베트남에 취업차 출국)가 1976.11.23. 핀란드에 입국 기도하다가 무효여권 소지 관계로 관계당국에 조사받던 중 행방을 감추고, 11.30. 주핀란드 북한대사관에 들어가 정치망명을 요구 중이며, 북한대사관은 동 사실을 핀란드 정부에 통보하였다고 함.
2. 외무부는 1976.12.2. 주핀란드대사에게 가능한 경로를 통해 동인의 정치망명 요청 동기 등 사건 진상을 파악하고 동인의 신병인도 가능성 등 지급 보고하도록 훈령함.
3. 주핀란드대사는 1976.12.3. 외무부에 상기 관련 보고함.
 - 동 대사는 J. Iloniemi 핀란드 외무부 정무국장을 방문하여 상기 사실 설명 및 협조요청한바, Iloniemi 국장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채규대는 11.29. 모스크바행 기차편으로 출국하여 현재는 핀란드에 부재
 - 동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고 대기 중 주핀란드 북한대사관으로 들어갔으며(경로는 일체 설명하지 않음), 그 후 주핀란드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망명요청 사실을 통보받아 핀란드 정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회보
 - 핀란드는 동인의 출국에 안전통행증 등 기타 어떠한 편의 제공도 없었으며, 핀란드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나라이므로 동 사건에 관심 없음을 언급
 - 앞으로는 남북한관계의 예민성에 비추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경찰에도 지시해 놓겠다고 약속
4. 외무부는 1976.12.6. 주핀란드대사에게 추가 훈령함.
 - 동인이 한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당국이 한국 정부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또한 동인의 정치망명 의사를 확인할 접촉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북한으로 갑작스럽게 출국을 허용한 사실에 대해 유감 표명
5. 주핀란드대사는 1976.12.9. 추가 보고함.
 - 12.8. 핀란드 외무부 Iloniemi 정무국장은 주핀란드대사의 유감 표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
 - 핀란드는 누구든지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하며, 동 원칙을 채규대에게도 적용한 것이나, 향후 남북한관계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망명희망자의 자유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
 - 핀란드 외무부는 동 건을 비밀리에 취급하고 언론에도 발표되지 않도록 노력 중
 - 채규대는 11.24. 항공편으로 입국하여 동일 주핀란드 북한대사관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11.29. 모스크바행 열차편으로 출국

한·러시아(구 소련) 문화교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3

MF번호 L-6-14 / 2 / 1-25

1976년 중 한·러시아(구 소련) 간의 문화교류에 관한 내용임.

1. 최선규 일본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은 1975.12.24.~1976.1.21. 일본을 방문하고, 2.11. 외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함.

- 주요 내용
 - 일본은 대러시아 증오감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1959년부터 소련 발레단 초청 등 문화교류 사업을 전개
 - 이를 기초로 무역 등 국가이익 확대발전을 위해 노력 중
 - 국가 간 성격 상이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통한 민족문화교류의 필요성에 유의
 - 한국의 대러시아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일본 측 인사에게 협조요청과 긍정적 반응 획득
 - 주일본 러시아대사관에 러시아발레단의 한국공연과 한국공연단의 러시아공연 등 계획을 전달
- 대정부 건의사항
 - 동 문화교류 추진을 위해 일본문제연구소를 대외문화교류연구소로 변경하는 데 대한 사전 양해
 - 추후 방일 시 사전 여권발급 등 협조
- 향후 계획
 - 1976.5월까지 대일본 및 대공산권에 대한 한국 홍보 특별계획서 제출

2. 주태국대사는 태국에서 개최중인 제11차 불교대회에 참석한 한국대표단 중 이해성 스님이 1976.2.23. 러시아대표단과 양국간 인사교류 문제를 논의한 내용을 2.24. 외무부에 보고함.

- 러시아 측은 한국 측에서 초청한다면 방한하겠다고 언급
- 동 스님은 귀국 후 러시아 대표단장인 J. Gomboyev 러시아 불교중앙본부 회장에게 방한 초청장을 발송할 계획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행사

생산연도 1971-1976

생 산 과 문화교류 / 북미1 / 통상2

MF번호 2007-48 / 18 / 1-308

1971~76년 중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행사(1976.7.4.)에 관한 내용임.

1. 주미국대사는 1971.12.21. 미국 국무장관이 1976년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면서 동 행사 준비위원회 자료를 송부하였음을 보고함.
2.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3.7.4. 외무부 앞 서한으로 동 행사에 한국민의 참가를 초청함.
 - 미국 대통령과 국민은 이 기회에 양국 국민의 상호교류 증진을 희망
 - 국내외 미국 관리 및 공사(公私) 단체들은 동 목적을 추구하는 외국기관 및 개인에 대해 최대한 협조예정
3. 한국 정부는 1974.7월 동 행사 중 Pacific21 이사회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참가하기로 결정 하였으나, 1975.8.22. Pacific21 이사회 측이 동 행사의 취소를 발표함에 따라 1976.1월 동 행사의 일환으로 '우정의 종'을 로스앤젤레스시에 기증하기로 결정함.
4.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우정의 종' 기증식이 1976.10.3. 거행되었다고 보고함.
 - 한병기 주미국대사는 축하에서 한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우정으로 전달하는 선물이며, 한국전쟁에서 받은 도움과 그 전후를 통한 미국의 지원에 감사한다고 언급
 - 포드 미국 대통령을 대리한 K. Williams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위원회 위원은 깊은 존경과 국제주의 정신이 담긴 선물이며, 대서양시대는 가고 태평양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선물이라고 강조

외국과의 자매도시 결연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1 / 구주1 / 동북아1

MF번호 L-6-14 / 1 / 1-107

1975~76년 중 각국과의 자매도시 결연에 관한 내용임.

1. 마산시-코스타리카 산호세시

- 주코스타리카대사는 1976.1.21. 산호세시 당국에 마산시 자매결연 선언문을 전달
 - 산호세시 당국은 마산시의 친절과 우호 및 호의에 심심한 사의를 표명
 - 산호세시 의회는 동일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마산시와의 자매결연 성립에 관한 결의문을 최종 의결

2. 서울시-미국 샌프란시스코시

- J. Alioto 샌프란시스코시장은 1975.6.2. 구자춘 서울시장에게 양 도시 간 자매결연 제의서한 발송
 - 1975.12.15. 샌프란시스코시 감독위원회는 상기 자매결연을 최종 확정
 - 1976.2.28. 자매결연서 서울시에 통보
- 1976.5.18. 서울에서 자매도시 결연 체결 조인식 거행
 - 동 자매결연으로 양 국민의 상호이해 도모 및 활발한 협력증진에 기여
 - 자매결연을 통한 한국 발전상 소개, 친한 인사의 저변확대 및 시장개척에 큰 효과
 - 샌프란시스코 한국교포의 한국민으로서의 긍지 및 교포 권익보호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3. 부산시-일본 시모노세키시

- 1976.6.7. 시모노세키지구 우호방한단이 부산시장에게 자매결연 요청
- 1976.8.9. 시모노세키 시의회에서 자매도시 제휴안 의결
- 1976.10.11. 양 시장 간에 자매결연 조인식 거행
 - 이가와 시모노세키시장은 박영수 부산시장 등에게 시모노세키 명예시민증 수여

4. 강원도 횡성군-네덜란드 Oud Gastel시

- 주네덜란드대사는 1976.5.3. 한·네덜란드 간 우호증진을 위해 네덜란드군 참전비 소재지인 강원도 횡성군과 한국전 참전군 부대장의 고향인 Oud Gastel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 중임을 보고
 - Oud Gastel시 의회는 1976.8.25. 횡성군과의 자매결연 관계수립을 정식 의결
 - 기념일은 네덜란드의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일 점령 해방기념일인 10.30.로 선정
- 1976.11.12. 동 자매결연 기념식이 Oud Gastel시에서 개최
 - 대대적인 한국 소개행사 거행
 - 주네덜란드대사는 횡성군을 대표하여 Andriessen 시장 및 고 Ouden 중령 미망인에게 기념품을 증정함.

Thayeb, Sjarif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장관 방한, 1976.2.2.-7.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L-6-14 / 3 / 1-104

Sjarif Thayeb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장관은 1976.2.2.~7. 한국을 공식 방문함.

1. 방한 경위 및 목적

● 방한 경위

- 1974.8월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광복절 리셉션 시, Thayeb 장관은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방한 초청을 언급하면서 방한 의사를 표명
-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74.12.13. 동 장관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 방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1974년 중 방한을 희망하나, 국내 사정상 어려울 경우 1975.1월 하순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동남아 문교부장관회의 참석 후 방한을 희망한다고 보고
- 외무부는 1975.1.16. 주인도네시아대사에게 외무부장관의 공관장회의 개최 및 외국여행 가능성 등 일정상 Thayeb 장관의 방문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추후 적절한 시기로 방한 일정을 조정하도록 훈령함.

● 방한 목적

- 유네스코에서 한국교육제도 시찰을 권유한 사실을 밝히면서, 한국의 산학협동, 체육 및 기술교육에 깊은 관심 표명
- 공산주의와 싸우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방한 중 반공연맹 방문을 희망

2.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문공부장관 및 국회 부의장 예방
- 부산, 울산, 경주, 대구 등 시찰 및 관광

언론인단 일본 방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L-6-14 / 4 / 1-48

한국 언론인단은 1976년 일본 정부의 외국 언론인 초청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을 방문함.

1. 제1차 방일(1976.2.12.~26.)

- 9명(7개 일간지 및 2개 통신사 사회부장)
- 주요 일정
 - 외무성 브리핑, 자민당, 민사당, NHK, 동경도청, 경시청 등 방문
 - 오사카, 교토, 나라, 나가사키 등 시찰

2. 제2차 방일(1976.3.22.~4.3.)

- 9명(7개 일간지 및 2개 영자지 정치부장 및 기자)

3. 제3차 방일(1976.6.21.~7.4.)

- 14명(9개 일간지, 2개 통신사 경제부장, 사회부 차장 등)
- 주요 일정
 - 외무성 브리핑, 자민당, 사회당, 공명당, NHK, 국회의사당 등 방문
 - 오사카, 교토, 나라, 히로시마 등 시찰

4. 제4차 방일(1976.9.9.~22.)

- 8명(4개 일간지, 2개 영자지, 2개 통신사 정치부 차장 등)

미국 Hawaii 대학 한국학연구소 건립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문화교류

MF번호 L-6-14 / 5 / 1-11

1976년 중 미국 하와이대학의 한국학연구소 설립에 관한 보고 내용임.

1. 주호놀루루총영사는 1976.8.9.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 건립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하와이대학 내 한국학연구소 건립추진 현황
 - 1972년 대학 당국이 대지 제공, 한국 정부가 총 경비 45만 달러 중 20만 달러를 보조하고 여타 경비는 현지에서 모금하여 충당
 - 1974.8월 착공되어 그간 물가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당초보다 2배인 약 88만 달러로 증가
 - 실제로는 건축자재의 계속적 가격 상승으로 1976.8월 현재 약 109만 달러로 산정
 - 현재 건물의 외부공사는 완료되고 정원 및 내부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를 완공하는데 추가로 약 23만 달러 필요
 - 정부보조금 등 한국으로부터 제공된 60만 달러와 기부금 약 37만 달러를 공제하면 11만 5천 달러 적자에 추가자금 23만 달러를 합산하여 총 34만 5천 달러 필요
- 공사 추진상황
 - 당초 1976.2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으로부터의 반입자재가 체화되고 또한 11~2월간 우기로 강우량이 많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건물 외부공사 지체

2. 주호놀루루총영사는 1976.10.19. 개최된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 건립을 위한 모금위원회 결과를 보고함.

- 모금위원회 결정사항
 - 추가로 약 38만 달러가 필요하며 모금 완료까지의 물가상승과 은행이자 등을 고려하여 우선 모금목표를 40만 달러로 잡고 모금운동 전개
 - 모금 만찬,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추가모금 호소, 주 의회에 대한 예산책정 요청, 연방정부의 지원요청 등 각종 모금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앞으로 6개월간 모금운동 전개
 - 목표액 달성이 안 될 경우 다시 대책을 강구하고, 한국 정부에 호소하는 방안도 검토

미국 대학의 한국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북미담당관

MF번호 L-6-14 / 6 / 1-62

1974~76년 중 미국 대학의 한국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내용임.

1. 미주리대학

- 주미국대사는 1975.8.7. 미주리대학 한국문제연구센터 설립계획서 검토 회시 요청
- 외무부는 8.13. 문교부에 상기 계획서 검토 및 지원 가능 여부 문의
- 외무부는 9.15. 주미국대사에게 문교부의 예산형편상 동 센터 설립을 위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회신

2. 펜실베이니아대학

- 1974.12월 외무부장관의 동 대학 방문 시, 이정식 펜실베이니아대학 박사 측은 동 대학의 한국학 연구를 위한 정부지원을 희망
 -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미국 내에서의 한국학 연구 발전의 긴요함을 강조
 - 동 대학 동양학과에서 한국의 언어, 역사 및 문화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요원확보와 한국 관계 자료 및 도서비치 필요
- 외무부는 1975.2.19. 주미국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본부의 예산사정상 지원 곤란
 - 주미국대사관에 배정된 교민 육성비 중 연구비 일부 지원방안 검토

3. 웨스턴미시간대학

- 주미국대사는 1976.11.24. 웨스턴미시간대학 부설 한국학연구센터 보조금으로 1만 5천 달러 교부 내용을 보고함.
- 주미국대사는 12.3. 웨스턴미시간대학 한국학연구센터 추가사업 계획서 송부
 - 한국 전통에 관한 자료 발간(1980년 말 목표)
 - 약 3만 달러 소요 예상

Blamo, J. Bernard 라이베리아 Liberia대학 총장 방한, 1976.7.15.-20.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L-6-14 / 7 / 1-53

J. Bernard Blamo 라이베리아 Liberia대학 총장은 1976.7.15.~20. 한국을 공식 방문함.

1. 방한 배경

- 주라이베리아대사는 1976.4.15. 라이베리아 유일의 종합대학인 Liberia대학이 주재국 정부와의 협의 하에 대학 확장 10개년 계획을 추진 중임을 보고함.
 - 동 대학의 Blamo 총장은 3.9. 주라이베리아대사를 방문하여 동 확장 계획을 설명하고 한국이 동 계획에 대한 주요 협조 가능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협조를 비공식 요청
- 라이베리아 정부의 공식적 지원요청에 대비 필요

2. 방한 경위

- Blamo 총장은 1976.6.1. 서한으로 세계대학총장회의 회장인 조영식 경희대학교 박사의 초청으로 동 집행위원회(7.16~19., 일본) 참석 후 7.21.~25. 방한할 예정임을 주라이베리아대사에게 통보함.

3. 주요 일정

- 문교부장관, 서울시장, 외무부차관 면담
- 울산 및 부산 시찰, 경주 관광

4. 1976.7.19. 동 총장 면담 시 외무부차관의 대응

- Liberia대학 확장 계획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요청에 대해 외무부 자체 예산으로는 현재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음.

이슬람교 한국 중앙성원 준공, 1976.5.21.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L-6-14 / 8 / 1-128

1. 문화공보부 허가단체인 한국이슬람교 중앙연합회는 1976.3월 외무부에 이슬람교 한국 중앙성원 준공식 개최 계획을 통보함.

- 이슬람교 한국 중앙성원 준공식을 5.21. 서울에서 거행할 예정
- 정부의 대중동 진출정책에 부응한 초청외교, 홍보외교 면에서의 성과 증진 목적
- 동 행사에 세계 각국 이슬람교 지도자(33개국 167명)를 방한 초청 예정

2. 외무부는 1976.4.9. 주터키대사 등 공관에 한국 이슬람교 중앙성원 준공식 관련 아래와 같이 훈령함.

- 한국이슬람교 중앙연합회는 외무부에 중앙성원 준공식 행사 초청대상자에 대한 초청장 송부 협조 요청
- 한국의 이슬람교 국가들과의 관계증진 및 개선을 위해 상기 행사가 성공적으로 거행되도록 협조 조치
 - 초청장 전달 및 피초청인이 상기 행사에 참석하도록 비공식 접촉 권유
 - 피초청인 참석 시 입국사증 발급 등 편의제공
- 아울러 종교장관 이상의 각료급 인사가 방한할 경우 상세 보고

3. 이슬람교 한국 중앙성원 준공식 관련 이슬람권 국가의 다수 인사가 1976.5.21.~26. 방한함.

- 참가국 및 인원
 - 브루나이 문교장관 등 20개국 47명 참가
-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문공부장관, 건설부장관 예방
 - 동 준공식 참석, 내외신 기자회견
 - 판문점 및 산업시찰

동구권 개최 비구기 종목 경기대회 참가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구주3

MF번호 L-6-14 / 9 / 1-44

1974~76년 중 동구권에서 개최된 체조 및 펜싱 대회에 한국 선수단이 참가함.

1. 제18회 세계체조선수권대회(1974.10.20.~27., 불가리아 Varna)

- 참가 경위
 - 테헤란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한 한국체조협회장이 세계연맹회장에게 서면으로 불가리아 대회에 한국의 참가와 관련한 신변 및 입국사증 보장을 요청
 - 1974.7.20. 불가리아 측은 임시 총회에서 전 참가국에게 입국사증을 부여하겠다고 수락
 - 한국은 8.14. 참가 최종등록, 9.29. 참가자 명단통보
- 동 선수권대회에는 한국 등 세계 32개국이 참가
 - 한국 총 12명 참가

2. 제27회 세계청소년펜싱선수권대회(1976.4.16.~19., 폴란드 Poznan)

- 참가 경위
 - 1975.12.20. 대회 조직위원회 초청장 접수
 - 1976.1.27. 국제연맹에 참가의사 통보
 - 국제펜싱연맹과 대회 조직위원회에 입국사증 발급 수차 협조요청
 - 1976.4.7. 입국사증 획득
- 한국 대표단
 - 김운용 대한체육회 부회장 등 임원, 선수 총 8명 참가
- 참가 의의
 - 비동맹국과의 스포츠 교류 강화정책에 따른 제1차 연도 첫 번째 동구권과의 교류

태권도 및 유도 사범 바레인 파견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L-6-14 / 10 / 1-50

1975~76년 중 태권도 및 유도 사범의 바레인 파견에 관한 내용임.

1. 주영국대사는 1975.6.27. 태권도 및 유도 사범 파견 관련 보고함.

- 주영국 바레인대사관은 바레인 군(軍)에서 사관생도들의 훈련을 위해 한국으로부터 태권도 및 유도 사범의 고용을 희망
 - 한국의 자격 있는 사범 명단과 고용조건 등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공한 송부
- 바레인 측은 한국 측에서 제시하는 고용조건을 검토를 희망

2. 외무부는 1975.6.28. 관계부처에 태권도 및 유도 사범 송출 관련 아래 통보함.

- 정부는 바레인과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에 비추어 바레인에 대한 한국의 태권도 및 유도 사범 송출은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
 -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후보 선정 후, 동 명단과 고용조건 등을 지급 통보요망

3. 외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후, 동 태권도 및 유도 사범 파견을 추진함.

- 태권도 사범 1명, 유도 사범 1명을 파견
- 주바레인대사는 1976.7.15. K. Al Khalifa 바레인 국방부 참모총장을 방문하여 태권도 사범을 소개
 - 동 참모총장은 한국 태권도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데 대해, 주 바레인대사는 사범의 파견이 양국간 문화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만족의 뜻을 표명
- 태권도 사범은 1976.7.15. 오후 국방부장관 예방 예정

태권도 사범 쿠웨이트 파견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L-6-14 / 11 / 1-8

1. 주이란대사는 1976.8.19. 태권도 사범 쿠웨이트 파견 관련 보고함.

- A. Al Sarah 주이란 쿠웨이트대사는 8.18. 주이란대사에게 최단 시일 내 한국인 태권도 사범 파견 협조를 요청함.
 - 쿠웨이트 왕실 신변보호를 위해 경호대원 훈련을 위한 한국인 태권도 교관 파견
 - 봉급 등 대우조건 및 계약기간 등은 한국 측이 제시
- 한국 측에서 지체 없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긴요할 것으로 판단
 - 우수한 교관 2명을 물색하여 봉급 등 처우조건과 계약 희망기간(1~2년) 등 지급 회보 요망

640

2. 외무부는 1976.8.30. 주이란대사에게 동 태권도 교관 쿠웨이트 파견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조속 처리 예정임을 통보함.

일본·한 친선협회 대표단 방한, 1976.5.11.-15.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L-6-14 / 12 / 1-126

일본·한 친선협회 대표단이 1976.5.11.~15.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5년 하반기부터 정부 및 한·일본 의원연맹은 일본 내 각 지방별로 산재하고 있는 친한국 단체를 통합하는 중앙연합기구 창설을 일본 측에 요청해옴.
 - 1973년의 김대중 사건, 1974년의 8·15사건 이후 양국관계 재정립이 중요과제로 등장
- 1976.10월 동경에서 일본·한국 친선협회 연합회가 결성되고, 시이나 자민당 부총재를 동 연합회 회장으로 추대
 - 30명으로 구성된 일본 전국 일본·한국 친선단체장 방한단을 편성하여 외무부 초청형식으로 방한

2. 방한단 구성

- 단장: 하라 분페이 참의원 의원(자민당)
- 각 현 일본·한국 친선단체장 등 30명

3. 주요 일정

- 국립묘비 및 전방 시찰
- 외무부장관 예방 및 만찬
- 한·일본 의원연맹 방문 및 한·일본 의원연맹 사무총장 주최 만찬
- 국회의장, 국무총리 예방
- 서울시장 예방(명예 시민증 전수)
- 국제과학문화연구소 브리핑

4. 방한 결과 및 평가

- 기존 일본 내 유력인사의 방한 초청은 중앙인사에 치중되었으나, 동 방한단은 지방인사 중심으로 편성되어 일본 내 각 지방에 걸쳐 친한국 기반 저변 확대에 기여
- 지방 친한 단체와 지방 민간단체 등 교포사회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교포의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

한·일본 / 일본·한 친선협회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L-6-14 / 13 / 1-291

1976년 중 주일본대사관 및 일본 내 한국 총영사관의 일본 각 지방에 설립된 한·일본 / 일본·한 친선협회 등 우호친선협회의 활동현황 보고 자료가 수록됨.

시에라리온·한 친선협회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L-6-14 / 14 / 1-41

1976.4월 시에라리온·한 친선협회가 설립됨.

1. 설립 경위

- 주시에라리온대사관은 공관 창설 이래 양국간의 친선협회 설립을 국회의원들에게 종용함.
- Conteh 의원, S.H.P. Gborie 의원을 중심으로 조직에 착수하여 1976.4.28. 발족식을 가짐.

2. 협회 구성

- 영구회원, 일반회원, 보조회원 70여명(국회의원 10명 포함)으로 구성
- 의장: Alhaji Janneh 북부주담당 국무상
- 부의장 겸 사무총장: Conteh 의원
- 재정담당: J.T. Kanu 의원
- 조직담당: S.H.P. Gborie 의원

3. 주요 사업

- 건조 야채 공장 및 과일처리 공장 설치
- 양국 협력사업 일환으로 추진
- 양측 조사단 파견
- 양국 수출시장 조사
- 기술 교류
- 회지 발간(계간지)

스위스·한 친선협회

생산연도 1962-1976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L-6-14 / 15 / 1-92

1962~76년 중 스위스·한국 친선협회의 활동 내용임.

1. 주스위스대사는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스위스인들이 ‘스위스·한국협회’를 조직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고 1962.5월 보고함.
 - 5.20. 총회에서는 한국학생 또는 기술자 훈련을 위한 자금 문제, 한국 상품시장 개척 문제를 논의함.
2. 스위스·한국협회는 1975.10월 회장 명의로 김일성 광고 게재 언론에 반박서한을 발송함.
3. 주스위스대사는 1975.12월 Erwin Tchudi 스위스·한국협회 회장에 대한 훈장 수여를 건의함.
 - 공적 사항
 - 1963년 이래 회장을 역임하면서 1974년도 국군의 날에 50여명의 회원을 방한시킴.
 - 1975.9월 베른의 유력지가 김일성 선전광고를 연재하자 반박편지와 전화 항의운동 전개
 - 1976.1월 정부는 수교훈장 송례장을 서훈함.
4. 동 스위스·한국협회 회장은 스위스에서 결성된 친북단체인 ‘조선통일지지 스위스위원회’를 반박하는 공동성명을 1976.4월 발표함.

구주지역 친한단체 활동 및 현황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구주1 / 구주2 / 공보문화

MF번호 L-6-14 / 16 / 1-208

1973~76년 중 구주지역 친한단체의 현황 및 활동사항임.

1. 벨기에·한국 친선협회가 1974.6.14. 설립됨.

- 회원 수: 203명
- 활동 내용
 - 정계, 경제계, 언론 및 문화계의 친한국 세력 저변 확대
 - 입양가족 모임 주선

2. 외무부는 1974.7월 룩셈부르크 보건장관으로 임명된 룩셈부르크·한국 친선협회장에게 외무부장관 명의의 축전을 발송함.

3. 주그리스대사는 1974.10월 그리스·한국 친선협회의 재발족을 위한 회의 및 리셉션이 개최되었음을 보고함.

- 동 단체는 1972.3월 결성되었으나 그간 활동이 유명무실하다 한국전 참전용사회 등과 병행 결성하여 재발족함.

4. 주핀란드대사는 1974.12월 주재국 내 친한 단체를 조직하는 문제는 시기상조라고 보고함.

5. 주이탈리아대사는 1975년도 이탈리아·한국 친선협회 사업계획을 보고함.

- 대국회 활동: 원내지지 활동 유도
- 협회 총회 겸 한국 홍보를 위한 집회

6. 의원 친선협회 결성 현황(1974년 기준)

- 독일·한국 의원협회: 1965.4.1. 창립, 회원 수 150명
- 영국·한국 의원협회: 1970.7.15. 창립, 회원 수 48명
- 프랑스·한국 의원협회: 1971.5.18. 창립, 회원 수 31명
- 오스트리아·한국 의원협회: 1974년 초에 발족예정

7. 독일·한국협회 임시총회가 1975.11.3. 개최되어 회원 300명이 참석하고 회장단을 선출함.



8. 주네덜란드대사는 1976.3월 Holzhaus 네덜란드·한국 친선협회 사무국장에 대해 훈장 수여를 건의함.
9. 주프랑스대사관은 1976.4.26. 프랑스·한국 친선협회가 정식 발족되었음을 보고함.
 - 동 협회 창립총회에는 주재국 주요인사, 참전용사, 언론 문화 관계인사 1,500여명이 초대됨.

에티오피아 경제동향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M-6-38 / 1 / 1-123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1975.3월 에티오피아 임시 군사행정위원회의 토지 국유화 정책을 보고함.

1. 농지 국유화 정책(1975.3.4.)

- 도시지역을 제외한 전 국토를 국유화
- 모든 농지는 국민의 집단 소유, 토지의 사유 불허
- 토지의 양도 불허
- 대규모 농장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협동농장으로 발전
- 지주의 토지에 대해 변상을 하지 않으며 토지에 대한 영구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보상

2. 도시권 토지 및 가옥의 국유화(1975.7.25.)

- 도시 소재 모든 토지는 1975.8.7.부터 국유화하되, 이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음.
- 도시권 소재 토지는 매매 불가
- 가옥 건축을 위한 토지의 면적은 최고 500평 이하
- 개인 소유가옥은 사용·저당·매매·교환 가능
- 정부만 토지 임차료를 받을 수 있음.
 - 가옥의 임대료 기준 제시
- 외교단, 영사단, 국제기구 소유의 토지·가옥에 관하여는 추후 결정하기로 함.

EC(구주공동체)지역 주재 공관협의체 운영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 총무

MF번호 M-6-38 / 3 / 1-39

1976.2월 주EC(구주공동체)대표부가 작성한 EC협의체의 발전 및 1976년도 업무계획에 관한 자료가 수록됨.

1. EC협의체 발족의 배경

2. EC협의체 사업계획의 추진

- 유럽 차관단 구성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소요외자 조달
- 투자유치 대상 업종 선정과 투자유치 활동
- 한국·EC국가 간 합작금융회사의 설립
- EC국가와의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설립 확대와 유기적 협조
- 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시장의 심화
- 북구 국가와의 경제관계 증진 방안
- 협의체 간행물 발간
- 유럽 자본시장에서의 기채(起債)에 관한 연구

3. 1976년도 EC협의체 업무계획(안)

4. 부록: EC협의체가 채택한 1976년도 대EC지역 수출 진흥 방안

- EC, 아프리카, 중동지역 협력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
- 합작투자 및 유명상표와의 제휴 강화
- 수출시장의 지방도시 확산
- 수출상품 선전활동의 체계화 및 강화
- 한국 상품 상설전시장 설치
- 해외지사 설치확대 및 지사활동의 지원 강화
- A/S 기구설치의 확대 및 운영의 효율화
- 박람회, 전시회, 세일즈맨 파견, 이동전시회의 적극적인 활용
- 대동구권 수출 촉진
- 한국 구매사절단 EC 파견

무역 및 경제협력의 다변화 방안: 북한 지지국 및 좌경중립국 경제 진출 방안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38 / 2 / 1-109

1. 한국 정부는 1976.6월 수출입시장 다변화 정책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시장 다변화 정책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 수정함.

- 경제기획원: 미국·일본과의 자본 협력 일변도를 지양하고 다변화 모색
- 재무부: 수입통제제도의 합리화 및 감면 정책 시행
- 상공부: 수출입 품목의 다변화를 추구하되, 특히 수입측면에서 무역협회를 통한 품목 조정
- 외무부: 시장 다변화를 위한 각국의 정확한 시장조사 필요, 개도국 등과의 경제협력·통상증진 강화 정책 추진

2. 외무부장관은 1976.7.3.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아래 요지의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방안을 발표함.

-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미얀마(구 버마) 등 좌경 중립국의 경제개발계획 적극 참여
- 경쟁상대국 정보입수를 위한 국제입찰 적극 활용
- 아·중동 및 중남미 지역 국가에 대해 출혈수출도 감수하는 진취적 수출경제정책 시행
- 해외 상품전시장 및 직매장 설치 확대
- 민간 경제사절단 파견 확대

3. 외무부는 1976.11.29. 아프리카지역 북한 지지국 및 좌경 중립국 경제 진출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국가 대사에게 아래의 내용을 훈령함.

- 북한 지지국 또는 좌경 중립국에 대해 실질적인 경험관계 수립으로 북한의 기반 약화 모색
- 소액 무상원조보다는 민간 합작투자 또는 상업차관 제공을 정부가 장려하거나 또는 민간 합동의 대개도국 기술협력 추진
- 특수경험 대상국은 민간업체가 진출하여 한국에 경제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 보유국을 중점 교섭대상으로 선정
- 이를 위해 대상국의 경제상황, 북한 등의 원조현황, 협력요청 분야, 효과적인 한국의 협력분야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
- 구체적 조사 지시 내용
 - 북한·중국(구 중공)·소련의 대상국에 대한 무상원조 및 차관 등 경제협력 실적, 미집행분, 지연 사유
 - 대상국의 경제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외국의 협력이 요청되고 있는 분야 및 규모
 - 대상국의 대외부채 상환능력 측정을 위한 대외무역수지·외환보유고·대외신용도 관련 세계은행 평가



- 외국투자의 보호 및 장려에 관한 대상국의 법적, 정치적 환경
- 대상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협력분야 등

4. 주에티오피아, 주우간다, 주케냐, 주보츠와나, 주나이지리아, 주탄자니아, 주잠비아, 주시에라리온대사는 1976.12월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보고함.

한·이란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은행간 협력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38 / 4 / 1-50

1. 제1차 한·이란 각료 공동위원회(1975.11.17.~19.,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 이란 측: 안사리 경제재무성 장관
- 합의의정서 요지
 - 향후 5년간 20억 달러의 교역 목표를 설정하고 4개월 내 세부사항을 협의
 - 섬유, 합성피혁, 조립식 주택 재료공장 분야의 합작 투자 사업 시행
 - 주택사업, 개발계획, 건설, 어업협력을 추진
 - 합작 투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자회의를 3개월 이내에 테헤란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제2차 각료 공동위원회를 1976년 중 테헤란에서 개최 합의

2. 합작 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한·이란 실무자회의(1976.2.2.~2.9., 테헤란)

- 한국 측 교섭 대표
 - 재무부 국제금융 국장
 - 한국외환은행 이사
- 의제
 - 한·이란 합작투자 회사 설립안
 - 양국 은행 자본협력 방안: 재무부, 한·이란 합작 투자금융회사의 설립안 작성

3. 재무부는 1976.4월 한·이란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의정서 추진현황을 국무회의 보고사항으로 보고함.

- 주요 내용
 - 통상증대, 주택건설, 기술인력 송출, 합작사업 추진, 어업협력, 합작 금융회사 설립

한·대만(구 자유중국) 경제각료회담, 제11차. 서울, 1976.9.16.-18.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38 / 5 / 1-104

제11차 한·대만(구 자유중국) 경제각료회담이 1976.9.16.~18. 서울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 대만 측: Sun Yun-Suan 경제부장

2. 회의 구성

- 3개 분과위원회로 진행 후 공동성명을 발표
 - 경제협력 분과위원회
 - 통상조정협력 분과위원회
 - 기술협력 분과위원회

3. 공동성명문 발표(1976.9.19.)

- 양국의 경제개발계획, 무역정책, 가격통제 분야에서의 정보교류에 합의
- 양국 경제협력위원회 등 경제단체가 실무적인 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합의
- 양국간의 무역확대를 위해 국제시장에서 상호 협력
- 양국은 농업기술 및 에너지 자원분야 공동연구와 개발에 협력

한·이란 각료 공동위원회, 제2차. Teheran, 1976.10.31.-11.3.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경제협력 / 통상3 / 중동

MF번호 M-6-38 / 6 / 1-284

제2차 한·이란 각료 공동위원회가 1976.10.31.~11.3. 테헤란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 이란 측: Ansary 경제재무성장관

2. 대표단 주요 일정

- 이란 국왕, 수상, 외상, 경제재무성장관, 통상성장관, 교통성장관, 주택성장관, 노동성장관 등 면담
- 코람샤 항만시찰, 한국인 근로자 숙소 방문, 테헤란 한국학교 방문, 교민과의 오찬 등

3. 주요 의제별 합의내용(1976.11.3. 합의의정서 서명)

- 통상
 - 5년간 20억 달러 교역목표 달성, 시멘트 30만 톤과 비료 10만 톤 이란 수출, 이란에서 Roll-on / Roll-off선(화물을 적재한 트럭이나 트레일러 또는 일반차량을 수송하는 화물선) 5~10척 구매 검토, 15년간 1일 6만 배럴 원유 공급계약 서명
- 공업
 - 합작섬유회사 공장 건설 협의, 철도차량 공장 수출
- 농업
 - 농업기술협력을 위한 조사단 이란 파견, 생산가공공장 건설 합의, 새마을조사단 이란 파견
- 수산
 - 시험조업선 20척으로 증가, 어업기술협력, 수산협정의 조속한 서명
- 건설
 - 한국 업체의 항만건설 및 주택건설 참여
- 철도
 - 테헤란-마샤프 간 철도사업 합작 추진, 철도기술 인력 송출, 차량공급 합의
- 인력
 - 한국 인력 송출, 보험협정체결 원칙 동의
- 기타
 - 이종과세방지협정 협의, 경제기획전문가 교환, 상공인 교류



4. 공동위원회 평가 및 건의사항

- 금번 공동위원회는 실리 추구에 치중하면서도 대북한 관계 견제에 역점
- 상품 및 플랜트 수출, 건설, 농수산 부문 등에서의 협력강화 가능 전망
- 이란은 상품시장 잠재력이 크고 정치적인 비중도 높은 편이므로 현재 시행 중인 사업과 제1,2차 합의의정서의 성실한 이행 등을 통해 대이란 진출 기반을 장기적으로 착실하게 다져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

한·이란 각료 공동위원회, 제2차. Teheran, 1976.10.31.-11.3. 전2권 (V.2 후속조치)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경제협력 / 통상3 / 중동

MF번호 M-6-38 / 7 / 1-80

1976.10.31.~11.3.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이란 각료 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내용임.

1. 경제기획원은 1976.11.22. 외무부 등 관계부처에 제2차 한·이란 각료 공동위원회 합의사항을 송부하면서 각 부처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작성 통보해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관계부처 및 주이란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976.12.2. 경제기획원에 외무부 소관사항인 수산협력협정, 보험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통보함.
- 1977.3.31. 주이란대사에게 주재국 관계기관 및 업계와 접촉하여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함.
- 1977.9.20. 경제기획원에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보함.
 - 근로자배상책임보험(근재보험)협정 체결, 한·이란 사회보장협정 서명,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등

65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한·필리핀 노동장관 회담 개최 계획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교민2

MF번호 M-6-38 / 8 / 1-160

1975~76년 중 한·필리핀 노동장관 회담을 추진함.

1. 1975.2월 필리핀을 공식 방문한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필리핀 외상과 2.21. 한·필리핀 연례 노동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
2. 1975.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한 한·필리핀 대표는 양국 노동장관 회담 개최에 대해 논의함.
3. 주필리핀대사는 1975.7월 필리핀 측이 양국 노동장관 회담을 10월경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희망한다고 보고함.
 - 노동청은 예산사정상 1975년도 개최가 불가능함을 통보함.
4. 노동청은 양국 노동장관 회담을 1976.6월 필리핀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함.
 - 필리핀 측은 1975.8월 양국 노동장관 회담의 1976.6월 필리핀 개최에 동의하고 1977년도에는 서울 개최를 제안함.
 - 필리핀 측은 아래 의제를 제의함.
 - 해외 인력수출에 관한 정보 교환
 - 해외 취업자 보호
 - 해외 인력수출 시장 개방 및 문제점
 - 인력 기술 훈련
5. 1976년 이후에도 양측은 노동장관 회담 개최를 상호 제의했으나 결정되지 못함.

한·독일 경제실무자 회담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38 / 9 / 1-249

1975~76년 중 한·독일 경제실무자 회담이 개최됨.

1. 상업차관, 투자, 통상 분야 회담(1976.4.5.~6., 서울)

- 수석대표
 - 한국 측: 함태혁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독일 측: Hans Schussler 경제부 국장
- 정부 훈령
 - 독일로부터 합작투자 유치방안을 강구하고 독일기업인의 투자가 전자, 기계, 화학공업 분야 등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이루어지도록 교섭할 것
 - 상업차관에 대한 보증한도액을(프로젝트 당 1천만 마르크) 증액하도록 교섭할 것
 - 한·독일 수출 증대를 위해 대독일 수출 쿼터 조정, 신규 쿼터 선정 등을 교섭할 것
 - 독일 주재 한국 상사의 장기 체류 사증 신청이 신속히 처리 되도록 촉구할 것
- 회담 결과
 - 한국 측이 제4차 5개년 계획의 우선 투자분야인 전자, 기계, 화공업 분야에 중점 투자를 요청하였고, 독일 측은 산업분야 독일 상사 대표가 이번 회의에 총망라되었음을 강조
 - 한국 측은 상업차관 프로젝트 당 보증한도를 1천만 마르크에서 5천만 마르크로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
 - 독일 측은 한국 정부의 기계류 수입 다변화 방침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상업차관 한도에 관하여는 개별심사를 할 때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

2. 재정차관, 기술협력 분야 회담(1976.6.29.~30., 독일 본)

- 수석대표
 - 한국 측: 이선기 경제기획원 경제협력차관보
 - 독일 측: Winfried Boell 경제협력부 총국장
- 교섭사항
 - 자본협력: 1976~77년도 재정차관 협의
 - 기술협력: 전기통신기술자 양성소 설립 등 6개 사업
 - 경험관계 협정: 한·독일 과학기술협정, 한·독일 항공협정

한·일본 경제협력 실무자 회담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38 / 10 / 1-66

1975~76년 중 한·일본 경제협력 실무자 회담이 개최됨.

1. 1975년도 제3차 한·일본 경제협력 실무자 회의(1976.1.21.~22., 일본 동경)

- 수석대표
 - 한국 측: 이선기 경제기획원 차관보
 - 일본 측: 기쿠치 외무성 경제협력국장
- 교섭사항
 - 차관교섭: 농업 개발, 통신시설, 충북선 복선화, 전동차 도입
 - 조사 대상사업 합의: 서울시 지하철 순환선, 간척 농지 개발
 - 13개 상업차관 교섭
- 회의 결과
 - 농업진흥 차관 금액: 126억 엔
 - 충북선 복선화 차관 금액: 43억 엔
 - 통신시설 확장 계획 금액: 66억 엔
 - 전동차 구입: 엔 차관 이외의 별도 조치를 하기로 함.
- 특이사항
 - 대표단은 1975년도 경제협력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1975.12.18.~27. 일본 방문을 계획함.
 - 일본 측의 소극적 반응으로 기간을 축소하여 12.18.~19.간 방일하고, 1975년도 한·일본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만 협의함.

2. 1976년도 대일본 재정차관 제1차 실무자 회의(1976.11.1.~3., 서울)

- 수석대표
 - 한국 측: 박경동 경제기획원 경제협력총괄과장
 - 일본 측: 나카소네 외무성 경제협력1과장
- 협의 사항
 - 양국 현안인 경제협력 사업 추진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협력 문제

한·네덜란드 공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76.6.22.-23.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38 / 11 / 1-182

제2차 한·네덜란드 공동위원회가 1976.6.22.~23. 서울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함태혁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네덜란드 측: Overmars L.M. 경제성 대외경제협력국장

2. 회의 의제

- 양국의 경제협력 개관
- 경제협력
 - 한·네덜란드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설치, 투자조사단 교류
 - 차관공여 및 직접·합작 투자
 - 창원기계 공업단지 및 여수화학 공업단지의 나프타 분해사업 참여
- 기술협력
 - 사탕무 재배 기술협력
 - 네덜란드 기술자의 한국연구소 자문
 -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와 TNO(네덜란드응용과학연구소) 간의 과학기술 협력
- 입국제휴 비자 발급

3. 회의 결과

- 양국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조직 지원
- 민간 투자 조사단 교류 촉구
- 네덜란드 측의 대한민국 수출 증진을 위한 주요 수출품목 내역 통보
- 경제 및 통상 정보 교환
- 1,800만 달러 한도의 수출금융 제공
- 사탕무 재배 가능성 및 타당성 조사 협력
- 기술협력 강화

한·파라과이 혼성위원회, 제1-7차. Asuncion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M-6-38 / 12 / 1-81

1976년 중 제1~7차 한·파라과이 혼성위원회가 파라과이 Asuncion에서 개최됨.

1. 한국과 파라과이는 1975.7월 양국 외무부장관 간 각서교환을 통해 한·파라과이 혼성위원회 설치에 합의함.

- 설치 목적: 경제·사회·문화·재정 등 양국의 공동관심사와 관련한 제반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실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
- 구성
 - 양국 정부에서 지명하는 국내 대표 및 상대국에 파견된 각 외교관
 - 1976.1월 정부는 박쌍용 미주국장, 함태혁 국제경제국장, 이경훈 영사교민국장을 위원으로 지명

2. 양국 정부는 1976.9월 한·파라과이 혼성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규칙에 합의함.

- 위원회의 목적(제3조)
 - 상호 관심 있는 분야의 협정 체결을 정부에 제의
 - 산업관계를 효과적으로 보완 할 수 있는 세부계획 수립
 - 공업 및 농·목·축업 관계 발전을 촉진할 자본투자 및 기업창설을 촉진
 - 통상 교역증대를 장려하는 방안을 제의
 - 이민에 관한 조치를 건의
 - 문화협정 이행을 촉진

3. 1976년 제1~7차 한·파라과이 혼성위원회 결과

- 제1차 위원회(4.5.)
 - 양국간 투자 협정 조속 체결에 합의
- 제2차 위원회(5.10.)
 - 혼성위원회 일반규칙
- 제3차 위원회(8.12.)
 - 혼성위원회 운영규칙, 이민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 제4차 위원회(10.13.)
 - 양국 현안인 이민협정, 투자·통상협정을 포함한 경제협력, 과학 및 기술협력 사안 등을 심의 하고 양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
- 제5차 위원회(10.20.)
 - 이민협정 체결 문제, 투자·통상협정 체결, 한·파라과이 친선협회 조직 문제 협의



- 제6차 위원회(10.26.)
 - 한·파라과이 친선협회 조속 결성을 추진하기로 합의
- 제7차 위원회(11.9.)
 - 통상협정 체결을 위한 자료교환, 한·파라과이 친선협회 조직을 위한 양국 임원 선출 협의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76.8.16.-21.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 통상2

MF번호 M-6-38 / 13 / 1-272

제2차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가 1976.8.16.~21. 서울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윤하정 외무부차관
- 사우디아라비아 측: Abdullah M. Alireza 외무차관

2. 주요 의제

- 자본협력 및 합작투자
 - 개발차관, 은행 간 협력, 합작투자,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장 협정 체결
- 건설용역협력
 - 사우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경비 지원, 한국 업체를 위한 전용 가부두 설치, 건설 기술협력 추진, 지하수 개발, 하역작업
- 통상진흥협력
 - 양국간 무역현황 검토, 대사우디아라비아 국제입찰 협조, 대사우디 선박수출, Dammam에 코트라 사무소 설치
- 인력협력
 - 노동관계 합의각서 교환, 보험 협정 체결, 장기체류비자 발급

3. 회의 결과

- 교역량 확대 증진
- 사우디 국제입찰에 한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지원할 것을 약속
- 관련 기관에서 한국의 선박 수입을 호의적으로 검토 합의
- Dammam에 KOTRA 지사 설치를 호의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
- 강관 공장 및 불포화폴리에스테르 공장 합작 설립에 최대한 협조 약속

4. 참고자료(1976.7월, 경제기획원)

- 의제별 제의 및 교섭방침
- 제2차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 준비사항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76.8.16.-21. 전2권 (V.2 후속조치 및 관계부처 자료)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 통상2

MF번호 M-6-38 / 14 / 1-253

1976.8.16.~21.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추진 현황 관련 내용임.

1. 1977.3월 상공부는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에 제2차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에 대한 분야별 추진현황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고 추진결과 점검을 요청함.

- 교역량 확대 증진
 - 사우디 상무장관(1976.10월) 및 공업전력장관(1977.3월) 방한시 양국간 균형잡힌 무역확대 추진에 합의
- 사우디 국제입찰 참여
 - 코트라에 국제입찰 전담반 설치 운영 중
 - 1976년 대사우디 국제입찰 낙찰 실적: 천 14만 4천 달러(의약품, 경찰복, 철도화차)
- 선박 수출 협조
 - 현대조선에서 사우디 Petroship사와 화물선 및 Tanker 수출 추진 중
- 공장 합작 설립
 -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공장 건설은 1977.12월말 완공 후 1978.1월 시운전 예정
 - 강관 공장은 사우디 측 파트너 선정 지연으로 진전 없음.

2. 1977.9월 경제기획원은 제2차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추진현황을 해외사업 조정실무회의 안건으로 보고함.

3. 제2차 한·사우디 합동위원회 준비를 위한 관계부처 자료가 포함됨.

- 제2차 한·사우디 합동위원회 준비계획(1976.6월, 경제기획원)
- 수석대표 격상문제 및 의제별 관계부처 의견 등

한·벨기에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3차. 서울, 1976.5.9.-14.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38 / 15 / 1-83

제3차 한·벨기에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1976.5.9.~14.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위원장)

- 한국 측: 김용주 전방주식회사 회장
- 벨기에 측: Andre Dubuisson 벨기에·한국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2. 주요 의제

- 제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과 벨기에 측 협력요망
- 전자·기계공업 분야의 벨기에 측 투자 권장
- 제3국에서의 양국간 공동협력 및 제휴방법
- 다국적 금융기관 참여로 이루어질 한국의 종합금융회사에 벨기에 측 참여요망
-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한 공동노력 강화
- 양국 민간기업 간 기술 교류확대 방안 강구

3. 1976.5.10. 상기 의제별 토의 결과를 담은 양측 위원장 명의의 공동성명문을 발표함.

아시아 노동장관 회의, 제6차. Teheran(이란), 1976.9.20.-24.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M-6-38 / 16 / 1-149

정부는 1976.9.20.~24.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되는 제6차 아시아 노동장관 회의에 최석원 노동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현황

- 한국을 포함한 21개국 대표, UNDP(유엔개발계획) 및 ILO(국제노동기구) 대표

2. 파견 목적

- 제6차 아시아 노동장관 회의 참석
- 1976.4월 한·이란 공동각료회의 기술협력 분과위원회 합의 사항인 한·이란 노동관계 양해각서 서명
- 대이란 및 사우디아라비아 인력 진출 협의
- 이란 및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근로자 및 사업체 방문
- 서독 인력진출 참여, 서독 진출 광부 및 간호사 근무 사업체 방문 실태 파악
- 한·독일 협력 하에 추진 중인 광부 등 직업훈련사업 협의

3. 회의 결과

- 각국 대표의 연설이 끝난 후 2개의 패널로 분리하여 토론 및 20개항의 공동성명 채택
- 정부대표단 활동
 - 국가별 연설을 통해 새마을운동과 생산성 증대, 중앙직업훈련원의 아시아 국가 개방 문제를 상세히 거론하여 공동성명에 반영시킴.
- 회의명 개칭 및 제7차 회의 개최 합의
 -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장관 회의로 개칭
 - 차기 회의 일정: 1978.3월 말, 뉴질랜드

한·미국 간 경제관계 인사교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2 / 복미1

MF번호 M-6-39 / 1 / 1-53

1976년 중 한·미국 간 경제관계 인사교류에 관한 내용임.

1. 박충훈 한·미국 경제협의회 회장은 1976.8.29.~9.17. 미국을 방문하고, 아래의 방미 결과 보고서를 외무부에 제출함.

- 방미 목적
 - Pacific Forum 투자회의 협의
 - 미국·한 경제협의회와 업무 협의
 - 미국 국회와의 유대 강화
- Pacific Forum의 Vasey 상무이사와의 합의사항
 - 한국, 일본, 대만(구 자유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회의 시기를 6개월의 준비기간을 두고 협의함.
 - Pacific Forum은 아시아의 정치·경제 분야 지도자와 미국의 민관 간의 이해증진과 협력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사업의 역점을 둠.
- 미국·한국 경제협의회와 합의사항
 -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하는 박동진 외무부장관을 미국·한국 경제협의회 3주년 만찬의 주빈으로 초청
 - 1977.3월 경 미국 내 10여 주요 도시에서 대한(對韓) 투자회의 개최 예정 합의
 - 양국 경제협의회 합동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고, 시기는 1977.5월로 잠정 결정
- 미국 국회와의 협력
 - 월남전 반전 운동세력이 미국의 월남전 패퇴 후 반한(反韓)세력에 합세하여 친한국 의원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민간차원의 의원 초청 외교를 강화할 필요성 인식

2. 주시카고총영사는 1976.10월 일리노이주지사 부인을 단장으로 하는 대한민국 투자사절단 8명이 10.29.~31. 방한 예정임을 보고하면서, 대통령 영애 예방 일정 주선을 건의함.

- 주한 미국대사관은 동 사절단을 위해 주한 미국대사 부인 예방, 한·미국 경제협의회 만찬, 태완선 대한상공회의소장 예방, 인천지구 산업시찰을 주선
- 외무부는 동 사절단의 상공부장관, 대통령 영애 예방 주선을 추진

경제실무사절단 레소토 방문, 1976.4.20.-5.19.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M-6-39 / 2 / 1-182

박남균 주케냐참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실무사절단이 1976.4.23.~5.19. 레소토를 방문함.

1. 방문 경위

- 정부의 대레소토 경제협력의 추진을 위한 농업(채소, 잠업) 분야의 현지조사
 - 레소토 농업부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후, 산간지역 농업 현장, 하천지역 농업개발 상황, 농업시험장, 농업기술 보급소 등 답사

2. 사절단 구성

- 박남균 주케냐대사관 참사관(단장) 등 4명

3. 훈령

- 방문 목적
 - 레소토의 채소재배, 양잠 가능성 및 사업채산성 조사
 - 레소토의 모직물 공장 건설 계획에 대한 민간 합작 투자 가능성 조사
 - 조나단 레소토 수상의 방한 관련 세부사항 협의
- 일반 지침
 - 레소토 측이 희망하는 채소재배 및 양잠 가능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레소토 정부에 제출 하되, 사업추진에 대한 협력 약속은 피할 것
 - 모직물 공장 건설에 대한 합작투자 전망은 민간 베이스(삼성물산)에서 검토할 것

4. 방문 결과

- 레소토의 기온은 채소재배는 가능하나, 강우량이 적고 건기가 길어 채소재배에 적지라 할 수 없음.
 - 대만(구 자유중국)이 4~5년 전부터 대단위 채소재배를 시도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음.
- 기후 및 토양은 뽕나무 재배가 가능하고, 부녀자 인력이 풍부하여 잠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5. 레소토 정부의 요청사항

- 채소, 잠업에 대한 시설 및 기술 지원
- 모직물 가공에 따른 기술 및 시설 지원

경제사절단 수단 방문, 1976.4.19.-22.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M-6-39 / 5 / 1-304

민병권 무임소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이 1976.4.19.~22. 수단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호혜적인 경제협력 가능 분야와 한국 업체의 진출 방안 및 교역증진 방안 모색
- 공식관계 수립 교섭
- 유엔 및 비동맹 회의에서의 한국입장 설명

668

2. 훈령

- 대수단 경제 진출 방안
 - 기본원칙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기여하는 분야에서 집중 협력
 -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합작 투자도 가능
 - 도로 건설, 원면 수입, 합작 면사공장 건립, 외국인 휴양소 건립 등 협의
- 공식관계 수립 교섭 지침
 - 북한 단독 수교국인 수단과도 전제 조건 없는 외교관계 수립 교섭
- 유엔 및 비동맹 회의 대책에 관한 훈령
 - 북한 입장만 일방적으로 지지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현실에 입각하여 공평한 태도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
 - 제5차 스리랑카 비동맹 정상회담에서 한국 문제 토의 시 한국 정부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

3. 주요 일정 및 결과

- 니메이리 수단 대통령 예방
 - 동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을 희망하고 한국의 총영사관 설치를 승인함.
- 외무차관 회담
 - 총영사관 설치 합의각서 서명 및 교환
- 각료회담 개최
 - 재무·경제장관, 체신·교통장관, 중앙은행총재, 무임소장관 참석
 - 신용 및 금융 분야의 협력 가능성 연구, 도로 건설 분야 협력 방안 협의



4. 관찰

- 수단의 경제적 잠재력은 높이 평가되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원조에 의한 농업 분야에서의 개발 가능성이 충분함.
- 정치적으로는 대외적으로 공산국가 원조 때문에 친공산 노선을 계속 유지해왔으나 차츰 탈피 노력을 보이고 있음.
- 이번 한국과의 관계 개선의 주요 동기는 이드리스 무임소장관 방한 후,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중동 진출로 인한 한국 경제력에 대한 재인식, 카쇼기 사장의 적시 개입에 의한 사우디아라비아·한국·수단 3국 협력에 대한 기대인 것으로 보임.

경제사절단 아프리카 및 중남미 순방, 1976.9.17.-10.7.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M-6-39 / 6 / 1-155

대한상공회의소는 1976.9.17.~10.7. 아프리카 및 중남미 7개국에 태완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간경제사절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아프리카 및 중남미 주요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 제4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및 제2차 한·중미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참석
- 순방국 정·재계 중진 인사와의 접촉을 통한 통상 확대 및 자원의 장기적 확보 방안 협의 등 민간경제외교 전개

2. 주요 일정 및 결과

- 케냐(1976.9.17.~20.)
 - 케냐 실업인과의 합동회의 및 개별 상담
- 이집트(9.20.~23.)
 - 이집트 상공회의소 대표단과 간담회 및 개별 상담, 정·재계 인사방문
- 멕시코(9.24.~26.)
 - 주멕시코대사관 건의에 따라 비공식 방문
 - 무역청장 예방, 제4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 콜롬비아(9.26.~29.)
 - 주콜롬비아대사관 방문, 콜롬비아 상공회의소 예방, 개별 상담
 - 한·콜롬비아 상공회의소 간 업무 협조의정서 교환
- 브라질(9.29.~10.3.)
 - 리우 상공회의소 방문, 정부인사 예방, 개별 상담
 - 한·브라질 상공회의소 간 업무 협조의정서 교환
- 우루과이(10.3.~5.)
 - 주우루과이대사관 방문, 경제장관 등 정부인사 방문, 우루과이 상공회의소 방문 및 개별 상담
 - 한·우루과이 상공회의소 간 업무 협조의정서 교환
- 칠레(10.5.~7.)
 - 칠레 상공회의소 방문, 개별 상담
 - Pinochet 칠레 대통령 및 제2인자인 Merino 제독 예방

방글라데시 경제사절단 방한, 1976.7.21.-8.3.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M-6-39 / 3 / 1-28

방글라데시 경제사절단이 1976.7.21.~8.3. 방한함.

1. 방한 초청 배경

- 대중립국 기술 원조 제공사업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정부 시찰 교육단을 초청함.

2. 사절단 구성

- S.A. Khair 기획성 기획위원(단장) 등 3명

3. 주요 일정 및 결과

- 과학기술처 방문(1976.7.22.)
 - 차관 면담 및 양국간 기술협력 관계 논의
- 경제기획원 방문(7.22.)
 - 한국 경제 브리핑 및 자료 제공
- KDI(한국개발연구원) 방문(7.22.)
 - 한국 경제 개발 계획 브리핑
-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방문(7.23.)
 - 연구시설 시찰
- 상공부 방문(7.23.)
 - 양국 협력관계 논의에 따른 준비
- 새마을공장 시찰(7.24.)
- 판문점 및 땅굴 견학(7.26.)
- 내무부 방문(7.27.)
 - 새마을 관계 브리핑
- 농촌진흥청 방문(7.27.)
 - 연수기관 및 시험장 방문
- 포항제철, 현대조선, 한국비료, 동명목재, 금성사 시찰(7.28.~8.1.)

레소토 경제사절단 방한, 1976.3.8.-12.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M-6-39 / 4 / 1-112

레소토 경제사절단이 1976.3.8.~12. 방한함.

1. 방한 경위

- 레소토 측은 1975.12월 주케냐대사관을 통해 한국 측에 이미 요청한 경제원조와 관련하여 사업의 종류, 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해 레소토 경제사절단의 방한을 희망함.

2. 방한 목적

- 한국에 대한 경제 협력 요청
- 국가 안보를 위한 인원 훈련 및 물자지원 요청

3. 사절단 구성

- K.C. Molapo 외무성 차관보(단장) 등 5명

4. 주요 일정

- 건설부차관 예방
- 상공부 국제협력담당 차관보 예방
-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예방
- 양국 대표단 회의
- 단원 중 기동경찰대장은 경제사절단과는 별도로 내무부 및 국방부 방문

5. 양국 대표단 회의 결과

- 한국 측 참석 현황
 -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외무부·상공부·건설부·보사부·농수산부 대표 9명 참석
- 논의 사항
 - 직물산업 합작 투자건
 - 병원 설립
 - 기동경찰대 확장 지원
 - 채소 재배 기술협력, 경사지 개간 기술협력, 양잠 기술 조사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미국 및 서구순방, 1976. 5.12.-[23]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39 / 7 / 1-22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976.5.12.~23. 미국 및 영국을 방문함.

1. 미국 방문 주요 일정(1976.5.12.~15.)

- 재미교포 초청 만찬 간담회
 -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에 대한 설명
- Butz 미국 농무성장관 예방
 - 차관 공여 문제 협의
- McNamara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재 면담
 - 1977년도 차관 공여 규모에 대한 협의
- S.M. Dubrul 미국 EXIM(수출입은행) 총재 예방
 - 고리 원자력 2호기의 조속 의회 통보 요청
- IMF(국제통화기금) 전무이사 면담

2. 영국 방문 주요 일정(1976.5.19.~23.)

- Dell 영국 통상장관 면담
 - 영국 측은 한국의 조선업에 대해 관심을 표시하고, 한국 측이 요청한 5억 달러의 자본협력에 대해 호의적인 약속을 함.
- Healey 재무장관 면담
 - 한국의 제4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영국의 지원을 요청
- 영국 경제인연합회 주최 영국 경제계 인사 간담회 연설
- 정주영 한·영국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회장 주최 오찬 참석
 - 한·영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연설
- 영국 통상차관 주최 영국 금융계 인사 초청 리셉션 참석

Morera Batres, Porfirio 코스타리카 재무장관 방한, 1976.9.27.-30.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M-6-39 / 8 / 1-37

Porfirio Morera Batres 코스타리카 재무장관이 1976.9.27.~30.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6.2월 코스타리카 정부는 10월 동경에서 개최되는 IMF(국제통화기금) 총회에 참석하는 동 재무장관의 방한 가능성을 주코스타리카대사관에 타진해옴.
 - 주코스타리카대사관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인 주재국이 수년간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준 것을 감안하여 친한국 인사인 동인의 방한 초청을 적극 건의함.

674

2.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 재무부장관, 경제기획원 장관 면담
- 외무부차관 내외 주최 오찬
- 재무부장관 내외 주최 만찬
- 울산 현대조선소, 한국기계, 기아산업 시찰, 불국사 관광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통상3 / 서부아프리카

MF번호 M-6-39 / 9 / 1-122

1974~76년 중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의 경제관계 주요 인사가 방한함.

1. Bofossa 재무장관(1976.10.12.~15.)

- 동 재무장관은 방한하여 10.13. 국무총리를 예방함.
 - 배석자
 - 한국 측: 김용환 재무부장관, 이규현 국무총리 비서실장
 - 콩고 측: Bazuki 재무장관 고문, Mbandanu 재무부 재정국장
 - 국무총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설명하고 한국과 콩고가 자유, 평화, 진보의 공동이념을 추구하는 협력관계를 강화해 갈 것을 희망함.
 - 동 장관은 통상사절단의 방문 등 상호 인적 교류의 확대를 희망함.

2. M. Kasongo 실업인 겸 국회의원(1976.11.1.~6.)

- 방한 경위
 - 1974.6월 대통령 특사로 서부아프리카를 방문한 김용태 의원이 동 의원의 방한 초청을 건의
 - 1976.6월 대한방직 회장 명의로 초청
- 주요 일정
 - 방직협회 회장 면담
 - 상공부차관, 경제기획원차관, 국회의장, 외무부차관, 국무총리, 코트라 사장 면담

Anane-Binfoh, K. 가나 재무차관 방한, 1976.10.10.-13.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M-6-39 / 10 / 1-127

K. Anane-Binfoh 가나 재무차관이 1976.10.10.~13. 방한함.

1. 방한 경위

- 동 차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IMF(국제통화기금) 총회 참석 계기에 개발도상국으로서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을 파악하기 위해 방한함.

2. 주요 일정

- 한국은행 방문: 한국경제 브리핑
- 외무부차관 면담 및 만찬
- 재무부장관, 항만청장 예방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관광공사 방문

3. 윤하정 외무부차관 면담(1976.10.11.)

- 윤 차관은 아프리카의 지도적 국가인 가나와 공식관계 수립 희망을 표명하고, 정부의 통일 정책을 설명함.
- 가나 측은 한국 원양어선의 조업과 관련하여 한국과 어업 합작회사 설립 및 가나가 추진 중인 자유무역항 건설에 한국의 지원을 희망함.

말레이시아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 경제협력

MF번호 M-6-41 / 10 / 1-207

1976년 중 말레이시아의 경제관계 주요인사가 방한함.

1. Razaleigh bin Tengku 재무장관(1976.10.9.~12.)

- 방한 경위
 - 1976.6월 주말레이시아대사 보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수상은 1977년도 방한을 희망하면서 자신의 방한 이전에 동 재무장관을 먼저 방한하도록 지시함.
 - 10월 동 재무장관은 재무부장관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함.
- 방한 목적
 -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 석유화학 공업 부문 및 양국간 건설사업 협력, 안보협력에 관한 협의 희망
- 주요 일정
 - 재무부장관 예방 및 경제현황 브리핑
 -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예방
 -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 새마을 현황 브리핑 및 새마을 시찰, 동명목재, 울산 현대조선소, 현대자동차 시찰

2. Haji Ramly bin Omar 주택성 정무차관(1976.10.19.~23.)

- 방한 경위
 - 건설부는 1976.9월 대말레이시아 건설수출 촉진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건설부 정무차관 및 주택성 정무차관을 건설부차관 명의로 공식 방한 초청함.
- 방한 초청 목적
 - 한·말레이시아 간 유대 강화 및 말레이시아 건설업 진출 협의
- 동 차관은 주택성 간부직원과 함께 동경을 경유하여 방한함.

Hisham Mohiddin NAZER 사우디아라비아 기획장관 방한, 1976.4.3.-7.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중동 / 통상3

MF번호 M-6-39 / 11 / 1-89

Hisham Mohiddin Nazer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원장관이 1976.4.3.~7. 방한함.

1. 방한 경위

-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75.6월 친한국 인사로 사우디아라비아 신정부의 실권자인 Nazer 경제기획원장관이 한국 대학의 명예박사학위 취득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동인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 문교부는 Nazer 장관에게 고려대학교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

678

2.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예방
- 포항 및 울산 산업 시찰

3. 남덕우 경제부총리와의 면담(1976.4.6.) 시 합의사항

- 한국은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Jubail 및 Yanbu 공업단지의 기간산업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함.
 - Jubail 및 Yanbu 공업단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 측에 전달 예정
- 사우디아라비아 기획성차관, 재무경제성차관을 방한 초청하기로 함.
- 사우디아라비아 기획 전문가 박승 박사 후임으로 구본호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를 추천함.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관계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39 / 12 / 1-73

1975~76년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관계 주요인사의 방한 초청에 관한 내용임.

1. Mahsoun Jalal SFD(사우디개발기금) 부총재 및 Faisal Al-Bashir CPO(중앙기획기구, 경제기획부의 전신) 차관 방한 초청 교섭 내용

● 초청 경위

- 1975.9.24. 경제기획원차관 명의 초청장을 항공우편으로 송부
- 1975.9.25. 경제기획원 측은 외무부에 초청 수락 파악 요청
- 1975.9.30.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Jalal 부총재는 SFD 차관 서명을 한국에서 할 수 있다고 언급한바 있으므로 방한 가능하고, Bashir 차관은 현재 휴가중인바 방한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함.
- 1975.12.1. 외무부는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에 초청장 사본 전달 지시
- 1975.12.24. 동 대사는 초청장 사본 전달
- 1976.1.5. 외무부는 경제기획원에 SFD 부총재 방한 초청장 재작성 요청
- 1976.1.15. 외무부는 동 대사관에 초청장 송부

● 초청 결과

- 1975.9~76.1월 중 수차례 방한 초청장을 전달했으나 성사되지 않음.

2. Mansoor Al-Turk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재무성차관 및 Obaid 리야드대학 교수 방한(1976.10.10.~16.)

● 초청 경위

- 1976.6.3.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가 초청장 전달을 보고
- 1976.6.7. 경제기획원은 외무부에 방한 일자 등 구체적인 사항 파악 요청
- 1976.8.1. 동 대사는 10.10. 도착으로 Turk 차관의 방한 일정을 보고하면서, Obaid 교수는 부재중으로 한국 도착 시간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동 차관과 동행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함.
- 1976.9.11. 경제기획원은 방한 일정을 전달하도록 외무부에 송부

● 주요 일정

- 10.11. 경제기획원차관, 부총리, 재무부장관, 재무부차관 예방
경제기획원차관 주최 만찬
- 10.12. 부산항, 울산 현대조선소 시찰
현대조선사장 주최 만찬



- 10.13. 포항종합제철 시찰, 포항종합제철사장 주최 오찬
경주시장 주최 만찬
- 10.14. 대전시장 주최 오찬, 재무부차관 주최 만찬
- 10.15. 중동문제연구소 세미나 발표 및 동 연구소장 주최 오찬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 KDI(한국개발연구원) 시찰
- 10.16. 국무총리 예방(훈장 수여)

Hussain MANSOURI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성차관 방한, 1976.7.16.-20.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39 / 13 / 1-61

Hussain Mansouri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성차관이 1976.7.16.~20.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4.6.6. 건설부차관 명의로 Mansouri 차관을 방한 초청함.
- 1976.5월 건설부장관은 동 차관의 방한을 촉구하는 서신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을 통하여 전달함.
- 1976.5.29. 홍순길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건설관이 동 차관에게 방한 초청장을 직접 전달함.
- 동 차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할 뜻을 밝히고 방한 일자를 추후 통보하기로 함.

2. 주요 일정

-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건설부장관, 외무부차관 예방 및 면담
- 한국도로공사, 현대조선소, 인천항선표, 포항공업항,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 경주 시찰

3. 방한 성과

- 한국의 건설기술 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고양
- 현대조선소를 단기간에 시공한 기술수준과 기동력을 높이 평가
- 체신부 운송국 신설에 따른 육운 해운관계 관리 및 시설 전문가 파견 희망
- 불이익공사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에 대한 지원의사 표명
- 진출업체 대표자와 개별접근 허용 표명
- 국가 관심 사업은 정부기관의 채널을 통하여 협조 희망

한국의 대피지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M-6-39 / 14 / 1-20

정부의 1975~76년 중 피지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정부는 1975.12월 한·피지 우호관계 증진을 위하여 3만 달러의 대피지 원조를 결정함.

- 피지는 1970년 수교 이래 유엔에서 한국입장을 지지하였으나, 1973.2월 한국수산물개발공사 어선단 철수 이래 대한민국 태도를 변경하고, 1975.4월 북한과 수교
- 1975.6월 수해복구원조 1만 달러 원조 및 예술단 초청 이래 대한민국 관계가 개선되고 최근 대양주 국가에서 북한이 철수하고 있는 등 시기적으로 피지의 대한민국 태도를 호전시키기 위한 지원 필요

682

2. 원조 결정 과정

- 1975.12.11. 외무부는 대피지 3만 달러 원조 결정을 주호주대사에게 통보
- 1975년 말 주호주대사는 주호주 피지고등판무관에게 원조의 수량, 용도 및 전달방법과 관련하여 피지의 입장을 요청
- 1976.1.9. 주호주대사는 피지고등판무관의 원조 수량 등 피지 정부입장 보고
- 1976.1.12. 주호주대사는 피지고등판무관에게 3만 달러 전달
- 1976.1.16. 피지고등판무관은 주호주대사에게 사의 표명 공한 송부

3. 피지 정부의 사의 표명

- 1976.2.25. 주호주 피지고등판무관은 사의 표명 및 기금 사용 계획을 알리는 Kamisese Mara 피지 수상의 최규하 국무총리 앞 서한을 전달함.

한국의 대그레나다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남미담당관 / 경제협력2

MF번호 M-6-39 / 15 / 1-61

정부의 1976년 그레나다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원조 경위

- Gairy 그레나다 수상은 1976.4.28.~5.2. 방한 중 한국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재정적인 원조를 요청
- 대그레나다 원조 문제 대책회의 개최(4.29.)
 -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 참석
 - 20만 달러의 재정원조, 기술연수생 초청 등 결정

2. 원조 결정

- 한국 정부는 1976.5.1. 양해각서 수교 형식의 원조 시행 결정
- 양해각서 주요 내용
 - 한국의 20만 달러 원조 제공
 - 편리한 시기에 한국 경제사절단 파견
 - 수 명의 그레나다 기술연수생 및 학생 초청 훈련
 - 그레나다 수역에서 조업 중인 원양물산회사에 대해 행정 지도
- 그레나다 정부는 5.20. Gairy 수상 명의 서한으로 양해각서 제안에 대해 화신하고 추가 지원 요청

3. 원조 제공

-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76.5.20. Gairy 그레나다 수상 명의 한국 외무부장관 앞 서한 접수
- 동 총리는 6.15. 재정원조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전문을 주베네수엘라대사에게 발송
-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7.2. 동 수상에게 수표 전달
- 그레나다는 7.21.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어부용 구명대 500개 지원 요청

한국의 대과테말라 지진구호금 원조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M-6-39 / 16 / 1-125

정부는 1976년 과테말라에 지진구호금을 지원함.

1. 과테말라 지진 발생

- 1976.2.4. 진도 7.2의 강진 발생
- 피해 상황(2월말 과테말라 정부 발표)
 - 인명 피해: 사망 22,778명, 부상 76,504명
 - 재산 피해: 23만동 가옥 파괴, 주택상실자 100여 만 명

684

2. 지진 구호 원조

- 외무부는 1976.2.6. 재해의연금 2만 달러 제공 결정을 주과테말라대사관에 통보
- 정부 지원 제공
 - 2.7. 대통령 명의 위문전 발송
 - 2.9. 2만 달러 재해의연금 전달
- 외무부는 2.12. 보건사회부 및 대한적십자사에 의약품, 기타 구호품 지원을 요청
- 기타 지원 내용
 - 대한약품공업협회: 약 11,000달러 상당의 구호약품(14상자, 약 9천점)
 - 대한적십자사: 1,000달러
- 3.29.자 과테말라 대통령 감사 서한 송부

대케냐 한국산 자전거 송달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M-6-39 / 17 / 1-24

정부는 1976년 케냐에 한국산 자전거를 지원함.

1. 자전거 송달 경위

- 1976.8월 Waiyaki 케냐 외무장관은 방한 중 정부에 자전거 원조를 요청
- 1976.8.26. 외무부는 외교업무 추진 상 기아산업에서 제작한 자전거 구매 협조를 요청
- 1976.8.31. 외무부는 자전거 발송 관련 재무부 및 상공부에 협조 요청
- 1976.9.27. 케냐 외무장관은 자전거가 연말 전에 도착하도록 주케냐대사에게 요청
- 1976.10.12. 외무부는 9.27. 부산항에서 자전거 선적을 완료했으며 11.10.경 몸바사 도착 예정임을 주케냐대사에게 통보

2. 자전거 송달 결과

- 1976.12.7. 몸바사 항구 도착

한국의 대레바논 구호금 원조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M-6-39 / 18 / 1-13

정부는 1974~76년 레바논에 구호금을 지원함.

1. 원조 경위

- 외무부는 1976.12.29. 레바논에 전후 난민구호사업에 따른 구호금 1만 달러 지원 결정을 주유엔대사에게 통보
- 동 구호금은 레바논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며, 레바논 및 아랍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인도적 견지에서 제공

686

2. 원조 결과

- 1976.12.30. 주유엔대사는 주유엔 레바논대사에게 구호금 전달
- 1976.12.30. 주유엔 레바논대사는 한국 정부에 사의 표명 공한 송부
- 1977.3.1. 주유엔 레바논대사는 레바논 정부의 공식 사의 표명 감사 서한 전달

한국의 대레소토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아중동

MF번호 M-6-39 / 19 / 1-146

정부의 1976년 레소토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모터사이클 지원

- 원조 경위
 - 1975.9.25.~10.2. 방한한 레소토 기동경찰대장은 국군의 날 행사 참석 및 기아산업 시찰 시 국산 모터사이클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Jonathan 레소토 수상에게 보고
 - 1975.12.24. Jonathan 수상은 독립 10주년 행사(1976.10.4.) 참석 호송용 모터사이클 24대 지원 및 시범 훈련관 1명 파견을 요청하는 대통령 앞 서한을 송부
 - 1976.2.23. 모터사이클 제공 결정 통보 및 대통령 친서 송부
 - 1976.3.31. 레소토 수상 감사 서한 송부
- 원조 필요성
 - 전통 우방국으로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전폭 지지해왔으나, 제30차 유엔정치위원회 표결에서 공산 측 안에 대한 기권으로 후퇴 등 레소토 정부 내 입장 동요
 - 원조를 통한 우호관계 심화 및 북한의 침투 저지 등 도모 필요
- 원조 제공
 - 기아기연(기아산업의 이륜차 부문) 측 기술자 1명 파견
 - 레소토 정부는 7.30.자 공한으로 모터사이클 레소토 도착 통보

2. 군용 장비 등 지원

- 원조 경위
 - A.S. Mohale 레소토 체신장관은 제9차 세계반공연맹총회 참석차 방한 중 1976.4.27. 민주공화당 사무총장 예방 시 랜드로버 지프차 등 지원 요청
 - 정부는 5.31. Jonathan 수상의 방한에 즈음하여 모터사이클, 지프차, 전투복, 태권도복 등 지원 결정
 - 국무총리는 5.31. 동 수상 면담 시 원조 내역 통보
- 원조 제공
 - 특별자금 3만 달러 지원(5.31.)
 - 모터사이클 24대(6월)
 - 군용 지프차 5대(8월)
 - 태권도복 300벌(9월)
 - 군복, 군화, 군모 각 1,000개
 - 조종사 4명 체한 훈련

한국의 대스와질란드 의료단 파견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39 / 21 / 1-30

정부는 1976년 중 스와질랜드에 의료단 파견을 검토함.

1. 주유엔 스와질랜드대사는 UNDP(유엔개발계획)의 재정난으로 차질이 초래된 UNDP 7개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원조 요청 서한을 1976.4.28. 한국 포함 16개국 대표부에 송부하고, 5.18. 주유엔 대사를 방문하여 한국 정부의 원조 제공을 호소

- UNDP 프로젝트: 축산물 생산, 수로 및 하수도 관리, 체신청 재정 통제, 주택개발 등

688

2. 정부는 7개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기술원조는 원조규모 및 기술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 UNDP를 통한 원조제공보다는 양국간 협정에 의한 직접 기술제공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2명의 의료단 증파 방침을 결정하고, 스와질랜드 측과 협의하도록 1976.6.24. 주유엔대사에게 지시

- 주유엔대사는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의료단 증파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겸임대사 파견 협의 필요성을 건의

3. 비동맹 및 유엔 대책의 일환으로 노신영 주제네바대사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976.7월 스와질랜드 등 동부아프리카에 파견

- 노신영 특사의 스와질랜드 방문 시 의료단 2명 증파에 양측이 양해

한국의 대서사모아 및 통가 의료품 원조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M-6-39 / 22 / 1-70

정부는 1975~76년 서사모아 및 통가에 의료품을 지원함.

1. 원조 경위

- 1975.12.18. 주뉴질랜드대사는 의료품 지원을 건의
 - 1975.10월 통가·소련 수교 및 1975.11월 서사모아·중국(구 중공) 수교 계기로 공산국가의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이로 인한 북한의 수교 획책 등 침투 기도에 대비
 - 관계 증진의 일환으로 가제, 붕대 등 의료품 지원 건의
- 1976.1.29. 주뉴질랜드대사는 침상 시트, 수건 등 추가 지원 건의
- 1976.5.22. 외무부는 병원 침상 시트 원조 결정
 - 서사모아(600장), 통가(400장)
- 통가 수상 1976.6.10.자 감사 서한 송부
- 서사모아 수상 1976.6.15.자 감사 서한 송부

2. 서사모아 원조 제공

- 1976.11.4. 주뉴질랜드대사는 수상, 각부 장관 등 100여명 초청 만찬 석상에서 Tupuola 수상에게 병원 침상 시트 600장 전달
- 성과
 - 12.1. 유엔에 가입한 서사모아의 국가원수 및 수상으로부터 한국입장 지지 획득

3. 통가 원조 제공

- 1976.11.8. 주뉴질랜드대사는 통가 Vaiola 병원에서 언론인 입회 하에 Foliaki 보건차관에게 병원 침상 시트 400장 전달
- 성과
 - 유류공급 합작회사 설립 협의 등 경제 진출

한국의 대터키 지진 원조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M-6-39 / 23 / 1-31

1976년 터키 지진에 대한 한국 정부와 각국의 지원 내용임.

1. 터키 지진 발생

- 1976.11.24. 터키의 이란 국경접경 동부지역에서 진도 7.6~7.9 지진 발생
- 재해 상황
 - 사망 3~4천 명, 이재민 약 15만 명(116개 촌락 파괴)

690

2. 한국의 원조 내용

- 11.26.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터키적십자 총재 앞 위로전문 발송
- 11.26. 국무총리 명의의 터키 수상 앞 위로전문 발송
- 11.27. 정부는 특별구호금 1만 달러 지원 통보
- 12.9. 전국재해대책협의회 2천 달러 송금
- 12.16. 대한적십자사 1천 달러 송금

3. 외국의 지원 내용

- 서독: 천막 150개, 담요 3천 매, 의류 1천 상자
- 이탈리아: 담요 1만 매, 응급 치료약품 1만 5천 상자, 링거 5천 5백 개
- 스위스: 조립식 가옥 12채(3,600명 사용)
- 미국: 천막 1천 개, 담요 1만 매, 가스 8천 드럼
- 이란: 2대의 특별수송기로 구호품 전달
- 파키스탄: 1대의 특별수송기로 구호품 전달
- 유니세프: 2만 5천 달러 상당 의류

한국의 대아프리카 무상원조 계획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M-6-39 / 24 / 1-29

정부의 1976년 중 아프리카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대아프리카 경제기술협력 방안

- 원조 현황
 - 1968년도부터 의료단 파견과 연수생 초청 및 물자 지원 시행
- 경제기술협력 방안
 - 국제협력 조정위원회 활용
 - 정부의 지원 체제: 투자금융 면에서의 특혜부여, 진출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투자보험제도 확립, 종합상사 활용 등
 - 투자사업 선택: 수산업, 섬유산업, 전자공업

2. 1976년도 원조사업 내용

- 라이베리아: 매스 게임 교관단 파견, 기술훈련소 1개소
- 시에라리온: 이동진료 차량 및 기자재
-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의약품, Kisangani 병원 인수 운영에 따른 의료요원 파견
- 차드: 군화, 군복
- 중앙아프리카: 앰불런스 5대, 건축 기사 파견
- 가봉: 의료단 증파, 태권도 사범 2명 파견
- 레소토: 모터사이클, 농업사업 조사단 파견
- 우간다: 의사 파견 등 의료 지원
-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천막 등 공병 장비

한·미국 농산물 도입협정에 의한 미국 농산물 구입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39 / 25 / 1-73

1976년 중 PL480호(미국 농업수출진흥 및 원조법)에 따른 한·미국 간 농산물 구입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PL480(I) 농산물 도입협정에 따른 농산물 구입 협의

- 1976.2.18. 및 4.9.에 1976 PL480(I) 체결
 - 현미 11만 5천 톤, 소맥 40만 톤, 원면 5만 8천 표 도입
- 3.22. 양국간 협의 내용
 - PL480 쌀 구매와 관련하여 미국 측은 FOB(Free On Board) 또는 FAS(Free Alongside Ship) 조건 구입을 종용하였으나, 한국 측은 PA상에 서부 산 쌀 칼로스로 한정하여 주기를 요청
 - 원맥 CCC Credit 관련하여 한국 측의 50만 톤 요구에 대해 미국 측은 예산 지원 한정으로 추가 검토 의견 표명
- 3.26. 미국 농무부와 합의
 - 한국 측이 원하는 서부 산 쌀 낙찰 시 유찰시키고 재입찰 조건으로 PA 서명
 - 원맥 CCC Credit은 1976 회계연도 예산에서 3천만 달러 공여
- 4.20. 미국 농무부는 현미 도입 구매승인서 발급
 - 금액(1,340만 달러), 물량(5만 7천 M / T)
 - 계약기간: 1976.4.27.~5.30.
 - 선적기간: 1976.5.10.~7.31.
- 5.5. 미국 농무부는 소맥 잔량 및 원면 구매승인서 발급
 - 소맥: 20만 톤(2,850만 달러)
 - 원면: 5만 8천 톤(1,800만 달러)

2. PL480(I) 농산물 도입 수정 협정 체결

- 1976.8.9. 수정 협정 체결
 - 소맥 10만 톤
- 9.22. 미국 농무부의 지원 계획 발표
 - 한국에 대해 소맥 48만 톤, 현미 10만 톤, 원면 7만 톤 지원
- 12.22. 수정 협정 체결
 - 현미(5만 톤), 소맥(10만 3천 톤), 원면(3만 톤)
 - 공급기간: 1977.5.31.까지
 - 상환비율: 9천 7백만 달러(미국 3천 2백만 달러 제외)는 30%, 미국 3천 2백만 달러는 25%, 나머지 2천 5백만 달러는 20% 적용

영국의 고리1호기 원자로 건설을 위한 추가 차관도입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39 / 26 / 1-261

1974~76년 중 고리1호기 원자로 건설을 위하여 영국으로부터 추가 차관을 도입함.

1. 추가 차관 도입 경위

- 1976.4.2. 미국 EXIM(수출입은행)에 1,247만 달러 차관 신청
- 1976.5.8. 미국 EXIM의 제공 불가 통보 접수
- 한전·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에 의거하여 1976.10.1.부터 매월 추가 소요분을 지불해야 하므로 자금 확보를 위해 영국에 지원 요청

2. 영국을 통한 차관 도입

- 외무부는 1차 차관 시 영국 정부의 ECGD(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 보증이 있음을 감안하여 1차 차관과 동일 조건의 차관 제공을 영국 정부 및 ECGD에 요청하도록 1974.6.18. 주영국대사에게 지시
- ECGD 측은 이미 한국의 유사 프로젝트에 보증 약속한 관계로 추가 지원 불가 통보
- 1976.6.17. 영국 Lazards에 2,404만 7천 달러 차관 추진
- Lazards는 ECGD 보증차관 및 유로달러 차관 병행추진 제의
- 1976.7.29. 한전·Lazards 간 차관 조건 합의
- 1976.8.16. 차관협정서 서명

3. 차관 계약 내용

- 차관금액: 6백만 달러
- 대주: Lazards Brothers & Co. Ltd.
- 차관조건: 이자율(리보+2%), 거치(1.5년), 상환(3.5년), 지불보증(한국산업은행)

AID(미국국제개발처) 주택 개량사업 차관도입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39 / 28 / 1-19

694

1. 주택 개량사업 차관도입 경위

- 1976.1.22. AID(미국국제개발처) 주택국장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에게 1975년 한국에 공여한 차관 자금 집행 등을 언급하고, 서울시 주택사업 지연 시 1976년도 주택차관 공여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 표명
- 1976.8.2. 경제기획원은 외무부에 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500만 달러 차관 관련 정부와 AID간 지불보증협정 체결을 주미국대사에게 위임한다고 통보
- 1976.8.5. 주미국대사는 AID가 서민주택건설 차관 1,500만 달러 보증협정 체결을 요청함을 보고
- 1976.8.5. 주미국대사는 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서울시와 Federal Home Loan Bank of New York간 차관 계약(5백만 달러) 및 한국 정부와 AID간 차관보증협정이 1976.8.4. 워싱턴과 뉴욕에서 각각 서명되었음을 보고

2. AID 보증차관 협정 체결

- 체결일 및 장소: 1976.8.10., 미국 국무부
- 서명자
 - 정부지불보증협정: 양윤세 주미국대사관 경제공사, Michael Adler AID 아시아국 차장
 - 차관계약: 김필균 대한주택공사 개발이사, Morgan Guaranty Trust of New York 은행장
 - 집행협정: 김필균 대한주택공사 개발이사, Michael Adler AID 아시아국 차장
- 내용
 - 1976년도 제4차 보증차관 1,500만 달러 제공

EXIM BANK(수출입은행) 원자력발전소(고리2호기) 건설 차관 도입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 북미1

MF번호 M-6-39 / 27 / 1-64

1974~76년 중 원자력발전소 고리2호기 건설을 위한 미국 EXIM Bank(수출입은행) 차관 도입에 관한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74.4.18. 한국전력 사장은 EXIM을 방문하여 원자력 2호기 사업 협의
- 1974.6월 차관 신청서 제출
- 1975.3.13. 외무부차관은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 면담 시 차관 문제 협의
- 1975.4.18. Les Aspin 미국 하원의원은 미국의 대한민국 핵연료제공 반대 보도자료 배포
- 1975.9.30.~10.3.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장 및 주미국대사관 과학관은 미국 NRC(원자력규제 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위원장 등과 원자력 분야 협력방안 협의
- 1975.10.7. 고리1호기 핵연료 수출허가 NRC 최종 승인
- 1975년 말 NRC는 주미국과학관에 플루토늄과 우라늄 혼합 핵연료 사용 결정 통보
- 1976.5.20. EXIM 대표단은 방한 시 차관 협의
- 1976.8.19. 한국전력은 EXIM 차관협정 체결 시한인 8.31.까지 공급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외무부에 차관협정 시한 연장교섭을 요청
- 1976.8.25. EXIM 아시아지역담당 부총재는 주미국대사관 공사에게 한국전력이 교섭 중인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파기 및 별도의 공급자를 물색하여 새로운 형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방안 제시

2. 원자력발전소 건설 차관 및 사업 개요

- 발전소: 경남 고리 소재
- 발전량: 65만 K / W
- 총 차관액: 미국 EXIM(2억 9천만 달러), 영국(1억 8천만 달러)
- 차관조건: 완공 후 6년 거치 15년 상환, 이자율 8.5%
- 차주: 한국전력

EXIM BANK(수출입은행) 차관도입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41 / 14 / 1-298

1973~76년 중 미국 EXIM Bank(수출입은행) 차관도입에 관한 내용임.

1. 서울대학교 병원 시설 확충

- 1973.5.16. 경제기획원은 EXIM 제의 15% 선불금, 85% 차관 제공 환영 의사 표명
- 1973.6.13. 주미국대사관 측은 EXIM에 수락 통보
- 1973.8.14. 국무회의 심의 통과
- 1976.5.24. 부총리 방미 시 주미국대사관 공사와 AHFI(American Health Facilities International) 간 수정계약 체결
- 1976.10.15. 서울대학교 병원장과 AHFI 부사장 간에 병원시설 확충을 위한 국산대체품목 관련 합의 서명

2. 동양시멘트 공장 증설

- 1973.5.25. 외무부는 동양시멘트 증설을 위한 차관계약 인가 신청서를 검토 중임을 주미국대사에게 통보
- 1973.7.25. 제79차 외자도입심의위원회에서 차관 계약 인가 의결
- 1975.8.31. EXIM과의 차관계약 제5조 규정 일부 완화 조정 요청을 주미국대사에게 통보
- 1975.9.2. EXIM 총재 명의로 동양시멘트 측에 입장 통보

3. 제2위성통신지국 건설

- 1974.5.27. 체신부는 5백만 달러 차관 추진 교섭 요청
- 1974.9.5. EXIM 이사회 차관 승인

4. 화력발전소 건설

- 인천 화력발전소
 - 1974.6.6. 주미국대사관 공사와 EXIM 아시아담당 이사 간 논의
- Combined Cycle 발전소
 - 1976.6.29. 발전소 건설 승인
 - 1976.11.4. 차관 협정 서명
 - 1976.11.27. 정부 인가



5. 새우 트롤선 도입

- 1975.5.13. 새우 트롤선 50척 도입을 위한 차관 계약 체결
- 원금 상환일자(1976.8.5.)의 6개월 연기 교섭 진행
- 1976.9.17. 경제기획원은 한국수산물개발공사 관련 EXIM 요청 자료(재무구조 악화, 제동산업 흡수합병 문제) 전달을 외무부에 협조 요청

6. 마이크로웨이브 확장

- 1976.8.13. 국무회의에서 1,500만 달러 차관 협정 의결
- 1976.8.24. 협정 서명

7. 목포조선소 건설

- 1976.8.19. 경제기획원은 목포조선소 건설사업(차관금액: 828만 달러) 관련 자료를 통보
- 외무부는 주영국대사에게 자료 송부

벨기에의 상업차관도입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40 / 1 / 1-61

1975~76년 중 벨기에 상업차관도입에 관한 내용임.

1. 지방공산품 검사소 및 전기전자제품 검사소 시설 확장 차관

- 1975.6.24. 남덕우 부총리의 벨기에 재무장관 및 경제장관 면담 시 3개 차관사업 제의
- 1975.7.10. 주벨기에대사관의 한국 측 제의 확인 구상서 송부
- 1975.7.25. 공업진흥청의 지방공산품 검사소 및 전기전자제품 검사소 확장 관련 자료 송부 요청
- 1976.4.12. 경제기획원은 사업목적이 각각 상이하므로 통합 추진 불가능 의견 송부
- 1976.4.29. 주EC(구주공동체)대표부는 양 사업계획의 분리 작성 요청

2. 코리아 타코마 사업 차관

- 1975.10.30. 경제기획원은 코리아 타코마 측의 차관(2억 달러) 교섭 위임 수락
- 1976.3.2. 벨기에 통상장관 관방실장은 주벨기에대사관 경협관에게 2억 달러 차관 가능성 언급

3. 은행차관 교섭

- 1975.11월 주EC대사는 Banque de Bruxelles Lambert 명예회장 면담 시 차관 가능성 문의
- 1975.12.30. 재무부는 차관 공여 관련 약정적인 의사표시는 하지 않고 도입 가능성을 주시하도록 요청

4. 화학펠프 공장 건설 차관

- 1976.2.17. 경제기획원은 캐나다 EDC(캐나다수출개발공사) 차관 공여 불가로 독일을 주축으로 하는 유럽 컨소시엄을 조직하고 소요자금 주선 협조를 요청
- 1976.6.5. 상공부는 국내원료로 생산 가능한 하루 300톤 생산 규모의 공장 축소 건설 및 외자 차관 교섭 다변화 결정을 통보하고 차관 교섭 협조를 외무부에 요청
- 1976.6.10. 경제기획원은 7개 회사에 입찰 명세서 발송 및 유럽 차관단 응찰 협조 요청

벨기에 핵연료 재처리 가공시설 사업 차관 도입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40 / 2 / 1-57

1974~76년 중 핵연료 재처리 가공시설 사업을 위한 벨기에 차관 도입 교섭 내용임.

1. 한국과 벨기에 정부 간 합의

- 1974.5.8.~11. 과학기술처장관의 벨기에 방문 시 한국과 벨기에 정부 간 아래 사항 합의
 - 기술원조: 특수 핵연료 가공사업 타당성조사, 개념 설계, 요원 및 전문가 훈련을 위한 무상 원조(30만 달러)
 - 차관: 동 사업의 연구자재와 시설을 위한 공공차관 제공(2백만 달러)

2. 원조 신청 및 협의

- 1974.12.28. 외무부는 사업계획서를 주벨기에대사관에 송부하고 수원 교섭을 지시
 - 사업기간: 1975년(1년간)
 - 수원규모: 30만 달러(용역 13만, 요원파견훈련 13만, 외국인 전문가 초청 4만 달러)
- 주벨기에대사는 벨기에 대외통상성 측이 기술원조 제공에 원칙적으로 양해하였으므로 기술검토 중이라고 보고
- 1975.3.28. 원자력연구소 부소장의 벨기에 방문 시 Belgonucleaire 측과 기술 문제 협의
- 1975.4.4. 벨기에 측 공급 기관인 Belgonucleaire의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앞 공한 및 계약서 송부
- 1975.5.28.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장은 벨기에 측과 개념연구(Conceptual Study) 계약 초안 및 기술자훈련 계획 협의하고 기술적 문제 합의

3. 재정차관 요청

- 1975.8.21. 주벨기에대사는 벨기에 외무성 앞 구상서로 1976년부터 3~4년간에 걸쳐 4백만 달러 재정차관 공여 요청
- 1975.11.21. 주벨기에대사는 구상서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추진 상황을 문의하는 한편, 재정 차관 정보 제공 요청
- 1976.1.5 벨기에 외무성은 구상서에서 Belgonucleaire 공사의 법적 적격성 문제로 결정 지연 통보
- 1976.2.25. 주벨기에대사는 재정차관 공여를 독촉하는 구상서를 벨기에 외무성에 송부

대사우디아라비아 건설업체 진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M-6-40 / 3 / 1-56

1976년 한국 건설업체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에 관한 내용임.

1. 대사우디아라비아 건설업 진출

- 1976.5.3. 건설부는 주바일 지역에 8월 대규모 공업단지 건설 계획을 검토 중이라면서 동 계획서를 입안한 미국의 Bechtel사와 접촉하여 세부 내용을 입수하도록 외무부에 협조 요청
- 외무부는 사우디아라비아 공업단지 건설개요를 통보하고, 주샌프란시스코대사관 총영사에게 계획서 입수 지시
 - 주바일 공업단지 건설 개요: 석유화학(200만 톤 / 연간), 수출정유공장(50만 배럴 / 일), 윤활유 정제(10만 7천 배럴 / 일) 등
 - 한국 업체 진출 현황: 12개 업체가 7억 8,800만 달러 규모의 항만, 도로, 건축공사 수행

2. 제3차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지상사회의 개최(1976.5.26.)

- 진출업체 계약, 장비보유 및 고용인원 등 건설 분야 현황 설명
- 수출실적, 부진품목 및 수출촉진 방안 등 설명
- 업체에 대한 요청사항: 상사 간 과당 경쟁지양, 수출 노력 집중, 중동지역에 맞는 신규 품목 개발, 국산자재 사용 권장 등
- 업체별 추진 현황, 어려움 및 건의사항

3.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의 정세 보고(1976.6.18.)

- 개황: 정치, 경제, 외교, 군사
- 한국의 대사우디아라비아 진출
 - 진출 현황: 건설, 인력, 상품 수출, 기술 및 경제협력
 -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장·단점
 - 대사관의 지도 방침: 사명감 등
 - 전망: 건설 분야, 인력, 상품수출 분야, 기술 및 경제협력 분야

한·호주 기술협력 사업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M-6-40 / 4 / 1-40

1974~76년 중 한·호주 간 기술협력 사업을 위한 교섭 내용임.

1. 경위

- 1973.12월 과학기술처장관의 호주 방문 시, 호주 정부는 기술협력 사업에 관해 호의적 고려 약속
- 1974.1월 과학기술처와 주한 호주대사관 실무 합의
- 1974.1.30. 과학기술처는 콜롬보계획에 의거하여 양국간 기술협력사업 추진을 외무부에 요청

2. 한·호주 기술협력사업 내용

- 복합분 연구개발사업: 8만 4천 호주달러
 - 복합분 생산 및 식품제조
- 철도고등학교 시설확충사업: 65만 호주달러
 - 교육용 기자재
- 운봉축산고등학교 시설확충사업: 14만 6천 호주달러
 - 외곽실습 시설, 기계기구, 가축 등 축산학교 육성
- 성환축산고등학교 시설확충사업: 11만 8천 호주달러
 - 외곽시설, 실험실습 기자재

3. 교섭 과정 및 결과

- 1974.2.11. 외무부는 최근 양국관계를 감안하여 추후 추이를 보아 원조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결정
- 1974.4.1. 과학기술처는 아래의 근거로 동 사업의 조속 수행 필요성을 외무부에 제기
 - 용산공업고등학교 시설확충사업 및 운봉시범면양목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 원조가 없을 경우 차질 초래
- 1974.4.30. 외무부는 동 사업 추진 결정을 과학기술처에 통보하고, 주호주대사에게도 지원을 지시
- 1975.3.31. 문교부는 성환축산고등학교 사업을 취소하고, 대체사업으로 대관령축산고등학교 및 발안축산고등학교 시설확충사업 추진을 요청
- 1975.4.4. 과학기술처는 복합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명의 호주 파견 훈련요원을 추천
- 1976.5.10. 외무부는 호주 측이 용산공업고등학교 및 철도고등학교 사업에 협력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다고 과학기술처에 통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이집트 Cairo대학 간 기술협력 추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M-6-40 / 5 / 1-19

1976년 중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이집트의 대학 간 기술협력 추진을 검토함.

1. KIST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대학 간 기술협력 추진

- 1975.12월 호주 개최 국제부식학회에 참석한 이집트 대표인 알렉산드리아대학 교수는 KIST와의 연구원 교류를 통한 기술협력을 제의하는 서신을 송부
- 1976.1.26. 과학기술처는 이집트 측의 의사에 대한 확인을 외무부에 요청
- 주카이로총영사는 동 대학 부총장이 동독 로스토크대학과의 협력에 준하는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나, 예산은 정부의 고등교육부 소관이며 정치적 성과가 의문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집트 Cairo대학과의 기술협력 추진을 건의함.

2. KIST와 이집트 Cairo대학 간 기술협력 추진

- 주카이로총영사는 1974.8월 방한한 바 있는 Cairo대학 부총장을 1976.2.8. 면담하고, 기술협력 가능성을 타진
 - 동 부총장은 서울대학교 또는 KIST와의 협력을 희망하며, 한국 측 인사 초청 의사를 표명
- 문교부는 서울대학교 총장의 교무 형편상 이집트 방문 초청에 응할 수 없음을 통보
- KIST도 방문 초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한·프랑스 간의 아주공과대학 운영 및 장래 문제 협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1 / 공보문화

MF번호 M-6-40 / 6 / 1-90

1976년 한국과 프랑스는 아주공과대학(아주공대)의 운영과 장래 문제를 협의함.

1. 협의 경위

- 1975.10.22.~23. 개최된 한·프랑스 정부간 회의 시, 아주공대의 1976학년도 입학정원 증원에 합의
 -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각 40명, 총 120명 증원
- 1976.1.14. 주한 프랑스대사는 외무부장관을 예방하고, 아주공대 경영상의 문제 파악을 위한 양국 정부의 대학재단 참여 필요성을 제기
- 1976.1.19.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아주공대 경영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하여 외무부에 공한으로 통보
- 1976.1.31. 외무부는 문교부에 아주공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의 및 조치를 요청
- 1976.2.3. 주한 프랑스대사관 참사관은 외무부를 방문하여 아주공대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프랑스 측의 요망사항을 전달

2. 아주공대 운영을 위한 한·프랑스 협의회(1976.2.9., 문교부 상황실)

- 대표단
 - 한국 측: 문교부 교육시설국장, 외무부 공보문화과장, 과학기술처 지역협력과장 등
 - 프랑스 측: 문교부 장학총감,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정관
- 협의 및 합의사항
 - 아주공대의 건전한 운영
 - 학교 실험실, 기계실 등 운영 예산의 정당한 집행
 - 행정, 학술 양면에서 자격 있는 학장의 선임
 - 유신재단의 강화 방안

3. 프랑스의 아주공대 운영 지원

- 프랑스 측은 한국 측 요청에 따라 500만 프랑의 기재 공여에 합의
 - 1차분(1972~74년): 57만 달러, 2차분(1975년): 47만 달러
-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76.1.29. 아주공대에 3만 7천 달러 기자재 제공 결정을 통보

한·일본 과학기술장관회의 실무자 회의, 제6차. 동경, 1976.12.15.-19.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M-6-40 / 7 / 1-103

제6차 한·일본 과학기술장관회의 실무자회의가 1976.12.15.~19. 동경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임용규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 일본 측: 후쿠나가 히로시 과학기술청 진흥국장

2. 개최 경위

- 1967년 미얀마(구 버마) 랑군에서 개최된 제18차 콜롬보 각료회의의 참석 후 한·일본 과학기술 처장관 간 개최 합의
- 1968년 뉴델리 개최 CASTASIA 각료회의 후 재확인
- 1968년 제1차 과학기술장관회의 개최 이래 1974.5월 제4차 장관회의 개최
- 1976.12.6. 제6차 실무자회의 참가 정부대표 임명

3. 주요 의제

- 원자력 발전 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협력, 레이저의 이공학적 응용 연구, 금형 가공 기술 협력, 환경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 방안 등

4. 결과

- 자원 에너지 분야
 - 태양 에너지 기술협력을 위한 정보교환 및 전문가 1명의 한국 파견, Remote Sensing 기술연구 등
- 농수산 분야
 - 수리불안전담 지대에서의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기술의 현지 개발 연구 등
- 이공학적 이용기술 분야
 - 레이저의 이공학적 응용연구, 금형가공 기술협력, 기계 기술협력 등
- 환경과학방재 분야
 - 환경 문제에 관한 양국간 협력, 방재과학 기술협력
- 원자력 안전성 분야
 - 지진 시 원자로 구조물 거동 연구를 위한 한국 조사단 파견 등 협력, 원자로 안전성 분석 코드의 정비개발 등
- 기관 간 협력
 - 일본의 기술이전 창구 개설, 학회 학술활동 조성 등

아프리카 파견 의료단 계약기간 연장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 동부아프리카

MF번호 M-6-40 / 8 / 1-12

1. 주케냐대사는 1975.8월 겸임국인 스와질랜드를 방문하고 동국에 파견된 의료단의 계약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보고함.

- 스와질랜드 당국은 당초 두 의사간의 불화로 정부 파견의사 1명의 권고사직 또는 벽지병원 전근을 검토하였으나 현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
 - 1976.3월 계약 기간 만료 시 귀국 조치를 건의
- 이후 스와질랜드 정부는 1976.6.2. 두 의사의 근무기간 연장에 동의

2. 1976.7.28. 외무부는 1976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정부 파견 의사의 계약기간 연장 동의 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

- 정부 파견 의사 현황
 - 코트디부아르(1), 니제르(3), 시에라리온(1), 카메룬(1), 보츠와나(2), 감비아(1), 가봉(1), 스와질랜드(2)

미얀마(구 버마) 산업시찰단 방한, 1976.5.31.-6.6.

생산연도 1976

생산과 통상1 / 서남아

MF번호 M-6-41 / 12 / 1-210

미얀마(구 버마) 산업시찰단이 1976.5.31.~6.6.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6.5.5. 제1공업부장관은 주미안마대사를 초치하여 산업시찰단의 한국 파견 제의
- 1976.5.7. 통상부장관은 주미안마대사를 초치하여 산업시찰단 파견을 재통보
- 1976.5.8. 외무부는 미얀마 산업시찰단 방한을 상공부 등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
- 1976.5.8. 상공부 측은 동 시찰단의 방한을 수락

706

2. 방한 목적

- 한국의 산업발전상 시찰
- 양국간 통상증대를 위한 의견 교환
- 선박 등 109개 품목에 대한 수입 문제 협의

3. 주요 일정

- 6.1. 상공부장관 예방, 연불수출회의 개최 인사, 외무부장관 예방 및 장관 주최 오찬, 한국유리 인천공장, 인천 갑문, 방림방적공장 시찰
- 6.2. 남양어망 부산공장, 대동조선, 한국요업공장 시찰, 울산 석유화학지원공단, 현대자동차공장, 현대조선소 시찰
- 6.3. 포항 종합제철공장 시찰
- 6.4. 제2땅굴, 선경합섬 수원공장 시찰
- 6.5. 한독약품공장 시찰, 국무총리 예방, 삼양식품공장 및 서울미원공장 시찰

대우간다 지하자원조사단 파견, 1975.10.8.-11.10.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M-6-40 / 9 / 1-74

정부는 1975.10.8.~11.10. 김종환 공업진흥청 국립지질광물연구소 광상조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우간다 지하자원조사단을 파견함.

1. 파견 경위

- 1974.11.28.~12.5. 상공부장관의 우간다 방문 시 양국은 지질조사단 파견에 합의
- 1975.4.28. 상공부는 조사단 파견 관련하여 외무부에 자료 협조 요청
- 1975.5.3. 외무부는 조사단 파견계획서를 송부하고, 동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주우간다 대사관에 의견 조회
- 1975.5.23. 주우간다대사는 자원탐사계획에 따른 전문가 파견, 조사 실시 필요성 보고
- 1975.6.10. 주우간다대사는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의 개최로 인한 숙소 부족 사유로 1975.8.2. 이후로 방문 연기 건의

2. 파견 목적

-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우간다의 광물자원을 탐사하여 유망광종에 대해서는 직접 개발에 참여하기 위함.

3. 주요 일정 및 수행 내용

- 주요 일정
 - 1975.10.8.부터 1개월간 우간다 북부 및 서부에 대한 지하자원 예비조사 실시
 - 1975.11.5. 토지 및 수자원부장관 주재 관계 장관회의 참석, 예비조사 결과 보고
- 조사수행 내용
 - 과거 외국조사단 사업성과 조사: 영국, 서독, 캐나다 조사단 성과 없음.
 - 현지 답사 대상: 사금 광상, 흑연 광상, 대리석 광상, 감정석 광상, 우라늄

4. 결과

- 조사단 의견(1975.11월)
 - 사금광, 흑연광, 감정석 광상 등의 지질조사 및 시추조사는 조사가치가 있다고 판단
 - 지질전문가 2명의 2년간 파견 건의
- 과학기술처 의견(1976.7.3.)
 - 동 조사단이 채취한 자료를 분석 시험한 결과, 자원개발 측면에서 한국이 참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

Ueki, Shigeaki 브라질 광산동력성장관 방한, 1976.7.18.-20.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2 / 중남미

MF번호 M-6-40 / 10 / 1-93

Shigeaki Ueki 브라질 광산동력성장관이 1976.7.18.~20.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6.1.6. 주브라질대사는 Ueki 장관을 면담하고, 브라질산 철광석 공급 및 구상무역의 증대를 위하여 Ueki 장관의 방한 초청을 건의
- 1976.1.7. 외무부는 상공부의 의견을 문의
- 1976.1.20. 외무부는 상공부의 방한 초청 수락을 주브라질대사관에 통보
- 1976.1.21. 주브라질대사는 동 장관을 면담하고 방한 초청 의사 전달
- 1976.6.14. 주브라질대사는 동 장관의 7월초 방한 가능성을 외무부에 보고

2. 방한 목적

- 포항종합제철과 브라질 철광석 공급업체 간의 철광석 장기공급계약 서명식 입회
- 한·브라질간의 통상 및 경제협력 증대방안 협의

3.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과학기술처장관, 농수산부장관 예방
- 상공부장관과 회담
- 현대조선사장 주최 오찬
- 공급계약 의향서 서명식 입회 및 공동성명 서명

4. 상공부장관과 브라질 광산동력성장관은 1976.7.19.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Kagule-MAGAMBO 우간다 지질 및 광산청장 방한, 1976.6.15.-20.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M-6-40 / 11 / 1-50

Kagule-Magambo 우간다 지질 및 광산청장이 1976.6.15.~20. 방한함.

1. 방한 경위

- 주우간다대사는 Kagule-Magambo 청장의 방한 초청을 건의
- 1976.1.24. 상공부는 공업진흥청장 명의로 초청 결정 통보
- 1976.5.21. 상공부는 공업진흥청의 과학기술처 이관으로 과학기술처장관 명의로 동 청장 방한 초청 결정

2. 주요 일정

- 6.15. 자원개발연구소장 주최 오찬 및 동 연구소 시찰, 상공부차관 예방
- 6.16. 외무부 경제차관보 예방
- 6.17. 포항제철, 부산 한국요업, 동명합판 시찰,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
- 6.18. 구로공단,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평은광, 진흥요업 시찰
- 6.19. 과학기술처차관, 상공부 국제협력차관보, 외무부 정무차관보 예방

Abdul Mutaleb AL-KAZEMI 쿠웨이트 석유장관 방한, 1976.11.12.-15.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M-6-40 / 12 / 1-12

Abdul Mutaleb Al-Kazemi 쿠웨이트 석유장관이 1976.11.12.~15.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6.10.18. 주쿠웨이트대사는 Al-Kazemi 석유장관을 예방하고, 11.10. 일본 동경에서 개최 되는 에너지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을 요청한바, 동 장관은 에너지회의 참석 후 방한에 동의
- 1976.11.3. 주쿠웨이트대사는 동 장관의 서울 도착 일시 및 체류기간은 확정하기 어려우나 수행원은 경제담당 석유차관 1명이라고 보고
- 1976.11.5. 주쿠웨이트대사는 동 장관의 방한 일정 보고

2. 방한 주요 일정 등은 미상

한·미국 원자력 협력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조사 / 북미1

MF번호 M-6-40 / 13 / 1-106

1976년 중 한·미국 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회의 및 약정 체결에 관한 내용임.

1. 한·미국 간 원자력 기술협력 비공식 회의(1976.1.22.~23.,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
 - 미국 측: Myron Kratzer 국무부 과학담당차관보대리
- 협의 내용
 - 양국간 원자력 분야에서의 대화 확대 및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 원자로 설계, 건설, 운전 및 보수에 관한 협력
 - 연구기관과의 자매결연
 - 핵연료 가공
 - 재처리 서비스
 - 원자로 안전성 분석 및 규제 관련 협력 등

2. 원자력안전규제와 안전연구 관련 기술정보 교환 및 협력 약정 체결

- 1976.1월 한국 측 체결 제의
- 1976.3.18. Dr. Edward A. Mason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과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장 간에 서명 발효됨.

3. 한·미국 원자력 실무협의(1976.12.13.~17., 워싱턴)

- 한국 측 대표
 - 박금식 과학기술처 안전심사관
- 회의 목적
 - USERDA(미국에너지연구개발청)와 특수 핵물질의 Physical Protection에 대해 협의
- 훈령
 - 안전심사관실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세이프가드에 관한 정보자료 교환 및 훈련생 파견을 추진할 것
 - NPT(핵비확산조약)와 한·미국 원자력협력 협정 및 한·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핵시설 및 핵물질의 Physical Protection과 세이프가드에 관한 사항을 한국 정부가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천명하고, 이에 따르는 협력 강화를 적극 교섭할 것
 - 특수 핵물질의 Physical Protection System 개발을 위한 협력 증진을 교섭할 것

한·미국 원자력 협력 공동 상설위원회. Washington D.C., 1976.6.15.-16.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 조약

MF번호 M-6-40 / 14 / 1-246

정부는 1976.6.15.~16.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국 원자력협력 공동상설위원회에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상설위원회 개최 경위

- 1976.2.25.~26.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실무자회의에서 본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712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
- 미국 측: Frederick Irving 국무부 차관보

3. 회의 결과

- 한국 원자력연구소와 미국 알곤 원자력연구소 간 자매결연 체결
- 한·미국 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 합의(9월중 서울에서 체결 예정)
- 한·미국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 설치 결정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와 한국 과학기술처 간 원자로 안전 및 검사·규제에 관한 기술 정보 제공과 직원 교류 확충에 합의
- 원자로 부품 국산화와 원자력발전소 건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요원의 훈련에 대한 미국 측의 적극 지원에 합의
- 상용 핵연료 가공 사업에 미국의 적극 참여에 합의
-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계획 추진 중인 지역 핵연료 재처리센터에 참여할 요원훈련에 합의
- 핵연료 농축계약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
- 고리2호기 차관 신청의 의회 승인 촉구
- 한·미국 원자력협력 공동상설위원회 차기 회의는 1977년 봄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4. '한·미국 원자력협력 공동상설위원회 회의 참석 출장 보고서' 수록

한·엘살바도르 어업협력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40 / 15 / 1-10

1975~76년 중 한·엘살바도르 간 어업협력을 위한 교섭 내용임.

1. 1975.1월 주미국대사관은 엘살바도르와의 어업합작에 관해 주미국 엘살바도르대사관과 협의 중이나 동 대사관으로부터 공식 반응이 없음을 보고해 옴.

- 한국수산개발공사와 엘살바도르 산업진흥청 간의 참치선망 어업합작을 1970년 양국 대통령 공동성명에 따라 추진하였으나 쌍방의 의견차이로 1972.12월 이후 추진이 중단됨.
- 1974.6월 대통령 지시로 추진을 재개하기 위해 주미국대사관 수산관을 현지에 파견하고자 하였으나 엘살바도르 측의 공식 반응 회피로 실현되지 못함.

2. 1976.4월 주멕시코대사는 엘살바도르에 출장하여 양국 어업협력에 대해 논의함.

- 1972.12월 이후 중단된 참치선망 어업합작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민간회사로 하여금 상호협력하도록 지원하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한·엘살바도르 간 어업협력추진을 위해서는 1971년 당시 정부입장의 실효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국제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

한·감비아 어업협력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40 / 16 / 1-18

1976~77년 중 한·감비아 간 어업협력을 추진함.

1. 한·감비아 어업협정 체결

- 1976.7.14. 서울에서 서명
- 한국 측은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조치를 완료하였으나, 감비아 측은 발효 조치 지연

2. 한·감비아 어업협력 회의 개최(1976.8.25.~26., 감비아 반줄)

- 수석대표
 - 한국 측: 지성구 주세네갈대사(감비아 겸임)
 - 감비아 측: M'Boge 농림부차관
- 감비아 정부의 제안 사항
 - 120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수산회사 설립 지분: 감비아 정부 50%, 감비아 민간인 30%, 한국 20%
 - 한국 정부는 선박, 장비를 무상 또는 차관 형식으로 제공하고 트롤어선을 수산회사에 임대
 - 한국 정부는 수산회사의 공장 및 어선 종사원 훈련을 위한 기술협력 제공
 - 한국 정부는 감비아 수산업 발전을 위해 훈련 설비 제공
- 한국 정부의 제안 사항
 - 한·감비아 합작회사 설립(설립 자본금에 동의, 350톤급 10~12척을 도입 운영할 예정)
 - 지분율은 한국 50%, 감비아 50%이나, 감비아 51%, 한국 49%도 수락 가능
 - 선박은 차관 형식으로 도입하고, 선박 상환금은 이익금에서 지불하며 과실 송금 가능
 - 어선 및 육상공장 전문가 5명 훈련은 한국 측 담당
 - 훈련 설비를 한국 측 부담

3. 1977.7.8. 감비아 의회는 1977년 어업법을 의결하고 불법어로 규제를 강화함.

- 감비아 영해를 50마일에서 200마일로 확장하고 불법어로 어선의 벌금액을 증액하며 나포된 선박 및 어획물은 몰수
- 일정한 종류의 선박만 어로에 사용 가능

원양물산(주)의 대그레나다 어업 합작투자

생산연도 1974-1977

생 산 과 생산과없음

MF번호 M-6-40 / 17 / 1-97

1974~77년 중 한·그레나다 어업 협력 추진 경위와 1976.12월 원양물산(주)의 그레나다 어장 철수 관련 내용임.

1. 그레나다와의 어업 협력 경위

- 1974.8.22. 김원규 원양물산 사장은 그레나다 수상과 수산합작회사 설립에 합의
 - 자본금: 5만 달러(지분: 한국 40%, 그레나다 50%, 미국 10%), 향후 10배 증액
 - 사업 분야: 다랑어 및 새우 어업(연안 정치망 어업)
- 1975.7.9. 그레나다 정부는 원양물산의 대그레나다 수산분야 합작투자 승인
 - 12월부터 원양물산 시험조업단 그레나다에 파견
- 1976.4.28.~5.2. Gairy 그레나다 수상 방한 계기 어업협력
 - 방한 시 동 수상이 요청한 원조와 관련하여 양해각서 합의(1976.5.1. 외교부장관 서명)
 - 그레나다 어업기술훈련생 3명 초청 훈련, 원양물산의 시험조업 결과에 따라 상호 유익한 어로 조업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도

2. 원양물산의 그레나다 사업 철수 과정

- 1976.7.6. 주베네수엘라대사는 원양물산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조속한 시일 내 사업 철수 검토를 건의
- 1976.8월 수산청은 원양물산의 대그레나다 어업협력 부진사유 및 추진방향을 외무부에 통보
 - 부진사유: 사용어선 임차구입 지연, 파견기술자 1명 입원, 현지 어장 여건 불량 등
 - 추진방향: 정치망(定置網, 일정한 장소에 쳐놓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 어업시험이 불가하여 참치 연승, 바다가재 및 도미 통발 어업 시험 계획
- 1976.12월 주베네수엘라대사는 원양물산의 자체 사정 및 수산자원 조사 결과 악화로 그레나다에서 철수하였다고 보고
- 1977.1월 외무부는 동 대사의 보고를 근거로 수산청에 원양물산의 철수경위 및 의견 회시 요청

한·기네비소 어업협력, 1976.1.15.-22.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M-6-40 / 18 / 1-9

최휘웅 대림수산 라스팔마스 해외사업부장은 1976.1.15.~22. 기니비사우를 방문함.

1. 방문 목적

- 기니비사우에서 입어로 지불방식에 의한 조업을 위해 사전 수산현황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2. 방문 경위

- 대림수산은 1976.1월 직원의 기니비사우 출장과 관련하여 입국 및 어업협력 가능여부 등을 문의하면서 외무부의 협조를 요청함.
- 최휘웅 부장은 주세네갈대사관의 협조로 주세네갈 기니비사우대사관으로 부터 10일간의 특별 비자를 받음.

3. 주세네갈대사는 1976.1.22. 최휘웅 부장의 방문 결과 및 의견을 종합보고함.

- 어업협력 가능성은 극히 회의적이며 한국과 외교관계가 없으므로 입어권 획득 및 운영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 신생 독립국으로 철저한 공산주의 국가이며 사회적 무질서와 경제적 빈곤 등 혼미한 상태임.
 - 소련 및 중국(구 중공)의 영향력이 크고 친북성향이 강함.
- 수산시설은 아직 개발 정비되지 못함.

4. 최휘웅 해외사업부장의 출장보고서 요지(1976.2월)

- 수산해운은 소련인 고문관을 정점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소련, 알제리 합작 2개국 선단이 조업 중임.
- 비사우 항구에는 8천 톤급 선박이 계류한 역사가 있음.
- 수출입 규제가 엄격하며, 어종은 갑오징어, 새우 어획은 확인했으나 기니비사우 당국의 통계 자료는 없음.
- 한국 선단 입어권 문제는 기니비사우 현지 회사가 한국 선박을 용선하는 형식으로 계약하도록 협의함.

Abidjan(코트디부아르) 주재 한국 선원회관 설치, 1976.4.19.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40 / 19 / 1-51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소재 한국 선원회관이 1976.4.19. 개관됨.

1. 설치 추진 경위

- 1975.8~11월 3차례에 걸쳐 후보건물을 물색 계약했으나 모두 제3자에게 매각
- 1975.12.8. 제4차 후보건물 계약
- 1975.12.10. 계약을 협회에 통보하고 약식 준공검사
- 1975.12.23. 재무부 선금금 허가 및 한국은행 해외투자 허가

2.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6.1.7. 매입금 및 집기구입 비용을 지불하였음을 보고함.

- 시설규모
 - 대지 699㎡
 - 건물 223㎡
 - 사무실 11㎡
- 총 사업비: 68,842달러

3.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6.4.13. 동 선원회관 건물은 3.27. 명의 양도되어 4.17. 개관 예정임을 보고함.

일본 북해도 근해에서의 한국어선 조업문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M-6-40 / 20 / 1-292

1976년 중 일본 북해도 근해에서의 한국 어선 조업 문제에 관한 협의 과정임.

1. 일본 외무성은 1976.1.22.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북해도 근해에서 한국 어선의 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어업분쟁 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한국 측의 적극적인 지도를 아래와 같이 요청함.

- 북해도 주변 수역은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저인망어업의 조업 금지 구역
- 한국 어선으로 인해 북해도 연안어업의 어구가 파손되는 사태가 발생
- 어선 및 어구의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간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

2. 주일본대사관은 1976.2.23. 수산청의 북양어업진흥회 회원사에 대한 어업지도와 함께 상기 일본 외무성의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부 입장을 전달함.

-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해도 연안 12해리 이내 수역에서의 조업을 자제하도록 한국 어민을 지도할 용의가 있음.
- 일본 외무성이 1.22. 요청한 어구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각별히 유념하고자 하며 일본도 아래 사항에 협력할 것을 요청함.
 - 어구의 설치 수역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한국 정부에 통보해줄 것
 - 어구의 표지 및 식별에 관한 자료를 한국 측에 제공할 것
- 사고처리를 위한 한국의 북양어업진흥회와 대일본수산회 간의 협의를 조속 개시하도록 지도할 용의가 있음.

3. 한·일본 북양안전조업에 관한 협의회(1976.4.1.~2., 코리아나 호텔)

- 수석대표
 - 한국 측: 홍우선 북양어업진흥회 이사장
 - 일본 측: 이케지리 대일본수산회 상임이사
- 협의 사항
 - 북해도 연안 수역에서의 현재까지 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
 - 사고 방지 및 처리 대책
 - 해난구조 및 기항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회 한·일본 민간어업 협의회(1976.6.25., 일본 삿포로)

- 북해도 근해 주변 해역에서의 한·일본 양국 어업에 관한 문제를 협의함.

한·일본 어업 공동 규제수역 내 1976년도 어획량 및 출어선 척수 상호 통보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일본담당관

MF번호 M-6-40 / 21 / 1-67

한·일본 어업협정 합의의사록에 의거하여 한국 측과 일본 측이 분기별로 상대국에 통보한 1976년도 '공동규제 수역 내 어업별 어획량' 및 '공동규제 수역에 출어한 어선척수'가 수록됨.

한·미주지역 국가 및 일본과의 어업협력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41 / 1 / 1-199

1976년 중 미주지역 국가 및 일본과의 어업협력을 위한 수산청장의 각국 순방에 관한 내용임.

1. 강용순 수산청장 순방(1976.3.13.~29., 미국,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일본)

- 미국(3.15.~17.)
 - 유엔해양법회의 개회식 참석
 - 국무부 수산담당 차관보 면담
 - Mike Gravel 상원의원(알래스카 출신) 및 알래스카·워싱턴 하원의원 면담
 - 한·미국 합동회의
 - 해양환경청장과 200해리 어업수역 확대법 제정, 한·미국 어업협정 개정 시기 등 협의
 - 3.16.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소련 어업성 부수상을 면담하고, 한국의 북양어업조업에 대한 협조 요청
 - 미국의 200해리 어업수역 확대법 시행 시 한·소련 양국 공동대처 문제를 협의함.
- 트리니다드토바고(3.19.~20.)
 - 참치 및 새우 어업기지 방문
 - 농수산성 방문, 국영수산회사 책임자 면담, 유력인사 초청 만찬
- 수리남(3.21.~23.)
 - 새우어업 기지 방문 및 기지주재원과 간담
 - 수상 겸 외상 면담, 수산청장과 회담
 - 합의각서 내용: 기술협력 증진, 합작 사업 권장, 관할 수역 내 새우트롤 어업조업 보장, 양국 어업협력협정 체결 추진
- 일본 수산청장관 면담 결과(3.29.)
 - 은대구 어업에 관한 민간협의회 구성
 - 북해도 근해 어업에 관한 민간 협조
 - 참치 대일본 수출 협조

2. 신태영 수산청장 순방(1976.7.31.~8.14., 미국, 캐나다, 일본)

- 미국(8.2.~4.)
 - 상무장관, 수산청장, 국무부 수산담당차관, 상무성 수산청 국제국장 면담
 - 알래스카 지사 면담
 - 유엔해양법회의 참석, 주미국대사관 및 주유엔대표부 방문
 - 협의사항: 한국 어선의 북양출어 계속 조업 보장, 북양에서의 한국 명태 어획 쿼터 등



- 캐나다(8.5.~6.)

- 환경부 수산담당차관보, 수산청 수산경영차관보 등 면담
- CIDA(캐나다국제개발처) 방문
- 협의사항: 캐나다 80해리 이내의 입어 문제, 수산물 교역 확대, 한·캐나다 어업협정 체결 추진, 전산화 사업 추진 등

- 일본(8.12.~13.)

- 농림 대신, 농림성 정무차관, 수산청장관, 홋카이도 어업연합회장 면담
- 주요 협의사항: 참치, 김, 미역 대일본 수출에 관한 사항, 다랑이 어선의 사료 공급 문제, 대미국 어업 교섭에 관한 정보 교환

스페인령 사하라 어장 확보 문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중동 / 경제협력

MF번호 M-6-40 / 22 / 1-281

1975~76년 중 스페인령 사하라 어장 확보 문제와 이에 대한 교섭 내용임.

1. 주스페인대사는 1975.11.10. 스페인령 사하라 어장 분할과 한국 원양어업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 1975.11월 마드리드 협정으로 스페인령 사하라 어장은 북위 23도 40분을 기선으로 남부는 모리타니아, 북부는 모로코에 귀속됨.
 - 스페인은 자국어선 800척의 5년간 조업권 확보
 - 모리타니아 정부는 1976.1.19. 30해리 영해를 선포하고, 모로코 정부는 2.6. 70해리 전관 수역을 설정함.
- 동 어장에서 조업 중인 한국 어선은 105척이나, 상기 분할 협정 결과 한국 어선의 조업은 대부분 중단될 것으로 우려됨.

2. 어장 확보 대책(1976.1월, 수산청)

- 기본 방향
 - 출어선의 조업 실적을 바탕으로 입어로 지불방식과 어업협력 사업을 병행 교섭하면서 105척을 위한 조업장의 계속 확보에 노력
- 교섭 방향
 - 스페인, 모로코는 어족자원 감소를 우려하여 한국 어선의 감축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단기간 이라도 기간을 정해 한국어선의 기존 입어권 확보
 - 모리타니아와는 국교 정상화 이전까지는 스페인 정부를 통해 교섭하면서 민간사절단을 한국원양협회 회원 중심으로 구성하여 모리타니아에 파견

3. 스페인령 사하라 어업교섭단 파견(1976.3.2.~4.11.)

- 대표단(단장): 박원빈 한국원양어업협회장
- 파견국: 모로코(3.9.~13.), 모리타니아(1차: 3.17.~22., 2차: 3.29.~4.1.)
- 교섭 지침
 - 한국 어선의 출어실적에 기초하여 최대한의 어선 출어가 보장되도록 교섭
 - 모리타니아는 미수교국이며 북한 상주공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 출장 중인 왕윤국 동원수산(주) 사장과 접촉하여 교섭창구를 일원화 할 것
- 교섭 결과
 - 향후 대모리타니아 입어교섭 창구는 한국원양협회로 하며, 제3국의 중재를 배제하고 모리타니아와 직접 교섭
 - 모리타니아와의 민간 어업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유력인사를 원양협회가 방한 초청
 - 어선 분산 조정이 필요할 경우 새로운 어장을 개척하여 분산

한·모리타니아 어업협력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 중동

MF번호 M-6-40 / 23 / 1-141

1976년 한·모리타니아 간 어업협력에 관한 내용임.

1. 주라스팔마스영사는 1976.2월 모리타니아 정부와의 어업협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사하라 어장을 둘러싼 정세는 매우 유동적임.
 - 모리타니아 정부는 30해리 이내 해역에서 외국어선의 조업중지를 희망하며 최근 이탈리아 어선이 사하라 연안 25해리 지점에서 조업 중 나포됨.
- 왕윤국 동원수산(주) 사장의 교섭은 입어로 인하여는 효과가 있었으나 아직 다른 성과는 없음.
 - 동원수산의 합작추진에 정책적 배려 필요
- 수산청장 이상의 고위층으로 새로운 교섭라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1976.2월 모리타니아 영해 내 입어 조업 교섭과 관련하여 정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확정 하고 관련 공관에 통보함.

- 연간 톤당 200달러 이하의 입어 조건으로 조업에 임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업허가를 취소할 것임.
 - 만약 201달러 이상 입어조건으로 개별 입어하는 어선이 있을 시 철수 지시할 것
 - 모리타니아와의 입어교섭에는 한국 업계를 대표하는 왕윤국 동원수산(주) 사장이 현지 출장 중이므로 동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
- 모리타니아 정부는 1976.2.15. 이후에는 입어허가 없는 어선을 나포할 것을 경고 중이므로 입어허가가 있는 어선에 한하여 입어조치 할 것

3. 주라스팔마스영사는 1976.3.12. 모리타니아 수역에서 입어 조업 중이던 한국어선 4척이 나포 되고 동건 해결을 위해 일본 상사 주재원이 3.17. 현지로 항발하였다고 보고함.

- 최호중 외무부 경제차관보는 1976.6.2.~7. 방한한 모리타니아 민간협력사절단에게 나포된 어선의 석방을 요구함.
 - 나포된 어선은 6월 석방되었으며 최호중 경제차관보는 방한단장에게 6.28. 감사서한 발송

4. 모리타니아 민간협력사절단 방한(1976.6.2.~7.)

- 방한 경위
 - 1976.3월 한국어선의 모리타니아 영해 입어 교섭 차 모리타니아를 방문한 한국원양협회 회장이 동국 유력인사를 초청함.



- 방한 인사
 - Mohamed Salem 상공회의소 회장, Ba Bocar Alpha 전 재무부장관 등 7명
- 주요 일정
 - 농수산부장관, 수산청장, 외무부 경제차관보 예방, 외무부장관 오찬
 - 한국원양협회와 2차례 회담
- 한국원양협회와 아래 요지의 합의각서를 교환함.
 - 양국간 어업합작 회사 설립 합의
 - 한국어선의 모리타니아 영해 내 입어에 필요한 편의 제공
 - 나포된 한국어선의 조기석방을 위한 노력
 - 농업, 공업, 산업분야의 합작회사 설립
 - 모리타니아 측은 한국 민간 경제사절단을 초청
 - 양국에 친선협회 창설 합의

한·파나마 어업협력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40 / 24 / 1-16

1975~76년 중 한·파나마 간 어업협력에 관한 내용임.

1. 주파나마대사는 1975.12월 파나마 정부가 외국인 소유의 파나마 국적 참치어선이 쿼터를 위반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로 외국인 소유 파나마 국적 어선의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라며, 대서양 및 태평양 연안에서 조업하고 있는 한국 참치어선의 명단제공을 요청해 왔다고 보고함.

- 수산청은 1976.1월 한국인 소유 파나마 국적선 159척의 명단을 보내면서, 파나마 정부가 1975.10월 한국인 소유 어선 2척을 포함한 파나마 국적 어선 9척의 등록을 취소했다는 비공식 정보를 알려옴.
 - 수산청은 1976.3월 등록 취소된 한국 어선은 없으며 용선기간 만료된 어선 4척이 등록취소 수속 중임을 확인함.

2. 수산청은 1976.3월 해외산업주식회사가 파나마와 협력사업(어장조사)을 추진 중이라고 통보하면서 동 회사의 협력사업 사실 확인을 외무부에 요청함.

- 주파나마대사는 협력사업의 파트너인 United Fisheries of Panama, S.A.는 현지 변호사를 통해 회사설립 등기(등기일자: 1966.7.8.)를 하였을 뿐 사무실도 없다고 보고함.

한·세네갈 어업협력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 번호 M-6-40 / 25 / 1-64

1975~76년 중 한·세네갈 간 어업협력에 관한 내용임.

1. 주세네갈대사는 1975.2월 동원산업이 신청한 세네갈 해외투자 사업은 현지 법인 설립 필요성이 인정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전망이 밝으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 회사의 어업 합작회사 추진을 지원할 것을 건의함.

- 동원산업 측과 세네갈 아다 그룹은 1.8. 어업합작 회사 설립에 합의하고, 4.20. 세네갈 정부에 승인을 신청함.

2. 주세네갈대사는 1975.4월 원양어업 진출과 어망 수출 추진 자료 및 세네갈 투자법에 관련하여 보고함.

- 이용 가능한 항구 및 항만시설 현황
- 이용 가능한 어장범위 및 인접국 어장에서의 조업 가능 여부
- 과실 송금관계 법규 및 정부 보장 여부
- 어망 수출에 대한 면세통관 여부 및 관계 법규

3. 주세네갈대사는 1976.1월 한·세네갈 어업협력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대림수산 라스팔마스 기지장이 세네갈을 방문하여 세네갈 회사와 기초적인 합작 문제를 협의함.
- 동원그룹은 합작자본금을 불입하고 회사 등기 수속 중임.
- 남성원양은 농수산부에 입어권 신청 중이나, 세네갈 측은 정부간 어업협력협정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 삼송원양은 구체적인 추진 사항이 없음.

4. 세네갈 정부는 1976.2.3. 각료회의에서 영해와 어업보호수역을 150해리로 확장하는 새 법안을 의결함.

- 세네갈의 현행 법령은 영해 12해리, 어업보호수역 110해리이며, 1974년도 OAU(아프리카 단결기구) 각료이사회는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수역을 200해리로 설정할 것을 권고한바 있음.

5. 외무부는 1976.7월 세네갈 정부가 제시한 어업협력 조건이 남성원양이 제의한 합작규모보다 대규모이므로 동 회사 능력으로는 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여 주세네갈대사에게 어업협력 규모의 축소를 지시함.

한·스페인 어업협력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 구주2

MF번호 M-6-40 / 26 / 1-41

1976년 한·스페인 간 어업협력에 관한 내용임.

1. 스페인 외무부는 1976.2월 주스페인대사관 수산관에게 한국 어선의 스페인 인근 수역 조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줌.
 - 사하라 어장에서 스페인의 소형 어선 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어선단의 인근수역에서의 조업은 고려할 수 없으며, 최근 12마일 이내 10척의 조업은 불법임.
 - 한국의 어선단 증대가 계속될 경우 어업협정의 파기 및 카나리아 지역 어선단의 기지이용에 제재를 가하는 문제를 고려할 것임.
2. 상기 스페인 측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정부는 1974년 한·스페인 어업회담에서 확정된 출어한도가 120척임에도 불구하고, 1975.12월 105척으로 적극 억제하였으며, 동 해역에서의 어선분산책의 일환으로 라스팔마스 기지 어선의 일부를 인도양으로 철수함.
 - 스페인 측은 한국의 어선단 분산조치에 감사하고 양국간 어업 협력은 별 문제 없이 발전될 것이라고 회답함.
3. 1976.5월 외무부는 1975.6월 개최된 제2차 한·스페인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라 제3차 어업공동위원회를 1976년 중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스페인 측에 제의함.
4. 스페인 측은 한국 측이 제안한 제3차 한·스페인 어업공동위원회 개최에 대해 1976.11.30. 구상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알려줌.
 - 어업협력협정에서 제시한 선박의 구입·건조, 수산양식개발 등 협력사항을 한국이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제1~2차 회의 시 카나리아 군도에서의 한국 어선단 감소를 누차 요청했음에도 최근 3년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음.
 - 스페인은 상기 2개항을 원만하게 추진할 한국 측의 안이 제시될 때까지는 제3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한·수리남 어업협력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40 / 27 / 1-46

1975~76년 중 한·수리남 간 어업협력에 관한 내용임.

1. 수산청은 1975.11월 네덜란드령 수리남이 11월 하순 독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의 새우 어업의 주요 어장인 수리남 연안에서의 어업실적 및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 및 적절한 조치를 외무부에 요청해옴.

2. 한국 어업사절단 수리남 방문(1976.3.21.~24.)

- 방문단(단장): 강용순 수산청장
- 협의 사항
 - 한국 출어어선의 지속적 안정 조업교섭
 - 양국 어업협력협정 체결 협의
 - 수리남 수산연수생의 초청훈련 제의
 - 어업 합작투자 사업 권장 협의
- 주요 일정
 - 수상, 농림상(노동상, 수산청장 동석), 경제상 예방
 - 2차례 회담, 양해각서 교환
- 주요 토의 사항
 - 과거 10년간 한국이 추진해온 수산개발계획 설명
 - 양국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로서 양해각서 교환
 - 농림상 및 수산청장 방한 초청, 상호 경제사절단 교환
 - 수리남 측은 한국의 새우선 조업에 불만이나 이의가 없으며 조업을 규제할 의사가 없다고 언급
- 합의 각서 주요 내용
 - 합작 사업 권장
 - 최혜국 대우 조건 하에 한국 새우선의 수리남에서의 조업을 계속 인정
 - 양국간 어업협력협정 체결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갖기로 함.

한·튀니지 어업협력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40 / 28 / 1-114

1975~76년 중 한·튀니지 간 어업협력에 관한 내용임.

1. M. Zaouli Mohamed 튀니지 수산공사 사장 방한(1976.5.12.~5.17.)

- 방한 목적 및 경위
 - 1975.5월 제3차 한·튀니지 경제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토의된 한·튀니지 어업협력협정 체결 등에 대한 재협의 목적
 - 수산청은 1975.8월 동 사장의 방한 초청장 및 항공권 송부
- 주요 일정
 - 수산청장 예방, 어업협력 회의(2회), 국립수산진흥원, 한국어업기술훈련소 방문
 - 어망 공장, 굴 가공공장, 고려원양 방문
- 주요 협의 사항
 - 원양어업, 어망공업 합작투자
 - 기술협력: 선박수리 및 냉동 기술자 파견, 연근해 선장 및 기관장 파견
- 협의 결과: 양국간 상호 관심사 및 실질적인 어업협력 문제에 대하여 양해각서 교환
 - 어업분야의 과학 및 기술협력, 전문가 훈련생 및 과학적 정보 교환
 - 타방 전관수역의 생물자원이용 및 개발에 협력
 - 양국 민간의 자본협력, 특히 직접투자와 합작투자 장려 및 촉진
 - 선박과 선원의 왕래에 협조하고 제3국에 부여한 것과 동등한 대우 부여
 - 본 협정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 설치

2. 대림수산 라스팔마스 주재원은 1976.7월 튀니지를 방문하여 M. Zaouli Mohamed 사장의 방한 시 논의된 어업협력 문제를 협의함.

- 튀니지 정부는 입어료에 의한 조업을 일체 허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산공사와 대림수산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11차. 서울, 1976.7.26.-29.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M-6-41 / 2 / 1-382

제11차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정기 연차 회의가 1976.7.26.~29.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인수 수산청 차장
- 일본 측: 사사키 수산청 차장

2. 의제별 합의 내용

-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심의 및 조치
 - 자원 수준이 주의할 상태임을 인식하고 자원관리 방안을 연구·검토할 것에 합의
 - 원활한 공동자원 조사를 위한 개선사항
 - 자원관리 방안의 심의를 위한 어업자원 전문가회의를 개최
- 양국 어선사고 및 처리 상황의 보고
 - 1975년은 일본 대형어선에 의한 한국 소형어선의 정치성어구에 대한 피해가 많음을 인정
- 양국 어선 간 사고의 일반적 취급 방침 심의
 - 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후처리에 노력
 - 일본 측은 한국 측에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의한 명확한 게시를 요청
-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 협정 체결 교섭 추진

3.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11차 정기연차회의 공통문서집(1976.11월, 수산청)

- 운영 소위원회 보고
- 어업자원 소위원회 보고
- 운영 소위원회의 보고에 대한 결정
- 어업자원 소위원회 보고에 대한 결정
- 자료 및 통계의 제출에 대한 요청
- 조사결과에 의한 자원상태의 심의에 관한 보고
- 공동성명문

한·일본 농림수산 기술협력위원회, 제8차. 서울, 1976.3.23.-26.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M-6-41 / 3 / 1-31

제8차 한·일본 농림수산 기술협력위원회가 1976.3.23.~26.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종문 농수산부 농산국장
- 일본 측: 가와다 노리오 농림성 관방 기술심의관

2. 훈령

- 기본 훈령
 - 농림수산 분야의 기술 증진이 국가 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이익을 최대한 추구
 - 기술협력위원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앞으로의 협력 범위 확대와 기술교류의 질적 강화 도모
- 의제별 훈령 사항
 - 농수산부에서 작성한 회의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
 - 회의 자료에 명시된 기술정보 교류, 기술자 교류, 종자·종묘의 교류 및 시험연구 협력 등 각 분야별 요구사항을 일본 측에 제시하고 이해 촉구

3. 주요 의제

- 농림 수산 부분의 기술정보 교류
- 기술자 교류
- 종자·종묘의 교류
- 시험연구 협력 사업

4. 결과

- 1976.4.29. 동 위원회 합의 사항에 의거하여 일본 농림성 임야청에서 삼나무 묘목을 한국으로 송부함.

Soemita, William 수리남 농수산물장관 방한, 1977.1.15.-20.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6-41 / 4 / 1-32

1977.1.15.~20. William Soemita 수리남 농수산물장관이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6.3월 수산청장의 수리남 방문 시, Soemita 장관의 방한 초청
- 1976.4월 방한 초청장 송부
- 1976.8월 Soemita 장관은 복잡한 수리남 국내 문제를 이유로 자신의 방한을 12월 하순 또는 1977.1월경으로 연기 희망
- 1976.11월 주수리남대사관은 동 장관이 1977.1.15.~20. 방한 예정임을 보고

732

2. 방한 시 주요 논의 사항

- 수리남 어업인력 훈련,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기술원조 제공
- 잡어 가공처리 공장 설립 문제
- 수리남 동부 해안 Barbakoeba 지방 1만ha의 쌀농사 합작투자사업
- 어업협력협정 체결 추진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제31차. Manila, 1976.10.4.-8.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6-41 / 5 / 1-166

정부는 1976.10.4.~8.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31차 IMF(국제통화기금) /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에 김용환 재무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 수석대표: 김성환 한국은행 총재, 함태혁 외무부 국제경제국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일정

- G24 회의 동남아그룹 회의
- 제6차, 제7차 개발위원회
- 제31차 IMF / IBRD 연차총회, 합동이사위원회 보고

2. 훈령

-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 및 국제금융 분야에 있어 한국의 지위향상 도모
- 정책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 및 동남아그룹의 입장에서 그 방향을 제시 또는 주장
- IMF / IBRD와의 경제협력을 도모하여 경제 개발에 소요되는 유리한 개발 자금 확보에 노력

3. 제31차 IMF / IBRD 연차총회 논의 초점(1976.9월 주영국대사 보고)

- 물가 억제 경제정책 지속 필요성 강조
 - 높은 실업률을 감수하더라도 통화량 공급 억제 필요
- IMF 당국의 대회원국 환율정책 감독 강화
- IMF 보유 금 매각
- 태평양 경제권에 대한 재인식 계기

4. 회의 결과

- 국제통화 문제에 관한 IMF 전문기구(IMF 제2차 협정문 개정안)로 잠정 존속
 - 2차 협정문 개정안 발효는 평의회로 대체
- 개도국에서 실질 자원 이전 문제 검토를 위한 IMF / IBRD 합동 각료위원회 설치
- 개발위원회 위원 및 준위원은 잠정위원회와 같음.
 - 당초 1976.9월까지 존속하기로 한 잠정기구를 2년간 연장 존속하기로 결정
- IBRD 이사회는 1976년 4 / 4분기에 적용될 금리를 현행 8.9%에서 8.7%로 인하함.

IMF(국제통화기금) 잠정위원회 및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개발위원회, 제5차. Kingston(자메이카), 1976.1.7.-10.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6-41 / 6 / 1-69

정부는 1976.1.7.~10.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되는 IMF(국제통화기금) 잠정위원회 및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개발위원회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기간

- IMF 잠정위원회(1976.1.7.~8.)
- IMF / IBRD 개발위원회(1.9.~10.)

734

2. 대표단 구성

- IMF / IBRD 잠정위원회
 - 김성환 한국은행 총재, 차형동 한국은행 과장
- IMF 개발위원회
 - 신병현 대통령 특별보좌관, 정인용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3. 파견 목적 및 훈령

- IMF 잠정위원회
 - 잠정위원회는 국제통화제도의 관리를 감독하고, 협정문 개정안의 심의, IMF 체제를 위협하는 긴급사태에 대처하는 기능을 담당함.
 - 금번 회의 시 논의되는 제6차 IMF 쿼터 조정, 금 및 환율 문제 등을 포함한 협정문 개정 문제, 국제통화제도의 개혁 방향이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노력
- IMF / IBRD 개발위원회
 - 개발위원회는 대개도국 실질 재원이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IMF / IBRD 총회에 권고, 보고하고 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각료위원회임.
 - 금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보상금융제도의 개선 및 제3창구 신설 문제 등이 한국과 동남아그룹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노력

4. 정부대표단 활동 보고

- 베트남 대표단은 동남아그룹을 대표하는 한국 정부대표단 연설에 베트남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함.
- 한국 정부대표단은 개발위원회 대표연설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본부에 보고함.
 - 베트남을 MSA(최빈국)에 추가하여 줄 것
 - 베트남의 전후 경제복구 노력에 호의적 관심을 가져줄 것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동남아그룹 국제통화 및 개발문제회의, 제8차.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76.7.1.-3.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6-41 / 7 / 1-137

정부는 1976.7.1.~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8차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동남아그룹 회의에 김성환 한국은행 총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제31차 IMF / IBRD 총회에 대비하여 한국 참여그룹의 공동입장 및 협력방안 수립
- 동남아그룹회의 현안인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의 한국 그룹 재편성에 대비한 대책 수립

2. 참가국

- 동남아그룹 11개국 중 8개국
 - 한국, 미얀마(구 버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싱가포르, 태국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는 불참

3. 훈령

- 제31차 IMF / IBRD 연차총회에 대비한 개발 및 통화 문제에 대한 동남아그룹 전체의 의견통일
- IMF / IBRD에서의 동남아그룹 대표 문제에 대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합리적 처리
- 본회의에 참석하여 ADB에서의 한국 그룹 배치(grouping)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전개

4. 주요 의제 및 합의사항

- IBRD 증자에 찬성하고 전액출자에 합의
 - 융자재원 확보 및 대출의 법제한도를 확대시키기 위한 증자
- 개발위원회 존속기간: 2년간 연장안을 지지하기로 합의
- 선진국이 금 매각을 포기하는 경우, 개도국은 각국의 자유의사에 따라 금 매각이익의 일부를 특별 신탁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전무이사의 절충안을 지지하기로 함.
- 불참한 베트남은 전문으로 최빈국(MSA) 포함을 요청해온바, 동남아그룹은 베트남 정부의 희망사항을 전달하기로 합의함.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 제9차. Jakarta(인도네시아), 1976.4.22.-24.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6-41 / 8 / 1-241

정부는 1976.4.22.~2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제9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 김용환 재무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 수석대표: 김성환 한국은행 총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및 훈령

- ADB 가맹국과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국제금융 분야에서 한국의 지위 향상 도모
- ADB 당국과의 교섭을 통해 추진 중인 1976년 차관사업의 조속한 실현 및 한국에 대한 차관 사업 지원이 계속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교섭
- 중국(구 중공) 대표권 문제 표결 상정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표결에는 기권
 - 중국 가입, 대만(구 자유중국) 축출안이 표결에 붙여질 경우, 반대

2. 한국 대표의 기조연설 요지

- 선진국의 수입제한 완화 등 개도국으로부터 수입촉진을 위한 적극적 노력 촉구
- 개도국의 외자수요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민간 자본시장 및 국제 금융기구의 역할 강조

3. 정부대표단 활동

- 이노우에 ADB 총재 및 간부진 면담(1976.4.21.)
 - ADB 장기융자계획에 대한 의견교환 및 제4차 5개년 계획기간 중 계속적 지원 요청
 - 사우디개발기금과의 협조 용자로 진행 중인 남강지구 개발 사업에 ADB의 지원 약속
- Bushnell 미국 대표와 면담(4.22.)
 - 최근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융자정책이 최빈국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한국과 같은 자조 개발능력을 갖춘 선발개도국에 대한 계속 지원 필요성 설명
- 베트남 통일 이후의 동남아그룹 문제 협의
 - 베트남 측은 1976.4월 총선 후 통일베트남으로서도 ADB 회원자격 유지 및 동남아그룹 잔류를 희망
 - 캄보디아는 금년도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에 불참하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동남아그룹 탈락

파라과이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07-53 / 15 / 1-69

1974~76년 중 파라과이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에 관한 내용임.

1. 주제네바대표부대사는 1974.12.10. 파라과이의 GATT 가입 신청 문서를 외무부에 송부함.
2. 외무부는 1975.1월 파라과이의 GATT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의 공문을 재무부와 상공부에 송부함.
 - 파라과이 정부는 1974.11월 GATT 사무국에 GATT 가입의사를 정식 표명한 바 있으며, GATT 측은 동 가입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실무 작업단을 구성함.
 - 실무 작업단은 검토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정서 초안 작성 작업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며, 한국의 대파라과이 수출을 고려할 때 파라과이 측에 제시할 관세양허 요구표(Request List) 준비가 필요함.
3. 재무부는 1975.1.10. 외무부 앞 공문으로 파라과이 GATT 가입신청에 따른 한국의 대파라과이 관세양허 요구표를 송부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MTN(다자간무역협상) : 열대산품 그룹회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6-41 / 11 / 1-211

1976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MTN(다자간무역협상) 열대산품 그룹회의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한 관세양허 요구표(Request List) 작성 및 각국과의 협상에 관한 내용임.

1. 주제네바대사는 1976.3.23. GATT 주관으로 개최되는 열대산품 회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현재 36개 개도국이 BTN(양자간무역협상)을 위해 250개 품목의 관세양허 요구표를 제출하여 선진국과 협의를 가진바 있음.
- 선진국 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의 관세양허 가능품목(Offer List)을 검토하여 한국의 수출 관심품목이 있는 경우 관세양허 요구표를 작성바람.

2. 외무부는 1976.6.14. 상공부, 농수산부 앞 공문을 통해 한국의 관세양허 요구표 작성을 요청함.

- 대상 선진국: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EC(구주공동체), 핀란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11개국

3. 외무부는 1976.8.12. MTN 열대산품 그룹회의의 국별 관세양허 요구표를 주제네바대사에게 송부함.

- 품목 선정원칙
 - 해당국에 한국 수출 실적이 있는 품목
 - 수출 유망 품목
 - 미국, 일본, EC를 제외한 나라의 경우 수출실적이 거의 없는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해당 품목 제외
- 무역장벽 완화 요구 원칙
 - 비관세 조치의 우선적 철폐 내지 완화
 - 관세인하의 경우 11% 이상 관세율 60~80% 인하, 10% 이하 40~50% 인하 요구

4. 참고자료

- 한·캐나다 양자협상 결과(1976.9.15.)
- 한·미국 양자협상 결과(1976.9.16.)
-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EC, 핀란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정부의 관세양허 요구표(1976.9.2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8조에 의거한 체약국간 양허표 수정 및 철회교섭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6-42 / 1 / 1-78

외무부는 1976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8조에 의거한 체약국간 양허표 수정 및 철회를 위한 교섭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함.

1. 외무부는 1976.1.27. 상공부장관 앞 공문을 통해 EC(구주공동체)의 GATT 양허표 수정 문서를 송부함.

- EC가 GATT 양허세율에 관하여 관계 당사국과 재협상한 후 새로운 양허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하는 내용임.

2. 외무부는 1976.8.25. 재무부장관 앞 공문을 통해 GATT 제28조(양허표의 수정)에 의거한 체약국 교섭에 관한 문서를 송부함.

- 오스트리아, 캐나다, 인도, 남아공과 협상한 결과를 통보하는 문서임.

3. 외무부는 1976.12.8. 재무부장관 및 상공부장관 앞 공문을 통해 GATT 제28조(양허표의 수정)에 의거한 체약국 교섭에 관한 문서를 송부함.

- 남아공이 자국의 관세율표상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 문서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MTN(다자간무역협상) 협상대책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6-42 / 3 / 1-220

정부는 1976년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회의에서의 정부 입장 수립 및 협상 대책을 마련함.

1. 상공부는 1976.7.6. 외무부에 GATT / MTN 협상에 대비한 대책 준비를 위하여 주제네바대표부로 하여금 현지 GATT 당국 및 각국 대표와 교섭 등으로 아래 내용을 수집, 보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함.

- 분야별 회의 진전도 분석
- 분야별 선진국 및 개도국(최후진국 및 선발개도국 분리)의 입장 및 협상 참여도
- 분야별 협상에 대처하여 준비해야 할 구체적 사항
- 협상의 전반적 및 분야별 전망 등

2. 외무부는 1976.9.2. 상공부에 'MTN 현황(1976.7.20., 외무부)' 자료 및 10~11월 개최되는 MTN 주요 회의 일정을 송부하고, 9.6. MTN 그룹별 회의 대책 수립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 1976년도 하반기 회의에서는 협상종결 시기로 합의한 1977년도에 임박하여 일부 그룹회의에서는 주요합의 내지 협상종결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각 그룹별로 대책을 종합하여 1976년도 하반기 회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공부에서 주관하는 Task Force 운영을 통한 입장 수립을 요청함.

3. MTN Task Force 분야별 담당

- 재무부: 관세
- 상공부: 비관세, 분야별, 세이프가드
- 농수산부: 농산물, 열대산물
- 외무부: MTN 자료 발간 수집 및 정리

4. 외무부는 1976.9.30. 주제네바대표부에서 작성한 'MTN 현황 및 건의사항 보고' 자료를 동년 하반기 MTN 그룹별 회의 대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무부, 상무부, 농수산부에 송부하고, 정부 입장 수립 및 본부 실무진의 파견여부 검토를 요청함.

5. 외무부는 1976.10.5. 주제네바대표부에서 작성한 MTN / 세이프가드, Sector 그룹 및 비관세 분야의 Q.R. 및 Standards Sub-Group 회의 진전 상황을 재무부, 상공부에 송부함.



6. 상공부, 재무부, 외무부는 1976.10월 GATT / MTN 그룹회의에 참가할 실무진 대표단을 임명하고 관계부처에 대표단 파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함.

7. 정부 일반 훈령

- MTN 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선진국이 동경선언에서 규정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원칙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발도상국을 구분 선별 적용(Selective Approach)하는 것을 막도록 노력할 것
- 미국과 EC(구주공동체)간의 농산품에 대한 대립 해소를 촉구할 것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MTN(다자간무역협상) : 기타 그룹회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6-42 / 4 / 1-130

1976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MTN(다자간무역협상) 기타 그룹회의의 주요 토의 내용 및 결과임.

1. 제4차 Sector Approach 소그룹 회의(1976.4.6.~7.)

- 구리 생산과 관련하여 캐나다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나, EC(구주공동체),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은 현재 검토 중인 관세 회의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많고, 구리 생산만을 별도로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
- 개도국 관심 품목에 대한 자료수집 검토를 계속할 것과 인도가 제안한 수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에 대한 자료를 사무국에서 조사하기로 함.

2. MTN / 세이프가드 회의(1976.10.27.~28.)

- 일본이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과 일본 안에 대한 토의로 진행
- 일본 제안은 대체로 미국안과 유사하나 무차별 적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대개발도상국 원칙에 대한 논평은 없음.
- EC, 캐나다, 스위스, 호주 및 뉴질랜드는 상기 제안들이 협상 타결을 위한 진일보한 노력이라고 평가
- 한국, 멕시코, 브라질은 선별적용 원칙에 반대하고 개도국 특별대우 원칙을 주장함.
- 차기회의에서는 긴급조치 발동 기준에 관련된 절차 문제 및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문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제안을 재검토하기로 함.

3. TNC(MTN 무역협상위원회) 회의(1976.11.5.)

- 1975.12월 브라질이 제안한 가칭 International Framework for the Conduct of World Trade 그룹 설치 문제만을 논의
- Framework Group 설치 자체는 채택되었으나 각국이 많은 유보를 하였음에 비추어 최종 결정을 새로운 그룹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함.
- 선진국은 당초 브라질 제의에 소극적이었으나 규정 논의 자체까지 반대 할 수 없어 수동적으로 응하는 입장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MTN(다자간무역협상) : 관세그룹회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6-42 / 5 / 1-158

1976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MTN(다자간무역협상) 관세 그룹회의의 주요 토의 내용 및 결과임.

1. GATT / MTN 관세 그룹회의(1976.3.23.~25.)

- 관세인하방식(Tariff Cutting Formula)에 관한 미국의 새로운 제의와 EC(구주공동체)가 제의한 개도국을 위한 특별절차를 중심으로 토의가 진행됨.
 - 대부분의 개도국은 대체로 EC 제의를 환영하는 입장이나 개도국에 대한 특별절차에 대해서는 동경선언에 입각하여 결정되기를 강력히 주장

2. GATT / MTN 관세 그룹회의(1976.7.7.)

- EC는 추가적인 관세인하방식(Additional Tariff Cutting Formula)을 제의하면서 이 방식은 단순하여 각국의 현존 세율 구조로 보아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미국은 EC의 세율구조로 보아 공산품의 경우 5~15%가 대부분이고 30%이상은 없으므로 미국이 제안한 방식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주장

3. GATT / MTN 관세 그룹회의(1976.10.14.~15.)

- 일반적 관세인하방식(General Tariff Cutting Formula)에 관해 일본과 스위스가 새로운 제안을 함.
- 미국은 일본의 제안 중 농산품 제외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농산품 위주인 자국 수출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산품을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주장
- 개도국의 특별대우를 우선 결정하자는 개도국의 주장과 개도국의 수출관심 품목을 먼저 통보 하자는 선진국의 주장이 극렬히 대립
- 차기 회의에서는 개도국 특별대우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

4. GATT / MTN 관세 그룹회의(1976.12.15.)

-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중점 토의하고 종결
- 선진국의 입장(미국, EC, 일본, 캐나다, 북구 국가)
 - 특별대우를 결정한다는 종전의 합의 사항을 재확인
 - 예외품목의 최소화
 - 개도국의 수출관심 품목을 위하여 새로운 관세기준의 신설
- 개도국의 입장(브라질, 인도, 이집트, 멕시코 등)
 -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원칙을 먼저 결정한 후 수출 관심 품목 통보 절차 시행
 - 후발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
- 차기회의는 1977.3.9. 개최하기로 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MTN(다자간무역협상) : NTM(비관세장벽) 소그룹회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6-42 / 6 / 1-121

1976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MTN(다자간무역협상) NTM(Non-Tariff Measures, 비관세장벽) 소그룹회의의 주요 토의 내용임.

1. GATT / MTN 세관문제(Customs Matters) 소그룹회의(1976.3.16.~19.)

- 세관평가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칙 또는 원칙과 비관세 장벽의 4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토의
- 평가에 관한 새로운 원칙으로 사법 및 행정적인 레벨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사법절차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협의
- 세관평가에 관해서는 사무국에서 이미 제안된 각국의 의견을 종합하여 실무문서를 작성
- 수입서류에 관해서는 사무국에서 새로운 내용 보완

2. GATT / MTN 세관문제 소그룹회의(1976.7.5.~6.)

- 세관평가에 관해서는 사무국에서 각국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점검표를 토대로 토의
- 호주는 EC(구주공동체)가 수입농산품에 부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수입과징금도 세관평가 문제에 포함시킬 것을 제의
- 수입서류문제: 선진·개도국의 대다수 국가는 미국, 캐나다 등이 징수하는 특별관세 철폐를 주장
- 영사절차(Consular Formalities) 제도와 수수료에 관해 다자협상을 주장하는 미국의 제안은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의 강한 반대로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3. GATT / MTN 세관문제 소그룹회의(1976.7.5.~6.)

- 세관평가에 대한 향후 작업방향과 원칙에 대한 토의 진행
 - 한국 대표는 사무국 자료를 토대로 합의된 사안은 초안을 작성하고 이견이 있는 사안은 대안 마련을 제안
- 미국은 수입서류와 세관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각국이 사무국과 사전 양자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자간 해결을 모색하자고 제안
 - EC는 지지를 표시했으나 아르헨티나 등 남미 각국들은 양자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미국의 제안에 반대의를 표명
 - 한국 측은 효율적인 결론 도출을 위해서는 미국의 제안이 적절한 것이라는 의사 피력

4. GATT / MTN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분과회의(1976.1.27.~2.6.)

- 1975.9월 개최된 전문가회의 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그 후 각국이 제출한 조항별 대안을 중심으로 축조심의



5. GATT / MTN 기술장벽 분과회의(1976.5.16.~20.)

- 용어의 정의 및 운영규정을 중심으로 토의 진행

6. GATT / MTN 기술장벽 분과회의(1976.11.8.~12.)

- 운영조항 및 후발개도국 대우 문제를 중점적으로 토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32차. Geneva, 1976.11.22.-24.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6-42 / 7 / 1-237

정부는 1976.11.22.~24.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2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 일반협정) 총회에 노신영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교체 수석대표: 배도 재무부 세정차관보)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자원파동 이후 악화된 세계적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선진 수입국의 각종 수입제한 등 보호무역 동향을 지적하고, 개발도상국의 수출 신장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회원국의 GATT 내에서의 의무이행을 촉구
- 섬유류 다자협정 이행실태 및 GATT 협의그룹 운영 문제 토의에 있어서 한국의 지위향상에 중점을 두고 입장을 개진
 - 다자간 무역협상 토의과정에서 각 선진국의 대개도국 특별대우 부여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함으로써 동경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

2. 주요 의제

- 지난 1년간 GATT 활동 분야별 그룹회의 활동 보고 및 항목별 심의, 채택
- 자유무역원칙에 위배되는 선진공업국의 무역제한조치 문제 토의

3. 정부대표단의 기초연설 요지

- 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제한 완화 촉구
- 국제무역 규범으로서 GATT 규정의 재검토 필요성 강조
- MTN(다자간무역협상)의 조속한 타결 촉구
- GATT 개도국 무역협상의 확대 협상 촉구
- 국제 섬유교역의 자유화 촉구

4. 회의 결과

- 총회 의장 개회사
 - 국제경제 질서의 상호 의존성 강조
 - GATT의 기본원칙 유지
 - GATT의 중심을 이루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 유지



- 사무총장의 보고
 - 생산요소의 개편을 통한 무역확대 및 협의 메커니즘을 통한 무역제한 제거
 - 다자간 무역협상 촉진
- 주요 체약국(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및 북구 국가)의 발언 요지
 - 수입제한 조치 억제
 -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 촉구
- 주요 결정사항
 - 차기 총회는 1977.11.18. 개최
 - 총회 의장에 G. Maciel 브라질대사가 선임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 번호 M-6-42 / 8 / 1-32

1976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의 토의 내용임.

1. 제1차 이사회(1976.2.17.)

- 1975년도 BOP(국제수지) 협의 보고 및 1976년도 협의 예정국을 채택하고 신임 의장에 스위스 대표부 참사관을 선임
- EC(구주공동체)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미국, 캐나다는 협의 결과에 불만 표시

748

2. 제2차 이사회(1976.6.14.)

- 한국에 대한 BOP 협의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됨.
- 인도의 보조관세 부과 면제의 연장 문제는 미국, 일본 대표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으나, 한국은 지지하고 찬성투표함.
- 미국의 특수철강제품 수입제한 조치는 EC 및 스웨덴으로부터 철폐요구를 받음.

3. 제3차 이사회(1976.9.17.)

- 의제 제1항(EEC 동물사료단백질 수입담보 프로그램)에 관해 미국이 주장한 패널(panel) 설치에 캐나다, 호주, 브라질이 동의하여 설치하기로 결정함.

4. 제4차 이사회(1976.11.12)

- 반덤핑 위원회의 보고와 관련하여 일본은 미국의 일본산 TV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방법이 일본의 대미국 수출 경쟁에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함.
 - EC, 캐나다가 동의
-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양허 설립에 따른 자유화 의무 면제(waiver) 요청에 관해 일본, 미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이 지지 의사를 표명
- 이사회의 대총회 보고서 채택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CG-18(18개국 자문단) 회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6-42 / 9 / 1-134

1976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CG-18(Consultative Group of Eighteen, 18개국 자문기구) 회의의 주요 토의 내용임.

1. GATT / CG-18 개요

- 1975.7.11. GATT 이사회에서 18개국 위원국으로 구성된 자문단
 - GATT 사무총장에 대한 자문기관
- 18개 국가
 - 선진국: 미국, 캐나다, EC(구주공동체), 북구, 스위스, 호주, 일본
 - 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 아프리카: 이집트,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 라틴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 동구: 폴란드
 - 지중해: 스페인

2. GATT / CG-18 제2차 회의(1976.2.24.~25.)

-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한 제2차 회의 의제 4개를 중심으로 토의
 - 동 기구의 운영방침
 - 국제무역 및 무역정책 방향
 - 무역에 있어서의 GATT의 역할
 - 국제무역에 있어서 규제조치

3. GATT / CG-18 제3차 회의(1976.6.22.~23.)

- 국제무역에 있어서 제한조치 문제
- GATT 개편 문제
- 최근 국제무역 및 무역정책 동향
- 호주가 제의한 농산물 국제무역

4. GATT / CG-18 제4차 회의(1976.10.25.~26.)

- 최근의 국제무역 및 무역정책 동향
- 농산물 세계무역
- BOP(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무역조치 문제
- 국제무역 제도와 GATT의 역할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BOP(국제수지)위원회 회의. Geneva, 1976.5.3.-7.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6-42 / 2 / 1-178

정부는 1976.5.3.~7.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BOP(국제수지)위원회 회의에 정인용 재무부 국제금융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1976~78년도 한국의 국제수지 전망, 대외부채 증가와 관련한 향후 한국의 원리금 상환 문제, 1976년도 한국의 외자조달 전망,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한국의 대내정책, 유가상승에 따른 국제수지 부담 경감 대책, 한국의 수출증대 대책 등

2. 주요 협의 결과

- 협의 진행 방식
 - 한국 정부가 제출한 기본 자료와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작성한 한국경제 전반에 관한 보고를 기초로 진행
 - 한국 수석대표의 개막연설, IMF대표의 한국경제 평가, 한국의 국제수지현황 및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
- 한국 수석대표의 언급요지
 - 한국의 국제수지 현황과 교역확대에 따른 문제점 설명
 - 수입제한조치를 완만하게 철폐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 천명
- IMF대표의 한국경제 평가
 - 한국은 최근 경제성장과 물가 그리고 국제수지면에서 모두 고무적인 현상을 보이기 시작 하였으나, 국제수지면에서의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과도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인정

3. 상기 협의 시 위원회의 평가 및 권고

- GATT 제16조에 의한 한국의 수입규제는 한국의 국제수지 사정으로 보아 정당한 것으로 평가
- 국제수지 사정이 호전되면 수입규제 수준을 점차 낮출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방침 환영
- 모든 차별적인 수입규제를 철폐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높이 평가
- 한국의 수입규제제도의 복잡성,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동 조치의 간소화를 권고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CPC(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의정서 참가국위원회) 회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07-54 / 2 / 1-56

1976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CPC(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의정서 참가국위원회) 회의 결과임.

1. 제11차 CPC 회의(1976.1.14.)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 직원의 참석 문제
 -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 초청한 경우에만 참석
- 파라과이의 CPC 가입 승인에 따른 CPC 회의 참석 문제는 동국이 가입의정서에 서명 후 참석하도록 결정
- 방글라데시의 신규가입 문제는 방글라데시가 방콕협정 가입국이므로 먼저 방글라데시의 설명을 듣고 결정하기로 함.
 - 스페인, 그리스 등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한국 대표는 양허확대 문제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협상 개시를 주장

2. 제12차 CPC 회의(1976.4.22.)

- 방글라데시가 양허 없이 가입하는 문제는 차기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 한국 측은 찬성 발언
- 파라과이의 가입 의정서 비준일자 연기 요청에 대하여는 1976.8.31.까지 연장하기로 함.
- 새로운 협상 개시 문제에 관하여 한국, 이스라엘, 터키 등은 후발개도국 간 자조 협력을 위해 조속히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입장
 - 멕시코, 인도, 브라질은 현재 선진국·후발개도국 간 협상에 전력하고 후발개도국 간 협상은 그 후에 개시하자는 의견 제시

3. 제13차 CPC 회의(1976.7.26.)

- 방글라데시가 양허 없이 가입하는 문제는 추후 투표로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
- 루마니아, 스리랑카, 이란, 도미니카의 신규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을 의장이 구두 보고
- 의정서 확대를 위한 새로운 협상개시는 차기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 한국 대표단은 조속한 협상 개시에 찬성 의사를 재차 표명
- 그간 국내절차를 진행 중이던 페루가 1976.4월 가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1976.5.29.부터 페루의 CPC가입이 정식 발효됨을 의장이 보고함.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47-48차. Brussels(벨기에), 1976.6.14.-18.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6-41 / 9 / 1-51

정부는 1976.6.14.~18.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47~48차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에 권태원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회의에 참가하여 분야별 한국입장을 반영하고, 각국 대표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최신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한국 관세 행정 제도 및 절차를 국제적 수준으로 통일하고 간소화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의제

- 협약 가입 및 권고 수락 상황, 산하 4개 위원회 보고, 타국제기구와의 관계, 기술지원 문제 등

3. 훈령

- 한국이 관세행정의 국제화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하여 아래 3개 이사회 협약 가입 및 1976.1.21.자로 발효하였음을 설명할 것
 - 전시회 협약
 - 선원후생용품 협약
 - 포장용기 수입 협약
- 관세사범 정보의 집결에 관한 권고를 한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수락할 것임을 표명하고 각국도 이를 수락하기를 희망할 것
- 협약 가입 권고가 있을 경우, 현재 한국이 내국 세금제도의 전반적인 개정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동 작업 완료 후 가입여부를 검토할 것임을 설명할 것

4. 회의 결과

- 관세기술사항
 - 상임기술위원회, 평가위원회, 물품위원회, 조화제도위원회 보고
 - 컴퓨터 실무자회의 보고: 컴퓨터 전문가 및 각국의 평가전문가와 긴밀한 협조 합의
 - 타국제기구와의 관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등 타국제기구에서 세관문제를 다루는 경우, 반드시 CCC에서 대표를 파견하도록 원칙을 정함.
 - 기술지원: 개발도상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지원 방안을 사무국에서 모색하도록 지시



● 행정사항

- CCC 본부건물 이전 문제: 본부는 브뤼셀에 설치한다는 원칙 재확인, 구체적인 안은 특별 위원회가 다음 회의에 제시 예정
- 사무부총장 선출 문제에 대한 캐나다의 타협안이 채택됨.
- 차기회의는 1977.6.6.~16.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CCC(관세협력이사회) 세관 집행업무에 관한 실무자회의, 제2-4차. Brussels(벨기에)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6-41 / 13 / 1-69

1974~76년 중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4차 CCC(관세협력이사회) 세관 집행업무에 관한 실무자회의에 관한 내용임.

1. 제2차 CCC 세관 집행업무에 관한 실무자회의(1974.9.9.~13.)

- 한국 측 수석대표: 김진우 관세청 감시국장
- 주요 의제
 - 제43~44차 CCC 의결사항 보고 및 권고사항 검토
 - 상호 행정 협조를 위한 국제적 수단 고찰, 마약불법거래의 방지를 위한 국제경찰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조 문제, 관세집행업무의 발전 및 효율적인 응용을 위한 협조에 있어서 특수집행기술 및 시행절차 검토

2. 제3차 CCC 세관 집행업무에 관한 실무자회의(1975.1.20.~24.)

- 한국 측 대표: 김기인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3. 제4차 CCC 세관 집행업무에 관한 실무자회의(1976.2.9.~13.)

- 한국 측 대표: 김기인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 주요 의제
 - 관세범죄의 예방, 수사, 억제를 위한 국가간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국제협약안에 대하여 각국 세관 전문가들의 심의 및 의견 교환
 - 마약, 총기류 단속과 폭력집단(일본 적군파, 팔레스타인 게릴라)의 철저한 검색 결과 및 이상 화물의 국제간 이동에 관한 정보의 신속한 교환 방안 수립 촉구

일본의 생사 수입제한 조치문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6-23 / 4 / 1-87

1. 일본 정부는 1976.2.23. 견사(BTN 5004) 및 소매용 견사(BTN 5007)의 수입 사전승인제를 2.26.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
 - 외무부는 일본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양자협약에 의한 문제해결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19조에 따른 보복조치를 검토함.
2. 한·일본 합동위원회 한국 측 대표단(박충훈 무역협회 회장, 태완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용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및 김봉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976.3.10. 후쿠다 일본 부총리 및 미야자와 외상을 면담하고, 일본 정부의 생사 수입규제조치 문제 해결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주일본대사관은 1976.3.13. 동 견과 관련하여 아래의 요지로 보고함.
 - 일본 통상대신과 농림대신은 3.12. 생사·견제품 수입대책 협의를 갖고, 입법조치에 의한 규제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반박과 보복을 부를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원칙에 반한다는 데 기본인식을 같이하고 한국 및 중국과 협의에 의한 해결을 관철하기로 확인하였다고 함.
 - 니혼게이지아신문은 한·일본 간의 생사 수량 조정에 있어 한국 측 주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함.
 - 일본 섬유신문의 3.13.자 보도에 의하면, 생사·견제품 문제로 자민당 섬유대책특위 위원장과 농림회 측 대표 간의 의견 조정 결과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고 함.
 - 견연사에 대한 수입일원화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한국 및 중국과의 교섭의 조기 타결을 모색함.
 - 누에고치는 수입일원화에 포함
 - 견직물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하여 특정 견업 안정 임시조치법의 입법 추진
4. 국내 신문(한국일보, 동아일보)은 1976.3.19.자 기사에서 한·일본 간 생사분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양국 정치인 간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함.

미국 GSA(연방조달청) 보유 중석 방출계획

생산연도 1970-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N-6-23 / 5 / 1-87

1974~75년 중 미국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연방조달청)가 보유한 중석의 방출 계획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제1회 중석 생산자 회의(1974.6.17.~18., 포르투갈 리스본)

- 중석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 현상을 타개하고 중석 생산자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포르투갈, 볼리비아, 프랑스, 태국, 호주, 페루 및 한국의 중석 생산자들이 모여 비공식 회의가 개최됨.
- 한국 측에서는 대한중석 런던 사무소장 참석
- 미국 GSA의 중석 방출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함.
 - 참석자 공동 명의로 GSA의 신중한 중석 방출을 촉구하는 진정서 발송
 - 각국 워싱턴 주재 대사로 하여금 미국 국무부와 교섭하도록 함.

2. 대한중석이 1974.7월 외무부에 미국 GSA의 중석 방출 억제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외무부는 8월 주미국대사관에 워싱턴 주재 포르투갈대사관과 협조하여 상기 중석 생산자 회의 합의에 따라 GSA의 중석 방출 정책이 생산국가의 이익 옹호와 중석의 국제시장 안정화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미국 GSA 당국에 촉구할 것을 지시함.

3. 1974.12~76.5월 중 미국 국무부 담당관이 주미국대사관 관계관에게 미국 GSA 당국의 중석 방출 계획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문의한 데 대해, 주미국대사관 관계관은 아래와 같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함.

- 미국 GSA 당국이 중석의 국제가격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출수량 및 가격을 통제 요망
- GSA의 중석 방출량 증량 계획은 적절하지 못하며 한국은 동 계획에 강력히 반대
- GSA의 과다한 중석 방출에 따른 중석의 국제시세 폭락으로 인한 시장 교란 우려
- 미국의 중석 방출량은 자체 수급 부족량인 6백만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출용 방출은 중지 조치 요망

미국의 금속제 양식기 수입규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3 / 6 / 1-169

1975~76년 중 미국의 금속제 양식기 수입규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교섭 내용임.

1.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산 금속제 양식기 수입 규제 청원에 대하여 1976.3.1. 동 금속제 양식기 수입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에 위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정함.
2. 주미국대사관은 상기와 관련한 외무부의 우선 순위별 교섭지침에 따라 한국 정부의 입장을 1976.4.7. 미국 국무부에 제출함.
 - 1안: 조정지원
 - 2안: 현행 관세율 쿼터제를 유지하되 국별 할당제 폐지
 - 3안: 개 당 25센트 초과 품목을 쿼터에 포함시키지 않는 현행 관세율 쿼터제를 계속하되, 국별 할당을 1975년 실적 기준으로 재조정
3. 포드 미국 대통령은 1976.4.30. 금속제 양식기 청원에 관해 신속조정지원(Expedited Adjustment Assistance)이 미국 내 산업의 피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이라고 결정하고 이를 발표함.
4. 미국 금속제 양식기협회는 1976.6.30. 포드 대통령에게 금속제 양식기 수입에 대한 현행 관세율 쿼터제를 특수철강재 수입 규제기간 동안 연장 실시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함.
 - 주미국대사관 관계관은 8월 USTR(미국무역대표부)의 통상정책 실무자 회의 의장에게 상기 현행 관세율 쿼터제 연장실시 청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대 입장을 설명함.

각국의 수입규제 현황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3 / 1 / 1-195

1. 외무부는 1976.10월 일부 국가에서의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이 한국의 수출 진흥 활동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분석, 파악하여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아래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전 재외공관에 지시함.

- 수입 규제 현황(품목 및 규제내용)
- 현재 검토 중인 신규 수입규제조치
- 수입정책 방향
- 수입규제정책 및 동향에 대한 분석 및 대응책

758

2. 상기 지시에 부응한 각 공관의 보고가 수록됨.

각국의 수출지원 제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3 / 2 / 1-92

1. 상공부는 1976.3월 외무부에 선진국 및 주요 경쟁국의 수출지원제도(금융, 조세, 외환, 행정관리 등) 현황을 파악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가 공관을 통해 파악한 아래 국가의 수출지원제도 현황이 수록됨.
 - 영국, 미국, 대만(구 자유중국),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의 한국산 특정 섬유류 수입 규제

생산연도 1967-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3 / 11 / 1-62

1967.4.13.자로 주제네바대사와 주제네바 핀란드대사 간에 서명된 양해록(Record of Understandings)에 의거하여 핀란드 정부는 1967년 이래 특정 한국산 섬유제품에 대하여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정부는 핀란드 정부가 유독 한국 산품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취하고 있는 섬유류 수입규제에 관하여 교섭함.

1. 외무부가 1975.2.1. 주핀란드대사관에 핀란드 정부의 대한민국 특정 섬유류 수입제한 조치를 철폐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4.18. 주핀란드대사관은 아래의 이유로 동 철폐교섭의 유예를 건의함.

- 1974년 이후 핀란드의 교역수지가 악화됨.
- 한국의 1974년도 대핀란드 수출은 77배의 출초(出超)를 기록함.
- 핀란드 수입 제도상 실제로 한국산 섬유류 수입에 아무런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입업자들의 종합된 의견임.
- 친소련 중립국인 핀란드 섬유산업을 자극할 경우 정치 문제화 할 가능성이 있음.

2. 외무부는 1975.5.3. 주핀란드대사관에 상기 철폐교섭을 보류한다고 통보하고, 한국의 입장을 핀란드 당국에 표명하도록 지시함.

- 1967년 한국의 GATT(관세및무역예관한일반협정) 가입 시 핀란드 측이 한국 측에 제기하여 합의한 양해록은 사실상 존속 의의가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기하는 것이 법 이론적으로 타당하므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3. 외무부는 1976.2.3. 주핀란드대사에게 핀란드가 한국산 섬유류 수입에 대해 1974년을 기준년도로 쿼터제를 실시할 움직임이 있다는 국내 신문 보도에 대하여 사실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함.

4. 주핀란드대사관은 1976.2.3. 핀란드 당국이 한·핀란드 간 양해록에 의한 수입허가(Import Licensing) 대상 품목 중 일부 섬유류에 대하여 한도량을 설정하고 있음을 보고한바, 외무부는 2.12. 상공부에 이에 대한 의견 통보를 요청함.

5. 상공부는 1976.2.4. 및 2.10. 외무부에 대한무역진흥공사 헬싱키 무역관 정보에 의하면 핀란드에서 한국산 수입섬유류에 대하여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 주핀란드대사를 통해 핀란드 정부의 동향을 상세히 파악, 보고 조치하도록 요청함.

한·가봉 종합백화점(유신백화점) 합작 설립 및 개관, 1977.12.8.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N-6-23 / 7 / 1-44

1977.12.8. 한·가봉 종합백화점(유신백화점) 개관식에 장경순 제1무임소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참석함.

1. 백화점 설립 경위

- 1976.1월 한국 통상사절단 가봉 방문 시 가봉 정부와 쌍용 측은 종합백화점 건설에 관해 원칙적으로 합의
- 1976.3.15. 가봉 대통령은 백화점 설립 계획서 승인
- 1976.4.30. 가봉 경제사절단 방한 시, 가봉 측과 쌍용 측 합의의정서 서명
- 1976.11.14.~20. Barro 가봉 대통령 고문을 단장으로 한 가봉 특별경제사절단 방한 시, 백화점 건설 관련 협의 및 가봉 대통령의 친서 전달

2. 한·가봉 합작 유신백화점 건설 및 개관

- 합작투자회사: 유신백화점(La Renovation, 지하 1층 지상 15층)
 - 회사명: SOGACCO(한·가봉 통상주식회사)
 - 자본금: 100만 달러(가봉 CODEV 50%, 한국 (주)쌍용 50%), 운영은 쌍용이 담당
 - 사업목적: 종합백화점 건설 및 운영, 생필품 제조공장 건설
 - 총 공사비: 1,200만 달러(가봉 정부 지급보증으로 쌍용이 900만 달러 차관 공여)
- 1977.12.8. 가봉 수도 리브르빌에서 봉고 가봉 대통령을 비롯한 가봉 3부 요인, 외교사절 등 참석 하에 개관식 거행

3. 가봉 유신백화점 건설의 의의

- 한국기업의 차관공여에 의해 순수한 한국 기술진(200여명)과 자재로 건축
 - 가봉 최고의 16층 건물 건축으로 봉고 가봉 대통령은 한국의 기술과 협력정신을 높이 평가
- 가봉 및 인접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성 제고
- 양국 우호협력 관계 강화의 계기(주평양 가봉대사관 철수 방침)

한·일본 통상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6-23 / 8 / 1-38

1975~76년 중 한·일본 간의 통상 관련 내용임.

1. 제12차 한·일본 무역회담(1975.12.1.~2., 동경)

- 한국 측
 - 한·일본 간의 격심한 무역역조 현상에 관하여 일본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양국간의 역조시정을 위한 제반사항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함.
- 일본 측
 - 한국 측의 입장을 문서로 제시하여 주면 그것이 일본의 각 성(省)을 설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임.

2. 외무부 통상국장은 1976.1.14.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외무부로 초치하여 한·일본 간 무역역조 시정 문제와 관련한 한국 측의 입장을 담은 비망록(Aide-Memoire)을 전달함.

3. 외무부가 작성한 한·일본 간 무역역조 시정 방안 검토 자료가 수록됨.

- 기본방향
 - 상호협력을 기초로 한 국제 분업 추진
 - 단계적인 확대 균형 모색

한·라이베리아 통상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N-6-23 / 9 / 1-12

1976년 중 한·라이베리아 간의 통상 관련 교류 동향임.

1. 1976년도 제2차 한국 민간 무역사절단 일행은 1976.7.23.~28. 라이베리아 몬로비아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전시기간 중 약 20만 달러의 실적을 거둠.
2. 라이베리아 외무부는 1976.8월 주라이베리아대사관에 라이베리아 관계인사(국방부장관 포함 3~4명)가 한국산 군복류 구매가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하기를 희망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공식 초청 가능 여부를 문의함.
3. 주라이베리아대사관은 1976.12월 한국산 포니 20대가 1976년 말 라이베리아에서 시판될 예정이라고 보고하면서 이를 계기로 라이베리아 일간지 및 주간지에 한국 경제발전 및 해외진출상품에 관한 특집 기사 게재를 건의함.
4. 라이베리아 농업부 산하 Lofa County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는 1976.12월 동 지역 농업개발계획에 소요되는 수송차량 및 도로건설장비 등에 대한 입찰공고를 공표하고 주라이베리아대사관에 한국 업체의 참여 주선을 요청함.

한·폴란드 교역 추진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통상3 / 구주3

MF번호 N-6-23 / 10 / 1-39

1974~76년 중 한·폴란드 간 교역 추진을 위한 교섭 내용임.

1. 박형구 금호실업 부사장은 1975.3월 일본상사의 주선으로 주일본 폴란드대사관 상무관을 방문 하여 한·폴란드 간 직접 교역 가능성을 타진하였다고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 동 상무관은 폴란드·한국 간 간접교역은 환영하나, 직접교역에 관해서는 본국에 알아본 후 알려 주겠다고 함.

764

2.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직원은 1975.12월 및 1976.1월 폴란드 실업가(폴란드·네덜란드 합작무역 상사 재정고문)를 면담하고 아래 사항을 협의함.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직원의 폴란드 방문
 - 한국과 폴란드 간 교역 가능성을 협의하기 위해 폴란드 공산당 외무담당위원회 보좌관 면담 등의 목적으로 방문 추진
- 한국 기업인 파견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직원의 방문 실현 후, 1~2명의 실무담당 한국 기업인 파견
- 대폴란드 무역상사 설립
 - 로테르담 또는 비엔나에 대폴란드 한국 상품 수출 전담 상사 설립
- 폴란드 언론인 1명 방한 초청

3.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76.2월 외무부의 허가를 받고 동 대사관 직원 2명의 폴란드 방문을 추진하였으나, 폴란드 측이 동인들에 대해 사증 발급을 거부함.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제7차. Canberra, 1976.3.18.-19.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6-23 / 13 / 1-154

제7차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이 1976.3.18.~19. Canberra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장예준 상공부장관
- 호주 측: Anthony 부수상 겸 자원 및 대외무역장

2. 주요 일정

- Fraser 수상 및 Anthony 부수상 예방
- 상공부장관 면담
 - 양국 공업연구기관 간의 기술협력 문제 협의
 - 호주의 대한민국 투자를 통한 제3국 수출장려 문제 협의
- 제1산업장관 면담
 - 한·호주 면양시범농장 지원 문제, 수산협력을 위한 합작투자 문제 협의
 - 대한민국 원당수입에 있어서의 적기 배분 문제에 대한 협조 요청
- 상업소비부장관 면담
 - 인삼제품을 약품에서 식품으로 재분류하도록 협조 요청, 신발·섬유류 및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완화 요청
 - 무역역조 시정 문제 협의
- 교통부장관 면담
 - 선박·자동차의 대호주 수출 문제 협의
 - 이종과세협정, 투자보장협정, 항공협정, 해운협정 체결 문제 협의

3. 회담 결과(공동성명서)

- 장예준 상공부장관은 한·호주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의 확대 균형 발전을 위한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 활용을 강조하고 호주의 수입제한 조치 완화를 역설
- Anthony 호주 부수상은 한국의 산업발전에 따른 원자재 공급 문제, 호주 경제인의 대한민국 진출 등에 관심을 표명하고 수입규제 조치는 호주경제의 여건상 허용되는 대로 조속히 완화하도록 고려중이라고 언급

한·벨기에 통상장관회담, 제2차. 서울, 1976.5.10.-14.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3 / 14 / 1-351

제2차 한·벨기에 통상장관회담이 1976.5.10.~14. 서울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장예준 상공부장관
- 벨기에 측: Toussaint 대외통상장관

2. 주요 일정

- 통상장관회담 참석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상공부장관, 교통부장관 예방
- 창원기계공업단지, 울산유공, 현대조선, 포항제철 등 산업시찰, 경주관광

3. 주요 의제

- 양국 경제 및 교역현황 설명
- 통상증대
 - 수입규제를 비롯한 통상 현안 문제 검토
 - 한·벨기에 통상협력
- 경제협력
 - 자본협력: 공공차관, 상업차관, 대한(對韓) 합작투자 확대
 - 기술협력
- 기타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활동 지원

4. 동 회담은 1976.5.13. 양국 수석대표가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폐막함.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제7차, Wellington, 1976.3.15.-16.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6-23 / 15 / 1-129

제7차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이 1976.3.15.~16.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장예준 상공부장관
- 뉴질랜드 측: Talboys 부총리(외무장관 및 대외무역장관 겸임)

2. 주요 일정

- Muldoon 수상, 국방장관, 산림장관 예방·면담
 - Muldoon 수상에게 대통령의 각별한 인사 및 방한 환영의 뜻을 전달
 - 동 수상은 한국 국민의 반공정신 찬양
 - 한국 측의 조림사업에 대한 기술협력 요청에 대해 뉴질랜드 측은 추후 협력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함.

3. 회담 결과

- 한국의 수출관심 품목에 대한 자유화 요청
 - 뉴질랜드 측은 수입자유화 및 관세인하에 대하여는 국제수지 호전 시 선처를 약속하고, 특혜관세에 대하여는 호의적 반응을 보이면서 1976.5월 중 확정 발표 예정이라고 언급
- 철도차량의 국제 입찰 및 펄프공장 합작 제의
 - 뉴질랜드 측은 가급적 한국을 배려하겠다고 함.
- 한·뉴질랜드 무역협정 개정
 - 양측은 경제 기술 협력과 선박기항 등의 문제도 포함시키기로 합의
 - 1976.4월 Muldoon 수상 방한 시 정식 서명 추진

한·태국 통상장관회담, 제2차. 서울, 1976.7.19.-22.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6-23 / 16 / 1-181

제2차 한·태국 통상장관회담이 1976.7.19.~22. 서울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장예준 상공부장관
- 태국 측: Damrong Lathapipat 상무장관

2. 주요 일정

- 통상장관회담 참석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예방
- 포항제철, 현대조선, 한국비료, 국제화학, 대한중기, 동양물산 등 산업시찰, 경주관광

3. 주요 의제

- 양국간 무역현황
- 통상증대
 - 교역확대 관심품목, 비관세 장벽완화 및 철폐, 관세장벽 완화, 국제입찰에서의 협조, 양국 무역협정 개정
- 기술협력
- 기타 한·태국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설립

4. 회담 결과(공동성명서)

- 양국간의 수출입 촉진
 - 국제경쟁력을 전제로 호의적 배려
 - 철강제품, 일부 섬유류 제품 수입제한 조치 일부 폐지 고려
- 인삼 제품 관세 재분류
 - 인삼정의 관세분류를 현행 약품류에서 식품류로 재분류하여 식품으로 수입되도록 추진
 - 인삼류 관세 인하 약속
- 방콕협정의 양허품목 확대
- 일괄방식 국제입찰 가급적 지양
 - 품목별 입찰 적극 장려 추구
- 무역협정 개정 원칙 합의



- 한·태국 합동 무역실무협의위원회 설치
 - 동 실무위원회 구성 및 분기별 회의 개최
- 한·태국 무역협력위원회 운영 지원

5. 동 회담은 1976.7.22. 양국 수석대표가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폐회함.

한·미국 상공장관회담, 제7차. 서울, 1976.5.22.-25.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3 / 17 / 1-162

제7차 한·미국 통상장관회담이 1976.5.22.~25. 서울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장예준 상공부장관
- 미국 측: Richardson 상무장관

2. 주요 일정

- 통상장관회담 참석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예방
- 대통령 주최 오찬, 국무총리 주최 오찬
- 포항제철, 현대조선 등 산업시찰, 경주관광

3. 주요 의제

- 양국간 통상현황 및 증대방안 검토
 - 통상증대, 미국의 수출입에 미치는 한국의 정책, 한국의 수출입에 미치는 미국의 정책 등
- 한·미국 간 경제협력
 -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미국의 참여, 한국의 외국인 투자 환경, 미국의 대한국 투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역할, 한국 표준시험소와 미국 표준국의 협조
- 기타
 - 미국의 1976년 어업자원보호법, 미국영화수입, 공업소유권 보호, 미국 보험회사의 한국 내 영업

4. 주요 회담 결과

- MTN(다자간무역협상)의 열대산물 관세 양허 문제에 관하여 교섭
 - 미국 측은 열대산품에 관한 한·미국 간의 관세 양허 교섭을 오는 6월 중 제네바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고, 한국 측은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
 - 한국 측에서 제시할 양허가능 품목에 관해서는 재무부와 상무부에서 협의하여 선정하기로 실무급에서 양해됨.

5. 동 회담은 1976.5.25. 양국 수석대표가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폐회함.

한·호주 섬유류 쿼터 교섭. 전2권 (V.1 1974년도)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6-24 / 1 / 1-404

1974년 중 한·호주 간 섬유류 쿼터 교섭에 관한 내용임.

1. 호주 정부는 1974.7.9. 의류 수입규제 조치를 발표함.

- 한국, 홍콩, 인도, 중국(구 중공) 등의 의류 수입이 호주의 의류시장을 교란시키므로 관계국의 의류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침 수립
- 한국 수출품 중 자율규제 교섭 대상이 되는 품목은 편직의류(knitwear)임.

2. 호주 정부는 1974.7.19. 주한 호주대사관을 통해 편직의류 7개 품목에 대한 수출자율규제 교섭을 제의함.

3. 수출자율규제 교섭회의(1974.8.26.~28., 서울)

- 대표
 - 한국 측: 김동휘 외무부 경제차관보
 - 호주 측: Fogarty 대외무역성 제1차관보
- 양국간 견해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호주 측은 급속한 수입 증가로 시장교란이 있음을 강조하고, 1974.4.30.로 끝나는 과거 1년 간의 호주 측 수입 실적을 쿼터량으로 하여 1974.7.1.부터 1년간 7개 품목(2개 품목은 Surveillance 품목, 나머지 5개 품목에 대해서만 규제)에 대하여 수입교제조치를 취하겠다고 함.
 - 한국 측은 7개 품목 중 호주 수입시장에서 10% 이상 점유하는 4개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 품목의 대호주 수출이 호주 수입시장에서 25% 이상 점유할 경우 즉시 양측이 협의를 가져 규제조치에 합의하도록 하는 Trigger System을 제안하였으나 호주 측에서 수락 거부함.
- 호주 정부는 9.18. 대외무역장관과 제조공업장관 공동 명의로 한국의 편직의류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하여 일방적 수입규제 조치를 단행함.

4. 호주 정부는 1974.9.30. TSB(섬유류감시기구) 의장에게 대한민국 직물 수입제한 조치를 정식으로 통보하였으며, 한국은 10.2. TSB 의장에게 호주의 일방적 조치를 제소함.



5. TSB 회의(1974.10.10.~16., 제네바)

- 대표
 - 한국 측: 김선길 상공부 국제협력차관보
 - 호주 측: Forgaty 대외통상성 차관보, Ives 제조성 차관보
- 한국과 호주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한 결과, 한국 측이 시장을 교란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짓고 양국간 재협의를 권고함.
- 양측은 1974.11월 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

한·호주 섬유류 쿼터 교섭. 전2권 (V.2 1975-76년도)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6-24 / 1 / 1-404

1975~76년 중 한·호주 간 섬유류 쿼터 교섭에 관한 내용임.

1. 호주 정부는 1976.2.17.자로 편직의류에 대한 관세 쿼터 제도(Global Tariff Quotas) 실시를 발표함.

- 호주 정부는 2.17. 한국에 제의한 협의 요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비망록(Aide Memoire)을 한국 측에 전달
- 호주 정부는 1975.11.7. 한·호주 양국간 편직의류자율규제양해각서(1974.11.29. 서명)의 연장을 위한 협의를 한국 측에 제의한 바 있음.

2. 참고자료

- 호주의 대대만(구 자유중국) 섬유류 수입규제(1974.7월 주대만대사관 보고)
- 호주 의류수입 교섭단의 대홍콩 교섭결과(1974.8월 발표)
 - 홍콩으로부터의 의류 수입량은 1974.4월 이전의 1년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고정
 - 동 규제는 1975.6월까지 적용
- 호주·홍콩 간의 의류수출제한 합의와 관련하여 대상품목에 대한 쿼터를 실시하기 위해 채택한 수출승인제도 대상 품목(Items subject to Export Authorization Scheme)(1974.8월)
- 호주·인도 간 서명된 의류수출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관련 사항(1974.8월 주인도대사관 보고)
- 홍콩·호주 간의 의류품목 수출 제한 관계 자료(1974.8월 주홍콩총영사관 보고)
- 1975.5~6월 중 호주·중국(구 중공) 간의 의류 자율규제 교섭 진행 상황
- 1975.11~76.2월 중 필리핀 산 섬유류에 대한 호주의 수입규제 및 이에 대응한 필리핀 정부의 호주산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관련 사항

한·오스트리아 [합섬양말·합섬셔츠] 쿼터 회담. Vienna, 1976.6.3.-4.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4 / 3 / 1-38

한·오스트리아 간 합섬양말·합섬셔츠를 대상으로 한 쿼터 회담이 1976.6.3.~4.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노진식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2. 회담 결과

- 합섬양말
 - 유효기간: 1976.6.1.~1977.7.31.
 - 쿼터: 6백만 족(1976.6.1. 이전 선적분 제외)
- 합섬셔츠
 - 유효기간: 1976.8.1.~1977.7.31.
 - 쿼터: 91만 pcs

3. 오스트리아 상공부 측이 1976.6.30.자 공한으로 합섬양말 회담 결과를 통보한 데 대해 주오스트리아대사가 7.2. 공한으로 이를 확인함.

한·캐나다 섬유쿼터회담. Ottawa, 1976.6.7.-9.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4 / 4 / 1-144

한·캐나다 섬유쿼터회담이 1976.6.7.~9.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노진식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 캐나다 측: McKinnierey 상공성 특별수입정책실장

2. 회담 결과

- 외의류(外衣類, 신규품목)
 - 규제대상: 외의류(snow suits, snowmobile suits, ski suits, ski pants, jackets and vests including parkas and ski jackets)
 - 규제기간: 1976.1.1.~1976.12.31.
 - 쿼터: 2백만 units
 - 경과조치: 한국 수출업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30만 units의 쿼터 증량 인정
 - 추가 쿼터: 캐나다 시장사정을 고려하여 추후 쿼터 증량 가능성 검토
- 기존 쿼터 품목
 - 캐나다의 TCB 보고서가 미제출 되었으므로 잠정적으로 6% 증량한 수준에서 합의하고 1976.9.15.~10.15. 사이에 서울에서 재협약하기로 함.

3. 정부대표단 활동

- 한국 대표단은 1976.6.9. 캐나다 국세청 평가조사총국장을 면담하고 한국산 의류에 대한 캐나다 측의 과세표준 인상 조치에 관하여 협의함.
 - 한국 측은 캐나다 국세청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35%의 가격할증(Mark-Up)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함.
 - 캐나다 측은 35%의 가격할증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관을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함.

EC(구주공동체)의 제3국산 양송이 통조림 수입규제 조치 및 철폐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4 / 5 / 1-191

1974~76년 중 EC(구주공동체)가 제3국에서 생산된 양송이 통조림에 대하여 수입규제 조치 및 철폐에 따른 교섭 내용임.

1. EC는 1974.8.26.부터 한국 등 제3국에서 수입하는 양송이 통조림에 대해 수입규제(허가제)를 실시함.

- 한국 측은 주벨기에대사관을 통해 동 규제조치가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처사로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함.
- 한국 양송이 업계 대표 2명이 9월 브뤼셀을 방문하여 EC 당국과 협상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EC 측: 최저가격 제도 실시에 따른 협의 가격 제시
 - 한국 측: 현재의 시장 점유율 유지 수준에서 쿼터제 실시안 제시
- 한국 측은 9.30.~10.1. 브뤼셀 개최 한·벨기에상공장관회담 및 EC 집행위원장 면담 시 양송이 수입규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조속한 규제 철폐를 촉구함.

2. EC 집행위원회는 1975.6월 양송이 통조림 수출 자율규제 절차 수립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접촉을 제의한바, 한국 측은 EC 측과 양송이 수출 자율규제 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1976.5월 동 자율규제 교섭은 아래 사유로 중단됨.

- EC 측이 관련 3개 수출국과 1976년도 국별 자율 수출규제량을 교섭한 결과, 모두 최대수출 기록(Best Performance Record)에 의한 규제수량을 고수함으로써 총량이 너무 많아져 당초 예정된 수출자율규제 조치 시행을 보류하고 수입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힘.

3. EC는 1976.12.17. 조치를 통해 1974.8월부터 시행해온 제3국산 양송이 통조림 수입규제 조치를 철폐하고 1977.1월부터 수입자유화를 실시하기로 함.

EC(구주공동체)의 대한민국 Phase-out Programme 심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4 / 6 / 1-93

1976년 중 EC(구주공동체)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단계적 해제 프로그램(Phase-out Programme)에 관한 내용임.

1. 제7차 TSB(섬유류감시기구) 회의(1976.5.10.~12.)

- EC 측은 MFA(다자간섬유협정) 제2조 제2항에 따른 수입규제 조치의 철폐와 관련한 단계적 해제 프로그램을 제출함.

2. 제8차 TSB 회의(1976.5.31.~6.1.)

- EC의 상기 프로그램은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므로 TSB는 그 내용의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회의보고서에 기록하고 이를 정식 토의하지 않음.

3. TSB는 1976.10월 EC의 동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10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는 이유로 EC가 추진한 양자간 섬유협정 중 가서명은 되었으나 정식 서명되지 않은 협정에 대하여 조속 서명할 것을 EC 측에 촉구함.

4. 제16차 TSB 회의(1976.11.22.)

- EC의 조치는 MFA 제2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EC 측이 규제 해제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재검토하여 결과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는 EC의 단계적 해제 프로그램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함.
- 한국 대표 발언 요지
 - 제반 사실을 고려할 때 EC가 단계적 해제 프로그램 하에 취한 일방적인 규제조치는 제2조 제3항에 부합하지 않음.
 - 섬유생산 및 무역에서 겪고 있는 한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EC는 즉시 이러한 규제 조치를 철회하여야 함.

한·독일 통상 실무자회의. 서울, 1976.5.31.-6.4.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4 / 7 / 1-121

한·독일 통상 실무자회의가 1976.5.31.~6.4. 서울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대표)

- 한국 측: 이창수 외무부 통상국장
- 독일 측: Friske 독일 경제성 섬유과 부과장

2. 주요 일정

- 외무부 통상국장 및 코트라 이사 주최 만찬
- 부산 및 울산 산업시찰
- 경주 관광

3. 주요 의제

- 의장권 보호 문제, 서베를린 수입박람회 쿼터 문제, 대독일 양말 쿼터 집행 문제

4. 회의 결과

- 동 실무자회의는 최종적인 합의를 보지 못함.
 - 의장권 보호 문제와 서베를린 박람회 문제에 관해서는 의견 접근
 - 양말 문제는 미합의
- 양말 문제 협의내용
 - 양측은 1975.5.24. 이전 선적분은 쿼터에 계상하지 않는 것에 합의
 - 한국 측은 수출승인서(E / L, Export License) 없이 선적된 부분이 계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독일 측이 수락하지 않음.
 - 한국 측은 5.24. 이전 계약분 및 한국 측 E / L 발급분에 대한 통계차이분에 대해 한국 측의 양보와 독일 측의 특별배려를 요청하였으나 독일 측이 반대

한·인도 합동무역위원회, 제1차. 서울, 1976.12.17.-18.

생산연도 1975-1977박강호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6-24 / 8 / 1-236

제1차 한·인도 합동무역위원회 회의가 1976.12.17.~18. 서울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호중 외무부 경제차관보
- 인도 측: A.N. Varma 상무부 차관보

2. 주요 의제

- 무역확대, 무역 불균형 시정, 비료 장기구매, 어업합작,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 등

3. 회의 결과

- 무역확대 문제: 양측 수출관심 품목 무역확대에 합의
 - 한국 측: 비료, 철도차량·선박·주철관 제조 플랜트·낙하산·폴리에스터 및 비스코스사·신문지 등
 - 인도 측: 철광석(수입량 증가요청)·공업용 소금·천연고무
- 무역 불균형 시정 문제
 - 한국산 철광석 수입으로 초래된 무역 불균형 격차 축소를 위해 비료 수입 등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
- 비료 장기구매 문제
 - 한국 측: 연 10만 톤 구입을 강력히 요청
 - 인도 측: 한국 회사가 MMTC에 구체적인 판매 신청(offer)할 것을 권유
- 어업합작 문제
 - 인도 측이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이전에 어업합작을 조속 실현 할 것을 요청한데 대하여 한국 측은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적당한 회사를 추천하기로 약속
- 이중과세방지협정 실무회담 준비 개시 확인
- 정보교환, 경제 인사 교류를 강화하고, 각종 박람회·전시회 상호 참가에 합의
- 제2차 회의 개최 합의(1977.11월 경, 뉴델리)

한·일본 무역회담, 제13차. 서울, 1976.11.29.-30.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1 / 동북아1

MF번호 N-6-24 / 9 / 1-264

제13차 한·일본 무역회담이 1976.11.29.~30. 서울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창수 외무부 통상국장
- 일본 측: 나카에 외무성 아시아국장

2. 주요 의제

- 한·일본 간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여,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관세와 비관세 문제에 관해 협의함.

3. 회의 결과

- 지역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상호협조가 필요하며 양국간 무역의 확대 균형 달성을 위해 쌍방이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함.
- 관세 문제
 - 28개 품목의 관세인하, 특혜관세제도 개선에 관한 6개 사항 및 가공 원자재 관세 경감제도 개선에 관하여 협의
 - 특혜관세제도에 있어서 공산품 기본 상한(Ceiling) 책정 년도를 최근 년도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고, 기타 문제 등은 가능한 것부터 검토하기로 함.
- 비관세 문제
 - 수산물: 해태(海苔, 김)의 거래 방법 개선에 관하여 민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관계자를 지도하기로 함.
 - 섬유류: 생사류의 1977년도 쿼터 등 현안 문제 협의를 위해 1977.1월 동경에서 별도의 정부간 회담을 갖기로 함.

4. 평가

- 동 회담은 상호 협조적인 자세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양국 무역의 확대 균형 실현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 된다는 점을 상호 인식함.
- 동 회담에서 양측은 즉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상호 진지한 노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결의를 새롭게 함.

5. 동 회담 합의의사록이 수록됨.

1976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6-24 / 10 / 1-174

1976년 중 개최된 한·일본 간 생사류(生絲類)회담에 관한 내용임.

1. 제1차 한·일본 생사류회담(1976.2.8.~9.,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노진식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 일본 측: 노구치 통상성 생활산업국장
- 회의 결과
 - 일본 측은 견제품 전반에 관한 1976년도 1년간의 교역 물량 협정 체결을 제의한 반면, 한국 측은 협의 대상을 기존 규제 대상인 3개 품목으로 한정할 것을 주장
 - 양측은 협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합의는 이루지 못함.

2. 제2차 한·일본 생사류회담(1976.3.4.~6., 동경)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노진식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 일본 측: 노구치 통상성 생활산업국장
- 회의 결과
 - 생사·견제품 무역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양측간 주장의 격차를 줄이지 못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3. 제3차 한·일본 생사류회담(1976.4.7.~10.,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정섭 외무부 통상국장
 - 일본 측: 마에다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
- 회의 결과 아래의 내용으로 합의함.
 - 생사·견연사
 - 수출입 물량: 일본 측은 1년간(1976.4~77.3월) 36,000표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한국 측은 1년간(1976.4~77.3월) 42,700표를 일본에 수출
 - 생사·견연사 비율: 월별 선적수량을 약 3,600표로 보고, 그중 견연사는 월 2,000표씩 선적, 나머지 수량은 생사에 해당
 - 견연사의 교역방식: 한국 측의 선적 기준에 의한 수출자율규제 방식



- 건직물
 - 수출 물량: 한국은 1년간(1976.4~77.3월) 12,466천㎡(1975년 1년간의 한국 수출통계) 수출
 - 교역방식: 한국의 수출자유규제 방식
- 양측 수석대표는 동 회담 토의 기록에 가서명함(공표하지 않음).
 - 일본의 통산성 정무차관과 농림성 정무차관이 1976.4.9.~10. 함께 방한하여 한국 정부 고위층과의 교섭을 통하여 기본적인 문제에 관하여 합의
 - 동 합의를 기초로 양측이 각각 토의 기록안 작성

한·노르웨이 섬유쿼터회담. Oslo(노르웨이), 1976.6.24.-25.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5 / 3 / 1-79

한·노르웨이 섬유쿼터회담이 1976.6.24.~25.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창수 외무부 통상국장
- 노르웨이 측: Vigmostad 외무성 경제부장

2. 회의 목적

- 1968.1.19. 최초의 쿼터 협정이 체결된 이래 매년 1년 기간의 협정이 갱신·체결되어 왔으며, 동 회담으로 1976년도 한·노르웨이 쿼터 협정이 체결되어 1977.1월 이후 신탁협정이 체결되기 까지 잠정 적용됨.

3. 규제대상별 합의 내용

- 직물(fabrics)(규제기간: 1976.1.1.~12.31.)
 - 기존 4개 품목 중 1개 품목을 물량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여타 3개 품목은 규제대상으로 함.
 - 쿼터는 400M / T으로 함.
- 여타 섬유제품(규제기간: 1976.1.1.~12.31.)
 - 1975년도에 한국으로부터 수입실적이 없는 2개 품목을 제외하고 여타 7개 품목을 계속 규제대상으로 합의함.
 - 쿼터 총액을 78만 5천 달러로 하고, 품목별 한도액을 11만 5천 달러로 합의함.
- 비섬유제품
 - 노르웨이 측은 비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규제를 계속 실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한국 측 관심 품목인 신발류(footwear) 및 칼(knives)의 쿼터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합의함.
- 신규 규제대상
 - 노르웨이 측이 신규 규제대상으로 제시한 품목인 고무장화(rubber boots)와 가죽의류(leather clothing) 중 고무장화에 관해서는 당분간 문제시하지 않기로 하고, 가죽의류에 관해서는 한국 측이 수출 감시를 한다는 조건으로 동 회담에서는 규제 문제로 논의하지 않기로 함.

4. 결과

- 한·노르웨이 쿼터 협정이 1976.6.25.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창수 외무부 통상국장과 Vigmostad 노르웨이 외무성 경제부장 간에 서명되고 동일자로 발효됨.
 - 협정기간: 1976.1.1.~12.31.
- 1977년도 쿼터 교섭을 1976.9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양해함.

한·일본 무역확대 균형위원회, 제1차. 동경, 1976.10.4.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6-24 / 11 / 1-61

제1차 한·일본 무역확대균형위원회 회의가 1976.10.4. 동경에서 개최됨.

1. 참가자(대표)

- 한국 측: 오범식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위원장)
- 일본 측: 일본 무역회 전무(위원장)

2. 주요 의제

- 한·일본 양국간 무역현황 분석 및 전망
- 한·일본 양국 무역의 현안과제 협의
- 한·일본 무역의 확대 균형 방안 도출

3. 회의 결과

- 한·일본 양국 무역현황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한국의 36개 관심품목에 대한 현행 고율관세와 특혜관세제도의 개선 및 가공 원자재 관세 감면 대상품목 확대방안을 협의함.
- 한·일본 양국간 무역 확대 균형 방안을 조사 연구하여 민간합동경제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함.
- 동 조사연구를 위한 소위원회를 창설하기로 함.

4. 참고자료

- 한·일본 무역확대균형위원회 회의자료(1976.9월, 한국무역협회)

MFA(다자간섬유협정) 종합평가 및 장래문제 협의를 위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TC(직물위원회) 회의, 제1차. Geneva, 1976.11.30.-12.10.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3 / 12 / 1-317

정부는 1976.11.30.~12.10. 제네바에서 개최된 MFA(다자간섬유협정) 종합평가 및 장래문제 협의를 위한 제1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TC(직물위원회) 회의에 최호중 외무부 경제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목적

- 1974.1.1. 발효된 MFA 제10조 제4항에 의거한 협정의 운용 검토와 제10조 제5항에 의거한 MFA의 장래 문제 토의를 목적으로 함.

2. 주요 의제

- MFA의 문제점
 - TSB(섬유류감시기구)의 소극적 기능(강제권한 부재), 필요한 정보 부족 및 유권적 해석 권능 부재, 수입국에 의한 시장 교란(Market Disruption) 개념의 자의적 해석 및 수입규제 문제 등
- 회의 목표에 대한 쟁점
 - 검토회의에서 MFA 조항의 유지연장 방안과 개정연장 방안이 대립되며, 연장의 경우 선진 수입국은 수입규제 방향으로, 수출개도국은 섬유 수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MFA의 개정을 희망하는 입장 대립 노정

3. 훈령

- 한국 섬유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의 폭과 강도가 현저히 증가하고 쿼터 품목 수출비중이 대폭 증가(1976년 38%)함에 따라 수입국에 유리하게 운영되는 MFA 규정을 개발도상 수출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현상 유지가 기본 입장
 - 최소기능생산(Minimum Viable Productions) 개념 명확화, GATT에 의거한 수입국 측의 세이프가드 남용 문제, 시장교란 개념의 불명확 및 선진 수입국의 남용 등 문제 제기
 -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개정을 희망하는 개도국의 입장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이면적으로는 현 협정의 연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미국 및 홍콩 등과 절충 도모

4. 결과

- MFA 개정 문제
 - 참가 24개국 중 절대 다수가 무개정 연장을 지지하였으며(한국은 협정이 그 기본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장되기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 결론이 나지 않아 1977.2월 직물위원회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
- TSB 구성 문제
 - 홍콩은 한국과의 상호교체 관례에 따라 1977년 한국을 교체 대표로 지명하겠다는 의사표명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개발도상국간 MFA(다자간섬유협정)에 관한 협상회의. Bangkok, 1976.11.9.-10.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5 / 4 / 1-147

정부는 1976.11.9.~10. 방콕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개발도상국간 MFA(다자간섬유협정)에 관한 협상회의에 김기수 주태국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 현황

- 7개 ESCAP 회원국 및 2개 옵서버 국 대표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등 국제기구 대표

2. 회의 목적

- MFA의 운영 및 개정 문제에 관한 개발도상국 간 협상

3. 결과

- MFA 운영상의 문제점
 - 홍콩은 MFA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협정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
 - 인도는 협정이 개도국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대우(Fair and Balanced Treatment)'를 보장하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
 - 한국 대표의 연설문이 기초문서(base paper)로 채택됨.
 - UNCTAD 대표는 협정상 문제점으로 MFA의 인조섬유 규제조치는 개도국의 인조섬유 산업에 대한 예방적 행동이며 가격조항이 국제무역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시장교란 조항이 개도국에만 적용됨을 지적
- MTN(다자간무역협상) 하에서의 섬유류 무역자유화 문제
 - 홍콩, 한국 등이 MTN에서의 섬유류 무역 협의 필요성 주장
 - 향후 MTN에서 섬유류 교역에 관한 QR(Quantitative trade Restriction, 수입수량제한) 및 관세장벽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
- MFA 장래에 관한 공동접근
 - 사무국에서 각국의 발언 내용을 참작, 현안 및 문제점 정리 문서 작성
 - 동 자료에는 선진국에 의한 MFA의 자의적 해석 문제, 최소기능제품(Minimum Viable Production)의 개념 문제, 시장교란의 정의 문제 등을 열거
- 공동입장 정리
 - 각 회원국은 동 회의 내용 검토 후 1976.11.29. 제네바에서 회의 개최 공동입장을 정리하기로 함.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2권 (V.1 제1-4차)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5 / 1 / 1-357

1976.1~4월 기간 중 개최된 제1~4차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 확대회의 관련 외무부 보고 사항이 수록됨.

1. 제1차 회의(1976.1.28.)

- 1975년도 지역별 및 공관별 수출 실적과 1976년도 수출 목표 및 활동계획 보고

2. 제2차 회의(1976.2.25.)

- 한국의 경쟁국인 대만(구 자유중국) 등 4개국의 지역 시장별 경쟁 상황과 전자제품 수출 확대 계획 보고

3. 제3차 회의(1976.4.7.)

- 수출금융규제를 위한 선진국 간의 국제협정 체결 동향과 EC(구주공동체)의 개발도상국을 위한 수출진흥원조기금 사용에 관하여 보고

4. 제4차 회의(1976.4.29.)

- 1976년도 공관장회의 결과 및 국제입찰을 통한 상품수출 증대 방안에 관하여 보고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2권 (V.2 제5-10차)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5 / 2 / 1-424

1976.5~12월 기간 중 개최된 제5~10차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 확대회의의 관련 외무부 보고사항이 수록됨.

1. 제5차 회의(1976.5.26.)

- 유엔해양법회의를 계기로 바다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상 수송량의 증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해운 육성 방향과 해외시장 동향에 관하여 보고

788

2. 제6차 회의(1976.6.30.)

- 경제수역 확대와 원양어업 대책 및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외교활동 전개에 관하여 보고

3. 제7차 회의(1976.8.25.)

- 한·일본·대만(구 자유중국)·홍콩 등 4개국의 세계 시장별 상반기 수출실적 비교, 수출화물의 시베리아 철도 이용 현황과 추진방향에 관하여 보고

4. 제8차 회의(1976.9.29.)

- 인삼류 수출 증대 방안과 북한의 대외교역량 현황 분석 보고

5. 제9차 회의(1976.12.29.)

- 조선 수주에 관한 국제동향 및 섬유류 교역과 다자협정 개정 교섭 결과, 공관별·지역별 수출 목표에 관하여 보고

통상사절단 가봉 및 나이지리아 방문, 1976.1.19.-27.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통상3 / 서부아프리카

MF번호 N-6-25 / 5 / 1-137

오범식 무역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통상사절단이 1976.1.19.~27. 가봉 및 나이지리아를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방문 경위
 - 1975.7월 봉고 가봉 대통령의 방한 시 개최된 한·가봉 경제각료회의에서 통상사절단 파견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가봉 정부의 초청에 따라 파견함.
- 방문 목적
 - 가봉: 민간경제협력기구 설립 협의, 양국간 통상증대 방안 협의, 건설협력 방안 협의
 - 나이지리아: 양국간 통상증대 방안 협의

2. 방문 결과

- 가봉(1976.1.19.~24.)
 - 교통, 건설, 상업, 수산, 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의 또는 추가 협의에 합의
 - 화차 30량 연불 수출 합의, 봉골로 소형 수력발전댐 건설 착수, 종합백화점 및 종합상사 설립, 봉제공장 건립, 비행장 건설 입찰 참여, 국민 아파트 건설 검토 및 수산협력 등 합의
- 나이지리아(1.24.~27.)
 - 한국산 철도차량 구매 요청에 대하여 나이지리아 철도건설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협력을 추진하기로 약속, 양국 경제 단체를 통한 상호협력에 합의

3. 대표단 평가 및 건의

- 한국과 순방국과의 경제유대강화, 기자회견을 통한 홍보활동, 주재국 주요 장관들과의 면담과 리셉션을 통한 정치외교면에서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
- 건의사항
 - 구체안 제출 혹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대주재국 경제관계 강화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고려하여 약속한 기간 및 계약 엄수에 유의할 것
 - 한국 상사간 경쟁 방지를 위하여 업종별로 사전 조정하여 창구 일원화

에콰도르 통상사절단 방한, 1976.7.18.-22.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N-6-25 / 6 / 1-20

1976.7.18.~22. 에콰도르 통상사절단의 방한 내용임.

1. 방한 경위

- 주에콰도르대사의 1976.1.20. 에콰도르 외무부 통상국장 면담 시, 통상국장은 경제사절단의 한국 파견을 제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A. Alvarez 주일본 에콰도르대사관대사대리(한국 겸임)를 단장으로 하는 통상사절단이 7월 방한함.

790

2. 주요 활동

- 한국의 수출무역공업단지 설립에 상당한 관심 표명
 - 방한 이전부터 상세한 자료 요청
- 구로공단 시찰
- 농수산부 및 상공부 인사 면담
- 에콰도르 산 바나나의 수입 요청

프랑스 기업인단 방한, 1976.9.15.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N-6-25 / 7 / 1-9

Sudreau 프랑스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프랑스 기업인을 주축으로 한 프랑스 경제 사절단이 1976.9.15. 방한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단장에 대한 예우 등 접수 준비를 위하여 주프랑스대사가 보고한 내용임.

가봉 경제(통상)사절단 방한, 1976.4.25.-30.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아프리카 / 통상3

MF번호 N-6-25 / 8 / 1-159

1976.4.25.~30. Georges Rariwi 가봉 교통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봉 경제·통상사절단이 방한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한국 통상사절단이 1976.1월 가봉 방문에서 거둔 화물열차 연불 수출과 비행장 건설 입찰 참여 등의 경제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종합백화점, 봉제공장, 성냥공장 및 화장지공장 합작 설립, 가봉 횡단 철도용 화차 추가 구입, 한국 기업의 소도시 공항건설 참여, 광물 및 목재 등 원자재 운반용 화물선 구입 등 추가적인 양국간 협력 사업 협의를 위하여 방한함.

2.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교통부장관 및 상공부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 예방
- 쌍용 등 민간기업 대표 면담과 산업시설 등 방문 등

3. 방한 결과

- 한국 기업의 가봉 횡단 철도 제3차 공사와 항만시설 공사 참여, 화물열차의 추가 구입, 양국 합작사업인 유신백화점 건설 조기 완공 등 협의

4. 특이사항

- 정부의 대응
 - 동 사절단의 방한 목적이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망라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1976.4.12.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별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관심 경주
- 국내언론 및 외신은 양국이 가봉 산 우라늄 원광석 수출에 동의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추측 보도로서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

코트디부아르 통상사절단 방한계획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6-25 / 9 / 1-118

1974~76년 중 코트디부아르 통상사절단의 방한계획이 추진되었으나 성사되지 않음.

1. 초청 경위

- 1974.10.18.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한·코트디부아르 간 경제협력강화를 위해 Maurice S. Gnoleba 코트디부아르 통상장관의 1975.3~4월경 일본 방문 계기에 방한 초청할 것을 건의함.
- 1974.10.22. 외무부는 상공부에 아래 사유로 동 장관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 코트디부아르는 큰 시장으로서 직물 및 의류 수출증대가 예상되며, 목재 수출국임.
 - 서부아프리카시장 개척의 전진기지로서 유의미함.
- 1974.12.28. 상공부는 동 장관을 상공부장관 명의로 공식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함.

2. 방한 추진

- 1975.2월 및 3월 주한 코트디부아르대사(동경 상주)는 방한하여 외무부 국제경제국장과의 면담에서 양국간 통상, 경제분야 협력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추후 Gnoleba 장관이 방한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를 희망함.
- 1975.3.20.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동 장관이 5, 6월경에 관민으로 구성된 통상사절단을 직접 인솔하여 일본과 한국 방문 계획이 있다고 보고함.
- 1976.4.27. 동 대사는 4.26. 동 장관을 면담하고 6월말 또는 7월초에 통상사절단을 인솔하여 한국과 일본 방문 예정임을 확인함.
- 1976.5.21. 동 장관의 방한 초청을 위한 상공부장관 명의로 초청장을 송부함.
- 1975.5.24.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주재국 외무성으로부터 동 장관의 방한 일정이 6월 초 주재국 전당대회 개최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어 한국 방문 계획이 취소되었음을 통보받음.
- 1976.8.13. 동 대사는 동 장관이 9.13.~20. 통상사절단을 인솔하여 방한할 계획을 확정하여 왔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1976.8.30. 동 대사는 동 장관 및 사절단의 방한이 일본 측의 방문 연기 요청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을 통보함.

장예준 상공장관 필리핀 방문, 1976.3.10.-12.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N-6-25 / 10 / 1-17

장예준 상공부장관이 1976.3.10.~12. 필리핀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장예준 상공부장관은 1976.3.12.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지역 수출진흥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하고, 아주지역 공관장회의와 코트라 아주지역 관장회의를 주재하여 수출진흥 방안을 협의함.

794

2. 주요 일정 및 결과

- 필리핀 무역성장관, 농무성장관 및 공업성장관 예방
- 양국간 경제기술협력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제의
- 목재가공 합작투자 등에 관한 의견 교환
- 제1차 한·필리핀 상공장관 회담을 1976.6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에 합의
- ADB(아시아개발은행) 총재 면담
 - 한국에 대한 ADB의 효과적인 차관 제공에 사의 표명, 1978년도 사업의 순조로운 지원 당부

Sallinger Rudolf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회장 방한, 1976.9.12.-16.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N-6-25 / 11 / 1-121

Rudolf Sallinger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회장이 1976.9.12.~16.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4.5.20. 주오스트리아대사는 Sallinger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회장(국민당 중진 하원의원)을 방문하여 면담하고, 외무부에 Sallinger 회장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 1974.6.4. 외무부는 상공부장관 앞 서한에서 Sallinger 회장에게 상공부장관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함.
- 1974.6.22. 상공부는 외무부에 동 회장의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
- 1975.4.17. 주오스트리아대사는 동 회장이 동년 5월경 방한 예정이었으나, 최근 입원하여 당분간 해외여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보고함.
- 1975.12.6. 주오스트리아대사는 동 회장의 방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결정되었으며 1976.6월 경까지는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방한 추진 예정임을 보고함.
- 1976.9월 동 회장이 상공부장관의 초청으로 방한함.

2. 초청 목적

- 정부는 오스트리아 종합제철회사인 Vost-Alpine사의 포항제철에 대한 상업차관과 기술협력 제공 등 양국간 산업분야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중립국인 오스트리아의 대북한 수교 저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오스트리아 국내에서 영향력을 가진 Sallinger 회장을 통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등 고위인사 예방
- 포항제철 방문 등

4. Sallinger 회장은 한·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의정서에 1976.9.15. 서명함.

Barre, Raymond 프랑스 대외통상장관 방한, 1976.7.31.-8.2.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1 / 통상2

MF번호 N-6-25 / 12 / 1-169

Raymond Barre 프랑스 대외통상장관이 1976.7.31.~8.2. 방한함.

1. 방한 경위

- 정부는 Jacques Chirac 프랑스 수상의 일본 방문 계기에 동 수상의 방한을 초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대신 Barre 대외통상장관이 프랑스 외무부 고위간부(정무차관보와 아주국장)를 대동하고 프랑스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방한함.

796

2.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등 예방

3. 방한 결과

- 양국간 우호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 교환
- 외무부장관은 Barre 장관과의 면담에서 베트남 사이공에 억류된 한국인 귀환에 대한 협조를 당부
- 한국 측은 섬유류 쿼터제한 폐지, 원자력 5호기 및 6호기 건설 지원 등을 제의
- 경제·통상과 관련하여 양국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역의 균형적인 확대발전에 노력하며 한국의 제4차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프랑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양국 기업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함.

Slater, George H. 가나 국영무역공사장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N-6-25 / 13 / 1-54

1974~76년 중 George H. Slater 가나 국영무역공사 사장 방한 초청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방한 초청 경위 및 목적

- 1974.9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가나를 방문한 윤석헌 주프랑스대사는 분단국과의 불수교(不修交) 원칙에 따라 남북한과의 수교를 거부하는 가나 정부의 의사를 타진하고, 경제적 실리증진과 친한국 인사 확보를 통한 유대강화를 위해 Colonel M.O. Koranteng 가나 국영무역공사 사장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 1974.11월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가나에 무역사절단 파견 준비를 결정함에 따라 12월 코트라 사장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함.

2. 추진 결과

- 1975.2월 국영무역공사 사장의 교체로 George H. Slater 신임 국영무역공사 사장 초청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가나 측 사정으로 연기됨.
- 1976.5월 동 방한 초청이 재추진되었으나, Slater 사장은 방한을 앞두고 연락이 두절됨.

Soliman A. SOLAIM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장관 방한, 1976.9.21.-28.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 통상3

MF번호 N-6-25 / 15 / 1-8

Soliman A. Solaim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장관의 1976.9.21.~28. 방한 관련 내용임.

1.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은 1976.8.18. Solaim 장관의 9.21. 방한 추진 결정을 외무부에 건의 하였으며, 외무부는 구체적인 일정 파악을 동 대사관에 지시함.
2. Solaim 장관이 방한 전에 대만(구 자유중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주대만대사관은 동 장관의 대만에서의 활동 보고와 함께 동 장관의 1976.9.21. 한국 방문에 관하여 입수한 정보를 본부에 확인 요청함.

Haroun EL-AWAD 수단 통상장관 방한, 1976.12.8.-13.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6-25 / 16 / 1-102

Haroun El-Awad 수단 통상장관이 1976.12.8.~13.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6.5월 장예준 상공부장관과 수단 철도청장 면담 시 Suleiman 공업장관과 El-Awad 통상장관의 방한 초청에 합의한바, 상공부장관 명의의 초청장을 김우중 대우 사장의 7월 수단 방문 시 전달함.

2. 방한 목적

- 수단 정부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대우의 봉제공장 합작투자 추진, 한국산 설탕과 비료 구입을 위한 차관 공여 및 수단산 원면 수출에 관하여 협의를 희망함.
- 한국 측은 외교관계 수립과 무역협정 체결 등에 관심을 가짐.

3.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및 상공부장관 예방
- 포항제철, 한국비료, 대우, 동명목재, 인천기계, 구로 공단 등 산업시설 시찰

4. 양국 통상장관은 회담 결과 공동성명서를 채택함(1976.12.13.).

- 양국간의 관계를 조속히 대사급 외교관계로 격상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국간 경제, 통상관계 확대 방안을 논의함.

Oztrak, Orhan 터키 관세 및 전매청장 방한, 1976.10.18.-22.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2 / 구주2

MF번호 N-6-25 / 17 / 1-13

Orhan Oztrak 터키 관세 및 전매청장의 1976.10.18.~22. 방한 관련 내용임.

1. 주터키대사관의 건의로 재무부장관 명의의 초청장이 1976.8.11. Oztrak 청장에게 전달됨.
2. 주터키대사는 1976.9.29. 터키 정부가 한국의 마산수출자유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시찰을 희망한다고 보고하면서 Oztrak 청장의 방한에 대한 최대한 배려를 건의함.

Yeutter, Clayton K. 미국 STR(특수무역대표부) 대사 방한, 1976.7.25.-27.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N-6-25 / 18 / 1-90

Clayton K. Yeutter 미국 STR(특수무역대표부) 대사가 1976.7.25.~27. 방한함.

1. 방한 목적

- Yeutter 대사는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MTN(다자간무역협상)에서의 교섭 안건에 관해 한국 측과 협의하기 위해 방한함.

2. 한·미국 MTN 실무회의(1976.7.26.)

- 주요 의제
 - 수입 QR(수량제한) 및 허가 문제, 일괄관세 인하를 위한 관세협상 방식(Tariff Negotiation Formula) 문제, 정보보조금 및 상계관세 문제, 정부조달에 대한 미국 측의 관세양허 관련 문제 등과 기타 양국 관심사

3. 협의 결과

- QR
 - 미국 측: 국제수지를 위해 반기별 수출입 공고를 통해 한국이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적
 - 한국 측: 국제수지가 호전되면 점진적으로 수입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는 입장 설명
- 정부보조금 및 상계관세
 - 미국 측: 개도국뿐만 아니라 EC(구주공동체) 및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보조금이 수출 지원책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선진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 안에 대한 지지 요청
 - 한국 측: 한국의 보조금은 수출장려책(Export Incentive Scheme)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개도국을 위한 특별대우가 필요함을 지적
- 관세협상 방식
 - 미국 측: 미국의 Linear 방식은 50%의 일괄 관세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EC의 Harmonization 방식은 2.5% 관세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교 설명하면서 한국의 지지를 요청
 - 한국 측: 수출 증대라는 관점에서는 미국 측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나, 절차상 Floor 설정의 반대 등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
- 기타 문제
 - 미국 측: 1977년 내 MTN 교섭 종결을 위해 제네바에서 한·미국 간 긴밀한 협조체제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여타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당부
 - 한국 측: MTN 협상분야 중 양국간 이해가 일치되는 한 미국을 지지할 것이며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1977년 내 교섭이 종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세르비아-몬테네그로(구 유고슬라비아)의 한국 선박 구매 추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6-25 / 19 / 1-20

1976년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 국적 상사 요원이 한국산 선박 구매를 추진하던 중 무산됨.

1. 주이탈리아대사관 파견관의 1976.3.18. 보고에 따르면, 밀라노 주재 세르비아 Centroproduct 상사의 요원 2명이 한국 조선사와 선박 발주 상담을 위하여 4.1. 방한 의사를 표명함.

- 동구권 국가와의 직접 교역을 적극 추진하고 있던 정부는 수출이 실현될 경우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사증 발급 등 적극 지원하기로 함.

2. 주이탈리아대사관이 직접 나서서 지원을 제공하였으나, 세르비아 상사 요원의 방한은 무산됨.

한국 인삼류 대만(구 자유중국) 수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6-25 / 20 / 1-32

1976년 한국 인삼류의 대만(구 자유중국) 수출을 위한 교섭 내용임.

1. 한국 전매청은 1976.1.17. 외무부장관 앞 서한에서 1975.12월 대만에 대한 인삼류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던 제10차 한·대만 간 각료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주대만대사관을 통해 교섭하도록 요청함.

- 제10차 한·대만 각료회담 합의 사항(1975.12월)
 - 홍삼정과 홍삼정분의 수입과 모조 인삼 및 인삼제품 단속에 협조
 - 홍삼 관세를 35%에서 30%로 인하, 홍삼정 등 인삼제품의 수입규제(의약품 분류) 완화

2. 주대만대사관은 1976.6월말 대만 입법원 회기 종료 이전에 홍삼 수출을 실현하기 위해 대만 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5.26. 대만 관계기관과의 교섭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인삼 수입관세 인하
 - 행정원 위생서 측이 보약류라는 이유를 들어 관세 인하에 크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인삼 제품 수입규제 완화
 - 인삼 제품을 식품으로 취급하여 수입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바, 한국 전매청 제조분에 대해서만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대만 측은 초기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1976.7월에 들어서 한국 전매청 제조품에 한하여 홍삼정과 홍삼정분 2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 수입 개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면서 시험조사 결과 데이터 제출과 위생검사 통과를 조건으로 제시함.

- 그러나 11월에 들어서도 한국산 홍삼류의 대만에 대한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전매청은 주대만대사관을 통한 외교 교섭을 재차 외무부에 요청함.

대이집트 선박건조 수출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N-6-25 / 21 / 1-61

1974~76년 중 이집트가 한국으로부터 선박 구매 가능성을 교섭한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74년부터 이집트 정부는 주카이로총영사에게 1976~80년 5개년 경제계획 해운분야 확충을 위해 57척의 선박(총 5억 달러 상당)을 외국에서 도입하기로 하였다면서 소요 경비의 일부를 정부간 연화차관(軟化借款, Soft Loan)으로 제공해 줄 경우 그 일부를 한국에 주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2. 정부는 1975.10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주선가의 전부를 1억 달러 한도 내에서 연불(延拂)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11월 주카이로총영사관을 통해 이집트 정부에 통보하였으나, 이집트 측은 정부간 경제협력 차원의 추진을 고집함.

- 한국 측 조건
 - 선수금 20% 이상, 거치기간 포함 10년 이내 상환, 금리 연 8%, 아랍국제은행 또는 카이로 은행이 지불보증, 선가의 30% 이상을 이집트가 자체적으로 차관도입 주선
- 이집트 측 조건
 - 선수금 지급 곤란, 선가의 30%는 10년 상환에 이자 5%, 잔액(70%)은 7년 상환에 이자 8%

3. 대이집트 경제사절단 파견 관련 관계부처 회의(1976.5.17.)

- 청와대 외교담당특별보좌관 주재 하에 개최된 동 회의에서 이집트 정부가 한국 측 조건을 수락할 가능성이 낮다는 주카이로총영사의 견해를 받아들여 사절단 파견을 중단하기로 결정함.
- 남북한 외교대결 관점에서 이집트와의 수교 필요성과 거액의 연불수출(延拂輸出)을 제공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력을 감안한 부정적 영향에 관한 우려가 종합적으로 논의됨.

독일 및 EC(구주공동체)의 한국산 강철 제품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 적용 제한 문제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5 / 22 / 1-89

1974~76년 중 독일(구 서독) 및 EC(구주공동체)의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GSP(일반 특혜관세) 적용 제한 움직임과 이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독일의 GSP 적용 제한 움직임

- 독일 정부는 1974.7월 주한 독일대사관을 통해 한국 업체가 일본으로부터 중간 원료인 코일을 수입하여 스테인레스 강판을 생산, 독일에 수출하면서(1973년도 약 1백만 달러) 원산지를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명시했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개도국에 특혜를 부여하는 GSP제도를 악용하여 관세를 면제 받아 독일 정부의 국고수입에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정을 요구함.
- 또한 한국산 합금강(alloy steel) 및 고탄소강(high carbon steel)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이 EC의 GSP 원산지 규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

2. 한국 측 대응

- 해당 한국 업체 삼양특강은 일본의 코일도 외국에서 도입한 철광석으로 제조하고 있으므로 일본을 원산지로 할 수 없으며, 스테인레스 강판은 독일 이외 다른 EC 회원국에도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고 주장함.
- 외무부 통상과장은 1974.7월 주한 독일대사관 관계관으로부터 EC 회원국들이 한국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수혜기준의 급작스러운 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전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함.
- 외무부는 1974.12.10. 주한 독일대사관에 보낸 구상서를 통해 상기 2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과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3. EC의 조치

- 대외관계총국은 1974.10.24. 주벨기에대사관을 통해 한국산 스테인레스 강판이 EC 특혜관세 제도 규정상 한국이 원산지가 될 수 없으므로 원산지증명 A양식의 발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함.
- 대외관계총국은 1976.3.21. 주벨기에대사관을 통해 한국은 합금강과 고탄소강의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이 없어 GSP 적용에 관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한국산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통보함.
 - 한국은 4.23. 주벨기에대사관을 통해 반박 자료를 제공하고 입장 재고를 요청

대가봉 화차량 연불수출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통상3 / 서부아프리카

MF번호 2007-57 / 11 / 1-97

1973~76년 중 한국이 가봉에 화물열차를 연불수출하기 위한 교섭 내용임.

1. 봉고 가봉 대통령은 1972년 대통령 선거 공약인 가봉 횡단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4천 5백만 프랑스 프랑)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은행, 유럽개발기금 및 개별 국가들로부터 차관 유치 교섭을 해옴.

- 1973.5~6월 유럽을 방문하여 유럽개발기금으로부터 2천만 프랑의 차관 유치에 성공
- 1975.4월 일본으로부터 30억 엔(1천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제공받음.

2. 주가봉대사관은 1973~76년 중 한국의 동 사업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보를 본부에 보고 및 진출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함.

3. 가봉 철도회사 Transgabonais의 Tsibah 부사장은 1975.6월 일본 방문 기회에 화물열차 연불 수출 등 한국의 횡단철도 건설 사업 참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6.29.~7.1. 방한함.

- 화물열차 연불수출
 - 수출 가능, 쌍용산업과 협의
- 레일 연불수출
 - 국내 생산되지 않으므로 수출 불가능

4. 가봉은 1975.12월 한국 쌍용산업으로부터 화물열차 30량을 연불수입하기로 하고, 1976.1월 양측이 수출 조건에 합의함으로써 아프리카에 한국 철도차량이 최초로 수출되는 계기가 됨.

미국의 무상군원에 의한 불용 군수물자 처분 문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2 / 통상1

MF번호 N-6-26 / 1 / 1-21

1.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1976.2.4. 외무부를 방문하여 1974.6.27. 체결된 미국이 무상으로 제공한 군사물자 처분에 관한 양국간 약정 발효 후 한국 정부가 불용 군사물자를 매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면서 향후 비슷한 사항을 담당할 공동기구 설립을 제의함.
2. 외무부는 국방부에 매각 사례 여부를 문의한 결과, 불용물자는 미국에 반환하고 있으므로 별도 기구 설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에 따라 1976.3.4.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을 외무부에 초치하여 조사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종결됨.

대모로코 군수품 수출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N-6-26 / 2 / 1-210

1974.11월~76년 중 한국의 대모로코 군수품 수출 관련 내용임.

1. 정부는 중동지역에 대한 군수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김선길 상공부 국제협력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민·관 군수품 조사단을 1975.3.12.~16. 모로코에 파견함.

- 모로코 정부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무기, 탄약, 군사장비, 특히 M-16 소총 및 탄약 공급 가능성에 대하여 문의하고, 대공포, 야포 등 중요무기 수입 의향을 표명한데 대하여 한국 측은 부정적으로 답변함.

2. 1976.1.10. 주모로코대사는 단독 수교국인 모로코와 관계 유지를 위해 무기류 수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부사하라 사태가 해결 기미가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여 미국과의 교섭을 통해 소총류 수출을 추진할 것과 불가할 경우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탄약 공급이라도 고려하여 줄 것을 건의함.

3. 정부의 입장 및 조치

- 당초 국방부는 미국과의 협정상의 제약요인 외에도 국내 비축 필요성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함.
- 1976.3월 모로코를 방문한 심흥선 대통령 특사는 4.1. 하산 2세 모로코 국왕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특별히 부탁하였던 무기 및 통신장비 공급과 교관 파견 건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 대통령의 지시로 국내 생산이 가능한 무기(소총, 박격포, 무반동포 등과 탄약)를 모로코에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협의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주모로코대사관을 통해 모로코 측에 통보함.
 - 한국 측의 교관 파견 대신 한국 내 교육 실시 입장에 대해 모로코 국왕은 한국군 교관 파견을 강력히 주장

대싱가포르 군수품 수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N-6-26 / 3 / 1-16

1976년 중 싱가포르 소재 정밀광학 관련 군수자재 제작회사인 Avimo사(본사 영국)의 군수품 수출에 관한 내용임.

1. 주싱가포르대사관은 1976.4.30. 영국의 정밀광학 군수자재 제작회사인 Avimo의 P.K. Levene 회장과 D.S. Fraser 싱가포르 법인장의 5.25.~30. 방한 중 국방부 고위인사 면담 주선을 요청함.
 - 3월 노재현 합참의장의 싱가포르 방문 시, Avimo 사로부터 M-16 소총용 조준경을 견본으로 받은 바 있음.
2. 국방부는 1976.5월 상기 양인의 방한 기간 중 합참의장 및 군수차관보의 미국 출장 계획이므로 6월 초순경으로 방문 기간 연기 혹은 다른 인사 면담 주선을 건의함.
 - Avimo사 인사는 방한 기간을 연기함.
3. 국방부는 동 회사의 조준경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주싱가포르대사관을 통해 동 회사의 군수품 가격 등 제반사항을 문의하도록 지시함.
4. Fraser Avimo사 싱가포르 법인장은 1976.6월 방한 기간 중 동 회사가 개발, 제작한 고성능 조준경 시범을 위한 준비를 요청함.

태국의 합작투자 탄피류 제조공장 설립 제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6-26 / 4 / 1-9

1976년 중 태국의 탄피류 제조공장 설립 제의에 관한 내용임.

1. 태국 군 당국이 태국 민간회사와 외국회사 간 합작투자 형식으로 탄피류 제조 공장 설립을 계획하던 중, 태국 Loxley사는 1976.4월 한국과의 합작투자 의향서를 주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해옴.
2. 외무부는 국방부를 통해 동 합작투자 건을 조회한바, 1976.5.4. 국내 탄약생산 방산 업체 (주) 풍산금속은 동 사업제의에 참여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옴.

일본의 무기 수출 문제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2007-57 / 23 / 1-39

1974~76년 일본의 무기 수출 정책에 관한 내용임.

1. 일본의 무기 수출 금지 3대 원칙

-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규제 리스트 물자
- 짐바브웨(구 로데시아) 등 유엔 결의로 수출이 금지된 지역
- 분쟁당사국 또는 분쟁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수출 금지

2. 미키 일본 수상은 1974.12.19.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에 대한 무기 수출 가능성 등을 질의한 데 대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함.

- 통산상은 한국이 무기 수출 금지 3원칙에 해당되는 국가는 아니지만 종래에도 승인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3. 1976년 일본 국내에서는 국내경제 어려움 극복과 국제무기시장에서 여타 선진국과의 경쟁을 위해 수출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자, 2.4. 일본 통산성과 방위청은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야당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일본 정부의 대외무기 판매 3대 원칙의 계속 준수 입장을 표명함.

- 규제대상 지역 외에도 무기 수출은 신중을 기하며 무기 제조에 관련된 설비의 수출도 무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원칙도 밝힘.

엘살바도르산 원면 및 커피 정책수입 검토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6 / 5 / 1-28

1976년 한국 정부가 엘살바도르산 원면 및 커피의 정책적 수입을 검토함.

1. 주멕시코대사는 1976.7월 겸임국인 엘살바도르 출장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면서 엘살바도르에 대한 북한의 관계개선 노력을 지적하고, 한국이 엘살바도르로부터 수입이 미미함을 고려하여 정책적 고려 차원에서 원면과 커피 등의 수입 추진을 건의함.

● 북한은 1975~76년 엘살바도르에 통상사절단 3회 파견을 통해 무역사무소 설치 도모

812

2. 외무부는 상기 건의에 대하여 상공부, 농수산부, 보건사회부 등 관계부처에 문의하고 아래의 결과를 주멕시코대사에게 전달함.

● 원면 수입

- 한국의 원면 수입은 미국이 공여하는 Credit이나 PL480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엘살바도르산 원면을 수입할 경우 자체 자금으로 구입해야 하고 엘살바도르산 원면의 낮은 품질 및 소량으로 인한 운반 어려움 등을 들어 관계부처에서 원면 수입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함.

● 커피 수입

- 엘살바도르산 커피는 품질과 가격이 괜찮아 주요 수입 품종인 콜롬비아 등 국가의 커피와 혼합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엘살바도르에 견본과 가격표 등 추가 자료를 입수 송부 바람.

우루과이산 양모 정책수입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6 / 6 / 1-79

1976년 한국 정부가 우루과이산 양모의 정책적 수입을 검토함.

1. 주한 우루과이대사는 1976.2.3. 외무부장관을 예방하고 한국 정부가 자국산 양모와 피혁에 대한 정책적 수입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북한이 우루과이와의 관계 수립을 위해 우루과이 정부에 양모와 피혁 등 농산물 수입을 제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975년 이래 시작된 양모의 계속적인 수입을 관계부처에 요청함.

2. 관계부처 검토 의견

- 상공부
 - 가격, 품질 및 항해일수 등 우루과이산 양모 수입의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1975년도와 동일한 1백 M / T 규모 수입에 찬성
- 농수산부
 - 우루과이에서 계속 발생하는 구제역을 이유로 수입 불가 결정

3. 외무부의 계속적인 재고 요청에 따라 원모가 아닌 가공모인 세정양모(scoured wool)와 양털의 굵은 고치(wool top)의 수입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수입업계의 반대로 어려워지자 1976.7.1.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율함.

- 농수산부는 마지못해 1975년도 수준의 원모 수입에 동의함.

미국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N-6-26 / 7 / 1-80

1974~76년 한국이 제기한 미국 제약사들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과 관련된 내용임.

1. 외무부는 1974.11월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 항생제(Tetracycline)를 판매하는 Pfizer 등 미국 제약사에 대해 미국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방안을 검토함.

- 정부는 11.29. 한국 Pfizer와 유한양행이 1957~73년 기간 중 독점금지법 위반죄로 기소된 Pfizer 등 5개 제약사로부터 약 4백만 달러 상당의 특허권 위반 항생제를 수입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주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2. 피고인 제약회사가 한국 정부는 미국의 독점금지법이 규정하는 법인(person)이 아님을 내세워 소송 기각을 법원에 요청한데 대하여 미국 연방8순회공소심법원은 한국 정부의 법인 자격을 인정함.

3. 미국 소송대리인 Kaplan 변호사 비용 지불 문제

- 정부는 사전 경비는 변호사가 부담하고 승소 시 25% 지불 조건을 건지
- 변호인은 자신의 소득세 경감을 위한 지불 방법을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승소 전 소요비용인 소송 Committee 비용 12,000달러 지불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취하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해옴.
- 양측이 타협안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주미국대사관은 1976.7.13. 소송을 취하함.

인천항 차별 선임 철폐 노력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6 / 8 / 1-45

1976년 중 인천항 차별 선박운임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임.

1. 주미국대사는 1976.3월 Karl E. Bakke 미국 FMC(연방해사위원회) 신임 의장이 인천항 운임 등 한국과의 현안과 상호관심사 협의를 위하여 방한을 희망함을 보고함.

- 4.6. 항만청장 명의의 공식 초청장 송부
- 4.26.~28. 방한

2. 주미국대사는 1976.9.24. 인천항 차별 운임 문제에 관하여 미국 FMC의 동향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미국 FMC는 인천항에서의 수출과 수입 화물에 대한 차별적인 운임 관행 철폐를 꾸준히 제기하였으며, PWC(북미수출입운임동맹)에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정부는 PWC에 자료를 제출했으나, FMC는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대한해운공사를 포함한 31개 선박회사에 대하여 선임 부과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설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10.18.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함.

3. 주미국대사관은 1976.9.30. 상기 FMC 설문서를 관계부처에 송부함.

KSC(대한해운공사) 컨테이너 선박의 대미국 취항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6 / 9 / 1-171

1975.10월~1976년 중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한국선 국제정기항로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KSC(대한해운공사) 컨테이너 선박의 미국 취항을 위한 교섭 관련 내용임.

1. 교통부는 1975.9.29. 동 선박의 북미항로 취항을 위해 미국 FMC(연방해사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외무부 등의 협조를 요청함.

- 10월 KSC는 제1차 컨테이너선을 북미항로에 취항 개시할 예정
 - 10.7. KSC는 대만(구 자유중국)의 OOCL사와 컨테이너 공동운항 협약을 체결
- 10.17. 교통부장관은 FMC 의장에게 협조 요청 서한 발송
- 12.14. 주미국대사관 관계관은 FMC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
 - 특히 JKAGFC(한·일본·미국 동해안 및 걸프 운임동맹) 등 2개 운임동맹과 2개 미국선사의 이익제기에 대비한 해결방안을 논의
- 1976.6.21. 외무부 통상2과장은 J. Gregory 주한 미국대사관 서기관을 면담하여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 요청
 - 조속한 취항허가 또는 공청회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우선 잠정적인 허가요망

2. Karl Bakke FMC 의장은 1976.4.26.~28. 해운항만청장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KSC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대한 협조를 약속함.

3. 주미국대사는 1976.7.8. KSC 컨테이너선의 미국 조건부 취항허가와 관련하여 보고함.

- FMC가 7.2. KSC와 OOLC간 컨테이너선의 대미국 취항에 관한 협정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결정
 - FMC는 7.28. 정식 승인 결정 예정

국제통신 취급지역 확장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구주3

MF번호 N-6-26 / 10 / 1-8

1975~76년 중 체신부는 외무부에 국제통신 취급지역 확장과 관련하여 의견을 조회함.

1. 1975년

- 3.27. 체신부는 정부의 적극 외교 및 교역증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과 외교관계 수립국 및 수출대상지역을 비롯한 총 276개 지역 간 국제통신 업무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면서 외무부의 의견을 조회함.
 - 1975년도 계획으로 러시아(구 소련), 중국(구 중공), 동독, 몽골 등 비적성 공산국가 지역 포함 20개 지역 간 국제통신 교신을 위한 신규협정 체결 예정
- 5.2. 외무부는 체신부에 아래 의견을 회신함.
 - 정부의 대공산권 관계개선 정책상 실질적 관계 증진이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유익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국제통신 취급확대로 인해 한국에 비우호적 태도를 견지하는 당해 공산국가들이 한국의 이익을 저해할 위험 유무를 기술적인 면에서 확인해야 함.

2. 1976년

- 체신부는 1976년도 계획으로 비적성 공산국가지역인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포함, 17개 지역 간 국제통신 교신을 위한 신규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면서 3.25. 외무부에 국제통신 취급지역 확장 관련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3.27. 체신부에 국제통신 취급확장에 관해 의견을 회신함.
 - 6·23 선언에 따른 동 유럽국가와의 관계개선 정책에 비추어 러시아와 국제전보 취급업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도움이 될 전망

한·태국 항공회담. Bangkok, 1976.7.19.-21.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N-6-26 / 11 / 1-188

한·태국 항공회담이 1976.7.19.~21. 방콕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완수 교통부차관
- 태국 측: G. Nagamati 체신부차관

2. 회담 개최 경위

- 주한 태국대사관은 1974.10.4. 외무부에 태국 민간항공사가 방콕-서울 노선 운항을 11.1.부터 재개할 계획임을 공한으로 통보함.
 - 서울-방콕 현 노선에 마닐라를 중간지점으로 새로이 추가하는 신 노선에 대해 한국 관계 당국이 허가해 줄 것을 요청
- 교통부는 1974.10.31. 외무부에 조속한 시일 내 한·태국 항공협정 개정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 노선권 교환 문제를 타결하고자 한다는 기본 입장을 통보

3. 회담 목적

- 현 방콕까지의 항공노선을 중동, 유럽으로 확장하기 위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

4. 회담 결과

- 한국 측은 중간지점으로 마닐라를 추가하고자 했으나, 태국 측은 현재 제약을 받고 있는 '홍콩'을 '마닐라'로 전환 활용하기 위해 '홍콩 또는 마닐라'를 주장함으로써 중간지점의 추가가 아닌 선택적 효과뿐인 문구 삽입을 한국 측이 반대하여 좌절
- 또한 한국 측의 '방콕-싱가포르' 구간의 이원권(以遠權) 요구도 태국 항공사의 보호를 위해 태국 측이 반대하여 합의되지 않음.
- 양국간의 완전한 의견 불일치로 동 회담은 상호간의 제의 내용만을 수록하고, 추후 적절한 시기까지 연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의사록에 서명(1976.7.21.)

5. 대표단 평가

- 현행 협정 및 지정항공사간의 현저한 우열관계(한국 측 우세)와 한국의 지리적 불리성에 비추어 더 이상의 개정회담 제의는 한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
- 향후 개정회담은 태국 측의 제의나 항공사간 협의를 통해 정부가 수락 가능한 합치점에 도달할 경우에 한해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

Bakke, Karl E. 미국 연방해사위원회 의장 방한, 1976.10.5.-7.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6 / 12 / 1-32

Karl E. Bakke 미국 FMC(연방해사위원회) 의장이 1976.10.5.~7. 방한함.

1. 주미국대사는 1976.8.27. Bakke 미국 FMC 위원장과의 오찬 결과를 보고함.

- 동 위원장은 7.2. FMC가 승인한 KSC(대한해운공사)-대만(구 자유중국)OOCL 간 컨테이너 공동운항협약을 언급하면서 KSC로 하여금 낮어도 12.1. 이전에 해운동맹(Conference) 가입이 실현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
- 동 위원장은 10월 중 방한 예정
 - 방한기간 중 해운 문제에 관해 한국 정부 및 해운업계 대표와 협의 희망

2. 주요 일정

- 교통부장관 예방, 대한해운공사 사장 면담
- 항만청장 회담(2차례)
- 부산항 시찰

3. 항만청과의 협의 결과

- 인천항 차별운임이 합법적이며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1976.10.18.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불합리할 경우 즉각 철폐 내지 완화되도록 조치할 것을 다짐
- 한국 측은 컨테이너선 정기항로 확충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 협조를 요망하였으며, 미국 측은 한국의 의욕적인 선박(船腹) 증강계획을 이해하고 컨테이너선 확충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 지원과 한국해운의 국제진출을 적극 후원하기로 약속
- 한국 측은 12.10. 발효조건으로 신청한 KSC의 관련 동맹 가입이 조속히 승인되도록 지원해 줄 것과 선적량 증가에 대한 FMC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미국 측은 선적량 승인 신청 접수 후 공정히 처리할 것을 약속하고 한국과 러시아(구 소련), 중국(구 중공) 등의 해운시장 분쟁 야기 시 FMC를 통한 조정 방안에 찬성 의사 표명

광주(廣州, 중국) 교역회 참관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6-26 / 13 / 1-39

1975~76년 중 중국(구 중공) 광저우(廣州) 무역박람회에 관한 내용임.

1. 주미국대사는 1975.11.12. 한국 교포실업인의 대중국 교역 모색 관련 내용을 보고함.

- 재미교포 실업인 2명이 대중국 교역추진 방안으로 춘계 광저우(廣州) 무역박람회(1976.4.15.~5.15.) 참가 시도
 - 상기인은 National Council for US-China Trade 관계인과 접촉하여 광저우 무역박람회 참가 협조를 요청하고, 주미국 중국연락사무소 상무관과도 접촉하여 동 박람회 참가의사를 표명
- 상기인은 광저우 무역박람회에 출품 가능한 한국 상품 및 대중국 수출입 유망 품목 선정 요청
- 외무부는 1975.11.22. 상공부에 동 박람회 출품 유망 품목의 선정, 통보를 요청함.
 - 상공부는 12월과 1976.3월 두 차례에 걸쳐 유망 품목 회보

2. 주홍콩총영사는 1976.6.18. 1976년도 춘계 광둥 무역박람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 기간 및 참가자
 - 제39차 중국 광둥 무역박람회 개최(4.15.~5.15., 중국 광저우)
 - 세계 10개국 약 1,350개사 약 2만 6천 명 참가
- 총평
 - 1975년 중국 대외무역고 140억 달러의 반 정도가 동 박람회에서 이루어졌으나, 1976년도 동 박람회는 천안문 사태 등 정치정세로 거래실적이 매우 저조
 - 세계통화 사정의 불안정과 국제시장에서의 인플레이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국 무역당국이 장기적인 다량 공급 계약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 한편 중국은 이번 박람회 동안 중국의 구매량도 대폭 축소한바, 중국 당국은 1975년 무역액조 5억 달러 때문에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고 해명

서 Berlin(독일) 수입박람회 참가, 제14차. 1976.8.26.-30.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6 / 14 / 1-27

1976.8.26.~30. 개최된 제14차 서베를린(독일) 수입박람회 참가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는 1976.6.22. 상공부에 서베를린 수입박람회 참가 방침을 문의함.

- 상공부는 6.28. 1976년도 독일에 대한 섬유쿼터 전 품목에 대해 협정쿼터량의 10% 상당량을 특별쿼터로 추가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동 박람회 참가는 의의가 없다고 회신
- 상공부는 7.13. 외무부에 서베를린 박람회 참가 교섭안을 통보
 - 서베를린 전시회 참가가 한·독일 우호증진에 중요함을 인식하여 참가를 원칙으로 함.
 - 동 전시회 품목 중 섬유제품 수출비중이 높은 것은 한국 산업구조에 기인한 부득이한 현상이나 앞으로 전시 품목의 다양화와 수량 균형에 노력
- 독일 정부는 한국이 1976년 서베를린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동 전시회 계약분 중 일정 한도량 초과분을 협정쿼터량에서 공제하여 1977년도 이후에 협의 결정하기로 함.

2. 상공부는 1976.8.24. 외무부에 서베를린 박람회 쿼터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통보함.

- 한·독일 양국이 합의한 품목 간 한도량 범위 내에서 상사별 계약 한도량을 확정, 통보
- 동 박람회에 주독일대사관 관계관을 파견하여 상사 간 계약분 확인 조치 요망

3. 주독일대사는 1976.8.26. 서베를린 박람회 관련 보고에서 현장에 상주하는 코트라 요원이 계약확인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 중임을 보고함.

- 독일 측에서도 동 업무를 박람회 관리기관인 ANK에서 수행 중이므로 양국간의 균형 유지 면에서도 KOTRA가 대행하는 것이 타당
- 서베를린 박람회 계약확인 업무는 이미 독일 경제성에 통보, 양해가 되었으며, 동 업무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임.

Zagreb(세르비아-몬테네그로) 국제박람회 참가, 1976.9.10.-19.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6-26 / 15 / 1-16

1976.9.10.~19. 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 참가에 관한 내용임.

1. 코트라는 1975.11월 외무부에 1976년도 동구권 박람회 중 자그레브 추계박람회에 1976.9월 중 참가 예정임을 확정 통보함.

2.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6.10.5. 오스트리아 주재 상사의 자그레브 국제박람회 참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참가국

- 미국, 러시아(구 소련), 일본, 북한 등 54개국

● 유고슬라비아 경제일반 현황

- 국내 생산보호를 위해 수입에 많은 제약 부과

- 외환부족으로 수입허가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 통과

- 외국상사가 유고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를 유고로부터 수입의무

- 대유고 수출가능 품목은 유고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특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것

● 한국관 개관

- 오스트리아 상사를 통해 간접 참가

- 한국관 입구에 KOREA 표시

- 전시장 내 한국 기업 및 상품의 카탈로그 전시

- 주요 전시품은 벽시계, 계산기, 자전거, 라디오, 쌍안경 등

- 현지에서 한국 상품의 저렴한 가격, 실용성으로 상당한 호평 획득(약 57만 달러 계약)

● 북한관 개관

- 전시장의 반은 선전용으로 사용

- 광고물도 정치색을 띤 선전용

- 전시물도 대체로 조작한 것으로 관람자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함.

- 선전영화 상영에도 관람자 없음.

몰타의 77그룹 가입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N-6-26 / 16 / 1-69

1975~76년 중 몰타의 77그룹 가입과 관련하여 외무부 훈령 및 주제네바대표부의 보고 내용임.

1. 몰타의 77그룹 가입 동향(1975.4.17.)

- 몰타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77그룹 가입을 희망하며, 이를 위한 선행조건인 지역그룹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그룹에 소속되고자 하는 의향을 아시아그룹 의장에게 전달

2. 외무부 훈령(1975.5.24.)

- 몰타는 대외적으로 비동맹노선을 표방하면서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북한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몰타의 77그룹 가입을 위한 아시아그룹의 지지 요청을 반대하는 것이 한국의 기본입장
- 몰타가 지리적으로 아시아지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몰타를 아시아그룹에 포함시키는 경우 아시아그룹의 한계와 범위설정을 어렵게 하므로 몰타를 아시아그룹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명
 - 다른 아시아그룹 회원국의 의견을 참고하되, 몰타가 지리적·경제적으로 연관이 많은 그룹을 통해 가입하도록 아시아그룹 의장이 몰타에 권유하는 방향으로 결론짓도록 노력

3. 아시아그룹 회의 시 논의 사항

- 1975.5.30. 회의
 - 몰타의 77그룹 가입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나, 아프리카에 위치한 몰타를 아시아그룹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동 문제를 1976.1월 아시아그룹 각료회의 및 77그룹 각료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함.
- 1975.10.28. 회의
 - 회원국 절대 다수가 몰타의 77그룹 가입 및 UNCTAD 총회 준비회의 참석을 적극 지지
 - 한국은 회의 분위기상 준비회의 참석 문제 유보 표명이 어려워, 회원국 컨센서스를 수용
 - 아시아그룹 의장이 차기 77그룹 회의에서 몰타의 준비회의 참석 문제에 대한 아시아그룹의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로 결정

77그룹 전체 각료회의, 제3차. Manila(필리핀), 1976.1.26.-2.7. 전3권 (V.1 기본계획)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N-6-26 / 17 / 1-332

정부는 제3차 77그룹 아시아지역 각료회의(1976.1.13.~21.,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및 제3차 77그룹 전체 각료회의(1976.1.26.~2.7., 필리핀 마닐라)에 노신영 외무부차관을 수석대표(교체 수석대표: 문덕주 주제네바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3차 77그룹 아시아지역 각료회의 파견 목적

- 제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1976.5.3.~28., 나이로비)에 대비한 개발도상국 간 의견조정을 위한 77그룹 전체 각료회의(1976.1월, 마닐라)에 앞서 아시아지역 국가 간 의견조정을 위함.
- 동 77그룹 아시아지역 그룹에는 북한이 아직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으로서는 국제무대에서의 기존 우위를 더욱 확고하게 하고 의제별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비동맹국가와의 경제관계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

2. 훈령

- 일반지침
 - 실질 문제 토의에 적극 참가
 - 일반 개발도상국 입장에 동조
 - 회원국과의 유대강화 계기 마련
 - 77그룹과의 일체감 조성 노력
 - 북한의 참여 가능성에 대처
 - 신규회원국 가입 문제에 대한 입장
 - 상설기구화 추진 지지 등
- 세부사항에 관한 정부입장 적절히 반영
 - 국제무역 문제: 상품, 제품 및 반제품 무역 문제
 - 통화 및 금융 문제: 개도국 부채 문제, 자본이전의 순(純) 증가, 개도국 금융 문제와 관련된 제반조건의 개선 문제, 개발촉진과 세계무역의 증대, 개도국의 이익증진을 위한 국제금융제도의 개선 필요성
 - 무형재산권에 대한 문제: 기술이전 문제(개도국 기술능력 강화, 기술이전을 위한 행동규범, 특허 등), 해운 문제
 - 특별 문제: 개도국 간 협력 문제, 최빈개도국, 도서국 및 내륙국 문제

77그룹 전체 각료회의, 제3차. Manila(필리핀), 1976.1.26.-2.7. 전3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N-6-26 / 18 / 1-363

정부는 제3차 77그룹 아시아지역 각료회의(1976.1.13.~21.,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및 제3차 77그룹 전체 각료회의(1976.1.26.~2.7., 필리핀 마닐라)에 노신영 외무부차관을 수석대표(교체 수석대표: 문덕주 주제네바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3차 77그룹 아시아지역 각료회의 결과

- 자카르타 선언문 채택
 - 유엔 특별총회에서 채택한 NIEO(신국제경제질서) 환영
 - 신국제경제질서는 경제사회적 체제와 관련 없이 모든 국가 간의 상호협력, 주권평등에 기초를 둘 것
- 행동강령 채택: 9개 분야(1차 상품, 제품 등)에 대한 공동입장 합의
- 공동성명서 채택
 - 선언문에 포함된 신경제질서 수립 재검토
 - 아시아지역 국가 간의 단결, 강화 촉구
- 각종 결의안 논의
 - 시오니즘(Zionism) 관계 결의안, 몰타의 가입결의안 등을 심의하였으나, 회원국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음.

2. 제3차 77그룹 전체 각료회의 결과

- 신규 회원 가입
 - 몰타 및 루마니아의 가입 수락
- 각료회의 선언(마닐라선언) 채택
- 행동강령
 - 각 위원회 보고서 채택
- 각종 결의안 채택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의 장래역할, 아랍어 사용, 과테말라 지진피해, 상품 통합계획을 위한 대필리핀 자금 공여(5천만 달러) 등
- 77그룹 사무국설치안 수정 채택
- 한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 기조연설 요지(1976.2.4.)
 - 한국의 경제개발과정을 설명하고 새마을운동의 정신 강조
 - 개도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개도국 간 단결 및 협력촉구
 - 대선진국 촉구사항: 무역자유화 및 국제 분업을 기초로 한 경제·재정·기술협력 강화, GSP(특혜관세제도)의 개선,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MTN(다자간무역협상)에서의 개도국 이익반영, 대개도국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3. 77그룹 전체 각료회의 개최 경과에 관한 각종 국내 언론 보도내용이 수록됨.

77그룹 전체 각료회의, 제3차. Manila(필리핀), 1976.1.26.-2.7.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N-6-26 / 19 / 1-391

제3차 77그룹 아시아지역 각료회의(1976.1.13.~21.,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및 제3차 77그룹 전체 각료회의(1976.1.26.~2.7., 필리핀 마닐라) 관련 각종 자료가 수록됨.

1. 정부대표단 훈령

- 일반지침 및 세부사항에 대한 정부입장

2. 회의 자료

- 제3차 77그룹 아시아지역 각료회의
 -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개회사, 의장단 선출, 각국 대표 기조연설, 고위 실무급회의 보고 및 공동입장 채택, 최종보고서 및 공동성명서 채택
- 제3차 77그룹 전체 각료회의
 -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개회사, 의장단 선출, 각 지역 각료회의의 보고, 각국 대표 기조연설, 신임장위원회 보고, 신규회원국 가입문제, 최종보고서 채택
- 한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 기조연설문(1976.2.4.)
- 한국의 주요 관심분야별 발언문

3. 회의 준비자료

- 알제리 77그룹 각료급회의(1975.10.10.~25.) 의사규칙
- 마닐라 각료회의 준비위원회(1975.11.14.) 중간보고서
- 아시아 77그룹 회의(1975.11.25., 제네바) 토의 내용 및 결론
- 자카르타 및 마닐라 각료회의 준비자료(1975.12.24.)
 - 자카르타 아시아그룹 각료회의의 준비 관련 자료
 - 마닐라 각료회의의 준비현황
 - 77그룹, 아시아그룹 각료회의 및 제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대책
 - 대비동맹 활동방안
 - 77그룹과 한국과의 관계
 - 제4차 UNCTAD 총회 의제
 - 77그룹 사무국 설치
 - 아시아그룹 회원자격 및 관련사항에 관한 보고서
 - 마닐라 각료회의의 준비위원회 활동 진전보고

77그룹 회의(기타)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N-6-26 / 20 / 1-15

1976년 중 주제네바대사의 77그룹 회의 결과 보고임.

1. 1976.6.25. 회의

- 멕시코 회의 준비를 위한 제1차 회의 개최 확정
 - 1976.7.12.~16., 제네바 예정
 - 각 지역그룹 7개국씩 참가, 여타 국가는 희망에 따라 옵서버로 참가
- 나이로비 총회 결과 평가를 위한 77그룹 내 평가위원회 구성 문제
 - 각 지역에서 3개국과 현지 및 나이로비 총회 당시 지역의장들로 구성하기로 합의

2. 1976.7.5. 회의

-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참석국 및 나이로비 총회 평가위원회 구성 국가 확정

3. 1976.8.3 회의

- 예산집행 문제 검토를 위한 77그룹 작업단 구성 결정
- 개도국 간 경제협력에 관한 전문가단 보고서 검토
- 나이로비 총회 평가 작업과 관련하여 각 분야별 평가 및 필요조치 검토를 위한 작업단 구성 결정

4. 1976.9.2. 회의

- 멕시코회의 준비사항, 77그룹 사무국 설치 문제, 상품 통합계획, 기술이전 행동규범 및 부채 문제에 관한 사업계획 협의
 - 멕시코회의 예비회의 1976.9.11. 개최 결정
 - 지역별 상품 통합계획 작업단 구성 명단 제출(아시아그룹 미정): 상품협상 및 공동기금 문제를 토의하기로 합의
 - 기술이전 행동규범 전문가회의 1976.11.4.~5. 제네바 개최 합의

5. 1976.10.4. 회의

- 차기 77그룹 의장으로 방글라데시대사 선출
- 77그룹 사무국 운영 문제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을 이용하기로 합의
 - 사무국 인원 지원 문제는 미확정
- 상품통합 계획 공동기금에 관한 준비회의(1976.11월 개최)에 대비한 공동입장 작성을 위해 작업단이 UNCTAD 사무국과 협의하여 공동입장을 작성하고 각 회원국의 동의여부를 타진하기로 합의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TCDC(개발도상국간기술협력) 지역회의. Bangkok, 1976.2.25.-3.2.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N-6-27 / 1 / 1-14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TCDC(개발도상국간기술협력) 지역회의가 1976.2.25.~3.2. 방콕에서 개최됨.

1. 참가 현황

- 한국 등 28개국,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등 13개 국제기구 및 단체 참석
- 한국 대표: 김교식 주태국대사관 참사관

828

2. 회의 목적

- 기술협력에 관한 의결과 경험 교환
- 1977년도 아르헨티나 개최 Global Conference 준비

3. 한국 대표 발언 요지

- 과학기술처 및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과 실적 소개
-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 관련 부문 소개
- 한국 기술연수기관의 TCDC를 위한 시설 및 훈련제공 가능성 시사

4. 대표단 관찰 및 건의

- 동 회의는 유엔의 4개 지역 경제사회이사회 중 최초로 ESCAP에서 개최한 지역회의로서 많은 참가국 대표와 국제기구의 관심을 받음.
- UNCTAD,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UNIDO(유엔산업개발기구) 등 선진국 위주의 협력기구와 달리 순전히 개도국 간 기술협력회의를 탄생시켜 선진국 주도의 각종 국제기구에 대항할 수 있는 국제기구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관찰됨.
- ESCAP 역내 개도국 간 기술협력을 위한 기초적 재정 능력보유 모범국으로 한국과 인도를 거명하고 있으므로 금후 본 회의에의 적극 참여가 요구됨.
- 본 회의보고는 제32차 ESCAP 총회 의제 중 비중이 크므로 금번 ESCAP 총회 참가대표단에도 본 회의 내용과 관련된 부처의 간부급 인사 포함을 건의함.

한국·COLOMBO PLAN(콜롬보계획) 회원국 간 자본 및 기술협력 추진

생산연도	1962-1963
생 산 과	1962-1963
MF번호	N-6-27 / 2 / 1-92

1962.9.20.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국 경제회담 결과와 1962~63년 중 한·콜롬보플랜 회원국 간 협력 추진과 관련된 내용임.

1. 한·미국 경제회담(1962.9.20.)

- 참석자
 - 한국 측: 재무부장관, 경제기획원차관, 주미국대사 등
 - 미국 측: 해리만 국무부 차관보, 제노우 USAID(미국국제개발처) 처장보, 존슨 상무부 차관보 등
- 한국 측은 5개년 경제개발계획 시행을 위해 미국의 원조가 긴요함을 강조한 반면, 미국 측은 한국이 미국의 원조 가능성을 과대평가하여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 표명

2. 한·콜롬보플랜 회원국 간 자본 및 기술 협력 추진 경과

- 1962.12월 외무부 통상국은 '콜롬보플랜에 의한 한국의 자본 및 기술협력 교섭대책 외무부 방안(교섭대상국과 교섭원칙)' 작성
- 1963.1월 외무부는 경제기획원에 한국과 콜롬보플랜 회원국 간 자본 및 기술협력 교섭안 작성 요청
- 1963.3월 외무부는 기술협력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시행 필요성을 경제기획원에 통보
 - 기술협력의 형태: 외국 훈련생을 위한 장학금 제공, 기술자 파견, 훈련 및 교육시설 제공
 - 기술협력을 위한 기여금: 정부 예산에 계상
 - 기술협력 시행방법: 정부간 쌍무적 베이스에 의거하여 제공

3. 외무부는 1963.4월 주태국대사에게 콜롬보플랜 제80차 기술협력이사회(1963.4.24.부터 개최)에 관한 훈령 시달

- 콜롬보플랜 기술협력 확대 계획안(호주 정부안)
- 스리랑카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교섭

콜롬보플랜 기술협력이사회, 제132-134차. Colombo(스리랑카)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N-6-27 / 3 / 1-146

1976년 중 제132~134차 콜롬보플랜 기술협력이사회 회의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됨.

1. 제132차 정책이사회 회의(1976.2.23.)

- 협의 의제
 - 제131차 이사회 회의록 채택
 - 1975년 자문위원회 결과보고
 - 콜롬보플랜 기술협력이사회 협정 및 규칙 검토
 - 역내 훈련자문관의 싱가포르 이전
 - 1975~76년 이사회 연례보고서 검토 등

2. 제133차 회의(1976.4.30.)

- 협의 의제
 - 제132차 이사회 회의록 채택
 - 콜롬보플랜 기술협력이사회 협정 초안 검토
 - 1975~76 회계연도 비용지출 내역평가
 - 사무국의 홍보활동 보고 검토 등

3. 제134차 정책 및 예산이사회 회의(1976.6.22.)

- 협의 의제
 - 제133차 이사회 회의록 채택
 - 콜롬보플랜 기술협력이사회 연례보고서 채택
 - 1976~77 회계연도 예산 검토 등

EC(구주공동체)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7 / 4 / 1-288

1975~76년 중 EC(구주공동체) 주요인사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F. Gundelach EC 집행위원(1976.7.15.~16.)

- 초청 경위
 - 1973년 김종필 국무총리의 EC 방문 시 집행위원회 대외담당 부위원장을 방한 초청
 - 1976.4.7. EC 집행위원회는 동 부위원장 대신 Gundelach 집행위원(각료급 인사)이 일본 방문 계기에 방한하기를 희망
 - 1976.7월 Gundelach 위원이 외무부장관 초청으로 방한
-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상공부장관 예방
 - 전경련 연설, 한국경제에 관한 브리핑 등
- 외무부장관 면담 결과(1976.7.15.)
 - 한국 측: 한·EC 간 정치 및 경제협력관계 확대와 발전을 희망, EC의 대개도국 상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제거 내지 완화를 요청
 - 집행위원 측: 개도국의 대EC 수출증대를 위해 1976년부터 수출 진흥 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하고 관세 및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 청취와 외교문제에서도 상호 긴밀한 협조를 약속

2. H. Kutscher GSP(개도국특별관세) 전문가(1976.9.16.~18.)

- 방한 목적
 - EC의 GSP 제도상 한국의 면세혜택 규정 위배 사례 조사
 - 양측의 GSP 관계 현안 문제 해결과 한국의 GSP 제도 개선책 협의
- 주요 일정
 - 한·EC GSP 관련 협의
 - 외무부, 상공부, 서울시 방문
 - 한국 측 관련 업계 면담 및 협의
- 한·EC 간 협의
 - 무역일반: EC 측의 한국 수입허가기간 단축, 안정적 관세율제도 운영, 수입적립금제도 철폐요구에 한국 측은 고려 약속
 - GSP 제도: 제도 운영개선방안 협의
 - 특별품목 검토: 한국 측은 섬유제품에 대한 수혜(受惠)제한 철폐와 전자제품에 대한 원산지 요구조건 완화를 요청한바, EC 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를 희망

CEPGL(아프리카 호수연안 3개국 경제공동체) 정상회담, 제1차. 디오디(자이르), 1976.12.24.-25.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MF번호 N-6-27 / 5 / 1-16

제1차 아프리카 호수연안 3개국 경제공동체 정상회담이 1976.12.24.~25.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동부 국경도시 디오디에서 개최됨.

1.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부룬디는 아프리카 3개국 정상회담(1976.9.19.~20., 르완다) 시 3개국 상설경제공동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3국 간 우호협력조약에 조인함.

- 동 공동체는 향후 중부아프리카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 개방

832

2. 제1차 3개국 경제공동체 정상회담 개최(1976.12.24.~25., 디오디)

- 회의 결과
 - 부룬디 대통령을 1976~77년간 3개국 상설경제공동기구의 의장으로 선출
 - 동 기구 상설 집행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 약 3백만 자이르 화폐규모의 특별예산 승인
- 개최 의의
 - 3개국 경제공동체를 탄생시킨 것은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특별각료회의 시 모부투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이 제창한 아프리카 경제공동시장의 달성을 위한 역내 국가 간 움직임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음.
 - 동 정상회담은 3개국 간 정치적 재결속을 다짐하는 계기가 됨.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6-46 / 1 / 1-5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의 1976년 중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세 동향 보고임.

1. 대예멘(구 남예멘) 차관 공여(1976.5.11.)

- 아랍에미리트는 3.10.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관계정상화 발표 후 최초로 3,550만 디람 (어업개발 2,900만 디람 등) 대예멘 차관 공여를 결정

2. 아랍뉴스지는 1976.9.23.~24. 이집트 국영 Al Ahram지의 Zayed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의 회견 요지를 아래와 같이 보도

- Zayed 대통령은 12.2. 대통령 임기 종료 후 더 이상 대통령직 수행 않겠다고 선언
- 아부다비를 제외한 6개 토후국들이 연방예산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토후국 간의 국경분쟁 등 상호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하에서 실권 없는 대통령직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언급

3. 주재국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Zayed 대통령은 자신의 제2기 대통령직 수락조건으로 아래 3개 사항을 제시하였다고 함.

- 안보상의 관점에서 모든 토후국 간의 경계선을 연방정부의 관할 하에 둘 것
- 모든 토후국들은 각각 할당된 연방예산을 부담할 것
- 아랍에미리트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들의 토지소유를 금지할 것

4. 1976.11.7. 사우디아라비아 일간지들은 아랍에미리트 7개 토후국 수장으로 구성된 아랍에미리트 최고회의가 11.6. 제2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선임을 11.27.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

- 아랍에미리트 최고회의는 모든 토후국들의 연방예산 부담원칙에는 합의하고 구체적 부담비율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국경분쟁 문제는 재논의 예정

앙골라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O-6-46 / 2 / 1-184

1976.1.7. 외무부 아중동국이 작성한 앙골라사태 분석 보고임.

1. 앙골라사태의 국제 문제화

- MPLA(앙골라해방인민운동) 주도로 1975.11.11. 앙골라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래 FNLA(앙골라해방민족전선)-UNITA(앙골라완전독립민족연맹) 간 주도권 쟁탈을 위한 내전이 소련, 쿠바 등 공산국가들의 MPLA에 대한 적극적 군사지원과 미국 등 서방제국의 FNLA-UNITA에 대한 군사지원을 통해 국제적 대리전의 양상을 보임.
- 국제적 개입 격화 이유
 - 소련 및 중국(구 중공)은 각각 상대방에 대한 아프리카 대륙 세력 견제
 - 미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 요충지인 앙골라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 진출 저지
 -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앙골라에 친공산정권 수립을 저지

2. 전망 및 대책 건의

- 강대국 및 인접국 간의 이해상충 및 강대국의 군사개입 본격화로 앙골라내전은 상당기간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
- 앙골라문제 해결을 위한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외무장관회담(1976.1.10., 아디스아바바)에서는 앙골라 정부를 승인한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17개국)와 3개 독립단체간의 연정수립을 희망하는 기타 다수 국가들 간 심각한 의견대립이 노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강대국 간 원칙적 이해 조정 없이는 OAU를 통한 앙골라사태 해결 가능성은 희박
- 한국은 앙골라 3개 독립단체 간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OAU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입장이나, 앙골라 내의 사태진전을 좀 더 관망하면서 양상변화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분석

아르헨티나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O-6-46 / 3 / 1-139

1976년 중 아르헨티나 정세 동향임.

1. 외무부는 1976.3.31. 아르헨티나 군사혁명에 관해 종합정리함.

● 경위

- 아르헨티나 군부는 1976.3.24.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여 군사정부를 수립하고, J. Videla 육군 총사령관을 대통령으로 추대
- 군사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 의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당 및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국가질서 재건과 민주주의 보장 시까지 정치에 관여할 것을 천명

● 배경

- 1973.3월 페론파 집권 이후 극렬 좌익분자의 난동과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고 경찰 및 언론계도 이에 동조하여 사회불안이 고조됨.

● 신정부 승인 문제

- 군사정부는 1976.3.25. 각국 정부에 승인조치를 요청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3.26.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의 공한을 통해 동 군사정부를 승인

● 전망

- Videla 대통령은 반공노선을 따르는 친미인사로 평가받고 있어 신정부는 친미, 친서방 정책, 실리추구 외교를 강화해 갈 것으로 예상되고, 대북한 관계도 급격한 변동은 없을 전망
- Videla 대통령이 정치·경제적 난제를 무난히 수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

2. 외무부는 1976.3.29. 제38대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취임한 J. Videla 장군과 C. Guzzetti 신임 외상에게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 명의 축전을 각각 발송함.

3.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76.3월 이후 주재국 정세보고서를 수시로 외무부에 제출함.

● 군사혁명 정부 동향 및 향후 전망

- 내각 구성, 주요 보직 임명 등

● 경제 동향 및 전망

폴리사리오 분쟁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6-46 / 4 / 1-165

1976년 폴리사리오(Polisario) 분쟁에 관한 내용임.

1. 폴리사리오 분쟁 개요

- 스페인 정부는 1975.11.14. 마드리드 원칙 선언에 따라 서부사하라 내의 스페인 점령지에 대한 행정력을 종결
- 이에 따라 스페인령 서부사하라지역의 귀속 문제를 둘러싸고 인접국인 모로코, 알제리 및 모리타니아 간 대립 격화
 - 폴리사리오는 동 지역의 독립투쟁 단체인 '사하라 해방인민전선'으로서 약 2천 명의 병력 보유

2. 1976년 서부사하라지역 분쟁 관련 주요 동향

- 1월 모로코와 알제리 간 무력충돌 격화
 - 이집트, 시리아 등이 적극 중재에 나서고, 알제리 대통령도 평온 회복을 촉구함으로써 양국간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희박
- 2.27. 폴리사리오는 '사하라 아랍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 알제리의 지원 하에 국제적 승인 획득을 기도함.
- 3.7. 모로코-알제리 국교단절
- 3.17. 북한이 폴리사리오를 승인함.
- 4.14. 모로코-모리타니아 사하라 분할협정 체결
 - 북위 23~24도 기준 북쪽은 모로코령, 남쪽은 모리타니아령으로 분할
- 7.23. 모로코-모리타니아 공동성명서 발표
 - 사하라 문제 관련 대알제리 공동정책 재확인
- 11.12. 유엔총회 논의
 - 유엔총회 식민지 해방위원회는 사하라지역에 관한 토의를 1977년 제32차 총회로 연기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 12.7. Ibrahim 폴리사리오 외상은 사하라 문제에 관한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담을 촉구함.
- 1977.5월 OAU는 서부사하라 문제를 논의할 특별회의 개최를 결정함.

방글라데시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O-6-46 / 5 / 1-54

주방글라데시대사관의 1976년 중 주재국 정세 동향 보고임.

1. 방글라데시 비상체제 강화 배경

- 1974.12.18.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안보와 국민경제에 대한 위협 대처를 구실로 기본권 정지
- 1975.8.15. Ziaur Rahman 육군 참모총장이 주도하는 군사 쿠데타 후 계엄령을 선포하고, 11.6. 국회 해산, 전 각료해임(대통령이 계엄사령관 겸임)

2. 정세 보고(1976.4.3. 공관장회의 자료)

- 군사정권은 부정부패 척결, 행정기구 개혁, Swanivar 운동(새마을운동 유사) 전개, 사(私)기업 장려 등 국가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을 강력 추진
-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 문제 등에 대해 유엔 투표 시 기권 이상의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3. 정당 활동 재개 조치(1976.8.3.)

- 1976.7.28. 옥내 정치활동 허용 등 정당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7.30. 시행
- 1977.2월 총선거를 앞두고 좌우 정치세력이 일정한 규제 하에 활동 가능

4. 정세보고(1976.11.16. 및 11.30.)

- 군사정권 체제의 정치·경제면에서 상당한 국내적 안정을 달성하고 국민적 열망도 고조
- 1977.2월 총선거 실시와 민정복귀 여부가 최대의 정치 현안
- 총선 연기와 현 군사정권의 지속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 우세
- Sayem 대통령은 국가이익을 위해 1976.11.29. 계엄사령관 직을 Z. Rahman 육군 참모총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실질적 정권이양을 선언

벨기에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O-6-46 / 6 / 1-19

주벨기에대사의 1976년 분기별 정부보고서 내용임.

1. 1976년 1 / 4분기 정부보고서(1976.4.29.)

- 국내 정세
 - 10월 총선거에 대비하여 각 정당들은 주로 경기회복 및 실업대책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으나, 경제는 조속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음.
- 대외 관계
 - V. Boeyeuts 국방상은 2.2. 유럽·미국 간 관계에 대해 구주는 미국만을 의지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군사적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
 - 2월 로마에서 개최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중 구주 국가간 군수산업협력 제1차 회의에서 구주독립 그룹 창설
 - 2.20. 앙골라 신정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
 - 제2차 세계 유대인총회(2.17.~19., 브뤼셀) 개최 승인

2. 1976년 4 / 4분기 정부보고서(1976.12월)

- 국내 정세
 - 10.10. 지방선거 결과 예상과는 달리 프라망 지역은 프라망 기독교사회당이 승리하고, 와롱 지역은 사회당이 승리함.
 - Cools 사회당 당수는 현 정부가 브뤼셀 및 와롱지역의 다수를 유지하고 신임을 계속 향유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조기 선거실시를 시사
- 대외 관계
 - 그로미코 소련 외상이 10.3.~4. 브뤼셀을 방문하여 Tindemans 수상과 회담함. 그로미코 외상은 군축 문제를 제기하고 브레즈네프 이론을 강조하였고, Tindemans 수상은 균형 있고 합리적인 군축을 환영한다고 답변
 - Caramanlis 그리스 수상이 11.11.~12. 벨기에를 방문하여 Tindemans 수상과 양국관계 및 그리스의 EC(구주공동체) 가입 문제와 동남 유럽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
 -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이사회(12.9.~10., 브뤼셀)에서는 동서관계와 긴장완화(데탕트) 문제를 검토함. 동서관계는 보다 만족스러운 속도로 진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소련의 과대한 군사비지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 실질적인 저지력을 유지하고 무력침략의 위협으로부터 NATO 가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결의를 재확인

바베이도스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O-6-46 / 7 / 1-58

주캐나다대사의 1976년 중 바베이도스 정세 동향 보고임.

1. 1976년 1 / 4분기 정세보고(1976.4.16.)

- 국내 정세
 - Barrow 수상 정권이 장기간에 걸쳐 집권 중이며 국내 정세는 안정된 상태 유지
 - 전통적으로 우호관계에 있는 미국, 영국 및 캐나다 등과 정치적·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당분간은 이러한 추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

2. 바베이도스 총선 결과(1976.9.3.)

- 9.2. 실시된 총선에서 야당인 BLP(바베이도스노동당)이 하원의석 24석 중 15석을 차지, 이번 선거에서 승리
 - 여당인 DLP(민주노동당)은 7석을 차지, 정권교체가 확정
 - 선거 패인은 경제정책, 특히 실업자 문제에 있어서 Barrow 수상의 DLP가 국민에게 공감가는 정책을 밝히지 못한데 대해 야당 BLP는 세재개혁을 통한 국민부담 경감과 실업률 감소에 정책의 중점을 둔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승리한 것으로 해석
 - 새 수상은 T. Adams 하원의원으로 진보적 경향이 있는 정치가

3. 1976년 4 / 4분기 정세보고(1976.12월)

- 신임 총독 취임
 - 8.9. W. Scott 전 총독 사망 후 직무대행 체제에서 11.17. D. Ward 신임 총독 취임
- 정세 개황
 - 정권교체, 설탕가격 하락 등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

4. 바베이도스 외상 국회연설(1976.12.10.)

- H. Forde 신임 외상은 11.30. 국회에서 외교정책의 5대 기본원칙을 발표
 - 재외교민 이익의 보호, 관광을 포함한 교역증대, 개발을 위한 자원조달, 국제사회에서의 도의 및 정의 개념의 확대발전, 바베이도스 문화의 모국들과의 유대관계 강화

부룬디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O-6-46/8/1-21

1976.11월 부룬디 쿠데타 발생과 관련하여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관 등 관련 공관의 정세 동향 보고임.

1. 쿠데타 발생 및 경과

- 1976.11.1. J. Bagaza 부룬디 육군 중령은 전 Michombero 정권의 족별주의 정치와 경제 정책 실패, 부정부패 무능 등을 이유로 무혈 쿠데타를 주도하여 정권을 장악
 - 신군사정부는 30명으로 구성된 최고 군사위원회 및 11명의 집행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정지, 정당해체 등 긴급조치를 발표
- 11.10. 최고 군사위원회는 쿠데타를 주도한 Bagaza 중령을 대통령으로 임명
- 11.13. 내각이 개편되어 신임 외무장관에 A. Muganza 전 부룬디대학 부총장을 임명

2. 대외 정책

- 최고 군사위원회가 발표한 신정권의 대외정책은 비동맹 선린정책 추구, 해방운동 적극지원 등 전 정권과 차이가 있으나, 부룬디 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어 서방측과의 협력증대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좌경정책을 다소 완화할 가능성 존재

3. 부룬디와 외교관계 수립 가능성 타진

- 주미국대사는 미국은 주부룬디대사관에 Development Assistant Attache를 새로이 배치하여 경제원조를 강화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고
 - 미국 국무부 실무진은 친북한 세력이 해임되고 신임 외상이 남북한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때 한국이 관계수립 노력을 시도함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

4. 조치 사항

- 외무부는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에게 부룬디 정세파악과 한국과의 관계수립 가능성 타진을 위해 1976.12월 초 부룬디에 출장 지시
-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 출장 보고
 - 부룬디 신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해 우방국 대사들은 동 신정부의 친서방화 가능성에 회의적인 견해
 - 대서방 원조요청은 극심한 경제난에 봉착한 국가로서 있음직한 일이며, 그것이 곧 대외정책의 방향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중론

미얀마(구 버마)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O-6-46 / 9 / 1-50

주미얀마(구 버마)대사관의 1976년 중 주재국 정세 동향 보고임.

1. 미얀마 청년장교 정부전복 음모 발각

- Ne Win 대통령과 San Yu 장군 축출 음모 혐의로 1976.7월 14명의 청년장교 검거
 - 청년장교들이 경제위기에서 국가를 구출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전복 음모
- 온건파인 Ne Win 대통령과 급진좌파인 San Yu 장군 간에는 정책상의 이견 뿐 아니라, San Yu 장군 부인의 부정축재 등으로 인한 국민의 지탄 때문에 Ne Win 대통령의 San Yu 장군에 대한 태도는 냉담한 것으로 관측

2. 계엄령 해제

- 미얀마 정부는 1976.9.1. 랑군 관구 일대에 1974.12.11. 이래 실시해 온 계엄령(우탄트 전 유엔사무총장의 유해안장 관련 소요사건에 기인) 해제를 국가이사회 의장인 Ne Win 대통령을 대리하여 San Yu 사무총장이 공표
 - 동 조치는 랑군 관구 상태가 정상으로 복귀한데 기인한다는 것이나, 반정부세력의 무마를 위한 일련의 조치로 분석

3. 혁명 미수사건 재판

- 혁명 미수사건에 대한 재판이 1976.9.10. 개시
 - Tin Oo 전 국방상은 형법 제124조 반역 불고지죄로 구속 기소되고, 기타 7명의 사건 관련 자는 전부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군법회의가 아닌 일반법정에 계류

4. 경제정세

- 경제성장률의 저조, 투자하강 상황 및 극심한 인플레이는 중대한 경제적 난문제로 대두
 - 1976.9월 대미얀마 국제차관단의 환심을 얻고 투자환경의 정비를 위해 계엄령 해제, 대학 정상화, 정부 내 요인 중 좌파인사 다수 축출 등 일련의 조치 시행

5. 미얀마 사회주의계획당 비상 전당대회 개최

- 동 대회가 1976.10.29.~30. 개최되어 당헌개정과 미얀마식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의 정책 우선회(右旋回)와 관련 결정이 있을 전망

캄보디아(구 크메르)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 북미

MF번호 O-6-46 / 10 / 1-122

1976년 중 캄보디아(구 크메르)의 외교관계 동향 보고임.

1. 캄보디아의 민간인 학살 관련

- 태국 외무성은 캄보디아군이 태국에 침입하여 민간인을 다수 학살한 내용에 관한 자료를 1977.1.28. 공표함.

2. 1976년 중 캄보디아의 외교관계

- 8.2. 일본 외무성은 캄보디아와 외교관계 회복에 관한 공동 커뮤니케 발표
 - 일본과 민주 캄보디아정부는 평등, 독립, 주권,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및 상대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의 제 원칙에 기반, 상호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희망
- 8.9. 영국은 캄보디아와 외교관계 수립
- 8월 오스트리아 정부는 캄보디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재개하기로 결정
- 9월 세네갈 정부는 캄보디아에 상주공관 설치 결정
 - 9.4. A. Dioum 주중국(구 중공) 세네갈대사가 신임장 제정

3.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특별조사 소위원회는 1976.1.27. 베트남-캄보디아 비상사태, 특히 베트남에서의 철수에 관한 G. Martin 전 주베트남 미국대사의 증언 청취를 위한 청문회 개최

대만(구 자유중국)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O-6-46 / 11 / 1-93

1976년 중 대만(구 자유중국)의 정세 동향임.

1. 장경국(蔣經國) 행정원장 외교부 첫 시찰(1976.1.6.)

- 동 행정원장은 외교부 첫 시찰에서 우방국과의 관계 계속 강화와 미수교국에 대한 실질적인 관계를 촉진하여 총체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라고 지시

2. 일부 개각(1976.6.12.)

- 재정부, 내정부, 교통부, 사법행정부 장관 및 무임소 정무위원 등 7명
- 1972.6월 장경국 내각 출범 이래 안정을 바탕으로 한 소극적 시책에서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내각으로 전환

3. 외교시정 입법원(국회) 보고(1976.9.7.)

- 대만 정부는 1976.1~6월 간의 외교 및 경제 시정 보고서를 입법원에 제출
 - 반공국시 관철, 민주진영 입장을 견지하고 자주독립정신에 입각하여 자유 애호국의 동정과 지지 획득에 노력
 - 총력외교를 추진하여 대만 고립을 획책하는 중국(구 중공)의 음모를 분쇄하고 새로운 외교 대세 확립에 주력

4. 제11차 국민당 전당대회 개최(1976.11.12.~18., 타이베이)

- 중국(구 중공)의 유엔가입으로 인한 대만의 유엔 탈퇴 및 장제스(蔣介石) 총통의 서거(1975.4.5.) 이후 장경국 행정원장이 처음 개최한 전당대회
- 주요 결과
 - 장경국 총통을 국민당 주석으로 선출
 - 주요 당헌 수정,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 선출
 - 정치, 행정, 외교관계 보고
 - 중국 대륙 문제 해결방침 제시 등을 포함한 전당대회 선언문 발표

모택동 주석, 주은래 수상 사망 및 중국(구 중공)의 대내외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O-6-46 / 12 / 1-351

1976년 중 모택동 주석, 주은래 수상 사망과 이에 따른 중국(구 중공)의 대내외 정세에 관한 각국 대사관의 정세 동향 보고임.

1. 주은래 중국 수상 사망(1976.1.8.)

- 신화사통신은 주은래 수상이 1976.1.8. 암으로 사망했다고 보도
 - 포드 미국 대통령은 주 수상을 remarkable leader로 표현하면서, 동 사망으로 미국·중국 관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
 - 미키 일본 수상은 1.9. 관방장관을 통해 조의 담화를 발표
 - 김일성은 1.9. 모택동에게 조전을 발송하고 주은래의 공헌을 찬양

2. 모택동 당 주석 사망(1976.9.9.)

- 모택동 당 주석은 1976.9.9. 노환으로 사망
- 각국 정부는 모 주석의 사망에 대해 조전 및 조문 메시지를 송부
 -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은 모택동은 시대의 거인이었으며, 그의 사망으로 인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미국·중국 간의 관계수립은 중국으로서는 근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외교행적이라고 부연
- 모 주석 장례식은 9.18. 천안문 광장에서 개최
 - 장례위원회는 화국붕, 왕홍문, 엽검영, 장춘교 등 4명이 이끄는 362명으로 구성
- 모택동 사망의 영향
 - 중국의 최근 국내정세는 매우 불안정하며, 이러한 시기 모 주석의 사망으로 향후 신 지도체제 확립을 둘러싼 권력투쟁의 귀추가 주목

3. 화국붕 수상, 당 주석 및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 승계(1976.10.12.)

- 강청, 장춘교, 왕홍문 및 요문원은 화국붕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체제에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기도하다 10.12. 체포
 - 중국 내에서는 화국붕 지도체제 지지 데모와 강청 등 강경파 핵심인물에 대한 비판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
- 외무부 평가
 - 화국붕 체제가 확립된다면 중국의 대내외정책은 모택동 노선을 답습하되, 이념중시보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
 -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중국의 기본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



4. 천안문 군중집회 개최(1976.10.24.)

- 화국봉의 당 주석 임명 축하와 강청 등 4명의 반혁명분자들을 비판하는 군중집회 개최
 - 오덕 북경 시장은 모택동의 기본노선을 견지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연설

중국(구 중공)의 대외관계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중국담당관

MF번호 O-6-46 / 13 / 1-41

1976년 중 중국(구 중공)의 대외관계에 관한 각국 대사관의 정세 동향 보고임.

1. 외무부는 1976.5.28. 주일본, 미국, 프랑스 등 주요 공관에 중국이 인도네시아 전쟁 이후 대베트남 경제원조를 전면 중단하고, 베트남에서 원조 전문가를 완전 철수한다는 북경 발 외신 보도의 신빙성을 주재국 외무성에 탐문 보고하도록 지시함.

● 공관 보고 종합

- 중국의 대동남아 장기포석 면에서 볼 때, 베트남이 다소 친소련적이라 하여 원조중단 및 기술자 철수 등 극단적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
-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이익은 중대하므로, 중국이 대베트남 원조 문제를 간단히 처리하지는 않을 것

2. 주홍콩총영사는 1976.8.15. 화국봉 중국 수상이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에 아래 요지의 축전을 발송했다고 보고함.

- 중국은 비동맹국가와 동일한 제3세계에 속하여 비동맹국가의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대국의 반패권주의에 절대지지
- 동 회의는 제4차 회의의 기초 위에서 계속 발전할 것이며, 반제국, 반식민, 반패권 사업을 촉진시키는 등 새로운 이바지가 있기를 희망

3. 공로명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은 1976.11.10. J. Hoare 영국 외무성 조사부와 면담, 동 조사부로 부터 10.27.~11.5. 북경 방문 결과를 청취함.

- 4인 강경파 숙청 과정 및 전망, 화국봉 지도체제와 중국·대만 관계 전망 등

4. 주호주대사는 1977.2.8. S. Fitzgerald 전 주중국 호주대사를 면담하고, 중국의 대외관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중국은 미국·소련 양 강대국을 배제하면서 제3세계와의 유대강화를 기초로 제2세계의 서구진영 특히 독일, 프랑스와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음. 이는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제2전선 형성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국의 국방 태세는 본질적으로 방어적 태세임.

중앙아프리카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O-6-46 / 14 / 1-106

주중앙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의 1976년 중 주재국 정세 동향 보고임.

1. 보카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암살기도 사건

- 보카사 대통령이 1976.2.3. 괴한으로부터 수류탄 투척을 받았으나, 암살 모면
- 미국, 프랑스, 대만(구 자유중국) 등과 박정희 대통령도 2월 위로전문 발송

2. 중앙아프리카공화국·중국(구 중공) 복교(復交) 및 보카사 대통령 방중

- 1964.9월 수교 후 중국의 반정부단체 지원을 이유로 1966.1월 공관을 폐쇄한 이래 소원한 상태를 유지하였던 양국은 1976.8.20. 외교관계를 재개하여 대사급 외교사절을 교환하기로 합의
 - 중국이 친중국 국가인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을 이용하여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대중앙 아프리카 수교 노력에 박차를 가한데 따른 것
- 보카사 대통령은 1976.11.15. 중국을 공식 방문함.
 - 중국의 내부 혼란에도 불구하고 소련에 대비한 대아프리카 외교강화책의 일환으로 분석
 - 보카사 대통령은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 획득에 큰 기대

3.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1976.12.4. Messan당 특별총회에서 신헌법 채택을 발표함.

- 공화국을 입헌군주국으로 국체 변경
 - 보카사 대통령을 황제로 추대, 보카사 1세 황제로 즉위
 - 황제는 총리 임명권 보유, 단원제 국회 설치, 국회는 정부 불신임권 보유 등
- 박정희 대통령은 12월 아래 요지의 축전 발송
 - 황제 즉위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중앙아프리카의 지속적인 발전과 양국간 영속적인 우호를 위한 전기가 됨을 확신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O-6-46 / 15 / 1-31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관의 1976년 중 주재국 정세 동향 보고임.

1. 모부투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이 1976.4.14. 프랑스를 방문함.

- Giscard d'Estaing 프랑스 대통령 면담 후, 8월경 동 대통령의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을 암시

2.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이 1976.4.28.~30.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함.

- 미국은 4,800만 달러 차관을 농산물 구매와 광산개발을 위해 공여하기로 합의

3.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이 1976.5.8.~9.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함.

- 모부투 대통령과 짐바브웨(구 로데시아), 나미비아, 앙골라 문제 등 경제 문제 협의

4. 모부투 대통령은 1976.8.28. Ngouali 콩고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함.

- 교통, 체신, 농업, 무역 등 각 분야에 걸친 양국간 협력강화 문제 논의
 - 1976.7월 양국 접경지대에서 발생한 군대 충돌사건 재발방지 조치에 합의

5. 참고자료

- 르완다 대통령의 콩고민주공화국 방문(1976.6.3.~5.)
- 콩고민주공화국 외상의 독일(1976.6.14.~17.) 및 벨기에(6.17.~18.) 방문
 - 각료급 공동위원회 참석 및 차관협정 서명
- 모부투 대통령의 경제부흥계획 발표(1976.12.21.)

이집트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6-46 / 16 / 1-257

1976년 중 이집트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Karamanlis 그리스 총리는 이집트 방문 중 1976.1.25. 이집트·그리스 공동성명을 발표함.

- 이스라엘이 1967.6월 이후 점령한 아랍 영토에서 즉시 철수 요구
- 항구적 중동평화를 위한 제네바평화회담 개최

2.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중동 순방(1976.2.21.~26.)

- 대상국: 사우디아라비아, UAE(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결과
 - 3억 달러 긴급원조 획득
 - 중동 분쟁 및 팔레스타인 문제의 공정해결에 대한 전 아랍국가의 공동책임 선언
 -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아랍영토에서 이스라엘 철수

3. 사다트 대통령은 1976.3.14. 이집트·소련 우호협력조약(1971.5.2. 체결) 폐기를 선언함.

- 소련의 대이집트 무기보충 지연과 전쟁부채 상환 유예요청 거부 때문

4. 국내 정치

- 1976.9.16. 사다트 대통령 제2차 임기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
 - 99.936%가 찬성함으로써 6년 간 동 대통령의 임기 연장
- 1976.11.6. 새 인민회의 총선 결과 발표
 - Salem 총리의 Center Forum이 다수 의석 확보(360석 중 275석)
- 1976.11.9. 신 내각 구성

적도기니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O-6-46 / 17 / 1-8

1976년 중 적도기니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적도기니 방문 후 카메룬으로 귀환하던 주카메룬 미국대사에게 적도기니 의전장이 미국의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살인행위를 규탄하고,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을 비난, 동 대사의 스파이 행위를 지적하면서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통보하는 서한을 수교한바, 미국 국무부는 이러한 사태 발생을 근거로 1976.3.15. 적도기니와 단교함.

850

2. 적도기니 쿠데타 발생에 관한 1976.11.1.자 마드리드발 AFP 보도에 대하여 외무부는 주카메룬 대사와 주스페인대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지시함.

- 각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바, AFP의 보도는 거짓보도로 확인됨.

에티오피아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O-6-46 / 18 / 1-65

1976년 중 에티오피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에티오피아 외무장관이 1976.3.19.~24. 이집트를 방문함.

- 무역협정 및 문화협정 체결
- 공동성명 발표
 - 이스라엘의 1967.6월 전쟁 점령지역으로부터 철수,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지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및 앙골라 일부 점령 비난 등

2. 에티오피아 임시군사위원회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립 목표의 혁명계획' 발표(1976.4.20.)

- 농업협동조합의 촉진, 국유화, 생산 증대를 위한 인민동원 등

3. 에티오피아 외무장관은 1976.9.15. 아래 요지의 기자회견을 실시함.

- 사회주의국가와의 관계 강화
- 적극적 비동맹에 비중 부여
- 지부티, 에리트리아, 서부사하라, 나미비아 문제에서 독립, 분리 노력 적극 지지

가봉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O-6-46 / 19 / 1-42

1976년 중 가봉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가봉 정부는 1976.3.15. 일부 개각하였으나 수상, 부수상, 외무장관 등 주요 장관 등은 유임됨.

2. 봉고 가봉 대통령이 1976.6.14. 카메룬을 비공식 방문함.

- 카메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새로운 국제질서 및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담 등 의견 교환

852

3. 봉고 대통령이 1976.7.8.~11. 필리핀을 공식 방문함.

- 필리핀·가봉 간 협력에 관한 일반 협정 체결
- 필리핀 방문 후 귀국 길에 홍콩을 경유
 - 가봉 외무장관은 주홍콩총영사를 면담하고 한국 정부의 우익에 사의 표명

4. 봉고 대통령은 1976.10.21. 개각을 단행하여 외무장관으로 사촌인 마틴 봉고를 기용하는 등 대통령 친정체제 강화를 도모함.

감비아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O-6-46 / 21 / 1-26

주세네갈대사관(감비아 점입)의 1976년 중 감비아 정세 동향 보고임.

1. Moussa Traore 말리 대통령은 1976.2.17.~20. 감비아를 방문함.

- 동 말리 대통령과 자와라 감비아 대통령 간에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 양국 외상을 수석대표로 하는 Joint Maliano-Gambian Committee를 설치하고, 양국 공동이익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협력 증진
 - MPLA(앙골라해방인민운동) 영도 하의 앙골라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 확인
 - 독립, 주권의 상호 존중 및 국내 문제 불간섭원칙에 근거한 아프리카의 단결에 성실할 것 다짐
 - 공정한 신세계 경제 질서의 확립 필요성 강조

2. 주세네갈대사관은 1976.7월 최근 감비아 정세에 대한 아래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함.

- 대외적으로 감비아는 세네갈, 말리 및 기니비사우 등 인접 국가와의 외교를 강화하고,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재정차관 등을 추진 중임.
 - 자와라 감비아 대통령은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의 참석(1.9. 및 7.2.), 3월 리비아, 이집트, 이란 방문, 6월 영국 등 방문을 통해 경제개발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 외교 추진
- 1975.8월 감비아는 리마 비동맹외상회의에서 한국 가입 신청을 지지한 바 있고, 자와라 대통령 및 은지 외상이 친한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감비아와의 의료협력을 유지하고 수산 및 경제 기술협력 등의 확대를 통해 비동맹정상회의 및 유엔 총회에서 한국 입장 지지 및 유대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북한은 1975.5월 감비아에 상주대사관(대사대리)을 설치하고 한국 비난 허위 선전을 전개하였으나, 1975.8월 감비아 외상이 주감비아 북한대사(세네갈 상주) 및 대사대리를 초치하여 여사한 내용의 선전을 중지할 것을 요청을 한 바 있음.
 - 이후 북한은 감비아 대통령과 외상 초청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와라 감비아 대통령과 은지 외상이 거절하고 있음.
 - 1976.6월 감비아 국회사절단 평양방문시에도 북한이 당초 감비아 법상을 초청하려했으나, 은지 외상의 설득으로 단장을 잘로우 산네 의원으로 격하시켜 파견함.

독일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O-6-46 / 20 / 1-54

1976년 중 독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서독·쿠바 외교관계 재개(1976.1.18.)

- 1963년 쿠바의 동독 승인 이후 12년간 서독·쿠바는 단교한 바 있으나, 1976.1.18. 양국간 외교관계를 재개함.

2.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1976.3.29.~31. 이집트 국가원수로서 최초로 독일을 방문함.

- 중동 평화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
- 독일·이집트 간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3. 독일·폴란드 공동선언문 및 제반 협정문 수록(1976.6.18.)

4. 1976.10.3. 독일 제8차 총선 실시 결과, 사민당·자민당 승리

- 사민당과 자민당은 19석을 상실했으나, 과반수(248석) 이상을 확보(252석)하여 집권, 연정 유지에 성공
- 사민당의 인기 하락은 유럽 사민당 인기 하락 추세를 반영
- 12.15. 차기 수상으로 사민당의 Helmut Schmidt 수상 선출

교황청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

MF번호 O-6-46 / 22 / 1-7

1976년 중 교황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이탈리아 언론 보도 관련 교황청 논평(1976.1월)

- 1948~50년 사이에 바티칸이 미국의 첩보기관에 협력했다는 보도에 대해 교황청 대변인은 정치적 조작설이라고 부인

2. 모로코 외무성은 1976.2.11. 모로코·교황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결정을 발표함.

3. 교황은 1976.2.11. 기본적인 가톨릭교의 보호조항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라테란 조약 개정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 이탈리아 여당(기민당)은 조약의 다소 수정, 좌익계는 수정 또는 폐지 주장

4. 김수환 추기경은 1976.11.3.~9. 로마를 비공식 방문함.

- 아일랜드, 독일 및 프랑스 순방 후, 11.3. 로마를 비공식 방문하였으나, 별다른 활동 없이 11.9. 뉴욕으로 향발함.

인도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O-6-46 / 23 / 1-220

1976년 중 인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인도·중국(구 중공) 간 외교관계 재수립(1976.4.21.)

- 1962년 중국·인도 전쟁으로 15년간 정체된 관계 정상화를 통해 대사급 외교관계로 승격
- 중국과 인도 모두 소련에 대한 견제 또는 소련 영향력 축소 등 목적으로 관계정상화 추진
 - 중국은 중국·소련 분쟁, 인도는 소련과의 밀착관계 수정 및 미국에의 접근
- 양국 모두 대미국 관계 개선에 도움
- 인도·중국 관계 개선으로 북한은 인도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인도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는 변함이 없을 전망

2. 간디 인도 수상의 소련 방문(1976.6.8.~13.)

- 인도·소련 공동선언문 발표(6.13.)
 - 국제관계에서 우호 관계 증진이 국제 평화, 안보 및 협력에 기초됨에 유의하고 소련과 인도 간 우호조약에 입각한 우호와 협력 관계의 계속적 증진이 양국에 이익이 됨을 재확인
 - 양국관계에서 철강제, 직물산업, 전자, 농업 생산 분야 등에서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기로 합의

3. 인도 상원 개헌안 가결(1976.11.11.)

- 향후 22개 주의회 통과 후 대통령 재가로 확정
- 개헌안 요지
 - 국회의 우월성 재확인
 - 국민의 기본권에 우선하는 국민 10개 기본의무 조항 삽입
 - 사법부의 권한 제한, 특히 어떤 법원도 개정 헌법 규정에 대한 반론 제기 불허
 - 하원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임기를 5년에서 6년으로 연장 등

포르투갈령 Timor의 인도네시아 병합 문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O-6-46 / 24 / 1-151

1976년 포르투갈령 동티모르의 인도네시아 병합 문제에 관련된 내용임.

1. 동티모르 문제의 발생 경위

- 1975.6월 마카오 회담에서 포르투갈의 비식민지화 정책으로 1978년까지 식민지 동티모르의 독립에 합의
- 1975.11월 인도네시아 좌익세력이 일방적 독립선언
- 1975.12월 인도네시아가 무력개입으로 동티모르 수도 Dili를 점령
 - 포르투갈은 인도네시아와 단교선언
- 1975.12월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는 조치를 취함.
 - 동티모르의 자결권 존중, 인도네시아군 철수, 유엔사무총장 특사 파견

2. Guicciardi 유엔사무총장 특사가 1976.1.19.~23. 동티모르를 방문함.

-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도네시아 정부 인사 및 동티모르 정치단체 등 많은 접촉 필요
- 인도네시아 병합 등 파악된 주민동의 의사도 전체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단언하기 곤란
- 좌익 인사 접촉도 고려

3. Soehar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976.7.17. 동티모르 병합에 관한 법률에 서명함.

- 동일자로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로 편입됨.

4. 유엔 제4위원회는 1976.11.17. 동티모르 문제에 관한 토의를 종결함.

- 공산국들의 찬성으로 다소 완화된 결의안 채택

이탈리아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O-6-47 / 1 / 1-165

1976.6월 실시된 이탈리아 총선 관련 내용임.

1. 이탈리아 대통령 의회 해산(1976.6.1.)

- Aldo Moro 수상의 기민당은 5.30. 단독 내각 총사퇴를 결정하고 사퇴서를 Leone 대통령에게 제출
- 기민당 내각에 대해 제1야당인 공산당의 참여 문제가 부각되었으나, 공산당과 제휴하는 대신 내각 사퇴

858

2. 상·하 양원 총선거 실시(1976.6.20.~21.)

- 이탈리아 총선 시 최초로 공산당 제1당 가능성이 서방에서 대두되었으나, 기민당이 근소한 차이로 제1당 유지에 성공
- 공산당 세력 신장
 - 헬싱키선언 이후 동서화해 분위기 속에서 공산당에 대한 유화적 분위기 작용
- 여타 군소정당의 퇴조
 - 공산당이 잠식

3. 총선 후 전망에 대한 평가

- 기민당은 사회당과 연정 추진 가능성
 - 사회당이 공산당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정국 혼미 가능성
- 공산당과의 '역사적 타협' 가능성
- 기민당-사회당-공산당 연정 구상이 어려울 경우 정국 혼미 가능성

4. 이탈리아 총선 결과에 대한 각국 언론 보도자료가 수록됨.

코트디부아르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O-6-47 / 2 / 1-20

1976년 상반기 중 코트디부아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1976년 1 / 4분기 정세 보고

- 코트디부아르 개각 단행
 - 1974.7.24. 이후 처음으로 1976.3.4.자로 개각 단행
 - 부처 및 각료 수 증가로 권력 분산을 유도하고, 현 대통령 중심의 권력체제를 공고히 함.
- UPA(아프리카의원연맹) 창설
 - UPA 창설을 위한 준비위원회 개최(2.11.~13., 아비장)
 - 동 회의에서 2.13.자로 UPA가 공식 발족됨.
- 나이지리아 정부의 라고스 주재 코트디부아르대사관 불법검색 사건
 -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재 코트디부아르대사대리가 2.18. 나이지리아 외무성에 출두하여 부재중인 동안 나이지리아 정부군이 동 대사관을 불법 검색함.
 - 나이지리아 정부는 공식 사과하고, 코트디부아르 측은 동 사과를 수락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동 사건은 일단락 됨.
- 서부아프리카 화폐공동체 각료회의 개최(3.26.~27., 아비장)
 - 회원국 간 일반 경제상황 및 프랑스 프랑화의 변동환율제 채택에 따른 영향에 관해 논의함.

2. 코트디부아르의 발전을 위한 외교의 역할과 위치 세미나(1976.6.14.~19.)

- 코트디부아르 외상 주재
- 엄정중립에 기반을 둔 대외정책 천명
- 동유럽국가와의 수교 문제 검토

일본정세. 전2권 (V.1 1-8월)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O-6-47 / 3 / 1-165

1976.1~8월 중 록히드 사건과 관련된 일본의 국내 정세 동향임.

1. 미국 록히드 항공사의 뇌물 공여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다국적기업 소위원회 청문회가 1976.2.5. 개최됨.

- 일본에 대해 1,200만 달러 제공(다나카 전 수상의 측근 고마다 요시오에게 700만 달러)

2. 미국·일본 간 자료제공협정 체결(1976.3.24.)

- 조건부로 관련 자료제공
 - 미키 수상의 수습 능력에 회의

3. 록히드 사건이 일본 정국에 미친 영향

- 보수여당 정권에 대한 불신 증대(지지세력 5% 감소)
- 국회 관련자 증언에 핵심인물인 고마다의 불출석으로 성과 없음.
- 국회 활동 중단(예산안)
- 자민당 내 주류·비주류 간 갈등 격화

4. 다나카 전 수상 구속(1976.7.27.)

5. 동 사건 관련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음.

- 문제의 발단
- 일본 정계의 반응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본건 공개의도
- 고마다 요시오 인물 개요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다국적소위원회 청문록
- 일본 국회 토의록

일본정세. 전2권 (V.2 9-12월)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O-6-47 / 4 / 1-246

1976.9~12월 중 록히드 사건으로 촉발된 일본 정국의 혼란, 수습 관련 내용임.

1. 다나카 전 수상 구속 이후, 총 18명이 록히드 사건으로 구속(1976.8.21. 기준)
2. 자민당 내 주류·비주류 갈등 격화
 - 거당체제확립협의회는 차기 총재 후보로 후쿠다 부수상을 결정하고, 임시전당대회에서 미키 수상 퇴진을 추진
3. 1976.12.5. 제34차 중의원 총선 결과, 자민당은 무소속 당선자를 입당시켜 가까스로 과반수 확보
 - 1955.11.15. 자민당 결성 후 최저 의석 획득
 - 제34차 일본 총선거 결과 종합보고가 수록됨(1976.12.7.).
5. 후쿠다 신내각 성립(1976.12.24.)
 -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12.27. 미키 수상이 사퇴의사를 표명하며 퇴진
 - 주요 경제부처 장관은 후쿠다파가 독점
 - 자민당 내 파벌을 고려한 인선
 - 소장의원 기용으로 참신한 이미지 부각 시도

일본 아시아·태평양 금융증권 사절단 동남아 순방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O-6-47 / 5 / 1-25

1976년 일본 아시아·태평양 금융증권 사절단의 동남아 순방에 관한 내용임.

1. 주일본대사관은 1976.2월 동 사절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일본 (사)금융재정사정연구회가 구성한 민간사절단
- 순방 기간 및 방문 국가
 - 1976.1.26.~2.21.
 - 필리핀, 파키스탄, 인도, 뉴질랜드,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 순방 목적
 - 아시아국가의 경제개발 현황 시찰
 - 1차 상품에 대한 실정 조사
 - 현지 경제계 관리들과의 국제금융협력에 대한 의견교환 및 간담회 개최
- 단장
 - 일본 대장성 요시다 다로이치 재무관(차관보급)
 - 이전 단장은 금융기관 사장을 임명한 바 있음.
- 규모
 - 26명
 - 이전 사절단 규모는 30명 규모

2. 외무부는 1976.2.26. 동 사절단이 방문한 각국 대사관에 주재국에서의 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 해당 공관의 보고 내용 수록

자메이카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O-6-47 / 6 / 1-97

1976년 중 자메이카 집권당의 공산화 노선과 치안 불안 관련 정세 동향임.

1. Manley 수상은 1976.1.17. PNP(국가인민당) Defence Group 창설을 촉구함.

- 무장 폭도의 난동을 계기로 당과 당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 결성 주장

2. Allan Isaac 전 광물자원상은 1976.1.20. 현 정부의 쿠바형 공산화 계획을 폭로함.

- PNP가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Democratic Socialism)는 쿠바형 공산주의를 자메이카에 정착 시키려는 하나의 과도적 단계

3. 주자메이카대사관은 1976.6.8. 반미경향 격화와 한국에 대한 영향에 관해 보고함.

- 자메이카 정부는 미국이 현 정권을 전복하려한다고 비난
- 총선거 전략으로 정권의 모든 실정에 대한 책임을 미국 CIA에 전가하는 위협 발언,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긴급원조를 끌어내 경제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의도로 분석
- 자메이카의 반미감정이 극에 달할 경우 유엔총회 등 국제 문제에서 한국에 불리한 영향 가능성
- 동년 1월부터 여야 청년당원들에 의한 테러사건(방화, 총격전 등) 계속 등 치안 불안
-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선거전이 과열되면 정치적 이유에 기인한 대외교관 정치테러 또는 신변위협 가능성

4. 1976.12.15. 자메이카 총선 결과

- PNP 승리, 절대 우위 유지(60석 중 47석)
- 2가지 전망 공존
 - 적극적인 쿠바형 공산주의 추진
 -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 환심을 사는 정책으로 전환
- 한국과의 기존 관계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

요르단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6-47 / 7 / 1-59

1976년 중 요르단의 대외관계 주요 정세 동향임.

1. 요르단은 시리아와 외교대표권 협력관계, 더 나아가 국가 통합을 추구하고자 함.

- 1976.2.18. 고위공동위원회(Joint Higher Committee)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
 - 1976년 중 양국은 각각 상대방 국가의 외교대표권을 상호 대행
 - 시리아 23개 지역, 요르단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영사업무 위주로 우선 시행
- 후세인 요르단 국왕은 2.27. 시리아를 방문, 상기 공동성명 내용 재확인
- Ayoubi 시리아 총리는 3.8. 기자회견에서 아래 조치 검토 중임을 발표
 - 양국 국민이 여권 없이 자유왕래
 - 양국 도시 간 항공운영을 국내항공운영으로 간주

2. 후세인 국왕 정상외교 추진

- 시리아 공식 방문(1976.5월)
 - 국가통합 문제 협의
- 소련 방문(6월)
 - 미사일 구입 문제 협의
 - 요르단 석유 탐사와 직업훈련소 설립에 소련 기술 제공
- 시리아 방문(7.10.)
 - 양국 수뇌의 외국 방문 결과 의견 교환 등
- 사우디아라비아 방문(8.8.)
 - 소련 방문 결과 협의
 - 칼리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미국산 대공 Hawk 미사일 구입 자금(4억 달러) 지원 약속

쿠웨이트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6-47 / 8 / 1-26

1976년 중 쿠웨이트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정변으로 신내각 구성(1976.8.30.)

- 의회 해산 및 내각 일괄 사임
- 쿠웨이트의 정변에 대해 아랍 각국이 지지(리비아, 이라크 제외)
- 각료의 경질이 거의 없는 신내각은 잠정적 성격이라는 평가

2. 1976.11.2.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카터 후보의 당선에 대해 쿠웨이트 정부 및 언론은 대체적으로 놀라움과 함께 실망감 표시

- 아랍 국가는 포드 후보를 지지해왔던바, 카터 후보의 당선이 중동 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관심과 우려를 표명함.

3.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미국대사이며, 미국 국무부 내 석유 문제 제1인자인 제임스 에이킨스가 1976.11.22. 카터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쿠웨이트를 방문함.

- 유가 인상 움직임 및 미국과 아랍 관계에 대한 카터 정부의 견해와 관심을 전달하기 위한 방문으로 분석

865

대한민국 외교자료해제집

레바논 사태 및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6-47/9/1-378

1976년 레바논의 기독교도·이슬람교도 간의 충돌과 이로 인한 국내정치 변화에 관한 내용임.

1. 레바논의 기독교도·이슬람교도 간 갈등

- 레바논은 지정학적, 종교적으로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간의 갈등이 역사적으로 상존
-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권력구조를 6:5로 구성하였으나, 이슬람세의 확대에 구조개편 요구가 확대되어 내전으로 발전

866

2. 1976년도 레바논 사태 일지

- 1.22. 휴전 성립
- 3.11. 반정부 쿠데타 발생, 대통령 사임 요구
- 4.10. 레바논 의회, 비상회의 소집
 - 헌법개정안 의결(대통령 서명)
 - 대통령 사임에 따른 후임자 조기 선출
 - 이슬람교 좌파는 반발, 내전 재발
- 5.8. 대통령 선거
- 9.25. Sarkis 신임 대통령 취임, Karami 수상 사임
 - 신임 대통령, 개각 등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 노력

3. 아랍연맹 외상회의(1976.6.8., 카이로)

-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제의로 비공개 개최, 레바논 사태 논의 및 7개 결의안 채택
 - 긴급회의 개최를 주선한 아랍연맹 사무총장에게 감사 표시
 - 모든 전투 당사자에게 즉시 정전 및 휴전을 요구
 - 아랍평화군 형성
 - 아랍위원회 구성 및 파견
 - 레바논의 각 정당은 Sarkis 레바논 대통령 당선자 주재 하에 타협할 것을 요구
 - 팔레스타인 혁명 지지 및 보호
 - 긴급회의는 결의안 이행 시까지 속개

4. 리야드 6개국 정상회담(1976.10.16., 리야드)

- 동 회담은 칼리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주선으로 개최되어 '레바논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 1976.10.21. 오전 6시를 기해 레바논 전역에 걸쳐 휴전
- 아랍 평화유지군을 3만 명으로 증강
- 레바논 정부에 평화유지군에 대한 지휘통솔권 부여
- 카이로 협정의 이행
- 동 성명서는 제8차 아랍연맹 정상회의(10.25., 카이로)에서 승인 받기로 결의함.

레소토 정세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O-6-47 / 10 / 1-29

1976년 중 레소토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레소토 각료 외교 활동

- Kotsokoane 레소토 외상이 1976.5월 중국(구 중공)을 방문함.
- Rahetla 레소토 상공장관이 10.18.~23. 대만(구 자유중국)을 방문함.

2. 제17차 Afro-American Congress 개최(1976.12.6., 레소토 마세루)

- 미국 국회의원과 아프리카 국가 외상 참석
- 미국의 아프리카 해방운동 및 원조문제 협의

라이베리아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O-6-47 / 11 / 1-42

1976년 중 라이베리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Tolbert 라이베리아 대통령 재선(1976.1.5.) 후 신내각 구성(1.12.)

- 외상 등 다수 각료 유임

2. Tolbert 대통령 외교활동

- 기니 방문(1976.2.18.)
- 시에라리온 방문(1976.4.19.~21.)
- 서독 방문(1976.5.24.~6.1.)
- Stevens 시에라리온 대통령 라이베리아 방문(1976.7.7.)
- Mano River 개발의정서에 서명
- 미국 방문(1976.9월)
-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1976.11.23.~30.)

3. 외국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멕시코(1976.6.22.)
- 인도네시아(1976.7.7.)
- 헝가리(1976.7.16.)
- 사우디아라비아와 대사급으로 승격(1976.8.11.)

4. Tolbert 대통령의 ECOWAS(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정상회담 참석 관련 언론보도 자료 수록

- 동 대통령은 동 기구의 협조 보상 및 개발기금을 관리하는 Director-General에 선출됨.

모로코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6-47 / 13 / 1-50

1976년 중 모로코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모로코 외교관계 재정립

- 교황청과 외교관계 재수립(1976.2.11.)
- 동독과 외교관계 재개 합의(1976.3.5.)
- 모리셔스와 외교관계 수립(1976.6.8.)

870

2. 오스만 모로코 수상의 아랍 산유국 순방(1976.4.20.~5.2.)

- 방문 국가
 -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UAE(아랍에미리트연합국), 카타르, 오만
- 알제리와의 분쟁에 대한 모로코 입장 설명

3. 각국 정상 및 외무부장관 모로코 방문

- 가봉 대통령(1976.5.13.~15.)
- 세네갈 대통령(1976.5.13.~14.)
- 기니 수상(1976.5.5.~11.)
- 스페인 외상(1976.5.5.~7.)
-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1976.11.11.)

4. 하산 2세 모로코 국왕 프랑스 방문(1976.11.22.~25.)

- 프랑스에 원전 건립 요청
- 모로코 경제개발에 대한 프랑스 기여, 프랑스 자본보호 등에 양국은 만족 표명
- 문화협력협정 개정

모리타니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O-6-47 / 14 / 1-8

1976년 중 모리타니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주모로코대사는 1976.6.20. Bisbi 모로코 외무부 아시아국장과 모리타니아의 변화에 대해 면담하고, 동 국장의 모리타니아에 대한 아래 요지의 평가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 사회주의에서 자유주의 내지 온건주의로 전환
 - 알제리와 소원, 모로코와 긴밀한 관계
 - 사회주의 성향을 탈피하고 있으나 법령, 체제는 불변경
2. 1960년 모리타니아의 독립과 함께 대통령에 취임한 Moktar Ould Daddah 대통령이 1976.8.8.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됨.

87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76

모리셔스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O-6-47 / 15 / 1-42

1976년 중 모리셔스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대외관계 활동

- Navinchandra Ramgoolam 모리셔스 수상 인도 방문(1976.1.16.~17.)
 - 대통령, 부통령 예방, 간디 수상과 회담 및 만찬
 -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담 실패에 관한 브리핑, 인도의 경제원조 논의
- 외상의 중국(구 중공) 방문(5월)
 - 중국이 모리셔스에 약속한 경제원조의 내역 및 조건 협의

872

2. 모리셔스 총선(1976.12.20.)

- 모리셔스는 노동당(제1당)과 사민당(우파)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있었으나, 1973년 이후 양측 간의 대립으로 연립내각 해체 수순
- 선거 결과, Ramgoolam 수상의 노동당은 사민당과 연정을 재형성
 - 좌파인 모리셔스 군사행동(Mauritius Military Movement)이 총 62석 가운데 30석, 노동당 28석, 사민당 8석 차지
 - 모리셔스 군사행동이 제1당으로 부상하였으나, 노동당과 사민당이 연정 구성에 성공

몰타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

MF번호 O-6-47 / 12 / 1-6

1976.9월 실시된 몰타 총선 관련 내용임.

1. 몰타 총선(1976.9.17.~18.)

- 총의석 65석 중 집권 노동당이 34석, 야당인 국민당이 31석을 차지함으로써 Mintoff 수상
노동당 내각이 향후 5년간 재집권

2. 총선 이후 정세 전망

- 국내적으로 사회주의 정책, 대외적으로는 아랍과 유럽을 잇는 교량역할의 비동맹정책 고수
- 야당이 주장하는 서방측과의 유대 강화 정책은 퇴조가 예상되고, 몰타 소재 영국기지는 1979.4월
까지 철수해야 할 입장
- 노동당 정권의 비동맹 노선으로 친북한 정책도 유지 예상

87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멕시코 정세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O-6-47 / 16 / 1-153

1976~77년 중 멕시코 정세 동향임.

1. 1976.5월 퇴임하는 Echeverria 대통령의 재임 중 외교적 성과

- 국제관계의 확대·다변화
- 반공과 부공 간의 관계를 재조정할 신국제경제질서 확립에 주도적 역할
- 멕시코의 이해가 제3세계의 이해와 공통된다는 것을 제3세계 국가에 인식시키는 데 성공

874

2. Portillo 신임 대통령 취임

- 1976.7.4. 멕시코 대통령선거에서 집권당인 PRI(제도혁명당)의 Portillo 후보가 94.3%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
- 동 당선자의 정책 기조
 - 새 사회 건설 추진, 대내외 정책을 통한 국가의 독립 보전, 고용·소득증대·사회복지정책 구현
 - 신국제경제질서 수립, 경제현장 이행, 국제기구 민주화, 라틴아메리카 통합, 제3세계와의 결속 추구
- 12.1. Portillo 신임 대통령 취임식 거행
 - 최경록 교통부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동 취임식에 참석

3. 멕시코의 대외관계 동향

- 1976.6.6. 200마일 경제수역 선포
-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은 6.10.~12. 멕시코를 방문하여 멕시코 측과 양국 현안 문제 협의
 - 대미국 마약 밀반입 규제, 양국간 무역불균형 시정, 양국에 복역 중인 범죄인 처리

4. 정부조직법 개정

- Portillo 대통령은 경제위기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6.12.3. 상원에 정부조직법 제출
- 상하 양원에서 의결, 확정된 신정부조직법에 따라 정부는 17부 2청에서 6부 2청으로 개편되며, 대통령부는 폐지되고 기획예산부가 신설

모잠비크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O-6-47 / 17 / 1-15

1976년 중 모잠비크와 짐바브웨(구 로데시아) 분쟁 관련 동향임.

1. 사모라 마셀 모잠비크 대통령은 1976.3.3. 전쟁상태를 선포 후 짐바브웨의 국경을 봉쇄함.

- 모잠비크 내 짐바브웨 재산 몰수
- 짐바브웨가 국경을 침범하고 모잠비크 국민과 재산에 피해를 가했다고 비난하면서, 짐바브웨에 대한 유엔제재조치에 따른 행동임을 강조

2. 모잠비크 행동의 배경 및 결과

- 짐바브웨 백인정권(1975.6월 독립)에 대한 흑인국가들의 압력에 그 동안 모잠비크는 경제적 이유로 동참하지 않다가 동참
- 짐바브웨의 수출입은 대부분 모잠비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짐바브웨는 극도의 곤경에 봉착

3. 각국의 반응

- 남아프리카공화국만 모잠비크 비난
- 중주국이었던 영국은 유엔제재조치에 따르는 모잠비크의 행동을 지지
 - 영국은 흑인다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것을 짐바브웨 정부에 요구

875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76

나이지리아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O-6-47 / 18 / 1-95

1976년 나이지리아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함.

1. 나이지리아 청년혁명장교단 주도의 쿠데타가 1976.2.13. 발생함.

- 수도 라고스를 장악하고 집권 및 통금 발표
- Muhammed 대통령 피살

2. 쿠데타 발생 배경

- 1975.7.29. 쿠데타로 집권한 모하메드 정권의 군대감축, 급격한 좌경화 정책에 대한 불만
- 석유수입 분배 문제, 종족 간의 갈등 등

3. Obasanjo 신임 국가원수가 1976.2.15. 취임함.

- 쿠데타에 의한 Muhammed 대통령 피살로 최고군사령회의는 Obasanjo 국방참모장을 국가 원수에 추대
- 청년혁명장교단의 쿠데타는 실패
 - 5.15. 주동자 등 7명 처형 보도

4. Obasanjo 정권 전망

- Muhammed 전 대통령과 같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전임 정책 답습 가능성 농후
- 쿠데타 원인이 급격한 좌경화 정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중립 내지 다소 우경화 가능성 존재

네팔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O-6-47 / 19 / 1-56

1976년 중 네팔의 대외관계, 특히 대인도 관계 관련 주요 동향임.

1. Y.B. Chavan 인도 외상의 네팔 방문(1976.1.19.~22.)

- 인도의 시킴왕국 합병에 대한 양국 갈등 봉합 추진
- 네팔이 제시한 평화지대에 대한 인도의 부정적 반응
- 인도와 보조를 맞춘 네팔의 외교정책 수행 요구
- 네팔 대외무역의 주상대를 인도로 할 것을 요구하고 수락 시 인도의 네팔에 대한 경제원조 증액 제의

2. 기리 네팔 수상의 인도 공식 방문(1976.4.7.)

- 평화지대 선언에 대한 인도 측 지지 미확보
- 인도의 시킴왕국 병합에 대해 네팔은 '선의의 행동'으로 이해 표명
- 네팔은 인도·중국 간 등거리 외교 견지 표명
- 네팔은 인도와의 관계에서 정치, 경제 분리 요구

3. 네팔 국왕 중국 쓰촨성(四川省) 및 티베트 방문(1976.6.2.~9.)

- 중국 수상 개편 후, 동 지도층과 직접 대면하여 상호 이해 증진 및 양국간 문제 협의 의의

4. 인도 정부에 의한 네팔 국민의 인도 일부 지역 입국 제한 조치

- 1976.9.24.~10.10. 네팔 최대 명절이며 공휴일인 다사인 축제 기간 중, 주네팔 인도대사관이 네팔 외무성에 대하여 인도의 특정 지역에 네팔 국민이 입국하기 위하여 인도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 10.14. 네팔 외무성은 동 조치는 인도 측의 일방적인 것으로서 양국간 현존 친선관계를 저해 하며 네팔 국민들의 사회적·상업적·문화적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므로 조속한 회담을 통해 합의점에 이르기까지는 종전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
- 기리 네팔 수상은 10.17. 카트만두 지역 각급 의원 간담회 개최식 축하 등 3회에 걸친 공식 연설을 통하여 동 조치를 비난함.
- 인도는 안보상 이유로 행한 조치라고 대응함.

5. 네팔 국왕 소련 공식 방문(1976.11.16.~22.)

- 평화지대 선언에 대한 소련의 지지 확보 실패
- 구체적 경제협력문제는 불투명, 인도를 통하지 않는 직접적 원조 획득 실패

니제르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O-6-47 / 20 / 1-19

1976년 중 니제르의 쿠데타 등 국내정세와 대외관계 동향임.

1. 반정부 군사쿠데타 음모 사건(1976.3.15.)

- 쿠데타를 주동한 Bayere Moussa 소령(전 농촌경제장관)은 최근 개각 시 장관직에서 탈락하자 반발하여 쿠데타를 감행하였으나 Seyni Kountche 의장의 정부군에 의해 진압됨.

2. 쿠바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1976.4.26.)

3. 케레쿠 베냉 대통령은 1976.6.12.~13. 니제르를 방문하고 Kountche 의장과 아래 요지의 공동 성명을 발표함.

- 양국간 연대성 및 협력관계 강화
-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식민주의 및 인종차별주의 제거 필요
- 신경제질서상의 선진공업국가의 이기주의에 대한 개탄
- 레바논 사태에 대한 우려 및 동국에서의 평화회복을 위한 아랍 국가의 노력지지
- 1976.8월 콜롬보에서 개최되는 비동맹 정상회담 시 공동보조 결정

4. 식량부족 문제

- 코트디부아르 언론 프라페르니떼 마탱지의 1976.6.16.자 기사에서 Kountche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 보도함.
 - 니제르는 극심한 식량부족으로 100만 명 기아에 직면
 - 국제사회에 대한 니제르 정부의 식량 원조 호소 결과로 약 10만 톤의 원조를 약속 받았으나, 동 원조가 적기에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며 식량 문제 해결이 동 의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논평

5. 각료 외교 활동

- Kountche 의장은 EC(구주공동체) 의장 초청으로 벨기에를 방문함(6.24.~25.).
- 알마자 상공장관은 중국(구 중공) 및 파키스탄을 방문함(7월).
- Kountche 의장은 스리랑카에서 개최되는 비동맹 정상회의에 참석함(8월).

파키스탄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1

MF번호 O-6-47 / 21 / 1-55

1976년 중 파키스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Zulfikar Ali Bhutto 파키스탄 수상의 서독, 스웨덴, 캐나다 순방(1976.2.18.~27.)

- 악화상태의 파키스탄 대외무역 역조에 대응한 차관 획득 교섭이 목적

2. Bhutto 수상 일부 개각 단행(1976.2.5.)

- 집권당(인민당) 내 세력안배와 차기 총선 대비

3. Bhutto 수상 중국(구 중공) 방문(1976.5.26.~30.)

- 인도 견제 의미
-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경제기술의정서 체결
- 공동성명서 발표
 - 양국간 우호관계 재확인
 - 반패권 공동투쟁확인
 - 새로운 국제정세의 수립
 - 자무 및 카시미르 문제의 자결권에 입각한 평화적 해결

4. 파키스탄·인도네시아 경제문화협력위원회 각료회의 개최(1976.7.8.~10.)

- 무역증대, 기술협력(상호 훈련시설 제공, 전문가 파견)
- 문화교류 추진

5. 각국 정상외 파키스탄 방문

- Khalid 사우디아라비아 국왕(1976.10.10.~15.)
- Karamanlis 그리스 수상(1976.12.14.~17.)

필리핀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O-6-47 / 22 / 1-66

1976년 중 필리핀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976.5.31.~6.7. 소련을 방문하여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 주권 및 영토보존 상호존중
- 내정 불간섭
- 평등 및 상호 이익에 입각한 관계 증진
- 기술 및 문화교류 증진
-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 반대투쟁을 위한 단결

2. 마르코스 대통령은 1976.9.10. 입법자문기관 창설 계획을 발표함.

3. 필리핀 정부는 1976.10.16.~17. 국민투표를 실시함.

- 계엄령 존속, 헌법개정안(입법자문회의 설치 등 9개항) 대상
- 압도적 지지로 통과
- 반정부 세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안정 확보를 위해 국민투표 실시

4. 국민투표 후 마르코스 대통령의 정책전망

- 새로운 사회 운동 추진, 경제개발 추진
- 무슬림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회유, 토벌정책 병행
- 실용주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국가이익 추구
- 미국과의 군사기지 협정 및 방위협정 갱신 추진

각국의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승인 및 사무소의 법적 지위 문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6-47 / 23 / 1-35

1976년 중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에 대한 각국의 승인 및 법적 지위 부여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1976.1월 PLO에 대한 미국의 입장

- 중동지역과 관련된 모든 국가에 대해 팔레스타인 인민의 정당한 이익이 충족되지 않는 한 항구적인 중동평화가 달성될 수 없다는 입장을 넘어서는 입장 표명 참가 희망
- 1975.11.10.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PLO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를 존중하지 않는 한 PLO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결정할 수 없다고 표명
- 미국은 제29차 유엔총회가 PLO를 팔레스타인 유일의 합법기구로 인정하고 유엔총회 등 국제 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하도록 한 결의안에 반대함.
- 미국 정부는 1975.8월 한국이 PLO를 팔레스타인 인민의 유일한 대표로 인정하는 내용의 태도 표명을 참가 하도록 암시한 바 있음.

2. PLO는 1976.3.16. 쿠알라룸푸르 사무소 설치와 동 사무소의 대표자를 공식 통보하는 회람 공한을 외교단에 배포한바,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주재국 외무부로부터 동 사무소의 법적지위를 아래와 같이 파악함.

- 말레이시아는 PLO 대표에게 비외교적 지위(Non-Diplomatic Status)를 주고 있으며, 따라서 외교단 명단에도 등재하지 않음.
- 재판관할권 면제를 포함한 일부의 외교적 면제(Diplomatic Immunity)를 부여하고 있으나, 외교특권은 부여하지 않음.

3.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PLO 사무소장은 1976.4.11. 기자회견에서 PLO가 전 세계 85개국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면서, 동 사무소의 설치 허가가 PLO의 완전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팔레스타인인들이 벌이고 있는 투쟁의 합법성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언급함.

4. 이집트 대통령의 1976.4월 중 오스트리아 비공식 방문 시, 오스트리아와 이집트는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제네바 회담이 재개되어야 하며 동 회담에 PLO가 알맞은 자격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5. 1976.5.30.자 알 고모리아지 보도에서 이집트 외무부 발행 외교관 명단에 PLO 카이로 사무소 대표가 이집트 주재 공관장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도됨.

세이셸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O-6-47 / 24 / 1-36

1976년 중 세이셸의 독립과 관련하여 주영국대사관 등 관련 공관의 보고 내용임.

1. 세이셸 독립을 위한 헌법회의 개최(1976.1.19.~22., 런던)

- 동 회의에서 1.22. 영국은 세이셸의 독립에 관해 공식 합의
- 기타 합의사항
 - 영국 식민지로부터 영국 해외영토로 편입된 3개 도서의 세이셸 이양
 - 1,000만 파운드의 세이셸 개발사업자금 제공 및 4년에 걸친 170만 파운드 예산지원
- James R. Mancham 수상(독립 후 대통령 취임 예정) 발언 내용
 - 세이셸의 군사기지 불용 및 군대 보유 불원
 -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 계획

2. 세이셸 독립 선포(1976.6.28.)

- 세이셸 공화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 선포
 - France Albert René 수상 취임
- 한국 정부는 세이셸의 독립 승인 및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을 결정하고 독립경축식에 연하구 주 케냐대사를 대통령 특사로 파견
- OAU(아프리카단결기구) 각료회의는 6.29. 세이셸을 48번째 회원국으로 승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세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남부아프리카

MF번호 O-6-47 / 25 / 1-62

1975~76년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 지도자 석방 검토

- James Kruger 남아공 법무장관은 1964년 이래 종신 징역 복역 중인 넬슨 만델라 등 흑인 지도자의 석방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고, 이 사실을 1976.4.4. 외신이 보도

2. Soweto 인종폭동 사태

- 1976.6.16. 흑인 청년들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와 백인우월주의 종식을 요구하며 일으킨 역사적인 폭동 사건
 - 1만 여명의 시위 참여, 경찰 발포로 139명 사망 및 1,200여명의 부상 초래
 - 남아공의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고립 초래
 - 남아공 정부의 개혁 의지 및 변화 수용에 대한 의구심 야기

3. 남아공과 대만(구 자유중국) 간 외교관계 격상

- 1976.4.26. 양국관계를 대사급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
- 1971년 유엔으로부터 추방된 이래 대만의 첫 외교적 성과로 평가

4. 남아공 문제 국제회의 개최

-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과 Vorster 남아공 수상 간 회담(1976.9.4.~6., 스위스 취리히)에서 남아공 문제 협의
- 키신저 장관은 1976.9.14.~22. 탄자니아 등 남아프리카지역을 방문하여, 남아공, 짐바브웨(구 로데시아) 등 문제 협의
- 남아공 인접 아프리카 5개국 정상회의 개최(1976.9.6., 탄자니아 Dar es Salaam)
 - 참가국: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보츠와나, 앙골라
 - 논의 내용: 아프리카 해방운동의 전략 및 미국의 중재 문제

사우디아라비아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6-47 / 27 / 1-129

1976년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각국 정상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1976.2.21.~26.)
 - 칼리드 국왕과 이집트의 경제 및 재정상의 애로 및 아랍권 단결과 내부 분쟁 등 협의
- 온 말레이시아 수상(1976.5.17.~21.)
 - 8,000만 달러의 대말레이시아 차관 및 말레이시아 석유개발 문제 협의
- 슈미트 서독 총리(1976.5.29.~31.)
 - 독일의 사우디아라비아 5개년 개발계획 참여 및 중동 문제 협의
- 기타: 요르단 국왕(1976.1.23.), 니제르 대통령(1976.3.7.~10.) 등

2. 칼리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외국 방문

-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아랍에미리트연합국), 오만 순방(1976.3.21.~30.)
 - 연안국과의 기존 유대강화 및 걸프지역의 집단안보체제 구축
- 파키스탄 방문(1976.10.10.~15.)
 - 양국간 경제협력, 이슬람권 결속, 중동평화 등 협의, 제1차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3. 사우디아라비아와 남예멘 관계정상화 합의(1976.3.10.)

-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예멘 경제원조 약속 및 이집트의 남예멘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관계정상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
-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권의 단결이라는 명분과 아라비아 반도의 안정이라는 실리를 기대

4. 레바논 사태 중재 노력

-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공동중재로 1976.6월 리야드에서 4개국 총리회담 개최, 레바논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였으나 시리아의 군사개입으로 실패
-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상의 시리아 다마스커스(Damascus), 이집트 카이로 방문을 통한 중재 외교 전개
 - 10월 아랍권 국가의 카이로 아랍정상회의 개최 합의

5.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및 수단 3개국 협력

- 1976.7.3. 수단의 군사 쿠데타 기도와 관련하여 이집트와 공동 대처에 합의
- 칼리드 국왕은 7.19. 제다에서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및 니메이리 수단 대통령과 회동하고 정치·경제면에서의 협력 약속

싱가포르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O-6-47 / 28 / 1-65

1976년 중 싱가포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소련의 싱가포르 진출 현황

- 베트남 사태 이후 소련의 싱가포르 진출 증가
- 소련의 상선 전시회 개최 및 싱가포르 기항 소련 해운선박 증가

2. 록펠러 미국 부통령 싱가포르 방문(1976.3.28.~29.)

- 아세안에 대한 공산세력 침투 대처 및 미국의 역할 등 협의

3. 싱가포르 정부는 1976.5.6. 캄보디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함.

- 8월 개최 비동맹 정상회의에 대비하고, 인도차이나 3개국의 불룩화 방지를 위해 개별관계 추진 모색

4. 싱가포르 집권당은 1976.5.30. SI(국제사회주의단체, Socialist International) 탈퇴를 선언함.

- SI는 1976년 들어 싱가포르 내 정치범 석방 요구 등 국내 정치 비판으로 관계 악화

5. 리관유 수상 호주 방문(1976.10.17.~29.)

- ANZUK(영연방 5개국(영국·호주·뉴질랜드·말레이시아·싱가포르) 방위체제)군 싱가포르 주둔 문제, 무역불균형 시정 문제, 인도차이나 사태 이후 소련해군의 인도양 진출 문제 등 협의
- 아세안·호주 관계 개선 진전, 무역불균형 시정 합의, 1980년대까지 ANZUK군의 지속 주둔 협력 약속

6. 싱가포르 정부는 1976.12.23. 총선을 실시함.

- 집권당인 PAP(인민행동당)은 53명의 입후보자 당선 및 16명의 무투표 당선 등 69명의 당선으로 국회 전체 의석을 독점하고, 리관유 수상 등 12명의 현직 장관 재당선

시에라리온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O-6-47 / 26 / 1-70

1976년 중 시에라리온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주요 인사 외국 방문

- 코보마 부통령이 영국을 방문함(1976.4.25.~29.).
- Stevens 대통령이 영연방 정상회의에 참석함(1976.4.29.~5.6., 자메이카 킹스턴).
- 미나 외무장관은 이집트를 방문, 아랍정상회의에 참석함(1976.5.3.~9.).
- Stevens 대통령이 미국 및 세계은행을 방문함(1976.5.24.~28.).
- Stevens 대통령이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정상회의에 참석함(1976.11.3.~6., 토고 로메).

2. 시에라리온 정부는 1976.10.1. 프리타운에서 카메룬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함.

3. 제9차 아프리카 역내 총회 개최(1976.11.2.~12., 프리타운)

- Stevens 대통령 연설 요지
 - 산림, 어업, 목축 및 식량생산 강조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지역사무소 활동 강화 및 FAO 직원 각국 상주 파견
 - 국제비료기구 활동 지지 등
- 프리타운선언
 - 식량의 소요와 생산간 차이 증대
 - 신 경제질서 및 남북대화 촉진 노력 미흡
 - 비효율적 원조의 아프리카 농업개발 지장 초래 등 지적

4. 1976년도 주재국 정세 및 전망 보고서 수록

스리랑카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O-6-47 / 29 / 1-19

1976년 중 스리랑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스리랑카의 양골라 정부 승인(1976.2.16.)

2. Jayakody 외무차관 중국(구 중공) 방문(1976.5.25~29.)

- 중국은 비동맹 정상회의장(중국 기증)의 수리 및 현대화 사업 등에 다액의 원조 약속
- 제25차 소련공산당대회 연설에서 Pieter Keuneman 스리랑카 공산당수 겸 주택·건설장관의 중국 비난으로 중국의 항의 접수
 - 반다라나이케 수상은 중국의 원조 철회를 우려하여 주택·건설장관에게 경고하고 외무차관을 중국에 급파, 수상의 입장 설명

3. 주스리랑카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대표부 개설(1976.7.19.)

4. 연립집권당 내 갈등

-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 자유당과 공산당의 연립정권 체제 유지
- 1976.9.30. 제30차 유엔총회에서 반다라나이케 수상이 비동맹 정상회의 의장 자격으로 행한 연설 중 '군비축소' 발언에 대해 10.9. 공산당 기관지가 비판 사설 게재
- 공산당의 비판에 대해 자유당은 기관지 The Nation 11.1.자 사설에서 반박함으로써 집권당 내 알력 발생
- 공산당 측이 11.9. 기관지 사설에서 사과함으로써 집권당 내 갈등은 표면상 일단락

세네갈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O-6-48 / 1 / 1-92

1976년 중 세네갈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헌법 및 정당법 개정

- 세네갈 국회는 1976.3.17. 복수정당제로서 최대 3개 정당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 제3조 및 관계정당법 개정안 가결
- 동 국회는 4.1. 대통령 권한 위임조항 개정 및 중임 금지 철폐 가결
- 대통령 중임 금지조항의 폐지로 헌법상 쟁고르 대통령의 장기집권 연장 가능

888

2. 국제회의 개최

- 국제불어이사회 주최, 아프리카어와 불어에 관한 토론회(1976.3.24.~26.)
- 프랑화권 각료회의(1976.3.29.~30.)
- 제2차 CEAO(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정상회담(1976.4.8.~9.)
- 제2차 OMVS(세네갈강 유역개발회의) 자금 염출회의(1976.6.14.~15.)
 - 미국, 소련, 유럽 8국, 캐나다, 아랍권 등 총 13개국 및 17개 국제기구 참가
 - 7,500만 달러 기금 획득, OMVS 자문위원회 설치 합의

3. 각국 정상 세네갈 방문 및 세네갈 대통령 외국 방문

- 모리타니아 대통령의 세네갈 방문(1976.1.5.)
- 쟁고르 세네갈 대통령의 감비아 방문(1976.1.16.~19.)
 - 감비아강 유역개발기구 창설 합의
 - 4개 경계선 등 경계확정
- 유고슬라비아 수상이 세네갈을 방문하여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협의(1976.5.3.~5)

수단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6-48 / 2 / 1-157

1976년 중 수단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니메이리 수단 대통령은 1976.2.10. 정정불안의 해소 및 안정정책 추진을 위해 대폭 개각을 단행함.

- 내무, 외무 등 중요 각료직과 대다수 국무상의 교체를 통해 대통령 친정 체제 강화 기도

2. 1976.7.2. 니메이리 대통령의 미국, 프랑스 방문 후 귀국 직전 쿠데타가 발생하였으나, 진압됨.

- 발생 원인
 - 대내적 요인: 마호디 부족의 현 정권에 대한 반감, 전직 각료들의 책동, 대통령의 장기 외유, 수단정부군의 장기 해외파견
 - 대외적 요인: 카다피와 사다트 간 반목, 카다피에 대한 니메이리의 배신, 에리트리아 독립 운동에 대한 수단의 소극적 태도
-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가운데 수단과 리비아 간 외교관계 단절

3. 수단·이집트 양국은 리비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1976.7.15.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

- 공동성명에 의하면 일방에 대한 침략은 타방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
- 조약 주요 내용
 - 공동방위위원회 설치
 - 양국 참모총장 지휘 하의 공동 군사참모기구의 설치

4. 외국 정상 수단 방문 및 주요 성과

-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수단 방문(1976.10.30.~11.1.)
 - 경제통합, 흑해의 안전 등에 협의
- 우간다 대통령의 수단 방문(1976.11.19.~20.)
 - 교통·통신 등 경제 분야 협력에 협의

스와질란드 정세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O-6-48 / 3 / 1-15

1973~76년 중 스와질란드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스와질란드 왕정 체제 복귀

- 스와질란드는 종래의 영국식 헌법을 폐지하고 전통적 왕정으로 복귀하였다고 로이터통신이 1973.4.13. 보도
- Sobhuza 2세 국왕은 4.12. 행정, 입법, 사법 전권 인수 후 행사

890

2. 신임 수상 임명

- 1976.3.16. Prince Maphevu가 수상으로 임명되었음을 주케냐 스와질란드대사관이 공한으로 통보함.
- 신임 수상은 Colone-in-chief of the Swaziland Royal Defense Force를 역임한 바 있음.

3. Prince Maphevu 수상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1976.8.20.~26.)

- 기자회견에서 동 수상은 양국간의 우의증진을 강조하고 대만 지지를 약속, 대만의 제반 기술협력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간의 기술협력 지원 강화를 희망
- 대만은 1969년 및 1973년 체결된 농업기술협력협정 및 수공업기술협력협정에 의해 32명의 농업기술요원, 7명의 수공업기술 훈련을 지도

튀니지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6-48 / 4 / 1-23

1976년 중 튀니지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Mohamed Khefacha 국방장관 사망 및 소폭 개각

- 동 국방장관이 신병 치료 중 1976.5.25. 파리에서 사망
- 국방장관 공석에 따라 5.31. 개각 발표
 - 국방장관, 보건장관, 교육장관 등 신규 임용

2. Milos Minic 유고슬라비아 외무장관 튀니지 방문(1976.6.3.~5.)

- 비동맹조정위원회 참석,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 발표(6.1~3., 알제리 알제)
 - 팔레스타인 문제 관련 아랍 측 입장 지지 및 이스라엘 비난
 - 레바논 국가화해 촉구, 아프리카 인종차별 비난, 프랑스의 남아공 원자로 공급중지 촉구
 - 사하라 인민의 유엔감시 하에서의 자결권 행사 촉구 등

3. Bourguiba 대통령의 국회 개회식 연설(1976.10.20.)

-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수상이 Bourguiba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독
 - 1981년 종료되는 제5차 5개년 계획수행으로 경제도약을 위한 총력 경주 촉구
 - 국제사회의 3대원칙으로 상호존중, 협력, 정의 구현 등 열거하고, 동 원칙에 따른 아랍 문제 해결 실현 강조
 - 1947년 유엔결의에 따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공존체제를 통한 문제해결 촉구 등

4. Bourguiba 종신 대통령 건강 문제

- 고령으로 1976.10.11. 이후 제네바에서 신병 치료
- 누이라 현 수상의 대통령직 승계 확실히
 - 기타 내무, 법무, 문교 및 당사무국장간 세력 각축전 양상

트리니다드토바고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O-6-48 / 5 / 1-34

1976년 중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헌법 개정과 공화국 선포

- 1976.3.26. 개헌으로 공화제로 변경 및 영연방 잔류 결정
- 국명을 Republic of Trinidad and Tobago로 개칭
- 6.17. 국회 해산
- 대통령 책임제 실시, 헌법규정에 따라 Clarke 총독이 8.1. 임시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이후 총선을 실시하여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신임 대통령 선출

2. 화폐의 달러화 연계 발표

- Eric Williams 수상(재무상 겸임)은 1976.5.24.부터 트리니다드토바고 화폐를 미국 달러화에 연계한다고 발표
- 영국 파운드화와의 연계를 중단하며 미화 1달러=2.40 트리니다드토바고화 적용

3. CARICOM(카리브공동시장) 4개국 정상회의(1976.6.9., Port of Spain)

- CARICOM 4개국(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가이아나, 바베이도스) 정상 참석
- 지역 내 재정협력방안, 무역과 산업육성 협력, 해상과 항공교통협력

4. 총선 실시

- 신헌법에 따라 1976.9.13. 총선 실시
- Williams 수상의 PNM(People's National Movement)가 총 36석 중 24석을 차지하고 ULF(United Labor Front)가 10석을 차지
- 집권당 승리 요인
 - Williams 수상의 장기 집권(15년) 중 석유 생산으로 생활수준 향상
 - 국내정치 및 경제의 안정
 -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고위직 관리의 재산의무등록제 시행

탄자니아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O-6-48 / 6 / 1-14

1976년 중 탄자니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Nyerere 탄자니아 대통령 인도 방문(1976.1.18.)

- 동 대통령의 인도 방문 종료 시 기자회견 요지
 - 쿠바와 소련의 앙골라 개입을 지지하는 급진좌경국의 입장 지지 표명
 - 아프리카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해방을 위한 투쟁을 강조
- 명분상으로는 반제국, 반식민 투쟁을 주창하는 비동맹회원국 유대강화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도와의 경제 및 기술협력 증진 도모

2. 모잠비크와 탄자니아 양국은 1976.4.9. 협력위원회 협정에 서명함.

- 양국간 무역·통신·문화·외교·교육 분야 등의 협력 증진 계기 조성

3. Nyerere 탄자니아 대통령 덴마크 방문(1976.5.6.~9.)

- 덴마크 여왕 예방, 수상·외무장관 등과 회담, 덴마크의 대탄자니아 원조 문제 중점 논의
 - 탄자니아는 최대 원조국 덴마크로부터 지난 5년간 총 2억 9,500만 크로나 상당의 원조 수령
- 동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요지
 - 서부아프리카의 백인 지배 종료 및 독립 달성과 평화적 방법에 의한 다수당 정부 실현 염원
 - 공산주의 수용 불용, 아프리카의 예측 불원
 - 덴마크와 탄자니아 간 기술 및 경제협력방안 환영

4. 케냐와 탄자니아 정상회담(1976.8.13.)

- Nyerere 탄자니아 대통령과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케냐의 몸바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EAC (동부아프리카공동체) 문제 논의
- 회원국 간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철도·항공·항만 및 관세 문제의 정상화 도모와 우간다의 도발 가능성에 공동대처하는 방안 마련

우간다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O-6-48 / 7 / 1-93

1976년 중 우간다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아민 우간다 대통령 외국 방문

- 중앙아프리카 방문(1975.12.29.~76.1.1.)
 - 보카사 중앙아프리카 대통령 집권 10주년 기념식 참석 및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합의
- 수단 방문(1976.1.19.~20.)
 - 통신망 연결 등 통상 및 교역 추진 협의
- 유고슬라비아 방문(1976.4.20.~22)
 - 티토 유고슬라비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협력, 비동맹 회의, 아프리카 해방지원 등 협의
- 시리아 방문(1976.6.5.)
 -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상호 공관 폐쇄로 악화된 이집트와 시리아 관계 등 중동 정세 협의

2.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대원의 Air France 항공기 납치사건

- 텔아비브-파리 간 Air France 항공기가 아테네 이륙 후 PLO 대원에 납치되어 1976.6.28.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착륙
- 260명의 승객 및 승무원은 우간다 정부와 납치범 간의 교섭에 의해 기체에서 내려와 6.29. 엔테베 구 공항에 인질로 구금
- 납치범은 해방투쟁 중 체포된 전 팔레스타인인의 석방 요구
- 우간다 대통령의 교섭 결과 7.1. 100명의 승객 석방
- 이스라엘 특공대는 7.3. 밤 1시간의 특공작전으로 납치범 7명을 사살, 104명의 이스라엘인 등 승객 및 승무원 석방
- 우간다 외무장관은 특공대 작전으로 100여명의 우간다 군인의 사망, 미그기 등 11대의 우간다 공군기와 민간항공기 파괴, 이스라엘군 1명 사망 발표
- 우간다 대통령은 7.4. 이 사건을 유엔안보리, 아랍연맹, OAU(아프리카단결기구) 및 비동맹 정상회의에 제소할 계획 언급

3. 영국과 우간다 간 외교관계 단절

- 영국 정부는 1976.6.28. 우간다와 외교관계 단절 발표
- 아민 우간다 대통령은 영국의 단교조치에 대해 영연방기구 사무총장에게 메시지를 발송하여 우간다는 영연방기구 회원국으로서 영국에 대한 반감이 없다고 강조

영국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1 / 동북아2

MF번호 O-6-48 / 8 / 1-55

1976년 중 영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대처 보수당 당수는 1976.1.15. 예비 내각(shadow cabinet)을 개편함.

- 내무, 국방, 에너지, 농업, 사회복지 등 각료가 신임 또는 자리 이동
- 동 개편으로 대처 당수는 초당적 위치에서 자신의 당 통솔력의 안정성을 과시

2. 그로미코 소련 외무장관 영국 방문(1976.3.22.~25.)

- 주요 논의사항
 - 정치관계, 통상 문제 등 경제협력, 과학기술협력 및 문화교류 등 양국간의 전반적 관계
 - 데탕트를 비롯하여 구주안보, 남아공사태, 중동사태 등 주요 국제 문제
- 공동성명서 발표
 - 양국 관계: 통상증진 합의, 환경 등 분야 각료의 상호방문 합의, 해군함정 상호방문 합의
 - 국제 문제: 유럽 및 세계 긴장완화 노력, 아프리카에서의 러시아의 정책노선 비판
- 1971년 보수당 정권의 소련 외교관 추방 이래 악화된 양국 관계의 개선 효과

3. 노동당 정부 개편(1976.4.14.)

- Callaghan 총리는 국무장관급 25명의 개편을 발표하고, 당내 좌우파 간 균형 도모

4. Crosland 영국 외무장관 중국(구 중공) 방문(1976.5.3.~9.)

- 화국붕 중국 수상, 교관화 외교부장, 이강 대외무역부장관 등과 회담
 - 통상증진 문제, 데탕트와 세력균형 문제, 홍콩의 지위, 한반도 문제, 중국의 대외정책 등 협의
- 성과
 - 노동당 정부와 중국 간의 첫 공식회담으로서의 의의
 - 해운, 항공협정의 교섭 개시 및 일부 통상 문제 합의

제25차 소련 공산당대회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3

MF번호 O-6-48 / 9 / 1-155

제25차 소련 공산당대회가 1976.2.24.~3.5. 모스크바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4,998명의 대의원 참석
 - 유럽 등 서방권, 제3세계 등 100여 개국의 공산당 및 노동당 대표가 참석하였으나, 유고슬라비아, 프랑스, 스페인 등 공산당 대표는 불참
- 5년마다 개최되는 당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대내외 정책 노선 결정
- 브레즈네프 정권 12년간의 실적에 대한 총결산의 기회로 인식

896

2. 회의 결과

- 주요 내용
 - 대외관계 천명: 브레즈네프의 소련 대내외 정책에 관한 보고
 - 경제정책 천명: 브레즈네프와 코시긴 수상의 제9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성과 및 제10차 계획 천명
 - 당간부 개편: 당중앙위원회 정위원 240명 및 후보위원 170명 선출, 브레즈네프 당 총서기 재선, 정치국원 16명 및 후보위원 6명 개편
 - 박성철 북한 부총리 연설 등
- 평가
 - 현 지도체제의 유지와 브레즈네프 권위 고양
 - 힘에 의한 평화추구와 같은 브레즈네프 노선으로 대외강경정책의 지속

3. 동 대회 개최와 관련 각국 재외공관은 외국 정부 및 언론 반응, 사설 등을 보고함.

- 외국 정부 및 언론 반응
 - 일본: 브레즈네프 연설에서 경제정책 중점과 외교상의 긴장완화 지속 평가
 - 프랑스: 소련 공산주의 이탈 공산당 증가, 브레즈네프 체제의 강화, 소련 지도부 내의 신진 대사 지연
 - 이탈리아: 브레즈네프 체제 강화, 아시아 집단 안보
 - 오스트리아: 브레즈네프 지위 공고화 등 대외정책의 안정성 기대
 - 미국: 소련 사회구조의 유지 속에서 서방과의 긴장완화 추구 및 경제발전 도모

4. 동 대회 개최 보고서 수록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O-6-48 / 10 / 1-67

1976년 중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개각 발표

-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1976.2.9. 국방, 내무, 외무, 법무 등 개각을 단행
- 국방부·내무부·재무부 등 주요 부처의 군인 담당, 군인:민간 1/3:2/3, 사회주의 성격의 MLN (Mouvement de Libération Nationale) 계통 인사 5명 입각, 다수정당인 보수당 UDV / RDA의 무시, 직업관료 출신의 30대 진출 등

2. 부르키나파소 내무장관과 말리 국방내무장관을 대표로 양국 국경분쟁 회담 개최(1976.3.9.)

- 공동성명 요지
 - 분쟁대상 이외의 지역에서 국경경계표지 설치를 위한 양국 수뇌회담의 개최
 - 상설위원회를 통한 분쟁의 해결방안 모색 등

3. 부르키나파소, 토고 및 니제르 3국 대통령 회담(1976.10.15., 부르키나파소 Tenkodoco)

- 3국 대통령, 지역협력 문제 논의
- 공동성명 요지
 - 3국간 긴밀한 협력관계에 만족 표명
 - 3국의 농업생산 증가 등에 만족 표명 및 3국간의 협력체제 및 정보교환 등 노력 강화
 -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 배경, 나미비아의 즉각적인 독립 지지

4. 군사정부의 민정이양을 목표로 헌법안 작성 및 정치·경제 등 사업의 건의를 위해 1976.4.22. 설치된 특별위원회는 10.15. 보고서 작성 및 작업 완료

- 문제해결에 있어 신사회체제의 수립보다는 현 상황의 개선 지향 및 신뢰분위기 조성
-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분야 등 건의

베트남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O-6-48 / 11 / 1-192

1976년 중 베트남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남북 베트남 통일작업 추진

- 남북 베트남은 1975.11월 정치협의회에서 통일원칙에 합의한 후 12월 하순부터 월남과 월맹 내 성의 행정구역 재조정 개시
- 1976.1.21. 군사위원회는 민간기구인 14인의 인민혁명위원회에 행정권 이양 완료
- 1976.4.25. 총선거 실시
 - 총의석: 492석(남: 243, 북: 249), 4,800만 인구 중 18세 이상, 99% 투표 참가
- 1976.6.24. 하노이에서 베트남 통일인민위원회(국회) 소집

2. 구엔 반 트린 베트남 외무장관은 1976.7.5. 동남아국가와의 관계개선 4개 원칙을 발표함.

- 정치적 독립, 영토주권, 불가침 준수 및 내정불간섭 등 평화공존체제 조성
- 외국에 대한 군사기지 제공 불용
- 평등권과 상호이익을 기초로 하는 선린우호관계 수립
- 독립, 평화 및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협력관계의 발전

3. 판 히엔 베트남 외무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통일베트남대표단이 1976.7월중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를 방문함.

- 순방 목적
 - 베트남의 대외정책, 대동남아 정책 설명
 - 동남아국가 현지 정세 파악 및 관계개선 탐색
 - 경제기술협력 방안 모색
- 성과
 - 7.12. 필리핀과 수교 합의
 - 말레이시아 수상과 베트남 수상의 상호 초청 합의

동구권 국가 정세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구주3

MF번호 O-6-48 / 12 / 1-153

1974~76년 중 동구권 국가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동독

- 제9차 공산당대회 개최(1976.5.18.~22.)
 - 신당강령 채택 및 당제1서기의 당서기장 개칭 등 결정
 - 호네커는 당지도체제의 강화를 배경으로 당서기장에 재선
- 동독 인민의회(1976.10.29.)
 - 호네커 당서기장을 국가평의회위원장(국가원수)에 선출
- 반체제 시인 볼프 비어만의 동독 재입국 거부를 계기로 1953년 이래 처음으로 1976.11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2. 소련

- 소련 최고회의간부회는 1976.5.8. 브레즈네프에게 소련 원수 칭호 수여
- 당중앙위원회 총회(10.25.~26.)를 개최하고 당제1서기, 당중앙위원회 서기 선출 등 인사개편

3. 유고슬라비아

- 티토 대통령의 중남미 3개국(멕시코, 파나마, 베네수엘라) 순방(1976.3.10.~19.)
 - 중남미국가의 비동맹 가입을 통한 정치결속 및 경제교류 확대 추진
-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대통령 유고슬라비아 방문(12.6.~7.)
 - 티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 발표
 - 공동성명 요지: 유고슬라비아의 독자노선 지지, 모든 국가의 독자적 정치 경제조직 형성권 지지

4.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 초노우텍 체코 외무장관 영국 방문(1976.9.13.~15.)
 - 1976.3월 서명한 영국·체코 영사협정 비준서 교환

5. 폴란드

- 1975.10.9.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서독·폴란드 협정이 1976.3.13. 서독 의회 의결 및 대통령 서명으로 양국간의 경제·문화·과학기술 협력 제고 기대
- 폴란드 공산당 제1서기 독일 방문(1976.6.8.~12.)
 - 공동성명 및 경제협력협정 서명

6. 헝가리

- 1976.2.4. 카다르 제1서기의 연설에서 국제사회주의 및 평화공존정책 강조

중미지역 국가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O-6-48 / 13 / 1-238

1976년 중 중미지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가이아나

- Burnham 수상은 독립 6주년 성명에서 수천 명의 쿠바 및 중국(구 중공)군 주둔 보도를 부인함.
- 동 수상은 1976.2.22. 영국회사 Booker McConnell사의 국유화를 발표

2. 과테말라

- 과테말라 대통령 멕시코 방문(1976.6.23.~24.)
 - 경제수역 확정 등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및 바나나 등 생산물 교역 증진 지역기구 필요성 합의
- 1976.7.1.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지진복구를 위한 범국민 참여 호소, 정치사상 존중 및 정당 활동 허용, 범죄 예방 및 제거 노력, 농지개혁 등 발표

3. 도미니카공화국

- 1976.8월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의 도미니카 방문 계기, 베네수엘라 원유의 공급 등 양국간 경제협력 논의

4. 수리남

- 외교관계 수립
 - 1976.5.28.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공동성명 서명
 - 1976.7.9. 스페인 및 유고슬라비아와 외교관계 수립

5. 온두라스

- 1976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국민 총의를 바탕으로 한 정부구성, 대화를 통한 정치, 1979년까지 선거절차 준비 완료 발표

6. 코스타리카

- Allon 이스라엘 부총리 겸 외무장관 코스타리카 방문(1976.3.5.~9.)
 - 기술협력협정 체결 및 커피 교역협약
- 1976.5.1.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 공직 부패, 사회정의 구현 등 언급

7. 파나마

- 토리호스 정부수반은 200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1976.1.10.~15. 쿠바를 방문하여 파나마 운하지대 주권회복 지지 등 공동성명 발표

남미지역 국가 정세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O-6-48 / 14 / 1-228

1975~76년 중 남미지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베네수엘라

- 트뤼도 캐나다 수상 방문(1976.1.29.~2.2.)
 - 양국간 석유산업개발 협력 등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 유럽·미주지역 사회민주주의 지도자회의 개최(5.23.~25.)
 - 베네수엘라 집권당의 주최로 25개국 참가한 가운데 사회민주주의의 내용과 장래 문제 및 국제단결 논의
- 페레즈 대통령은 11.16. 유엔총회 참석 후 이탈리아, 영국, 소련, 스페인, 포르투갈 등 구주 5개국 및 도미니카를 순방함.

2. 볼리비아

- 반제르 대통령은 1976.2.8. 칠레와의 정상회담 시 국교재개 합의, 7.23. 우루과이 방문 시 우루과이 항구의 자유지대 사용 합의, 10.24.~25. 파나마 방문 시 파나마 운하 주권을 지지함.
- 아르헨티나 대통령 볼리비아 방문(1976.10.28.~30.)
 - 공업협력 등 7개 합의서 서명
- 제10회 라플라타 강 유역 5개국 외무장관회의(1976.11.24.~26., 볼리비아 코차밤바)
 - 인적자원교류 및 경제개발 교육정보 교환 등 8개항 결의 채택

3. 브라질

- 대통령 군정령 5호 발동으로 야당 하원의원 2명의 의원직 박탈 처분 조치
- 가이젤 대통령 외국 방문
 - 프랑스 방문(1976.4.26.~28.), 경제협력 논의
 - 영국 방문(1976.5.4.~8.), 브라질 강철공업 등 협력 논의
 - 일본 방문(1976.9.15.~20.), 알루미늄 공장 건설, 항만 건설, 농업기술협력 등 논의

4. 우루과이

- 볼다베리 대통령은 1977.3월초 임기 만료 후에도 2년간 유임할 것으로 관측됨.
- 군부 내 공산세력 적발 및 숙청 작업 진행



5. 콜롬비아

- 1975.6월 선포한 비상사태령이 해제됨.
 - 노동쟁의 강경대응으로 국내치안 회복, 1년 만에 해제

6. 칠레

- 칠레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 특별조사단의 입국을 거부(1975.6.30.)
 - 유엔에 인권실태조사 결의안을 제출(11.24.)

902

7.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 외무장관은 1976.7.26.~28. 파라과이를 방문하고 야시레타담 차관협정에 서명함.

8. 페루

- 페루 내무장관은 1976.10.7. 기자회견에서 좌익 게릴라 활동 혐의자 17명 체포를 발표함.

북구지역 국가 정세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O-6-48 / 15 / 1-208

1975~76년 중 북구지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덴마크

- 앤더슨 외무장관은 일본(1975.11.16.~21.), 태국(1976.11.21.~25.)을 방문함.
 - 일본의 대중국(구 중공)·소련·미국·한국과의 관계 등 논의
 - 태국의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관계, 중국·미국·제3세계국가와의 관계 등 논의
- 1976.2.18. 스웨덴 및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앙골라의 MPLA(앙골라해방인민운동) 승인
- Norgaard 대외통상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함(1976.3.16.~19.).
 - 동 사절단은 조선·선박·화공·건축·금융 분야 등 약 30여개 업체 40여명으로 구성
 - 중국의 선박 수요 증대를 중요시하여 조선 분야 진출 추진
- Jorgensen 덴마크 총리가 이집트를 방문함(1976.4.21.~26.).
 - 중동평화에 역할을 하는 덴마크와 이집트의 관계 증진 도모
 - 1억 2천만 크로나의 정부차관에 서명하는 등 원조 문제 협의

2. 스웨덴(1976년)

- 외국 정상외 스웨덴 방문
 - 부토 파키스탄 수상(2.20.~23.)
 - 티토 유고슬라비아 대통령(3월말)
 - 니에레레 탄자니아 대통령(4.30.~5.3.)
 - 에베베리 멕시코 대통령(5월 중순)
 - 래거 오스트리아 대통령(5월말)
- 스웨덴 정상외 외국 방문
 - 구스타프 국왕 미국 방문(4.2.~29.)
 - 팔메 수상 소련 방문(4.5.~9.)
- 총선 실시 및 신정부 출범
 - 9.19. 총선에서 비사회주의 3개 정당은 총의석 349석 중에서 180석 차지
 - 지난 44년간 집권한 사민당은 퇴진
 - 10.8. 신임 수상에 Falldin 선출, 신내각 출범



3. 아이슬란드

- Eldjarn 대통령은 1976.7.31. 제2기 임기를 마쳤으나, 단독 후보로 연임되어 8.1.부터 제3기 임기를 시작함.

4. 핀란드

- 핀란드 사회민주당 기관지 1975.2.8.자 사설에서 스웨덴의 나토 회원국에 대한 전투기 판매 시도 등 중립성 훼손 문제를 제기함.
 - 2월 하순 아이슬란드 개최 북구이사회에서 핀란드 사회민주당 의원이 동 보도 지지 발언
 - 양국 수상의 회담 후 핀란드 수상의 북구이사회에서 스웨덴의 중립 지지 발언으로 논쟁 종식

예멘(구 북예멘) 정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6-48 / 16 / 1-14

1976년 중 예멘(구 북예멘)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예멘 군참모총장은 1976.1.12. 쿠웨이트 언론을 통해 예멘·사우디아라비아 통합 가능성 언급

-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 관계자는 양국간의 형제적 유대는 지속 강화될 것이나 통합은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일축

2. 1976.2.17.~19.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2차 세계유대인총회에서 공산국가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보호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데 대해 이라크와 예멘 등 아랍국가가 벨기에 측에 항의를 제기하였다고 1976.2.3. 벨기에 언론이 보도

- 예멘 외무장관은 벨기에 정부의 조치는 시온주의와 민족차별주의를 동일시하는 유엔 결의에 위배되므로 모든 아랍 국가는 벨기에 정부에 항의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
- 벨기에 외무장관은 공중질서를 해치지 않는 모든 의사표명은 허락하여 왔으므로 동 총회 개최를 반대할 수 없다고 항변

3. 아랍 뉴스지는 1976.3.21. 아스다지 예멘 외무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함.

- 예멘 정부는 대사우디아라비아 관계에 최우선적으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1975년 약 2억 6천만 달러의 원조를 예멘에 제공하였음.
- 남북 예멘의 통일이 공동 목표이나 생활양식, 정치, 사회 등의 차이로 통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 양국관계는 덜 적대적으로 국경에서 군사적 대결이 최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도임.
- 예멘의 대외정책은 국가이익과 상호존중에 기초하고 있음에 비추어 양국관계는 특별한 것이 없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및 여타 아라비아 반도 국가와의 관계와 비교할 수 없음.

4. 미국 국방부가 총 1억 480만 달러 상당의 대예멘 무기 판매 승인을 의회에 요청하였다고 1976.5.8. 아랍 뉴스지가 보도

- 예멘은 3만 2천명의 군대 보유, 1974~75년 중 5,800만 달러 상당의 국방비 지출

짐바브웨(구 로데시아) 문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O-6-48 / 17 / 1-179

906

1. 1976년 짐바브웨(구 로데시아) 사태 경과

- 2.19. 캘러헌 영국 외무장관은 쿠바의 짐바브웨 침공 시 영국의 개입 경고
- 2.20. 미국 국무부는 짐바브웨의 제2양골라사태화 시인
- 3.1. 양골라 MPLA(양골라해방인민운동) 신정부가 짐바브웨 게릴라 지원 선언
- 3.3. 모잠비크의 짐바브웨에 대한 전쟁상태 선포 및 탄자니아 동참
- 3.8. 모잠비크 대통령이 짐바브웨 문제에 대한 지지 호소 친서를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대통령에게 전달
- 3.23. 영국 외무장관의 해결 제안 4개항에 대해 스미스 짐바브웨 수상 거부
- 4.18. 흑인 총공세 개시
- 4.22. 스미스 정부는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의 안 수락
- 4.28. 흑인 장·차관 7명 취임
- 9.19.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 주도로 남아공 수상 및 스미스 수상 간의 3자회담을 개최
- 9.24. 스미스 수상은 2년 내 흑인에 정권을 이양할 것을 합의

2. 짐바브웨 문제해결을 위한 제네바 회담 개최

- 1976.10.25. 짐바브웨 흑인다수지배 과도정부 수립을 위한 예비회담 이후 3차례 회담 개최 (10.28., 10.29., 11.15.)
- 1976.11.15.까지 정권이양 시한문제로 흑백 간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대립
- 11.15. 3차 회담에서 영국은 헌법 등 법적 절차 마련 시 1977.12.1.까지 정권이양 가능하다는 단서를 붙인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하였으나, 흑백대표간의 이견으로 교착상태

3.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 아프리카 순방

-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가나, 라이베리아, 세네갈 순방(1976.4.24.~5.6.)
 - 양골라 사태 이후 서남부 아프리카에서의 소련의 영향력 대처 및 남아프리카지역 반공국가들 간의 상호의존관계 형성 및 지지 등 도모
- 탄자니아, 잠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순방(1976.9.14.~23.)
 - 짐바브웨는 흑인 다수지배 실현을 위한 키신저 안 수락
 - 볼스터 남아공프리카공화국 수상은 제헌회의에 SWAPO(South West Africa People's Organization) 나미비아당 참석 가능성 및 나미비아 소수 백인의 이익 보호를 조건으로 1977년 말 나미비아 독립을 시사

잠비아 정세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O-6-48 / 18 / 1-16

1975~76년 중 잠비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Kaunda 잠비아 대통령은 1975.5월 수상 및 외무장관을 비롯한 부분 개각을 발표함.
 - 수상: Elijah Mudenda 통일독립당(집권당) 정치헌법외무위원회 위원장
 - 외무장관: Rupiah Banda 주유엔 잠비아대사
2. 잠비아는 주인도대사관 개설을 위해 대사대리를 1975.6월 뉴델리에 파견함.
 - 인도는 주잠비아대사관을 개설 운영
3. Kaunda 잠비아 대통령은 1976.12.18.~19.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을 방문하고 모부투 대통령과 회담을 가짐.
 -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양국간 공동위원회의 확대 강화에 합의
 - 공동위원회는 접경 문제 중심에서 탈피하여 정치, 외교, 경제 등 제반 분야 관장 예정

공관활동보고 - 아르헨티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O-6-48 / 19 / 1-43

1.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6년도 대사와 공관원의 정부인사 등 각 분야 인사접촉 및 활동내용을 월별로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6년도)

- 3.8. 한국 수입상사 협의회 개최, 수출 목표 달성 대책 협의
- 3.23. 양국 문화회의 개최 본부사항 전달
- 4.7. 신임 대통령에 대한 축전 전달
- 4.12. 외무장관 접견식 참석
- 4.21. 신임 대통령 및 3군사령관의 각국 대사 접견식 참석 등
- 6.15.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6.17. 영해 200 마일 규제 내용 조사 보고
- 6.18. 외무부 방교국 방문, 유엔 부의장국 출마 협의
- 6.26. 박동진 외무부장관의 6·23 성명문 배포
- 6.28. 해군사령관 방한 초청
- 7.8. 아르헨티나 국경일 계기 대통령 명의 축전 송부
- 7.13. 아르헨티나 축구팀 방한 및 한국학생 축구팀 방문 교섭

공관활동보고 - 캐나다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O-6-48 / 20 / 1-171

1. 주캐나다대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6년도 대사와 공관원의 주재국 정부, 경제계 등 각 분야 인사접촉 및 활동내용을 월별로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6년도)

- 5.17. 홍보대책위원회 개최
- 5.19.~21. 몬트리올 국제서적전람회 참가
- 6.7. 한·캐나다 쿼터회담 양측 대표단 오찬 개최
- 6.17. 제2차 관내 통상회의 및 홍보대책회의 개최
- 9.24. 외무부 아시아태평양총국장 면담
- 9.27. 캐나다 석탄협회 주최 연례총회 리셉션 참석
- 10.4. 국경일 리셉션 개최
- 11.2. 환경부 수산담당 차관보 면담, 어업협력증대 방안 협의
- 11.4. 몬트리올 출장, 수입상 및 실업인 초청 오찬회 개최, 통상관계 협의
- 11.11. 현충일 기념행사 참석, 무명용사탑 헌화
- 11.24. 알버타주 공식 방문, 주 총독, 수상대리 등 면담
- 12.1. 외교단 오찬회 참석
- 12.8.상공장관 면담, 캐나다의 의류수입제한 조치 교섭

공관활동보고 - Toronto(캐나다) 총영사관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

MF번호 O-6-48 / 21 / 1-12

1. 주토론토총영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5~76년 주간별, 분야별 총영사 및 공관원의 관내지방 정부인사 등에 대한 접촉과 활동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5년도)

- 10.14. 10.22. 수출진흥 및 홍보대책협의회 개최
- 10.16. 영사단 주최 연례 Consular Ball 참석
- 10.23. The Toronto Star 신문사 방문
- 10.24. 유엔협회 주최 유엔의 날 경축리셉션 참석
- 10.26. 한인회관 건립 기금 모금 강연회 및 홍보영화 상영회 참석
- 12.23. 수출진흥 및 홍보대책협의회 개최

3. 보고내용(1976년도)

- 1.1. 온타리오주 부총독 주최 신년하례회 참석
- 1.26. Board of Trade Annual Dinner 참석
- 1.28. 영사단 연례총회 참석
- 1.31. 토론토 한국노년회 정기총회 참석
- 2.16. 온타리오주 수상 주최 영사단 리셉션 참석
- 2.20. 온타리오주 의전차장 오찬 초청
- 2.24. 온타리오주 문화레크리에이션장관 예방

공관활동보고 - Vancouver(캐나다) 총영사관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O-6-48 / 22 / 1-23

1. 주밴쿠버총영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6년 주간별, 분야별 총영사 및 공관원의 관내지방 정부 및 경제계, 교민 등 관계인사와의 접촉과 활동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6년도)

- 1.7. 수출진흥대책회의 개최
- 1.23. 민간우호단체 Canada-Korea Business Association 이사회 참석
- 1.26. British Columbia주 신정부 수상 및 각료 예방
- 2.3. 정례유관기관 회의 개최, 수출진흥 및 홍보대책 협의
- 2.10. Trudeau 수상 주최 Vancouver New Terminal Opening 참석
- 2.12. 밴쿠버 이민국장 초청 오찬
- 3.1. 제57회 3·1절 기념식 개최
- 3.9. 캐나다 지역 수출진흥대책협의회 참석차 오타와 출장

공관활동보고 - 프랑스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O-6-48 / 24 / 1-38

1. 주프랑스대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6년도 대사와 공관원의 주재국 정부, 경제계 등 각 분야 인사접촉 및 활동내용을 월별로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6년도)

- 4.6. 투자보장협정 소급적용 교환각서 서명
- 4.8. 수상실 외교담당 보좌관 면담, Chirac 수상 방한 협의
- 4.30. 수출진흥회의 개최
- 5.4. 상원 외무분과위원장 예방
- 5.8. 유엔국장 면담, 유엔 한국 문제 협의
- 5.10. 외교단 정례오찬회, 한·프랑스친선협회 창립총회 참석
- 5.28. 월례 수출진흥회의 개최
- 7.16. 통상장관 면담
- 9.6.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공관활동보고 - 가봉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O-6-48 / 23 / 1-76

1. 주가봉대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6년도 대사와 공관원의 주재국 정부인사, 외교단 등 각 분야 인사접촉 및 활동내용을 월별로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6년도)

- 1.6. 수산장관 및 광산장관 각각 예방
- 1.14. 보건장관과 원조 의사 증파문제 협의, 주택장관 예방
- 1.15. 경제계획장관 예방
- 1.24. 한국 사절단과 함께 대통령 예방
- 1.26. 대통령 비서실장 및 대통령 비서실 원조고문 각각 면담
- 1.27. 외무차관 면담
- 2.5. 교통장관 예방
- 2.21. 기획장관 예방
- 2.23. 상공장관과 종합백화점 설립 문제 협의
- 2.25. 국회의장 예방
- 3.1. 3·1절 기념식 개최
- 3.10. 외무장관 예방
- 3.29., 8.4. 및 11.25. 대통령 예방
- 6.25. 국회의장 예방
- 8.5. 외무장관 예방
- 11.6. 광산장관, 보건장관 예방

공관활동보고 - 인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O-6-48 / 25 / 1-122

1. 주인도대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6년도 대사와 공관원의 주재국 정부, 경제계 등 각 분야 인사접촉 및 활동내용을 월별로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6년도)

- 1.20. 한·인도 친선협회 사무총장 면담
- 2.2. 외무성 부차관(정책기획담당) 면담, 비동맹 관계에 관하여 협의
- 2.11. 외무성 차관 예방
- 2.13. 인도상공회의소 회장 방문
- 3.2. 외무장관 예방
- 3.4. 부통령 예방
- 3.5. 대통령 예방
- 3.23. 외무성 차관보 면담
- 5.3. 외무성 유엔국장 방문
- 5.4. K. Singh 인도 국회의원 접견
- 5.14. Sundram 외무성 의전차장 예방
- 5.24. V. Verma 외무성 유엔담당 Director 방문, 비동맹회의에 관한 토의
- 8.25. 상공부장관 예방
- 8.27. 간디 수상 예방
- 9.1. 조달기업부장관 예방
- 9.3. 재무장관 및 상공차관 예방
- 12.10. 한·인도 무역회담 인도대표단 만찬 초대
- 12.22. 간디 수상 주재 어린이 미술전 시상식 참석

공관활동보고 - 코트디부아르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O-6-48 / 26 / 1-65

1.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6년도 대사와 공관원의 주재국 정부, 경제계 등 각 분야 인사접촉 및 활동내용을 월별로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6년도)

- 1.1. 대통령 신년하례식 참석
- 1.7. 국회사무총장 예방
- 2.5. 해운장관 주최 선박수출을 위한 실무자회의 참석
- 2.6. 직업기술교육장관 예방, 주재국 기술자의 한국 파견 및 연수 제의에 관하여 협의
- 3.1. 제57회 3·1절 기념식 개최
- 3.10. 외상 방문, 유엔 대책 및 스리랑카 비동맹 정상회담 등에 관하여 협의
- 4.26. 통상장관 방문
- 5.10. 부통령 예방, 유엔 및 스리랑카 비동맹 정상회담에서의 한국 측 입장 지지 요청
- 5.18. 국회의장 방문
- 5.26. 외무성 정무국장 방문
- 6.3. 통상장관 방문
- 7.1. 재무장관 방한 초청 관련 협의
- 7.19~22. 한국 상품전시회 개최
- 7.20. 통상장관, 관광장관 및 국무장관 예방
- 7.29. 대통령 및 외상 고문 예방
- 8.13. 외무성 정무국장 면담, 비동맹 교섭
- 9.1. 대통령 관방장 면담
- 10.17. 니제르 도자기공장 시찰
- 10.18. 니제르 국가원수 면담
- 11.17. 국무상 예방
- 12.17. 한·니제르 도자기공장 준공식 참석

공관활동보고 - 고오베(일본) 총영사관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O-6-48 / 27 / 1-57

1. 주고베총영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6년 주간별, 분야별 총영사 및 공관원의 관내지방 정부 및 경제계, 교민 등 관계인사와의 접촉과 활동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6년도)

- 3.1. 민단 3·1절 행사 참관
- 3.4. 고베 신문사 사장 예방
- 4.1. 고베 시장 방문
- 6.14.~20. 한국전쟁 제26주년 전쟁반대, 평화수호, 재외국민 합동 궐기대회(6.20.) 지원
- 7.4. 주고베 미국총영사 주최 미국 독립 200주년 리셉션 참석
- 8.3. 오카야마현 제3회 한·일본 친선협회 정기대회 참석
- 8.15. 8·15 광복절 행사 참석
- 9.23. 가가와현 한·일본 친선협회 결성식 참석
- 10.12. 한국수출상품전시상담 개최식 참석

공관활동보고 - 센다이(仙臺, 일본) 영사관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O-6-49 / 1 / 1-95

1. 주센다이총영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6년 주간별, 분야별 총영사 및 공관원의 관내지방 정부 및 경제계, 교민 등 관계인사와의 접촉과 활동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6년도)

- 1.7. 센다이 입국관리사무소 소장 방문
- 2.20. 후쿠시마 생활협동조합 감사의 방문을 받고 생활협동조합 육성 문제에 대하여 면담
- 2.25. 센다이 라이온즈 클럽 월례회 참석(한국의 통일 문제에 관한 강연 실시)
- 3.12. 동북 공안조사국 국장 및 센다이 입국관리사무소 차장 예방
- 3.25. 센다이지 시장 예방
- 4.27. 아오모리현 부지사 예방
- 5.1. 모리오카 시장 예방
- 6.26. 민단 동북지방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6·25 전쟁 제26주년 반전 결기대회에 참석
- 7.1. 민단 미야기 지방본부 단장의 방문을 받고, 민단 조직 강화 및 민단 중앙회관 건립 자금 모금 활동 촉구
- 10.22. 후쿠시마 상공회의소 전무 방문
- 12.8. 센다이 라이온즈 정례회 참석

공관활동보고 - 일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O-6-49 / 2 / 1-35

1. 주일본대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6.1.1.~4.28. 기간 중 대사와 공관원의 주재국 정부, 경제, 교민 등 각 분야 인사접촉 및 활동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6년도)

- 1.8. 민단 중앙본부 신년회 참석, 축하
- 1.28. 자민당 부총재 방문, 대륙붕 비준 촉구에 관한 면담
- 2.9. 일본 방송 '주요인사 대담시간'에 참석, 한·일본 관계에 관해 대담
- 2.27. 중의원 외교위원장 방문
- 4.6. 농림성 정무차관 방문, 한·일본 간 섬유 문제 협의
- 4.13. 일본 방위군 총참모장 주최 만찬 참석
- 4.16. 경도 출장, 한국 미술 5천년 전시회 종료 리셉션 주최
- 4.21. 외무성 사무차관 방문 및 면담

공관활동보고 - 오오사카(大阪, 일본) 총영사관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O-6-49 / 3 / 1-305

1. 주오사카총영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6년 주간별, 분야별 총영사 및 공관원의 관내지방 정부 및 경제계, 교민 등 관계인사와의 접촉과 활동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6년도)

- 1.5. 신년 시무식 개최
- 2.9. 코트라 관장 및 한·일본 무역협회 전무와 한국 상품 대책 회의 개최
- 2.23. 한국 미술 5천년 전시회 개회식 참석
- 3.1. 3·1절 경축식 참석
- 4.3. 오사카 한·일본 친선협회 결성 준비 위원회 참석
- 4.15. 민단 오사카 고문단 및 각 지부 기관장 연석회의 참석
- 4.23. 오사카 국제 견본 전시전 개막
- 5.13. 한국 미술 5천년 전시회 종료, 총영사 주최 파티 개최
- 6.16. 오사카 한국인 상공회 제1차 이사회 참석
- 6.25. 오사카 민단본부 6·25 행사 참석
- 7.3. 7·4 공동성명 제4주년 기념 기자단 간담회 주최 및 주관
- 7.15. 추석성묘단 대책 연석회의 참석
- 8.15. 제31회 광복절 기념식 참석
- 9.8. 고베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국제위원회 정례회의 참석
- 10.2. 오사카 한·일본 친선 의원연맹 결성 총회 참석
- 11.20. 제7차 투자유치 조사단 일행과 오사카 한국인 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 참석
- 12.4. 오사카 무역관장과 무역진흥축하연 개최 방안 협의

공관활동보고 - 후쿠오카(福岡, 일본) 총영사관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O-6-49 / 4 / 1-111

1.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6년 주간별, 분야별 총영사 및 공관원의 관내지방 정부 및 경제계, 교민 등 관계인사와의 접촉과 활동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6년도)

- 1.13. 관내 센터 소장 회의 소집
- 2.28. 규슈대학 조선사학과에 승정원일기 기증 문제 관련 면담
- 3.1. 제57회 3·1절 기념행사 참석
- 3.20. 한국 수입 원석 제품 전시회 참관
- 4.27. 한국 미술 5천년 전시회 개관식 참석
- 5.19. 한국상품전시회 및 한·일본 무역 추진 간담회 참석
- 6.4. 고 박인수 총영사 고별식 거행
- 6.11. 임어업 전관수역 침범으로 나포된 한국 선박의 석방 문제로 해상보안부 및 대마도 검찰청과 교섭
- 6.25. 한국전쟁 제26주년 규슈지구 쉼기대회 참석
- 7.26. 황원영 총영사 부임
- 8.3. 후쿠오카현 지사, 부지사,公安조사국장, 미국영사 등 예방
- 8.5. 후쿠오카 시장 예방
- 9.11. 나가사키현 한·일본 의원연맹 결성식 참석
- 9.21. 북구주 시장 및 지방 기관장 예방
- 10.20. 총영사 주최 오찬회에서 한·일본 친선 방안 협의
- 11.17.~18. 구마모토현 및 구마모토 무역협회 공동 주최 한·일본 무역간담회 참석
- 12.3. 아시아 무역협회 정기 회합에 특별 초청을 받고 참석, 공장 견학

공관활동보고 - 요코하마(横浜, 일본) 총영사관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O-6-49 / 5 / 1-132

1. 주요요코하마총영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6년 주간별, 분야별 총영사 및 공관원의 관내지방 정부 및 경제계, 교민 등 관계인사와의 접촉과 활동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6년도)

- 1.5. 요코하마 시장 예방
- 1.24. 가와사키 한국인 상공회의소 창립총회 참석
- 3.24. 시즈오카현 홍보대책협의회 창립총회 참석
- 4.28. 가나가와현 민단 지방본부 제33회 정기대회 개최
- 5.28. 요코하마 시장 예방
- 6.2. 요코하마 무역협의회장 예방
- 6.23. 시즈오카시 시장 예방
- 7.7. 시미즈 시장 예방
- 7.13. 가나가와 방송국 사장 예방, 요코스카시 시장 예방
- 7.22. 가나가와 민단 지방본부 산하 단체 합동회의, 추석성묘단 및 8·15행사
- 8.14. 광복절 경축식 참석
- 9.25. 시즈오카현 한·일본 친선협회 창립 총회
- 10.26. 요코하마 상공회의원 간담회 참석
- 12.21. 가와사키 지부 및 가나가와 민단청년회 송년회

공관활동보고 - 나고야(名古屋, 일본) 총영사관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O-6-49 / 6 / 1-68

1. 주나고야총영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6년 주간별, 분야별 총영사 및 공관원의 관내지방 정부 및 경제계, 교민 등 관계인사와의 접촉과 활동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상기 보고 내용 중 1976.10월 공관 내 폭발물 장치 전화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 경비 강화, 일본 과격파 동향 보고 등의 내용이 수록됨.

3. 보고내용(1976년도)

- 1.7. 아이치 민단본부의 신년회 개최
- 2.13. 일본 중부지역 여행협회 간사들과 관광진흥간담회 개최
- 3.1. 제57회 3·1절 기념행사 거행
- 5.10. 나고야 시장 및 중부公安조사국장 예방
- 5.17. 나고야 주니치 신문사 사장 예방
- 6.24. 제26주년 6·25 안보궐기 중북지방대회 참석
- 7.3. 민단 아이치현 지방본부를 방문
- 8.15. 민단 아이치현, 민단 미에현 8·15 광복절 기념식 행사 참석
- 9.25. 한국상품전시상담회(10.5.~7.) 개최 준비를 위하여 동경 주재 한국 무역관장과 협의
- 10.2. 개천절에 즈음한 국경일 리셉션 개최
- 10.27. 아시아 친교회 주최 한국 도자기 및 서예 전시회 참석
- 10.28. 일본 적군파라고 자칭한 자로부터의 공관 내 폭발물 장치 전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공관 경비 대응
- 11.4. 일본 과격파 동향과 관련, 공관 경비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경비 대책 협의
- 11.25. 미에현 한·일본 친선협회 부회장 면담
- 12.13. 대한항공 나고야 사무소장 및 교포여행사와 한국 여행자 증가에 따르는 행정 문제 협의

공관활동보고 - 쿠웨이트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6-49 / 7 / 1-182

1.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가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6년 주간별, 분야별 공관원의 주재국 정부 및 경제계 등 관계인사와의 접촉과 활동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6년도)

- 1.28. 친한국 유력경제인사를 만찬에 초대, 쿠웨이트 건설업 진출을 위한 협의
- 3.4. 외무성 경제부국장 방문
- 4.8. 상공회의소 회장 방문
- 4.14. 주택성장관 예방, 자하라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 5.12. 주쿠웨이트 영국대사관에서 개최한 우방국 7개국 회의에 참석, 비동맹 및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에 대한 전략회의 개최
- 6.8. 경제기획위원회 및 중앙은행 관계관들을 만찬에 초대
- 7.12. 외무장관 특별보좌관 방문
- 8.3. 교통체신차관 예방
- 9.17. 신청사로 이전
- 9.30. 사회노동성차관 방문
- 10.4. 보건상 방문
- 10.28. 국방장관 예방
- 11.11. 쿠웨이트 상공회의소 소장 방문
- 11.13. 보건장관 방문

공관활동보고 - 라이베리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O-6-49 / 8 / 1-33

1. 주라이베리아대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6년도 대사와 공관원의 주재국 정부, 경제계 등 각 분야 인사접촉 및 활동내용을 월별로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6년도)

- 1.13. 외무성 차관보와 예방, 대북한 동향 및 정세일반에 관해 정보 교환
- 1.28. 외상 예방, 유엔 및 비동맹 회의에 관해 의견 교환
- 2.6. 대통령 외교고문 예방
- 3.8. 외무성 아·아담당차관보 방문, 유엔 및 비동맹 회의 교섭
- 4.9. 노동체육성차관 예방
- 5.31. 보건사회부장관 예방
- 6.22. 외무차관 예방
- 7.23. 주재국 독립기념 농·공업 박람회 개회식 참석
- 7.26. 주재국 독립기념식 및 축하연 참석
- 8.2. 외상 방문
- 9.3. 외무차관 방문

공관활동보고 - 네덜란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O-6-49 / 11 / 1-244

1. 주네덜란드대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6년도 대사와 공관원의 주재국 정부, 경제, 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접촉 및 활동내용을 월별로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6년도)

- 4.15. 외무성 국제협력차관보 방문
- 5.4. 외무성 정무차관 방문
- 6.11. 텔레그라프 편집부국장 면담, 6·25 및 8·15 특집 기사 관련 협의
- 7.29. 외무성 정책차관보 면담
- 8.12. 황실문서실 실장 면담, 이준 열사 자료에 관해 의견 교환
- 9.16. 국회 하원 외무분과위원 및 국방분과위원 오찬
- 12.2. 주재국 아시아협회 회장과 오찬, 홍보 문제 협의
- 12.13. 한국 경제 설명회 주관 및 리셉션 개최
- 12.20. 경제성 수출입 부국장 방문, 대베네룩스 한국산 양말 쿼터 교섭

공관활동보고 - Islamabad(파키스탄) 총영사관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O-6-49 / 9 / 1-131

1.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6년 주간별, 분야별 총영사 및 공관원의 관내지방 정부, 경제, 교민 등 관계인사와의 접촉과 활동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6년도)

- 1.10. 브라질, 캐나다, 터키, 이탈리아대사 및 주재국 실업인 등을 만찬에 초청
- 2.22. 외무성 행정차관에게 한반도의 최근 정세, 한국 기업의 중동진출에 관하여 설명
- 4.12. 세계은행 주재 대표 초청 만찬 참석
- 4.28., 6.25. 아주총국장 방문
- 5.26. 신임 일본대사 방문, 유엔 한국문제 등 제반 문제 협의
- 7.31. 의전장 초청 만찬 참석
- 8.12. 8·15 특집기사를 주재국 언론지에 게재
- 8.16. 4자회담 및 북한의 도발, 특히 8·5 총격사건과 한국의 통일정책에 관하여 기자회견
- 10.27. 생산성장관 및 외무차관 각각 방문
- 10.29. 대통령 방문, 총영사의 이임 인사
- 11.24. 아주국장 방문
- 12.6. 미국대사관 정부참사관 방문, 파키스탄 측 핵연료재처리 시설 도입에 관한 미국·파키스탄 관계에 관해 의견 교환
- 12.8. 외무성 구주과장 방문, 주재국 핵개발계획에 관해 의견 교환
- 12.23. 대통령 보좌관실 사무국장 예방

공관활동보고 - 파라과이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O-6-49 / 10 / 1-10

1. 주파라과이대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6.3~6월 중 대사와 공관원의 주재국 정부 인사 접촉 및 활동내용을 월별로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6년도)

- 3.25. 대통령 비서실장 방문
- 3.30. 재무장관 예방
- 4.1. 1976년도 국회 개원식 참석
- 4.2. 외무부장관 예방
- 5.15. 주재국 독립기념일 축하를 위한 대통령 예방
- 6.18. 공관 개설 축하 파티 개최

공관활동보고 - 시에라리온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O-6-49 / 12 / 1-102

1. 주시에라리온대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6년도 대사와 공관원의 주재국 정부, 경제, 외교단, 언론 등 각 분야 인사접촉 및 활동내용을 월별로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6년도)

- 1.9. 외교단 신년하례식 참석
- 2.5. 외상 및 법무상 각각 방문
- 2.16. 국제관계담당차관보 방문
- 3.1. 3·1절 기념행사 거행
- 3.2. 법무상 방문
- 4.6. 무역사절단 일행과 부통령 겸 재무상 예방
- 4.22. 농업자원상 방문
- 5.7. 외무성 사무차관 방문
- 5.18. 외상 방문
- 6.22. 공보방송상 예방
- 6.28. 외무차관 방문
- 7.26. 외상 및 외상보좌관 방문
- 8.10. 대통령 예방, 대통령 친서 전달
- 8.24. 부통령 방문, 방한 초청 전달
- 9.1. 외상 방문
- 9.28. 데일리메일 편집국장과 한국 문제 전반에 관한 인터뷰
- 10.12. 외무성 정무차관 방문
- 11.6. 어업조사단을 위한 만찬 주최
- 11.19. 대사관 청사 이전
- 12.24. 대통령 예방

공관활동보고 - 스리랑카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 정보1

MF번호 O-6-49 / 13 / 1-41

1. 주콜롬보통상대표부가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6년도 주간별 주재국 정부, 경제계 인사 등 접촉과 활동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6년도)

- 1.6. 재무 겸 법무장관 방문, 수교 문제 교섭 현황 설명 및 협조 요청
- 2.28. 외무차관 방문
- 3.10. 외무성 비동맹국장 방문
- 5.6. 인공위성 지상중계소 준공식 참석
- 5.22. 주재국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
- 6.16. 재무 겸 법무장관의 초청으로 기념우표발행식에 참석
- 6.30. 비동맹국가 간 과학·기술협력 세미나 개최식 참석
- 7.1. 수출진흥공사 총재 방문
- 8.11. 주재국 핵심 우방국 대사 회의에 참석하여 비동맹 대책 협의
- 8.25. 외무차관 방문, 비동맹회의 정치선언 및 북한 단독 결의안에 대한 한국 측 공식 입장 표명
- 9.17. 주재국 불교계 대표 스님의 내방을 받고, 불교문화를 통한 양국간의 협조 논의

공관활동보고 - Honolulu(미국) 총영사관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O-6-49 / 14 / 1-83

1.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5.12월~76년 주간별, 분야별 총영사 및 공관원의 관내지방 정부, 경제, 언론, 교민 등 관계인사와의 접촉과 활동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6년도)

- 1.6. 주재국 국제방송 KNDI 사장의 내방을 받고, 로터리클럽(호놀룰루 지부)이 3월 초 경 주최하고자 하는 '한국의 날' 계획에 관하여 협의
- 1.21. 하와이주 주의회 상원 개원식 참석
- 2.9. 한국경제인협회 신임 회장단의 내방을 받고, 한·미국 경제시찰단 파견 계획 및 한국계 백화점 개설에 관한 의견 교환
- 2.14. 미국 태평양지구 함대 사령관 제독 초대 리셉션 및 만찬 참석
- 3.1. 3·1절 기념식 거행
- 3.3. 와이키키 로터리클럽 '한국의 날' 행사 참석
- 3.11. Hawaii World Trade Association 주최 Pacific Trade Seminar 참석, 한국과 하와이 간 무역에 관하여 발표
- 4.25. PATA(아시아태평양여행협회) 총회에서 한국 측 대표가 주관한 한국의 밤 행사 및 리셉션 참석
- 5.1. 하와이 한국경제인협회 이사회 참석
- 5.26. 한·미국 국방장관회의의 행사 참석
- 6.17. 해사생도 원양훈련단대 충북호 및 전남호 환영
- 7.2. 주정부 주최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제 참석
- 8.12. 미국 태평양함대 신·구사령관 이·취임식 및 리셉션 참석
- 11.5.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건립 모금 위원회 참석
- 11.10. 이민국장 방문

공관활동보고 -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O-6-49 / 15 / 1-75

1. 주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대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6년도 대사와 공관원의 주재국 정부, 경제계 등 각 분야 인사접촉 및 활동내용을 월별로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6년도)

- 1.7. 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회의 리셉션 참석
- 1.19. 외무성 국제협력국장 면담
- 2.19. 외상 면담 및 내무상 예방
- 3.1. 법무상 예방
- 3.5. 대통령 방문 및 면담
- 3.11. 재무상 예방
- 4.16. 관방장관 방문
- 5.3. 국방장관 방문
- 6.3. 대통령 면담, 비동맹 정상회담 및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요청
- 6.15. 외상 예방, 방한 문제 등 협의
- 6.29. 공보체신장관 방문, 방한 문제 등 협의
- 7.2. 외무성 법무국장 면담
- 7.14.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면담, 한국 통상사절단 방문 준비에 따른 의견 교환
- 8.5. 부르키나파소 독립 16주년 기념식 참석
- 8.12. 공보체신상 예방, 한국 홍보 문제에 대한 협조 요청
- 8.26. 교통공공사업상 방문, 주재국 공공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가능성 타진
- 9.30. 대통령 방문, 주재국의 군사원조 요청 문제에 관하여 논의
- 10.11. 외무성 사무총장 예방
- 10.21. 관광환경상 면담
- 11.3. 국방상 방문
- 12.7. 청년스포츠장관 방문
- 12.19. 태권도 시범대회 참석, 축하

공관활동보고 - 베네수엘라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남미

MF번호 O-6-49 / 16 / 1-6

1.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5.7.15.~29. 및 1976.6.23.~7.5. 중 대사와 공관원의 주재국 정부 인사 접촉 및 활동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5.7.15.~29.)

- 7.20. 콜롬비아 국경일 리셉션 참석
- 7.28. 페루 국경일 리셉션 참석

932

3. 보고내용(1976.6.23.~7.5.)

- 6.30.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공사 방문, 비동맹 회의에서의 한국입장 계속 지지 요청
- 7.5. 주재국 독립기념행사 참석

공관경제활동보고 - 이란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O-6-49 / 17 / 1-173

1. 주이란대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6년도 주재국 하반기 경제활동보고서를 외무부에 보고함.

2. 주이란대사 본국 출장 경제관계 협의자료(1976.6.23.)

- 이란의 경제현황, 이란 경제의 당면과제, 타 중동제국과 다른 이란의 여건, 이란 경제의 전망, 대이란 경제협력현황과 방향, 통상증진

3. 경제협력추진현황(1976.7~12월)

- 7월
 - 1975년도 이란의 경제성장에 관한 분석, 이란 경제 전문가들에 의한 이란 경제의 분석 요약, 일반 산업 동향, 이란의 대외협력 현황, 7월중 경제협력 활동 내용 및 프로토콜 추진현황, 7월중 Task Force 회의 개최
- 8월
 - 제6차 5개년 계획의 기본지침, 석유생산·판매현황, 물가현황, 대외경제협력현황, 월중 업무계획, 월중 업무활동
- 9월
 - 석유동향, 물가동향, 무역동향, 기술인력, 소득구조, 외환사정, 대외협력, 제6차 아시아 노동장관회의, 업무활동
- 12월
 - 이란 경제의 시대적 고찰, 일반 경제 동향, 각 부문별 경제협력 추진동향, 제2차 한·이란 각료회의 합의사항 추진현황, 대외경제협력, 참고자료(통계 및 국왕 기자회견문)

93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1976

국회 재일교포 실태조사단 일본 방문, 1976.9.10.-18.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P-6-18 / 1 / 1-48

최영희 국회 외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재일교포 실태조사단이 1976.9.10.~18. 일본을 방문함.

1. 방문지역

- 동경, 오사카, 고베

2. 방문목적

- 재일교포 실태조사

3. 주요활동 사항

- 동경
 - 민단중앙본부 방문, 교민실태에 관한 대사관 브리핑 청취, 민단간부 및 교포 유지와의 간담회 개최
- 오사카
 - 민단본부 방문, 총영사관 브리핑 청취, 민단본부 임원 및 지부 단체장 등과의 간담회 개최

4. 동 실태조사단 일행에게 보고한 주오사카총영사관의 공관현황 자료가 수록됨.

재일본 한국인 서훈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P-6-18 / 2 / 1-107

1976년 광복30주년을 맞이하여 재일본 한국인에 대한 서훈 관련 내용임.

1. 주일본대사관은 광복30주년을 맞이하여 아래 포상기준에 따라 재일국민 71명을 서훈할 것을 건의(1976.7월 68명 건의, 9월 3명 추가 건의)

- 거류민단 창단 이래 조직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 재일대한부인회, 상공회, 신용조합 등 산하단체 조직 육성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2. 정부는 상기 건의에 따라 1976.9월 아래와 같이 재일국민 70명에게 서훈

- 국민훈장 무궁화장: 윤달용 민단 중앙본부 감찰위원장 1명
- 국민훈장 모란장: 김정주 민단 중앙본부 부단장 등 9명
- 국민훈장 동백장: 허윤도 민단 중앙위 부의장 등 60명

3. 주일본대사관이 건의한 서훈 대상자 중 1명은 결격 사유가 있어 서훈에서 제외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본 실무자회의, 제5차. 동경, 1976.11.24.-3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P-6-18 / 3 / 1-221

제5차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 관련 한·일본 실무자회의가 1976.11.24.~30. 동경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공노명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
- 일본 측: 오오모리 세이이치 외무성 아시아국장

936

2. 주요 의제

- 한국 측: 협정영주권 신청기간의 재설정 문제와 재일본 한국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우 문제
- 일본 측: 법적지위협정 제3조 해당자(7년 이상의 중형자 등) 및 밀항자의 강제퇴거 문제

3. 훈령

- 협정영주권 미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일본 측에 요구
- 협정영주권자 중 범법자의 강제송환은 가급적 억제하고 일반 밀항자의 강제송환은 원칙적으로 수락
- 복지정책 혜택에 있어 내국민대우를 요구하고, 취업 등에서의 차별대우 제거를 위한 협력방안 검토

4. 회의 결과

- 협정영주권 미신청자 구제 문제 합의
- 불법입국한 자 특별체류 허가, 강제퇴거 후 재입국 제도, 계속 불법입국한 자 특별체류 심사에 의한 구제 조치 등 밀항자 처리 문제 합의
- 공영주택 입주, 신용조합 공고업무 대리 취급 문제 등에 대해 일본 측은 행정지도를 통해 한국 측 요망에 부응하도록 처리할 것을 약속
- 국민연금법, 아동수당법 적용: 일본 측은 한국 측 요망을 유의하겠다는 반응
- 양측은 양해 사항을 문서화하여 이를 각각 교환함.

5. 회의 성과

- 한국 측: 협정영주권 미신청자들에 대한 잠정조치를 통해 이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1966.1월 이전 밀항자들이 향후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길 마련
- 일본 측: 강제퇴거 문제에 대한 실마리 발견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본 실무자회의, 제5차. 동경, 1976.11.24.-30. 전2권 (V.2 회의자료)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P-6-18 / 4 / 1-106

제5차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 관련 한·일본 실무자회의가 1976.11.24.~30. 동경에서 개최된바, 관련 회의자료가 수록됨.

1. 1976.11월 외무부 작성 회의 자료

- 한·일본 실무자회의 일정 및 토의의제
- 협정 영주권 미신청자 구제 문제
- 강제송환 문제
- 회수 재입국 허가 및 허가기간 연장 문제
- 복지향상 문제

2. 1976.11월 주일본대사관 작성 회의 자료

- 토의 의제: 법적지위, 사회복지 및 대우
- 의제별 고찰: 협정 영주권 미신청자 구제, 회수 재입국 허가,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 강제송환 문제, 재일동포의 사회복지 및 대우 향상
- 훈령: 기본지침, 대책

재일본 한국인 신용조합의 은행 승격 문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P-6-18 / 5 / 1-30

주일본대사관의 1976.3~4월 재일본 한국인 신용조합의 은행 승격 문제에 관한 보고임.

1. 신용조합의 은행 승격 시 절차상 문제점

- 조합금 및 예금고 등 승격기준을 구비하여야 하므로 각 지역별 한국인 신용조합을 통합하여 1개 은행으로 설립하고 각 지역에는 지점을 설치하는 형식이 되어야 하나, 각 지역 신용조합 통합에는 난항 예상

938

2. 은행으로 승격 시 득실

- 영업규모의 확대를 통한 운영개선, 대외신용도 및 공신력 제고에는 유리하나, 엄격한 대장성 감독, 일정 지불준비금의 중앙은행 예탁, 타 은행으로부터의 재할인 및 대부 곤란, 대부조건의 엄격한 시행 등은 불리

3. 일본 측과 교섭사항

- 절차상 어려움은 없으나, 은행업무 인가에 매우 소극적인 일본 정부의 자세가 문제

4. 신용조합 측의 은행 승격 방안

- 1976.6월 서울 개최 한신협 총회 시 은행 승격 방안 토의 예정
 - 전체 신용조합을 통합하여 은행으로 전환할 것인지 또는 일부 신용조합을 우선적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미정
- 한신협 측은 대외신용도와 공신력 제고, 경영개선, 영업지역 확대 등을 고려하여 전체 한국인 신용조합을 1개 또는 2개로 통합하여 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며 이 경우 상호은행이 아닌 일반은행 성격의 은행으로 승격 희망

재일본 한국인 북한 송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6-18 / 6 / 1-20

1. 1976년도 재일본 한국인의 북한 송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3월(제176차)
 - 55세대 95명(일본인 6명 포함)
- 10월(제177차)
 - 95세대 161명(일본인 14명 포함)

2. 외무부가 1976.11월 국회에 송부한 자료에 의하면 1959~76년간 재일본 한국인 북한 송환자는 총 92,549명임.

- 캘커타협정에 따른 북송(1959.12~67.12월): 88,411명
- 모스크바합의서에 따른 북송(1971.5~71.10월): 1,081명
- 모스크바회담 요록에 따른 북송(1971.12~76.11월): 3,057명

재일본 한국과학기술자협회 설립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P-6-18 / 7 / 1-25

1976.5.20. 동경에서 재일본 한국과학기술자협회 발기인 회의가 개최됨.

1. 주요 결정사항

- 협회 창립총회는 1976.6월 하순경을 목표로 결성하되 가능한 일본 전국을 망라하여 추진
- 창립총회까지의 집행부서 임원 4인 선출

2. 동 협회는 주일본과학관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단체로서 아래의 설립목적에 따라 조직됨.

- 과학기술자 상호간의 친목·유대강화
- 한국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과학기술계 인사와의 교류증진 협력강화
-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 경제발전 기여

한·일본 회담 법적지위 요구 관철 민중대회 후의 민단 정상화를 위한 건의

생산연도 1964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P-6-18 / 8 / 1-5

주일본대표부는 1964.3월 한·일본 회담의 법적지위 요구 관철 민중대회 관련 조총련 및 민단의 동태와 동 민중대회 후의 민단 정상화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1. 김문석 민단 중앙총회(中總) 단장은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고 있으나, 동경본부(東本) 단장 등의 김문석 집행부에 대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 어려움에 봉착
 - 김문석은 반정부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동경본부의 정영옥 단장 일파 및 김재화 계열 등의 지원을 받아 중총(中總) 단장에 취임
2. 대표부로서는 아래 조치를 통해 민단 정상화 모색
 - 1단계: 1964.3~4월로 예정된 동경본부 총회에서 정영옥 단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치
 - 2단계: 중총 내 상기 계열 인사를 축출하여 민단 정상화
3. 동경본부 및 중총 개편 조치 과정에서 대표부가 민단 내부에 직접 간섭하게 되어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부의 강력한 행정적 지원을 건의

가나가와현(일본) 한국종합교육센터 운영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P-6-18 / 9 / 1-10

1. 문교부는 1976.5월 주일본대사관 교육관에게 가나가와현(神奈川縣) 한국종합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센터의 명칭, 책임자, 기존 요코하마 교육문화센터 운영 문제, 운영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2. 주일본대사는 1976.5월 가나가와현 한국종합교육센터의 소유권과 설립부지 현황 및 부지 소유권 등 조치 사항에 관하여 보고함.
 - 소유권은 동 센터 건립 기성회장(이종대)과 부회장(전임술) 양인의 명의로 지분 각 1 / 2로登記 조치
 - 주일본대사관은 후일 소유권에 대한 분규 발생에 대비하여 상기 양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수록 각서를 청구하여 보관
 - 가나와나 한국학교 설립 부지
 - 매입일자: 동 학교 설립을 특정으로 1969.2.18. 동 학교 부지 매입
 - 부지면적: 1,872평
 - 소유권: 동 학교 설립 기성회 관계자 3인의 명의로登記되어 있으며, 동 부지에 대해서도 주일본대사관이 각서를 청구하여 보관

재일본 한국인 유골 봉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6-18 / 10 / 1-246

제2차 세계대전에 강제동원되었다가 전사한 구 군인 및 군속 등 한국인의 유골 봉환 문제 관련 1975~76년 중 한·일본 양국 정부 교섭 및 검토 내용임.

1. 일본 외무성 동북아과장은 1975.1월에 이어 12월 주일본대사관 관계관에게 ‘구 군인 및 군속 등 한국인 유골 문제의 해결안’(1975.1월 한국 측에 제시한 방안과 동일)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수용 여부를 문의함.
2. 외무부 동북아1과는 1976.9월 상기 유골 문제에 관한 한국 측 대안을 아래 요지로 검토함.
 - 유골 인도에 따른 일본의 국내절차 조치에 반대하지 않음.
 - 일본의 국내절차 후, 한국을 본적지로 한 자의 유골 전부와 북한을 본적지로 한 자의 유골 중 한국에 연고자가 있는 유골은 한국 정부가 일괄 인수
 - 한국 내 유족이 거주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북한 출신자 유골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일본 정부가 보장하면, 동 유골을 북한 측에 인도하는 데 반대하지 않음.
 - 일본 적십자사와 북한 적십자사를 통해서만 인도
 - 동 유골 봉환이 일본·북한 간 교류의 확대 또는 공식 접촉 수단 불가
 - 유골 봉환 시 일본 정부 관계자가 호송을 이유로 북한 방문 불가
3. 일본 후생성 관리 하에 있던 태평양전쟁 전몰 한국인 유골 22주가 1976.10.28.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일본항공 정기편으로 한국으로 봉환됨.

재미국 교민 단체 및 한·미국 간 주요 민간단체 현황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P-6-18 / 11 / 1-58

1976.2월 주미국대사관 및 미국지역 주재 총영사관(주시카고, 주휴스턴, 주뉴욕, 주호놀룰루, 주로스앤젤레스,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이 본부의 지시에 따라 조사한 관할 지역 내 주요 교포단체 및 기타 한·미국 주요 민간단체 현황이 수록됨.

주Los Angeles 한국교민회관 운영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재외국민

MF번호 P-6-18 / 12 / 1-43

1976년도 로스앤젤레스 한국교민회관 구입 및 운영 등과 관련된 내용임.

1. 1976.4.2.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신규 구입한 한국교민회관 내 도서전시실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을 건의함.

- 도서, 전시물, 비용 등으로 약 1천1백40만원 소요

2. 1976.5.21. 한인연합재단 총회가 개최되어 재정보고를 실시함.

- 재정 보고서 수록

3. 1976.9.9. 한인회관 건립 재정이사회가 개최되어 건물 구입에 따른 재정문제를 협의함.

- 구입비 미불입 잔액 6만 달러 각출 문제 협의
 - 총 30만 달러 중 24만 달러 기 불입

4. 1976.10.14. 정부 지원분 5만 달러 완납

재사할린 동포 개별 귀환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6-18 / 13 / 1-106

1976년 중 재사할린(樺太) 한국인의 개별 입국 사례 중 주요 내용임.

1. 1976.6.23.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 관계관이 주일본대사관에 재사할린 동포인 강명수, 황인갑, 백낙도, 안태식의 한국 입국 허용 문의
2. 1976.6.24.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은 외무부를 방문하여 동인들이 소련으로부터 7.5.까지 기한 만료되는 출국 허가를 받고 6.21. 주나호트카 일본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일본 입국 허가를 신청해 왔다면서 7.5. 이전에 동인들의 소련 출국이 가능하도록 한국 정부가 입국 허가를 해줄 것을 요청
3. 1976.6.26. 한국 정부는 동인들의 신원조회 등 절차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 일본 측이 비상 입국 허가해 줄 것을 요청
 - 일본 측은 동인들의 한국 입국 보장이 있을 경우에만 일본 경유 허가 입장
4. 1976.7.3.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동인들의 한국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통고하고, 동인들에게 일본 경유 입국 허가를 부여하여 소련 출국 허가 기한인 7.5.까지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
5. 1976.7.5. 일본 외무성은 동인들에 대하여 주나호트카 일본총영사관에 일본 입국 사증을 발급하도록 지시
6. 1976.7.20. 한국 정부가 동인들의 한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신이 주일본대사관 앞으로 송부됨.
7. 1976.7.23. 한국 정부는 7.5. 이전에 상기 4명의 입국을 허가했음을 통보하고, 주일본대사로 하여금 동인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본 측의 반응을 살피고 보고하도록 함.

최정식 소련 국적 재사할린 동포 귀환

생산연도 1971-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6-18 / 14 / 1-206

1971~76년 중 추진된 소련 국적 재사할린 동포 최정식의 귀환 관련 내용임.

1. 주일본대사관은 1976.2.12. 사할린에 거류중인 최정식이 1944년 일본 정부에 의해 사할린으로 징용된 이후 현재까지 사할린에 거주하면서, 수차에 걸쳐 한국으로의 귀환을 소련 정부에 요청하여 1975.10.28. 출국 허가를 득하고 일본 입국 허가를 신청하여 일본 정부가 이를 검토중임을 보고함.
2. 외무부는 1976.2.18. 최정식의 일본 입국 허가 관련 아래 사항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일본 입국을 조속 허가하도록 교섭할 것을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 동인의 입국허가 및 한국으로의 귀환 진정에 의한 소련의 허가 등은 동인이 일본에 도착할때까지 비공개로 처리
 - 동인은 한국으로 귀환될 것이지만, 잔여 교민의 귀환 및 향후 소련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당기간의 체류사증 발급
3. 최정식은 1976.3.18. 일본에 도착하였으며, 주일본대사관은 동인에 대하여 영주귀국 임시여권을 발급함.
4. 한국 정부는 최정식 귀환 문제와 관련하여 1976.3.25.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간 업무를 조정함.
 - 외무부: 재사할린 교포 귀환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 수립
 - 내무부: 신원조사, 전략심문, 보안교육 등
 - 보건사회부: 국내정착을 위한 구호 대책
 - 법무부: 국적문제, 입국사열 절차 등
5. 최정식은 1976.4.12. 보안관과 동행하여 귀국함.

재사할린 동포 귀환 관련 행정소송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6-18 / 15 / 1-218

1976년 중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재사할린 한국인 귀환 관련 소송 내용임.

1. 1976.2월 주일본대사관은 일본변호사연합회내 사할린 문제 전문분회가 한국인 귀환 문제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동 소장을 영·프랑스로 번역하여 각국 인권기관과 유엔기관에 송부하였음을 보고함.
 - 현재 사할린에 거류중인 한국인 4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일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인이 대리 원고가 되어, 동 교포의 귀환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목적으로 1975.12.1. 일본 정부를 피고로 동경지법에 제소
 - 한국과 소련은 미수교 관계로 송환 교섭이 여의치 않으므로, 사할린 교포는 역사적 배경 등에 비추어 일본이 소련과 교섭하여 왔으나, 소련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음.
2.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변호사 및 학자로 구성된 대표단을 1976.4.27.~5.9. UNHCR(유엔난민기구),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면협회에 파견하여 사할린 한국인의 귀환 문제를 호소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함.
3. 1976.2~11월 간 동 건 관련 행정소송이 5차례 진행됨.

재사할린 동포 귀환 관계 진정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6-18 / 16 / 1-113

1976년 재사할린 동포 귀환 관련 진정서 등이 수록됨.

1. 광복회의 사할린 교포 소환 문제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1976.4.7.)

- 사할린 교포 실태
- 사할린 재류 한국인 귀환을 위한 대일본 정부 행정소송 제기
- 사할린 억류 한국인 소송 실행위원회 발족

2. 사할린 억류 한국인회가 접수한 귀환 희망자들의 진정서와 귀환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한국 정부의 회신이 수록됨.

949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5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6-19 / 1 / 1-354

1976년 사할린 교포 귀환 문제에 관련된 기본문서 내용임.

1. 외무부는 1976.7.22. 재사할린 교포 귀환 문제에 관련된 대일본 교섭 및 정착지원 문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함.

- 한국 입장
 - 일본이 소련 측과 교섭
 - 일본이 귀환 희망자의 입국을 허가하고, 일본 입국 후 정착지 결정
 - 귀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일본 부담
- 일본 입장
 - 한국 정착 희망자를 한국이 인수한다는 사전 보장을 조건으로 소련과 교섭
 - 원칙적으로 일본 정착 불허, 일본 입국 후 정착지 결정은 수용 불가
 - 한국 정착 희망자의 경우에도 한국 정부의 사전 입국 보장 필요
 - 일본 측 비용 부담 곤란
- 소련 태도
 - 일본의 교섭 요청에 부정적, 무반응으로 대응
- 최근 동향
 - 한국이 한국 정착 희망자(39세대 125명)의 사전 입국 보장 조건으로 일본 경유 허가 발급 용의 표명
 - 소련은 표면적으로 냉담하지만, 호전 징후 표출
 - 일본 정착 허가 가능성 존재(1명 허가)

2. 한국 정부는 귀환희망자 52세대 163명 중, 신원조회를 마친 48세대 151명에 대해 입국을 허가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도록 1976.10.21.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5권 (V.2 일본의 재사할린 동포(화태교포) 귀환예정자 통보 I)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6-19 / 2 / 1-239

1976년 재사할린(화태) 동포 귀환예정자 관련 내용임.

1. 일본 소재 '재사할린 억류 한국인 귀환회'는 1976.1월 귀환 희망 사할린 교포 명단을 주일본 대사관에 송부함.
2. 귀환 희망 사할린 교포 명단, 인적사항(조사), 일본의 구상서 등이 수록됨.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5권 (V.3 일본의 재사할린 동포(화태교포) 귀환예정자 통보 II)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6-19 / 3 / 1-134

1976년 재사할린(화태) 동포 귀환예정자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76.8.2. 사할린 동포 귀환예정자(3세대 15명) 명단을 관계부처에 통보함.
2. 주일본대사관은 1976.9.7. 15세대 63명의 귀환 관련 일본 측 구상서를 본부에 보고함.
 - 명단 및 관련 서류 수록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5권 (V.4 귀환예정자 신원조사 결과 I, 1976.6-10)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6-19 / 4 / 1-463

1976.6~10월 재사할린(화태) 동포 귀환예정자의 신원조회 요청과 결과 서류가 수록됨.

- 신원조회 요청
 - 21세대 71명(6.29.)
 - 10세대 24명(6.30.)
 - 19세대 54명(7.19.)
 - 2세대 3명(7.22.)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5권 (V.5 귀환예정자 신원조사 결과 II, 1976.11월-77)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6-19 / 5 / 1-393

1976.11월~77년 재사할린(화태) 동포 귀환예정자의 신원조회 결과 관련 문서철로서
외무부에서 요청한 귀환예정자 신원조회 결과가 수록됨.

- 일부에 대해서는 본적 재확인 요청

베트남(구 월남) 잔류 동포 철수를 위한 대프랑스 협조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P-6-19 / 6 / 1-127

1975~76년 중 프랑스와 협력을 통한 베트남(구 월남) 잔류 동포의 철수와 관련된 내용임.

1.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75.9.16. 한국 동포의 베트남인 가족에 대해 통행허가증(laisser-passer) 및 항공권(비용은 한국이 부담)을 주베트남 프랑스총영사관이 발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문의한바, 한국 정부는 이에 동의함.
2.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75.10월 베트남 체류 한국인 중 여권분실자에 대한 통행허가증 발급 여부를 문의하고, 한국 정부는 이에 동의함.
3. 외무부는 1975.12.10. 한국인의 베트남인 가족 철수와 관련하여 아래 입장을 마련함.
 - 한국인 세대주가 베트남에 잔류하고 있는 경우
 - 한국인 세대주의 진술서에 따라 통행허가증 및 항공권 발급
 - 한국인 세대주가 베트남을 떠난 경우
 - 한국 정부가 명단을 파악하여 프랑스 측에 통행허가증 및 항공권 발급
 - 한국인 세대주로부터 부양의사 및 능력 확인 후 결정
4. 주태국대사관은 1976.6월 주태국 프랑스대사관의 요청으로 재베트남 난민에 대한 출국 사전 승인 요청을 승인함.
 - 13세대 48명(6월)
 - 4세대 12명(7.22.)

76-866

베트남 잔류 동포 태국 도착신고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P-6-19 / 7 / 1-224



1976년 중 베트남(구 월남) 잔류 동포 및 가족의 태국 도착신고서 내용임.

베트남 잔류 이산가족 한국인 현지가족 출국문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P-6-19/8/1-118

1976년 베트남에 잔류 중인 한국인 가족 출국과 관련된 내용임.

1. 주싱가포르대사관 및 주태국대사관 등 주재국 교민 중 베트남 잔류 가족과 합류를 희망하는 교민 및 잔류가족에 대한 조치사항을 외무부에 문의함.

2. 외무부 검토 내용

- 1976.9.6. 베트남 잔류인에 대한 사증 발급 등의 문제 발생으로 베트남 이산가족 재회에 관한 원칙적 결정이 필요
- 11.5. 베트남에 체류하던 한국인 세대주의 소재가 확인되는 경우, 동 세대주에게 현지 가족의 주소를 알려줌으로써 직접 상호 연락을 취하도록 하는 방법 등 논의

베트남 잔류 한국 공관원 및 동포 철수문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P-6-19 / 9 / 1-271

1976년 베트남 잔류 한국 공관원 및 동포 철수 관련 내용임.

1. 국제적십자사는 1976.1월 베트남 잔류 한국인과 베트남인 가족 인수를 서면으로 보장해주는 경우, 사이공-서울 간 특별전세기 운항 문제를 사이공 당국과 교섭 예정임을 알려줌에 따라 한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결정함.

- 당시 공관원 8명, 동포 81명, 베트남인 가족 280명 체류 추정(1.5. 기준)
- 전세기 운항 의뢰
 - 모든 한국인과 가족은 접수
 - 한국인 세대주가 베트남을 떠난 경우, 접수 후 개별적으로 보장
- 프랑스 정부와도 상의

2. 외무부는 1976.8.27. 베트남 잔류자 일괄 철수를 위한 국제적십자사의 전세기 운용 협조 방안을 마련함.

- 국제적십자사가 베트남 측과 협상 중
- 사이공-김해 직접 수송 희망, 어려울 경우 사이공-태국 간 운항 요청

3. 참고자료

- 사이공 잔류 공관원 및 교민의 현황과 구출을 위한 그간의 노력, 성과 및 앞으로의 문제점 (1976.2.12.)
- 국제적십자사로부터 입수한 재베트남 한국인 연고자 명단(3.16.)
- 사이공 잔류 공관원 및 교민 출국 자료(7.29.)

베트남(구 월남) 철수 동포의 제3국 진출(취업)문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P-6-19 / 10 / 1-41

1975~76년 중 베트남(구 월남) 철수 동포의 제3국 진출 관련 내용임.

1. 주태국대사는 1975.8.26. 90% 이상의 재베트남 동포가 본국 귀환이 아닌 제3국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고함.

- 중동으로 출국 대기 중

2. 외무부는 1975.12.19. 이란의 경우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한국에 귀국한 후 정식 취업 절차를 밟도록 계도함.

- 이란의 정식 노동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히 공산국가에서 오는 인력에 대해서는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란 정부의 방침
- 주이란대사관 보고에 따르면, 이란 정부가 이란에 이미 도착한 동포 17명에 대해 노동허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바, 태국에 대기 중인 동포들에게 동 내용 설명

3. 방콕에서 이란으로 향발한 동포 10인의 명단이 수록됨.

4. 사우디아라비아에 취업한 동포 명단이 1975.4.1. 보고됨.

캐나다 내 반한활동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 교민2

MF번호 P-6-20 / 4 / 1-71

1976년 중 캐나다 내 반한활동(친북) 관련 내용임.

1. 주토론토총영사관은 1976.5.21. 토론토 반한 교민들이 한국에서 추방된 George Ogle 목사를 초청하여 한국 비판 강연회를 개최하였음을 보고함.
2. 주캐나다대사관은 1976.6.11. 친북단체의 활동에 대해 보고함.
 - 북한·캐나다 친선협회
 - 캐나다 공산당원이 주도, 활동 전무, 캐나다인 1인 조직으로 전락
 - 조국통일위원회 캐나다지부
 - 일본 밀항을 통해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얻은 전예석이 주도하지만, 캐나다를 방문한 북한인 안내 정도의 역할 수행
3. 반한활동 관련 자료가 수록됨.

재일본 조선인 민주화 촉진 연맹(조민련) 동향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6-20 / 5 / 1-61

1976년 재일본 조민련(조선인 민주화 촉진 연맹) 활동에 관한 내용임.

1. 1975.1월 조민련 결성

- 조총련 내에서 조총련 민주화 주장
- 북한의 무력통일 반대, 김일성 독재 및 신격화 반대 등

2. 조민련 간부는 1976.4.21. 기자회견을 통해 활동을 공식화하고 민족화해 노력을 주장함.

3. 오정태 조민련 위원장은 1976.7.9. 기자회견을 실시함.

- 주요 내용
 -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도보로 행진하는 '평화옹호 도보행진' 제의
 - 동 제안을 조총련, 민단에 서한으로 전달
- 상기 기자회견 이후 반응
 - 한국 정부는 동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회의 소집(7.29.)
 - 이호 재일동포 모국방문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동 제의 수락의사 표명(8.10.)

재일본 반한단체 동향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6-20 / 6 / 1-81

1976년 중 일본 내 반한단체 활동 동향임.

1. 1976.3.22.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와이 아키라(일조노연 및 일조 문화교류협회 대표위원)는 '조선 문제에 관한 대중운동'을 제의함.

- 공명당 노동국장, 공산당 위원장 등에 제의
- 한국의 박정희 정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 중단
- 4~11월 간 한국 문제에 관한 대중운동 전개, 동경에서 대중집회 및 시위

2. 1976.5.27. '조선민족의 통일을 지지하는 회의' 발기인회 발족

- 덴히데오 사회당 의원 주도로 사회당, 공명당 의원 중심
- 순수하게 남북조선의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인사로 구성되었다고 강조

3. 1976.6.21. 이와이가 중심이 된 '조선통일을 지지하는 일본위원회' 정식 발족

4. 참고자료

- 해외 친북단체 활동상(1976.5.25. 외무부 정보문화국)

미국 내의 반한 활동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 교민2

MF번호 P-6-20 / 5 / 1-61

1976년 미국 내 반한 활동에 관련된 내용임.

1. 1975.8.15. '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for Human Right in the R.O.K'가 미국인 James Sinnott 신부 중심으로 결성되고, 11.15. '한국 인권을 위한 북미동맹'이 김재준 목사 등 인사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아래 주요 활동을 계획 및 전개함.

- 주미국 각 공관 앞에서 시위
- 언론에 반한(反韓) 기사 게재
- 미국 의회에서 한국에 불리한 결의안 제출 및 통과 추진
- 한국 내 반정부 조직과 연계

2. Sinnott 신부 등의 활동에 대한 자료집이 수록됨.

- 시카고 회의 참석자 명단
- 동 신부 작성 서신 등

3. 주미국 각 공관별 반한단체 현황 보고서가 수록됨.

문선명 및 통일교회 활동. 전2권 (V.1 1976.1-6월)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복미1

MF번호 P-6-20 / 1 / 1-325

1976.1~6월 중 문선명 및 통일교의 미국 내 활동에 대한 해외 언론보도 및 반응 내용임.

1. 1976.2월 Robert Dole 미국 캔자스 주 상원의원이 주축이 된 300명 이상의 통일교도 부모단체는 성명을 통해 통일교는 사기를 일삼는 위험한 단체라고 비난하며 조사를 요구함.

- 통일교회 회장은 Dole 의원에게 반박 전보 발송

2.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내 유력 언론은 한국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통일교에 특혜를 주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통일교는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보도함.

- 한국 정부의 외교 행낭을 통해 통일교 자금 반입
- 박보희는 대사관 퇴직 후 6년이 경과한 지금도 대사관 고위층과 연락 유지
- 리틀엔젤스 합창단은 한국 정부가 인정한 단체로 해외공연 활동 지속
- 정부의 보호나 지원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국 체제하에서 통일교 번창
- 한국 정부는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통일교의 반공 활동을 지원

3. 1976.6.2. 한국 정부는 상기 보도 등 미국 내 반통일교 문제가 반한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것에 우려 표명

- 미국 내 반한세력은 반통일교 감정에 편승하여 통일교 문제를 반한운동의 새로운 쟁점으로 이용

4. 1976.6.21. 한국 정부는 미국언론이 보도한 통일교와 한국 정부의 관련성에 관한 의혹에 대하여 아래 해명자료를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 외교행낭 및 통신망은 비엔나협약 및 외교관례에 따라 운영하고 사적인 목적의 사용 불가
- 박보희의 대사관 인사 접촉은 순전히 개인적인 친분관계
- 자유아시아방송은 월남전 미군 포로 석방 축구 방송으로 참전국 한국이 이를 성원한 것
- 리틀엔젤스는 아동예술의 발전 보급 기여 및 국위선양을 평가하여 지원한 것

5. 1976.6.22. 프레이저 의원은 통일교와 한국 정부 관계 청문회 개최를 위해 통일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있어 통일교 문제는 미국 의회까지 비화

문선명 및 통일교회 활동. 전2권 (V.2 1976.7-77.1월)

생산연도 1976-1977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P-6-20 / 2 / 1-188

1976.7~77.1월 중 문선명 및 통일교의 미국 내 활동에 대한 해외 언론보도 내용임.

1. 워싱턴포스트

- 1976.7.11. 통일교와 DNB(Diplomatic National Bank) 직접 관련설 보도
 - DNB 주주명단 및 주식 소유 현황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주주 중 상당수가 통일교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 9.4. 미국 이민당국의 외국인 추종자 추방조치 지시 보도
- 9.17. 1면에 통일교의 선교활동과 한국 정부 간 연관성 보도

2. L.A. Times

- 1976.12.4. 문선명 통일교주가 유태인과 유태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 게재
- 12.29. 1면 2단 기사로 미국의 기독교·가톨릭·유태교 지도자가 공동으로 문선명의 통일교를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는 유해한 운동이라고 규탄하는 내용의 기사 보도

3. 1976.10월 Salonen 통일교 회장은 통일교와 한국 정부 간 관계를 비난하는 뉴욕타임즈 기사에 대해 반박 성명 발표

- 통일교는 정치활동이나 로비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와 무관
- 통일교는 모든 국가의 인권탄압에 반대하나, 한국의 반공이념에는 공감
- 리틀엔젤스는 예술 단체이며 통일교와 무관

반한단체 및 재외동포 활동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교민2

MF번호 P-6-20 / 3 / 1-30

- 주캐나다대사는 1976.6월 몬트리올올림픽 및 예선 경기 시 북한 참가자 관련 교민 지도 원칙을 수립하였음을 보고함.
 - 북한 경기에 교민 입장 금지
 - 경기장 내외에서 북한 찬양, 야유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 교민과 북한인 간 접촉 불가

조총련계 인사·학생 북한 및 제3국 방문과 일본 재입국 허가 문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6-20 / 12 / 1-55

1976년 조총련계 인사의 북한 및 제3국 방문과 일본 재입국 허가 문제에 관련된 내용임.

1. 1976.3.18. 외무부는 조총련계 인사의 북한 및 제3국 방문은 정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출국한 조총련 인사의 일본 재입국 허가는 엄격히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주일본대사를 통해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도록 지시함.
2. 1976.3.25. 주일본대사관은 엔도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과의 면담에서 조총련계 인사의 재입국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을 다시 확인하였음을 보고함.
 - 일본 정부는 북한과 정치적 교류를 하지 않으며, 조총련의 정치활동 불인정
3. 한국 정부는 조총련계 인사의 해외 방문 시 사안별로 동인들의 재입국 허가 여부 및 근거에 대해 확인함.
 - 1976.4.20. 조총련계 인사들의 태국 방문
 - 방문 목적: 북한 청소년 축구단 응원 차 태국 방문
 - 일본 측은 동인들의 재입국 허가 명목에 대하여 문화·스포츠 일환으로서 참관단으로 허가한 것이라고 답변
 - 8.7.~14. 조총련계 상공인들의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유럽 방문
 - 방문 목적: 시계 업계 시찰 등 시장조사 목적
 - 한국 측은 일본 정부의 조총련계에 대하여 인도적·문화적 목적의 여행에 한하여 재입국 허가를 부여한다는 방침에 위배되는 점을 지적하고, 경제적 목적의 여행에 대하여도 재입국을 허가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

조총련계 재일본 한국인 모국 방문. 전2권 (V.1 1-6월)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교민1 / 동북아1

MF번호 P-6-20 / 8 / 1-186

1976.1~6월 중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한국 방문 관련 내용임.

1. 설날, 한식, 단오 계기 성묘단 방한

- 구정 성묘단(1976.1.23.~2.6.)
 - 7개 지역 1,631명
 - 국립묘지 참배, 불국사 및 울산 공업단지 견학
- 한식 성묘단(1976.4.1.~28.)
 - 1,119명
 - 부산역에서 해산, 고향방문
- 단오 성묘단(1976.5.26.~6.10.)
 - 254명

2. 7·4 남북 공동성명 제4주년 계기 빈곤자 모국 방문 계획

- 민단계 빈곤자 및 조총련계 재일동포
- 경비는 재일교포 모국방문 돕기 성금 사용

3. 모국방문 추진위원회가 지역별로 결성

- 가와사키(상록회)(1976.2.8.)
- 동경(모국방문추진위원회)(4.25.)
- 오사카(정로회)(5.16.)
- 나고야(모국방문추진위원회)(6.3.)

조총련계 재일본 한국인 모국 방문. 전2권 (V.2 7-12월)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교민1 / 동북아1

MF번호 P-6-20 / 9 / 1-269

1976.7~12월 중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한국 방문 관련 내용임.

1. 모국방문추진 중앙연합회 결성(1976.7.4.)

- 동경의 모국 방문 추진위원회 등 7개 단체 참여
- 성명서, 결의문 발표

2. 추석 성묘단 방한(1976.8.27.~9.14.)

- 3,279명

3. 기후현 민단지방본부는 조총련계 모국방문추진위원회 결성(1976.10.24.)

4. 모국방문추진위원회 결성현황(1976.12.10. 기준)

- 총 25개(중앙 1개, 지방 24개)

5. 참가자 명단 등 수록

조총련 동향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6-20 / 10 / 1-18



1976년 중 조총련의 동향임.

1. 민주구국선언 발표(1976.4.15., 오사카)

- 한덕수 참석, 기자회견 개최

2. 조총련 학생부가 반한 전단 살포(1976.4.19., 나고야)

- 행인들은 냉담한 반응

3. 조총련 21주년 기념대회 개최(1976.5.25., 오사카)

- 한덕수 기자회견 개최
 - 북한·일본 어업협정 추진
 - 박정희 정권 탄압 반대 주장 등

4. '6·25 동란 행사' 개최(1976.6.25., 동경)

- 사회당 의원 등 3명이 찬조 연설

조총련의 재일본 한국인 납치사건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 교민1

MF번호 P-6-20 / 11 / 1-228

1976년 중 발생한 조총련의 재일본 한국인 납치 관련 내용임.

1.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모국방문과 관련하여 조총련계 중학생 강영희(14세)가 1976.9.2. 하네다 공항에서 조총련에 납치, 조총련 초중급학교 교무실에 감금되었다가 9.11. 오빠와 함께 모국을 방문한 사건 발생

- 주일본대사와 민단 중앙의 조총련 활동 규제 촉구
- 일본 측은 동인이 친구와 함께 하네다 공항을 나왔기 때문에 납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2. 모국 방문을 위해 한국 임시여권을 발급받은 조총련 간부 어당(魚塘)이 1976.9.19. 조총련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9.20. 귀가한 사건 발생

- 윤하정 외무부차관(장관대리)은 9.21.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일본 정부의 강력한 조총련 규제를 촉구
- 박동진 외무부장관은 10.8.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하고 어당 신변보호 및 복송 저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협력 요청
- 어당의 한국 거주 동생(어영)이 일본을 방문, 어당을 2회 면담하고 경찰 수사 의뢰

97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볼리비아 이민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교민2

MF번호 P-6-20 / 13 / 1-5

주볼리비아대사관은 1976.11.26. 이민 초청 관련 아래와 같이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보고함.

1. 이민으로 야기되는 문제점

- 주재국 희망(농촌, 산업 이민)과 달리 도시거주, 제3국으로 가기 위한 경유 목적
- 불법 초청장 거래
- 밀수 개입

972

2. 이민실시과정에서의 문제점

- 이민 브로커의 활동
- 공관 확인 없는 서류의 범람으로 공관 공신력 저하

3. 건의

- 초청장 발급 시 공관과 사전 협의
- 현지사정에 대한 사전 교육
- 정부허가 알선업체가 기업이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 적극적인 이민정책 수립 필요

4. 이민 알선인(한국인) 명단 수록

우루과이 농업이민, 1973-74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P-6-20 / 14 / 1-22

1973~74년 중 우루과이 농업이민 추진과정에 관한 내용임.

1. 우루과이 농업이민 추진 경위

- 1973.3.27. 우루과이 정부는 18세대 82명의 한국인에 대해 농업이민 입국을 허가함.
- 1973.10.29. 주우루과이대사는 주재국 경제 상황 및 지원 빈약을 이유로 세대당 1만 달러 이상의 정착 자금 지원 없이는 농업 이주가 어려울 것이므로 이민 송출보류를 건의함.
- 1973.10월 주한 우루과이대사 및 이주 희망자 대표의 진정으로 대우루과이 이민이 재추진됨.
- 1973.12.6. 외무부는 주우루과이대사의 건의에 따라 이민 허가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와 교섭하고, 기 허가한 18세대 이민 계속 추진을 결정함.
- 1974.1월 주우루과이대사는 보류 입장을 견지하면서 농업조사단 파견을 건의함.

2. 우루과이 이민 문제 협의를 위해 공화당·정부 간 연석회의 개최(1974.7.9.)

- 의제: 대남미 이민 추진 문제
 - 정일권 국회의장의 남미 방문 결과에 따른 의견 교환
- 참석자: 공화당, 정부, 언론계 인사 다수
- 회의 결과
 - 다수의견은 대남미 집단 농업이민 추진이 타당
 -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조사단 파견 필요성 강조
 - 이민 전담기관 설치 필요성 제기

3. 주한 우루과이대사관은 1975.1월 공한을 통해 지난 1973.3월 최초 이민 허가 이후에 추가로 승인한 이민단 현황을 아래와 같이 밝히면서 최소한 400명의 한국이민 접수를 희망한다고 언급

- 1974.5.30.자로 허가한 160명
- 1974.8.20.자로 허가한 64명(성인남자 및 세대주)

우루과이 농업이민, 1975-76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P-6-20 / 15 / 1-199

1975~76년 중 우루과이 농업이민에 관한 내용임.

1. 주우루과이대사는 1975.5월 농업이민단 정착 경과를 보고함.

- 3.20. 우루과이 한국 이민단 현지 도착
- 5.7. 22.6ha 규모의 정착 농장 가계약
- 5.25. 계약과 동시에 입주 예정으로 기존 건물 보수 중

974

2. 우루과이 이민청장 및 법률고문은 1975.9.16. 한국 농업이민단 정착지를 시찰함.

- 영농계획, 세대별 노동력, 영농자금 보유 현황 등 점검
- 12월경 재시찰 예정 언급

3. 주우루과이대사는 1975.11.25. 농업이민 조사단 파견을 요청함.

- 농업이민단 제1진의 정착상황 시찰, 문제점 검토 및 지원방안 모색 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사단 당지 방문 필요

3. 한국 정부는 1976.1월 외무부, 보사부 등 관계부처 과장급으로 구성된 남미 농업이민 조사단을 파견함.

- 농장 시찰 및 영농 교육실시(1.2.~4.)
- 농장개발문제에 관한 간담회(1.4.)
- 우루과이 내무성 법률고문 및 이민청장, 척식청장 면담(1.5.)
 - 우루과이 측, 산업시설 및 농장경영 목적의 이민만 접수하고 있음을 강조

브라질 거주 한국인 불법체류 문제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중남미 / 교민2

MF번호 2008-85 / 9 / 1-199

1973~76년 중 브라질 내 한국인 불법체류와 관련된 내용임.

1. 파라과이에서 브라질로 불법 입국하는 한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체류 문제 발생
 - 주상파울루총영사 등이 대책 마련 건의
 - 1976.8.19. 청와대 회의 개최
2. 주상파울루총영사는 1976.9.14. 브라질 내 한국인 불법체류 관련 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주재국 수사당국은 밀입국 교포단속 강화
 -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악화
 - 주재국 이민정책 완화 시까지 인도적인 견지에서의 존비속 및 배우자 이민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이민 중지 건의
3. 주상파울루총영사관은 1976.9.29. 불법체류 한국인 실태를 보고하고, 불법체류 교민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비 지원을 요청함.
4. 한국 정부는 1976.11월 불법체류자 문제처리를 위한 경비를 지원함.

중국(구 중공) 유조선의 표류 한국 소년 구조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P-6-20 / 16 / 1-24

1976.10월 중국(구 중공) 유조선이 표류 중이던 한국인 소년을 구조함.

1. 1976.10.7. 중국적 유조선 금호호는 제주도 동남방 약65마일 지점에서 한국인을 구조
 - 한국인(황인성, 17세)이 탑승한 낚시 배가 대해(大海)로 표류
2. 1976.10.10. 금호호는 동인을 일본 홋카이도 도마코마이항에서 입관 출장소에 인계, 보호 요청 조치
 - 일본 당국 10일 체류기간 부여
3. 1976.10.15. 대한적십자사 명의의 감사 전문을 중국 홍십자회에 송부

한국 어선의 중국(구 중공) 어선 및 선원 구조

생산연도 1971-1973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P-6-20 / 17 / 1-61

1971~73년 중 한국 어선이 중국(구 중공) 표류어선 및 선원을 구조한 내용임.

1. 한국 어선 복수호가 1971.5.9. 소흑산도 서남방 60마일 해상에서 표류하던 중국 어선 흥기 2호를 소흑산도에 예인함.
 - 동 중국 어선은 기상이 호전된 후 5.11. 공해상에서 귀환
2. 한국 어선 진명호가 1973.5.1. 소흑산도 서남방 135마일에서 침몰한 중국 어선 차병어 111호의 어부 8명을 구조하여 5.2. 다른 중국 어선 차상어 213호에 인도함.

중국(구 중공)의 한국 어선(취성호 및 정신호) 나포 사건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P-6-20 / 18 / 1-246

1976년 중 중국(구 중공)의 선박이 한국 어선(취성호 및 정신호)을 나포한 사건 관련 내용임.

1. 중국 정부는 1976.6.11. 신화사 통신을 통해 4월 말 이래 한국 어선들이 공공연히 중국 영해와 어로금지 구역을 침범하고 어구파괴 등 해적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한국 측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2. 1976.6.11. 및 6.13. 한국 어선 2척이 동지나해 공해상에서 조업 중 중국 선박에 의해 피랍되는 사건 발생

- 외무부는 6.19. 유감표명 및 납치된 어선과 어부 전원의 즉각 석방 요구,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외국 어선에 대한 일방적인 어로규제 조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천명
 - 한·중국 간 조업질서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약정마련 촉구
- 중국 외교부 정보국 관계자는 6.20. 한국 어선들이 중국의 영해를 침범하고 주권을 침해하여 나포했음을 공식 확인하고, 장기간 억류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

3. 1976.6.22. 및 6.23. 납치된 한국 어선 2척이 어부 전원과 선체 이상 없이 인천항에 귀환함에 따라 외무부는 6.24. 대변인 논평 발표

- 한국 어선 2척이 중국에 의해 석방되고 귀국 항해 중에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
- 공해상에서의 어로 자유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이들 어선이 입항하는 대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포함한 필요 조치를 강구할 예정

한·일본 선박 충돌 침몰사건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6-20 / 19 / 1-91

1974년에 발생한 한·일본 선박 충돌 사건에 관한 1974~76년 중 양국 교섭 내용 및 해난심판 결과임.

1. 주일본대사는 1974.6.30. 일본 외무성이 한·일본 양국 선박 충돌 사고를 통보해 왔다고 보고함.

- 6.29. 홋카이도(北海道) 앞 해상에서 고려원양 소속 어선이 일본 어선과 충돌하여 침몰
- 인명피해: 사망 3명, 실종 20명, 생존 28명

2. 외무부는 1974.7.1. 주일본대사 및 주삿포르총영사에게 선원 수색구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충돌사고 발생에 관한 일본 측 책임 입증자료 수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함.

- 일본 측 수색결과 실종자 미 발견, 7.3. 수색작업 종료 후 철수
- 생존자 28명과 사망자 3명 유해는 7.2. 부산으로 귀항
- 보상조치
- 고려원양은 일본 측과 양 선박이 가입한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 측 손해 해결에 원칙 합의
- 일본 정부는 7.5. 주한 일본대사의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동 사고에 대해 유감표명 및 희생자와 유족에 조의 표시

3. 주삿포르총영사는 1975.5.23. 및 12.13. 상기 한국 어선 충돌사건 해난심판 결과를 보고함.

- 하코다테(函館) 해난심판소는 일본 어선 사고선장에게 1개월 업무중지 조치 판결
- 선장의 선원 감독 불충분과 조작 불충분을 지적
- 고등심판소는 일본 어선의 과실을 인정, 냉동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 선장은 직접 책임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

4. 한국 중앙해난심판원은 1976.1.30. 외무부에 상기 어선충돌사건 재결서(1974.10.18. 재결) 송부

- 일본 어선의 운항 상 과실 인정
- 무중항법 위반 주의의무 불이행

일본 밀입국자 및 불법체류자의 강제 퇴거(송환) 등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P-6-21 / 1 / 1-175

1975~76년 중 일본 밀입국자 및 불법체류자의 강제 퇴거(송환) 관련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양국간 교섭 내용임.

1. 외무부는 1976.3.3. 주일본대사에게 재일본 한국인 강제송환에 관한 일본 측 비망록 내용 중 법적지위협정 일부 조항 해당자 및 불법입국자, 협정영주권 미신청자 구제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구두 통보할 것을 지시함.

- 일본 측은 인도적 고려를 강조하고, 강제송환 결정자는 협정의 기본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 협정영주권 신청기간 연장 문제, 재일본 한국인 경제적 지위향상 및 대우개선 조치는 검토 약속

2. 외무부는 1976.5.26. 일본 출입국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 문제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함.

- 이나바(稲葉) 일본 법무상은 5.19. 외국인의 체류관리 업무의 합리화 및 개선을 위해 일본 출입국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사 표명
- 동 방침은 종전부터 제기되어 온 출입국관리 행정의 현안 문제를 재천명한 것에 불과하며, 일본 측 방침을 예의주시, 적절히 대처할 계획

3.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법무성 경비과장 방한(1976.7.20.~23.)

- 밀입국자 및 불법체류자의 강제송환 문제 등 현안 협의 목적
- 한국 측, 재일동포 법적지위 향상과 권익옹호 문제 병행 토의 요청

4. 외무부 동북아1과장은 1976.8.20.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을 면담하고,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외무당국 간 협의를 제의함.

- 일본 측은 협정영주권 미신청자에 대해 협정개정 없이 실질적으로 협정 영주권자와 유사한 지위제공 방안 검토 용의 표명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78차. 1976.2.24.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P-6-21 / 2 / 1-422

1. 일본 법무성은 1975.12.10. 주일본대사에게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체포된 한국인 대상 제78차 강제송환 일정을 제의함.

- 주일본대사는 1976.2.6. 일본 법무성과의 강제송환대상자 예비절충 결과를 보고함.
 - 송환보류 63명, 송환 207명 결정
- 법무부는 2.13. 외무부에 제78차 강제송환 관련 의견 통보
 - 송환보류예정자 63명 및 재청훈자 3명 등 총 66명 송환보류 조치 요청
 - 영주권자의 가족 등

2. 주일본대사는 1976.2.17. 외무성과 절충한 후 2.24. 제78차 강제송환 최종결과를 보고함.

- 송환 확정자 중 아래 대상자를 제외한 193명은 2.24. 오무라(大村)항을 출항, 2.25. 부산항 도착 예정
 - 강제퇴거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강제퇴거령 집행정지 결정자 4명
 - 자비귀국자 16명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79차. 1976.7.21.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P-6-21 / 3 / 1-353

1. 일본 법무성은 1976.6.1. 주일본대사에게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체포된 한국인 대상 제79차 강제송환 일정을 제의함.

- 주일본대사는 6.30. 일본 법무성과의 강제송환대상자 예비절충 결과 보고
 - 송환보류 60명, 송환 163명 결정
- 법무부는 7.5. 외무부에 제79차 강제송환 관련 의견 통보
 - 송환보류 60명 계속 송환보류 유지
 - 송환 합의자중 6명에 대해 송환이 제외되도록 조치 요망

982

2. 주일본대사는 1976.7.12. 외무성과 절충한 후 7.16. 제79차 강제송환 최종결과를 보고함.

- 송환 확정자중 아래 대상자를 제외한 173명은 7.21. 오무라(大村)항을 출항, 7.22. 부산항 도착 예정
 - 강제퇴거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강제퇴거령 집행정지 결정자 3명 및 자비 귀국자 1명 제외
 - 강제퇴거령 집행정지처분 기각 판결자 1명 추가 송환 결정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80차. 1976.11.25.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P-6-21 / 4 / 1-333

1. 일본 법무성은 1976.9.17. 주일본대사에게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체포된 한국인 대상 제80차 강제송환 일정을 제의함.
 - 주일본대사는 11.10. 일본 법무성과의 강제송환대상자 예비절충 결과를 보고
 - 송환보류 65명, 송환 164명 결정
 - 법무부는 11.13. 외무부에 제80차 강제송환 관련 의견 통보
 - 송환 합의자 164명 수용
 - 송환 보류자 65명중 1명은 송환 수용
2. 주일본대사는 1976.11.15. 외무성과 절충한 후 11.22. 제80차 강제송환 최종결과를 보고함.
 - 송환 확정자 중 아래 대상자를 제외한 167명은 11.25. 오무라(大村)항을 출항, 11.26. 부산항 도착 예정
 - 재일본 가족상황 등을 고려 2명 제외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에 대한 한·일본 간 협의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2007-67 / 11 / 1-246

1. 일본 외무성은 1975.12.3. 주일본대사관에 재일본 한국인 강제송환에 관한 비망록(備忘錄)을 전달하고, 한국 측이 밀항자, 범법자 중 강제송환 대상으로 결정한 자 등의 인수를 요망함.
2. 1975.12.3. 주일본대사관 관계관과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 간의 협의 등을 거쳐 외무부는 1976.1월 재일본 한국인의 강제퇴거 문제에 관해 검토한 후 아래 대책 수립
 - 일본 측의 비망록에 대한 한국 측 대응방안
 - 불법입국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원인수를 원칙으로 해 왔으며, 다만 한·일본 실무자회의 및 국교정상화 이전 밀항한 장기체류자로서 정상참작을 요하는 소수 대상자에 대해 일본 측의 타당한 고려 계속 요청
 - 협정영주권자 중 범법자에 대해 인도적 고려대상자로 계속 취급해 줄 것을 요청
 - 극히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인수방침 전달
 - 동 비망록에 대한 회답은 주일본대사관 정무담당 참서관급 이상 직원이 구두로 통보
 - 상기 비망록 답변과는 별도로 복지향상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호의적 고려 재차 촉구

한국 어선의 뉴질랜드 해역 [쿡아일랜드] 침범 및 조치 문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영사 / 서남아

MF번호 P-6-21 / 5 / 1-109

1975~76년 중 한국 어선의 뉴질랜드 자치령 쿡아일랜드 영해 침범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간 교섭 내용임.

1. 뉴질랜드 외무성은 아래 외교경로로 한국 어선의 뉴질랜드 해역 쿡아일랜드 영해 침범사건에 대해 강력 항의함.

- 뉴질랜드 외무차관이 1975.8.29. 주뉴질랜드대사에게 항의 구술서 전달
- 뉴질랜드 정부는 1976.3.19. 한국 어선 영해 재 침범 통보 구술서 수교
- Scott 뉴질랜드 외무성 차관보는 4.2. 주뉴질랜드대사관 참사관에게 강력 항의

2. 외무부는 1975~76년 수산청에 쿡아일랜드 영해침범 사건에 대해 엄중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수산청은 외무부에 관련 조치내용을 수시 통보함.

- 외무부는 1975.9.8. 수산청에 관계회사 엄중조치 요청 및 조치내용 회보
- 수산청은 9.19. 관계회사 침범사실여부 조사, 11.18. 선장 소환 출두 지시
- 외무부는 1976.1.7. 수산청에 영해침범 사건 재발 시 한·뉴질랜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전달
- 수산청은 1.13. 원양어업협회로 하여금 원양 각사에 경고하도록 조치
- 외무부는 4.2. 수산청에 영해침범 한국 어선에 대한 엄중한 지시 하달 요청
- 수산청은 4.7. 외무부에 관련 조치내용 회보
 - 영해침범 어선에 대해 영업정지처분, 선장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 뉴질랜드 근해 출어어선에 대해 여사한 침범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및 행정지도 지속
- 수산청은 5.1. 한국원양어업협회를 통해 전 원양업체에 대해 쿡아일랜드 영해침범 조업이 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조치
 - 외국 영해에 무단체류, 정박하거나 조업 등 사실 확인, 당해선박 및 소속업체에 대해 출어 자금 지원제한, 행정지원 중단 등 필요조치 예정

일본지역 재외공관 기증재산 현황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

MF번호 P-6-22 / 2 / 1-44

1. 외무부는 1976.11.3. 주일본 주재 재외공관에 청사, 관저, 차량 및 기타 주요재산 등 재외공관 보유 기증재산 현황 보고를 지시함.
2. 주일본대사, 주고베총영사, 주나하영사, 주삿포로총영사, 주센다이영사, 주요코하마총영사, 주오사카총영사, 주후쿠오카총영사, 주나고야총영사, 주시모노세키총영사 등은 1976.11~12월 기증재산 현황(기증자, 기증시기, 경위 등)을 각각 보고함.

재외공관 건물 국유화 계획

생산연도 1970-1976

생 산 과 기획예산담당관

MF번호 P-6-22 / 1 / 1-108

1970~76년 중 한국 정부의 재외공관 건물 국유화 계획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는 1973.9.6.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재외공관 청사와 관저 국유화 계획을 수립함.

- 국유화 추진 경위
 - 1973.9월 대통령의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 국유화 추진지시에 따라 1974~78년간 5개년 계획 수립
 - 1974.6.19. 국무총리 지시사항: 경제기획원은 1975년부터 매년 재외공관 건물확보 재원으로 250만 달러 계상, 외무부는 동 예산 범위 내에서 공관건물 확보 및 상황계획 수립, 재무부는 소요자금 융자조치
- 국유화 필요성
 - 북한과의 외교경쟁에서 우위확보, 물가상승 및 부동산 시세 급등에 대처, 비밀보안, 임차료 절약
- 국유화계획 선별기준
 - 거점공관, 북한 대치공관 우선
 - 청사보다 관저 우선
 - 공관급 순위는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순 원칙
 - 기타 주재국의 정치정세 안정도, 부동산 시세변동, 임차료 증가 추세, 주택사정, 금융사정 등 경제적 여건 감안
- 국유화 제1차 5개년 계획
 - 총 소요예산은 약 1,162만 달러
 - 연도별로 순차 구입

2. 외무부는 상기 5개년 계획에 따라 국유화 사업을 추진함.

- 1974년
 - 주브라질대사관 등 6개 공관 청사 3개, 관저 3개 구입
 - 총 예산 약 760만 달러
- 1975년
 - 주태국대사관 관저 등 4개 구입
 - 총 예산 약 191만 달러
- 1976년
 -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관 등 8개 공관 청사 6개, 관저 3개, 부지 1개 등
 - 총 예산 약 1,167만 달러
- 1977년
 - 주미국대사관 부지매입, 주일본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비 등
 - 총 예산 약 377만 달러

주일본대사관 관저 구입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기획예산담당관 / 동북아1

MF번호 P-6-22 / 3 / 1-272

1973~76년 중 추진된 주일본대사관 관저 구입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70년부터 주일본대사관 관저 구입 계획을 추진함.

- 관저 개요
 - 동경도(東京都) 미나토구(港區) 소재 대지 약 1,000여 평, 건물(주택 및 차고) 약 200평
- 국유화 추진 동기
 - 재일동포 기업가 서갑호 명의로 동 관저 구입 대금을 은행융자(약 2억 8,540만 엔)하여 동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일본대사관이 동 채무를 변제하는 동시에 소유권을 주일본대사관으로 명의 이전한다는 쌍무계약(1970.6.23.)에 따라 주일본대사관이 원금 및 이자상환 중
 - 서갑호의 도산으로 인해 서갑호 명의 주일본대사관저를 채무자에게 차압당할 우려가 있어 국유재산으로 소유권 등기이전(명의변경) 완료(1975.6.17.)

2. 외무부는 1975.9.19. 대사관저 소유권 등기이전과 관련하여 일본 국세청 당국에 특별토지보유세 및 고정자산세의 면세를 신청하고 결과 보고를 지시함.

3. 주일본대사는 1976.11.11. 및 12.7. 대사관저 자산세 면세심사 청구결과를 보고함.

- 대사관저 및 건물 명의이전에 따른 1975년도 분 특별토지보유세에 대해 관할세무서의 기각 통지서 접수
- 고정자산세도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일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면세 불가

북한·방글라데시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D-6-22 / 3 / 1-134

주방글라데시대사관의 1976년 중 북한·방글라데시 관계 동향 보고임.

1. 방글라데시 언론은 1976.2.8. 북한군 창설관계 북한선전 기사를 게재함.
2. 방글라데시 탁구팀은 1976.4.25. 평양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에 참석함.
3. 북한·방글라데시는 1976.6.16. 민간항공 양해각서를 체결함.
4. 허담 북한 외상은 1976.6.18. 방글라데시 친선대표단을 면담하고, 환영연회를 주최함.
5. 이종목 북한 외무차관은 비동맹 정상회의 대비 지지 교섭 차 1976.7.6.~10. 방글라데시를 방문함.
6. 방글라데시 언론의 1976.8.18.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보도에 대해 북한 측은 9.4. 주방글라데시 대사관에 대해 제3국 규정에 따르는 조치를 요청하는 구술서를 방글라데시 외무성에 제출함.
7. 방글라데시·북한은 1976.10.26. 문화협정에 서명함.

북한·베네룩스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D-6-22 / 4 / 1-192

1976년 중 북한의 베네룩스 3국(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을 대상으로 한 외교관계 수립 시도 동향 등에 관한 내용임.

1. 북한·벨기에 관계 주요 동향

- 주제네바 북한대사는 1976.1월초 북한·벨기에 간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함.
- 김관섭 북한 인민회의최고회의 의원 등 정당대표는 2.12.~20. 벨기에를 방문함.
- 레오나르도 벨기에 사회당 제1비서는 5.25.~6.1. 평양을 방문하고, 김일성 북한 주석을 면담함.
- 벨기에 공산당 및 사회당 후원으로 6.15. 브뤼셀에서 양국간 단합대회 개최
 - 외무부는 동 대회 목적을 북한 선전과 북한 지지 세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북한·벨기에 간 공식관계 설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평가
- 이종혁 북한 사절단장 등 일행은 6.15. 및 6.17.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선전 및 남한을 비난하는 정치적 선전을 시행함.
 - 한국 측이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전쟁준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외국군 철수 등을 주장

2. 북한·네덜란드 관계 주요 동향

- 주제네바 북한대사는 1976.1.6. 주제네바 네덜란드대사에게 국교교섭을 위한 네덜란드 방문을 요청함.
 - 네덜란드 정부는 동 교섭이 불필요하다고 결정, 주제네바 네덜란드대사에게 훈령
- 김관섭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연락위원장 등은 3.2.~5. 네덜란드를 방문함.
 - 네덜란드 공산당회의 참석 및 공산당원과 면담하고 한반도 전쟁위험고조 상황 비난
- 북한 정부는 10.22.~23. 네덜란드 일간지에 민족분열을 방지하고 조국을 재통일하자는 제목의 김일성 광고를 게재함.
- 네덜란드 현지 언론은 11.19. 북한이 네덜란드로부터 도입한 어선을 군함으로 개조했다고 보도함.
 - 한국 정부는 동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 평화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의견을 피력함.

3. 북한·룩셈부르크 관계 주요 동향

- 북한·룩셈부르크 친선협회 결성
 - 1974년 공산주의자 주동으로 결성된 바 있으나, 1976년 현재 유명무실
- 김관섭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연락위원장은 1976.3.7.~9. 룩셈부르크를 방문함.
- 주제네바 북한대사는 4.30. 룩셈부르크 외무성 정무국장을 면담하고, 외교관계 수립과 무역협정 체결을 제의하였으나, 룩셈부르크 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북한·차드 관계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D-6-22 / 5 / 1-46

1973~76년 중 북한의 차드 수교 교섭 활동 관련 내용임.

1. 북한의 차드 수교 교섭 활동

- 주콩고 북한대사 차드 방문(1974.6.3.~4.)
 - 차드 대통령에게 김일성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간 우호협력강화 방안을 협의
- 공진태 부총리 등 북한사절단 차드 방문(1975.7.20.~22.)
 - 북한·차드 간 외교관계 수립 제의
 - Malloum 국가원수는 확답하지 않고 양국관계 증진 희망만 표시
- 김명수 외교부 부부장 차드 방문(10.18.~21.)
 - 양국간 유대 강화방안 협의
- 주콩고 북한대사 차드 방문(1976.7.19.)
 - 콜롬보 비동맹 회의 및 1976년 유엔총회에서 북한 지지 요청
- 차드 외상 북한 방문(11.2.~6.)
 - 김일성 예방 및 외상회담
 -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 차드의 당면 현안 문제인 빈곤탈피를 위한 농업정책 강화 등을 감안할 때, 동 협정을 기반으로 한 북한의 대차드 지원이 적극화될 것으로 예상

2. 한국 정부의 북한·차드 수교 저지 활동

- 주프랑스공사 차드 방문(1973.7.8.~11.)
 - 톰발바이 대통령 면담
 - 방문 결과: 북한 승인을 보류한다는 동 대통령의 입장 확인
- 주카메룬대사 차드 방문(1974.1.18.~22.)
 - 톰발바이 대통령 면담
 - 방문 결과: 동 대통령의 중국(구 중공) 방문 시 원조 수령 대가로 북한 접수 가능성이 있다고 관찰
- 주카메룬대사 차드 방문(1976.11.5.)
 - Kamougue 외상의 북한 방문에 대해 유감 표명
 - 동 외상의 방한 건 협의

북한·코스타리카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D-6-22 / 6 / 1-70

주코스타리카대사관의 1976년 중 북한·코스타리카 관계 동향 보고임.

1. 하바나-산호세 정기항로(직항) 개통

- 스페인 국영 항공사 Iberia는 1976년 초부터 마드리드-하바나-산호세 정기항로를 개통하고 취항 횟수를 늘림.
 - 중남미 카리브지역의 북한 최대 집결지인 하바나로부터 코스타리카에 대한 북한 침투 경로가 용이하게 됨.

2. 코스타리카 대통령 북한 단교 언급

-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1976.7.26. 기자회견에서 국내 파업에 관여하고 있는 친북한 단체나 인사 배후에 대한 북한의 재정적 지원 등의 사실이 판명되면 즉시 단교할 것이라고 언급

3. 코스타리카 의원단 북한 방문

- 주아르헨티나 북한대사는 1976.6월 코스타리카 의원단의 북한 방문을 요청함.
 - 9.6. 의회에서 기각되었으나, 9.16. 방문 대상국에 북한과 핀란드 추가
- 주아르헨티나대사는 9.17. 의회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의원단의 북한 방문 저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함.
 - 의장은 의회의 의결 없이는 의원 공식자격으로 외국방문은 불가하나, 개인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의회로서 금지하기는 곤란하다고 언급
- 코스타리카 여야의원 4명 북한 방문
 - 동구권(소련, 체코) 방문차 출국(1977.5.19.~6.17.) 중 북한 방문
 - 의회는 일부의원들의 북한 방문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며, 주재국 의회와 북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어떠한 관계도 원치 않는다고 해명

4. 주코스타리카대사는 1976.10.4. Mora 공산당 의원과 면담함.

- 동 의원은 같은 공산당으로 북한 노선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으나, 소위 주체사상을 포함한 몇몇 정책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언급

북한·중국(구 중공)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D-6-22 / 7 / 1-64

1976년 북한·중국(구 중공) 관계 동향임.

1. 중국·북한 간 상호물자교환 의정서가 1976.2.9. 평양에서 체결됨.
2. 중국 전인대(全人代) 상무위원회는 1976.3.13. 북한 지지 서한 발송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3.4. 각국 국회와 정부에 남한에서의 미군철수와 북한의 평화 통일정책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데 대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북한 측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요지의 회신 발송
3. 김일성 북한 주석은 1976.6.8. 중국 운남성 지진피해 위로전문을 발송함.
4. 모택동 중국 주석은 1976.7.11. 중국·북한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체결 15주년 기념 메시지를 전달함.
 - 독립과 평화적 통일을 위한 북한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며, 두 개의 한국 비난
 - 양측은 상호 친선사절단을 파견, 경축활동에 참가
5. 북한 측이 1976.8.5. 유엔사 해체, 남한에서 미군철수, 2개의 한국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중국 정부는 8.15. 동 성명에 대한 지지논설 게재
6. 김일성 북한 주석은 1976.9.29. 여지선 신임 주북한 중국대사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접견함.
 - 김일성 주석은 모택동 서거에 애도의 뜻 표명
 - 여지선 대사는 사의를 표하고, 중국 인민은 모택동의 유지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
7. 외무부는 1976.10.29. 모택동 중국 주석 사후 중국·북한 관계를 분석함.
 - 모택동 사후 중국·북한은 겉으로는 친선단결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양국간 긴밀했던 관계가 다소 해이해진 것으로 관찰
 - 북한은 모택동 사후 중국에 나타날 권력체제 판단에 차질을 일으켜, 대중국 태도에 일관된 입장 미표명
 - 중국의 대북한 태도는 종전의 적극 지지 입장에서 약간 후퇴한 것으로 관측

북한·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D-6-22 / 8 / 1-75

1976년 북한·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관계 동향임.

1. 콩고민주공화국에 주둔하던 북한 군사고문단이 1976.3.26. 철수함에 따라 외무부는 4.14. 안보대책회의에서 양국간 관계 및 한국 정부의 대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함.
 - 콩고 주둔 북한 군사고문단의 1975.12월 콩고 철수 시 Kitona에 잔류했던 군사고문단 20명이 1976.3.26. 추가 철수함으로써 콩고 주둔 북한 군사고문단 450명 전원 철수한 것으로 판단
 - 1975.11월 북한의 MPLA(앙골라해방인민운동) 승인으로 FNLA·UNITA(앙골라민족해방전선·앙골라완전독립민족동맹) 연합군을 지원한 콩고와의 관계 소원이 주원인으로 분석
 - 북한의 대콩고 군사적 지원 실패를 고려하여 한국은 의약품지원, 의료단 파견 등 인도적 견지에서 협력강화가 바람직
2. 1974.12월 모부투 콩고 대통령은 평양 방문 시 김일성과 면담을 통해 의료단, 농업기술전문가, 군사고문단, 기술고등학교 건립 기술자단, 여성 자수전문가단, 집단체조단 파견 등 북한의 대콩고 원조에 대해 합의함.
 - 주콩고대사는 1976.8.18. 보고에서 상기 합의 사항과는 별도로 북한이 콩고에 대하여 소년 인민 궁전 건립 기술자 4명과 항만 건설 원조를 지원하고 있음을 언급함.
3. 주콩고대사는 1976.8.16. 콩고 대외정보 책임자로부터 콩고·북한 관계 보고서 사본을 입수하고, 9.20. 외무부에 한국 측이 파악하고 있지 않던 아래 3가지 내용을 보고함.
 - 북한은 약 700만 달러 규모의 대콩고 군사원조 약속(무이자 20년 상환조건)
 - 상기 군사원조는 1974.12월 모부투 대통령의 평양 방문 시 체결된 양국간 군사협정에 의거 실시
 - 북한의 지지 요청에 따라 1975.8월 리마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모부투 대통령은 북한의 비동맹 회의 가입을 적극 옹호 지지
4. 주콩고대사관은 1976.12.9. 주재국 내에서의 북한 요원의 한국 화폐 살포에 관한 첩보를 보고함.
 - 12.6. 콩고 청년이 동 대사관을 방문하여 한화의 콩고화 환전을 요구
 - 동인은 5월경 북한 군사고문단 요원들이 콩고 노무자에게 한국 화폐 100원, 500원권을 살포하여 한화를 입수
 - 북한의 모략공작이나 위조지폐를 이용한 고차원적 공작인지 여부는 향후 탐문 보고 예정

북한·덴마크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D-6-22 / 9 / 1-79

주덴마크대사관의 1976년 중 북한·덴마크 관계 동향 보고임.

1. 북한·덴마크 간 고위인사 교류

- 북한 사절단(단장: 손성필) 일행 덴마크 방문(1976.2.10.~17.)
 - 덴마크 공산당, 사회인민당 및 사민당 당수인 총리와 면담
 - 미군철수 주장, 대미국 평화협상 내용, 고려연방제 등 설명
- G. Petersen 덴마크 사회인민당 당수 북한 방문(6.20.~7.1.)
 - 김일성 및 김정남 노동당 대외정책위원장 등 간부 면담
 - 북한의 발전상 소개, 한국 체제 비난, 한·미국의 군사도발 주장 및 북한의 평화통일정책 설명

2. 친북단체 활동

- 덴마크·조선협회(丁朝協會)
 - 4·19와 관련된 한국 국내정치 문제에 관한 핫불데모 감행(1976.4.20.)
 - 강연회 및 토론회 개최, 한국 경제를 미국과 일본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조종되는 예측화된 경제라고 비판하는 결의문 채택(4.24.~25.)
 - 남한 국민의 민주투쟁과 구국민주선언 지지 등 결의문 채택 및 반한 시위(6.25.)
- 조선평화통일위원회 덴마크위원회
 - 반한 집회 및 한국을 비방하는 기자회견(9.18.)

3. 1972~75년 북한·덴마크 교역현황 보고

- 북한의 대덴마크 수출: 약 52만 달러
- 덴마크의 대북한 수출: 약 1,900만 달러(각종 기계류 및 전자기기 등)

4. 북한 내 권력투쟁 언론 보도

- 덴마크 언론은 1976.10.17. 동경 특파원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 정권 수립 이래 가장 결정적인 권력투쟁 중이라고 보도함.
 - 1975년 김일성 후계자로 지명된 아들이 냉대 받고 있으며, 이는 지난 38년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언급

북한·이집트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D-6-22 / 10 / 1-82

주카이로총영사관의 1976년 중 북한·이집트 관계 동향 보고임.

1. 북한·이집트 간 고위인사 교류

- 공진태 북한 부총리 이집트 방문(1976.4.24.)
 -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면담하고 김일성 친서 전달
 - 북한이 이집트에 군수지원을 제의했을 것으로 추측
- M. Gamassi 이집트 국방장관 북한 방문(5.18.~25.)
 - 김일성 예방, 국방상과 회담, 일선 부대 및 군수공장 시찰 등
 - 북한의 군사적 지원과 협력 제의에 대해 이집트는 모종의 군사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추정

2. 김병호 주이집트 북한대사는 1976.6.24. 기자회견을 통해 제3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지지 결의안 통과를 언급하면서 동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제관례 위배라고 주장하고, 현 한반도 정세가 26년 전 한국전쟁 당시와 흡사하다고 지적

- 주카이로총영사관은 6.28. 동 북한대사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는 항의서한을 이집트 외무성에 제출

3.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1976.7.1. 북한이 설정한 '조선인민의 단결을 위한 달'에 대해 김일성에게 축전을 발송함.

4. 주이집트 북한대사관은 1976.7.27. 이집트 언론인 및 외교관을 초청, 반미 허위선전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배포함.

북한·에티오피아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D-6-22 / 11 / 1-65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의 1976년 중 북한·에티오피아 관계 동향 보고임.

1. 북한·에티오피아 간 고위인사 교류

- 에티오피아 사절단 북한 방문(1976.3.24.)
 - 정준기 북한 부총리, 재정부장, 외교부 부부장 등 면담
- 북한 경제사절단(단장: 계창환 무역부차관) 에티오피아 방문(8.17.~9.13.)
 - 에티오피아 기획위원회, 공공사업주택성, 국가자원성과의 회담, 각종 공장시찰 및 양국간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등
 - 북한·에티오피아는 1975.6.5.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이래 차관공여 및 농업기술자 파견 문제 등을 놓고 활발한 교섭 진행
 - 수리 및 농촌개발 지원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주목적이며, 특히 제3세계권을 겨냥한 경제외교의 일환

2. 북한·에티오피아 양국은 1976.9.7. 경제·기술협력협정에 가서명함.

- 북한이 에티오피아에 수력발전, 수리사업, 개간사업 등에 20여명의 기술자 파견, 3,000ha의 농지개간 등 주로 농업부문에 대한 원조가 주 내용
- 동 협정 세부협의를 위해 사절단을 파견, 부문별 계약을 체결할 예정

3. 박승일 주수단 북한대사 에티오피아 방문(1976.11.6~10.)

- 에티오피아 군사위원회 제1부의장 면담
- 방문 목적
 - 상주공관 설치, 북한 기술자 관리요원 배치, 기술자들을 위한 숙소물색 등 협의

북한·프랑스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D-6-22 / 12 / 1-107

1976년 북한·프랑스 관계 동향임.

1. 북한·프랑스 간 고위인사 교류

- 북한 노동당 정치국원 프랑스 방문(1976.2.4.~8.)
 - 김영남 정치국원 등 4명이 프랑스 방문, 프랑스 공산당대회 참석
- 프랑스 하원 내 프랑스·북한 의원연구소 소속의원 3명 평양 방문(3월)
 - 3.19. 황장엽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면담 및 북한 의원연맹 주최 연회 참석
- B. Hermier 프랑스 공산당 대표 북한 방문(11월)
 - 11.12. 김일성 접견, 면담
 - 북한 노동당 주최 연회 참석 및 지방시찰 등

2. 주파리 북한 통상대표부 승격 문제

- 북한이 1968.4월 주파리 북한 통상대표부 설치 이래, 동 사무소의 법적지위 승격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데 대해 프랑스는 1973년 말 제한된 범위에서 대안을 제시, 북한은 1975.6월 프랑스 측 대안을 수락하여 1976.6.24. 프랑스 대외통상상 국제경제국장과 북한 통상사무소장 간 서명을 통해 동 문제가 아래 내용으로 합의됨.
 - 평양 대외무역촉진위원회 상설 대표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상대표부로 개칭
 - 공관장 차량에 한해 일반외교감찰(CD) 부여, 연1회 국경일시 국기게양 허용
- 프랑스 정부는 동 대표부의 권한 확대가 북한 승인이나 수교를 위한 예비조치가 아님을 강조
- 외무부는 프랑스의 북한 승인 움직임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프랑스 의회 내 일부 친 북한 의원의 북한 승인 지지발언에 대비하여 대의회 외교 활동 강화에 노력할 예정임을 6.28. 대통령에 서면보고함.

북한·그리스 관계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D-6-22 / 13 / 1-60

1975~76년 중 북한의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그리스 침투 동향임.

1. 주그리스대사는 1975.11.14. 그리스 정부가 북한 승인 혹은 북한과 외교수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된 내용이 있다고 보고함.

- 동 대사는 1976.1.27. 주재국 주요 일간지의 1.24.자 기사를 인용하여 아래의 내용을 추가 보고함.
 - 1975.11월 중 북한대표단이 그리스에 입국 거절당한 사례에 대하여 주재국 국회의원 3인의 서면 문의를 있었으나, 그리스 외무부차관은 동 사건은 양국간 외교수립과는 관계가 없다고 답변

2. 북한대표단 그리스 공산당대회 참석(1976.6.6.~12.)

- 김국헌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후보) 겸 최고회의 위원 등 3명이 그리스 공산당대회 참석차 그리스 방문
 - 그리스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여 비자 없이 개인 자격으로 입국
- 북한대표단은 동 대회에서 축하연설 시행
- Eliou 국내파 연립당수 등 좌익계 인사들과 접촉, 그리스·북한 인민우호 및 협조 위원회 창설을 제안하는 등 다각적인 대그리스 관계증진을 도모

3. 주인도대사는 1976.10.18. 주인도 그리스대사를 방문 및 면담하고, 10.19. 아래 내용을 보고함.

- 며칠 전 주인도 북한대사가 주인도 그리스대사를 방문하여 그리스·북한 간 외교관계 수립가능성을 타진함.
 - 이에 주인도 그리스대사는 그리스 정부는 모든 국가와 관계를 맺는 것을 정책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북한과는 외교관계 또는 기타관계를 수립할 단계에 있지 않다고 답변함.

4. 박종국 주루마니아 북한대사는 Papandreou 그리스 사회당 당수 초청으로 1976.12.17.~24. 그리스를 방문함.

- 주요 활동
 - 범사회주의 정당, 좌파연합, 민주중앙동맹 등 제반 정당대표들과 면담
 - 대그리스 수교제의
 - 북한의 남북통일 노력에 협조 요청
 - 주요 인사의 북한 방문 초청



- 결과 및 평가

- 북한의 최근 그리스에 대한 집요한 침투공작의 일환
- 그리스 정부는 좌익에 대한 관용정책을 베풀고 있어 좌익세력을 통한 그리스 침투에 성공
- 집권당(신민당 220석)을 제외한 기타 주요 정당인사 전부 면담
-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의 대북한 정책 변화 필요

북한·인도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D-6-22 / 15 / 1-193

주인도대사관의 1976년 중 북한·인도 관계 동향 보고임.

1. 북한 주요 인사의 인도 방문

- 무역회담 대표단(단장: 이태백 무역성 부상)(1976.3.17.~21.)
 - 인도 상공성과 북·인도 무역협정에 의한 1976년도 무역약정 체결교섭
- 북·인도 친선협회대표단(3월)
 - Barooah 인도 의회당 사무총장 등 의회 내 좌경인사 면담
- 북한 청년대표단(3월)
 - 8월 평양 세계사회주의 청년연맹회의 대표단 유치목적 방문
- 이종목 부외상(7.2.~6.)
 - 외상 예방, 외무부차관과 회담, 스리랑카 비동맹 정상회의 시 한국 문제 관련 내용을 공동 선언에 포함하는 문제 협의
- 김성걸 북한 중앙통신사장(7.8.~13.)
 - 비동맹 보도기관회의 참석

2. 1976~77년 북한·인도 간 합의한 무역계획

- 인도의 대북한 수출: 약 1,765만 달러
- 북한의 대인도 수출: 약 1,411만 달러

3. 북한·인도 양국은 1976.7.2. 문화협정을 체결함.

- 예술, 문화, 교육, 체육, 공중보건 및 보도 분야에서의 협력
- 상기 분야 대표단 상호방문, 홍보자료 등 상호교환 등

4. 인도 정부는 6개월간 공석 중인 주북한 인도대사에 1976.10.28. K. Menon 주교베 인도총영사를 임명함.

100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북한·이란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D-6-22 / 16 / 1-31

1976년 중 북한·이란 관계 동향임.

1. 주이란 북한대사대리는 1976.5.5. 이란 상원의장에게 한반도 문제에 관한 북한입장 지지를 요청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서한을 전달함.

- J. Emami 이란 상원의장은 평화공존·주권존중·내정불간섭 및 국제적 협조를 바탕으로 한 이란의 기본정책과 유엔원칙 및 결의에 입각한 평화적 한반도 통일실현을 희망하는 내용의 정부입장을 확신함.

2. 이란 고위통상대표단(단장: 농업·자연자원성 차관) 북한 방문(1976.5.19.)

- 농업기술 협조의 확대, 증진이 주목적으로서 주이란 북한대사관이 5.14. 모내기 기계를 이란 정부에 기증한 것과 연관 있는 것으로 분석

3. 이란 외무성은 외국공관의 선전활동 규제에 관한 강령을 근거로 1976.5.26. 주이란대사관에 대북한 관계 자료배포 금지를 요청함.

4. 북한·이란 교역현황

- 교역현황(1974.3~75.3월)
 - 북한의 대이란 수출: 79만 달러(시멘트, 타이어, 식물류 등)
 - 북한의 대이란 수입: 약 20만 달러(크롬광 등)
- 교역관계
 - 1973.9.9.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 후, 1974.11.28. 1년 유효기간의 구상무역 협정서 교환 (약 2천 3백만 달러 규모)

5.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은 1976.7.1. 외무부 경제차관보를 면담함.

- 주이란 미국대사의 이란 정부당국자 접촉 시, 북한의 경제사정상 물품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대외채무 상환능력 부족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어려울 것임을 설명함.
 - 이란 측은 동 대사의 말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

북한·이탈리아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D-6-22 / 14 / 1-71

1976년 중 북한·이탈리아 관계 동향임.

1. 이탈리아 외무성은 1975.9.5. 동구권이 한국을 승인하지 않는 한 북한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EC(구주공동체) 정무회의 합의사항을 준수하라는 대북한 접촉지침을 하달함.

2. 이탈리아 대외무역공사는 1976.10월 대북한 시장조사단 파견 예정임.

- 북한의 경제현황 특히 외채상환 능력에 관한 현황파악과 교역증진 가능성 검토 목적

3. 북한·이탈리아 간 통상대표부 설치 문제

- 경위

- 1974.6월 북한·이탈리아 양국은 준영사특권을 부여하는 통상대표부 설치에 관한 협정에 가서명
- 1976.6월 이탈리아 총선결과 양국간 공식관계 수립전망이 흐려지자, 북한은 기 합의한 민간통상대표부 설치협정 서명에 동의
- 1976.8.22. 주소련 북한대사관은 상기 통상대표부 설치협정 연기 통보

- 협정 주요내용

- 북한 국제무역진흥위원회 통상대표부와 이탈리아 무역진흥공사 통상대표부 설치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 등 준영사특권 부여, 외국상사 등록규제 면제 등

- 외무부 조치내용

- 주이탈리아대사는 이탈리아 외무성에 남북한 불균형으로 한반도의 평화유지 저해와 유엔 총회에서의 한반도조항 논의 등 불리한 영향에 대한 우려 전달 및 유감표명

4. 1976.10월 L. Basso 상원의원 등 친북단체 회원 40여명은 한국 실정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북한 통일방안 및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제의하는 선전물을 배포함.

5. 이탈리아·북한 문화협회 사절단은 1976.11월 중순 북한 방문 후 가까운 시일 내 양국간 외교·경제·문화 관계수립을 건의함.

100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1976

일본·조선 우호촉진 의원연맹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D-6-22 / 17 / 1-31

1975~76년 중 일본·북한 우호촉진 의원연맹 관련 내용임.

1. 제1차 결성총회 개최, 창립(1971.11.16.)

- 자민, 사회, 민사, 공명, 공산당 대표 등이 참가하는 초당파적 친북한 의원단체 창립

2. 주요 활동 목표 및 내용

- 북한과의 교류증대, 일본·북한 국교수립, 조총련 권익옹호,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협력 등을 목표로 북한인사 방일 초청, 조총련계 진정사항 전달, 지방의회 일본·북한 의원연맹 결성 촉진 등 친북한 로비활동 전개

3. 제2차 총회, 활동방침 채택(1975.3.25.)

- 일본·북한 간 정치레벨 교류 활성화
 - 평양 시장 등 북한 정치인의 일본입국 허가를 위한 활동 전개
- 민간 무역대표부의 상호설치
- 종합 상품전시회 상호개최의 조기실현

4. 동향

- 1975.10.3. 구노 주이치 일본·북한 의원연맹 회장 등 각 정당 대표는 관방장관을 방문하여 일본·북한 간 무역대표부 상호설치 및 국교정상화 추진 요청
- 1976.1.6. 구노 회장은 북경에서 주중국(구 중공) 북한대사와 접촉, 5개 항목 제안

5. 일본·북한 우호촉진 의원연맹 규약이 수록됨.

미끼(三木) 일본 수상 대북한 관계 증진 5개항 제의 보도 및 한국입장 전달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D-6-22 / 18 / 1-62

1976.1월 미키 일본 수상의 대북한 관계 증진 5개항 제의 보도에 따른 한국 정부의 입장 전달에 관한 내용임.

1. 1976.1.13. 동경신문은 중국(구 중공)을 방문 중인 구노 주이치 일본·북한 의원연맹 회장이 주중국 북한대사에게 아래 5개 항목의 대북한 관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미키 수상이 의뢰한 것이라고 보도함.

- 일본·북한 의원연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대표단을 조속 북한에 파견
- 일본·북한 간 무역대표부 설치 문제 타진
- 일본·북한 간 민간어업협정 체결 문제 타진
- 남북대화 촉구
- 미국·북한 접촉 실현 조력

2. 일본 정부 해명

- 주한 일본대사는 1976.1.14. 외무부장관을 면담하고 이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해명을 전달해옴.
 - 미키 수상이 동 의원에게 북한 측과 이야기 하도록 요청하거나 허락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
 - 관방장관 서리인 가이후 관방부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함.

3. 한국 정부 대응

- 외무부장관은 1976.1.13.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북한과 관련 한·일본 양국 우호관계에 해로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고 진상 규명을 요청
- 주일본대사는 1976.1.19. 미야자와 외상을 방문하여 앞으로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한 국과 호흡을 함께 해주기를 요망함.
 - 미야자와 외상은 구노 의원 문제에 관한 한국 측의 민감한 반응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동경신문의 기사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언급

100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1976

북한·일본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D-6-22 / 19 / 1-172

1976년 중 북한·일본 관계 동향임.

1. 북한 교육문화연맹 대표단은 1976.1.21.~2.20. 오사카에서 개최된 일본교직원조합 연구대회에 참석차 일본을 방문함.

- 한국 측은 2.5. 한·일본 의원연맹 공동 간사회의에서 구노 의원의 북한대사 접촉 등 일본 정부의 대북한 접근에 우려를 표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

1006

2. 일본 내 북한 간첩활동

- 일본 요코하마 해상보안부는 1976.1.12. 민단을 가장한 유창근 북한 간첩 체포 사실을 발표
- 허성모 북한 간첩은 1975.10월 일본인 명의 여권을 소지하고 서독 원자력연구소 한국인 학자에게 접근하다 독일 경찰 당국에 체포됨.
 - 외무부는 1976.5.15. 주일본대사에게 상기와 관련하여 일본여권 소지 경위파악을 지시함.
 - 일본 외무성은 6.16. 허성모에게 일본 여권을 발급한바 없다고 주일본대사관에 알려옴.

3. 북한 망경봉호가 1976.2.27. 오사카에 입항한바, 동 선박의 입항 저지를 위해 500여명의 민단 단원이 부두에서 시위를 하였으나, 조총련 소속 800여명이 민단시위를 돌파하고 환영대회를 개최함.

제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참석 일본대표단 주최 리셉션 북한대표단 참석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D-6-22 / 20 / 1-56

1976.5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일본대표단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북한대표단이 참석함.

1. 경위

- UNCTAD 일본대표단은 일본 주최 리셉션에 북한대표를 초청하여 1976.5.12. 김경련 북한 재정부장 등 일행이 동 리셉션에 참석함.

2. 외무부 사전 조치사항

- 외무부는 동 초청을 사전 탐지하고, 주요 우방국인 일본이 북한대표를 초청함은 균형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고무 격려하는 결과임을 지적하면서 북한대표를 초청하는 일이 없도록 일본 정부에 수차례 요청

3. 일본 측 반응

- 일본은 국제회의의 리셉션 개최 시 모든 정식 가맹국 대표를 초청
- 북한대표단만 제외하기는 어렵고,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4. 평가

- 동 초청과 같은 일본의 대북한 접근 시도는 한국을 크게 자극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사실관계를 축적하려는 일본의 대북한 접근정책의 일환
- 일본의 대북한 접근을 계속 견제해 나가되, 특히 국제회의 이외의 일본 국경일 리셉션 등 평소 외교단 초청 리셉션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적극 저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100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북한·쿠웨이트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D-6-22 / 21 / 1-38

1976년 중 북한·쿠웨이트 관계 동향임.

1. 북한사절단 쿠웨이트 방문(1976.11.9.~11.)

- 일본인 상사 대표 2인을 포함한 8명의 사절단 구성
-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육로로 도착하여 리비아로 항발
- 방문 목적은 민간차원의 자금 확보 가능성 타진으로 추정되고, 업계인사 이외 정부기관과의 접촉은 없었음.

1008

2. 좌경 일본인 및 조총련계 대표 3명 쿠웨이트 방문(1976.12.1.~5.)

- 일본 및 북한상품 전시회 사전 준비 차 방문
- 방문자
 - 일본인: 야마다 히로시 동해선박 상무
 - 조총련 재일교포: 강인주 동해상사 상무, 윤재수 수출입상사 부사장
- 상공차관 및 상공회의소장 면담
- 전시회 개최 계획
 - 1977.3월 경 슈바이크 항 부근의 전시장을 임차하여 약 1개월간 전시회 개최 예정
 - 동 전시회에는 일본 및 북한 상품을 전시하며 약 400개 회사가 참가할 전망

북한·멕시코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D-6-22 / 23 / 1-88

1976년 중 북한·멕시코 관계 동향임.

1. Julio Faesler 멕시코 무역청장과 이태백 북한 무역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촉진위 부위원장은 1976.9.21. 멕시코 무역청에서 북한·멕시코 통상진흥협력약정에 서명함.

● 주요 내용

- 무역법규 및 관세에 관한 정보 교환
- 대외 무역증진을 위한 요원 및 전문가를 위한 상호 편의 제공
- 연례회담 개최

● 평가

- 멕시코 외무성 당국자는 북한이 멕시코가 주도한 제3세계 경제센터 개관식에 대표단을 파견한 점과 77그룹 회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대통령의 정치적 배려의 결과라고 평가
- 북한과 미수교 상태에서 멕시코가 북한과 최초의 접촉을 공식 수락한 것은 북한의 대멕시코 진출에 중요한 거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2. 김창용 등 3명의 북한대표단은 1976.11.22.~24. 세계 민주청년연맹 집행위원회 참석을 위해 11.18. 멕시코에 입국함.

● 동 집행위원회 이사회는 한국 문제에 관한 아래 선언문 채택

- 제30차 유엔총회와 콜롬보 비동맹 정상회담 시 유엔사 해체와 주한 외국군 철수 결의
- 미국은 상기 결의를 무시하고 한반도 분단 영구화

100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76

북한·네팔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D-6-22 / 22 / 1-35

주네팔대사관의 1976년 중 북한의 네팔 내 활동 동향 보고임.

1. 네팔 정부는 1976.4.30. 네팔 방문 예정인 공진태 북한 부수상과 사절단 방문을 접수하기로 결정함.

- 1976.4월 북한 측이 이유 없이 방문을 취소한다고 네팔 측에 통보

2. 네팔 탁구팀은 1976.4월 평양 방문 예정으로 여비 등 일체 비용은 북한이 부담하기로 함.

3. 북한 및 중국(구 중공)을 지지하는 좌익세력은 1976.7.17. 김일성 생일 및 노동절을 기념하여 네팔 정부 비난 불온선전물을 네팔·북한 친선협회에서 인쇄하여 배포함.

- 네팔 정부는 동 사건을 중대문제로 취급하여 관련자 9명을 처벌하고 수도를 제외한 지방의 네팔·북한 친선협회를 폐쇄함.

북한·파키스탄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 정보1

MF번호 D-6-22 / 24 / 1-55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의 1976년 중 북한의 파키스탄 내 활동 동향 보고임.

1. 1976.7월 북한의 이양기 5대가 파키스탄에 도착하여 8.15. 라호르 소재 미작재배실험소에서 시험 작동되었고, 이양기 45대는 선편으로 추가 수송 예정임.
2. 북한 정권 창건 28주년 기념행사
 - 북한·파키스탄 친선협회가 1976.9월 라호르·라알핀디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함.
 - 파키스탄 국립예술원은 1976.9.10. 북한 영화 상영 및 사진 전시회를 개최함.
 - 연방정부 농업식량장관이 주빈으로 참석
3. 파키스탄 정부는 1976.10.11.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영접을 위한 대규모 마스게임 시범을 보임.
 - 북한 측은 8월 동 시범단 훈련을 위해 북한 코치 23명을 파견한바 있음.
4. 북한 정부는 1976.11월 북한 문화예술부 소속 무대장치 전문가로 이루어진 교육사절단을 파키스탄 정부 집권 5주년 기념행사 준비 목적으로 파견함.
5. 파키스탄 경제성차관과 주파키스탄 북한대사는 1976.11.23. 북한·파키스탄 간 기술협력의정서에 서명함.
 - 마스게임 지도를 위한 체육전문가 파견
 - 파키스탄의 직업훈련 기술학교의 전문가 파견
 - 담수어 양식 및 어로 분야에서의 전문가 파견

101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1976

북한·러시아(구 소련)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3 / 정보2

MF번호 D-6-22 / 27 / 1-34

1976년 중 북한 김일성의 소련 방문 소문과 관련된 내용임.

1. 주한 프랑스대사 및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6.2.4. 김일성이 4~5월경 소련 방문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외무부에 알려옴.
2. 주미국대사관은 1976.2.6. 미국 국방부 및 국무부를 탐문, 상기 정보를 확인함.
3. 외무부는 1976.2.12. 김일성의 외유가능성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주요 공관에 지시함.
 - 주일본, 주스웨덴, 주미국, 주영국대사관의 보고 결과
 - 공통적으로 신빙성이 없거나 확실한 정보가 없다는 반응

북한·스리랑카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D-6-22 / 28 / 1-82

1976년 중 북한·스리랑카 관계 동향임.

1. 최광국 교원문화연맹 부단장을 포함한 북한대표단은 1976.1.16.~17.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아시아 교원노조 토론회에 참석하여 북한의 문명퇴치 및 교육제도 선전 연설을 시행함.

2. 북한 주요 인사 스리랑카 방문

- 양문소 외무부상 스리랑카 방문(1976.2.10.~26.)
 - 비동맹 회의 관련 협의 및 스리랑카가 요청한 비동맹 정상회의용 물자 전달
 - 2주간 체재 중 스리랑카 수상 예방을 요청하였으나, 외무장관·차관만 예방하고 귀국
- 스리랑카 겸임 주중국(구 중공) 북한대사 스리랑카 방문(1976.4.15.~24.)
 - 외무차관, 외무부 차관보, 아주국장, 비동맹국장과 면담
 - 비동맹 정상회담에 김일성 참석 예정이라면서 동 회담 이전에 주스리랑카 북한대사관 개설을 역설함.
- 차병욱 북한 외교부 아시아국장 스리랑카 방문(1976.5.26.)
 - 외무차관 면담, 상주대사관 설치 요청에 대한 스리랑카 측의 조속 회답 재촉
- 오만석 북한 외교부 참사관 등 북한대표단, 비동맹국 간 과학기술협력 세미나 참석(1976.6.30.~7.5.)
 - 동 대표단은 주최 측이 세미나 개최식에 주스리랑카대사를 초청한 것에 대해 항의함.

101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북한·수리남 관계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D-6-22 / 29 / 1-70

1975~76년 중 북한·수리남 관계 동향임.

1. 주수리남대사의 1976.7.24. Arron 수리남 수상 면담 시, 동 수상은 아래 요지로 언급함.

- 유엔 문제
 - 한국입장을 이해,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
- 대북한 관계
 - 문화개방 정책에 따라 수차에 걸친 북한의 예방(Courtesy Visit) 제의를 수락
 - 북한대표단 일행이 7월 말경 방문예정이나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것
- 비동맹 관계
 - 비동맹 회의 초청장 미수령

2. 이인춘 주쿠바 북한대사는 1976.8.17.~19. 수리남을 방문하여 8.19. Arron 수상과의 면담 자리에서 북한·수리남 간 외교관계 수립을 제안, 원칙적 합의 및 서명을 간청함.

- 동 수상은 사전 통보도 없는 동 제의에 경악을 표하고 공한에 의한 교섭관례와 국내절차 문제를 들어 언급 회피
- 10.25. 북한은 수리남 외무성에 전문을 통해 외교수립 제의에 대한 결정을 독촉하였으나, 수리남 외무성은 금년 내 외교관계 수립 문제를 결정할 수 없음을 북한 측에 회보

3. 제3세계 청년대회 준비위원을 포함한 북한대표단이 1976.8.22.~26. 수리남을 방문하여 수리남 문교차관을 면담하고 동 청년대회에 수리남 청년대표 2명을 초청함.

- 수리남 정부는 8.31. 각의에서 동 청년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함.

북한·시리아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D-6-22 / 31 / 1-23

1976년 중 북한·시리아 관계 동향임.

1. 주시리아 북한대사관 현황(1976.1월 기준)

- 한수익 북한대사 외 8명 근무 중
- 파견되어 있던 북한조종사 25명은 1975년 말 전원 철수한 것으로 추정

2. 북한·시리아 간 주요 인사 교류

- 시리아 계획성 국무상이 이끄는 사절단이 1976.2.11. 북한을 방문함.
- 공진태 북한 부총리의 시리아 방문 시, 4.4.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김일성 친서를 전달함.
- 북한 대외무역상의 시리아 방문 시, 10.21. 시리아 경제상과 1977년도 교역협력을 골자로 하는 무역협정의정서를 체결함.

3. 북한 조종사 시리아 파견

- 주이란대사는 1976.2.22. 동일자 현지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시리아·이스라엘 간 전쟁에 대비하여 북한군이 시리아에 파견되었다고 보고
- 주요르단대사는 4.5. 요르단 공군사령관을 면담하여 북한군의 시리아 주둔 문제를 확인하고, 동일자로 보고함.
 - 동 사령관은 제4차 중동전 이후 북한조종사 및 정비사가 시리아에 주둔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며, 작년 말 철수설이 나왔던 것은 철수가 아니라 교체일 것이라고 언급함.

101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북한·스위스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D-6-22 / 30 / 1-51

1976년 중 북한·스위스 관계 동향임.

1. 북한의 스위스 내 외교 활동 동향

- 1975.9.1. 상주공관 설치 초기, 북한은 주스위스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극히 소극적 외교 활동 전개
- 1976.4.23. 진총국 초대 주스위스 북한대사 신임장 제정
- 1976.10.25. 스위스 외무부 의전장은 북한 외교관의 밀수 행위와 관련하여 확증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북한대사관이 대규모 공관건물 물색 중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자금 조달 방법에 관심을 갖고 관찰 중이라고 주스위스대사에게 언급

2. 주스위스대사관은 1976.1.30. 북한의 스위스 부채 상환 문제에 관하여 주재국 경제부 관계관으로부터 탐문 보고함.

- 북한의 대스위스 통상거래에서 기한 내 미지불 총액은 약 1천만 스위스 프랑
- 스위스 정부는 북한 검임 스위스대사(북경 상주)의 1975.11.7. 신임장 제정 시 동 문제를 제기하고, 연방정부 경제상은 북한대사대리를 불러 정식문서로 상환이행 촉구

3. 스위스 내 친북 세력 책동 대응

- 주스위스대사는 1976.5.14. 북한대사관이 '조선통일지지 스위스위원회'를 결성하여 정치적 왜곡 선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대응책을 건의함.
- 스위스 외무성은 1976.9.29. 실시된 조선통일지지 스위스위원회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동 위원회가 스위스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정치적 행위를 할 경우 관계인 추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주스위스대사에게 전달함.

북한·영국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D-6-23 / 11 / 1-74

주영국대사관의 1976년 중 북한·영국 관계 동향 보고임

1. 1976.2.22.자 영국 Sunday Times는 김일성 북한 주석이 1975.12.25. 이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암을 앓고 있기 때문이라며 2년 내 은퇴할 것이라고 보도
2. 진중국 주제네바 북한대사의 1976.6~7월 영국 방문 시 정치 선전 활동
 - 동 대사는 1976.7.6. 외신기자협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전쟁 재발 시 북한은 중국 (구 중공)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며, 일본이 미국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북한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
 - 영국 외무성은 IMCO(정부간해사협약기구) 방문 차 입국한 동 대사가 기자회견을 정치 선전장으로 이용한데 대해 자신들을 기만하였다고 보고 금후 북한대표의 영국 입국을 더욱 제한할 의사 표명
3. 북한은 1976.9월 영국 언론에 김일성 광고를 게재함.
 - 9.16.~17.자 영국 The Times에 김일성 광고가 두 차례 게재됨.
 - 북한의 통일방안 5개항과 김일성이 인자한 것으로 보이기 위한 허위 선전
 -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노출된 북한 정권의 잔인성 상쇄 목적
 - 9.21.~29.자 Evening Standard에는 김일성 광고가 7회 집중 게재됨.
4. Gavan McComark Leeds대학 교수와 John Gittings Guardian지 기고가 등 영국 내 좌파 인물 주도로 1976.9.25. 친북한 집회가 개최됨.
 - 한국 내 정치범의 석방, 고문중지, 민주주의 회복을 요청하는 탄원서에 10만 명 서명운동 전개를 결의

101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미국의 북한지역 여행 제한조치 해제 문제 및 북한·미국 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D-6-23 / 12 / 1-45

1976년 중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제한조치와 동 조치 만료에 대비한 재연장 교섭 관련 내용임.

1. 미국 시민의 북한지역 여행 제한조치 배경

- 1950년대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구 중공), 베트남(구 월맹), 북한 등 공산국가에 대한 미국 시민의 여행을 제한하는 행정조치 시행

1018

2. 제한조치 만료 대비 재연장 교섭

- 동 여행 제한조치는 재연장 조치가 없는 경우, 기간 만료와 동시에 여행제한의 효력이 상실됨.
- 외무부는 1976.3.24.에 만료되는 북한지역 여행 제한조치 재연장을 교섭하도록 2.27. 주 미국대사관에 지시
 - 미국 국무부는 3.19. 미국시민의 북한여행 제한조치를 기간 만료 시마다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옴.
- 외무부는 1976.9.18.로 만료되는 북한지역 여행 제한조치에 대비하여 9.10 주미국대사관에 재연장 교섭을 훈령
 - 미국 국무성은 9.18. 동 제한 조치를 9.18.부터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옴.
 - 쿠바, 베트남(구 월맹, 월남 전역), 알바니아에 대한 여행제한도 동일 연장됨.

북한·아프리카지역 국가 관계. 전2권 (V.1 북서아프리카)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D-6-23 / 1 / 1-206

1975~76년 중 북한과 가봉, 가나, 감비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말리, 세네갈 등 북서아프리카국가와의 관계 동향임.

1. 비동맹 회의 지지 교섭

- 북한 사절단(단장: 한시해 외무부상)의 세네갈 방문(1976.3.18.~22.)
 - 대통령 및 외상 면담, 비동맹 회의에서의 한국 문제 의제 삽입 및 조정위원회 입후보 지지 요청, 외군 철수 요구
 - 북한기술진, 공업기술협력 문제 협의
- 김용수 주시에라리온 북한대사의 가나(1976.7.21.~23.) 및 라이베리아(1976.8.7.) 방문
 - 외상 등을 면담, 비동맹 회의에서 북한 입장 지지 요청

2. 북서아프리카 국가 고위인사의 북한 방문 관련 동향

- 말리 국가원수 겸 총리는 1976.5.14.~19. 북한을 방문하여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및 공동성명을 발표함.
- 시에라리온 국회의장 일행이 1976.6.1.~7. 북한을 방문함.
- 붕고 가봉 대통령은 1976.10.5. 정기국회 개원연설에서 자신의 평양방문 취소에 대한 북한 측의 사죄가 없는 한 결코 북한 인사를 만날 의사가 없다고 언급함.
- 감비아 노동동맹 총서기는 1976.11.5.~7. 평양을 방문하고 박성철 북한 총리와 면담함.

3. 외교관계 수립 및 협정 체결

- 북한 정부는 1976.5.25. 나이지리아와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함.
 - 외무부는 5.27. 나이지리아와의 수교희망 의사를 전달했으나, 나이지리아 측은 한국과의 수교는 현 군사정권이 존속하는 한 불가능하다는 반응
- 주중국(구 중공) 니제르대사는 1976.6.14. 강양욱 북한 부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가봉 일간지의 12.24.자 기사에서 콩고와 북한이 12.23. 항공협정에 서명하였다고 보도됨.

101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76

북한·아프리카지역 국가 관계. 전2권 (V.2 남동아프리카)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D-6-23 / 2 / 1-142

1975~76년 중 북한의 우간다, 케냐, 보츠와나, 세이셸,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등 남동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 동향임.

1. 비동맹 회의 지지 교섭

- 박성철 북한 부총리 우간다 방문(1976.4.20.)
 - 김일성 북한 주석의 특사로 Idi Amin 우간다 대통령에게 친서 전달, 스리랑카 비동맹 회의 및 유엔총회에서 북한 입장 지지 요청
- 한시해 북한 외무부상 케냐 방문(1976.5.14.)
 - 외무차관 면담, 북한의 상주공관 설치와 비동맹 회의에서 북한 측 입장 지지 요청
 - 케냐 측은 비동맹 회의에서는 남북대화를 권장하는데 그쳐야 하며 그 외 문제에 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

2. Khama 보츠와나 대통령 북한 방문(1976.8.9.~13.)

- 귀국 후 북한에 크게 실망하였으며 김일성의 거동과 성격에 강한 반발을 느꼈다고 토로

3. 북한의 대아프리카 국가 수교 교섭 등 외교 활동

- 레소토 외상은 1976.4.5. 주이란 레소토대사 면담시 북한의 수교 제의에 1차 거절했으나, 북한은 수교하지 않아도 좋으니 경제사절단을 레소토에 보내겠다고 재차 제의하였음을 설명
- 심봉언 주우간다 북한대사는 1976.5.29. 우간다 산업동력부장관과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
 - 북한기술자 10명이 동일 우간다에 도착하여 제철, 유리 및 도자기 공장에서 활동함.
 - 북한기술자 6명이 12월 추가 파견됨.
- 북한 사절단은 1976.8.24. 세이셸과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협정에 서명함.
- 이창선 북한 문화예술부장은 1976.9월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하고, 마다가스카르 국가원수를 예방하고 김일성 주체사상 국제세미나에 참석함.
 - 동 세미나에는 일본, 파키스탄, 이집트 등 50여 개국 대표 참석

북한의 대아프리카지역 국가 군사 및 경제 원조현황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 서부아프리카

MF번호 D-6-23 / 6 / 1-42

아프리카지역 주재 공관이 보고한 북한의 1976년도 대아프리카 원조 이행상황임.

1. 세네갈

- 집단체조 지도요원 파견(2만 1천 달러)
- 농업개발사업 및 의료요원 파견 약속은 불이행

2. 시에라리온

- 시민회관 건립
 - 1975년 기본공사 완료(100만 달러) 후, 1976년 건설용 자재 추가 공급(50만 달러) 완료

3.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 인민궁전 건설지원: 북한요원(2명, 10만 달러) 파견
- 북한 군사교관 45명 및 군사원조

4. 우간다

- 의료요원(9명, 10만 달러), 광산기술자(10명, 10만 달러) 파견

5. 기타

- 베냉: 의료요원 파견
- 토고: 50만 달러 차관 제공
- 모리셔스: 지방체육경기장 건설을 위해 10만 달러 제공(1975년도: 40만 달러 제공)
- 르완다: 집단체조 대표단 파견
- 부룬디: 농기구 공장 건설(30만 달러)
- 가봉: 1976.7월말 시멘트 및 블록 기술자 7명 파견

102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북한·동남아시아 지역 국가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 정보2

MF번호 D-6-23 / 7 / 1-139

동남아시아 주재 공관이 보고한 1976년 중 북한·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동향임.

1. 말레이시아·북한 관계

-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3세계 청년대회(1976.9.16.~22., 평양)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함.
- 말레이시아 외무부는 9월 북한 공관의 외교특권을 이용한 주류 밀매행위를 경고함.

2. 싱가포르·북한 관계

- 공진태 북한 부총리는 1976.7.19.~21.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수상 및 외상을 면담할 계획이었으나 북한 국내 사정으로 방문을 취소함.

3. 인도네시아·북한 관계

- 1976.5.5. 이장환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는 김일성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예방
 - 동 대사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북한방문 초청을 재차 언급하고 비동맹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 입장 지지를 요청
 - 동 대통령은 약 5분간 김일성에 대한 안부인사와 북한방문 초청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인도네시아 국경일로 인해 비동맹 정상회담에 불참한다고 언급하고 비동맹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인도네시아의 중립 외교정책에도 불구하고 동 대통령이 북한대사를 접견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너무 밀착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 북한 측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됨.

4. 필리핀·북한 관계

- 1976.4월 필리핀 탁구팀은 4.26.부터 평양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참가 포기를 결정
- 필리핀 외무부는 북한이 6.2. 주인도네시아 필리핀대사관을 통해 신청한 북한 무역관계자 4명의 필리핀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함.

북한·중동지역 국가관계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D-6-23 / 4 / 1-142

1974~76년 중 북한의 중동지역 내 활동 동향임.

1. 북한 주요 인사 중동 국가 방문

- 공진태 북한 부총리는 1976.4.5.~9. 이라크를 공식 방문함.
 - 4.8. 이라크 대통령을 예방, 김일성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라크의 재건사업 및 사회 발전을 위한 북한 측의 지원 강조
- 전명수 북한 외무부상은 8.4. 카라미 레바논 수상 및 타클라 외상을 각각 면담함.
 - 4.26.~30. 평양에서 개최된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에 레바논 선수 5명이 참가한 바 있음.

2. 중동 국가 주요 인사 북한 방문

- 요르단 경제사절단(단장: Hashim Dabbas 상공부차관)은 요르단의 수출품인 인산광 수출 교섭을 위해 1976.11.2. 북한을 방문함.
- Al Hamad 예멘아랍공화국 혁명위원회 의장은 12.26.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박성철 및 허담을 면담했다고 12.27.자 쿠웨이트 언론이 보도함.

3. 북한·모로코 관계

- 1976.3월 모로코 외무성은 북한이 사하라공화국(Polisario 정권) 승인을 취소하지 않는 한 북한과는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모로코 측은 북한의 사하라공화국 승인은 모로코의 내정간섭 및 영토보전 침해 행위라고 비난

4. 북한·수단 관계

- 수단 외무부 아주국장은 1976.10.28. 주수단총영사에게 북한과의 관계에 불만을 토로함.
 - 청년회관이 3년이 지나도 완공되지 못하고 공사가 지지 부진함.
 - 1970.10월 니메이리 수단 대통령 북한 방문 시 합의한 도자기공장 건립을 위한 360만 달러 현금차관 약속도 이행하지 않음.

102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북한·구주지역 국가관계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구주2 / 구주1

MF번호 D-6-23 / 8 / 1-115

1975~76년 중 북한과 유럽국가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과 노르웨이, 핀란드 관계

- 손성필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대표단은 핀란드(1976.2.24.~29.)와 노르웨이(1976.3.15.~18.)를 방문함.
 - 핀란드 사회민주당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공동성명 발표
 - 3.16. 노르웨이 외무부 정무차관을 예방, 한반도에 전쟁위기 도래를 주장
- 1976.6월초 북한은 노르웨이 사회주의 극좌파 정당(Socialist Leftists) 대표단을 초청하고, 9.28. 핀란드 개최 국제기자단체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유엔총회를 의식한 정치선전 활동을 전개

2. 북한·포르투갈 관계

- Antumes 포르투갈 외상은 1975.11월 북한 측의 방문초청을 원칙적으로 수락했으나 구체적인 방문계획은 없다고 주포르투갈대사에게 통보함.

3. 북한·독일 관계

- 세계광산대회 조직위원회 참석 대표단의 독일 방문(1975.6.2.~5.)
- 북한 외채사절단의 독일 방문(1976.2.27.~3.7.)
- 김관섭 노동당 중앙위원회 연락위원장의 제4차 독일공산당 전당대회 참석을 위한 독일 방문(1976.3.18.~20.)
- 1976.7.1. 본-평양 간 텔렉스 개설 허가
 - 대북한 차관 회수를 위한 북한 측과의 업무 연락 등 경제계의 요망을 고려하여 허가

북한·중남미지역 국가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D-6-23 / 9 / 1-158

1976년 중 북한과 중남미지역 국가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가이아나 관계

- 북한·라틴아메리카 우호협회 북한사절단이 조선민주평화통일 지지위원회 조직을 위해 1976.4월 가이아나를 방문함.

2. 북한·아르헨티나 관계

- 1973.11.30. 서명된 아르헨티나·북한 간 무역협정이 1976.1.6. 비준서 교환과 동시에 발효됨.
 - 양국은 상호 무역사절단 방문 및 양국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각각 적절한 조치를 합의
- 북한 측은 1976.3.31. 아르헨티나 군사혁명 정부를 승인함.

3. 북한·콜롬비아 관계

- 콜롬비아 국회 의전장은 1976.8.10. 북한이 주모스크바 콜롬비아대사관을 통해 하원의원 3명과 기자 1명의 항공권과 일정표를 송부해 왔다고 주콜롬비아대사관에 통보함.
 - 8.25. 북한 측은 8.18.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으로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방문 연기를 요청

4. 북한·파나마 관계

- 이인춘 주쿠바 북한대사는 1976.12.18. 파나마를 방문하여 파나마 외상을 면담하고 외교관계 수립을 요청함.

102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중남미지역 친북한 단체 조직 및 현황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D-6-23 / 10 / 1-143

1. 1975.12월 아르헨티나 친북단체 Consejo Argentino de la Paz는 아래 요지의 박정희 대통령 앞 서한을 보내옴.
 -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43개국 결의안 지지
 - 한국의 통일은 주한미군 철수 후 외세 간섭없이 평화적이고 독립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것을 충고
2. 1975.6.1. 콜롬비아·북한 친선협회 간부 2명이 동경에서 개최되는 조총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함.
3. 주멕시코대사관은 1976.6월 주재국 친북단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친북단체 종류 및 구성일
 - 북한친선협회(1976.5.23.)
 - 통일촉진위원회(1976.5.23.)
 - 1976.4월 IPU(국제의원연맹) 대표로 멕시코를 방문한 김철석 북한 외무성 중남미부국장이 친북인사 Renato Leduo Lopez 기자에게 그간 유명무실했던 북한친선협회를 부활시킴과 동시에 통일촉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시하여 상기 두 개의 단체가 발족하게 됨.

북한·대양주지역 국가관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D-6-23 / 5 / 1-109

1976년 중 북한과 대양주지역 국가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뉴질랜드 관계

- 1976.4월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노조 및 학생단체와 친선도모 등 목적으로 신청된 북한인 3명의 입국신청 거절
- 로젠버그 뉴질랜드·북한친선협회 간사 등 친북인사 3명은 5.7. 북한을 방문하여 정준기 북한 부총리 예방

2. 북한·PNG(파푸아뉴기니) 수교

- 1976.5.26.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는 주인도네시아 PNG대사를 방문하여 양국 외교관계 수립에 관해 협의하고 6.1. PNG·북한 수교 발표에 잠정 합의함.

3. 북한의 대호주 관계정상화 시도 등

- 1975.10.30. 호주로부터 공관을 철수한 북한은 11.11. 호주 총선 이후 호주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중국(구 중공), 가이아나 및 동독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관계정상화를 시도함.
- 북한 측은 1976.11.15.~20. 호주 주간지 The National Times지에 북한의 비동맹 정책 찬양 지지 광고문을 게재함.

102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북구 4개국 주재 북한 공관원의 밀수사건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2 / 교민2

MF번호 D-6-23 / 13 / 1-290

1976년 중 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 주재 북한 공관원의 밀수 사건 경위와 이들 국가가 취한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1976.10.12. 북한 공관원이 34만 달러 상당의 마약을 차량에 옮겨 싣는 현장이 덴마크 경찰에 의해 포착됨.

- 10.15. 덴마크 정부가 북한 공관원 추방을 발표하자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도 그간의 수사 내용에 입각해 조치를 취함.

1028

2. 북유럽 4개국의 조치 사항

- 북유럽 국가 중 유일한 EC(구주공동체) 회원국인 덴마크는 북한에 대해 700만 달러의 채권이 있고 덴마크인 30여 명이 북한에 체제중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공관원 전원 추방조치
- 노르웨이 외무차관은 1976.10.18. 북한대사대리 등 4명의 북한 공관원에게 6일 이내 출국 통보
- 핀란드 정부는 10.20. 북한대사대리 등 4명의 외교관에 대해 출국 통보
- 스웨덴 정부는 북한 공관에서 유출된 다량의 술·담배 등을 압수, 공관원 중 대사 포함 5명에 대해 수사대상임을 경고하고 자진귀국 형식으로 처리

3. 북유럽 국가는 북한 공관원 추방 또는 자진귀국으로 동 사건을 일단락 짓고, 사건의 확대 및 외교관계 단절 회피

- 유럽 16개국, 미주 15개국, 아시아 15개국, 중동 8개국, 아프리카 5개국 등에서 238개 신문이 동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

북한의 대중동·아프리카지역 관계 동향 및 인사교류 현황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D-6-23 / 3 / 1-59

1976년 중 북한과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국가와의 인적교류 및 관계 동향임.

1. 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동향

- 에티오피아 대표단 북한 방문(1976.3월)
 - 무기거래 협상 및 시멘트 기술자의 북한 초청교육 문제 등 협의
- 북한·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간 경제기술 협정 서명(3.12.)
- 한시해 북한 외교부 부부장이 김일성 특사자격으로 세네갈·기니·베냉 방문(3.18.~26.)
- 김석기 북한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김일성 특사 자격으로 토고·가나·카메룬 방문(4월)
- 박성철 북한 부총리가 탄자니아·마다카스카르·잠비아·부룬디 방문(4월)
- 모리셔스는 북한의 사하라아랍공화국 승인에 대한 보복으로 주모리셔스 북한대사관 직원 및 원조단 전원 등 축출(4월)
- 북한·나이지리아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5.25.)

2. 중동지역 국가와의 동향

- 공진태 북한 부총리가 김일성 특사자격으로 튀니지·리비아·시리아·이라크·이집트·북예멘 방문 (1976.3.18.~4.18.)
 - 동인의 이집트 방문 중 북한 측은 이집트 MIG기 조종사를 이집트와 북한에서 훈련시키겠다고 제의
- 시리아 아랍 사회부흥당 대표단 북한 방문(4.13.~20.)
- 레바논과 시리아의 탁구선수단이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3차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참석차 평양 도착(4.19.)
- 허담 북한 외교부장은 헝가리 방문에 이어 알제리를 방문(4.24.~28.)
- 이집트 군사사절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김일성을 면담(5.18.~25.)
- 쿠웨이트 일간지 Al-Watan은 북한 외교관이 카이로에서 마약 밀수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보도(5.20.)
- 이란 농업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공진태 부총리를 면담(5.24.)

102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76

Zulfikar Ali Bhutto 파키스탄 수상 북한 방문, 1976.5.21.-26.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D-6-24 / 1 / 1-291

Zulfikar Ali Bhutto 파키스탄 수상이 1976.5.21.~26. 북한을 공식 방문함.

1. 주요 일정

- 김일성 예방 및 2차례 정상회담
- 노동당 창건 30주년 기념 전람관, 학생집단 체조, 환영 가극 공연 금강산의 노래 관람 등

2. 1976.5.26.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평양과 이슬라마바드에서 발표함.

- 한반도 문제
 - 북한 측: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군철수를 주장하고, 민족통일 3원칙과 5개항의 북한 정책 설명
 - 파키스탄 측: 북한 측의 민족통일 3원칙, 외세 개입 없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유엔사 해체 지지 표명
- 모든 분야에 있어서 보조일치와 공동이해 도모를 위한 제3세계 국가 간 결속 강화
- 북한·파키스탄 간 우호관계 증진과 김일성의 파키스탄 방문 초청

3. 1976.6.7.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주파키스탄 미국대사가 북한 방문 후 귀국한 Bhutto 수상을 면담하고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에 파키스탄의 중립유지를 요청했다고 보고함.

- 동 수상은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것은 일종의 망상 (Dream World)이라고 김일성에게 지적했다고 동 미국대사에게 언급
- 또한 매스게임을 보고 북한의 통제사회에 대한 전율감을 느꼈다고 언급

북한 문화관계 사절단 중남미 순방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D-6-23 / 14 / 1-173

1976년 중 북한이 비동맹 정상회의 지지 교섭 및 북한 선전 목적으로 중남미지역에 파견한 문화관계 사절단의 주요 활동 내용임.

1. 중남미사절단(단장: 이창선 북한 문화예술부 부장)은 1976.3.26.~5.5. 김일성 특사 자격으로 중남미 6개국(쿠바, 파나마, 멕시코, 페루, 가이아나, 자메이카)을 방문함.

- 비동맹 정상회의 관련 북한 입장 지지 교섭 및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제의 목적

2. 김영선 북한 중남미친선협회 부회장이 1976.4.17.~29. 파나마, 가이아나, 자메이카를 방문함.

3. 평양타임즈 편집인 등 3명의 방문단은 1976.8.9.~10.17. 파나마, 콜롬비아, 자메이카, 가이아나, 베네수엘라를 방문함.

- 방문국 주요 일간지에 비동맹 정상회의를 의식한 북한 선전광고 게재 교섭

4. 북한 문화전시 사절단은 1976.8.24.~11.2. 가이아나, 자메이카, 콜롬비아를 방문함.

- 북한 선전 사진전시회, 자수품, 공예품, 서적 전시회 개최
- 10.6. 발생한 쿠바 여객기 추락사고로 가이아나에서 사진 및 문화전시 후 자메이카로 향하던 북한 문화전시 사절단원 5명 사망

1031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북한사절단 중남미 순방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D-6-23 / 15 / 1-149

1976년 중 북한 고위인사의 중남미지역 국가 순방 관련 내용임.

1. 북한 중남미 친선사절단(단장: 황장엽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1976.4.16.~5.18. 중남미 4개국(멕시코, 파나마,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을 순방함.

- 멕시코에서 황장엽 단장 및 일행은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개회식 참석
- 엘살바도르 체류 중 대통령 및 국회부의장 면담
- 수행원 일행은 자메이카에 방문하여 자메이카 외상을 면담, 8월 비동맹 정상회담 시 북한입장 지지를 교섭
- 수행원 일행은 파나마 방문 중 조선통일지지위원회 발족

2. 북한 청년사절단(단장: 김경호 조선 노동사회주의청년당 중앙집행위원)이 1976.6.10.~7월초 중남미 5개국(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파나마, 멕시코, 자메이카)을 방문함.

- 9월 평양 개최 예정인 제2차 제3세계 비동맹국 청년대회 협의 및 참가 요청

3. 정광순 주아르헨티나 북한대사는 1976.7.22.~28. 파나마를 방문함.

- 파나마 조선통일지지위원회를 방문, 미군철수 촉구 및 김일성 앞 조선통일 메시지 채택

북한 통상사절단 중남미 순방, 1976.5.14.-7.5.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D-6-23 / 16 / 1-58

북한 통상사절단(단장: 이태백 북한 무역부 부부장)이 1976.5.14.~7.5. 중남미 4개국(멕시코,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을 순방함.

1. 멕시코(1976.5.14.~25.)

- 5.18. 멕시코 무역청장을 예방하여 시멘트 중공업 및 농업 부문의 협력과 멕시코 원면 조달 문제 협의

2. 에콰도르

- 1976.6.22. 에콰도르 경유 중 외무부 경제총국장과 비공식 접촉을 갖고, 바나나 수입 문제와 통상대표부 설치 문제 협의
 - 에콰도르 측은 교역량 증가 시 통상대표부 설치에 검토될 수도 있다고 대응

3. 베네수엘라(1976.6.18.~23.)

- 6.22. 베네수엘라 대외무역청장을 방문하여 교역 문제 협의
 - 베네수엘라와 무역협정 체결을 요망했으나, 베네수엘라 측 거절

4. 엘살바도르(1976.6.23.~7.2.)

- 6.27. 엘살바도르 국회의장 면담
 - 통상사무소 설치를 위한 무역협정 체결을 제의하였으나, 엘살바도르 측 거절

103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76

북한의 대일본 채무불이행 문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D-6-24 / 3 / 1-195

1975~76년 중 북한의 대일본 채무불이행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일본 간 교섭 관련 내용임.

1. 일본·북한 무역협회는 1976.7.28. 북한의 대일본 연체금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하고, 8월중 교섭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기로 결정

- 북한의 대일본 채무액
 - 부채 총액: 약 2억 5천만 달러
 - 지불기한을 넘긴 액수: 약 6천만 달러
- 일본 상사의 대북한 수출 적용이자율: 7.5%(일반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최저율)
- 연체 이자율: 장기 우대금리(prime rate)로 현재 9.2%에 1.25%를 가산한 이자율 적용
 - 북한 측은 일본 측의 최종안을 8.18. 도끼만행 사건을 핑계로 묵살

2. 일본의 무역 미결제금 교섭대표단(단장: 무라카미 일본·북한 무역협회 상무)과 북한 국제무역 촉진위원회는 1976.12.27. 미지불 연체 문제에 대한 합의서에 합의

- 미지불 연체(7천만 달러) 연기기간: 2년
- 연체이자: 연 7.5~8%(일본 측은 10.45% 제시)

일본의 대북한 전략물자 수출 문제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D-6-24 / 4 / 1-192

1974~76년 중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구입을 시도하고 있는 무인항공기, 잠수장비 및 무선 모형비행기 등 전략물자의 대북한 수출 저지 교섭 내용임.

1. 주일본대사는 1975.3.28. 도쿄 일본 외무차관 면담시 잠수장비, 무인비행기 등 전략물자의 대북한 수출승인이 되지 않도록 요청함.

- 도쿄 외무차관은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언급

2. 1976.2.4.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마사키 일본 공명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무기금수 3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북한에 탄약을 수출하였다고 언급

- 일본 통산성은 총탄 또는 기타 무기류를 북한에 수출한 사실이 없으며 지금까지 통관실적은 약 500만 엔 상당의 공구 수출이 전부라고 주일본대사관에 통보

3. 1976.10월 외무부는 북한의 일본제 무선 모형비행기 100대의 수입 계획과 관련하여 모형비행기가 지상 사진촬영, 고지대간 루트 연결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휴전선 지대에서 대남 항공 촬영 등 군사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을 일본 측에 지적

- 일본 통산성은 수출입 제도상 모형비행기는 수출승인이 불필요한 품목으로 표준 결재를 통해 수출되는 경우 통산성으로서의 수출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 표명

103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북한 항공기의 아프리카 및 서남아시아 지역 항로 개설 가능성 시험비행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 서남아

MF번호 D-6-24 / 7 / 1-75

1976년 중 북한이 아프리카 및 서남아시아 지역 항로 개설 가능성 조사를 위해 시험비행을 추진한 것과 관련된 내용임.

1. 주스리랑카대사는 1976.2.3. 북한이 주중국 스리랑카대사관을 통해 북한 항공기가 두 차례 아프리카 비행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중도에 콜롬보에 기착하여 급유편의를 받기 위해 스리랑카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는 정보를 스리랑카 측으로부터 입수하였다고 보고함.
2. 외무부는 동남아 및 서남아시아 공관에 북한이 주재국에 비슷한 요청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해당 공관들은 북한이 1976.6월까지 총 6회에 걸친 비행을 추진하여 콜롬보와 카라치 및 콜카타에는 기착을, 미얀마는 통과할 것이라고 보고함.

Kissinger, Henry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 문제에 관한 4자회담 제의, 1976.9.30.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D-6-24 / 9 / 1-177

1976.9.30. Henry Kissinger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 문제에 관한 4자회담 제의와 한국 정부의 대응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76.9.17. 하비브 국무차관은 박동진 외무부장관 면담시 키신저 장관이 제31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관련 4자회담 개최를 제의할 것이라면서 한국 측 입장을 문의함.

2. 외무부는 1976.9.24. 뉴욕 체류 중인 외무부장관에게 대통령 지시사항을 훈령으로 하달

- 남북한 직접대화, 미국과 중국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는 형식의 4자회담 지지
 - 참가국 확대는 추후 결정
- 4자회담 제의는 7·4공동성명에 의거한 남북회담과는 별개의 것으로 4자회담에서는 주로 휴전 협정의 대안 문제 등 취급
- 어떠한 경우에도 예비교섭 등 미국·북한 간 직접 접촉에 대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미국 측에 표명하고 국무장관 연설문에 이를 반영

3. 키신저 장관은 1976.9.30. 유엔총회 연설에서 4자회담 개최 제의를 확인함.

- 회담의 장소와 범위에 관한 토의를 포함, 남북한 간 예비회담의 즉각 개시
- 양자회담에서 성과가 있을 경우 미국과 중국이 4자회담에 정식 참여
- 여타국도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회의 개최 단계를 마련

4. 주유엔 북한대표는 1976.9.30. 성명을 통해 키신저 장관의 제의를 거부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

103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Ismail Fahmy 이집트 부총리 겸 외무장관의 남북한 관계 조정 제의 및 남북한 간 대화 재개 주선 용의 표명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D-6-24 / 10 / 1-26

1976년 Ismail Fahmy 이집트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남북한 간의 대화 재개 주선 용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하여 주카이로총영사의 부적절한 처사 관련 내용임.

1. 1976.8.5. 주카이로총영사가 Ismail Fahmy 이집트 부총리 겸 외무장관 면담 시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의 무익함을 거론한데 대해 Fahmy 장관은 이집트 정부가 남북한 관계 조정을 위해 카이로에서 남북한 대화 재개 주선 용의를 표명하였다고 보고함.
2. 1976.8.20. 외무부는 훈령을 통해 주카이로총영사가 Fahmy 장관에게 통일 문제와 남북회담에 관한 정부입장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 장관으로부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이 있기를 은연중에 종용하도록 지시함. 또한 동 장관과 면담하게 된 경위와 면담요목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고, 추후 관련 외교문제는 외무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함..
3. 1976.8.21. 주카이로총영사는 Fahmy 장관과 면담하고 동 장관의 남북대화 제의를 재차 보고한바, 한국 정부는 이집트 외무장관의 어떠한 역할도 바라지 않고 있으며 동 장관의 제의를 원칙적으로 환영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주카이로총영사에게 엄중히 지시함.

동구권 여행허가 - 헝가리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3

MF번호 E-6-14 / 2 / 1-47

1976년 중 정부가 헝가리 여행허가를 부여한 내용임.

1. 정부는 1973년 6·23선언에 따라 동유럽 국가와 관계개선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동 국가 개최 국제회의 참석 및 체육 관계 교류를 적극 장려함.
 - 1976년에는 3명의 대학 교수가 정부의 허가를 얻어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는 제8차 세계비교 문학자회의에 참석함.
2. 정부는 허가를 내어준 경우에도 한·헝가리 양국민 교류 보도가 될 경우 여행자 신변 안전문제 및 교류 촉진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우려하여 언론보도 방지 및 방문 후 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부과함.

103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76

동구권 교류 - 폴란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3

MF번호 E-6-14 / 3 / 1-57

1976년 중 한국 국민의 폴란드 방문과 관련된 내용임.

1. 정부는 1973년 6·23선언에 따라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동 국가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참석 및 체육 관계 교류를 적극 장려함.
2. 정부는 1976년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국제아이스하키연맹 총회, 제2회 세계주니어 역도선수권 대회, 제26차 국제약사연맹총회 등 참석자들에 대해 방문을 허가함.
 - 그러나 폴란드 정부로부터 입국사증을 받지 못해 방문하지 못한 사례도 발생함.

동구권 교류 - 세르비아-몬테네그로(구 유고슬라비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3

MF번호 E-6-14 / 4 / 1-31

1976년 중 세르비아·몬테네그로(구 유고슬라비아)와의 인적교류에 관한 내용임.

1.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학 사회과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의 한국인 연수생 2명이 학습여행의 일환으로 유고슬라비아에 입국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됨.
2. 세계레슬링연맹 초청으로 한국 레슬링협회 임원들이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함.
3. 유고슬라비아 선박회사 직원이 현대중공업에서의 선박수리 감독을 위해 입국 신청함.

104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1976

문화활동을 통한 동구권 교류 - 세르비아-몬테네그로 (구 유고슬라비아)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3

MF번호 E-6-14 / 5 / 1-57

1976년 중 한·세르비아·몬테네그로(구 유고슬라비아) 양국간 영화제, 음악세미나 참가 및 방송 프로그램 교환 등 문화 활동을 통한 교류가 이루어짐.

1. 정부는 유고슬라비아 개최 스포츠 및 관광영화제 참가, 국제청소년음악연맹 주최 국제회의 참석, 한국 교향악단 방문 등을 장려함.
2.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음악제에 유고슬라비아 음악인을 최초로 초청함.

1977년 미국 국방백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6-44 / 1 / 1-136

포드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두교서(The State of Union)와 1977년도 국방백서(Defense Posture)의 주요 내용임.

1. 연두교서(1976.1.19.)

- 포드 대통령은 미국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연두교서에서 외교, 국방 등 안보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정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발표
- 행정부의 균형예산 추구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이 최초로 1,000억 달러 대 돌파
- 1977년도 군사원조 총규모와 무상군원 비중, 경제원조 총액 및 대상지역 등을 발표

2. 1977년도 국방백서(1976.1.27.)

- 요청 예산액: FY77 수권 총액 1,127억 달러와 지출예산 1,001억 달러
- 럼스펠드 장관 발언 요지
 - 미국의 이익보호와 세계정세의 안정은 미국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할 때만 가능
 - 현재 미국의 국방력은 임무수행에 충분하나, 장래 소련의 군비증강에 대비하고 유럽과 동북아지역에 군사력과 안정의 유지가 요청됨을 감안하여 핵무기, 공군력, 해군력 등 증강 계획 제시
 -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상당 규모의 군사 지원 필요, 한·미국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제2보병 사단 및 전술 비행단의 계속 유지 필요성 강조
- 특징
 - 일본과 한국이 미국안보에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고, 한국의 안정 없이는 동북아의 안정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
 - 이러한 전략적 관점은 한국을 동북아 전체의 지역적 전략 개념에 포함시켜 발전한 것으로 평가

104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미국의 대외무기 판매정책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6-44 / 2 / 1-16

1975~76년 중 미국 정부의 대외무기 판매정책 관련 내용임.

1. 미국의 대외무기 판매 증가

- 뉴욕타임즈는 1975.4.14.자 보도에서 미국의 군수품 수출이 급속히 성장하여 최대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 게재
 - FY74 기간 중 83억 달러 수출, 이중 65억 달러는 이란 및 이스라엘에 대한 수출
- The Defense Monitor는 1975.5월 미국의 대이란 대규모 군사물자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페르시아 만에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간의 긴장과 전쟁 가능성을 높이므로 의회의 통제 필요성 제기

2. 미국 의회의 통제

- 상원 외교위원회 대외원조 소위원회는 1976.1월 FY76 수권법안에 포함된 해외 군사차관을 제한하는 험프리 수정안 등 채택
-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의회의 대외 군사차관 제한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주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진전 사항 파악

FY76-77 미국의 안보원조법. 전7권 (V.1 FY76 수권법 I : 1975.4-12월)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6-44 / 3 / 1-515

미국의 FY76-77 안보원조법안에 포함된 대한민국 군사원조 관련 사항에 관하여 1975.4~12월 중 미국 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임.

1. 한국 정부의 관심 사항

- 한국의 국군현대화 5개년 사업계획이 미국 의회의 원조금 삭감으로 지연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액을 증액하여 제출하도록 교섭하는 한편, 대한민국 군사지원 예산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 경주
- 주한미군 철수 및 군사원조 감축 관련 결의안 추진 등 대한반도 안보에 관한 토의 동향과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 및 비판 해소가 큰 과제

2. 토의 경과

- 포드 미국 대통령은 FY76 안보원조법안을 1976.10.30.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그 중 한국 관련은 무상 7천 4백만 달러와 차관 1억 2천 6백 달러, 총 2억 달러를 요청
- 한편, Fraser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의원은 Solarz 의원과 공동으로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군사원조를 중단한다는 수정결의안 채택
 - 정부는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관련 결의안 저지에 노력 경주
 -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로 Fraser 의원과 Solarz 의원은 주한미군 철수 시점을 FY78로 연기하는 내용의 2차 수정안 제출
- 상원 외교위원회 대외원조 소위원회는 12.19. 대한민국 무상군원 5천 4백만 달러 확정

104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FY76-77 미국의 안보원조법. 전7권 (V.2 FY76 수권법 II: 1976.1-5월)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6-44 / 4 / 1-381

미국의 FY76-77 안보원조법안에 포함된 대한민국 군사원조 관련 사항에 관하여 1976.1~5월 중 미국 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임.

1.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한국에 우호적인 Findly 의원이 1975.12.19. 제출한 Fraser-Solarz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을 토의하여 가결함.

- 주한미군 철수 가능 시점을 한국의 자주국방 일정에 맞추어 FY80을 목표로 연기하고 각종 행정부의 보고 의무를 완화
- 주한미군 철수와 의원법안을 연결시키려는 Fraser 의원의 노력은 무산

2. 양원에서 통과된 수권법안은 1976.3.30. 양원 협의회를 거쳐 상원과 하원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액을 확정하고 행정부에 송부

- 무상 5천 5백만 달러와 차관 1억 2천 6백만 달러, 교육훈련 270만 달러 등 총 2억 870만 달러

3. 포드 미국 대통령은 1976.5.7. 행정부의 외교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의회의 부당한 제약을 막기 위해 FY76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 수권법안에 포함된 수원국에 대한 일방적 제한규정을 완화 내지 철폐 요구

FY76-77 미국의 안보원조법. 전7권 (V.3 FY77 수권법 I : 1976.1-4월)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6-44 / 5 / 1-335

미국의 FY77 대외안보원조 수권법안에 포함된 대한민국 군사원조 관련 사항에 관하여 1976.1~4월 중 미국 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임.

1. 포드 미국 대통령은 FY77 대외원조 규모 등에 관한 의회의 질의서에 대해 1976.1.20. 의회에 송부한 보고서에서 1977년부터 한국에 대한 무상장비지원 중단(Termination of Grant Material Assistance)을 통보함.

- 무상원조에 의한 전차, 항공기 및 함정 등 군사장비 지원
- 무상원조를 종결하고 군사판매차관(FMS)을 대폭 증액
- 미국 정부는 의회에 대해 FY77 군원으로 2억 7,500만 달러를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오면서 무상장비지원 중단을 상쇄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라고 설명

2. 포드 행정부는 1976.3.25. FY77 대외원조 수권법안을 의회에 송부하였으며 한국에 대하여는 총 4억 3,290만 달러(군사원조 총 2억 8천 6백만 달러와 경제원조 총 1억 4천 690만 달러)를 요청함.

- 상원과 하원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개시되었으며, 한국에 관련하여 상원 외교위원회 대외 원조 및 경제정책 소위원회에서 청문회 개최

1047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FY76-77 미국의 안보원조법. 전7권 (V.4 FY77 수권법 II: 1976.5월)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6-44 / 6 / 1-270

미국의 FY77 안보원조 수권법안에 포함된 대한민국 군사원조 관련 사항에 관하여 1976.5월 중 미국 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임.

1. 하원 심의

- 1976.5.11.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FY76과 FY77 해외원조법안을 병합한 단일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종결
 - 군원 및 경제원조 제한을 골자로 하는 Fraser-Solarz 수정안 통과
 - 대한민국 군사원조 총액을 2억 9천만 달러로 제한하고, PL480 원조액은 1억 7천만 달러로 삭감

2. 상원 심의

- FY76과 관련하여 인권조항 위반 국가에 대한 원조중단 결의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조정
- FY77과 관련하여 개별 국가별 심의 대신 무상군원 등 총액만 삭감
- 1976.5.6. 한국군 현대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수정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외원조 소위원회에서 부결

3. 미국 행정부 반응과 한국 정부 대응

- 포드 미국 대통령은 1976.5.19.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제한 수정안의 부당성을 지적
- 한국 정부는 친한국 의원과 행정부를 통해 Fraser-Solarz 수정안 폐기 방안 모색에 전력투구

4. 본회의 심의 경과

- 1976.5.19. 하원 본회의에서 Fraser 의원은 자신의 수정안에 포함된 PL480 부분은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

FY76-77 미국의 안보원조법. 전7권 (V.5 FY77 수권법 III: 1976.6월)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6-44 / 7 / 1-322

미국의 FY77 안보원조 수권법안에 포함된 대한민국 군사원조 관련 사항에 관하여 1976.6월 중 미국 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임.

1. 의회 심의 결과

- 하원 본회의는 1976.6.2., 상원 본회의는 6.14.에 각각 FY76-77 대외원조 수권법안을 통과 시킴.
- 하원에서는 Fraser-Solarz안을 폐기, Derwinski안을 의결하고, 한국의 인권 문제에 관하여 Findly 수정안을 채택
- 하원 세출위원회는 6.8. 1977회계연도 기간 중 주한미군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는 행정부안 승인
- 상·하원 협의회가 의결한 FY76-77 대외군원 수권법안 내용 중 한국에 대하여는 FY76 무상 군원 5,500만 달러, 과도기 140만 달러 등 총 6,470만 달러, 군사차관은 FY76 소폭 감축, FY77 전액 승인
- 6.22. 하원 본회의, 6.25. 상원 본회의에서 수권법안 의결

2. 정부와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한·일본의원연맹 소속 의원을 포함한 일본 중·참의원들도 Fraser안 부결, 대한민국 원조법안 통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 중단 등을 위한 미국 상하 양원 의원을 대상으로 서한 외교를 전개함.

FY76-77 미국의 안보원조법. 전7권 (V.6 FY77 수권법 IV: 1976.7-11월)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6-44 / 8 / 1-213

미국의 FY77 안보원조 수권법안에 포함된 대한민국 군사원조관련 사항에 관하여 1976.7~11월 중 진행된 내용임.

1. 1976.7.1. 포드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행정부로 이송된 FY76-77 안보원조 수권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발효됨.

- 7.1. FY76 대외원조 지출법안 서명
- 10.1. FY77 지출법안 서명

2. 미국 대통령은 수권법에 부가된 보고 의무에 따라 1976.9.30. 최초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

- 한국군 현대화 계획의 진전 상황, 한·미국 상호방위조약상 미국의 역할 및 주한미군 단계적 감축 전망에 관한 보고 의무

FY76-77 미국의 안보원조법. 전7권 (V.7 지출법)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6-44 / 9 / 1-227

1975~76년 중 미국의 FY76-77 안보원조 지출법이 미국 의회에서 심의 및 발효된 내용임.

1. FY76

- FY76 대외원조 지출법안은 하원 세출위원회 심의 후, 1976.3.4.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3.23. 상원 본회의에 제출
- 양원 협의회에서 채택된 합의안에 7.1. 미국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발효

2. FY77

- 하원 본회의는 1976.6.29. 지출법안을 의결하고, 상원 본회의도 9.10. 지출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동 법안 양원 협의회에 회부
- 10.1. 미국 대통령이 양원 합의안에 서명함에 따라 발효

105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주태국 미군 철수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6-47 / 3 / 1-23

1975~76년 중 태국에 주둔한 미군의 철수에 관련된 내용임.

1. 1975.5.5. 발표된 감축 계획에 따라 2만 5천 명 규모의 주태국 미군을 1만 6천 명으로 감축함.

- 미국과 태국 간에는 역내 다자간 안보협정인 SEATO(동남아시아조약기구) 외에 형식상 양자간 방위조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태국 외상과 미국 국무장관 간 Thanat-Rusk 공동성명으로 SEATO에 의한 공약을 미국·태국 간 안보 공약으로 해석
 - 태국 정치인들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반면, 군부는 미군 철수에 반대
- 태국군 최고사령부는 태국 북부 소재 미국 공군기지가 1975.10월말 이전 폐쇄된다고 1976.9.9. 발표
 - 1975.6월말까지 7,500명 철수

2. 1975.5월 태국 정부는 태국 내 미군기지가 캄보디아에 나포된 미국 선박 선원 구출작전에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였으며, Kukrit 수상은 주태국 미국대사를 초치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주미국 태국대사를 소환함.

- 태국 정부는 1976.3.20. 주태국 미군의 군사행동 중지와 군사고문단을 제외한 전원의 4개월 이내 철수를 요청
 - 미국 국무부는 동일자로 미군이 철수를 개시했다고 발표

체코 및 폴란드 NNSC(중립국 휴전감시단) 위원 방한, 1976.1.15.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G-6-49 / 1 / 1-51

1976.1.15. 체코 및 폴란드 NNSC(중립국 휴전감시단) 위원들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1976.1.15. 주한 호주대사관은 군사정전위원회와의 합의 하에 공산 측 중립국 감시위원단 4명을 초청하기로 결정
 - 폴란드 및 체코의 대표 및 교체대표 4명

2. 방한 결과

- 휴전감시단은 판문점 공동감시구역 방문, 시내 백화점 쇼핑 등 일정 진행
- 대표단을 위한 주한 호주대사 주최 오찬에 김정태 외무부 정무차관보가 참석하여 이들과 의견 교환
 - 북한 동정 문의, 남북대화와 통일 문제 등에 관한 의견 교환
- 주한 호주대사관은 차량 이동시 관계자가 방문인사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외무부에 제공
 - 제30차 유엔총회 평가 등 한국 문제, 서해 5도에서의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체코와 북한 간 관계 등

1053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Cabrera Sevilla, Raul 에콰도르 육군참모차장 방한, 1976.10.8.-14.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G-6-49 / 2 / 1-75

Raul Cabrera Sevilla 에콰도르 육군참모차장이 1976.10.8.~14. 방한함.

1. 방한 경위

- 정부는 1976년 국군의 날 행사에 Cabrera 에콰도르 육군참모차장을 초대하였으나, 국군의 날 행사가 취소됨. 주에콰도르대사는 1976.9.10. 국군의 날 행사와 관계없이 동인을 초청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육군본부는 동 참모차장을 초청하기로 결정함.

1054

2. 주요 일정

-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등 예방
- 육군사관학교, 군수사령부, 조병창, 울산 산업시설 등 시찰

Zekarias, Nadew 에티오피아 군사위원회 위원 방한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G-6-49 / 3 / 1-60

Nadew Zekarias 에티오피아 군사위원회 위원이 1976.6.22.~7.6. 방한함.

1. 방한 경위

- 에티오피아 군사정부는 1974년 쿠데타 이후 실시된 혁명과업 수행을 위해 지방에 파견되었다가 철수하는 계몽요원에게 수여할 약 12만 개의 Badge를 단기간에 제조 공급 가능한 한국 업체 물색 등을 위해 군사위원 등 관계자의 한국 파견을 통보하면서 협력을 요청

2. 윤하정 외무부차관이 1976.7.1. 동 위원 면담시 남북한 문제를 설명하고 한국입장에 대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지지를 요청한데 대해 동 위원은 귀국 후 정치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의장에게 보고를 약속함.

- 동 위원은 외무부차관의 에티오피아 방문을 권유하고 3군대표로 구성되는 에티오피아 사절단의 방한 계획을 언급

3. 1976.7.19. 에티오피아 측이 기관총 탄약 500만 발의 공급을 요청함에 따라 외무부 통상국장은 9.3.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와 협의함.

-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기술로 제조되는 병기 및 탄약은 한국 정부가 임의적 판단 하에 수출할 수 있으나, 한국이 처한 국제적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미국 탄약업체와의 경쟁을 견제하는 것 같은 반응 표출

1055

대한민국 외교자료 해제집

인도네시아 국방대학원생 일행 방한, 1976.11.7.-10.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G-6-49 / 4 / 1-22

인도네시아 국방대학원 학생 26명이 1976.11.7.~10. 방한함.

1. 인도네시아 정부는 1976.10.7.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방대학원 학생 26명의 한국 방문을 통보해오면서 협조를 요청함.
2. 한국 국방대학원의 방문 일정 주선으로 동 대학원생 방문단은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군 수뇌부 예방, 새마을 시설 시찰, 판문점 견학, 구로공단 등을 방문함.

Webb, Sir Richard 뉴질랜드 국방 참모총장 방한, 1976.9.27.-10.2.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G-6-49 / 5 / 1-33

Sir Richard Webb 뉴질랜드 참모총장이 1976.9.27.~10.2. 방한함.

1. 방한 경위

- 주뉴질랜드대사관의 추천과 참전용사유치위원회 위원장 겸 국제관광공사 사장의 초청으로 Richard Webb 뉴질랜드 참모총장이 방한함.
- 원래 방한 목적인 국군의 날 행사는 취소되었으나 방한은 그대로 추진

2.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외무부차관,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유엔군사령관 예방
- 판문점 방문
-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참관 등

1057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사우디아라비아 군사사절단 방한, 1976.5.29.-6.12.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동 / 통상3

MF번호 G-6-49 / 10 / 1-33

Assad Al-Zuhair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군사사절단이 1976.5.29.~6.12. 방한함.

1. 방한 목적

- 군 장비 정비, 보급 제도의 개선 및 발전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함.

2.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국방부장관, 상공부장관 등 예방
- 과학기술연구소, 울산 산업시설, 종합정비창, 국방부 조병창 등 육·해·공군 군사시설 시찰

3. 방한 결과

- 동 사절단은 주요 관심 사항인 무기·총탄류의 수입 희망, 군 장비 유지 전기 기술자, 특전대 훈련 교관 및 태권도 교관 파견 가능 여부, 한국내 각종 훈련기관 및 군 교육기관에 사우디 훈련생 파견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4. 후속 조치

- 1976.6월 정부는 사절단이 표명한 관심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 7월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무관을 리야드로 출장 보내 협력 사항 파악
- 9월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은 사우디아라비아 군이 기술(정비) 훈련을 포함한 총포, 차량 및 공병 중방비의 정비 용역을 한국에서 발주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첩보를 보고하면서 관련 업체의 사전 세부 준비를 건의

Eklund, Carl Gunnar 스웨덴 통합사령부 참모장 방한, 1976.1.18.-21.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G-6-49 / 11 / 1-14

Carl Gunnar Eklund 스웨덴 통합사령부 참모장이 1976.1.18.~21. 방한함.

1. 방한 목적

- Eklund 참모장은 스웨덴이 해외에 파견한 유엔군 각 부대 방문 계기에 한국 중립국 휴전감시 위원단 스웨덴 대표단을 시찰하기 위해 방한

2. 주요 일정

-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유엔사령관 예방
- 판문점에서 스웨덴 중립국 휴전감시위원단 면담

1059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영국 군사관계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G-6-49 / 6 / 1-39

1975~76년 중 영국 군사관계 주요 인사의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IISS(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게릴라 문제 전문가로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월남전 고문을 역임한 Robert G. Thompson 경이 문화공보부장관의 초청으로 1976.2.8.~27. 방한함.

- 문화공보부장관, 외무부차관, 중앙정보부장, 대통령 특별보좌관, 한·미국 연합사령관 등 인사 예방
- 판문점 및 산업시설 시찰
- 아세아문제연구소 세미나 발표 등

2. Roy Mason 국방장관은 홍콩 방문 계기에 국방부장관의 초청으로 1976.4.19.~21. 방한함.

-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면담
- 유엔사 및 특전사 방문 등

Bendahan, Brigadier Raul J. 우루과이 공군 참모장 방한, 1976.9.27.-10.3.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G-6-49 / 9 / 1-69

Raul J. Bendahan 우루과이 공군 참모장이 1976.9.27.~10.3. 방한함.

1. 방한 목적

- 동 참모장은 대만 방문 계기에 한국 국방부의 초청으로 국군의 날 행사(추후 취소) 참석 및 군부대 시찰 목적으로 방한

2. 주요 일정

-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3군 참모총장 및 합참의장 등 예방
- 수원 및 대구 전투비행단, 판문점 등 시찰

1061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중국(구 중공)의 핵실험 실시 문제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G-6-49 / 12 / 1-53

1973~76년 중 중국(구 중공)의 핵실험 실시 관련 내용임.

1. 중국은 1973년에 이어 1976.9.17. 제2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중국의 핵실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함.

- 중국은 KT급 원폭실험 16회와 MT급 수폭실험 6회 실시하여 사정거리 5,000Km 이상의 중거리탄을 실전 배치하였으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
 - 슐레진저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의 1976년 내 ICBM 개발 언급

2. 외무부는 중국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과의 안보 문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함.

- 중국 외교정책상의 핵무기, 중국의 핵무기와 미국의 방위, 중국의 핵무기와 군축, 미국의 대중국 군축 접근법, 미국의 중국에 대한 선제 핵 불사용 선언의 함의 등 포함

미국의 한국 내 핵무기 배치 문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2007-29 / 24 / 1-53

1975~76년 중 미국 핵무기의 한국 내 배치와 관련된 문제임.

1. 한국 내 핵무기 배치와 북한의 반발

- 핵무기 배치 현황(미국 국방정보센터의 The Defense Monitor 1976.1월호 게재)
 - 미국 정부는 한국 내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정책을 유지하였으며, 미국과 일본 언론은 미국 국방정보센터의 보도 자료를 인용하여 한국 내 핵무기 배치 계속 보도
 - 한국 내 배치 핵무기의 교체 여부도 관심사항
- 북한은 1975.12월 미국의 휴전선 부근 핵무기 배치를 비난한데 이어 군사정전위원회 및 인도네시아 등 외국 정부에 핵무기 배치 비난 및 철수 주장 성명서 전달 등 미국 핵무기 철수를 국제적으로 이슈화

2. 한반도 내 핵무기 사용 가능성 관련 미국 대통령 등의 발언

- 솔레진저 국방장관은 1975.6.20. 기자회견 중 핵무기 사용 여부는 사태에 따라 최고위층이 판단할 문제이며 여하한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임을 천명
- 포드 대통령은 1975.6.25. 기자회견 중 '북한의 한국 침공 시, 이를 격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를 질문 받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저지력은 국가 이익에 따라 융통성 있게 사용될 것이나 그러한 저지력 사용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기자회견에서 논의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
- 포드 대통령의 상기 발언 이후, Thomas O'Neill 민주당 하원원내총무와 언론은 기존의 핵무기 사용정책과 배치되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응
 - 포드 대통령은 핵무기 선제 사용 부인을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오랜 기간 수립된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이탈한 것임.

1063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



부 록

| 1976년 |

- 1.1. 만국우편연합(UPU) 헌장 제2차 추가의정서 발효(조약 제553호)
- 1.1. 만국우편연합(UPU) 총칙 및 최종의정서 발효(조약 제554호)
- 1.1.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발효(조약 제555호)
- 1.1. 소포우편물 약정 및 최종의정서 발효(조약 제556호)
- 1.1. 우편환 및 우편여행자수표 약정 발효(조약 제557호)
- 1.1. 1973년도 국제사탕협정의 제1차 연장 협정 발효(조약 제562호)
- 1.4.-7. 심명원 주라이베리아대사 Tolbert 라이베리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 1.5.-8. Passman, Otto 미국 하원의원 방한
- 1.5.-9. Garn, Edwin J. 미국 상원의원 방한
- 1.5.-12. 엔도 데츠야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 방한
- 1.6.-9. 이용희 대통령정치담당특별보좌관 중국(구 중공) 방문
- 1.7. 한·독일 간의 부산시 하수도 사업에 관한 기술협력을 위한 약정 발효(외무부고시 제1호)
- 1.9.-11. Johnston, Benett J. 미국 상원의원 방한
- 1.15.-20. Soemita, William 수리남 농수산장관 방한
- 1.16. 장상문 주엘살바도르대사 신임장 제정(멕시코상주)
- 1.16.-2.4. 통상사절단 가봉·나이지리아 방문
 - 단장: 오범식 무역협회 부회장
 - 가봉(1.20.~24.), 나이지리아(1.24.~26.)
- 1.18.-21. Eklund, G. 스웨덴 통합사령부 참모장 방한
- 1.18.-21. Hoffmann, M. 미국 육군장관 방한
- 1.18.-22. 최영희 국회 국방위원장 중국(구 중공) 방문
- 1.19.-21. 제3차 77그룹 아시아지역 각료회의(Jakarta)
 - 수석대표: 노신영 외무부차관
- 1.21.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발효(조약 제559호)
- 1.21. 전시회, 전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 발효(조약 제560호)

- 1.21.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 발효(조약 제561호)
- 1.21.-22. 제3차 한·일본 경제협력실무자회담(동경)
 - 수석대표: 이선기 경제기획원 차관보 / 기쿠치 외무성 경제협력국장
- 1.22. 국제전기통신협약(ITU) 발효(조약 제564호)
- 1.22. 국제전기통신협약(ITU)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적 추가의정서 발효(조약 제565호)
- 1.26. 한·캐나다 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 서명, 발효(조약 제563호)
- 1.27.-2.8. 북한 경제사절단 소련 방문
 - 단장: 공진태 정무원 부총리
- 1.28.-2.3. 정일권 국회의장 이란·쿠웨이트 방문
 - 이란(1.28.~30.), 쿠웨이트(1.31.~2.3.)
- 1.29.-30. 노신영 외무부차관 말레이시아 비공식 방문
- 1.30.-31. Murphy, John M. 미국 하원의원 방한
- 2.2.-5. 필리핀 수산청장 방한
- 2.2.-6. 아·아법률자문위원회(AALCC) 해양법소위원회 회의(New Delhi)
- 2.2.-7. Thajeb, Sjarif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장관 방한
- 2.8.-9. 1976년도 제1차 한·일본 생사료회담(서울)
 - 수석대표: 노진식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 노구치 통산성 생활산업국장
- 2.9.-10. Iraqui, Abdelkakim Hosseyni 모로코 외무차관 방한
- 2.10.-16. Osman, S. 아·아농촌재건기구(AARRO) 사무차장 방한
- 2.10.-24. 김경원 대통령국제정치담당특별보좌관 일본 방문
- 2.12. 한·이란 간의 상표권과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566호)
- 2.12. 한·이란 간의 무역협정 서명(1976.6.14. 발효, 조약 제578호)
- 2.12.-3.18. 북한 노동당 대표단 서구순방(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독일)
 - 단장: 김관섭 대외문화연락위원회위원장
 - 벨기에(2.12.~20.), 스위스(2.22.~26.), 네덜란드(2.29.~3.5.), 룩셈부르크(3.7.~9.), 오스트리아(3.10.~18.), 독일(3.18.)
- 2.13. 주파라과이대사관 개설

- 2.13.-15. 아중동지역 공관장회의(Teheran)
- 박동진 외무부장관 주재
- 2.16.-21. Greeves, Harry A. 라이베리아 국방장관 방한
- 2.18.-20. 한·미국 섬유회담(Washington, D.C.)
- 수석대표: 노진식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 Smith, Michael STR 섬유협상 대표
- 2.20.-26. 구주지역 공관장회의(서울)
- 박동진 외무부장관 주재
- 2.22.-26. Engulu, B.B.L.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특사 방한
- 2.22.-3.6. 북한 노동당 대표단 소련 방문
- 단장: 박성철 총리
- 2.23. Cambiotis, Jean C. 주한 그리스대사 신임장 제정(일본상주)
- 2.23. 장재용 주에콰도르대사 신임장 제정(칠레상주)
- 2.24. Popal, Ali Ahmad 초대 주한 아프가니스탄대사 신임장 제정(일본상주)
- 2.24. Perez Colman, Edgar Enrique 초대 주한 아르헨티나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2.24.-27. Bahaeddin Mohamed Idris 수단 특사(무임소장관) 방한
- 2.25.-3.18. 노재현 합참의장 아주 순방(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대만(구 자유중국))
- 필리핀(2.25.~29.), 호주(2.29.~3.4.), 인도네시아(3.4.~7.), 싱가포르(3.7.~8.), 말레이시아(3.8.~11.), 태국(3.11.~13.), 홍콩(3.13.~15.), 대만(3.15.~18.)
- 2.27.-3.7. 북한 외채사절단 독일 방문
- 2.28.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 중국(구 중공) 방문
- 3.1.-5. 황산덕 법무부장관 중국(구 중공) 방문
- 3.1.-20. 제14차 Tripoli 국제박람회 참가
- 3.4. 한·영국 간의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 서명, 발효(조약 제567호)
- 3.4.-5. 1976년도 제2차 한·일본 생사료회담(동경)
- 3.5. 한·인도 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1976.8.30. 발효, 조약 제582호)
- 3.5. 한·독일 간의 재정지원에 관한 협정 서명, 발효(조약 제568호)
- 3.6. 유양수 주카타르대사 신임장 제정(사우디아라비아상주)

- 3.6. 한·일본 간의 대전직업훈련원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발효(조약 제569호)
- 3.8.-12. 레소토 경제사절단 방문
- 단장: Molapo, K. C. 외무차관보
- 3.9.-23. 박동진 외무부장관 동남아 순방(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3.9.~12.), 필리핀(3.12.~17.), 말레이시아(3.17.~19.), 싱가포르(3.19.~23.)
- 3.10.-12. 장예준 상공부장관 필리핀 방문
- 3.13.-15. 연하구 주케냐대사 모리셔스 독립기념식 참석
- 3.15.-16. 제7차 한·뉴질랜드 통상장관 회담(Wellington)
- 수석대표: 장예준 상공부장관 / Talboys, B. E. 부수상겸외상겸대외무역상
- 3.15.-19. 제3차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상임위원회(Geneva)
- 3.15.-5.7.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 제4회기(New York)
- 수석대표: 문덕주 주유엔대사
- 3.16.-30. 특별사절단 튀니지·모로코 방문
- 단장: 심홍선 총무처장관
- 튀니지(3.18.~23.), 모로코(3.24.~27.)
- 3.17. 한·스페인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발효(조약 제570호)
- 3.17.-20. 어업사절단 모리타니아 방문
- 단장: 박원빈 한국 원양어업협회장
- 3.18.-19. 제7차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서울)
- 수석대표: 장예준 상공부장관 / Anthony, J.D. 부수상 겸 대외무역장관
- 3.18.-25. 공진태 북한 부총리 튀니지 방문
- 3.22.-23. 강용순 수산청장 수리남 방문
- 3.23.-26. 제8차 한·일본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서울)
- 3.24.-4.2. 제9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Bangkok)
- 수석대표: 김용환 재무부장관
- 3.24.-4.2. 제32차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총회(Bangkok)
- 수석대표: 천병규 주태국대사
- 3.25. 윤하정 제20대 외무부차관 취임
- 3.29.-4.1. 어업사절단 모리타니아 방문
- 단장: 박원빈 한국 원양어업협회장

- 3.29.-4.1. 허담 북한 외교부장 미얀마(구 버마) 방문
- 3.30. Weidinger, Franz 주한 오스트리아대사 신임장 제정(일본상주)
- 3.31.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특별회의(Manila)
- 3.31. 공진태 북한 부총리 시리아 방문
- 4.1. 한·미국 간의 면직물, 모직물 및 인조섬유 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개정 발효
(외무부고시 제2호)
- 4.1.-14. 박성철 북한 총리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방문
- 탄자니아(4.1.), 마다가스카르(4.3.~9.), 잠비아(4.10.~14.)
- 4.2. 문덕주 제7대 주유엔대사 임명
- 4.2.-9. 구태회 국회 부의장 장개석 중국(구 중공) 총통 서거1주기 행사 참석
- 4.2.-27. 친선사절단 아프가니스탄 및 서남아 순방(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 단장: 김정태 외무부 정무차관보
- 네팔(4.4.~6.), 방글라데시(4.7.~10.), 파키스탄(4.11.~13.), 아프가니스탄(4.15.~19.),
인도(4.19.~20.)
- 4.3.-7. Mohiddin Hisham, Nazer 사우디아라비아 기획상 방한
- 4.5.-10. 제1차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 청소년 체육 및 스포츠 관계장관회의
(Paris)
- 4.5.-10. 제5차 한·독일 경제실무자회담(서울)
- 수석대표: 함태혁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Schuessler, Hans 경제성 대외협력국장
- 4.6. 한·프랑스 간의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프랑스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소급 적용을 위한 협정 서명, 발효(조약 제571호)
- 4.6.-9. 제4차 국제통신위성기구(INTELSAT) 서명자 회의(Singapore)
- 4.6.-10. Facio, Gonzalo J. 코스타리카 외상 방한
- 4.7.-9. 한·일본 섬유 실무자회담(서울)
- 수석대표: 신정섭 외무부 통상국장 / 다미스케 완타누키 통산성 정무차관
- 4.7.-9. 1976년도 제3차 한·일본 생사료회담(서울)
- 수석대표: 신정섭 외무부 통상국장 / 마에다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
- 4.8.-16. 이재설 주인도네시아대사 파푸아뉴기니 독립경축식 참석
- 4.9.-14. Sullivan, John 호주 하원의원 방한

- 4.10.-14. Montanaro, Sabino Agosto 파라과이 내무장관 방한
- 4.11. 유양수 주오만대사 신임장 제정(사우디아라비아상주)
- 4.12.-14. 미주지역 공관장회의(New York)
 - 박동진 외무부장관 주재
- 4.13. Abd Mohamed Hegazy 전 이집트 수상 방한
- 4.13.-14. Jaidi, Abdeslam 모로코 특사 방한
- 4.15. 북한·앙골라 외교관계수립
- 4.16.-19. Tan Boon Seng 싱가포르 외무성 정무차관보 방한
- 4.16.-22. Wilson, Charles H. 미국 하원의원 방한
- 4.17. 한·바레인 외교관계수립
- 4.17.-21. Morgan, Robert 미국 상원의원 방한
- 4.18.-22. Muldoon, Robert David 뉴질랜드 수상 방한
- 4.19.-21. 김재규 건설부장관 인도네시아 방문
- 4.19.-21. Mason, Roy 영국 국방상 방한
- 4.19.-22. 경제사절단 수단 방문
 - 단장: 민병권 제2부임소장관
- 4.19.-24. 허담 북한 외교부장 헝가리, 알제리 방문
 - 헝가리(4.19.~24.), 알제리(4.24.~28.)
- 4.19.-24. 제118차 국제의원연맹(IPU) 이사회(Mexico City)
 - 수석대표: 박준규 국회의원
- 4.20. 한·뉴질랜드 간의 무역 및 경제기술협력 협정 서명, 발효(조약 제572호)
- 4.20.-23. 친선사절단 수단 방문
 - 단장: 민병권 무임소장관
- 4.20.-25. Birgit, O 및 Evliyagil, N. 터키 하원의원 방한
- 4.21. 한·수단 영사관계수립
 - 주Khartoum(수단) 총영사관 개설
- 4.22. 노신영 제6대 주제네바대사 신임장 제정
- 4.22.-25. 김재규 건설부장관 중국(구 중공) 방문

- 4.22.-29. Macki, Ahmed 주미국 오만대사 방한
- 4.25.-30. 가봉 통상사절단 방한
- 단장: Rawiri, Georges 교통장관, Moussirou, Etienne 상공장관
- 4.25.-30. Al-Sabah, Mubarak J. A. 쿠웨이트 수상 특별보좌관 방한
- 4.25.-5.3. Baudis, Pierre 프랑스 하원의원 방한
- 4.26.-5.4. 제29차 세계식량계획(WFP) 정부간위원회(Rome)
- 4.26.-5.4. Alfredo M. Lamaion 우루과이 국가비상위원 방한
- 4.26.-5.8. 김경원 대통령국제정치담당특별보좌관 미국, 캐나다 방문
- 미국(4.26.~5.3.), 캐나다(5.3.~8.)
- 4.28. 한·시에라리온 친선협회 창립
- 4.28.-5.2. Gairy, Eric M. 그레나다 수상 방한
- 4.29.-5.3. Horacio Bonilla, Oscar 과테말라 국회의원 방한
- 4.30.-5.4. Abramovitz 미국 국방성 동아시아및태평양담당 부차관보 방한
- 5.1.-3. Murphy, John M. 미국 하원의원 방한
- 5.1.-22. 특별사절단 아프리카 순방(케냐,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 단장: 윤하정 외무부차관
- 케냐(5.3.~5.), 우간다(5.5.~8.), 케냐(5.9.~13.), 코트디부아르(5.15.~17.), 라이베리아(5.17.~19.)
- 5.2.-31. 제4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Nairobi)
- 수석대표: 윤하정 외무부차관
- 5.3.-23. 제29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Geneva)
- 수석대표: 신현확 보건사회부장관
- 5.5. 한·페루 간의 무역협정 발효(조약 제573호)
- 5.7.-11. Ashari, D. 인도네시아 외무차관 방한
- 5.9.-15. Pratt, Solomon A.J. 시에라리온 법무상 방한
- 5.9.-15. Toussaint, Michael 벨기에 통상장관 방한
- 5.10. 프랑스·한 친선협회 창립
- 5.10.-14. 제2차 한·벨기에 통상장관회담(서울)
- 수석대표: 장예준 상공장관 / Toussaint, Michael 통상장관

- 5.11. 한·독일 간의 한국선급협회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3호)
- 5.12.-23.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미국 및 서구 순방(프랑스, 영국)
 - 미국(5.12.~15.), 프랑스(5.16.~19.), 영국(5.19.~23.)
- 5.13. 신기흠 제3대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 신임장 제정
- 5.14. 북한, 77그룹 가입
- 5.14.-19. Traore, Moussa 말리 국가수반 겸 총리 북한 방문
- 5.16.-20. Cortazzi, H. 영국 외무성 아주담당차관보 방한
- 5.17.-20. 제18차 아시아생산성기구(APO) 이사회(Manila)
 - 수석대표: 김선길 상공부 국제협력차관보
- 5.17.-22. 제44차 국제수역국(IOC) 총회(Paris)
 - 수석대표: 이창구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장
- 5.18. 부산, San Francisco시(미국) 자매결연
- 5.18. 한유동 주말라위대사 신임장 제정(우간다상주)
- 5.18.-28. 우간다 회교사절단 방한
- 5.19. 한·파푸아뉴기니 외교관계수립
- 5.19.-21. Burney, D.H. 캐나다 외무성 태평양지역국장 방한
- 5.19.-24. Baba, Dey Ould Sidi 모로코 특사(종교장관) 방한
- 5.19.-26. Subuhi, Mahmoud 리비아 대통령 종교담당 고문 방한
- 5.20.-24. Moreno Martinez, Alfonso 주유엔 도미니카공화국대사 방한
- 5.20.-26. Kamaruddin 말레이시아 수상실 외교담당정무차관 방한
- 5.20.-6.5. 국회 한국전쟁 참전의원단 미국 방문
 - 단장: 최영희 외무위원장
- 5.21. Al-Ansari, Sheikh 카타르 상공회의소장 방한
- 5.21.-26. Bhutto, Ali 파키스탄 수상 북한 방문
- 5.22. 한·모로코 간의 무역협정 서명, 발효(조약 제575호)
- 5.22. 한·모로코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서명, 발효(조약 제576호)
- 5.22.-24. 제7차 한·미국 상공장관 회담(서울)
 - 수석대표: 장예준 상공부장관 / Richardson, Elliot L. 상무장관

- 5.22.-30. Abdullah 말레이시아 과학기술처차관 방한
- 5.26. 이종목 북한 외교부 부부장 알제리 방문
- 5.26. 송광정 주베네수엘라대사 가이아나 독립10주년 기념식 참석
- 5.27. Horam, Yehuda 이스라엘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 5.27.-28. 제9차 한·미국 연례안보협의회(Honolulu)
 - 수석대표: 서동철 국방부장관 / Schlesinger, J.R. 국방장관
- 5.27.-31. Jonathan, Leabua 레소토 수상 방한
 - Molapo, Charles D. 레소토 외상 수행
- 5.27.-6.1. Saborio, Vargas 주유엔 코스타리카공사 방한
- 5.28.-29. Antonio Ueno 브라질 하원 외교위원 방한
- 5.29.-6.12. 사우디아라비아 군사사절단 방한
 - 단장: Al-Zuhair, Assad 공군사령관
- 5.30.-6.2.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Algier, 알제리)
- 5.31. 한·레소토 간의 의료기술협력약정 체결
- 5.31. 황호을 제5대 주튀니지대사 신임장 제정
- 5.31.-6.4. 한·독일 통상실무자회의(서울)
- 5.31.-6.6. 미얀마(구 버마) 산업시찰단 방한
 - 단장: Tin Swe 제1공업성장관
- 5.31.-6.11. 유엔 인간주거회의(Vancouver)
 - 수석대표: 이용훈 주벤쿠버총영사
- 6.1. 북한·파푸아뉴기니 외교관계수립
- 6.1. 문철순 제8대 주터키대사 신임장 제정
- 6.1.-7. Davies, Percy R. 시에라리온 국회의장 북한 방문
- 6.1.-11. 공진태 북한 부총리 소련 방문
- 6.2.-4. 한·오스트리아 섬유류 쿼터회담(Vienna)
- 6.2.-22. 제6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Geneva)
- 6.4. 한·미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서명

- 6.4.-11. Ratsiraka, D.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북한 방문
- 6.4.-18. 제6차 미주기구(OAS) 총회(Santiago, 칠레)
- 6.6.-8. 박동진 외무부장관 태국 방문
- 6.7.-9. 한·캐나다 섬유류 쿼터회담(Ottawa)
- 6.7.-12. 이민우 국회 부의장 중국(구 중공) 방문
- 6.8. 한상국 제2대 주노르웨이대사 신임장 제정
- 6.8.-11. Monsalve Arango, Luis 콜롬비아 하원 부의장 방한
- 6.8.-15.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프랑스 방문
- 단장: 이철승 의원
- 6.9.-11. 박동진 외무부장관 일본 방문
- 6.10. 노르웨이 사회주의 좌익당 대표단 북한 방문
- 단장: Berit, S. 부당수
- 6.10.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설립을 위한 전권대표회의(Rome)
- 수석대표: 조상호 주이탈리아대사
- 6.14. 한·이란 간의 무역협정 발효(조약 제578호)
- 6.14.-17. 제2차 세계식량이사회(WFC) 총회(Rome)
- 수석대표: 이병석 주이탈리아 농무관
- 6.14.-18. Caglayanil, Ihsan Sabri 터키 외상 방한
- 6.14.-21. Simelane, J.L.F. 주유엔 스와질랜드대사 방한
- 6.15. 남철 제3대 주아르헨티나대사 신임장 제정
- 6.15.-16. 한·미국 원자력 및 에너지 기술협력회의(Washington, D.C.)
- 수석대표: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 / Irving, Frederick 국무성
해양·국제환경및과학문제담당차관보
- 6.15.-17. Yusof, Mohamed 말레이시아 문공장관 방한
- 6.15.-20. Kagule-Magambo 우간다 지질광산청장 방한
- 6.17. Montenegro, W. 주한 볼리비아대사 신임장 제정(일본상주)
- 6.17. Horne, Donald James 제5대 주한 호주대사 신임장 제정
- 6.17.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개도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ESCAP 방콕협정) 발효(조약 제574호)

- 6.17. 한·터키 간의 항공운수업무협정 서명
- 6.17. 주Las Palmas(스페인) 총영사관 개설
- 6.18. 최석신 제2대 주파나마대사 신임장 제정
- 6.19. 외무부, 중국(구 중공)의 한국어선(제1취성호 및 제1정신호) 납치에 대한 성명 발표
- 6.21.-23. 한·스웨덴 섬유류 쿼터회담(Stockholm)
- 6.21.-7.1. 정일권 국회의장 동남아 순방(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태국(6.21.~25.), 말레이시아(6.25.~26.), 인도네시아(6.27.~7.1.)
- 6.22.-23. 제2차 한·네덜란드 혼성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함태혁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Overmas, L.M. 경제성 대외경제협력국장
- 6.22.-7.1. Petersen, Gert 덴마크 사회인민당 당수 북한 방문
- 6.23. 한·세네갈 간의 무역협정 발효(조약 제579호)
- 6.23. 장지량 제3대 주덴마크대사 신임장 제정
- 6.24. Paris 주재 북한통상대표부 개설
- 6.24.-25. 한·노르웨이 섬유류 쿼터회담(Oslo)
- 6.25. 북한·나이지리아 외교관계수립
- 6.25.-28. Al-Ayyar, Hamad Mubarak 쿠웨이트 주택상 방한
- 6.25.-31. Salazar, Fernando 주유엔 코스타리카대사 방한
- 6.26.-7.3. 연하구 특사(주케냐대사) 세이셸 독립경축식 참석
- 6.28. 한·세이셸 외교관계수립
- 6.28. 주바레인대사관 개설
- 6.28.-7.5. 제17차 아·아법률자문위원회(AALCC) 총회
- 수석대표: 전상진 주말레이시아대사
- 6.29.-7.1. 제6차 한·독일 경제실무자회담(Bonn)
- 수석대표: 이선기 경제기획원 경제협력차관보 / Boll, Winfried 경제협력성 지역담당국장
- 7.1. 연하구 초대 주세이셸대사 신임장 제정(케냐상주)
- 7.2. 이남기 초대 주과테말라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7.2. 안광호 제5대 주벨기에대사 신임장 제정

- 7.2.-6. 제13차 아프리카단결기구(OAU) 정상회담(Port-Louis, 모리셔스)
- 7.4.-10. Ariburun, Tekin 터키 상원의장 방한
- 7.6. 주볼리비아대사관 개설
- 7.6. 강영규 제9대 주필리핀대사 신임장 제정
- 7.9. 박영 제2대 주중앙아프리카대사 신임장 제정
- 7.10. Kerekou, M. 베냉 대통령 북한 방문
- 7.11.-14. Minah, Francis M. 시에라리온 외상 방한
- 7.11.-16. Gonjout, Paul 가봉 국회의장 및 Felix, Jean 의원친선협회 회장 방한
- 7.12. 한우석 제5대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신임장 제정
- 7.12.-16. N'Jie, A.A.B. 감비아 외상 방한
- 7.13. 윤찬 제2대 주방글라데시대사 신임장 제정
- 7.14. 한·콜롬비아 간의 문화협정 발효(조약 제577호)
- 7.14. 한·감비아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 7.14.-20. De Vlies, Paul 벨기에·한 의원친선협회장 방한
- 7.15.-16. Gundelach, Olav 구주공동체(EC) 집행위원 방한
- 7.16.-19. Valeo, Francis 미국 상원 사무총장 방한
- 7.16.-19. Derwinski, Edward 미국 하원의원 방한
- 7.16.-20. Hussain I. Mansouri 사우디아라비아 도로철도성 차관 방한
- 7.16.-8.5. 특별사절단 중남미 순방(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 단장: 김동조 대통령외교담당특별보좌관
 - 엘살바도르(7.16.~21.), 온두라스(7.22.~24.), 아르헨티나(7.25.~27.), 브라질(7.27.~8.5.)
- 7.17.-8.1. 특별사절단 중동 순방(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카타르)
 - 단장: 이동원 전 외무부장관
 - 쿠웨이트(7.17.~20.), 바레인(7.20.~23.), 오만(7.23.~26.), 아랍에미리트연합국(7.26.~29.), 카타르(7.29.~8.1.)
- 7.18. Ob, Vasuratna 태국 상원의원 방한
- 7.18.-20. Ueki, Shigeaki 브라질 광산동력성 장관 방한
- 7.18.-22. 에콰도르 통상사절단 방한
 - 단장: Alvarez, Adolfo H. 주일본 에콰도르대사대리

- 7.18.-8.14. 특별사절단 아프리카 순방(니제르,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코트디부아르, 차드,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카메룬)
 - 단장: 윤석현 주프랑스대사
 - 니제르(7.19.~23.),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7.23.~26.), 코트디부아르(7.26.~29.), 차드(7.30.~8.3.),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8.5.~9.), 카메룬(8.9.~14.)
- 7.19.-20. Schmitt-Vockenhausen, H. 독일 하원부의장 방한
- 7.19.-22. 제2차 한·태국 통상장관 회담(서울)
 - 수석대표: 장예준 상공부장관 / Lathapipat, D. 통상장관
- 7.19.-24. Liu Kuo-tsai 중국(구 중공) 입법원 부원장 방한
- 7.20. 이범석 제2대 주인도대사 신임장 제정
- 7.20. Sawetamal, Suban 제5대 주한 태국대사 신임장 제정
- 7.21.-31. 특별사절단 아프리카 순방(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말라위)
 - 단장: 노신영 주제네바대사
 - 보츠와나(7.21.~24.), 스와질랜드(7.26.~27.), 말라위(7.28.~31.)
- 7.21.-8.3. 방글라데시 경제사절단 방한
 - 단장: Khair, S.A. 경제기획성 기획위원
- 7.22.-27. Al-Ghunaim, Abdul R. 쿠웨이트 교통장관 방한
- 7.26.-29. 제11차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서울)
- 7.29.-30. Schweitzer, Carl-Christoph 독일 하원의원 방한
- 7.30.-8.9. Bandio, J.A. 주유엔 중앙아프리카대사 방한
- 7.31.-8.2. 제1차 한·프랑스 통상장관 회담(서울)
 - 수석대표: 장예준 상공부장관 / Barre, Raymond 대외통상장관
- 7.31.-8.2. De Laboulaye, F.L. 프랑스 외무성 정무차관보 방한
- 8.1.-5. Frank, Antonio 중앙아프리카 외상 방한
- 8.2. 박근 제7대 주태국대사 신임장 제정
- 8.2.-9.17.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 제5회기(New York)
 - 수석대표: 문덕주 주유엔대사
- 8.3. 한·베네룩스국가 간의 사증면제협정을 수리남에 확대 적용하는 한·수리남 간의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4호)
- 8.4.-10. Haji, Datuk 말레이시아 건설동력장관 방한

- 8.5.-13. 제1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극동지역 총회(Manila)
- 수석대표: 함만춘 농수산부 농정차관보
- 8.8.-10. Gaylor, Noel 미국 태평양지구 사령관 방한
- 8.8.-11. Garcia Vespa, Hernando 볼리비아 외무차관 방한
- 8.9.-13. Khama 보츠와나 대통령 북한 방문
- 8.11. 이재설 초대 주파푸아뉴기니대사 신임장 제정(인도네시아상주)
- 8.16.-19.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Colombo)
- 8.16.-20. 박성철 북한 총리 스리랑카 방문
- 8.16.-21. 제2차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윤하정 외무부차관 / A.M. Alireza 외무차관
- 8.18.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미류나무 사건) 발생
- 8.19.-25. Trotter, N. 영국 하원의원 방한
- 8.21.-24. Waiyaki, M. 케냐 외상 방한
- 8.21.-27. Ake, Simeon 주유엔 코트디부아르대사 방한
- 8.22.-27. Phillips, R. Vaovasamanaia 서사모아 재무장관 방한
- 8.22.-27. Malietoa Tanumafili 2세 서사모아 국가원수 비공식 방한
- 8.24. 북한·세이셸 외교관계수립
- 8.25.-28. Wagner, Allan 페루 외무성 경제협력국장 방한
- 8.27. Crema, Mario 제5대 주한 이탈리아대사 신임장 제정
- 8.28.-31. Chalid, Idham 인도네시아 국회의장 방한
- 8.29.-9.17. 박충훈 한·미국 경제협의회장 미국 방문
- 8.30. 북한, 남북조절위원회간 및 남북적십자간의 직통전화 운용 중단
- 8.31. 천병규 제6대 주스위스대사 신임장 제정
- 8.31.-9.7. 프랑스 하원 문화분과위원단 방한
- 단장: Gissinger, A. 의원
- 8.31.-9.23. 특별사절단 중남미 순방(페루, 에콰도르, 파나마, 멕시코)
- 단장: 김동조 대통령외교담당특별보좌관
- 페루(8.31.~9.5.), 에콰도르(9.5.~8.), 파나마(9.8.~11.), 멕시코(9.11.~23.)

- 9.1. 한·일본 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약정 서명, 발효(조약 제580호)
- 9.2. 한·벨기에 간의 창원직업훈련원을 위한 한-벨기에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발효(조약 제581호)
- 9.3. 한·벨기에, 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제583호)
- 9.4. 한우석 주니제르대사 신임장 제정(코트디부아르 상주)
- 9.5.-12. Leifland 스웨덴 외무성 정무차관보 방한
- 9.5.-22. 김경원 특사(대통령국제정치담당특별보좌관) 북구 순방(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 노르웨이(9.5.~8.), 스웨덴(9.8.~11.), 덴마크(9.11.~15.), 아이슬란드(9.15.~18.), 핀란드(9.18.~22.)
- 9.6.-10. 제27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회의(Manila)
 - 수석대표: 허세린 주필리핀대사관 1등서기관
- 9.7. 남철 주파라과이대사 신임장 제정(아르헨티나상주)
- 9.8.-12. Kaufman, G. 영국 산업성장관 방한
- 9.12.-16. Sallinger, Rudolf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회장 방한
- 9.13.-18. 제11차 한·중국(구 중공) 경제각료회담(서울)
 - 수석대표: 남덕우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 손운선 경제부장
- 9.14. 한상국 주아이슬란드대사 신임장 제정(노르웨이상주)
- 9.16.-18. 구주공동체(EC) 대개발도상국 특혜관세(GSP) 전문가단 방한
- 9.16.-21. 최호중 국무총리 특사(외무부 경제차관보) 피지 방문
- 9.17.-10.7. 경제사절단 아프리카 및 중남미 순방(케냐, 이집트,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 단장: 태완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케냐(9.17.~20.), 이집트(9.20.~23.), 멕시코(9.24.~29.), 콜롬비아(9.26.~29.), 브라질(9.29.~10.3.), 우루과이(10.3.~5.), 칠레(10.5.~7.)
- 9.19.-23. 강창설 항만청장 중국(구 중공) 방문
- 9.20.-24. 제6차 아시아노동장관회의(Teheran)
 - 수석대표: 최석원 노동청장

- 9.20.-24. 제10차 국제표준화기구(ISO/OIN) 총회(Geneva)
- 9.21.-28. Solaim, Soliman A. 사우디아라비아 통상장관 방한
- 9.21.-29. 제20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Rio de Janeiro)
 - 수석대표: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
- 9.21.-12.22. 제31차 유엔총회
 - 수석대표: 박동진 외무부장관
- 9.22.-10.1. 제63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 및 제119차 이사회(Madrid)
 - 수석대표: 박준규 국회의원
- 9.23. Weisner, M.F. 미국 태평양지구 사령관 방한
- 9.27.-30. 제2차 국제통신위성기구(INTELSAT) 가입국 총회(Nairobi)
 - 수석대표: 박남균 주케냐 참사관
- 9.27.-30. Morera Batres, Porfirio 코스타리카 재무장관 방한
- 9.27.-10.2. Webb, Sir Richard 뉴질랜드 국방참모총장 방한
- 9.27.-10.3. Bendahan, Raul J. 우루과이 공군참모장 방한
- 9.27.-10.5. 제3차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총회(Geneva)
- 9.27.-10.8. 제6차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CCITT) 총회(Geneva)
 - 수석대표: 배호원 체신부 전무국장
- 9.28. 한·일본 외상회담(New York)
 - 박동진 외무부장관 / 고사카 외상
- 9.28.-30. Qays Abdul Momen Al-Zawawi 오만 외상 비공식 방한
- 9.29.-10.3. Martinez, Rigoberto Antonio 엘살바도르 재무장관 방한
- 9.30.-10.7. Spence, Floyd 미국 하원의원 방한
- 10.1.-4. Ong, C.L. 싱가포르 상공회의소장 방한
- 10.3.-6. Sylvester, John 미국 국무성 정보조사국 부국장 방한
- 10.3.-8. 모리타니아 민간사절단 방한
 - 단장: Jiddou, Mohamed O. 순회대사
- 10.4.-7. 한·캐나다 섬유류 쿼터회담(서울)
- 10.4.-8. 제31차 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IMF/IBRD) 총회(Manila)
 - 수석대표: 김용환 재무부장관

- 10.5.-7. Bakke, Karl E. 미국 연방해사위원회 의장 방한
- 10.8.-14. Cabrera Sevilla, Raul 에콰도르 육군참모차장 방한
- 10.9.-12. Razaleigh 말레이시아 재무상 방한
- 10.10.-13. Anane-Binfoh, K. 가나 재무차관 방한
- 10.10.-15. 오스트리아 통상사절단 방한
- 단장: Fitz 상의 아주부장
- 10.10.-26. Mansoor, Al Turki 사우디아라비아 재무차관 방한
- 10.11. 최종익 제5대 주Islamabad(파키스탄) 총영사 부임
- 10.11.-15. Chin, Noel 자메이카 개발은행장 방한
- 10.11.-18. Peal, Jenkins 라이베리아 노동청년및체육장관 방한
- 10.11.-22. Nicols 한·영국 경제협력위원장 방한
- 10.12. 안광호 주룩셈부르크대사 신임장 제정(프랑스상주)
- 10.12.-15. Bofossa W'amber Nkoso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재무장관 방한
- 10.12.-19. 유양수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 카타르 출장
- 10.13. 이택근 제4대 주모로코대사 신임장 제정
- 10.13. 주카타르대사관 개설
- 10.13.-16. Al-Zubair, Mohamed 오만 상공장관 방한
- 10.13.-29. 제6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Geneva)
- 10.14.-20. 제45차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총회(Accra, 가나)
- 10.16.-23. 제8차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총회(Teheran)
- 수석대표: 김용래 총무처 중앙공무원교육원장
- 10.18.-27. 제35차 국제면화자문위원회(ICAC) 총회(San Francisco)
- 10.19.-23. Haji Ramli bin Omar 말레이시아 주택성 정무차관 방한
- 10.23. 김인두 초대 주바레인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0.24.-29. Isnalni, M. 인도네시아 국회부의장 방한
- 10.25.-28. U Hla Phone 미얀마(구 버마) 외상 방한
- 10.25.-11.6. 국제적십자연맹(LRCS) 특별이사회(Geneva)

- 10.26. Blakstad, Bjorn 주한 노르웨이대사 신임장 제정(일본상주)
- 10.26. Contrares Morales, Gregorio 주한 엘살바도르대사 신임장 제정(일본상주)
- 10.26.-11.30. 제19차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총회(Nairobi)
- 수석대표: 연하구 주케냐대사
- 10.29.-11.2. Challah, Badreddin 시리아 상공회의소회장 방한
- 10.29.-11.4. 제2차 아시아대양주우편연합(AOPU) 집행이사회(Pattaya, 태국)
- 수석대표: 김동권 체신부 우정국장
- 10.31.-11.3. 제2차 한·이란 각료공동위원회(Teheran)
- 수석대표: 남덕우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 Ansary, H. 경제재무성 장관
- 10.31.-11.3. Blanco, Juan C. 우루과이 외상 방한
- 10.31.-11.6. 스웨덴 국회의원단 방한
- 단장: Bengston, T. 제1부외장
- 11.1. 주오만대사관 개설
- 11.1.-8. Blanco, Sergio Papa 한·우루과이 친선협회 간사 방한
- 11.2.-6. Kamogue, Abdel K. 차드 외무장관 북한 방문
- 11.3. 오스트리아·한 의원친선협회 창립
- 11.3.-8. Berrah, Ghoulem 코트디부아르 대통령특별보좌관 방한
- 11.9.-12. Mahdi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청장 방한
- 11.12. Spence, Floyd 미국 하원의원 방한
- 11.12.-15. Al-Kazemi, Abdul Mutaleb 쿠웨이트 석유상 방한
- 11.12.-17. Kiki, Albert Maori 파푸아뉴기니 부수상겸외무통상장관겸국방장관 방한
- 11.13. 한·일본 간의 통신시설 확장 및 총북선 복선화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584호)
- 11.13.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서명
- 11.13.-19. Muawia Abubakr Mustafa 수단 건설차관 방한
- 11.14.-20. 가봉 경제사절단 방한
- 단장: Ayo Barro, Alexander 대통령재정·국제문제담당고문
- 11.15.-19. 인도네시아 섬유공업시찰단 방한
- 단장: Djoemena 공업성 방직국장

- 11.17. 북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상주대표부 개설(Paris)
- 11.17.-19. 한·스웨덴 섬유류 쿼터회담(서울)
 - 수석대표: 카포드 외무성 차관보
- 11.19.-25. Verkade 네덜란드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 11.20. 한·스위스 간의 정기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제558호)
- 11.21. 한·이란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1976.12.21. 발효, 조약 제587호)
- 11.22.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발효(조약 제585호)
- 11.22. 한·아프가니스탄 간의 문화협정 서명, 발효(조약 제586호)
- 11.22.-24. 제32차 관세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총회(Geneva)
 - 수석대표: 노신영 주제네바대사
- 11.24. Aponte Lopez, Tito 주한 베네수엘라대사 신임장 제정(일본상주)
- 11.24. Cunningham, J.K. 초대 주한 뉴질랜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1.24.-25. 문덕주 주유엔대사 수리남 독립기념식 참석
- 11.24.-12.1. 재일교포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본 실무자회의(동경)
- 11.25. 한우석 주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대사 신임장 제정(코트디부아르상주)
- 11.27.-12.2. 최호중 외무부 경제차관보 중동 순방(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 쿠웨이트(11.27.~28.), 바레인(11.28.~29.), 카타르(11.29.~30.), 오만(11.30.~12.2.)
- 11.27.-12.4. 최경록 교통부장관 Portillo, Jose Lopez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참석
- 11.29.-30. 제13차 한·일본 무역회담(서울)
 - 수석대표: 이창수 외무부 통상국장 / 나카에 요스케 외무성 아시아국장
- 11.29.-12.15. 실무조사단 중서부아프리카 순방(세네갈, 코트디부아르, 가봉, 카메룬)
 - 단장: 노영찬 외무부 아중동국장
 - 세네갈(12.2.~4.), 코트디부아르(12.4.~6.), 가봉(12.6.~8.), 카메룬(12.8.~11.)
- 11.29.-12.15. 정우영 외무부 방교국장 동부아프리카 순방(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 수단(12.2.~4.), 에티오피아(12.4.~6.), 케냐(12.6.~9.), 우간다(12.9.~11.)
- 11.30. Berrah, G.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외교담당고문 방한
- 11.30.-12.3. Putzeys Alvarez, G. 과테말라 문교장관 방한
- 12.1. 주Atlanta(미국) 총영사관 개설

- 12.1.-4. Baha El Din Mohamed Idris 수단 무임소장관 방한
- 12.5. Al-Harami, Karim Ahmed 오만 공공사업성장관 방한
- 12.8.-13. El Awad, Haroun 수단 통상장관 방한
- 12.9. 한·수단 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 12.11.-15. Murphy, John M. 미국 하원의원 방한
- 12.14. 한·독일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서명
- 12.14. 한·태국 간의 무역협정의 부표 수정 서명, 발효(외무부고시 제5호)
- 12.15.-21. Jumbe, A. 탄자니아 제1부통령 북한 방문
- 12.17. Greaves, H.A. 라이베리아 국방장관 방한
- 12.17.-18. 제1차 한·인도 합동무역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최호중 외무부 경제차관보 / Verma, A. N. 상공성 차관보
- 12.18. 장예준 상공부장관 중국(구 중공) 방문
- 12.19. 안광호 주구주공동체(EC)대사 신임장 제정(벨기에상주)
- 12.19.-22. Das, Bipinpal 인도 외무차관 방한
- 12.19.-24. 김유탉 국회의원 중국(구 중공) 방문
- 12.20.-28. Hamdi, Ibrahim 북예멘 국가원수 북한 방문
- 12.22. 한·구주경제공동체(EEC)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서명
- 12.27.-31. Idris 인도네시아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방한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해설·요약 -

1976년

인 쇄 | 2020년 12월 1일

발 행 | 2020년 12월 14일

발 행 처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기 획 외교부 기획조정실 외교사료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편찬위원 박재현, 이태로, 이휘진, 최석인, 하태윤, 한재영

감수위원 이호성

인 쇄 제일기획
Tel. 02) 2269-8900~2